

국어사학회·구결학회·국립민속박물관 공동
2024년도 겨울 전국학술대회

한국의 박물관 속 국어사 자료

2025. 1.24 (금)

국립민속박물관 강당
전통문화배움터



국어사학회·구결학회·국립민속박물관 공동
2024년도 겨울 전국학술대회

한국의 박물관 속 국어사 자료

일시: 2025년 1월 24일 (금)

장소: 국립민속박물관 강당, 전통문화배움터

주최: 국어사학회, 구결학회, 국립민속박물관

후원: 도서출판 역락

국어사학회·구결학회·국립민속박물관 공동

2024년도 겨울 전국학술대회 세부 일정

- 일자: 2025년 1월 24일(금)
- 장소: 국립민속박물관 강당, 전통문화배움터
- 주최: 국어사학회, 구결학회, 국립민속박물관
- 기획 주제: 한국의 박물관 속 국어사 자료

2024년도 겨울 전국학술대회 일정표		
개회식(장소: 강당)		사회: 안예리(한중연)
10:00-10:10	개회사: 김유범(고려대, 국어사학회장)	
1부 개인 발표		
	국어사학회(장소:강당) 사회: 최소영(부산대)	구결학회(장소:전통문화배움터) 사회: 문현수(인하대)
10:10-10:40	[개인 발표 1] 제 목: 근대 대학 과학 교과서 『동물학』(1906)의 국어사적 가치 발표자: 선한빛(전남대) 토론자: 송미영(충남대)	[개인 발표 5] 제 목: 王妃에게 獻呈된 塲- 武寧王陵 銀釧 銘文의 再解釋 발표자: 주영민(서울시립대) 토론자: 하정수(동국대)
10:40-11:10	[개인 발표 2] 제 목: 잡지『어린이』속 광고 언어와 문화: 국립한글박물관 소장본을 중심으로 발표자: 김민지·신하영(국립한글박물관) 토론자: 정용서(연세대 동은의학박물관)	[개인 발표 6] 제 목: 崔世珍의 吏文諸書輯覽에 대한 한국어학적 고찰 발표자: 서엽(남경대) 토론자: 김성주(동국대)
11:10-11:20	휴식(10분)	휴식(10분)
11:20-11:50	[개인 발표 3] 제 목: ‘불한당’의 어원 및 의미 변화에 대하여 발표자: 조항범(충북대) 토론자: 황선엽(서울대)	[개인 발표 7] 제 목: 고구려 인명과 지명에 쓰인 한자용례의 음운론적 비교연구 발표자: 양홍매(다카사키경제대) 토론자: 고경재(고려대)
11:50-12:20	[개인 발표 4] 제 목: ‘-으려’가 포함된 어미 결합형에 대하여 발표자: 유필재(울산대) 토론자: 이지영(서강대)	[개인 발표 8] 제 목: 한국 한자음 운미 ‘i’ 첨가 현상의 성조 편향 고찰 발표자: 장준익(남경대) 토론자: 이준환(전남대)
12:20-12:30	총회 및 연구 윤리 교육	총회 및 연구 윤리 교육
12:30-14:00	점심 식사(90분)	
2부 기획 주제 발표(장소: 강당)		사회: 고은숙(국립한글박물관)
14:00-14:35	[기획 발표 1] 발표 주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국어사 자료 소개 발 표: 이용현(경북대 인문학술원)·고은숙(국립한글박물관)	
14:35-15:10	[기획 발표 2] 발표 주제: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국어사 자료 소개 발 표: 이상백(부산대)	
15:10-15:20	휴식(10분)	
15:20-15:55	[기획 발표 3]	

	발표 주제: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국어사 자료 소개 - 한글 키워드를 중심으로 발 표: 최명림(국립민속박물관)	
15:55-16:30	[기획 발표 4] 발표 주제: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국어사 자료 소개 - '어류다반'을 중심으로 발 표: 박현욱(서울역사박물관)	
16:30-16:40	휴식(10분)	
종합 토론		좌장: 백두현(경북대)
16:40-17:40	토론자: 허인영(인하대), 김봉좌(성신여대), 김미미(국립한글박물관), 정승혜(수원여대)	
폐회식		사회: 허인영(인하대)
17:40-17:50	폐회사: 이용(서울시립대, 구결학회장)	

목 차

제 1 부 개인 발표

<국어사학회>

선한빛 ▶ 근대 대학 과학 교과서 『동물학』(1906)의 국어사적 가치	9
송미영 ▶ “근대 대학 과학 교과서 『동물학』(1906)의 국어사적 가치”에 대한 토론문	25
김민지·신하영 ▶ 잡지 『어린이』 속 광고 언어와 문화: 국립한글박물관 소장본을 중심으로	27
정용서 ▶ “잡지 『어린이』 속 광고 언어와 문화: 국립한글박물관 소장본을 중심으로 치”에 대한 토론문	45
조항범 ▶ ‘불한당’의 어원 및 의미 변화에 대하여	47
황선엽 ▶ “‘불한당’의 어원 및 의미 변화에 대하여”에 대한 토론문	75
유필재 ▶ ‘-으려’가 포함된 어미 결합형에 대하여	77
이지영 ▶ “‘-으려’가 포함된 어미 결합형에 대하여”에 대한 토론문	89

<구결학회>

주영민 ▶ 王妃에게 獻呈된 塋- 武寧王陵 銀釧 銘文의 再解釋	93
하정수 ▶ “王妃에게 獻呈된 塋- 武寧王陵 銀釧 銘文의 再解釋”에 대한 토론문 ...	105
서엽 ▶ 崔世珍의 吏文諸書輯覽에 대한 한국어학적 고찰	107
김성주 ▶ “崔世珍의 吏文諸書輯覽에 대한 한국어학적 고찰”에 대한 토론문	143
양홍매 ▶ 고구려 인명과 지명에 쓰인 한자용례의 음운론적 비교연구	147
고경재 ▶ “고구려 인명과 지명에 쓰인 한자용례의 음운론적 비교연구”에 대한 토론문	165
장준익 ▶ 한국 한자음 운미 ‘i’ 첨가 현상의 성조 편향 고찰	167
이준환 ▶ “한국 한자음 운미 ‘i’ 첨가 현상의 성조 편향 고찰”에 대한 토론문	177

제 2 부 기획 주제 발표

이용현·고은숙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국어사 자료 소개	181
이상백 ▶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국어사 자료 소개	209
최명림 ▶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국어사 자료 소개 - 한글 키워드를 중심으로	229
박현욱 ▶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국어사 자료 소개 - '어류다반'을 중심으로	251

종합토론

허인영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국어사 자료 소개"에 대한 토론문	279
김봉좌 ▶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국어사 자료 소개"에 대한 토론문	281
김미미 ▶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국어사 자료 소개 - 한글 키워드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283
정승혜 ▶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국어사 자료 소개 - '어류다반'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285
국어사학회 연구윤리 규정	293
구결학회 연구윤리 규정	297

제1부

개인 발표(국어사학회)

근대 대학 과학 교과서 『동물학』(1906)의 서지적 고찰

선한빛(전남대학교 유라시아인문융합연구소)

I. 서론

이 글의 목적은 애니 로리 아담스 베어드 선교사(Annie Laurie Adams Baird, 1864~1916, 한국식 이름 ‘안애리(安愛理)’¹⁾가 송실대학²⁾에서 과학 교과서로 사용하기 위해 편역한 『동물학』(1906)을 국어사 연구 자료로 소개하고 자료가 국어사적으로 가지는 가치를 밝히는 것이다.

조선의 과학 교육은 한국 최초의 근대 학교로 평가 받는 원산학사(元山學舍)에서 시작되었다. 원산학사는 1883년 8월 28일에 민간 주도로 함경남도 원산에 설립된 중등학교이다. 1886년에는 정부가 주도하여 관립 근대 학교인 육영공원(育英公院)을 설립하였는데 교육 과정에 과학을 포함하였다. 19세기에는 개신교 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선교사들이 세운 기독교계 근대 학교들이 설립되었다. 1885년 8월 3일에는 미국의 북감리회 소속 선교사 아펜젤러(Henry Gerhart Appenzeller, 1858-1902)가 배재학당(培材學堂)을, 1886년에는 같은 소속의 선교사 메리 플래처 스크랜튼(Mary Fletcher Scranton, 1832~1909)이 이화학당(梨花學堂)을, 1897에는 윌리엄 M. 베어드 선교사가 송실학당(崇實學堂)을 설립하면서 선교사들이 주도한 근대 과학 교육이 실시되었다. 이는 조선에 서양식 근대 과학 교육이 형성된 배경이 되었다. 서구의 새로운 문물은 주로 개신교 선교사들을 통해서 조선에 유입되었다. 그들은 개신교를 전파하면서 조선의 근대 교육 체계를 확립하고 고등 교육을 보급하였다. 그 중에서도 교과서의 개발·출판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성과이다.³⁾

1) 애니 L. A. 베어드는 1906년에 송실대학을 설립한 윌리엄 마틴 베어드 선교사(William. Martyn Baird, 1862~1931, 한국식 이름 ‘배위량(裴偉良)’의 부인이다. 윌리엄 M. 베어드는 1891년에 미국 북장로교에서 조선의 선교사로 파견되어 애니 베어드와 함께 조선에 왔다. 애니 L. A. 베어드의 삶은 박보경(2017), 이인성(2022)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2) 송실대학은 송실학당에 설치된 대학부로, 오늘날 송실대학교의 전신(前身)이다.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는 부산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중, 1896년 10월에 조선 선교부의 교육 고문으로 임명되면서 서울로 거처를 옮겼다. 이듬해 8월에 조선 선교부 연례 모임이 열렸는데, 이곳에서 그는 「우리의 교육 정책(Our Educational Policy)」을 발표하였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10월에 평안남도 평양 신양리로 이주하여 송실학당을 개설하였다. 학생 수가 증가하면서 송실학당에도 고등 교육이 필요해졌다. 이에 조선 선교부는 1906년에 학부 설치를 허가하였는데, 이름을 송실대학이라고 이름지었다(김명배(2016. 4. 11.)), 「[조선 문명 개화에 힘쓴 윌리엄 베어드] 교육 수요 많은 평양 파견돼 송실학당 세워」, 국민일보,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93268>(검색일: 2024. 3. 5.)).

3) 한명근(2019: 66)에서는 1900년대에 접어들면서 주로 기독교 학교에서 학교 교과서를 발행했는데, 특히 수학, 천문지리, 동·식물학, 물리·화학 교과서의 비중이 높았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서양식 근대 과학 교육과 과학 교과서의 출현과 관련한 내용은 여상인·박종석·우규환(1997), 박종석(2007), 김연희(2016) 등을, 근대 과학 교과서의 발행과 검정에 대한 내용은 박종석·정병훈·박승재(1998)를 참고할 수 있다.

이 글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동물학』(1906)은 현전하는 동물학 교과서 중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 받는 근대 한글 과학 교과서이다.⁴⁾ 『동물학』(1906)은 선교사가 기독교계 학교에서 과학 교과서로 사용하기 위해 편역한 자료라는 점에서 그동안 교육학적 관점에서 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교육학적인 논의로는 근대의 과학 교과서와 교육 과정을 다룬 박종석·정병훈·박승재(1998), 박종석(2007), 허재영(2020), 오선실(2020), 오지석(2020), 오지석(2021), 李高恩(2023) 등이 있다. 박종석(2007), 오선실(2020), 오지석(2020), 오지석(2021) 등은 근대 과학 교과서로서 『동물학』(1906)을 소개하였는데, 박종석(2007)에서는 『동물학』(1906)의 발행 배경, 발행 정보, 내용 구성 및 체제를 간략하게 제시하였고 오지석(2020)에서는 『동물학』(1906)을 자세히 해제하여 자료의 의의를 함께 밝혔다. 허재영(2020), 李高恩(2023)은 헐버트 교과서와의 관련성을 논의하였다. 박종석·정병훈·박승재(1998)에서는 1895-1915년에 이루어진 과학 교과서의 발행·검정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학부 및 총독부 인가 교과용 도서 중 하나로 『동물학』(1906)을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출판 문화, 기독교, 번역, 전문 용어와 관련된 논의에서 『동물학』(1906)을 다루었다. 출판 문화의 측면에서 『동물학』(1906)을 다룬 논의로는 김성연(2017)과 황민호(2021) 등이 있다. 김성연(2017)에서는 조선예수교서회의 출판 전략을 설명하면서 『동물학』(1906)의 사례를 들었다. 황민호(2021)은 송실학당의 출판 문화를 다루면서 『동물학』(1906)의 발간과 구성을 기술하였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논의로는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편(2009), 박보경(2017) 등이 있는데, 편역자인 애니 L. A. 베어드의 선교 사업의 결과물로서 『동물학』(1906)을 다루었다. 김성연(2015)에서는 번역서로서 『동물학』(1906)이 가지는 가치를 언급하였고, 허재영(2016)에서는 『동물학』(1906) 속 생물학 전문 용어의 생성과 특징을 논의하였다. 또한 『동물학』(1906)은 애니 베어드 편역, 오지석 해제(2020)으로 영인되었는데, 이는 2020년에는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에서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동물학』(1906)을 영인하여 자료 총서로 간행한 것이다.⁵⁾

이처럼 『동물학』(1906)은 지금까지 선교사가 편역한 근대 과학 교과서라는 측면에서 특정 분야에서만 다루어져 왔다. 그런데 이 자료는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는 만큼, 국어사적으로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 특히 현재 20세기 초기의 국어사 연구 자료들은 계속해서 발굴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동물학』(1906)과 같이 다른 분야의 자료보다는 전통적인 연구 자료나 국어 교과서, 언간 등에 한정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애니 L. A. 베어드가 편역한 『동물학』(1906)에 반영된 20세기 국어를 연구하기 위한 선행 작업으로서 자료의 서지적인 측면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동물학』(1906)이 어떻게 해서 발간되었는지, 실제 송실학당 및 송실대학에서 동물학 수업을 언제부터 운영했는지 그 경위가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어 『동물학』(1906)의 논의가 지금까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베어드 선교사 부부의 선교 문서⁶⁾, 송실대학교의 역사 자료⁷⁾, 선행 논의들을 토대로 『동물학』(1906)의 발간 과정과 동물학

4) 오지석(2020: 12)에서는 대한제국기 동물학 관련 교과서 목록(7종)과 허재영(2016)을 바탕으로 애니 L. A. 베어드의 『동물학』이 현재까지 알려진 동물학 교과서 중 가장 앞선다고 보았다. 오지석(2020: 20)에 수록된 대한제국기 동물학 관련 교과서로는 『동물학』(1906, 애니 L. A. 베어드 역), 『新編動物學』(1908), 『初等動物學教科書』(1908), 『初等動物學』(1908), 『普通動物學教科書』(1908), 『動物學』(1909, 용산 성심신품학교 편), 『中等動物學』(1910)이 있다.

5)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은 2018년에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플러스(HK+) 사업 수행 기관으로 선정되어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자료를 발굴·해제해 오고 있다. 2020년에는 대한제국 시기 평양 송실대학에서 사용한 근대 자연 과학 교과서 4종을 해제, 영인하여 자료 총서로 간행하였다.

6) 베어드 선교사 부부와 관련된 선교 기록은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에서 자료집으로 펴낸 바가

수업 운영 시작 시기를 먼저 논의한 후, 『동물학』(1906)의 서지 사항과 관련하여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II. 『동물학』(1906)의 발간 과정과 숭실학당의 동물학 수업 운영

조선의 근대 과학 분야에서 동물학(動物學)은 생물학(生物學), 더 나아가면 박물학(博物學)의 하위 영역 중 하나로 분류되었다. 허재영(2016: 248-249)에서는 1895년에 근대식 학제가 도입되기 전후에 생물학의 개념이 학문적 차원에서 확립되기 시작했고, 교육적 차원에서는 박물학의 한 분야로 간주되었으며, 1906년 전후에 생물학(박물학)이 학문으로서 본격적으로 정립되었다고 보았다. 숭실학당의 경우, 1900년에 학교 발전 계획을 세우면서 5년제 중학교 교과 과정을 잠정적으로 수립하였다. 그런데 현재 숭실대학교(1987), 숭실대학교 120주년사편찬위원회 편(2017), 숭실대학교 120주년사편찬위원회 편(2018) 등에서는 1909년 이후 숭실대학의 교과 과정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숭실학당에서 동물학이 개설되었는지, 숭실대학 시기부터 동물학을 개설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특히 숭실학당은 수업 시간에 필요한 교과서를 기계창에서 인쇄·제작하였기 때문에 『동물학』(1906)의 제작 시기는 동물학 수업 운영과도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동물학』(1906)의 발간 과정을 살펴 보면서 숭실학당과 숭실대학의 동물학 수업 운영 시기를 함께 밝히고자 한다.

1903년까지의 교과 과정에는 동물학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숭실대학교 120주년사편찬위원회 편(2017: 61)에서는 윌리엄 M. 베어드가 1901년 보고서에 숭실학당에서 동물학 수업을 개설한 것으로 기술하였다. 그런데 윌리엄 M. 베어드 선교사가 작성한 선교 보고서를 보면 당시 교과 과정에 동물학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김용진 옮김(2016)에 수록된 윌리엄 M. 베어드의 보고서를 검토하여, 그가 언급한 교과목명들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윌리엄 M. 베어드의 선교 보고서에 언급된 교과목명>

순서	보고서명	언급한 교과목명
1	1900년 교육 보고서	위생, 음악, 지리, 산수, 한문, 성경
2	1900-01년 평양선교지부 연례보고서	성경, 만국사, 미국과 영국의 역사, 19세기 맥켄지(McKenzie)의 역사 연구, 수학 과목(산수, 대수, 기하학), 과학 과목(생리학, 위생학, 식물학, 물리학, 천문학, 화학), 지리학, 지도 작성, 성서 지리학, 자유화(自由畵), 작문, 미용 체조법
3	1901-02년 베어드 교육 보고서	산수, 노래, 위생학, 그림, 미용 체조, 음악, 식물학, 성경, 천로 역정, 지리, 산수
4	1901-02년 미국 장로교회의 한국선교회 평양선교지부 보고서	산수, 음악, 위생학, 그림, 미용 체조, 노래, 식물학, 성경, 천로 역정, 지리, 산수
5	1902-03년 개인 보고서	기하, 천문학, 산수, 지리

- 있다. 김용진 옮김(2016), 김용진 옮김(2021가), 김용진 옮김(2021나)가 여기에 해당한다.
- 7) 숭실대학교에서는 숭실대학교(1987), 숭실대학교 120주년사편찬위원회 편(2017), 숭실대학교 120주년사편찬위원회 편(2018) 등과 같이 학교 역사와 관련한 자료들을 제작해 오고 있다. 이 자료들에서 학교의 변화와 발전 과정을 참고할 수 있고 『동물학』(1906) 편찬과 동물학 수업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6	1902-03년 미국 장로교회의 한국선교회 평양선교지부 연례보고서	지리, 산수, 역사, 노래, 미용 체조, 성경, 위생학, 읽기
7	1904-05년 미국 장로교회의 한국선교회 평양선교지부 12번째 연례 보고서 ⁸⁾	성경, 기독교의 증거들, 기독교 문명, 만국사, 영미역사, 지리학, 성서지리학, 자연지리학, 생리학, 위생학, 식물학, 동물학* , 생태학, 산수, 대수, 기하학, 물리학, 천문학, 화학, 그림 그리기, 작문 실습

(*윌리엄 M. 베어드가 교과 과정으로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보고서에 언급하였기에 포함시킴.)

「1901-02년 베어드 교육 보고서」와 「1901-02년 미국 장로교회의 한국선교회 평양선교지부 보고서」에는 애니 L. A. 베어드가 식물학을 매주 한 시간씩 가르쳤다는 내용만 나올 뿐 동물학을 가르쳤다는 기록은 없다. 다만 애니 L. A. 베어드가 1903년 3월 9일에 동물학, 식물학, 생물학 등의 교과서를 편찬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는 점(송실대학교 120주년사편찬위원회 편, 2018: 14), 그녀가 송실학당의 교재 제작을 거의 전담했다는 점(박보경, 2017: 298-299), 예송실학당의 기계창에서는 수업에서 쓸 교과서나 자료를 인쇄했다는 점(김용진 옮김, 2016: 166)⁹⁾에 미루어볼 때 1903~1904년에 동물학 수업을 위한 교과서를 제작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윌리엄 M. 베어드뿐만 아니라 애니 L. A. 베어드도 선교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그녀가 작성한 선교 문서에서 동물학 수업과 교과서 제작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애니 L. A. 베어드의 선교 문서 속 동물학 수업과 교과서 관련 내용>

순서	보고서명	동물학 수업과 『동물학』(1906) 관련 내용
1	1901-1902년 연례보고서	내년 저술 작업과 관련하여 과학 교과서 에 대한 준비가 애초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이루어져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휴식을 취하고 싶습니다(김용진 옮김, 2021: 75). (With regard to literary work for the coming year, the preparation of a scientific textbook has served so much more of an undertaking than I realized at first that I feel like taking a rest before starting out on another.)
2	1904-1905년 연례보고서	작년 보고서에서 말씀드린 동물학 에 관한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체 과목에 대한 초고가 완료되었으며 두 번째 원고는 무척추 동물편까지 집필한 상태입니다(김용진 옮김, 2021: 78). (Work has been continued on the zoology apoken of in last year's report. A first draft has been made of the whole subject, and a second draft as far as Invertebrates.)
3	애니 베어드 개인보고서 1904-1905년	지난 가을 연례회의에서 되돌아온 이후로, 저는 곧바로 송실중학에서 2학년 학생들에게 일주일에 네 번 동물학 을 가르치며

8) 윌리엄 M. 베어드는 이 보고서에서 1904. 7. 1~1905. 6. 30.의 교과 과정을 보고하였는데 'A partial list of subjects taught'이라고 표현하며 실제 가르친 과목 중 일부로 동물학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을 나열하였다. 그런데 근로반의 운영·활동 내용을 보고할 때에는 근로반 학생들의 역할로 식물학 및 동물학 도표 작성을 언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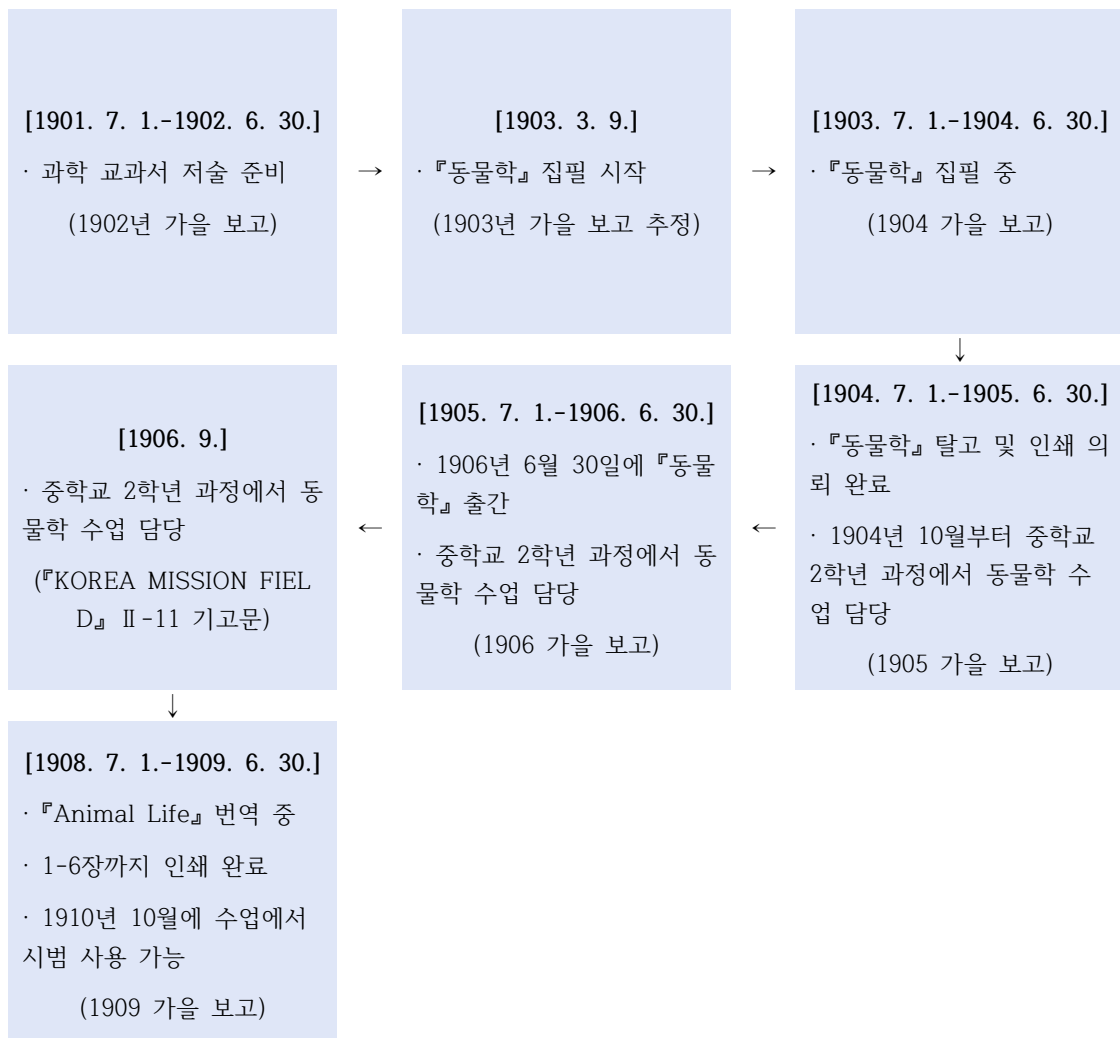
9) 송실학당의 교과서 제작 방법은 송실대학교 120주년사편찬위원회 편(2017: 64-65, 75-78)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사역을 시작했습니다.…작년에 보고드린 동물학 교과서가 탈고되어 인쇄소에 맡겨진 상태입니다(김용진 옮김, 2021: 79). (After our return from the annual meeting last fall, I began work at once in the academy, teaching zoology four times a week to the second class. …, and the textbook in zoology which I reported last year was brought to a state of completion.)
4	1905-1906년 애니 베어드 개인보고서	송실중학이 10월에 개학한 후, 저는 매일 한 시간씩 2학년 학생들을 맡아 동물학 과정을 담당했습니다.…저술 사역에 관해 말씀드리자면, 저의 동물학 교과서는 인쇄 과정에서 늘 부딪히게 되는 지연을 감수하고 난 후, 애초 약속한 11월이 아닌 6월에 출간되었습니다(김용진 옮김, 2021: 82, 85). (After the academy opened in October, I taught an hour every day, taking the second class through the study of Zoology.…As to literary work, my textbook on Zoology met with the usual delay in the press, and finally made its apperance in June instead of November, as had been promised.)
5	「Knowledge A Revelation」(1906. 9.)	After the Academy opened in October I taught an hour every day, taking the second class through the study of zoology. … After finishing zoology, I took up botany with the second class and found them even more enthusiastic and insati-able than they had been in the former study(Mrs. W. M. Baird, 1906: 211-212). (10월에 학기가 시작된 후, 나는 하루에 한 시간씩 2학년 학생들에게 동물학을 가르쳤다.…동물학 수업이 끝난 후, 나는 2학년 학생들에게 식물학을 가르쳤고 그들이 이전 수업보다 훨씬 열정적이고 더 배우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았다.)
6	1908-1909년 애니 베어드 개인보고서	데이비드 스타 조던(David Starr Jordan)이 쓴 『동물의 삶 (Animal Life)』이란 책의 번역 작업이 시작되어 현재 1장부터 6장까지 등사판으로 인쇄가 되어 있고 따라서 내년 가을에 교실에서 시범적으로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김용진 옮김, 2021: 88). (Work has been begun on David Starr Jordan's "Animal Life" and the first six chapters are now mimeographed and ready for a test in the classroom next fall.)

<표 2>에 제시한 내용들을 통해 애니 L. A. 베어드가 동물학 수업을 시작한 때와 동물학 교과서를 발간한 때를 확인할 수 있다. 애니 L. A. 베어드는 동물학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교과서를 먼저 만든 것으로 보인다. 「1901-1902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1902-1903년에 과학 교과서 집필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과학 교과서가 동물학 교과서인지 다른 과목의 교과서인지는 알 수는 없다. 다만, 다음 보고서의 내용에 미루어 보았을 때 동물학 교과서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04-1905 연례보고서」와 「애니 베어드 개인보고서 1904-1905년」에는 동물학 교과서 집필과 동물학 수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녀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서로 다른 원고 두 편을 함께 작업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인 보고서를 통해 애니 L. A. 베어드가 1905년 가을 학기부터 송실중학에서 2학년 과정으로 동물학을 일주일에 네 번 가르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⁰⁾

송실대학교 120주년사편찬위원회 편(2018: 14)에서 밝힌 『동물학』(1906) 편찬 시작일, 윌리엄 M. 베어드가 작성한 「1904-05년 미국 장로교회의 한국선교회 평양선교지부 12번째 연례 보고서」, <표 2>에 정리한 애니 L. A. 베어드의 문서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동물학』(1906) 편찬과 동물학 수업 운영 과정을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 『동물학』(1906)의 편찬과 송실학당의 동물학 수업 운영 과정>

<그림 1>을 설명하면, 애니 L. A. 베어드는 1903년 3월 9일에 동물학 교과서 집필을 시작하여 1905년 6월 30일까지 원고를 탈고해 인쇄소에 인쇄를 의뢰하였고, 1906년 6월 30일에 『동물학』(1906)을 출간하였다. 이후 1909년에는 동물학과 관련된 새로운 책(데이비드 스타 조

10) 송의90년사 편찬위원회(1993: 89)에 따르면 애니 L. A. 베어드는 송의여학교에서도 과학 교과에서 과학 기초, 동·식물학, 생리, 위생을 가르쳤다.

던(David Starr Jordan)의 『동물의 삶(Animal Life)』을 번역하는 중이었는데 등사판으로 부분 인쇄가 되어 있고 1910년 10월에 수업에서 시범적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동물학 수업은 『동물학』(1906)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송실학당의 교과목으로 개설하였다. 동물학은 1904년 10월부터 중학교 2학년 과정의 교과목으로 개설하였는데 이 수업은 애니 L. A. 베어드가 담당하였다. 그동안의 논의에서는 『동물학』(1906)과 관련하여 교과서 편찬 과정과 동물학 수업 운영 과정을 밝히지 못하였다. 이 글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밝히지 못했던 이러한 내용을 베어드 선교사 부부의 선교 문서 등을 교차 검토하여 밝혔으며 이를 <그림 1>과 같이 정리하였다.

Ⅲ. 『동물학』(1906)의 서지 사항과 관련된 문제

1. 자료의 판본과 소장 현황

『동물학』(1906)은 대부분 ‘교과서’라는 측면에서 논의되었다. 국어사적·문헌학적으로 자료를 살펴보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의 기본적인 사항들이 세밀하게 검토되지 못하였다.¹¹⁾ 이는 해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논의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선행 연구들 가운데에는 자료의 판본이나 출판 연도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거나 소장처 또한 각각 다르게 밝히기도 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3>과 같다.

<표 3: 선행 연구에서 밝힌 『동물학』의 출판 연도와 소장처>

순서	논의	출판 연도	소장처 언급	언급한 소장처
1	박종석·정병훈·박승재(1998)	1906	X	-
2	박종석(2007)	1906	X	-
3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편(2009)	1906	X	-
4	김성연(2015)	1906 1906/1908	X	-
5	허재영(2016)	1906 1956	X X	- -
6	김성연(2017)	1906	X	-
7	박보경(2017)	1906 1906/1908	X	-
8	송실대학교 120주년사편찬위원회 편(2017)	1908	X	-
9	한명근(2019)	1906 1908	O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10	오선실(2020)	1906	X	-

11) 허재영(2020: 241)에서는 험버트 시리즈 교과서를 논의하면서 『동물학』(1906)을 밀 부인이 번역했다고 소개하였다. 그런데 밀 부인은 애니 L. A. 베어드와는 다른 인물로, 밀 부인은 근대 초등 세계 지리 교과서인 『초학디지』(1906)를 저술한 선교사이다. 선한빛(2024)에서는 『초학디지』(1906)의 선행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초학디지』(1906)를 서지적으로 고찰하고 여러 기독교 사료들을 바탕으로 밀 부인이 마티 M. H. 밀러(Mattie May Henry Miller, 1873-1966)임을 논의한 바가 있다.

11	오지석(2020)	1906	O	국립중앙도서관,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한국교육개발원
12	윤정란(2020)	1906	X	-
13	허재영(2020)	1906	X	-
14	오지석(2021)	1906	X	-
15	자넷윤선리(2021)	1906	X	-
16	황민호(2021)	1906	X	-

이처럼 『동물학』(1906)은 출판 연도도 1906년, 1908년, 1956년¹²⁾과 같이 각각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며,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송실대학교와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에서도 1906과 1908을 혼기하고 있다.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편(2005: 210)에서는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에 『동물학』(1906)이 동일본으로 3권 더 있다고 밝혔지만 출판 연도가 모두 동일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전시유물검색



유물명(국문)

유물명(한문)

유물명(영문)

유물번호

국적

연도

기능

저자

시대

크기

재질

용도

전시장소

동물학

애니 베어드(A. L. A. Baird)가 송실에서 교육용 교재로 활용하기 위해 1908년 번역 발행한 근대 교과서이다.

닫기

<그림 2: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누리집에 안내되어 있는 『동물학』의 출판 연도>

12) 허재영(2016: 253)에서는 근대 계몽기 생물학 교과서류를 제시하면서 『동물학』을 1956년에 출판된 것으로 표기했는데, 같은 글 246쪽에서는 1906년으로 표기하였다. 생리학 교과서인 『中等生理衛生學』의 출판 연도가 19095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동물학』의 출판 연도를 1956년으로 기재한 것은 옳기로 보인다.



<그림 3: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송실대학 교과서>

<그림 2>와 같이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누리집(<https://museum.ssu.ac.kr/>)에는 『동물학』의 출판 연도가 1906년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자료를 설명한 부분에는 1908년에 번역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그림 3>과 같이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의 전시실에는 『동물학』이 1908년에 출판된 것으로 안내되어 있다.

--3--

24. Special appointments in Connection with Mission Work.

Member of Hymn-book Com. appointed by Pres. Council and afterwards by Gen. Syn. Council given editorial control of a newspaper in the vernacular to be published in Pyang Yang. On my suggestion this was expanded into a Mission organidited by Dr. Gale and issued from Seoul.

25. Charge of Language Class which developed into the Union Language School.

26. Special Appointments on Field outside the Mi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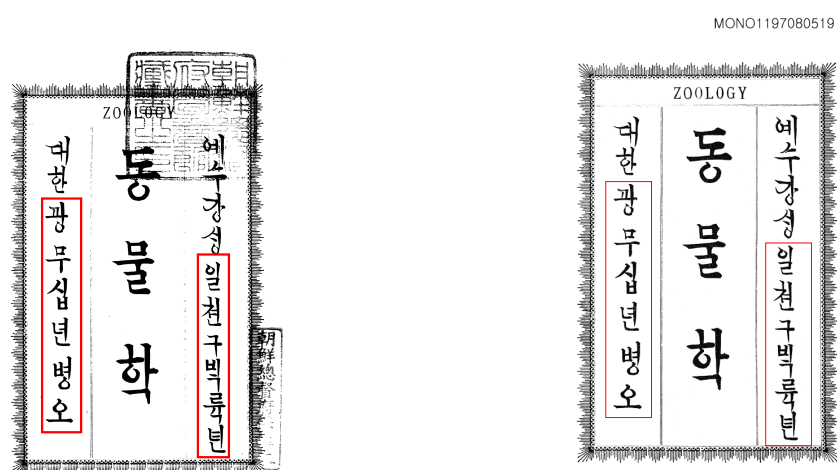
27. Offices in the Mission.

28. Literary and Text-Book Work.

	Years	Title	Number Edition	Copies
	1896	Fifty Helps for Beginner in Korean	4	900
	1906	Zoology	1	2000
Translation	1908	Physiology	1	1000
	1908	Botany	1	1000
	1907	What a Young Boy Ought to Know.	1	2000
	1896	The Story of Bai Pyul. No records kept before 1906.		10,000
	1896	The Story of Old Chang. "	"	"
Original		The Story of 白子. 2	4000	each the- more than.
	1907	An Example to Married People.		
	1891	Four hymns.		
	1909	Fifty two hymns		
Translations	1908	Six Chaps. of "Animal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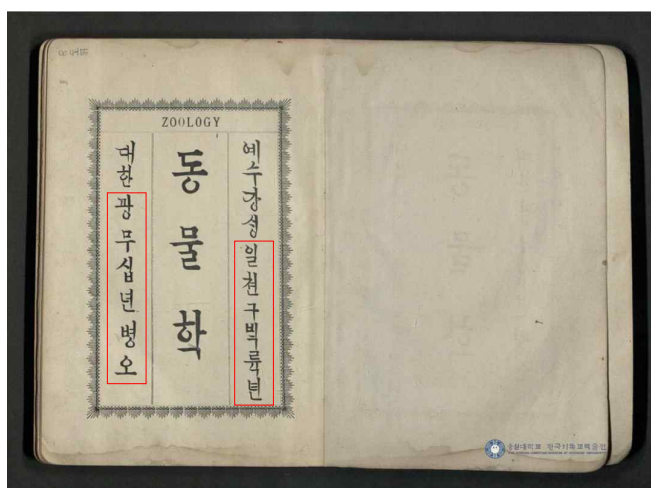
<그림 4: 애니 L. A. 베어드의 출판물 기록>

현재까지 『동물학』의 출판 연도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한국 기독교 선교 자료 속 애니 L. A. 베어드 관련 기록과 『동물학』의 내표지이다. <그림 4>는 Pearl Digital Collections(<https://digital.history.pcusa.org/>)¹³⁾에 공개되어 있는 애니 L. A. 베어드와 관련된 마이크로 필름 자료 「Information about Annie Baird copied from the book of data for Korea Mission History」(1916)이다. 이 문서의 28번 항목에는 애니 L. A. 베어드가 저술한 문학 작품과 번역한 교과서의 목록이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출판물의 이름 외에도 판본과 출판 부수의 정보가 함께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에 따르면 『동물학』(zoology)이 1906년에 초판으로 2,000부가 출판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①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② 국회도서관 소장본



③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본

<그림 5: 『동물학』(1906)의 내표지 비교>

13) Pearl Digital Collections은 미국 장로교 Presbyterian Church USA(PC (USA))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제공하는 웹 페이지이다.

『동물학』이 1906년에 출판되었다는 것은 <그림 5>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¹⁴⁾ 『동물학』의 내표지에는 책 이름의 좌우에 출판 연도가 ‘대한 광무 십년 병오’, ‘예수 강심 일천구백륙년’이라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광무(光武) 10년 병오(丙午)는 1906년을 가리키는 데, 이는 『동물학』이 1906년에 출판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림 4>의 기록과도 일치한다.

또한 <표 3>에 제시한 것과 같이 『동물학』(1906)의 소장처는 아직까지 제대로 조사된 것이 없다.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외에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곳을 밝힌 것은 오지석(2020)이 유일하다. 오지석(2020: 13)에서는 추가 소장처로 국립중앙도서관,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한국교육개발원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오지석(2020)에서 밝힌 곳 외에도 『동물학』(1906)을 소장하고 있는 곳이 있다.

<표 4: 『동물학』 소장 정보>

순서	출판 연도	소장 기관	소장 부수	청구 기호/소장품 번호/유물 번호
1	1906	국립민속박물관	1	054920
2		국립중앙도서관	1	7511-4
3		국회도서관	1	590 B163z
4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4	IA0141, IA0144, 불확실 ¹⁵⁾ , 4955
5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1	O 591 동물학
6		한국교육개발원 도서관	1	51.30생 동물0106

<표 4>는 이 글에서 조사하여 밝힌 국내 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동물학』(1906)의 소장 정보이다. 오지석(2020)에서 언급한 4곳 외에 국립민속박물관과 국회도서관에서도 『동물학』(1906)을 소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위의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은 1906년에 출판된 것으로,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을 제외하면 모두 1권씩 소장하고 있다.

14) <그림 4-①>은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https://www.nl.go.kr/>)에서, <그림 4-②>는 국회전자도서관 누리집(<https://dl.nanet.go.kr/>)에서, <그림 4-③>은 송실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 사업단 누리집(<https://hkplus.ssu.ac.kr/#/>)에서 내려 받은 것임을 밝힌다.

15)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편(2005: 210)에서는 『동물학』(1906)의 등록 번호를 0149, 0152, 0779, 4955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애니 베어드 편역, 오지석 해제(2020)는 4955번 『동물학』(1906)이다. 한국기독교박물관 누리집에 소개된 『동물학』(1906)의 유물 번호는 0141이다.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편(2005: 210)에서 제시한 등록 번호는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①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본



② 국립민속박물관 소장본

<그림 6: 『동물학』(1906)의 겉표지 비교>

각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동물학』(1906)은 <그림 6>과 같이 표지가 진한 녹색이다. 국립민속박물관 소장본¹⁶⁾은 표지가 변색되어 있고 책의 오른쪽 테두리가 검은색 테이프로 감싸져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 남아 있는 『동물학』(1906)을 살펴보았는데, 김성연(2015), 박보경(2017), 송실대학교 120주년사편찬위원회 편(2017), 한명근(2019)에서 소개한 1908년 출판본은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소장본들로는 1906년에 출판된 『동물학』만 남아 있다고 할 수 있겠다.

2. 출판 정보의 누락 가능성과 헐버트 시리즈와의 관련성

『동물학』(1906)과 관련하여 서지적으로 논의할 또 다른 사항은 출판 정보이다. 허재영(2020: 249)에서는 『동물학』이 활자, 속표지 문양 등을 고려할 때 헐버트 교과서 시리즈의 일부로 편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또한 근대 교과서가 온전한 상태로 발전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동물학』(1906)은 현재 보존본에서 헐버트 교과서 시리즈 표시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표지나 별도의 속표지가 떨어져 나간 것일 수도 있다고 언급하였다(허재영, 2020: 249 각주 21). 허재영(2020)에서 제기한 내용과 같이 출판 정보가 인쇄된 속표지가 누락되었다면 <표 4>에서 제시한 기관들이 소장본들에서 소장본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림 5>에 제시한 것과 같이 소장본들 간에 출판 정보가 실린 내지가 누락된 경우를 찾을 수는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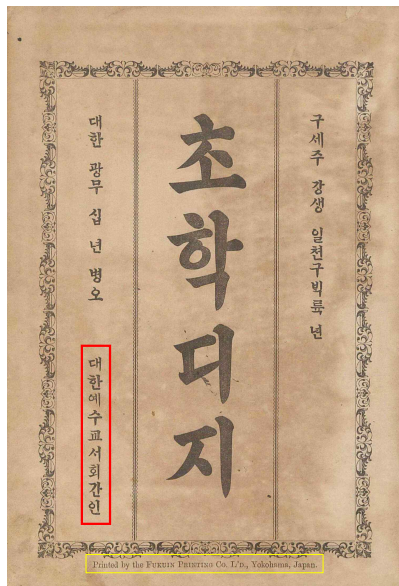
그런데 선행 논의들 가운데 『동물학』(1906)의 출판사가 확실히 밝혀진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

16) <그림 5-②>는 국립민속박물관 누리집(<https://www.nfm.go.kr/home/index.do>)에서 내려 받은 것임을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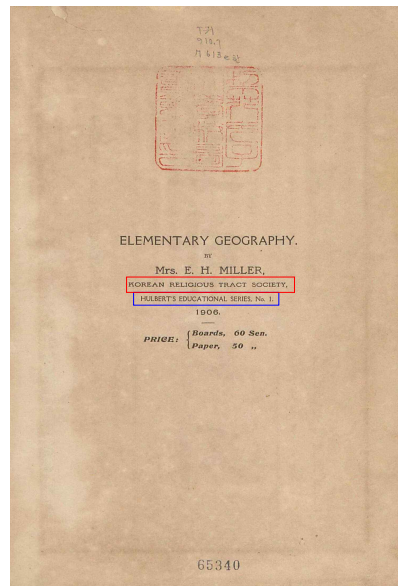
<표 5: 선행 논의별 『동물학』의 출판 정보 비교>

순서	논의	출판사	비고
1	김성연(2015)	Korean Religious Tract Society	
2	허재영(2016)	조선야소교서회	추정
3	박보경(2017)	Korean Religious Tract Society	
4	허재영(2020)	야소교서원	참고 문헌에는 '대한예수교서회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음.

이들 논의에서는 『동물학』(1906)이 Korean Religious Tract Society 또는 조선야소교서회에서 출판되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동물학』(1906)에는 출판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 선교사들이 저술·번역한 서적들을 보면 내표지에 출판사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동물학』(1906)과 동일한 시기에 출판된 『초학디지』(1906)를 예로 들면 아래와 같다.



① 내표지 앞면



② 내표지 뒷면

<그림 7: 『초학디지』(1906)의 내표지>

<그림 7>은 『초학디지』(1906,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소장본)의 내표지로, 출판사(빨간색 표시)가 '대한예수교서회'로, 인쇄소(노란색 표시)가 'Printed by the FUKUIN PRINTING CO. L'D., Yokohama, Japan.'로 표기되어 있다. 이러한 출판 정보를 토대로 『초학디지』(1906)이 요코하마 복음 인쇄소에서 인쇄되었고 대한예수교서회에서 출판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¹⁷⁾ 그런데 『동물학』(1906)은 <그림 5>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책 이름의 한글 표기와 영문 표기(ZOOLOGY), 출판 연도만 기록되어 있다. 『초학디지』(1906)와는 달리, 내표지 뒷면에도 별다른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점 때문에 『동물학』(1906)은 아직까지 출판사가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17)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선행(2024: 277-279)을 참조하기를 바란다.

다만, 1906년 이전에 베어드 선교사 부부가 번역·저술한 자료들을 참고하여 『동물학』(1906)의 출판사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이해원(2020)은 1890-1900년 조선성교서회의 초기 간행물들의 경향성을 논의하였다. 여기에서는 조선성교서회에서 출판한 단행본들의 목록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에 베어드 부부의 책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해원(2020: 501, 503)에서 서회의 100년 역사를 담은 책의 부록에 윌리엄 M. 베어드가 번역한 『턴로지귀』(1890), 애니 L. A. 베어드가 저술한 『장자로인론』(1897)이 수록되어 있고 「그리스도 신문」(1897. 10. 28.)에 「턴로지귀」(1890)이 올해에 출판된 책으로, 『장자로인론』(1897)이 출판 예정인 책으로 소개되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또한 이 시기의 기독교 관련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윌리엄 M. 베어드가 번역한 『구세진주』(1895), 애니 L. A. 베어드가 저술한 『식별전』(1899)도 조선성교서회에서 출판한 것으로 보았다.¹⁸⁾ 당시 조선성교서회가 기독교의 교파를 불문한 기관이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동물학』(1906) 또한 조선성교서회를 통해 책을 출판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헐버트 교과서 시리즈로 간행된 책들은 <그림 6-②>와 같이 내표지 뒷면에 ‘HULBERT’S EDUCATIONAL SERIES’(파란색 표시)가 인쇄되어 있다. 『초학디지』(1906)은 헐버트 교과서 시리즈 가운데에서도 첫 번째로 간행된 지리 교과서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간행된 교과서가 애니 L. A. 베어드가 번역한 『식물도설』(1908)이다. 이후 베어드 부부가 번역한 자료들이 헐버트 교과서 시리즈로 간행되었다.¹⁹⁾ 그런데 『동물학』(1906)은 헐버트 교과서 시리즈에 포함되지 않았다. 李高恩(2023: 261)에는 헐버트 교과서 시리즈로 간행된 책으로 13종이 소개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동물학』(1906)은 언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허재영(2020)에서 『동물학』(1906)가 헐버트 교과서 시리즈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제기하였지만 위와 같이 다른 헐버트 교과서 시리즈와 비교·검토한 결과, 『동물학』(1906)은 헐버트 교과서 시리즈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지을 수 있겠다.

IV. 결론

(생략)

18) 이해원(2020: 503)에서 언급한 자료들은 1897-1898년도 『The Korean Repository』에 실린 보고문과 광고, 1897년과 1901년의 「그리스도신문」의 기사, 1899년 조선성교서회의 연례 보고서 등이다.

19) 네 번째로 간행된 교과서는 윌리엄 M. 베어드가 번역한 『턴문략히』(1908), 다섯 번째로 간행된 교과서는 애니 L. A. 베어드가 번역한 『심리학초권』(1908)이다.

<참고문헌>

1. 자료

Annie L. A. Baird 편역(1906), 『동물학』, 미상.

2. 논저

김성연(2015), 「근대 초기 선교사 부인의 저술 활동과 번역가로서의 정체성」, 『현대문학의 연구』 55, 한국문학연구학회, 253-290.

김성연(2017), 『서사의 요철(凹凸) 기독교와 과학이라는 근대의 지식-담론』, 소명출판.

김연희(2016), 『한국 근대과학 형성사』(한국의 과학과 문명 006), 들녘.

김용진 옮김(2016), 『윌리엄 베어드(William M. Barid)의 선교 리포트 1』,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김용진 옮김(2021가), 『윌리엄 베어드(William M. Barid) 가족 선교 자료』,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김용진 옮김(2021나), 『윌리엄 베어드(William M. Barid) 편지 II(1898-1916)』,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박보경(2017), 「애니 베어드(Annie L. A. Baird)의 삶과 선교 사역에 대한 고찰」, 『장신논단』 49-4,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사상과 문화연구원, 283-308.

박종석(2007), 『개화기 한국의 과학교과서』, 한국학술정보(주).

박종석·정병훈·박승재(1998), 「1895년부터 1915년까지 과학 교과서의 발행, 검정 및 사용에 관련된 법적 근거와 사용 승인 실태」, 『한국과학교육학회지』 18-3, 한국과학교육학회, 371-382.

선한빛(2024), 「20세기 초등 세계 지리 교과서 『초학디지』의 서지적 고찰」, 『국어사연구』 38, 국어사학회, 267-307.

숭실대학교 120주년사편찬위원회 편(2017), 『민족과 함께한 숭실 120년』,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숭실대학교 120주년사편찬위원회 편(2018), 『사진과 연표로 보는 평양 숭실대학』,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편(2005),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고문헌목록』,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숭실대학교(1987), 『숭실대학교 90년사』, 숭실대학교.

숭의90년사 편찬위원회(1993), 『崇義九十年』史, 學校法人 崇義學園.

애니 베어드 편역, 오지석 해제(2020),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동물학』(메타모포시스 자료총서 2), 선인.

여상인·박종석·우규환(1997), 「한국 근대사의 과학교과서로 살펴본 근대 학교에서의 과학교육 동향」, 『科學教育研究論叢』 22-1, 서울大學校 師範大學 科學教育研究所, 1-17.

오선실(2020), 「근대 전환기 기독교 학교의 서구 근대 생리학 수용과 변용 -애니 베어드의 『심리학초권』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박물관 자료를 통해 본 근대 문화의 수용과 변용』(메타모포시스 인문학총서 8), 선인.

오지석(2020), 「애니 베어드(Annie L. A. Baird)의 『동물학』 해제」,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동물학』(메타모포시스 자료총서 2), 선인.

- 오지석(2021), 「근대전환기 기독교계 학교 과학교과서 이해 -평양 숭실대학의 과학교과서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2-1,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361-374.
- 윤정란(2020), 「근대전환기 근대 식물학의 도입과 확산」, 『한국기독교박물관 자료를 통해 본 근대 문화의 수용과 변용』(메타모포시스 인문학총서 8), 선인.
- 李高恩(2023), 「헨리 교과서 시리즈의 전모와 기획 배경」, 『대동문화연구』 122,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55-284.
- 이숙(2019), 「[초기 선교사의 한국어 교사 07] 한국어 교수법을 확립한 애니 베어드」, 『基督教思想』 726, 대한기독교서회, 198-210.
- 이혜원(2020), 「조선성교서회 초기 간행물에 대한 재 고찰: 1890~1900년을 중심으로」, 『한국교회사학회』 55, 한국교회사학회, 499-535.
- 자넷윤선리(2021), 「미국 선교사 애니 베어드 소설의 문화 번역 양상 연구」, 『어문론총』 90, 한국문학언어학회, 91-115.
-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편(2009), 『베어드와 한국선교』, 숭실대학교 출판국.
- 한명근(2019),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근대 자료의 내용과 성격」, 『한국기독교박물관 자료를 통해 본 근대의 수용과 변용』(메타모포시스 인문학총서 01), 선인.
- 허재영(2016), 「근대 계몽기 전문 용어의 수용과 생성 과정 연구 -생물학 담론을 중심으로-」, 『한말연구』 42, 한말연구학회, 245-271.
- 허재영(2020), 「근대 지식 수용 과정에서 헨리 시리즈 교과서의 의의」, 『語文學』 147, 한국어문학회, 239-262.
- 황민호(2021), 「일제하 숭실대학의 근대 서적 출간과 대학 출판문화의 형성」, 『한국민족운동사 연구』 106,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13-252.

Mrs. W. M. Baird(1906), 「Knowledge A Revelation」, 『THE KOREA MISSION FIELD』 II -11,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211-212.

3. 누리집

국립민속박물관(<https://www.nfm.go.kr/home/index.do>)
국립중앙도서관(<https://www.nl.go.kr/>)
국회전자도서관(<https://dl.nanet.go.kr/>)
숭실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 사업단(<https://hkplus.ssu.ac.kr/#/>)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https://museum.ssu.ac.kr/>)
Pearl Digital Collections(<https://digital.history.pcusa.org/>)

4. 신문 기사

김명배(2016. 4. 11.), 「[조선 문명 개화에 힘쓴 윌리엄 베어드] 교육 수요 많은 평양 파견돼
숭실학당 세워」, 국민일보,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93268>(검색일: 2024. 3. 5.)

「근대 대학 과학 교과서 『동물학』(1906)의 서지적 고찰」(선한빛)에 대한 토론문

송미영(충남대학교)

이 글에서는 근대 과학 교과서 『동물학』(1906)의 서지 사항을 상세히 살펴봄으로써 편역자(編譯者)가 선교사 애니 로리 아담스 베어드(Annie Laurie Adams Baird, 1864~1916, 安愛理)이고, 집필 과정과 판본 및 소장 현황을 통해 출간 시기가 1906년으로 동일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앞선 내용을 토대로 해당 교과서가 험버트 시리즈와 무관하며 최초의 과학 교과서로서의 가치가 있음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두어 논의하였습니다. 선생님의 견해에 대한 이견은 없으며 몇 가지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 글의 제목인 “근대 대학 과학 교과서 『동물학』(1906)의 서지적 고찰”과 관련하여 대학 학부 과정에서 『동물학』이 언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즉 대학 교재로 활용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표 1>과 <표 2>, <그림 1>에 제시된 애니 L. A. 베이드가 송실중학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물학 수업을 담당하였고, 수업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록과 달리 대학¹⁾에서의 활용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장의 첫머리에 “송실학당에서 동물학이 개설되었는지, 송실대학 시기부터 동물학을 개설한 것인지 알 수 없다.”라고 밝히고 있으나 “송실학당과 송실대학의 동물학 수업 운영 시기를 함께 밝히고자 한다.”라고 제시하였기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또한 <표 2> ‘1908-1909년 애니 베어드 개인보고서’에서 “내년 가을에 교실에서 시범적으로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은 중학교에서의 활용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학에서의 쓰임인지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대학의 학부 과정에 ‘동물학’ 강좌가 개설되었고, 『동물학』(1906)이 교재로 활용되었는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 언급하셨던 1909년 이후 송실대학의 교과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송실대학교 120주년사편찬위원회 편, 2018)나 다른 문헌에서 발견되는지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둘째, 『동물학』을 교재로 채택한 교육기관과 교육 대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물학』 초판이 1906년 2,000부 출판되었다(<그림 4> 참고)는 사실은 1906년 가을 학기부터 송실대학의 학부 수업이 개설된 것과 관련지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더욱이 1900년 송실학교에 새롭게 도입된 5년제 중학교 과정에서 졸업한 학생들을 위해 대학의 학부 과정이 마련되었다면 말입니다. 또한 『동물학』은 중학교에서 사용되고, 대학에서도 사용된 것인지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더불어 당시 다른 고등교육 기관에서도 『동물학』(1906)을 교재로 채택했을 가능성은 없는지와 애니 L. A. 베이드가 송의여학교에서 과학 교과 중, 동·식물학을 가르칠 때(각주 10번 참고) 어떤 교과서를 사용하였는지도 가능하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1895년부터 각종 법령에 의해 교과서의 발행과 사용에 대한 규제가 있었습니다. 『동물학』이 교육기관의 과학 교과서로

1) 송실학당은 1897년 미국의 복장로교 선교사 윌리엄 마틴 베어드(William. Martyn Baird, 1862~1931, 裴緯良)가 평양의 사저(私邸)에서 사랑방 교실을 열면서 시작됨. 1900년 수업 연한 5년의 정식 중학교 교과과정 운영 → 1906년 9월 15일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부가 합동으로 학교 경영에 참여하여 대학과(大學科)를 설치함(교명 Union Christian College(합성 송실대학)).

쓰였다면 교과서의 인가, 검정,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은 어떠했는지에 대해 추가로 질문을 드립니다.

셋째, 선교사의 교과서 편역(編譯)은 근대 학문의 형성 및 보급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세기 초 발행된 여러 동물학 서적 중, 『동물학』(1906)이 갖는 의의가 무엇일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애니 L. A. 베이드는 『동물학』(1906) 교과서 말미에서 미국의 생물학자 아사 그레이(Asa Gray)의 ‘Zoology’가 아니라 ‘Structural Botany’의 서문에 드러난 정신에 따라 번역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한다면 다른 『동물학』 책과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내용이 추가될 때 논의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대 문물의 수용기이자 근대식 학제가 마련되는 개화기 또는 근대 계몽기 교과서의 서지(書誌)를 정리하는 것은 국어사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과서의 내용 구성, 교육기관에서의 실질적인 활용, 동시대 및 이후 발행된 교과서와의 관계 등을 통해 선생님의 논의가 그 깊이를 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잡지 『어린이』 속 광고 언어와 문화

-국립한글박물관 소장본을 중심으로

신하영·김민지(국립한글박물관 학예연구사)

1. 서론
2. 잡지 『어린이』 수록 광고의 양적·형식적 특성
3. 잡지 『어린이』 수록 광고의 언어·문화적 특성
 - 3.1. 일반 소비재 광고
 - 3.2. 책 광고
4. 결론

1. 서론

근대에 들어 새롭게 등장한 매체인 신문과 잡지는 신문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근대적 사상을 전하였으며 새로운 문체와 어휘로 새 매체를 위한 글쓰기 양식을 사용하고, 일상어 속에 이를 확산시켰다¹⁾. 근대 신문과 잡지에는 매체의 특성별로 여러 유형의 기사와 시, 소설 등의 문학 작품이 수록되었는데 본고에서는 그 중 잡지 『어린이』에 수록된 광고문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²⁾.

『어린이』는 방정환을 중심으로 개벽사에서 발행한 한국의 대표적 근대 아동 잡지이다. 1923년 3월에 창간되어 1934년 7월에 통권 122호로 폐간되었다가, 1948년 5월 복간되어 1949년 12월 통권 137호까지 발행되었다. 잡지 『어린이』에 수록된 광고는 근대 매체로서 언어를 통해 당대의 문화 현상을 수용하고, 언어를 통해 문화 현상의 변화를 유도하는 장치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광고는 소비자의 취향과 함께 취향을 이끌어 가는 ‘앞선’ 사람들의 의식을 읽을 수 있는 텍스트(김한식 2006:123)이므로, 『어린이』 수록 광고에도 어린이를 어른과 대등한 인격체로 인식하고 어린이에게 지식을 보급하고자 했던 잡지 기획, 편집 의도가 언어 텍스트에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³⁾.

이 글의 대상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잡지 『어린이』 1923년 3월 20일 창간호⁴⁾부터 복간된

1) 개화기 및 근대의 문체와 어휘 변화에 대해서는 김완진(1983), 안예리(2013), 안예리(2015), 한영균(2018), 한영균(2019) 등을 들 수 있다.

2) 근대 잡지 광고에 대해 국어학 분야에서는 거의 주목하지 않았으나 현대문학에서 몇 편의 연구 논문이 있다. 김한식(2006), 김윤선(2009), 최윤정(2013), 허연실(2017), 허연실(2019), 손동호(2022) 등에서 잡지별 광고 특성을 분석하였다. 김한식(2006)은 『청춘』과 『개벽』, 김윤선(2009), 허연실(2017)은 『신여성』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고, 허연실(2019)은 『신여성』, 『별건곤』, 『삼천리』, 『신가정』 수록 광고를 대상으로 삼았다. 손동호(2022)는 1920년대 문예지 수록 광고이다. 최윤정(2013)은 1924년부터 1927년까지 『어린이』에 실린 『사랑의 선물』 광고 26회를 분석하여 광고 메시지의 수신자는 ‘어린이’이고 ‘눈물’을 매개로 ‘감성 소구’에 치중하였음을 밝힌 바 있다.

3) 『어린이』에 수록된 광고까지 당대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예로 『어린이』 제5권 제3호의 「기념특별작문:어린이를 읽을 때의 느낌」의 일부를 들 수 있다. 「기념특별작문:어린이를 읽을 때의 느낌」 중 沙里院의 李濟坤가 쓴 글에는, ‘표지던지 목차던지 심지어 광고까지 어린이책은 모조리 읽고야 늦게 되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혼을 끌어 나르키여 내는 싸담입니다.’라고 한 바 있다.

4) 국립한글박물관에서는 현재 총 80건 80점의 잡지 『어린이』를 소장하고 있으며, 디지털한글박물관

1948년 5월 5일 123호부터 1949년 12월 1일 137호까지 총 120점에 수록된 광고를 대상으로 하였으며⁵⁾ 그 중에서도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80점에 수록된 광고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표 1] 대상 자료 목록: 잡지 『어린이』 수록 광고

연번	발행연도	권호	통권	소장처
1	1923.3.20.	1권 1호	창간호	
2	1923.9.15.	1권 8호	통권 8호	
3	1924.1.13.	2권 1호	통권 12호	
4	1924.3.13.	2권 3호	통권 14호	
5	1924.4.18.	2권 4호	통권 15호	
6	1924.5.11.	2권 5호	통권 16호	
7	1924.6.10.	2권 6호	통권 17호	
8	1924.7.10.	2권 7호	통권 18호	한글박물관
9	1924.8.7.	2권 8호	통권 19호	
10	1924.9.6.	2권 9호	통권 20호	
11	1924.10.11.	2권 10호	통권 21호	
12	1924.11.11.	2권 11호	통권 22호	
13	1924.12.11.	2권 12호	통권 23호	
14	1925.1.1.	3권 1호	통권 24호	한글박물관
15	1925.2.1.	3권 2호	통권 25호	
16	1925.3.1.	3권 3호	통권 26호	한글박물관
17	1925.4.1.	3권 4호	통권 27호	한글박물관
18	1925.5.1.	3권 5호	통권 28호	한글박물관
19	1925.6.1.	3권 6호	통권 29호	한글박물관
20	1925.7.1.	3권 7호	통권 30호	한글박물관
21	1925.8.1.	3권 8호	통권 31호	
22	1925.9.1	3권 9호	통권 32호	한글박물관
23	1925.10.1.	3권 10호	통권 33호	한글박물관
24	1925.11.1.	3권 11호	통권 34호	한글박물관
25	1925.12.1	3권 12호	통권 35호	
26	1926.1.1.	4권 1호	통권 36호	
27	1926.2.1.	4권 2호	통권 37호	한글박물관
28	1926.3.1	4권 3호	통권 38호	한글박물관
29	1926.4.10.	4권 4호	통권 39호	한글박물관
30	1926.5.1.	4권 5호	통권 40호	한글박물관
31	1926.6.9.	4권 6호	통권 41호	한글박물관
32	1926.7.30.	4권 7호	통권 42호	
33	1926.9.1.	4권 8호	통권 43호	한글박물관
34	1926.10.1.	4권 9호	통권 44호	한글박물관
35	1926.11.15.	4권 10호	통권 45호	한글박물관
36	1926.12.10.	4권 11호	통권 46호	한글박물관
37	1927.1.1.	5권 1호	통권 47호	
38	1927.2.1.	5권 2호	통권 48호	한글박물관
39	1927.3.1.	5권 3호	통권 49호	한글박물관
40	1927.4.1.	5권 4호	통권 50호	
41	1927.6.1.	5권 5호	통권 51호	한글박물관

(<https://archives.hangeul.go.kr/>)에서는 고해상도의 원문 이미지를 내려받기할 수 있다.
5) 광고 이미지 및 텍스트는 상품명 또는 광고주명, 수록 매체명, 날짜 순으로 기재하였다.

42	1927.7.22.	5권 6호	통권 52호	한글박물관
43	1927.10.1.	5권 7호	통권 53호	
44	1927.2.1.	5권 8호	통권 54호	
45	1928.1.20.	6권 1호	통권 55호	
46	1928.3.20.	6권 2호	통권 56호	
47	1928.5.20.	6권 3호	통권 57호	한글박물관
48	1928.7.20.	6권 4호	통권 58호	
49	1928.9.20.	6권 5호	통권 59호	
50	1928.10.20.	6권 6호	통권 60호	
51	1928.12.20.	6권 7호	통권 61호	
52	1929.1.20.	7권 1호	통권 62호	
53	1929.2.20.	7권 2호	통권 63호	한글박물관
54	1929.3.20.	7권 3호	통권 64호	한글박물관
55	1929.5.10.	7권 4호	통권 65호	한글박물관
56	1929.6.18.	7권 5호	통권 66호	한글박물관
57	1929.7.20.	7권 6호	통권 67호	한글박물관
58	1929.8.20.	7권 7호	통권 68호	한글박물관
59	1929.10.20.	7권 8호	통권 69호	한글박물관
60	1929.12.20.	7권 9호	통권 70호	한글박물관
61	1930.1.20.	8권 1호	통권 71호	
62	1930.2.20.	8권 2호	통권 72호	한글박물관
63	1930.3.20.	8권 3호	통권 73호	
64	1930.4.20.	8권 4호	통권 74호	한글박물관
65	1930.5.20.	8권 5호	통권 75호	한글박물관
66	1930.7.20.	8권 6호	통권 76호	한글박물관
67	1930.8.20.	8권 7호	통권 77호	한글박물관
68	1930.9.20.	8권 8호	통권 78호	한글박물관
69	1930.11.20.	8권 9호	통권 79호	한글박물관
70	1930.12.20.	8권 10호	통권 80호	한글박물관
71	1931.1.1.	9권 1호	통권 81호	한글박물관
72	1931.2.20.	9권 2호	통권 82호	한글박물관
73	1931.3.20.	9권 3호	통권 83호	한글박물관
74	1931.5.20.	9권 4호	통권 84호	한글박물관
75	1931.6.20.	9권 5호	통권 85호	한글박물관
76	1931.7.20.	9권 6호	통권 86호	한글박물관
77	1931.8.20.	9권 7호	통권 87호	한글박물관
78	1931.9.12.	9권 8호	통권 88호	한글박물관
79	1931.10.20.	9권 9호	통권 89호	한글박물관
80	1931.11.20.	9권 10호	통권 90호	한글박물관
81	1931.12.20.	9권 11호	통권 91호	한글박물관
82	1932.1.20.	10권 1호	통권 92호	한글박물관
83	1932.2.20.	10권 2호	통권 93호	한글박물관
84	1932.3.20.	10권 3호	통권 94호	한글박물관
85	1932.4.20.	10권 4호	통권 95호	한글박물관
86	1932.5.20.	10권 5호	통권 96호	한글박물관
87	1932.6.20.	10권 6호	통권 97호	한글박물관
88	1932.7.20.	10권 7호	통권 98호	한글박물관
89	1932.8.20.	10권 8호	통권 99호	한글박물관
90	1932.9.20.	10권 9호	통권 100호	한글박물관
91	1932.10.20.	10권 10호	통권 101호	한글박물관
92	1932.11.20.	10권 11호	통권 102호	한글박물관

93	1932.12.20.	10권 12호	통권 103호	한글박물관
94	1933.3.20.	11권 2호	통권 105호	한글박물관
95	1933.3.20.	11권 3호	통권 106호	한글박물관
96	1933.5.20.	11권 5호	통권 108호	
97	1933.6.20.	11권 6호	통권 109호	한글박물관
98	1933.7.20.	11권 7호	통권 110호	한글박물관
99	1933.8.20.	11권 8호	통권 111호	한글박물관
100	1933.9.20.	11권 9호	통권 112호	한글박물관
101	1933.10.20.	11권 10호	통권 113호	한글박물관
102	1933.11.20.	11권 11호	통권 114호	한글박물관
103	1933.12.20.	11권 12호	통권 115호	한글박물관
104	1934.1.20.	12권 1호	통권 116호	한글박물관
105	1934.2.20.	12권 2호	통권 117호	한글박물관
106	1934.3.20.	12권 3호	통권 118호	한글박물관
107	1934.4.20.	12권 4호	통권 119호	한글박물관
108	1934.5.20.	12권 5호	통권 120호	한글박물관
109	1934.6.20.	12권 6호	통권 121호	한글박물관
110	1935.3.1.	13권 1호	통권 122호	한글박물관
111	1948.5.5.	123호	복간 5월호	
112	1948.6.5.	124호	6월호	한글박물관
113	1948.8.5.	125호	8월호	
114	1948.10.5.	127호	10월호	
115	1949.2.5.	130호	1·2월호	
116	1949.3.5.	131호	3월호	
117	1949.5.5.	133호	5월호	
118	1949.7.1.	135호	7월호	
119	1949.10.11	136호	10월호	
120	1949.12.1	137호	12월호	

2. 잡지 『어린이』 수록 광고의 양적·형식적 특성

잡지 『어린이』 수록 광고의 양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연도별로 광고 수량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23년부터 1949년까지 발행된 총 120점의 잡지에서 잡지 1점당 광고는 4.66점이 수록되었는데, 가장 많은 광고를 수록한 때는 1932년으로 총 128점의 광고를 수록하였으며 이 시기는 잡지 발간 수가 12점으로 가장 많다. 1930년부터 1934년까지는 잡지 1점당 20점 이상의 광고를 수록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2] 잡지 『어린이』에 수록된 연도별 광고 수

연도	잡지 발간 수(점)	광고 개수(점)	권당 광고 수(점)
1923년	2	4	2
1924년	11	22	11
1925년	12	32	16
1926년	11	34	17
1927년	8	28	14
1928년	7	21	10.5
1929년	9	32	16
1930년	10	52	26

1931년	11	64	32
1932년	12	128	64
1933년	10	74	37
1934년	6	43	21.5
1935년	1	12	6
1948년	4	3	1.5
1949년	6	10	5
계	120	559	잡지 1점당 평균 광고수: 4.66

잡지 『어린이』 수록 광고는 주로 책 광고와 일반 상품 광고이다. 책 광고는 주로 개벽사에서 발행하는 『신여성』, 『별건곤』 등의 잡지와 『사랑의 선물』 등의 단행본이 포함된다. 일반 상품은 치약, 안약 등의 약품, 노신과 같은 약품 광고와 어린이 간식 카라멜, 츄잉껌 등이 포함되며 일본 생산 제품이다. 잡지 『어린이』에서 책 광고외에 일반 상품 광고가 수록된 것은 1930년 1월 20일 통권 71호부터이다.

잡지 광고는 앞표지 이후 목차 근처, 또는 판권지 이후부터 뒤표지 사이에 집중적으로 배치되는데, 『어린이』에 수록된 광고 역시 그러하다. 본문 앞뒤에 광고에 배치된다는 점에서 편의상 ‘본문 밖 광고’로 명명한다. 잡지 내 본문에서는 게재된 작품의 분량에 따라 지면에 공백이 생기면, 남은 지면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광고를 수록하기도 한다. 이를 편의상 ‘본문 안 광고’로 명명한다.

[표 3] 광고 상품 및 수록 위치에 따른 광고 수량

연도	광고 총 수량			잡지 1점당 광고 수량		
	본문밖광고		본문안광고	본문밖광고		본문안광고
	일반소비재 광고(점)	책광고(점)	책광고(점)	일반소비재 광고(점)	책광고(점)	책광고(점)
1923년	0	4	0	0.00	2.00	0.00
1924년	0	18	4	0.00	1.64	0.36
1925년	0	27	5	0.00	2.25	0.42
1926년	1	32	1	0.09	2.91	0.09
1927년	0	27	1	0.00	3.38	0.13
1928년	0	16	5	0.00	2.29	0.71
1929년	0	28	4	0.00	3.11	0.44
1930년	7	42	3	0.70	4.20	0.30
1931년	10	37	17	0.91	3.36	1.55
1932년	21	83	24	1.75	6.92	2.00
1933년	21	32	21	2.10	3.20	2.10
1934년	15	16	12	2.50	2.67	2.00
1935년	3	9	0	3.00	9.00	0.00
1948년	0	0	3	0.00	0.00	0.75
1949년	0	0	10	0.00	0.00	1.67
계	78	371	110			

잡지 『어린이』에서 본문 밖 광고는 치약, 안약, 카라멜, 풍선껌 등의 일반 소비재 광고와 책 광고가 모두 확인된다. 반면, 본문 안 광고에서 일반 소비재 광고는 찾을 수 없으며 개벽사에서 발간한 『신여성』, 『별건곤』, 『혜성』, 『학생』 등의 잡지와 『사랑의 선물』 등의 책 광고이다.

광고 총 559점 중 ‘본문 밖 광고’는 449점, ‘본문 안 광고’는 110점이다. 본문 안 광고는 책 광고만 나타나며 본문 밖 광고는 다시 상품에 따라 일반 소비재 광고와 책 광고로 나눌 수 있다. 본문 밖의 앞표지 다음이나 뒷표지 근처에 수록된 광고 중 일반 소비재 광고는 78점, 책 광고는 371점이다. 일반 소비재 광고는 잡지 『어린이』 발간 초기에는 나타나지 않다가 1930년 1월 20일에 발간한 제8권 제1호부터 등장한다. 일반 소비재 광고는 주로 라이온치마분, 로도안약, 노신, 카라멜, 풍선껌 등 주로 일본 상품이다. 1931년에서 1934년까지 1년간 10회 이상의 일반 소비재 광고가 수록되었는데, 1933부터 35년까지는 잡지 1점당 2-3점 정도의 일반 소비재 광고가 실리기도 하였다. 이는 개벽사에서 발행한 『신여성』과 비교를 한다면 광고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은 아니다. 『신여성』 역시 자사의 서적 광고가 중심이었지만 1930년대 들어 광고량을 늘렸는데, 1920년대에 비해 1930년대에는 3-4배 이상 증가하여 매호 15-30개 이상의 광고를 수록하였다(김윤선 2009:51).

잡지 『어린이』에 수록된 광고는 형식에 따라 전면 광고, 분할 광고, 쪽광고로 다시 나눌 수 있다. 전면 광고는 한 면 전체가 상품을 소개하는 것이며, 분할 광고는 잡지의 한 면을 분할해서 3~4개의 광고를 싣는 것이다. 쪽 광고는 본문 일부 공간에 작은 상자를 만들어 광고를 싣는 방식이다. 대체로 본문 밖의 광고들은 광고가 1페이지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전면 광고와 분할 광고의 형식을 띄지만 본문 안의 광고들은 본문 수록 후 여백을 활용하기 때문에 쪽광고가 다수를 이룬다⁶⁾.

[그림 1, 2] 잡지 『어린이』 수록 본문 밖 광고와 본문 안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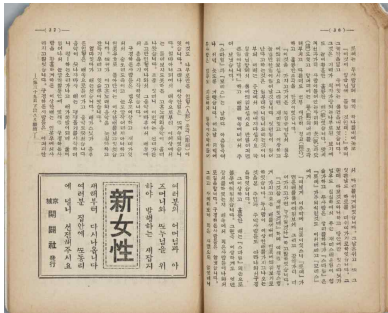
라이온 치마분 광고, 『어린이』 제9권 제3호, 1931. 3. 20.



천도교 소년회·기독교 소년회·수성소년회·해주소년회 광고, 『어린이』 제2권 제1호, 1924. 1. 13.

6) 1920년대 『신여성』 수록 광고는 페이지 전체가 서적 한 권을 소개하는 전면 광고, 한 페이지를 분할해서 3-4개의 광고로 소개되는 형식, 혹은 본문 내용 중 빈 여백을 이용하여 작은 상자에 광고를 싣는 쪽 광고 형식 중 주로 첫 번째, 두 번째 형식을 취한다(김윤선 2009:45). 문예지의 광고를 분석한 손동호(2022:329~330)에서는 광고가 수록된 서적 526건 중 목록형 광고가 수록된 서적이 184권에 해당한다. 『어린이』 수록 광고에서는 목록형 광고는 주로 앞표지 뒤에 배치되는 경향이 있다.

[그림 3] 잡지 『어린이』에 수록된 쪽광고



[그림 3]은 잡지 『어린이』에 수록된 쪽광고로, 본문의 여백을 활용해 개벽사에서 발행하는 잡지나 단행본 등을 알렸다.

『신여성』, 『어린이』, 제8권 10호, 1930. 12. 20.

3. 잡지 『어린이』 수록 광고의 언어·문화적 특성

3.1. 일반 소비재 광고

잡지 『어린이』 광고는 개벽사에서 발간한 책 광고가 다수이지만 일반 소비재 광고도 있었다. 상품 종류에 따라 광고의 양상도 다르게 나타난다. 일반 소비재 광고는 상품을 사용하는 장면이나 효능을 묘사한 도안을 통해 독자의 시선을 유도하는 도안 중심의 광고라면, 책광고는 도안을 삽입하기보다는 텍스트를 통해 책의 내용이나 재미, 효용 등을 강조한 텍스트 중심의 광고이다. 1930년대 일제는 광고량이 증가하면서 과장 광고, 허위 광고, 저질 광고 등을 규제하기 위하여 광고를 단속하였지만 언론 탄압 차원에서 광고를 통제하기도 하였다. 특히 일러스트레이션이나 카피를 바꾸지 않은 채 그대로 국내로 들어온 일본 광고는 일제의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역할을 수행하였다(국사편찬위원회 편 2007:106-108). 그러나 『어린이』에 수록된 광고들은 일제의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역할이 드러나지 않는 광고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광고주 및 광고 상품에 따라 다른 매체 수록 광고에 비해 한국적 도안이나 한글 표기를 좀 더 사용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그림 4, 5] 《조선일보》 수록 라이온치마분 광고



라이온齒磨는 兒孩에게도 쫓소

- 라이온치마분, 조선일보 1면, 1926. 12. 14.

ライオン齒磨

팔린다! 팔린다! 팔린다! 滋味있게 팔린다
날너가는 것 가티 팔린다.

라이온齒磨

至今은, 男子도, 婦人도, 어린이도, 모다 이것
만을 쓰고 있습니다

- 라이온치마분, 조선일보 6면, 1927. 11. 15.

[그림 4, 5]는 《조선일보》에 게재된 라이온치마분 광고이다. 두 광고 모두 어린이에게 유용한 제품임을 알리고 있는데, [그림 6]에서는 ‘兒孩’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으나 [그림 7]에서는 ‘어린이’라는 단어가 사용된다. [그림 6]에서 사용된 ‘兒孩’는 중세국어의 ‘아히’를 한자어에서 기원한 것으로 인식하고 ‘아이’라는 의미를 지닌 한자 ‘兒’와 ‘孩’를 결합한 단어이다.

[그림 6-8] 라이온치마분 광고 비교: 동아일보 수록 광고와 『어린이』 수록 광고



주무시기 前에도 니를 닥그
십시오
어린 째부터 니를 닥그십시
오
- 라이온치마분, 《동아일보》,
1930. 9. 9.



어렸슬 째부터 『니』를 닥그
십시다
어렸슬 째에, 치마분을 쓰지
안이하면, 일생을 충치로 고
통을 받습니다.
- 라이온치마분, 『어린이』
제8권 제6호 1930. 7.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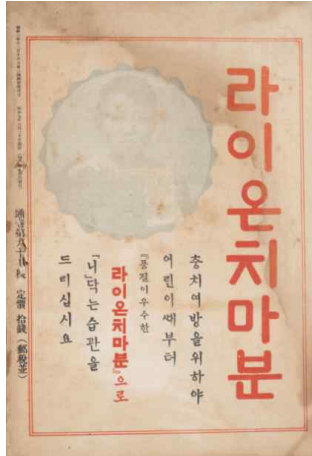


충치가 생기면 이압힘에 고통
을 바들 뿐만 안이라 뇌수에
도 해로우니 어린이 째로부터
라이온치마분을 사용하시와
이를 견고히 곱게 합시다
- 라이온치마분, 『어린이』
제11권 제7호 1933. 7. 20.

1930년대 라이온치마분 광고에서는 어린이가 양치를 하거나 치약을 들고 있는 도안을 활용하여 어린이에게 유용한 제품임을 내세우기도 한다. 라이온 치마분 광고는 『동아일보』 등 신문 광고에서 일본인 어머니와 아이가 도안에 등장하지만 잡지 『어린이』에서는 한복 입은 여성이 등장한다. 또한 두 광고 모두 상품명과 광고주 표시에서는 가나와 한자를 사용하였지만 본문에서는 문자 사용 양상에서 차이가 있다. 《동아일보》 수록 라이온치마분 광고와 달리 『어린이』 수록 광고에서는 본문에서 순한글을 사용하였다. [그림 8]의 광고는 잡지 『어린이』의 라이온치마분 광고로 도안에서 어린이가 치약을 들고 있는 모습을 통해 주체적인 어린이의 모습을 그렸다. 또한 ‘닥그십시오’와 같이 명령형을 사용한 [그림 6]과 달리, [그림 7, 8]에서는 ‘닥그십시다’, ‘이를 견고히 곱게 합시다’ 등 청유형 문장을 사용하였다⁷⁾.

7) 『어린이』 수록 광고의 한글 사용 양상은 본문에서 한글을 주로 사용하지만 한자나 가나를 사용한 광고도 확인된다. 잡지 『어린이』 수록 모리나가 카라멜 광고에서는 본문에서 한글을 주로 사용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어린이』 제11권 제11호(1933.11.20.)에서는 선생과 생도의 대화문이 한자와 가나로 수록되기도 하였다.

[그림 9] 상품명에 한글로 표기된
라이온 치마분 광고



충치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 재부터 품질이
우수한 『라이온치마분』으로 「니」 닥는 습관
을 드리십시오
-라이온치마분, 『어린이』 제10권 제8호
1932. 8. 20.

[그림 9]는 ‘라이온치마분’이라는 상품명에 한
글로 표기된 광고이다. 일제 강점기 광고의 표
제에는 제품명을 포함하고, 다른 언어 요소보
다 제품명에 소비자의 시선을 가장 먼저 집중
시킬 수 있도록 도안에 제품명을 포함한다(서
은아 2006:150-155). 일제 강점기 일본 회사의
일반 소비재 광고들은 상품명에 한자와 가나로
크게 적어 가장 눈에 띄게 배치하는데, [그림
9-10]은 상품명에 한글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
다. [그림 9]는 제품명을 본문에 포함하고 본문
보다 조금 크게 붉은 글씨로 표기한 반면 [그
림 10]은 [그림 7. 8]에서처럼 상품명에 가장
돋보이게 만든 광고인데, 한자와 가나가 아닌
순한글을 사용하고 있다. 라이온 치마분 광고
는 1930년대부터 상품명에 쓸 때, 순한글 상품
명을 사용하기도 하고, 한자와 가나로 상품명
을 표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잡지 『어린이』
9권 2호부터는 ‘라이온치마분’을 한글로 표기하
거나 ‘라이온齒磨’와 같이 한자와 한글을 함
께 사용한 상품명만 확인된다.

[그림 10-12] 모리나가 카라멜 광고 비교: 조선일보 수록 광고와 『어린이』 수록 광고



카라멜 一個의
元氣로 雪中千里의
大滑走
-모리나가 카라멜 광고,
《조선일보》 3면,
1931. 2.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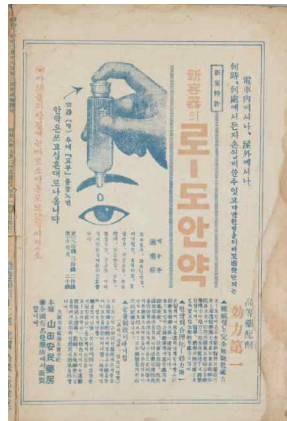
잘 배우고 잘 놀으라
工夫에는…冊이 必要함과 가치
運動에는…반드시 キャラメル
- 모리나가 카라멜 광고, 『어
린이』 제10권 7호, 1932 .7.
20.



내가 제일 먼저 먹군하는 것!
세계에서 제일 잘 팔리는!
- 모리나가 카라멜 광고, 『어
린이』 제11권 제9호, 1933. 9.
20.

[그림 10-12]는 카라멜 광고 중 《조선일보》 수록 광고와 잡지 『어린이』 수록 광고를 비교한 것이다. 이들 모두 상품명은 그대로 가나로 적었으며 [그림 10]은 본문에서 한글과 한자를 사용하였으며 [그림 11]는 본문에서 한글과 한자, 가나를, [그림 12]에서는 본문에서 한글을 사용하였다.

[그림 13-15] 약품 광고 비교: 동아일보 수록 광고와 『어린이』 수록 광고



안약계의 王者
世界에 자랑하는 眼藥界의
驚異!

아모데서나 손쉽게 쓸 수 있
고 한방울도 浪費안된다

- 로도안약, 《동아일보》 6
면, 1932. 08. 28.

電車内에서나, 屋外에서나,
何時, 何處에서든지 손쉽게
쓸 수 있고 다만 한방울이라
도 虛費안되는 新容器의 로-
도 안약

아해들의 안질에는 짜로 소
아용로도 안약이 잇소
-로도안약, 『어린이』 제10권
제3호, 1932. 3. 20.

노-신을 잡수시오

...

머리가 아모리 몹시 압흐드
래도 노-신을 잡수시면
췌병 가티 나으니까 당신들
의 아버지 어머니 兄님 누나
들의 頭痛으로 매우 괴로움
을 당할 췌가 잇거든 잇지
말고 곳 노-신을 잡숫도
로 권고합시다

-노신, 『어린이』 제9권 제3
호, 1931. 3. 20.

[그림 13, 14]는 각각 《동아일보》와 『어린이』에 수록된 로도 안약 광고로, 안약 사용법을 도안으로 사용하였다. 두 광고 모두 본문에서 한글과 함께 한자,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다. 1896~1910년 개화기 신문 광고에서도 약품 광고는 한자어가 주로 사용(서은아 2014: 194)되며, 이를 한글로 표기하지 않고 한자 그대로 사용한다. [그림 14]는 잡지 『어린이』에서 총22회 등장하는데 동일한 광고가 게재된다. 잡지 『어린이』에서 노신 광고는 총 11회 게재되며 도안은 동일하고 광고문이 다른 2종의 광고가 수록되어 있다. 이 중 [그림 15]은 어린이들이 이 두통약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에게도 사용을 권하라는 내용이 실려 있다.

3.2. 책 광고

잡지 『어린이』에 수록된 책 광고는 개벽사에서 발행한 잡지 『별건곤』, 『신여성』 등의 비중이 높으며 『사랑의 선물』, 『세계일주동화집』등 아동문학도서, 참고서 광고 등이 포함된다. 잡지 광고 중 본문 밖에 수록된 광고는 전면 광고이므로 지면이 넓어 잡지의 목차를 오롯이 수록하기도 하였다.

[그림 16-17] 『어린이』 수록 『별건곤』, 『신여성』 광고



『별건곤』 신년특집특대호, 『어린이』 제9권 『신여성』 11월호, 『어린이』 제9권 제10호, 제9권 제1호, 1931. 1. 1. 1931. 11. 20.

어머니의 잡지! 아즈머니의 잡지! 누님들의 잡지!

다 가치 읽으시도록 勸하시요. 여러분의 권고하신 덕택으로 十月호는 책이 모자랐습니다
- 『신여성』 11월호, 『어린이』, 제9권 제10호, 1931. 11. 20.

『별건곤』이나 『신여성』 등의 잡지는 목차를 그대로 나열하여 보여주는 유형도 있지만, 누구나 읽어도 유익하고 재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거나 독자층을 명시하고, 어린이들이 해당 독자층에게 읽을 것을 권하라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그림 18] 『어린이』 수록 『별건곤』 광고



집집마다 이 讚辭! 「天下第一 別乾坤」
老眼의 아버지도 이 熱心
과연 그러라
別乾坤처럼 유익하고 재미있는 잡지는 세상에 또 업서
밥 짓는 어머니도 이 熱心
참말이지 별건곤 안 보고는 못 견디겠서
여-허허허허
온 집안 식구가 다 보네
別乾坤을……
有益하고 재미있고 알기 쉽고 읽기 쉬운 天下第一 「別乾坤」
『별건곤』, 『어린이』, 제10권 제8호, 1932. 8. 20.

[그림 18]은 본문 밖에 실린 전면 광고로, 가족 구성원의 도안과 대화문을 통해 『별건곤』이 가족 구성원 누구나 읽기에 좋은 잡지라는 점을 알리고 있다. 본문 내의 쪽광고들은 광고 지면이 좁은 관계로 짧은 문구로 구매를 유도했는데, 광고가 실린 매체가 잡지 ‘어린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어린이 독자가 성인에게 구매를 유도하도록 하는 문구를 배치하였다.

본문의 여백을 활용하여 개벽사에서 발행하는 책 광고를 수록하였는데. 쪽 광고에서는 지면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짧고 간결한 문장을 사용하며, 좀 더 적극적으로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명령문을 사용하거나 책값을 명시하였다.

[그림 19] 『어린이』 수록 『신여성』 광고 (쪽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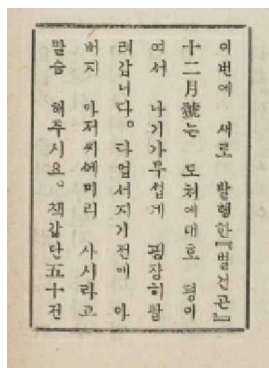
여러분의 어머니와 아즈머니와 또 누님을 위하여 발행하는 새 잡지

새해부터 다시 나오니다

여러분 집안에 또 동리에 널니 선전해 주시요 京城 開闢社 發行

- 『신여성』, 『어린이』, 제8권 10호. 1930. 12.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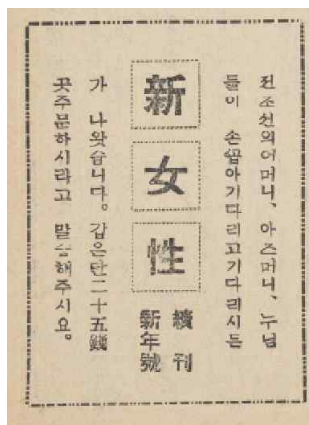
[그림 20] 『어린이』 수록 『별건곤』 광고 (쪽광고)



이번에 새로 발행한 『별건곤』 十二月號는 도처에 대호평이어서 나가기 무섭게 굉장히 팔려 갑니다. 다 업서지기 전에 아버지 아저씨께 미리 사시라고 말씀해주시요. 책값단 五十錢

- 『별건곤』, 『어린이』, 제8권 10호. 1930. 12. 20.

[그림 21] 『어린이』 수록 『신여성』 광고 (쪽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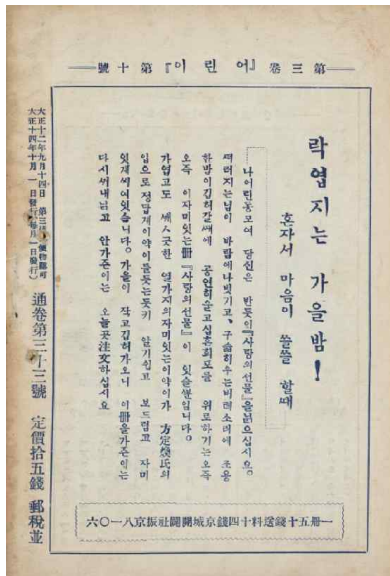
전 조선의 어머니, 아즈머니, 누님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기다리시든 新女性 續刊 新年號가 나왔습니다. 값은 단 二十五錢 곳 주문하시라고 말씀해주시요.

- 제9권 제1호 신여성

[그림 19-21]은 ‘선전해 주시요’, ‘사시라고 말씀해주시요’와 같이 명령문을 활용하여 『신여성』과 『별건곤』을 광고하고 있다. [그림 20]은 『별건곤』이 빠르게 팔려 나가 다 없어질 지도

모른다는 위협 소구를 통해 구매를 권하고 있으며 책값을 명시하였다.

[그림 22] 『사랑의 선물』 광고



락엽지는 가을밤!
 혼자서 마음이 쓸쓸할 때
 나 어린 동모여 당신은 반듯이 『사랑의 선물』을
 넘으십시오.
 찌러지는 낚이 봄에 나뭇가지, 구슬이 우는 버
 레 소리에 조용한 밤이 깊어갈 때에 공연히 울
 고 심혼 회포를 위로하기는 오죽 오죽
 이 자미 잇는 冊 『사랑의 선물』이 잇슬 뿐입니
 다.
 가엽고도 새스긋한 열가지의 자미잇는 이약이가
 方定煥氏의 입으로

정답게 이약기를 뜻는 듯키 알기 쉽고 이 冊을
 가진 이는 다시 꺼내 넘고 안 가진 이는 오늘
 곧 主文하십시오
 -『사랑의 선물』, 『어린이』 제3권 제10호, 1925.
 10. 1.

『사랑의 선물』은 방정환이 번역하여 편찬한 세계명작동화집으로, 『사랑의 선물』 광고는 소비자가 어린이이므로 광고 메시지의 수신자는 ‘어린이’이고 독자의 ‘눈물’에 호소하는 ‘감성 소구’ 전략을 사용하였다(최윤정 2013:250-256). [그림 22]에서는 별레가 가을밤의 분위기를 배경으로 제시하고 쓸쓸할 때 읽는 책으로 『사랑의 선물』을 권하고 있다.

『어린이』에 수록된 광고들은 수입원의 역할을 했지만 동시에 개벽사 발행 잡지 광고를 통해 잡지의 발행 의도를 알려 잡지 구매를 유도하였다.

[그림 23]



조선에 잡지가 만치만 우리 개벽사 잡지처럼 고로 조
 선 사람을 위하여 싸와가면서 나오는 잡지는 다시 업
 습니다. 이달에도 여러 격사가 삭제를 당하는 처지에
 잇섯스나 격자들은 밤을 새워가면서 다시 새 원고를
 써서 훌륭한 책을 꿈여 노았습니다. (중략)
 개벽사 五大 雜誌 어린이까지 全部를 一年 선금으로
 보신다면 책값을 특별히 할인하여 『七圓』으로 하여들
 인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리익을 무시하여서까지
 한 분에게라도 더 조선의 실사정 세계의 형편을 깨어

여러분 덕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힘있는 데까지 우리 개벽사 잡지 선전을 해야주시면 참으로 고마운 일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벽사 하나를 잘되게 하겠다는 욕심에서만 여러분께 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것을 위하여 더 소중한 것을 위하여 드리는 부탁입니다.

[그림 23]은 개벽사의 잡지 『제일선』, 『별건곤』, 『신여성』 광고로 개벽사의 5대 잡지 전부를 1년 구독하면 책값을 할인해준다는 광고이다. 5권을 1년 구독하는 방식이 개벽사의 이익보다는 독자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계몽적 의도에서 시행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게다가 개벽사가 조선 사람을 위해 만들어지는 잡지이며, 잡지 검열로 인해 기사가 삭제되었지만 밤을 새워 새 기사를 다시 작성하여 책을 다시 만들었음을 알리고 있다. 이는 개벽사의 잡지 발간이 단순히 판매 수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잡지 발간을 통해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더 큰 목적임을 밝힌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이 단순히 물적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의미체이며 개인은 사회문화 속에서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이두원, 김인숙 2004:127)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잡지 『어린이』를 소비하는 어린이와 어른들은 『어린이』가 추구했던 가치에 공감하고 『어린이』를 구매하고 읽는 행위를 통해 이를 지지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그림 24-26] 『어린이』에 수록된 『어린이』 광고

== 卷 式 어 린 이 ==

五十一이 온나다. 어린이의일이온나다. 年中에第一인것은날이드라온나다. 출
후고 노래하고 한집에서간계를올려이 도라온나다. 아담과손과와 어엿은 세사
나의물을모라가지고 우뚝어린이의날이 도라온나다 이 짓집고 종기운남에
의세상 몇백의「어린이」들의부름귀기위하야 우리는 祝福호를내입나다

어린이의날

祝福號

五月一號發行

우선 첫장부터 平和로써希望에 가득찬綠色으로만나게되고 方定銀低高漢承良의
자르섯는童話로써비하야 가저가져도 痛苦한中에도 痛苦한中에도 웃아오고
우어어린의日獨特의特征을가진한大附錄을하나씩 가저되거워엇습나다. 아이 품거
은어린이의날 그날과같은 이치를가다머수신서요 定價는여섯한十錢!!

第廿一圖一年九月十五日第三四期一便通發行

通卷第十五號 定價 廿十錢

- 『어린이』, 『어린이』 제2권 제4호, 1924. 4.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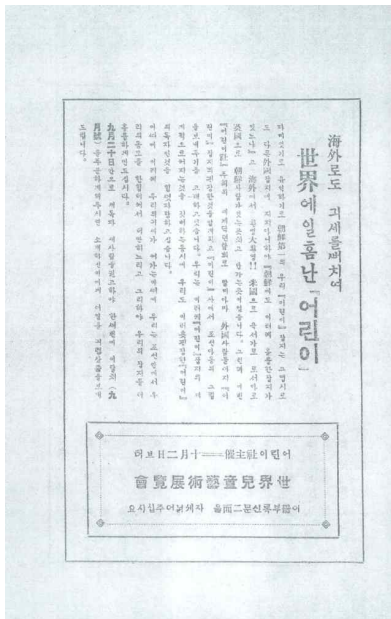
이 책의 십만독자 여러분 오늘이 『어린이날』입니다
더할 수 업시 즐거운 이 날에 각각 자기의 정다운
동모를 조흔 데로 인도하기 위하여 『어린이』를 넘으
라 합시다

조흔 잡지를 권고하는 일은 천 마디 충고보다 낫습니
다

『어린이날』 조흔 그림으로 단 한 사람에게라도 조흐
니 『어린이』를 권고하십시오

- 『어린이』, 『어린이』 제4권 제5호, 1926. 5. 1.

해외로도 기세를 뻗치며 세계에 일홍난 『어린이』



자미잇기로 유익하기로 조선 제일의 우리 『어린이』
잡지는 그 맵시로도 다른 외국 잡지에 지지 아니하여
『조선에도 이렇게 훌륭한 잡지가 있느냐』고 해외에서
환영 대환영!! (중략) 이때에 이렇게 우리의 기세가
커가는 이때에 우리는 조선 안에서 우리 동모를 한
힘 더 써서 더 만히 느리고 그리하여 우리의 잡지를
더 훌륭하게 만드십시오.

구월 이십일 안으로 새독자 세 사람을 권고하여 한꺼
번에 이달치(구월호)를 주문하게 해주시면 소개하신
이에게 여덟분 그림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어린이사 주최 시월 이십일부터

세계아동예술전람회

이 책 부록신문 二面을 자세 넣어주십시오

- 『어린이』, 『어린이』 제6권 제5호, 1928. 9. 20.

[그림 24-26]은 잡지 『어린이』에 실린 『어린이』 광고이다. 잡지 『어린이』가 갖는 재미와 유
익함을 알리고 『어린이』의 독자를 늘려 잡지를 더 훌륭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하
고 있다. 잡지 『어린이』는 발행 의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광고가 수록되었으
며, 특히 『어린이』를 비롯한 개벽사의 책 광고는 일제 강점기 조선인들의 전통 문화유산을 지
키고 가꾸고자 했던 개벽사의 지향점이 반영되어 있다.

4. 결론

이 글에서는 잡지 『어린이』 1923년 3월 20일 창간호부터 복간된 1948년 5월 5일 123호부터 1949년 12월 1일 137호까지 총 120점에 수록된 광고를 분석하였다. 『어린이』 수록 광고는 표지 다음이나 뒷표지, 뒷표지 앞 등 본문 밖에서는 전면광고가 수록되며, 본문 내의 여백을 활용한 쪽광고도 있었다. 본문 밖의 전면 광고는 책 광고와 함께 약품, 카라멜, 풍선껌 등의 일본 상품 광고가 수록되었다. 반면, 본문 내의 여백을 활용한 쪽 광고는 개벽사에서 발행한 책 광고가 수록되었다. 일반 소비재 광고는 잡지 『어린이』 발간 초기에는 나타나지 않다가 1930년 1월 20일에 발간한 제8권 제1호부터 등장한다. 1931년에서 1934년까지 1년간 10회 이상의 일반 소비재 광고가 수록되었는데, 1933부터 35년까지는 잡지 1점당 2-3점 정도의 일반 소비재 광고가 실리기도 하였다.

일반 소비재 광고들은 광고주나 상품에 따라 다른 매체에 비해 잡지 『어린이』에서 한국적 도안을 사용하거나 한글 사용을 선호하는 예를 확인할 수 있었다. 책 광고는 전면 광고에서 책의 목차를 수록하거나 도안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반면 쪽 광고는 지면이 좁기 때문에 도안 없이 짧고 간결한 문장으로 이루어지며, 명령문을 통해 적극적인 구매를 권하였다. 또한 광고 마지막에는 책값을 명시하였다. 『어린이』에 수록된 광고들은 수입원의 역할을 했지만 동시에 개벽사 발행 잡지 광고를 통해 잡지의 발행 의도를 알려 잡지 구매를 유도하였다. 잡지 『어린이』의 소비자들은 『어린이』를 구매하고 읽는 행위를 통해 『어린이』가 추구하는 가치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였다. 『어린이』에는 잡지 발행 의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광고가 수록되었으며, 특히 『어린이』를 비롯한 개벽사의 책 광고는 일제 강점기 조선인들의 전통 문화유산을 지키고 가꾸고자 했던 개벽사의 지향점이 반영되어 있다.

참고문헌

- 국립한글박물관(2023), 기획특별전 ‘어린이 나라’ 도록, 국립한글박물관
- 국사편찬위원회 편(2007), 광고, 시대를 읽다, 두산동아
- 김미미(2018), 일제 강점기 학생 잡지 『어린이』의 국어교육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완진(1983), “한국어 文體의 발달”, 韓國 語文의 諸問題, 일지사, 229-254.
- 김윤선(2009), 근대 여성매체 『신여성』에 나타난 여성의 소비문화, 동양학 45,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41-62
- 김한식(2006), '잡지의 서적 광고와 내면화된 근대 - 『청춘』과 『개벽』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16, 상허학회, 119-152
- 서은아(2006), 일제 시대 광고 언어의 특징 연구, 한말연구 19, 한말연구학회, 145-175.
- 손동호(2022), 근대 문예지의 광고 연구-1920년대 문예지 소재 서적 광고를 중심으로, 어문론총 94, 한국문학언어학회, 309-342
- 안예리(2013), 20세기 전반기 국어의 문장 구성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예리(2015), “보도기사 전언(傳言) 종결 표현의 변화”, 한국어학 66, 한국어학회, 161-187.
- 이두원, 김인숙(2004), 근대 신문광고(1886~1949) 내용분석 연구: 근대 소비문화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광고학연구 제15권 5호, 한국광고학회, 101-129

정용서(2015), 개벽사의 잡지 발행과 편집진의 역할, 한국민족운동사연구83, 한국민족운동사학회, 145-186.

최윤정(2013), 방정환의 『사랑의 선물』 광고 전략에 나타난 근대 동화(童話) 기획 연구 = 『어린이』 수록 광고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문학연구 25, 한국아동문학학회, 239-270

한영균(2018), “신문 사설에서의 현대적 국한혼용문의 출현 및 확산”, 국어국문학 184, 국어국문학회, 241-271.

한영균(2019), 『동아일보』 1920년 사설의 문체 특성, 구결연구 42, 구결학회, 295-337

허연실(2019), 근대 잡지 광고 서사의 모티프 연구, 인문사회 21 35, 인문사회 21, 1543-1558

신하영·김민지 선생님의 발표문은 잡지 『어린이』에 수록된 광고문을 분석한 글입니다. 『어린이』는 1923년 3월 창간되어 1935년 3월 통권 122호(13권 제1호)로 폐간되었다가, 1948년 5월 복간되어 1949년 12월 통권 137호까지 발행되었습니다. 개벽사에서 발행한 잡지 중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호수가 발행되었습니다.

1976년 간행된 『어린이』 영인본에는 일제시기에 나온 122개 호 중 88개 호와 해방 후 나온 15개 호 중 14개 호를 합하여 총 103개 호가 수록되었습니다. 2015년 일제시기 나온 28개 호가 추가로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이후 몇 개 호가 더 발견되어 아직 그 내용 확인이 안 되는 『어린이』는 총 3개 호[1933년 1월호(11권 1호) 4월호(4호), 1948년 9월호(통권 126호)]입니다. 이렇게 『어린이』가 발견되고 다시 읽을 수 있게 된 데는 발표자들의 노력이 컸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이하에서는 발표자가 부연 설명해 주었으면 하는 몇 가지를 언급하는 것으로 토론자의 의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첫째, 통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발표자들은 『어린이』 총 137개 호 중 내용 확인이 되는 134개 호를 일일이 넘기며 120개 호에 수록된 광고를 정리하였습니다. 이것은 134개 호 중 14개 호에 광고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표 2]에서 120개 호에 총 559건의 광고가 실렸고, 따라서 권당(잡지 1개 호 당) 광고 수는 평균 4.66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광고가 실린 120개 호만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광고가 실리지 않은 14개 호를 포함한 134개 호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4.17건이 됩니다. 또한 타블로이드판 형태로 1923년 발행된 제1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어떤 제한이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 통계를 어떻게 산출하는 것이 더 유의미한지 검토해 봤으면 합니다.

아울러 분석 대상을 일제시기 발행 『어린이』로 한정했으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해방 후 발행된 『어린이』와 일제시기 발행된 『어린이』를 동일선에 올려놓고 분석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필자들도 해방 후 발행 『어린이』 수록 광고를 통계에서는 다루었으나, 본문 분석이나 결론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통계 역시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일반 상품(치약, 안약, 두통약(노신), 캐러멜(caramel), 껌 등) 광고와 관련된 것입니다. 『어린이』 1930년 1월호(8권 1호, 통권 71호)부터 상품 광고가 처음 실리기 시작합니다. 뒤표지에 실린 치약(라이온 치마분) 광고입니다. 1930년의 경우 1월호인 8권 1호부터 12월호인 8권 10호(통권 80호)까지 10회에 걸쳐 라이온 치마분 광고가 실립니다. 라이온 치마분 광고는 이후에도 계속 뒤표지에 실립니다.

발표자들은 『어린이』에 실린 라이온 치마분 광고를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신

문광고와 비교하며, “한국적 도안이나 한글 표기를 좀 더 사용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는 등의 특징을 도출하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합니다.

1930년 발행된 10개 호를 예로 들어 보면, 71호~74호는 그림과 광고문이 동일하고, 75호는 앞 호와 그림은 동일하나 광고문이 바뀝니다. 76호~77호는 75호와 다른 그림과 광고문이고, 78호, 79호, 80호는 각기 다른 그림과 광고문입니다. 다른 매체의 동일 제품 광고와 비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린이』 잡지 속에서 동일 제품의 광고가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추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에 광고된 일반 상품(책 광고도 가능하다면 포함해서)이 무엇인지 얼마나 자주 광고되었는지 등에 대한 통계표가 있으면 글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셋째, 1930년 혹은 1931년부터 광고가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현상을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인을 찾아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벽사에서는 1932년 7월부터 자신들이 발간한 잡지에 대한 신문광고를 축소하기로 하였습니다. 1932년 5월 창간한 『신경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신경제』는 개벽사 발간 잡지에 수록된 기사를 소개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경제』를 팔기 위한 전략, 즉 일종의 자체 광고 매체를 이용하려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가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1932년 『어린이』 수록 책광고(본문 안과 밖 공고 모두)가 증가한 것이 혹시 이런 개벽사 운영 방침과 관련이 있는지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어린이』 광고 분석은 『어린이』 독자층 분석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강의록(중학강의록, 철도원양성강의록 등) 광고나 ‘현상 공모’ 정답자 상품(보통학교나 소학교 학생이면 학교로 월사금을 보내고, 학생이 아니거나 중학생이면 10원어치의 강의록을 보내주거나 공부에 필요한 책을 한 달에 두 권씩 10원이 다할 때까지 계속해서 보내준다) 등을 보면, 『어린이』 독자는 보통학교나 중학교 학생은 물론 학교를 다니지 않는 사람 등 다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약품(안약, 두통약 등) 광고 분석 역시 『어린이』 독자층 분석에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어린이』를 비롯한 개벽사의 책 광고는 일제 강점기 조선인들의 전통 문화 유산을 지키고 가꾸고자 했던 개벽사의 지향점이 반영되어 있다.”의 의미를 좀 풀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불한당’의 어원 및 의미 변화에 대하여

조항범(충북대학교 명예교수)

1. 서론
2. ‘불한당’의 어원
 - 2.1. 기존의 설
 - 2.2. [[불+한(漢)]+당(黨)] 설
3. ‘불한당’의 형태 변화와 의미 변화
 - 3.1. 형태 변화
 - 3.2. 의미 변화
4. 결론

1. 서론

‘불한당’의 어원(語源)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아마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큰 망설임 없이 ‘不汗黨’이라 답하지 않을까 한다. ‘不汗黨’ 설이 민간에 제법 널리 퍼져 있고, 더욱이 국어사전에서조차 이러한 설을 인정하고 있으니 그렇게 답하는 것이 무리는 아니라고 본다.

‘不汗黨’ 설이 의심의 여지가 없어서인지 모르지만, 우리 학계는 ‘불한당’의 어원에 대해 이상할 정도로 침묵해 왔다. 학계가 모든 단어의 어원에 관심을 둘 수는 없다 하더라도, ‘불한당’과 같이 민간어원적 냄새가 물씬 나는 단어에 대해서는 진작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어야 하지 않나 한다.

과문의 타인지는 모르지만, ‘불한당’의 어원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홍기문(1938), 강길운(2010: 702)에 그치고 있다. 그마저도 전자는 ‘불한당’의 어원을 집중적으로 다루기는 하였지만, 또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¹⁾, 신문에 실린 짤막한 대중적 글이라는 점에서 논의가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고, 후자는 비교언어학의 도움을 받아 학술적 성격을 띠고 있지만, 어원사전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핵심 내용만 짤막하게 요약한 글이라는 점에서 논의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면 아직 ‘불한당’의 어원에 대한 본격적인 학술적 논의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계보다는 오히려 민간에서 ‘불한당’의 어원에 더 큰 관심을 갖고 고민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다양한 민간어원이 생성되었으며, 정설처럼 굳어진 ‘不汗黨’ 설이라 하더라도 색다른 해석이 계속 나왔다. ‘불한당’처럼 한 단어에 여러 어원설이 결부되고, 또 그 어원이 새롭게 윤색되어 다양하게 진화한 단어도 드물 것이다. 그런데 그 진화의 방향이 잘못되었음에도, 또 그 잘못된 진화의 내용이 공공연히 인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계는 이에 대해서도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다.

본고는 ‘不汗黨’ 설에 의문을 품고 시작한다. 이는 ‘不汗黨’을 왜곡된 한자어로 본다는 것과 같다. ‘땀을 흘리지 않는 무리’라는 의미의 한자어가 만들어지는 것도 수상하거나와 이것이 ‘강도떼’나 ‘깡패, 불량배’ 등과 같은 의미로 변하는 것도 어색해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 국어 속에는 ‘不汗黨’처럼 왜곡된 한자어들이 적잖이 숨어 있다고 본다. 이러한 한자어들을 찾아내어 바로잡는 일 또한 한자어 어원론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몫이다.

본고에서는 우선 ‘불한당’에 대한 기존의 어원설을 들어 비판한 뒤, 문헌 자료를 근거로 ‘불한당’의 어원을 실증적으로 구명해 내고자 한다. 여기서는 특히 ‘불한’이 문제가 되는데, ‘불’이 한자 ‘不’이 아님을 증명하는 일과 함께 ‘한’이 어떤 의미 기능을 갖는 요소인지를 밝히는 일이 중요 관심사이다. ‘불한’의 어원이 밝혀지면 자연

1)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본 것은 ‘불한당’의 ‘불’이 ‘火’의 뜻임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2.1.3.에서 다시 언급될 것이다.

스럽게 ‘불한당’에 딸린 여러 한자어 어원설이 허구로 드러날 것이다.

또한 본고에서는 ‘불한당’의 형태 변화와 의미 변화에도 주목하고자 한다. 형태 변화는 비교적 단순하여 그 변화의 양상을 설명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으나 의미 변화는 좀 복잡하여 그 시기, 과정, 결과 등의 양상을 일목요연하게 기술하기가 쉽지 않다. 의미 변화의 제반 양상을 정확히 기술해야만 ‘불한당’의 어원에 딸린 혼란상을 어느 정도 수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변화를 살피는 일 또한 ‘불한’의 어원을 구명하는 일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본다. ‘불한당’이 문헌에 처음 등장하는 17세기부터 현재까지의 문헌 자료를 근거를 그 의미 변화를 촘촘히 추적해 보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무엇보다 본고는 ‘불한당’의 어원을 되찾는 과정을 통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한자어 가운데에는 왜곡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이를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일이 한자어 어원론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임을 역설하고자 한다.

2. ‘불한당’의 어원

2.1. 기존의 설

‘불한당’의 어원에 대해, 지금까지 민간에 전해 오거나 학계에서 내놓은 설은 다음과 같다.

2.1.1. ‘不漢黨’ 설(1)

이는 ‘불한당’이 조선 정조대(正祖代)의 파당(派黨) 중의 하나인 ‘不漢黨’에서 온 것이라는 설이다. 조선 정조대에는 김한구(金漢耆, 1723~1769)가 중심이 된 남한당(南漢黨)과 홍봉한(洪鳳漢, 1713~1779)이 중심이 된 북한당(北漢黨), 그리고 이 두 파당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不漢黨’이 있었다.²⁾ 이 ‘不漢黨’이라는 파당이

2) 《正祖實錄(권1, 14장)》(정조 즉위년(1776) 4월 1일)에 나오는 다음의 기록이 참고된다.

또 김수현에게 ‘남한당·북한당·불한당’이라는 말에 대해 물었다. 대개 영조 만년에 분당의 조짐이 생겨 김한구와 친밀한 사람을 ‘남한당’이라 하고, 홍봉한과 친밀한 사람을 ‘북한당’이라고 하였으며, 북한당이나 남한당에 들지 않은 사람들을 ‘불한당’이라 하여 서로를 표방했었는데, 이홍록과 김수현이 이를 들어 임금에게 고했기 때문이었다(又問壽賢 南漢北漢不漢黨之說 蓋英宗晚年 有分黨之漸 親於金漢耆者 謂之南漢 親於洪鳳漢者 謂之北漢 不入兩漢者 謂之不漢黨 互相標榜 興祿壽賢 以此告上故也).

‘남한당(南漢黨)’과 ‘북한당(北漢黨)’은 《英祖實錄》에는 ‘남당(南黨)’과 ‘북당(北黨)’으로 나온다. 정순왕후(영조의 계비)의 친정(김한구의 집안)이 남산 아래에 있어서 ‘남당(南堂)’이라 한 것이고, 혜경궁 홍씨(사도세자 비)의 친정(홍봉한의 집안)이 서울 북쪽에 안국동에 있어서 ‘북당(北黨)’이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론(老論) 내의 ‘남당’과 ‘북당’의 기원은 오래되었고 그 외에 동당(東黨), 중당(中黨)이라고 불리던 집단도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집단들이 사도세자 사후에도 계속 이어져 김한구 중심의 ‘남당’과 홍봉한 중심의 ‘북당’으로 크게 재편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한구와 홍봉한의 위상이 크게 높아져 각 당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면서 이들 이름 자에 공통으로 쓰인 ‘漢’을 이용하

름에서 지금의 ‘불한당’이 비롯되었다는 주장이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현재의 ‘불한당’과 과당 이름 ‘不漢黨’은 음상(音相)이 같다는 점 이외에는 별반 관련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不漢黨’ 설이 성립하려면 적어도 ‘不漢黨’이 당시에 지탄받을 만한 일을 일삼은 부정적 집단이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不漢黨’은 권력의 핵심부에서 비껴 나 있던 비주류여서 그러한 일을 적극적으로 자행할 만한 부정적 집단으로 보기는 어렵다.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중이 다름 아닌 ‘不漢黨’을 떠올린 것은 이것과 단순히 음상이 같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것이 역사성을 띤 어휘라는 점이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불한당’의 어원이 불분명해지자 이에 대한 궁금증에서 우연히 음상이 같으면서 귀에 익은 역사 어휘 ‘不漢黨’을 얼른 떠올려 그것으로 어원을 삼은 것이라는 판단이다.

‘不漢黨’이라는 과당 이름이 《英祖實錄》에는 나타나지 않고, 《正祖實錄》에 등장하는 것을 고려하면, ‘불한당’에 대한 ‘不漢黨’ 설(1)은 적어도 정조 이후에 생겨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불한당’ 설(1)은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 예문에서 보듯, 20세기 이후 신문 기사에서 종종 ‘不漢黨’이 나온다. 이는 ‘不漢黨’ 설(1)이 민간에서 미약하나마 꾸준히 전승되었음을 알려 준다. 물론 20세기에는 ‘不汗黨’ 설이 지배적이었다.

(1) ㄱ. 親用金爭奪戰에, 第一有力한 黨派는, 李完用 一派의, 牛蘭黨이라나, 不漢黨과, 몇寸인고? 〈橫說豎說〉(동아일보 1925.7.11.)

ㄴ. 美軍 「C·I·C」를 模倣한 것은 아니겠지만 「S·I·S」, 「T·I·S」, 「G·I·G」 등 속의 機關이 大韓政治工作隊(D·J·K)에 이르러 不漢黨의 野性を 드러내자 法을 守護하기 위하여 敢然히 일어났던 것이니 〈時光을 받는 人物群像 李太熙君〉(동아일보 1950.4.24.)

ㄷ. 交通部 集計로만 해도 幹線에 跳梁하는 ‘깡’이 六百을 헤아린다 하니 政府는 이 不漢黨을 育成(?)하여 도대체 무엇에 써 먹으려는 것인가? 〈列車內 강패群 徹底 團束토록〉(경향신문 1961.4.23.)

ㄹ. 조선 후기 영조(英祖) 말년에 김한구와 친밀한 사람들을 ‘남한당(南漢黨)’이라 부르고, 홍봉한과 친밀한 사람들을 ‘북한당(北漢黨)’이라 해 두 과당으로 나뉘 서로 자기 당의 이익만 내세웠다. 그리고 이 과당에 들지 않은 사람을 불한당(不漢黨)이라 했는데, 후에 이는 불한당(不汗黨)으로 와전됐다. 〈송중복의 한자와 역사 이야기: 不汗黨(불한당)〉(경남매일 2017.10.25.)

여 기존의 ‘남당’과 ‘북당’을 ‘남한당’과 ‘북한당’이라 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3) 《承政院日記》(영조 5년(1729) 7월 16일)에 ‘大黨漢’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는 ‘큰 당에 속한 놈’이라는 뜻의 당대의 욕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큰 당’은 아마도 ‘南黨’과 ‘北黨’이 아닌가 한다. 당시의 두 거대 봉당에 속한 사람들이 욕을 받을 만큼 지탄받을 만한 짓을 자행하여 이러한 욕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남당’과 ‘북당’, 그리고 이들을 이은 ‘남한당’과 ‘북한당’이 부정적 집단으로 인식되었음을 말해 준다.

한편 (1ㄷ)에서 보듯, ‘不漢黨’ 설(1)에서는 본래 ‘不漢黨’이었는데 이것이 ‘不汗黨’으로 와전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이는 언중이 기존의 ‘不漢黨’ 설을 부정한 뒤 재해석하여 이를 ‘不汗黨’으로 왜곡하였다는 것과 같다. 기존의 어원설에 의문을 품고 관점을 돌려 생각을 달리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해석이 가능해지고, 그에 따라 또 다른 한자로 부회할 수 있다. 그런데 ‘不漢黨’을 부정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不汗黨’으로 재조정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어 보인다. ‘不汗黨’은 ‘不漢黨’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한자 부회의 예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나 한다. 다만 ‘不汗黨’의 경우에는 재해석 과정에서 그 의미까지 고려한 듯하다.

2.1.2. ‘不漢黨’ 설(2)

이는 ‘不漢黨’ 설(1)과 한자는 같으나 의미는 다른 것이다. 여기서는 ‘漢’을 ‘사람’의 뜻으로 보고, ‘不漢黨’을 ‘사람도 아닌 무리’로 해석한다. 사람 노릇을 하지 못하는, 거칠고 무도(無道)한 무리를 ‘不漢黨’이라 보는 것이다. 대체로 한문에 익숙한 지식인들이 이러한 설을 제한적으로 펴고 있다.

‘不漢黨’ 설(2)는 ‘不漢黨’이 현재의 ‘불한당’이 지니는 일부 의미와 흡사하다는 점에서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렇게 볼 만한 결정적 근거는 없다. ‘불한당’의 17세기 어형인 ‘불한당⁴⁾’을 고려하는 것만으로도 ‘不漢黨’ 설(2)는 곧바로 부정된다. ‘불한당’의 ‘불’과 중세국어 이래 ‘불’을 유지해 온 한자 ‘不’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한’을 ‘어떤 사람’이라는 뜻의 ‘漢’으로 보려 한 점만은 눈여겨볼 만하다.⁵⁾

2.1.3. ‘불현당(--黨)’ 설

이는 홍기문(1903~1992)이 《조선일보》 1938년 2월 13일 자에 실은 〈趨庭綠(二十五)〉에서 제기한 설이다.⁶⁾ 핵심 내용인즉 ‘불을 켜 당’이라는 의미의 ‘불현당(--黨)’이 와음(訛音)되어 ‘불한당’이 되었다는 것이다.

〈趨庭綠(二十五)〉는 ‘불한당’의 어원을 다룬 아주 소중한 자료이다. 대충을 상대로 한 짧은 글이지만, ‘불한당’의 어원을 집중적으로 다룬 유일한 글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여기서는 ‘불한당’을 이와 동의(同義) 관계에 있는 한자어 ‘明火賊’과 대응하여 그 어원을 찾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곧 ‘불’은 ‘明火賊’의 ‘火’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아 ‘火’의 뜻으로, ‘한’은 ‘明火賊’의 ‘明’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아 ‘(불을) 켜’의 뜻으로 보고 있다. 후자는 고어 ‘혀다(켜다)’의 관형사형 ‘현’이 ‘한’으로 잘못 변한

4) 17세기 ‘불한당’의 예는 뒤에 제시된 (6ㄱ~ㄷ)을 참조하라.

5) ‘불한당’의 ‘불’을 ‘不’로 보는 사람들은, 대체로 ‘불상놈(-常-)’의 ‘불’도 그렇게 본다. 그 결과 ‘불상놈’을 ‘상놈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편없는 사람’으로 해석한다. 물론 이는 잘못이다. ‘불상놈’의 ‘불’은 ‘火’의 ‘불’에서 접두사화한 ‘불-’로서, ‘몹시 심한’의 뜻을 더한다. 그리하여 ‘불상놈’은 ‘몹시 심한 상놈’, 곧 ‘상놈 중에서도 정도가 심한 상놈’으로 해석된다.

6) 이 글의 필자는 ‘岱山生’으로 되어 있다. ‘岱山’은 홍기문의 호이다.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해석한 것이다. ‘黨’은 ‘明火賊’의 ‘賊’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아 ‘賊黨’의 뜻으로 파악하고 있다.

결국 ‘불한당’을 ‘불현당’에서 기원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불을 켜 당’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는 불을 들고 야습하는 ‘明火賊’의 공격 습성을 십분 반영한 해석이다. 여기서 ‘불’을 ‘火’의 뜻으로 본 것이나 ‘黨’을 ‘賊黨’의 뜻으로 본 것은 지극히 합당하다. 특히 ‘불’을 ‘火’의 뜻으로 본 것은 타견이다.⁷⁾ 다만 ‘한’을 ‘혀다(켜다)’의 관형사형 ‘현’에서 변한 것으로 본 것은 분명 잘못이다. ‘현’이 ‘한’으로 변하기도 어렵거니와 ‘한’을 관형사로 볼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로 보면 ‘불현당’ 설은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완전한 설은 아니더라도, 당시 널리 퍼져 있던 한자 부회 설을 뛰어넘어, ‘불한’을 우리 고유어로 해석하려 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2.1.4. 몽골어 ‘burungxui’ 설

이는 ‘불한당’의 ‘불한’이 몽골 문어 ‘burungxui(싸우기를 좋아하는)’에 기원한다는 설이다(강길운 2010: 702). 이러한 설에서는 ‘burungxui’가 ‘pulxen(ᠫᠤᠬᠡᠨ>xen‘음운도치’>pulxan(불한)-黨(무리)’을 거쳐 ‘pulhan-taᠭ(불한당)’이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不汗黨’의 ‘不汗’은 취음자로 본다.

이는 ‘불한당’의 어원을 비교언어학적 관점에서 다룬 학술적 성과라는 점에서 평가할 수 있으나 여러 면에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 우선 몽골 문어 ‘burungxui’가 이렇듯 복잡한 음운 변화를 거쳐 ‘pulxan’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몽골어에 ‘pulxan’이 실재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국어에 들어와 ‘당(黨)’과 결합하여 굳이 ‘불한당’이라는 말을 만들어낼 만한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등에서 의심이 든다.

몽골 문어 ‘burungxui’를 17세기 어형 ‘불한당’의 ‘불한’과 비교해 보면 이러한 설은 더욱 의심스러워진다. 모음과 자음 모두에서 대응 관계를 세우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몽골 문어 ‘burungxui(싸우기를 좋아하는)’와 우리말 ‘불한당’의 의미가 그렇게 밀접하지 않다는 점도 몽골어 차용설을 의심스럽게 한다.

2.1.5. ‘不汗黨’ 설

이는 ‘땀을 흘리지 않는 무리’라는 의미의 한자어 ‘不汗黨’으로 보는 설이다. ‘불한당’과 관련된 어원설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져 있으며, 그것도 마치 정설처럼 굳어져 있다.

이에는 다음과 같은, 이러한 설을 뒷받침하는 그럴듯한 이야기까지 결부되어 있

7) 물론 이보다 앞선 《朝鮮語辭典》(1920)에서 ‘불한당’의 ‘불’을 ‘火’의 뜻으로 본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2.1.5.에서 다시 언급한다.

다.

(2) 옛날 공주 고을에 성격이 매우 거칠고 남의 집 재산을 강제로 빼앗는 등 못된 짓만을 골라서 하는 불량배 일당이 있었다. 고을 백성들은 그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하더라도 그들의 횡포와 보복이 두려워 감히 관가에 고발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지내야만 했다. 그러던 어느 해 담력이 세고 사리 판단이 분명한 원님이 그 고을에 새로 부임해 와서 민의를 살펴보니 백성들이 이들 못된 일당들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원님은 즉시 포교들을 풀어 이들을 관가로 잡아들이도록 하였다. 여느 백성 같으면 아무 죄가 없어도 관가에 불려오기만 하면 무서워서 등골에 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불려온 이들 일당은 포박을 지어 관가에 끌려와서도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태연하게 행동을 할 뿐만 아니라 아무리 심한 고문을 가해도 끄떡 않고 땀 한 방울도 흘리지 않으며 심지어 말대꾸까지 하였다. 보통 사람 같으면 진땀이 날 처지임에도 이처럼 태연하게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말대꾸를 하는 무리를 본 원님도 혀를 내두르며 『이놈들은 심한 고문을 받는 등 아무리 어렵고 무서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땀 한 방울을 흘리지 않으니 과시 불한당(不汗黨, 땀을 흘리지 않는 무리)이로구나!』라고 하였다. 이때부터 이처럼 거친 성격 을 가지고 못된 일만 골라서 하는 일당을 일컬어 불한당이라 하였다고 전한다. (충청도 전래 설화)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옛날 공주 고을에 새로 부임한 원님이 백성을 괴롭히던 불량배 일당을 잡아들여 문초를 하였는데, 얼마나 성격(性情)이 모질고 담대한지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이 태연하게 행동했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심하게 고문을 가해도 진땀은커녕 땀 한 방울도 흘리지 않은 채 끄떡없이 버텼다고 하여 이들을 ‘不汗黨’이라 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하다. ‘불한당’의 어원이 모호해지자 어원 의식이 크게 발동하여 ‘불한’을 ‘不汗’으로 부회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지역·인물·사건 등을 고루 갖춘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이다. ‘不汗黨’ 설은 이러한 흥미로운 전래 설화에 편승하여 민중의 뇌리에 깊숙이 박혔다. 물론 이와 같은 설화를 바탕으로 하는 ‘不汗黨’ 설은 터무니없는 것이지만, 위의 이야기에서 ‘불한당’이 ‘성격이 거칠고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 일당’이라는 의미로 변했다는 지적만큼은 믿을 만하다.

《韓佛字典 344》(1880)의 ‘한당’⁸⁾에 ‘汗黨’이 대응되어 있고, 《韓英字典 446》(1897)의 ‘불한당’에 ‘汗黨’이 대응되어 있는 것은 보면, 적어도 19세기 말에는 ‘不汗黨’ 설이 널리 퍼져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다음의 예문을 보면, 20세기 이후에는 ‘不汗黨’ 설이 꽤나 일반화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1, 口)에서 보듯 굳이 괄호 속에 ‘不汗黨’이라는 한자어를 넣어 그 뜻을 분명히 보인 것은, 그만큼 ‘不汗黨’ 설이 확고했기 때문일 것이다.

8) ‘한당’은 3.1.에서 언급하겠지만, ‘불한당’에서 ‘불’이 절단된 어형이다. 절단형 ‘한당’은 ‘불한당’과 의미가 같다.

- (3) ㄱ. 저의들의 요구에 다소간 들림이 있다고 불한당(不汗黨)의 심사를 함부로 부려서
 순량한 촌민을 후욕하며 〈所謂出初式으로 消防隊暴行頻頻〉(조선일보 1926.1.17.)
- ㄴ. 鳳山을 橫行하던 不汗黨 一網打盡(조선일보 1926.5.23.)
- ㄷ. 自己네들의 要求를 잘 들어주지 안는다 하야 不汗黨의 行勢를 하든 消防組出初
 式이 돌아오자 市中은 또 恐怖中에 있다고 署長 前田君은 前轍을 밝지 안도록
 注意하여라 〈地方評檀〉(조선일보 1929.1.4.)
- ㄹ. 機關銃을 가지고 다니며 強奪하는 不汗黨은 말할 것도 없고 〈強力犯 等 없애는
 妙方은 없는가?〉(경향신문 1956.2.15.)
- ㅁ. 한편, 쓰리 대장 한도숙은 불한당(不汗黨) 같은 황현태(黃賢泰)라는 정부(情夫)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병철에게 마음이 이끌려, 쓰리 생활을 청산할 생각조차 먹
 어 본다. 〈슬픈 牧歌(정비석) 74〉(동아일보 1957.6.1.)

그런데 20세기 초의 《朝鮮語辭典》(1920)에서는 표제어를 ‘불한당(黨)’으로 잡고, 이를 ‘불꽃, 불구슬, 불나길’ 등과 함께 ‘불[火]’ 항목의 하위에 배치하고 있다. 이로써 이 사전에서는 ‘불한당’의 ‘불’을 ‘火’의 뜻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明火賊’을 동의어로 제시한 것을 보면, 이와는 관계를 통해 ‘불한당’의 ‘불’을 ‘火’의 뜻으로 파악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홍기문(1938)도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불’을 ‘火’의 뜻으로 보고 있다. 다만 《朝鮮語辭典》(1920)에서는 ‘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어원 정보를 달고 있지 않다. 어쨌든 이 사전에서는 당시에 널리 퍼져 있던 ‘不汗黨’ 설을 인정하지 않은 것만은 분명하다. 《朝鮮語辭典》(1938)에서도 표제어를 ‘불한당’으로 잡아 ‘不汗黨’ 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 동의어로 ‘明火賊’을 제시한 것을 보면 여기에서도 ‘불’을 ‘火’의 뜻으로 보지 않았나 한다.

그런데 《큰사전》(1950)은 앞의 두 사전과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인다. 그 표제어를 아예 ‘불한당(不汗黨)’으로 제시하여, ‘불한당’이 한자어 ‘不汗黨’임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불한당’을 ‘明火賊, 火賊’과 같은 의미로 보면서도 이들과의 관련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항간에 떠도는 민간어원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이로써 《큰사전》(1950)으로부터 ‘不汗黨’ 설이 공식화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후에 나온 대부분의 사전들은 이 사전을 따라 ‘불한당’을 ‘不汗黨’으로 보고 있다. 《大漢韓辭典》(1964: 24), 《우리말 한자어 속뜻 사전》(2006: 636) 등에서도 ‘불한당’을 ‘不汗黨’으로 보고 있어, 한자학 분야에서도 같은 견해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전자에서는 ‘不汗黨(불한당)’에 그 동의어로 ‘火賊’을 대응하면서도 ‘불한당’을 ‘不汗黨’으로 보고 있어, ‘不汗黨’ 설이 얼마나 뿌리 깊이 자리 잡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말큰사전》(1991)에서는 《朝鮮語辭典》(1938)과 같이 표제어를 ‘불한당’으로 제시하고, 이에 [취. 不汗+黨] 이라는 내용을 첨가하여 ‘不汗’을 취음자로 보고 있다. 여기서는 다른 사전과 달리 ‘取音’이라는 뚜렷한 근거를 대어 아예 ‘不汗黨’ 설을 부정한 것이다. ‘不汗’을 취음자로 본 것은 온당하지만, 그것이 무엇에 대한 취음자인지를 밝히지 않은 것은 못내 아쉽다.

흥미로운 점은 ‘不汗黨’, 곧 ‘땀을 흘리지 않는 무리’를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전래 설화에서처럼 ‘거칠고 모진 성격을 가지고 못된 짓을 일삼는 일당’으로 보기도 하지만, 단순히 ‘땀 흘려 열심히 일하지 않는 족속’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不汗黨’을 ① ‘땀 흘려 노력하지 않고 돈을 벌려는 족속’ 또는 ② ‘땀 흘려 노력하지 않고 놀고먹으면서 남이 땀 흘려 벌여놓은 것을 갈취하려는 족속’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4) ㄱ. 더 슈고히지 아니하고 지물을 엇고져 하는 자여 불한당이라 하는 거시 무슨 뜻인지 아는지오 땀 내지 아니하는 무리라 하는 뜻이니 그거슨 곳 슈고히지 아니하고 엇고져 하는 거슬 ㄹ르친 거시 아니뇨 하면서 고지를 싹뚱싹뚱하더라 <경세종 39~40> (1908)

ㄴ. 땀은 인류 문명과 문화 발전의 원동력이다. 땀 흘려 일하지 않고 잘 살려는 허황된 사람은 不汗黨이다. <땀 없이 잘 살려 하면 ‘不汗黨’> (경향신문 1990.4.13.)

ㄷ. 한자의 뜻을 직역으로 풀어보면, 땀을 흘리지 않는 무리(당)라는 뜻이다. 유래는 두 가지 설이 있다. 첫 번째는 아무리 나쁘고 포악한 짓을 벌임에도 눈물은커녕 땀 하나 흘리지 않을 정도로 양심이 없고, 냉혈한 질 나쁜 무리라는 의미이고, 두 번째는 땀 흘리지 않고 돈을 버는 족속이라는 의미이다. 《나무위키》

(5) ㄱ. 조선에는 노는 사람이 만코 사괴 취재군이 만코 땀 아니 흘리며 먹는 불한당이 만다. 눈을 들어 조선 사람의 사회를 보건대 진실로 제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아니하고 불상한 농민이 땀을 흘려 버려 논 것을 빼서 먹는 무리가 얼마나 만흔가? <無數한 不汗黨> (동아일보 1924.9.26.)

ㄴ. 不汗黨이란 말이 있다. 文子 그대로 땀 흘리지 않고 남의 것을 제 것으로 만드는 毒蟲을 말하는 것이다. <버드나무 아래서> (조선일보 1958.5.28.)

ㄷ. “불한당(不汗黨)에서 ‘한’은 원래 ‘땀 한’자다. 저는 부패를 ‘땀 흘리며 일하지 않고 남의 재물을 탐하고 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짬짬이를 하거나 뇌물을 받거나 횡령을 하거나 공금 유용에 그치는 것이 적극적 의미의 부패라면, 성실히 일하지 않고 국민의 세금을 취하는 것도 부패라고 할 수 있다. 공직자가 힘들고 불편하면 국민이 안심하고 편히 살 수 있다.” <이원석, 대검 간부들 대상 ‘청렴 강의’> (조선비즈 2022.9.26.)

ㄴ. 따라서 어원적이고 문자적인 의미에서 볼 경우, 불한당은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서 남이 얻은 땀의 수고(열매)를 갈취하는 자를 가리킴이 분명하다. <불한당(不汗黨) 없는 사회> (우리뉴스 2023.9.11.)

(4ㄱ~ㄷ)의 ‘不汗黨’은 ①의 의미로, (5ㄱ~ㄴ)의 ‘不汗黨’은 ②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4ㄱ)과 (5ㄱ)에서 보듯, 20세기 초에 ‘不汗黨’을 ① 또는 ②의 의미로 파악한 것을 보면, ‘不汗黨’을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한 역사는 생각보다 깊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4ㄷ)에서는 ‘不汗黨’에 ①의 의미가 있음과 함께 ‘질 나쁜 무리’라는 의미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의미는 전래 설화에서 언급한 의미와 통한다. ‘不汗黨’에 ①과 ②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② 대신 다른 의미를 부여한 것이 특이하다. 이는 민간에서 ‘不汗黨’의 어원 해석이 유동적이었음을 알려 준다.

같은 ‘不汗黨’이더라도 ‘아무리 고문을 해도 땀방울조차 흘리지 않은 정도로 모질고 독한 성격을 가지고 못된 짓을 일삼는 일당’이라는 의미와 ① ‘땀 흘려 노력하지 않고 돈을 벌려는 족속’이나 ② ‘땀 흘려 노력하지 않고 놀고먹으면서 남이 땀 흘려 번 것을 갈취하려는 족속’이라는 의미는 전혀 다른 것이다. 물론 ①과 ②도 엄밀히 말하면 다른 의미이다. ‘不汗黨’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적어도 세 가지 다른 의미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듯 ‘不汗黨’ 설이 다양하게 진화해 온 것을 보면, 민간에서 ‘불한당’의 어원을 탐색하려는 지적 활동이 얼마나 왕성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요즘 신문 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不汗黨’은 대체로 ②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⁹⁾

2.2. [[불+한(漢)]+당(黨)] 설

‘불한당’은 다음 예문에서 보듯, 17세기의 《東國新續三綱行實圖》(1617)에 ‘불한당’으로 처음 보이며, 그것도 여러 예가 나온다.

- (6) ㄱ. 니시는 경궐부 사롭이니 흑싱 조영의 안해라 불한당이 그 집의 돌입혀 지물을 다 가지고 제 아버를 장춧 주기려 허거를(李氏慶州府人學生曹英妻也火賊突入其家盡取財物將殺其父) 《東國新續三綱行實圖 孝 3:42》(1617)
- ㄴ. 니시는 김산군 사롭이니 일스 니인테의 안해라 열여승 설인 적의 불한당이 돌입혀 그 아버를 해허거를(李氏金山郡人逸士李仁悌之妻也十六歲時火賊突入害其父) 《東國新續三綱行實圖 孝 4:87》(1617)
- ㄷ. 고시는 탄안군 사롭이니 니안인의 안해라 성이 지극헌 회러니 처즌 저귀 밤의 불한당이 드라드니 어미 우시 나히 닐흔이라(高氏天安郡人李安仁妻也性至孝處子時夜半有火賊突入母于氏年七十) 《東國新續三綱行實圖 孝 5:44》(1617)
- ㄹ. 니시는 서울 사롭이니 참의 니언경의 딸이오 흑싱 최형복의 안해라 셔천 짜히 우거허더니 불한당이 이셔 밤을 타 돌입혀야 불 로코 지물을 다 가지고(李氏京都人參議李彦憬之女學生崔亨福妻也寓居舒川之有火賊乘夜突入放火盡取財物) 《東國新續三綱行實圖 烈 3:63》(1617)

이들 예문의 ‘불한당’은 모두 원문의 ‘火賊’에 대응되어 있다. 무엇보다 이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東國新續三綱行實圖》(1617)에서는 다음 예문에서 보듯, 원문의 ‘火賊’을 ‘불한당’뿐만 아니라 ‘불강도, 화적, 명화도적’으로 옮기기도 한다.

- (7) ㄱ. 불강되 지블 분탕허거를 도시 그 지아비 신주늘 안고(火賊焚劫其家趙氏抱父神主) 《東國新續三綱行實圖 孝 7:53》(1617)
- ㄴ. 불강되 이셔 지블 드라드니 나시 스당의 드라드려 도적기 어즈러이 티되 피티 아

9) 《우리말 한자어 속뜻 사전》(2006: 636)에서는 ‘불한당(不汗黨)’을 ① ‘스스로 땀 흘려 노력하지 않고 떼를 지어 돌아다니며 재물을 마구 빼앗는 사람들의 무리’, ② ‘남 괴롭히는 것을 일삼는 파렴치한 사람들의 무리’로 기술하고 있다. ①은 ‘땀 흘리지 않고 놀고먹으면서 남이 땀 흘려 번 것을 갈취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땀 흘려 노력하지 않는 것’과 ‘재물을 빼앗는 사람’과의 인과 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좀 어색한 느낌이 든다.

니코 뻘 신जू를 브리더라(火賊突入于家羅氏走入祠堂賊亂擊不避以護神主) 《東國新續三綱行實圖 烈 2:79》(1617)

(8) 식어버이 섬기기를 정성을 다하고 지아비 섬기기를 어글으춌미 업더니 덩민이 화적의 해히인 배 되거늘(事舅盡誠事其夫無違廷敏爲火賊所害) 《東國新續三綱行實圖 烈 5:24》(1617)

(9) 재를 너머 바르 그 딴으로 드러가 오솔 주어 이걸흔대 텃병이 노타 명화도적이 밤을 타 돌입하여 식아비 최광익기를 주기고(踰嶺直入其陣賂衣哀乞天兵釋之有火賊乘夜突入殺舅父崔光翼) 《東國新續三綱行實圖 烈 5:8》(1617)

원문의 ‘火賊’이 (7ㄱ, ㄴ)은 ‘불강도’에, (8)은 ‘화적’에, (9)는 ‘명화도적’에 대응된 예이다. 물론 ‘화적’은 ‘火賊’이고, ‘명화도적’은 ‘明火盜賊’이다. 《東國新續三綱行實圖》(1617)에 ‘불한당’이 4회, ‘불강도’가 3회, ‘화적’과 ‘명화도적’이 각각 1회씩 나온다. 그런데 이들과 함께 나올 법한 ‘명화적(明火賊)’이나 ‘명화강도(明火強盜)’는 나오지 않는다. 《朝鮮王朝實錄》과 같은 옛 한문 문헌에 ‘明火賊, 明火強盜’가 다수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들도 얼마든지 《東國新續三綱行實圖》(1617)에 등장할 수 있다. 《朝鮮王朝實錄》에서는 ‘明火強盜’를 ‘殺人強盜’와 차별화된 말로 쓰고 있어 특별하다.

물론 다음의 예문에서 보듯, 18세기 이후 문헌에는 한글로 적힌 ‘명화적’이 다수 나온다.

(10) ㄱ. 이거시 죽을 죄오 쇼 잡아 호군하고 명화적이 되어 춘천부를 티고 군기를 어더 오자 하고 《闡義昭鑑諺解 4:53》(1756)

ㄴ. 서흥 고을 빅덩 넘거덩이 동당을 모화 처음은 명화적이 되엇더니 나중은 빅덩의 길흘 막고 관문을 깨티며 《조야기문 9:69》(17xx)

ㄷ. 명화적 明火賊 An incendiary. See 불한당. 《韓英字典 322》(1897)

《東國新續三綱行實圖》(1617)에 나오는 ‘불한당, 불강도, 화적, 명화도적’은 모두 원문의 ‘火賊’에 대한 번역어이므로, 이들은 ‘火賊’의 뜻을 갖는 동의어로 보아 문제가 없다. 여기에 이 문헌에 나타나지 않는 ‘명화적, 명화강도’까지 추가하면 적어도 여섯 개의 동의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¹⁰⁾

무엇보다 주목되는 점은 ‘火賊=불한당/불강도’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火賊’

10) 19세기 말의 《韓英字典 156》(1897)에서는 ‘화적(火賊)’에 ‘불한당, 명화적’을 대응하여 이들이 동의 관계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韓英字典 449》(1897)에 나오는 ‘불너먹기’까지 추가하면 그 동의어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여기서는 ‘불너먹기’를 “A thief; a robber; a burglar. See 불한당.”으로 기술하여 ‘불한당’과 동의어로 보고 있다. 그런데 20세기 이후 사전에서는 ‘불너먹기’를 표제어로 삼아 ‘밤중에 남의 집에 가서 주인을 불러내어 재물을 강탈하거나 협박장을 보내어서 어떤 곳으로 재물을 가져오라 하여 빼앗아 먹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적 의미가 그 본래의 의미였을 것인데, 《韓英字典》의 기술을 인정한다면 이러한 행위적 의미가 대상적 의미로 변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19세기의 ‘불너먹기’는 ‘불 놓아 먹기’의 변형일 수도 있어, ‘불을 질러 재물을 빼앗아 먹는 것’ 정도로 해석할 수도 있다. ‘불한당’과 관련하여 관아(官衙)에서만 쓰는 은어적 성격의 ‘장시’라는 특수어도 있었다.

은 ‘明火賊’에서, ‘明火賊’은 ‘明火盜賊’에서 줄어든 말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火賊’은 ‘횡불을 들어 불을 밝힌 도적’이라는 뜻이 된다. 횡불을 들어 불을 밝힌 채 부호가(富豪家)를 습격하여 재물을 약탈해 가는 도적 떼라서 ‘明火盜賊, 明火賊, 火賊’이라 한 것이다. 무엇보다 ‘횡불을 들어 불을 밝힌다’는 점이 ‘火賊’의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火賊’에 대응되는 ‘불한당’이나 ‘불강도’에도 이러한 특징이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다음 예문을 보면, 19세기에는 ‘불한당’의 특징을 ‘불을 지른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불한당이 부호가의 재물을 약탈하는 과정에서 불을 지르는 공격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적어도 19세기에는 ‘불한당’의 ‘불’에 대한 어원 의식이 좀 달라지기도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1) 십비나 더호오셔 함인정의 제신을 모호시고 경모궁을 부르샤 내가 불한당이나 불은
어이 지르니 호시니 그썸 설우미 통식호오셔 쏘 그 불이 축터 구러져 난 불인 줄
넋죽디 아니호시고 《한중록 156》(18xx)

17세기의 ‘불한당’은 ‘불한’과 ‘당(黨)’으로, ‘불한’은 ‘불’과 ‘한’으로 분석할 수 있다. ‘불한당’이 원문의 ‘火賊’을 옮긴 것이고 또 ‘火賊’과 ‘불한당’의 두드러진 특징이 ‘횡불을 들어 불을 밝힌다’는 점이어서 ‘불한’의 ‘불’은 ‘火’의 뜻임이 자명해진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朝鮮語辭典》(1920)과 홍기문(1938)에서도 현대국어 ‘불한당’의 ‘불’을 ‘火’의 뜻으로 본 바 있는데, 이는 한자어 ‘明火賊’과의 대응 관계를 통해 얻어진 것이어서 근대국어 ‘불한당’과 ‘火賊’과의 대응 관계를 통해 얻어진 것과는 결과가 같아도 접근 방식이 다르다.

‘불[火]’은 15세기 이래 ‘불’로 나타나다 17세기에 오면 원순모음화를 겪은 ‘불’로 나온다. 《家禮諺解》(1632)에 ‘불’(9:2)과 ‘불’(7:24)이 함께 나오는 것을 보면 그 원순모음화의 시기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물론 ‘불’은 18세기 문헌(漢淸文鑑 10:51 (1779))까지도 그 어형을 그대로 유지하기도 한다. 《東國新續三綱行實圖》(1617)에서 ‘火’는 예외 없이 ‘불’로 나타나므로 ‘火賊’에 대응된 ‘불한당’의 ‘불’이 ‘火’의 뜻임이 더욱 분명해진다. 이로써 ‘불한당’의 ‘불’을 ‘不’로 보는, ‘不漢黨’(1), ‘不漢黨’(2) 설이나 ‘不汗黨’ 설은 자연스럽게 부정된다.

문제는 ‘불한’의 ‘한’이 무엇인지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홍기문(1938)에서는 ‘한’을 중세국어 ‘혀다(켜다)’의 관형사형 ‘현’에서 온 것으로 보았으나, ‘현’이 ‘한’으로 변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수긍하기 어려운 설로 판정하였다. 물론 독자적으로 쓰인 ‘불한’은 중세국어나 근대국어 문헌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 변화형인 ‘불한’이 19세기 말의 《韓佛字典 344》(1880)에 당당히 표제어로 올라 있어 ‘불한’의 존재가 분명해진다. 또한 이로써 ‘불한’의 ‘한’이 자립적인 요소라는 점도 확실해진다.

‘불한’의 ‘한’이 자립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불목한’의 ‘한’과 동질의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불목한’은 ‘불목(온돌방 아랫목의 가장 따뜻한 자리)’과 ‘한(漢)’이 결합

된 어형으로, ‘절에서 밥을 짓고 물을 길는 일을 맡아서 하는 남자’라는 뜻이다. ‘불한’의 ‘한’이 ‘불목한’의 그것과 같은 것이라면 이 또한 한자 ‘漢’으로 볼 수 있다.

다음에서 보듯, 우리 국어에는 ‘불목한’의 ‘漢’과 같은 기능의 ‘漢’을 포함하는 단어들이 대단히 많다.

- (12) ㄱ. 奸漢, 巨漢, 狂漢, 怪漢, 癩漢, 廊漢, 老漢, 大漢, 屠漢, 鈍漢, 幕漢, 泮漢, 肥漢, 常漢, 色漢, 俗漢, 惡漢, 驢漢, 驛漢, 鹽漢, 頑漢, 雜漢, 賊漢, 賤漢, 鐵漢, 村漢, 醜漢, 醉漢, 癡漢, 快漢, 敗漢, 庖漢, 浦漢, 暴漢, 皮漢, 好漢, 昏漢, 兇漢
- ㄴ. 強骨漢, 硬骨漢, 空頭漢, 懶怠漢, 冷血漢, 農夫漢, 多血漢, 大食漢, 亡家漢, 木石漢, 沒字漢, 無能漢, 無賴漢, 無謀漢, 無識漢, 無知漢, 門外漢, 凡骨漢, 變節漢, 肥大漢, 卑劣漢, 詐欺漢, 惡德漢, 軟骨漢, 熱血漢, 利己漢, 吝嗇漢, 田舍漢, 正義漢, 悖德漢, 平子漢, 好色漢, 豪俠漢, 火木漢
- ㄷ. 武裝怪漢, 鐵面皮漢, 破廉恥漢

(12ㄱ)은 2음절 한자어에, (12ㄴ)은 3음절 한자어에, (12ㄷ)은 4음절 한자어에 쓰인 ‘漢’이다. (12ㄱ)은 한자 어근과 ‘漢’이, (12ㄴ, ㄷ)은 한자어와 ‘漢’이 결합된 어형이라는 형태 구조상의 차이가 있다.¹¹⁾ 다만 이들에서의 ‘漢’은 ‘남자(또는 ‘사람’)'를 지칭하는 공통점이 있다.

《(光州版)千字文 24》(1575)의 ‘漢’에는 ‘한슈’가, 《石峰千字文 24》(1583)의 ‘漢’에는 ‘하늘’이 새김으로 선택되어 있다. 이들 이후에 나온 《천자문》 류에서는 대체로 ‘漢’에 ‘한슈’가 대응되어 있다. 그런데 19세기 말의 《韓英字典 374》(1897)에서는 ‘놈’에 ‘漢’을 대응하고 “A fellow; a rascal; a scamp.”로 기술하여 ‘漢’에 ‘놈’의 의미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牖蒙千字 3:22》(1909)에서는 ‘漢’에 ‘놈’만 대응하여 그것을 대표 의미로 삼고 있다. 《新字典 2:53》(1915)에서는 ‘漢’에 ‘한슈’, ‘은하슈’, ‘놈(賤丈夫稱)’을 대응하여, 《大漢韓辭典 829》(1964)에서는 ‘漢’에 ‘漢水’, ‘銀河水’, ‘놈(男子賤稱)’, ‘나라’를 대응하여 ‘놈’의 의미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12ㄱ~ㄷ)의 한자어에 쓰인 ‘漢’은 물론 ‘놈’과 관련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에 쓰인 ‘漢’이 모두 ‘놈(남자 천칭)’과 같이 비칭(卑稱)인지 궁금하다.

잘 알다시피 15세기의 ‘놈’은 ‘남자’와 ‘사람’을 지시하는 평칭이었다. ‘남자’에서 ‘사람’으로 의미 적용 범위가 확대된 것인지, 아니면 ‘사람’에서 ‘남자’로 의미 적용 범위가 축소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전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놈’은 16세기 이후 ‘남자’ 또는 ‘사람’을 지시하는 비칭으로 바뀐다.

‘놈’이 본래 ‘남자’를 지시하는 평칭이었다면, 그에 대응되는 ‘漢’도 그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12ㄱ~ㄷ)의 예에서 보듯, 부정적 의미를 갖는 단어가 대다수인 가

11) ‘푸주한’은 ‘한’과 결합하는 ‘푸주’가 한자어가 아니라 ‘庖廚’에 대한 근세 중국어 차용어라는 점에서 다른 단어들과 차이가 있다.

운데, ‘鐵漢(의지가 굳은 남자)’, ‘快漢(시원스럽고 쾌활한 남자)’, ‘好漢(의협심이 많은 남자)’, ‘強骨漢(단단하고 굵기지 아니하는 기질을 가진 남자)’, ‘硬骨漢(의지가 강해서 신념을 남에게 좀처럼 굽히지 않는 남자)’, ‘熱血漢(열정에 불타는 의지를 가진 남자)’, ‘正義漢(정의감이 강한 남자)’, ‘豪俠漢(성격이 호방하고 의협심이 강한 남자)’ 등에서 보듯 긍정적 의미를 띠는 단어도 있는 것을 보면, ‘漢’은 본래 평칭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놈’이 비칭화한 이후 ‘漢’과 결부된 것이라면 ‘漢’은 본래부터 ‘남자’에 대한 비칭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12ㄱ~ㄷ)의 예에서 보듯, 부정적 의미를 갖는 단어들은 대체로 ‘천한 일을 하는 남자’, ‘몸이 비정상적인 남자’, ‘나쁘거나 어리석은 성격의 남자’, ‘불량한 짓을 하는 남자’,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남자’ 등을 지시하고 있다. 곧 성격이나 상태, 그리고 행실이 부정적인 남자를 가리킨다.¹²⁾ 이러한 부정적 의미는 ‘漢’이 변화된 의미로서의 ‘놈’과 같이 ‘남자’를 지시하는 비칭임을 분명히 보여 준다.

이로써 보면 ‘漢’은 고유어 ‘놈’처럼 본래 평칭이었는데, 어느 시점에서 의미 가치가 하락하여 비칭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부정적 의미의 한자어들이 훨씬 많은 것을 보면, 고유어 ‘놈’과 같이 한자 ‘漢’도 비칭으로서의 기능이 훨씬 강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현대국어 사전에서는 (12ㄴ, ㄷ)에 드는 ‘무뢰한, 인색한, 파렴치한, 푸주한, 호색한’ 등을 들어 여기에 쓰인 ‘-한(漢)을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와 관련된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비자립적인 한자 어근과 결합한 (12ㄱ)의 ‘漢’은 (12ㄴ, ㄷ)과 같이 자립적인 명사와 결합한 ‘漢’과 성격이 달라 동질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¹³⁾

‘불한’에 쓰인 ‘한(漢)’은 선행하는 ‘불[火]’이 자립성을 갖는 명사라는 점에서, 사전의 기준대로라면 접미사로 처리할 수도 있다. 물론 ‘불한’은 ‘한(漢)’에 선행하는 요소가 고유어라는 점에서, 한자어와 결합하는 다른 단어들과 뚜렷한 차이가 있다. ‘한(漢)’이 고유어와 결합한 예로 ‘불한’ 이외에 ‘불목한’이 하나 더 있다.

‘불한’의 ‘한(漢)’은 의미 가치가 하락한 비칭으로 이해된다. 이에 따르면 ‘불한’은 ‘불을 밝힌 놈’ 또는 ‘불을 든 놈’ 정도로 해석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촛불을 들어 불을 밝힌 채 부호가의 재물을 약탈하는 놈’이 된다.

‘불한’은 ‘불’의 ‘불’로의 변화에 따라 ‘불한’으로 변한다. ‘불한’이 《韓佛字典 344》(1880)에 올라 있으며, “Coquin; gredin; misérable(깡패; 불량배; 비열한 사람)”으로 풀이되어 있다. ‘깡패’, ‘불량배’라는 의미는 ‘촛불을 들어 불을 밝히고 부호가의 재물을 약탈하는 놈’이라는 그 원의에서 파생된 의미 중의 하나이다.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비슷한 시기의 ‘불한당’에도 이러한 의미가 있었다. 그런데 《韓佛字典 344》

12) 조교현(2023)에서는 (12ㄴ, ㄷ)의 한자어를, ‘漢’이 부정적인 성품을 나타내는 어기와 결합하여 ‘성품이 부정적인 사람’을 지칭하는 것과, ‘漢’이 부정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어기와 결합하여 ‘행실이 바람직하지 않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13) 조교현(2023)에서는 (12ㄱ)의 ‘漢’은 ‘한문 문법의 요소’로, (12ㄴ)의 ‘漢’은 ‘한국어 문법의 요소’로 구분한 뒤 후자를 ‘접미기능소’라 부르고 있다.

(1880) 이후의 문헌에서 ‘불한’은 더 이상 발견되지 않으며 사전에도 올라 있지 않다.

‘불한당’의 ‘당(黨)’은, ‘불한당’이 약탈을 자행하는 무리라는 점에서 ‘賊黨’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가 홍기문(1938)에 있었다. 이것까지 고려하면 ‘불한당’은 ‘햇불을 들어 불을 밝힌 채 부호가의 재물을 약탈하는 도적 무리’가 된다. 곧 ‘불한당’은 [(햇불을 들어) 불을 밝힘], [부호가의 재물을 약탈함], [무리] 라는 필수 성분의 집합체로 이해할 수 있다.

‘火賊’에 대응된 ‘불한당’의 ‘불’이 ‘火’의 뜻이므로, ‘火賊’에 대응된 ‘불강도’의 ‘불’ 또한 ‘火’의 뜻이 된다. 그리하여 ‘불강도’는 ‘불을 밝힌 강도’ 또는 ‘불을 든 강도’로 해석된다. ‘불한당’과 지시 의미가 같으므로 이에도 [무리] 라는 개념이 들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재물을 약탈하는 무리, 곧 ‘강도떼’라는 의미가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된 단어이다.

‘불한당’과 ‘불강도’는 ‘불[火]’이 ‘불’로 변함에 따라 ‘불한당’과 ‘불강도’로 변할 수 있다. 그런데 ‘불한당’은 18세기 이후 문헌에 적극적으로 나오는 반면, ‘불강도’는 《東國新續三綱行實圖》(1617) 이후의 문헌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20세기 이후의 어떤 사전에도 ‘火賊’을 뜻하는 ‘불강도’는 올라 있지 않다. ‘불강도(>불강도)’는 ‘불한당’에 밀려 생각보다 일찍 소실된 것으로 보인다.¹⁴⁾ ‘강도’라는 지시 의미가 구체적인 단어를 포함하는 ‘불강도’가 그렇지 못한 ‘불한당’에 밀려나 소실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3. ‘불한당’의 형태 변화와 의미 변화

3.1. 형태 변화

17세기 초의 ‘불한당’은 ‘불한당’으로 변한다. 그리고 ‘불한당’은 ‘불안당/부란당’을 거쳐 ‘부랑당’으로까지 변한다. 또한 ‘불한당’은 ‘한당’으로 축약되기도 한다.

(13) ㄱ. 북경 무식헌 말의 쏘을 창다오라 하니 창다오는 불한당 궂흔 도적을 니른 말이니 그 계집이 날드려 무르디 《을병연행록(장서각사본) 2:71》(1765)

ㄴ. 오강 사공들이 왕리호는 사람들의게 선가라 충하고 과히 억탈하여 불한당과 다름이 업는 고로 김지풍 씨가 몬져 경무스로 잇슬 때에 그 폐막을 통금하고 《독

14) 《우리말큰사전》(1991)에 올라 있는 ‘불강도’는 ‘날강도’, 곧 ‘아주 악독한 강도’를 뜻하는 것이어서 17세기의 ‘불강도’와 다른 것이다. 《표준국어대사전》(1999)에도 이러한 의미의 ‘불강도’가 올라 있는데, ‘날강도’와 동의 관계로 기술되어 있다. 물론 이 두 사전에 오른 ‘불강도’는 17세기의 ‘불강도(>불강도)’와 조어 방식이 전혀 다른 것이다. ‘불강도’의 지시 의미를 고려할 때, ‘불강도’의 ‘불-’은 ‘몹시 심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로 볼 수 있다. 곧 ‘불가뭇, 불각쟁이, 불상년, 불상놈’ 등에 보이는 ‘불-’과 같은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의미의 접두사 ‘불-’은 ‘火’의 ‘불’에서 온 것이다. ‘불[火]’이 갖는 [격렬함], [거셈] 등과 같은 의미 특성이 핵심 성분으로 작용하여 ‘몹시 심한’이라는 접두사적 의미가 파생된 것이다. 이에 따라 ‘불강도’는 ‘몹시 심각한 강도’, 곧 ‘강도 중에서도 아주 악독한 강도’라는 의미를 띤다.

립신문》(1896.12.8.)

(14) ㄱ. 難當賊 불안당 明火賊 《廣才物譜 一 庶流:3》(18xx)

ㄴ. 付亂黨 부란당 大賊 《名物紀畧 1:47》(1870)

ㄷ. 또 나라로 말하더라도 대포와 총의 힘을 빌어서 남의 나라를 위협하야 속국도 만들고 보호국도 만드니 불안당이 칼이나 룡혈포를 가지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지물을 탈취하고 뼈를 겁탈하는 거시나 다를 거시 무엇 잇소 〈금수회의록 17〉(1908)

ㄹ. “그게 사회주의냐? 부란당이지” “아-니 그럼 아저씨두 사회주의가 부란당인 줄은 아시는구려?” “내가 왜 사회주의가 부란당이랬니?” “방금 그러잔헛어요?” 〈치숙(채만식) 6〉(동아일보 1938.3.12.)

ㄱ. 모든 것을 체념(諦念)하고 불안당 같은 황현태에게 만족을 느끼기에는 아직도 청춘이 남아 있었고, 그렇다고 희망에만 날뛰기에는 이미 고비를 넘어버린 연령인 것 같았다. 〈슬픈 牧歌(정비석) 43〉(동아일보 1957.5.1)

(15) ㄱ. 남의 무덤 판 불항당 혼 놔온 진위군에서 잡고 《독립신문》(1896.11.19.)

ㄴ. 경기도 안성군 근처에 불항당이 대치하미 군수 윤여렬 씨가 실심으로 친히 다 른 고을까지 다니며 도적을 잡는디 《제국신문》(1898.11.3.)

ㄷ. 근일에 독섬 등디에 불항당이 대단하는디 편지를 써서 돈을 만량 이만량을 어 디로 가려오라 하거늘 《매일신문 4》(1898.12.6.)

(16) ㄱ. 不義의 富貴를 享樂하는 浮浪黨 橫領輩 對하야 도로혀 屠牛人의 心事가 얼마나 善良하며 그 職業이 얼마나 貴重하뇨 〈朝鮮民族의 反省處(下)〉(동아일보 1922.7.29.)

ㄴ. 하로의 散策으로 心身의 快感을 누리려고 郊外로 나아간 婦女子들에게 浮浪黨이 弄絡한다면 이는 하로의 春興을 꺾치는 무리들로 到底히 容恕 못할 일이 니 最近 이러한 徒黨이 到處에 拔扈하여 〈春光과 風紀 問題〉(조선일보 1932.5.4.)

ㄷ. ‘갈매기떼’란 부둣가에 서식하는 부랑당들을 말한다. 여기 惡의 무리 속에 끼어든 한 靑年이 참을 참아 발버둥치다가 죽어가는 眞實에의 몸부림을 그린 것이다. 〈「新協」 5월에 再起 共演〉(경향신문 1963.4.3.)

ㄹ. “우리는 보시다시피 작변을 하러 온 부랑당들이 아니요. 내치란 것이 순상 각 하의 영이라면 사정을 잘못 아시고 그런 것이니 다시 말씀을 드려 주시오.” 녹두장군(송기숙) 57〉(1989)

ㄱ. 이는 신채호의 관점에서 개별화된 개인적 ‘아’만 있는 셈이며, 국가와 사회 차원의 ‘아’를 갖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그는 ‘순사를 조선으로 많이 내보내서 부랑당놈들을 많이 소탕시켜’ 준 일제의 식민지배를 찬양합니다. 〈2022학년도 논술 길잡이〉(한경뉴스 2021.6.7.)

(17) ㄱ. 汗黨 汗黨 Robbers; brigands. See 불한당. 《한영사전 119》(1897)

ㄴ. 우리말로 불한당이라는 말은 폭력으로 남의 물건을 강탈하야 가는 도적 불한당을 생략하여 또 혹 汗黨이라고도 한다. 〈趨庭錄(二十五)〉(조선일보 1938.2.13.)

ㄷ. 汗黨(黨): 「불한당」의略. 《朝鮮語辭典》(1920)

ㄹ. 汗黨: 「불한당」의 준말. 《朝鮮語辭典》(1938)

(13ㄱ)에서 보듯, ‘불한당’은 18세기 문헌에 처음 보인다. 이는 ‘불한당’에서 ‘불[火]’이 원순모음화하면서 나타난 어형이다. ‘불>불’의 변화가 17세기에 일어났으므로 ‘불한당>불한당’의 변화 또한 그쯤에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불한당’은 ‘ㄹ’과 모음 사이(유성음 사이)에서 ‘ㅎ’이 탈락하여 ‘불안당’으로 변한다. (14ㄱ)에서 보듯, ‘불안당’이 19세기 문헌에서 발견된다. ‘굴희>고리>고리’, ‘굴형>구렁’, ‘달히->다리-’, ‘일히>이리’ 등에서 보듯 ‘ㄹ’과 모음 사이에서 ‘ㅎ’이 탈락하는 현상은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대체로 18세기에 일어났다는 점에서, ‘불한당>불안당’의 변화도 18세기 이후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불안당’은 (14ㄴ)에서 보듯 ‘부란당’으로 연철 표기되기도 한다. 여기서는 ‘부란당’을 ‘付亂黨’으로 적고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한자 부회이다.

20세기 초의 신소설에는 ‘불안당’ 일색으로 나온다. 신소설에 ‘불한당’은 한 예만 나오고 ‘부란당’은 아예 나오지 않는다. 물론 20세기 초의 신문 기사에는 ‘불한당’과 함께 ‘불안당’과 ‘부란당’이 나온다.

《朝鮮語辭典》(1938)에서는 ‘불한당’을 표준어로 삼고, ‘부란당’을 ‘「불한당」의 보라’로 기술하여 비표준어로 처리하고 있다. 이는 《큰사전》(1950)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국어대사전》(1961), 《(금성판)국어대사전》(1991)에서는 ‘부란당’을 ‘불한당(不汗黨)’의 방언이라 기술하고, 《우리말샘》(2016)에서는 ‘부란당’을 구체적으로 경상·함북 방언으로 분류하고 있다.

‘불한당’과 ‘부란당’은 각기 ‘불항당’과 ‘부랑당’으로 변하기도 한다. ‘불항당’은 (15ㄱ~ㄴ)에서 보듯 19세기 말 문헌에, ‘부랑당’은 (16ㄱ, ㄴ)에서 보듯 20세기 초 문헌에서 발견된다. ‘불항당’이 19세기 말의 고신문에서 다수 검색된다. ‘불한당>불항당’, ‘부란당>부랑당’의 변화는 음운론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다만 이는 이른바 ‘음절 말 비음 간 대치’ 현상의 하나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¹⁵⁾ 또한 후행 음절 말음 ‘ㅇ’에 영향을 받은 결과로 볼 수도 있을 듯하다. ‘연양갱>영양갱’과 같은 예가 있기 때문이다. ‘부랑당’의 경우는 이를 (16ㄱ, ㄴ)에서 보듯 ‘浮浪黨’으로 적기도 한 것을 보면, ‘浮浪輩, 浮浪兒, 浮浪人, 浮浪牌’ 등의 ‘浮浪’에 유추되어 나타난 어형일 가능성도 있다. 물론 ‘浮浪黨’은 ‘부랑당’으로 변한 후에 한자 부회한 것일 수도 있다. 현재 ‘불항당’이나 ‘부랑당’은 표준어는 아니다.

‘불한당’은 ‘불’이 절단되어 ‘한당’으로 줄어들기도 한다. ‘한당’이 (17ㄱ)에서 보듯 19세기 말의 《한영자전》(1897)에 처음 보인다. 이후 사전에도 ‘한당’이 줄곧 올라 있으며, 대체로 ‘불한당’의 준말로 기술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 사용된 용례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15) 소신애(2019)에 따르면 중자음 ‘ㄷ, ㅌ, ㅈ, ㅊ, ㅊ, ㅌ, ㅌ’ 앞이나 전부 변자음 ‘ㅌ’ 앞에서 어중의 말음 ‘ㄴ’이 ‘ㅇ’으로 바뀌는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동인을 ‘강화’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불항당, 부랑당’은 뒤 음절 두음 ‘ㄷ’ 앞에서 앞 음절 말음 ‘ㄴ’이 ‘ㅇ’으로 바뀐 변화의 예가 된다. 중세국어 ‘한쇼’가 ‘항쇼(>항소>황소)’로 변한 것도 같은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불한당’의 형태 변화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불한당>불한당
- ② 불한당>불한당>불안당/부란당>부랑당
- ③ 불한당>불한당>불항당
- ④ 불한당>한당

3.2. 의미 변화

‘불한당(불안당)’은 한동안 그 본래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다 몇 차례 의미 변화를 겪어 현재에 이른다.

다음의 ‘불한당(불안당)’은 그 문맥을 고려할 때, ‘횃불을 들어 불을 밝힌 채 부호가의 재물을 약탈하는 도적 무리’라는 그 원의(原義)대로 쓰인 것이다.

- (18) ㄱ. 불한당 火賊. Voleurs enrégimentés, qui vont avec des torches pendant la nuit, forcent les maisons et volent à main armée. (밤에 횃불을 들고, 집을 부수고, 무기를 들고 도둑질하는 조직화된 도둑들) 《한불자전 344》(1880)
- ㄴ. 일전에 삼기 지소 순검들이 박진스 집에서 잡기한다 청탁하고 밤중에 달녀들어 닳은 문을 발노 차며 소리를 지르니 동리 사람들이 놀란썩더러 박진스 집에서는 불한당이 들어온 줄 알고 문도 열지 못하고 누구냐고 무른즉 그제야 순검이로라 하며 극구 참욕을 하니 《제국신문》(1898.9.20.)
- ㄷ. 그놈들은 말 못할 불안당놈이니 잘못하다가는 큰 욕을 당히시리다. 즈근아씨가 남복을 호섯스나 얼굴이 넘오 고흐니 그놈들에게 들키기만 하면 큰 봉변을 호실 터이오 〈목단화 95〉(1911)
- ㄹ. 우리 절에서 이러버린 지산을 갑으로 치면 네 몸덩이 열 갑절도 더 되겟다. 불안당피마다 요런 놈 혼아식 의례히 조방군으로 짜라 당기겟다. 〈고목화(상) 22〉(1912)
- ㅁ. 에그 셔올서 드르넛가 시골은 불안당째가 덕시글덕시글 혼다는데 그놈들이 닥치면 에그 무셔워 엇지흠넛가 〈현미경 220〉(1912)
- ㅂ. 오늘은 어느 감영에 불한당이 들어서 감사는 뒤문으로 빠져 도망을 하엿다. 지리산에는 최 아모라는 자가 도적 뗏 천명을 거느리고 웅거하엿다. 〈허생전(장백산인) 37〉(동아일보 1924.1.7.)
- ㅅ. 그런데 그는 마적 즉 조선으로 치면 불한당(不汗黨) 출신으로 대원수까지 되고 보니 불가불 기념 사업을 하여야겟다고 또 다시 찌씩이기 시작하는데 〈馬賊 出身 大元帥 逸話〉(조선일보 1927.9.6.)

(18ㄱ)에서 보듯, 《한불자전》(1880)에서는 ‘불한당’의 본래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반영하여 기술하고 있다. 19세기 말에 그 원의가 그대로 유지되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19세기 말의 옛 신문 자료인 (18ㄴ)의 ‘불한당’, (15ㄱ, ㄴ, ㄷ)의 ‘불항당’도 그 원의로 쓰인 것이다. ‘불한당(불안당)’은 그 자체로 집단을 가리키지만, ‘무리’의 의미가 있는 ‘피(牌), 째’를 덧붙여 그것을 강조하기도 한다. (18ㄹ)의 ‘불안

당파’, (18ㄱ)의 ‘불안당째’가 그러한 것이다.

그런데 (18ㄷ, ㄹ, ㄴ)의 ‘불안당’, (18ㄴ, ㄷ)의 ‘불한당’을 보면 20세기 초까지도 그 원의가 살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0세기 초의 신소설에 쓰인 ‘불안당’ 가운데는 그 원의대로 쓰인 예들이 적지 않다.

19세기 말쯤에는 ‘불한당(불안당)’에 의미 변화의 조짐이 엿보인다.

(19) ㄱ. 인천 안산 부평 양천 시흥 등디에 불안당이 밍우 심햐 썰을 지어 각 동리 부근의게 다니며 빅주에 완완히 쏘과 전지를 달나햐미 <매일신문 3> (1898.5.27.)

ㄴ. 충청남도 공주 사는 조봉학이가 공주 상남전 스북원을 가지고 올라오다가 음력 십월 이십일 일 밤에 과천 읍내 리쇼스에 주막에서 불한당을 만나 상남전을 다 일혀논디 과천이 공관이 되어 호쇼홀 곳도 업슨즉 조봉학이와 희식 박봉형은 죽를 지경이라고 혼다더라. 《제국신문》(1898.12.21.)

ㄷ. 그 덕 마님게서 귀신이라면 스죽을 못 쓰시논디 좌우에서 거헝헝는 하인이라고는 쌍그리 불안당년이올시다. <구마검 72> (1908)

ㄹ. 그 상전의 힘으로 감사도 어더 햏고 그 상전의 힘을 밋고 빅성의 돈을 불안당 질햏논디 그 불안당 밋헤 줄지 도적은 줄롬성이 짜루듯 햏얏더라. <은세계 32~33> (1908)

ㄴ. 그 외인이 적지 안인 지물을 심불안당질을 햏야 가지고 노름 접주로 판돈을 노아 불과 몇 달에 오륙천 원을 만드러서 가방에다 쑥쑥 너어 두고 노름군이 모여 오면 너어 퍼 주엿다가 허여져 갈 썩는 चु심을 햏야 여전히 너허 두더니 <황금탑 34> (1912)

ㄷ. 햏 그 년은 큰덕 작은아씨를 끼고 우리 덕 세간을 모다 불안당질 햏셔 닌 년이라오. 밤마다 집안 것을 드러니고로 그 이튼날 번번이 도적을 마졌다고 집안 스름을 속엿지만 <현미경 239> (1912)

ㄷ. 쌀갑슨 무척 싸디 이즘에 술갑슨 위 그러케 빗쌀가요. 다방골 근처 엿던 마루 □ 술집에서는 그야말로 ㅁ조 날부란당이든걸... <투서란> (조선일보 1921.2.4.)

ㅇ. 다섯 명 일단이 도라다니며 금품강탈구타상해를 자행 - 황해도 봉산군 사리원(黃海道鳳山郡沙里院) 경찰서(警察署)에서는 지난 십이 일에 시장(市場)에서 강도단(強盜團)을 테포하야 취조한 후 지난 이십일 일에 재녕으로 압송햏았다. <鳳山을 橫行하던 不汗黨一網打盡> (조선일보 1926.5.23.)

ㅈ. 밤중에 엿던 사람이 문을 열라 하느냐 햏엿든바 나는 부란당(強盜)이니 너의 집에 잇는 돈을 내라고 생명이 중하냐 금전이 중하냐 만일 돈을 내지 안으면 너이들이 생명을 보존치 못하리라 햏며 위협함으로 <女子強盜> (동아일보 1926.9.26.)

ㅊ. 사십여 명이 작당한 불한당 隣署應援으로 警察活動 - 지난달 하순경에 성천 디방에 흉기를 휴대한 사십여 명의 강도 한 썰가 여러 번 나타났섯다는데 <成川에 突現한 四十名 強盜> (동아일보 1927.2.12.)

ㅋ. 우리말로 불한당이라는 말은 暴力으로 남의 물건을 強奪햏야 가는 도적인데 불

한당을 省略해야 또 或 한당이라고도 말한다. 〈趨庭錄 (二十五)〉 (조선일보 1938.2.13.)

트. “어쨌든 그놈 날부란당이니. 청양리 집두 차압을 당해서 며칠 있으면 뺏기게 되고 인제는 대화정을 집을 팔랴구 내놓았다니까, 집이나 팔리구, 커닝햄에게 붙여주어 제 발뺨만 하게 되면 커닝햄에게서 먹은 돈을 몽땅그려 가지고 들고 뿔 작정인가 보더군.”하며 〈이심(염상섭) 420〉 (1941)

프. 불한당=강도떼. 斯界(사계)=이 방면. 砂防(사방)=사태막이. 私淑(사숙)=(본떠) 배움. 謝意(사의)=고마운 뜻. 使者(사자)=사명 편 사람…. 〈어려운 말 풀이〉 (경향신문 1963.3.7.)

ㅎ. 한나라당 관계자의 증언대로라면, 일부(!) 중앙지의 기자들을 포함한 몇몇(!) 기자들 - 물론 촌지 수수를 거부한 양심적인 기자들은 제외다 - 은 멀쩡하게 돈을 뜯어가는 천하의 불한당들이요, 은근슬쩍 기사로 협박하는 양심 불량한 공갈범들과 다를 바 없게 된다. 〈‘촌지 살포’ 누구의 말이 진실인가?〉 (오마이뉴스 2002.7.25.)

(19ㄱ)의 ‘불안당’이나 (19ㄴ)의 ‘불한당’은 원의와 좀 다른 의미로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 (19ㄱ)의 ‘불안당’은 ‘빅주에’라는 표현과 함께 쓰여 약탈 행위를 자행하는 시간이 밤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하고, (19ㄴ)의 ‘불한당’은 그 공격 대상이 부호가(富豪家)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따라서 전자의 ‘불안당’은 [불을 밝힘]이라는 성분을 잃었고, 후자의 ‘불한당’은 [부호가의 재물을 약탈함]이라는 성분이 [재물을 약탈함]이라는 성분으로 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의 ‘불한당’이나 ‘불안당’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몰려다니며 남의 재물을 빼앗는 짓을 일삼는 무리, 곧 ‘강도떼’를 가리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강도떼’는 ‘불한당’의 원의가 갖는 [(햇불을 들어) 불을 밝힘]이라는 성분이 사라지고, [부호가의 재물을 약탈함]이라는 성분이 조정되면서 일반화된 의미이다.

20세기 이후에는 ‘불한당’에서 ‘강도떼’로의 의미 변화가 더욱 선명하게 목격된다. (19ㅇ, ㅈ)의 ‘불한당’은 각기 문맥상 정확히 ‘강도단(強盜團)’과 ‘강도떼’라는 일반적 의미로 쓰인 것이기 때문이다. (16ㄱ)의 ‘浮浪黨’ 또한 ‘강도떼’라는 의미에 가깝게 쓰인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19ㄷ)의 ‘불안당년’은 ‘도둑년’, (19ㄹ)의 ‘불안당질’은 ‘도둑질’ 정도의 의미를 띠어, ‘불안당’이 폭력을 행사하는 도적, 곧 ‘강도’가 아니라 그저 남의 물건을 몰래 훔치는 단순 ‘도둑’을 가리키고 있어 주목된다. 단순 ‘도둑’이라는 의미는 ‘강도’가 지니는 [폭력성]이 약화되거나 제거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는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았던 듯하다. (19ㄷ)의 ‘불안당질’은 ‘강도질’을 뜻하여 ‘불안당’이 ‘강도’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다.

‘불한당(불안당)’은 ‘강도떼’라는 복수 개념으로 쓰이다가 차츰 ‘강도’라는 단수 개념으로 바뀐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불한당’에서 [무리]라는 필수 성분이 빠짐으로써 생겨난 현상이다. (19ㄷ)의 ‘불안당’, (19ㅈ)의 ‘부란당’ 등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 (19ㅈ)에서는 괄호 속에 ‘強盜’라는 의미를 굳이 밝혀 그 의미를 더욱 분명히 하

고 있다. (19ㄷ)의 ‘날부란당’은 ‘날강도’ 한 사람을 지시한 것이어서 여기에 쓰인 ‘부란당’ 또한 단수 개념으로 이해된다.

20세기 초의 《朝鮮語辭典》(1920)과 《朝鮮語辭典》(1938)에서는 이러한 의미 변화를 감안하여, 전자에서는 ‘불한당’을 ‘무리를 이루어서 설치고 다니는 강도’로, 후자에서는 ‘불한당’을 ‘때를 지어 다니며 남의 재물을 강탈하여 가는 도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19ㄴ)의 “폭력으로 남의 물건을 강탈해 가는 도적”이라는 정의 또한 앞의 두 사전의 의미 기술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큰사전》(1950)에서도 ‘불한당(不汗黨)’을 ‘때를 지어 돌아다니는 강도(強盜)’로 기술하여 앞의 사전과 차이가 없다. (19ㄹ)에서처럼 1960년대에 ‘불한당’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과정에서 ‘강도떼’를 선택한 것을 보면, 적어도 이 시기의 ‘불한당’은 주로 ‘강도떼’라는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20세기 전반기의 사전이 ‘불한당’의 현실 의미를 정확히 반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복수 개념과 단수 개념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폭력으로 남의 재물을 강탈하여 가는 도적 무리. 또는 그 무리에 속한 사람” 정도로 기술해야 할 것이다. 사전에서는 이러한 의미로서의 ‘불한당’과 ‘명화적(明火賊), 화적(火賊)’을 동의 관계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이들 한자어 또한 ‘불한당’과 같은 의미로 변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들 한자어에 의미 변화가 일어났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으므로 변화된 의미로서의 ‘불한당’과 이들 한자어를 동의 관계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

물론 ‘불한당’ 앞에 접두사 ‘날-’이나 ‘생(生)-’이 결합된 ‘날불한당’이나 ‘생불한당’은 접두사 ‘날-’이나 ‘생-’이 갖는 ‘지독한’의 뜻을 더하여 그 의미를 해석해야 할 것이다. 곧 이들은 ‘날강도떼’나 ‘날강도’와 같은 의미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사전에서는 ‘날불한당’과 ‘생불한당’을 ‘남의 재물을 함부로 빼앗는 무리’로 기술하여 ‘불한당’과 큰 의미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 또한 ‘날강도떼’와 ‘날강도’를 각기 ‘아주 뻔뻔하고 악하게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사람의 무리’, ‘아주 뻔뻔하고 악하게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사람’으로 기술하여 ‘날불한당, 생불한당’과 동의 관계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 ‘날불한당, 생불한당’은 ‘날강도떼’ 또는 ‘날강도’와 같은 의미로 기술해야 할 것이다.

이로 보면 ‘불한당(불안당)’은 20세기 초까지는 ‘횡불을 들어 불을 밝힌 채 부호가의 재산을 약탈하는 도적 무리’라는 그 본래의 의미를 유지하였지만, 19세기 말쯤에 와서 필수 성분이 빠지고 또 조정됨으로써 ‘폭력으로 남의 재물을 약탈해 가는 도적 무리(강도떼)’, 또는 ‘그러한 무리에 속한 사람(강도)’이라는 일반적 의미로 변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불한당(불안당)’은 ‘폭력으로 남의 재물을 약탈해 가는 도적 무리’, 곧 ‘강도떼’라는 의미에서 ‘행패를 부리며 못된 짓을 일삼는 무리’, 곧 ‘깡패’라는 의미로 또 한차례 의미가 변한다. 이러한 의미는 ‘강도떼’가 갖는 [폭력성]이라는 성분이 핵심 성분으로 작용하여 파생된 것으로 이해된다.

- (20) ㄱ. 사진은 「놀부흥부전」 중의 중요한 장면인데 개심한 놀부가 턱벌을 바더서 박덩이에서 나온 불한당에게 어더 맞는 광경 〈흥부놀부〉(동아일보 1925.5.15.)
- ㄴ. 무대에는 독약이 올르고 주검에 따르는 장식이 잇었다. 들볶는 불한당패의 난잡한 작난에 날애 돌쳐 불뚱같이 뛰는 황금과 이것을 싸고도는 삼각사각의 쟁탈전 뒤에 소송 고소로 경찰서 검사국 재판소를 뒤흔들고 신문 기자 외 六감을 극도로 흥분시키든 일은 출발보담 끝이 뽕족하게 되어 이제는 이수학 한 사람의 독무대가 되어 제2심의 판결을 받게 되었다 〈獵奇的 公判 앞두고〉(동아일보 1934.3.7.)
- ㄷ. □ 무엇이 蘇聯邦으로□서) ‘世界 不汗黨의 聯合’인 國際聯盟에 加入하게 맨들었는가? 또 國際聯盟은 무슨 까닭으로 ‘異端’國인 蘇聯邦을 歡迎하게 되었는가? 〈噴火口上의 歐洲와 對立된 同盟陣營〉(동아일보 1935.1.1.)
- ㄹ.李씨가 처음 ‘하와이’에 왔을 때 李박사는 “국내에 그 불한당(깡패)들이 그저 들끓고 있느냐”고 묻기에 “깨끗이 청소했습니다”고 대답하자 “잘되었다”고 말하더라는 것이다. 〈그 이후의 李承晩 博士〉(경향신문 1962.2.4.)
- ㄹ. 「텔레사」시 출신인 「데이비드·사일러」 二등병의 아버지 「에릭·사일러」 씨는 『저주받을 공산당놈들 그놈들은 불한당이다』라고 말하였다. 〈休戰線에 진自由의 鬪士〉(조선일보 1963.7.31.)
- ㅂ. 그는 “이 협약은 가입국이 비가입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다른 협약국이 적국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현재 이라크와 시리아 등 소위 ‘불한당 국가’들과 함께 이 협약에 서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화학무기 금지 협약 가입키로〉(연합뉴스 1995.3.11.)
- ㅅ. 그러나 일본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안중근 의사를 불한당으로 묘사했다가 그냥 수식어 없이 안중근이라고만 기술하는 등 재수정에 그쳤다. 〈日 역사교과서 ‘왜곡의 역사’〉(국민일보 2002.4.9.)
- ㅇ. 움베르토 에코는 테마공원에서 사랑받는 역사의 주인공이 된 해적들을 통해 역사의 아이러니를 이야기한다. 반지 하나를 빼앗기 위해 손목을 자르고, 눈에 보이는 대로 여자를 겁탈하던 불한당들이 이제는 사람들의 가장 인기 있고 친근한 벗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테마공원의 주인공 된 해적 이야기〉(오마이뉴스 2003.7.25.)

(20ㄱ)에서 보듯 ‘깡패’라는 의미로 쓰인 ‘불한당(불안당)’이 1920년대 이후 문헌부터 목격된다. (20ㄹ)에서는 괄호 속에 ‘깡패’라는 의미를 굳이 밝혀 ‘불한당’의 의미를 분명히 보여 주고 있다. 한편 앞에서 제시한 (16ㄴ~ㄹ)의 ‘부랑당’도 넓게 보아 ‘깡패’의 의미로 쓰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 가운데 (16ㄴ)의 ‘부랑당’은 ‘깡패’보다 덜 포악한 ‘불랑배’라는 의미에 가깝게 보이기도 한다. ‘부랑당’의 경우는 이를 ‘浮浪黨’으로 적으면서도, 한자 뜻에 얽매이지 않고 ‘깡패’ 내지 ‘불랑배’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어 특이하다. (16ㄹ)에서 보듯 ‘깡패’를 뜻하는 ‘부랑당’이 최근까지도 쓰이고 있으나 이는 표준어가 아니다.

‘깡패’를 뜻하는 ‘불한당(불안당, 부랑당)’ 또한 본래 복수 개념이지만 [무리] 라

는 필수 성분이 사라지면서 단수 개념으로도 쓰이게 된다. 곧 ‘행패를 부리며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것이다. (20人)의 ‘불한당’이 그러한 예이다.

《국어대사전》(1961/2021)에서는 ‘강패’로의 의미 변화를 반영하여 ‘불한당’을 ① ‘떼를 지어 돌아다니는 강도. 명화적(明火賊). 화적(火賊). 한당(汗黨).’, ② ‘떼를 지어 다니며 행패를 부리는 사람’으로 기술하고 있다. 곧 기존의 의미에 ②를 추가한 것이다. 다만 ①, ②가 복수 개념인지 아니면 단수 개념인지 모호하다. ②는 ‘행패를 부리며 못된 짓을 일삼는 무리. 또는 그런 무리에 속한 사람’으로 기술해야 할 것이다. ‘불한당’이 ‘강패’라는 의미로 변화하였지만, 파생어 ‘날불한당’이나 ‘생불한당’은 여전히 ‘강도떼’를 지시하고 있어 의미 파생의 여파가 파생어에까지는 미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불한당’의 의미 파생의 순서에서 ‘강도떼’가 앞서고 ‘강패’가 뒤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불한당’은 ‘예의나 염치가 없는 막된 무리’라는 의미로도 변한다. 곧 파렴치한 짓을 일삼는 무도한 무리를 가리키게 된 것이다. 이는 ‘불한당’이 갖는 [야비한 속성] 이 핵심 성분으로 작용하여 파생된 비유적 의미이다.

(21) ㄱ. 주인 계집이 그 말을 듯더니 얼곳빰이 별안간에 변희지며 첫마디에 욕설부터 나아온다. 이런 이면불안당은 처음 보겠네. 세 살 적부터 무당질을 할야도 목독이라느 귀신은 못 보았다고 니가 외입흔지는 몇히 못되엇셔도 밤시도록 남의 계집 끼고 자고 심째 쓰는 이 싸위 화상은 처음 보네. <황금탑 10~11> (1912)

ㄴ. 達黨: 그러타 나는 배은망덕한 불한당이였다. 내야말로 바보 천치였고 어리석은 놈이었구나(흥분하야 무엇을 생각한다) <村先生(이광래)> (동아일보 1936.1.17.)

ㄷ. “그래 당신 같은 불한당을 데려다가 뒷에 씨먹을 작정이랍디까?” “이 똥물에 튀해 죽일 년 좀 봐!, 나더러 불한당이라구? 자고로 시대가 영웅을 낳는다고 ... 때만 오면 내가 너 같은 년의 기둥서방 노릇이나 하고 있을 줄 아느냐!” <슬픈 牧歌(정비석) 93> (동아일보 1957.6.20.)

ㄹ. 네 이놈, 썩 들어가지 못해? 천하 불한당도 그런 소리는 안 해. 아버님이 누워 계신 앞에서 어디라고 함부로 지껄이고 있니? <거룩한 응달(최일남)> (1982)

ㅁ. 남편을 상여로 갖다 묻은 뒤, 춘매는 얼마 동안 뉘를 놓은 사람 같았다. 춘매가 팔삭둥이에다 뺨장이이며 불한당인 이봉달을 정말 사랑했는지는 본인만이 알 일이었다. <황금박쥐(성석제) (18)> (경향신문 1999.5.21.)

이와 같은 의미로 쓰인 ‘불한당’이 (21ㄱ, ㄴ)에서 보듯 20세기 초 문헌에서 목격된다. (21ㄴ)의 ‘불한당’은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 (21ㄷ)의 ‘불한당’은 여자에게 빌붙어 살 정도로 파렴치한 남자, (21ㄹ)의 ‘불한당’은 예의를 차리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는 무리, (21ㅁ)의 ‘불한당’은 행실이 좋지 못한 남자를 가리킨다. 이들은 넓게 보아 ‘예의와 염치가 없는 막된 무리’ 또는 ‘그런 무리에 속한 사람’의 범주로 묶을 수 있다. 또한 (21ㄱ)의 ‘이면불안당’에 쓰인 ‘불안당’도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면불안당’은 ‘이면(裏面)’과 ‘불안당’이 결합된 어형으로, ‘사리를 멀쩡히 알면서도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에 어긋나는 짓을 하는 막된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면불한당(裏面不汗黨)’이 《큰사전》(1957)에 처음으로 올라 있으며, 이후의 사전에도 실려 있다.

이러한 의미로서의 ‘불한당’도 복수 개념과 함께 단수 개념으로 쓰일 수 있다. (21ㄴ, ㄷ)은 단수 개념으로 쓰인 것인데, 이러한 의미로서는 복수 개념보다 단수 개념으로 더 많이 쓰이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예의와 염치가 없는 막된 무리’ 또는 ‘그런 무리에 속한 사람’이라는 비유적 의미는 《국어대사전》(1961/2021), 《(금성판)국어대사전》(1991) 등의 ‘불한당’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우리말대사전》(1991)에서는 ‘불한당’을 ① ‘남의 재물을 마구 빼앗으며 행패를 부리고 돌아다니는 무리’, ② ‘남을 괴롭히는 것으로 업을 삼는 사람’으로 풀이하여 이와 같은 의미를 ②로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는 ‘강도떼’와 ‘깡패’라는 의미를 ①로 묶어 표현하고 있어 두 의미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표준국어대사전》(1999), 《우리말샘》(2016)에서는 ‘불한당’을 ① ‘떼를 지어 돌아다니며 재물을 마구 빼앗는 사람들의 무리’, ② ‘남 괴롭히는 것을 일삼는 파렴치한 사람들의 무리’로 기술하여 이와 같은 의미를 ②로 표현하고 있다. ①은 ‘강도떼’를 가리키고, ②는 ‘파렴치한 사람들’을 가리켜 결국 ‘불한당’이 지니는 ‘깡패’라는 의미를 놓치고 있다. 또한 ①, ② 모두에 단수 개념이 빠져 있다.

《고려대한국어대사전》(2009)에서는 ‘불한당’을 ① ‘떼를 지어 다니며 강도 짓을 하는 무리’, ② ‘남을 괴롭히는 것을 일삼는 사람. 또는 무리’, ③ ‘막되어 예의를 갖추 줄 모르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기술하여, ‘불한당’의 실제 의미를 모두 반영하려 한 노력이 엿보인다. ①은 ‘강도떼’라는 의미인데, ‘강도’라는 단수 개념이 빠져 있다. ②는 아마도 《국어대사전》(1961/2021)의 ② ‘떼를 지어 다니며 행패를 부리는 사람’, 곧 ‘깡패’라는 의미를 달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복수 개념과 단수 개념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 ③은 ‘예의나 염치가 없는 막된 사람’과 통한다. ‘파렴치한 사람’은 분명 예의를 갖추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단수 개념만 반영되어 있고 복수 개념은 빠져 있다. 《고려대한국어대사전》(2009)에서는 ‘불한당’의 실제 의미를 두루 반영하려 노력하였지만, 결과적으로 ‘불한당’이 지니는 여러 의미적 요소를 충실히 반영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불한당’의 현실 의미를 토대로, 그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남의 재물을 강탈하는 것을 일삼는 무리(강도떼). 또는 그런 무리에 속한 사람(강도).
- ② 행패를 부리며 못된 짓을 일삼는 무리(깡패). 또는 그런 무리에 속한 사람(깡패).
- ③ 예의와 염치가 없는 막된 무리. 또는 그런 무리에 속한 사람.

현재 ‘불한당’은 ①의 의미로는 잘 쓰이지 않는다. 이는 ‘강도떼’나 ‘강도’라는 단어에 세력을 빼앗긴 결과로 이해된다. 요즘에는 ‘불한당’이 부쩍 ②의 의미로 많이 쓰이는 추세이다. 특히 국제적으로 불량하다고 낙인이 찍힌 국가를 표현한 때 ‘불한당’이라는 말을 적극적으로 동원한다. 곧 “불한당 국가”라는 표현이 흔히 쓰이는데, 이는 ‘깡패 국가’라는 뜻이다.

또한 ‘불한당’은 복수 개념으로 출발하였으나 점차 점차 단수 개념 쪽으로 기우는 경향이다. 복수 개념을 나타내는 ‘패, 떼, 무리’를 결합한 ‘불한당패, 불한당떼, 불한당무리’가 등장한 것은, ‘불한당’이 무리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단수 개념화하면서 복수 개념의 표현이 필요해서일 수도 있다.

한편 ‘불한당’에서 ‘불’이 절단된 ‘한당’ 또한 ‘불한당’의 의미 변화에 따라 의미가 변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한당’은 거의 문헌에 나타나지 않아 그 의미 변화의 과정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대부분의 사전에서는 그저 ‘「불한당」의 준말’이라고만 기술하고 있어, 해당 사전에서 ‘불한당’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한당’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한당’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힌 사전은 《표준국어대사전》(1999)과 《고려대한국어대사전》(2009)뿐이다. 전자에서는 ‘한당(汗黨)’을 ‘남 괴롭히는 것을 일삼는 괴롭치한 사람들의 무리. = 불한당(不汗黨)’으로 기술하여 ‘불한당’이 지니는 ③의 의미만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후자에서는 ‘한당(汗黨)’을 ① ‘남의 재물을 빼앗거나 폭행, 협박 따위를 일삼으며 돌아다니는 무리. (원어) 불한당(不汗黨).’, ② ‘남을 괴롭히거나 행패를 부리는 사람. (원어) 불한당(不汗黨).’으로 기술하여 ‘불한당’이 지니는 ①, ②, ③의 의미가 모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명쾌하지는 않다. 두 사전이 어떤 근거로 ‘한당’에 이러한 의미를 부여했는지는 알 수 없다. 또한 두 사전이 ‘한당’을 ‘불한당’과 동의어로 보면서도, 해당 사전에서 제시한 ‘불한당’의 의미와 일치시켜 기술하지 못한 문제점도 있다. ‘한당’의 의미는 실제 용례를 근거로 다시 정리해야 할 것이나, 일단 ‘불한당’의 ①, ②, ③의 의미를 모두 갖는 것으로 보기로 한다.

4. 결론

지금까지 문헌 자료를 근거로, ‘불한당’의 어원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면서 아울러 그 형태 변화와 의미 변화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어원에서는 ‘불’과 ‘한’이 어떤 의미 기능을 갖는지에, 의미 변화에서는 의미 파생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였다. 지금까지 언급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지금까지 민간에서 제기한 어원설에는, 조선 정조대(正祖代) 파당의 하나인 ‘不漢黨’으로 보는 설, ‘사람답지 못한 놈’이라는 의미의 ‘不漢黨’으로 보는 설, ‘땀을 흘리지 않는 무리’라는 의미의 ‘不汗黨’으로 보는 설 등이 있다. 이 가운데 ‘不汗黨’ 설이 가장 널리 퍼져 있으며, 정설처럼 인식되고 있다. ‘不汗黨’ 설은 그럴듯하게 윤

색되어 다양하게 진화해 왔다. ‘불한당’의 어원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미미하다. ‘불을 켜 무리’라는 의미의 ‘불현당(불을 켜 무리)’ 설과 몽골 문어 ‘burungxui(싸우기를 좋아하는)’에 기원한다는 설이 있을 뿐이다. 이 가운데 전자의 설이 주목된다. 이는 민간어원을 극복하고, ‘불한당’의 어원을 ‘明火賊’과의 관계를 통해 밝히려 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불한당’의 ‘불’은 ‘火’의 뜻으로 정확히 보았으나, ‘한’은 중세국어 ‘혀다(켜다)’의 관형사형 ‘현’의 변화형으로 잘못 보아 절반의 성공에 그친 셈이다.

② ‘불한당’은 17세기의 ‘불한당’으로 소급한다. ‘불한당’은 [[불+한(漢)]+당(黨)]으로 분석할 수 있다. ‘불한’의 ‘불’은 ‘火’의 뜻이다. ‘불한당’이 원문의 ‘火賊’에 대응되어 나타나고, 또 ‘불한당’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햇불을 들어 불을 밝히는 것’이라는 점에서 ‘불’이 ‘火’의 뜻인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한(漢)’은 ‘불목한’의 그것과 같이 ‘남자’에 대한 비칭이다. 구체적으로는 도적질하는 남자를 낚잡아 지칭하는 말이다. 따라서 ‘불한’은 ‘불을 밝힌 채 도적질하는 놈’이라는 뜻이 된다. ‘불한’으로 이어졌으나 현재는 쓰이지 않는다. ‘당(黨)’은 ‘賊黨’의 뜻이다. 이것까지 고려하면 ‘불한당’은 ‘햇불을 들어 불을 밝힌 채 부호가의 재물을 강탈하는 도적 무리’로 해석된다.

③ ‘불한당’은 ‘불’의 ‘불’로의 변화에 따라 ‘불한당’으로 변하여 현재에 이른다. ‘불한당’은 유성음 사이에서 ‘ㅎ’이 탈락하여 ‘불안당/부란당’으로 변하기도 하고, ‘불한당’과 ‘부란당’은 각기 ‘불항당’과 ‘부랑당’으로 변하기도 한다. ‘불한당>불항당’, ‘부란당>부랑당’의 변화는 ‘음절말 비음 간 대치’ 현상으로, 또는 뒤 음절 말음 ‘ㅇ’에 이끌린 결과로 설명할 수 있을 듯하다. 물론 ‘부랑당’은 한자어 ‘浮浪’에 유추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불한당’은 절단 과정을 거쳐 ‘한당’으로 줄어들기도 한다.

④ ‘불한당’은 적어도 세 차례 큰 의미 변화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는 ‘남의 재물을 강탈하는 짓을 일삼는 무리(강도떼)’. 또는 그런 무리에 속한 사람(강도)’이라는 의미로의 변화이다. 이러한 변화는 원의가 갖는 [(햇불을 들어) 불을 밝힘]이라는 필수 성분이 사라지고, [부호가의 재물을 약탈함]이라는 필수 성분이 [재물을 약탈함]으로 조정되면서 일어난 것이다. 두 번째는 ‘행패를 부리며 못된 짓을 일삼는 무리(깡패)’. 또는 그런 무리에 속한 사람(깡패)’으로의 변화이다. 이러한 변화는 ‘강도떼’가 갖는 [폭력성]이 핵심 성분으로 작용함으로써 일어난 것이다. 세 번째는 ‘예의와 염치가 없는 막된 무리. 또는 그런 무리에 속한 사람’으로의 변화이다. 이러한 변화는 ‘불한당’이 갖는 [비열한 속성]이 핵심 성분으로 작용함으로써 일어난 것이다. 각각의 의미 변화 단계에서 단수 개념이 생겨난 것은 [무리]라는 필수 성분이 사라진 결과이다.

[참고문헌]

- 강길운(2010), 《비교언어학적 어원사전》, 한국문학사.
- 배향섭(1986), 〈임술민란 전후 명화적(明火賊)의 활동과 그 성격〉,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소신애(2019), 〈음절말 비음 간 대치 현상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88.
- 이은령·김영주·윤애선 옮김(2014), 《현대 한국어로 보는 한불사전》, 파리외방전교회/펠릭스 클레르 리텔 지음, 부산대 인문학연구소, 소명출판.
- 장삼식 편저(1964), 《大漢韓辭典》, 성음사.
- 전광진 편저(2006), 《우리말 한자어 속뜻 사전》, LBH교육출판사.
- 조교현(2023), 〈사람을 지칭하는 1음절 접미한자어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상권(1992), 〈18세기 전반 명화적(明火賊) 활동과 정부의 대응책〉, 《한국문화》 13.
- 홍기문(1938), 〈趨庭緣 (二十五)〉, 《조선일보》 1938.2.13.

2025. 1. 24(금).

국어사학회 구결학회 공동 학술대회

“‘불한당’의 어원 및 의미 변화에 대하여”에 관한 토론문

황선엽(서울대)

조항범 선생님의 이 글은 다양한 국어사 자료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을 통해 ‘불한당’의 어원 및 형태, 의미 변화에 대해 논의한 것이다. 이 글을 읽기 전까지 ‘불한당’이란 단어에 대해 피상적으로 가지고 있던 토론자의 인식이 얼마나 잘못되었던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글이 국어 어휘사에 있어 매우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한다. 어휘사 연구의 원로로서 조항범 선생님께서 평생 지녀오신 연구 방법 및 자료에 대한 엄밀성이 잘 드러났다고 감히 논평하고자 한다.

자료에 대한 철저한 고증과 해석을 바탕으로 논의를 하였기에 글의 내용에 대해서는 논평하거나 첨언할 내용이 없다. 그럼에도 토론자의 책무를 맡은 이상 무어라도 언급을 하여야 하기에 한두 가지 첨언을 보태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홍기문의 견해를 언급하면서 “‘불’을 ‘火’의 뜻으로 본 것이나 ‘黨’을 ‘賊黨’의 뜻으로 본 것은 지극히 합당하다.”라고 하였는데 ‘黨’을 ‘賊黨’으로 본 것이 합당하다고 할 수 있을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홍기문은 ‘불한’을 ‘불현(불현)’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불한당’이 가지는 ‘賊’의 의미를 설명하기 어려웠으므로 그 결과 ‘黨’을 ‘賊黨’의 의미로 파악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 “‘불한’의 ‘한(漢)’은 의미가 하락한 비칭으로 이해된다. 이에 따르면 ‘불한’은 ‘불을 밝힌 놈’ 또는 ‘불을 든 놈’ 정도로 해석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횃불을 들어 불을 밝힌 채 부호가의 재물을 약탈하는 놈’이 된다.”라고 논의하였듯이 ‘漢’이 애초에는 비칭이나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 말이 아니었으나 나중에 비칭이 되었음을 고려하면 ‘賊’의 의미는 ‘黨’이 아니라 ‘漢’에서 나온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홍기문이 ‘黨’을 ‘賊黨’의 뜻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야 할 듯하다. 특히 이 글에서 논의하였듯이 ‘불한당’은 ‘한당’으로 축약되기도 한다는 점과 불강도에서 ‘불’만으로 ‘賊’의 의미를 나타낼 수 없음을 고려할 때 ‘불한당’에서 ‘賊’의 의미는 ‘黨’보다는 ‘漢’과 관련되는 것이 아닐까 한다.

홍기문의 견해를 비판하면서 “다만 ‘한’을 ‘혀다(켜다)’의 관형사형 ‘현’에서 변환 것으로 본 것은 분명 잘못이다. ‘현’이 ‘한’으로 변하기도 어렵거니와 ‘한’을 관형사로 볼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는데 토론자도 이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현’이 ‘한’으로 변하기도 어렵다고 본 것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를 가질 수도 있으므로 홍기문의 견해를 비판하기 위한 논거로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박진호(2003), “중세국어의 부사 파생 접미사 ‘-더/려/다/라’에 대하여”(형태론 5권 1호)에서 논의한 것처럼 ‘ㄷ’과 ‘ㄴ’이 교체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으며 특히 어휘의 변화에 있어서는 예상을 뛰어넘는

특이한 변화들이 나타나곤 한다는 점에서 ‘현’이 ‘한’으로 변하기도 어렵다는 점만으로는 홍기문의 견해를 비판하는 충분한 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인다. 홍기문의 견해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대로 ‘불현당’ 즉 ‘불을 권 무리’라는 의미만으로 ‘賊’의 의미를 지니기 어려운바 의미상 ‘漢’이 있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어미 ‘-으려’가 포함된 어미 결합형에 대하여

유필재(울산대)

< 차례 >

1. 序論
2. 어미 ‘-으려’가 포함된 語尾 結合形의 양상
3. 어미 ‘-으려’ 어미 결합형의 실제와 변화 과정
 - 3.1 현대국어 공통어에서 ‘-으려’ 어미 결합형의 양상
 - 3.2 ‘-으려’ 어미 결합형의 변화 과정
 - 3.3 어미 ‘-을래’의 형성
4. 結論

1. 序論

국어의 간접 화법에서는 흔히 ‘하-’가 생략되어¹⁾ 내포문과 상위문의 어미가 직접 연결되는 경우가 생긴다. ‘엄마가 손잡이를 꼭 잡으라 했어.’는 ‘엄마가 손잡이를 꼭 잡으랬어.’로도 실현된다. ‘잡으라 했어’의 ‘하-’가 없어지고 그 결과 어미 ‘-라’와 ‘-었어’가 직접 결합된 형태가 ‘-랬어’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같은 형태는 ‘합성형(고영근 1974), 用言複合形(菅野裕臣 외 1991: 1025), 축약형(이필영 1993), 융합형(이지양 1994)²⁾, 어미 결합형(語尾 結合形)(팽이림 2024)’ 등으로 설명된 바 있다. 이하에서는 ‘어미 결합형’이라는 용어로 해당 형태를 지칭하기로 한다.

내포문의 서술어가 평서형인 경우만을 예로 들면 (1)과 같이 상위문의 서술어가 종결형, 관형형, 명사형, 연결형인 경우로 나뉜다.³⁾ 또한 각각의 경우는 상대경어법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 (1) 종결형 : -는답니다, -는다오, -는다네, -는단다, -는대, -는대요
 -는답니까, -는다오, -는다는가 ~ -는다나, -는다느냐 ~ -는다냐, -는다니, -는대, -는대요
관형형 : -는다는 ~ -는단, -는달, -는다던

1) ‘-고 하-’가 생략된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2) 융합형은 다시 ‘단순 융합형, 진전된 융합형’으로 나누었다. 후자는 ‘-는답니다’처럼 하나의 어미로 변화한 형태를 가리킨다.

3) ‘-더랍니다’처럼 내포문에 어미 ‘-더-’가 포함된 경우도 있으나 이곳에서는 설명의 편의상 일단 ‘-더-’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만 제시하였다.

명사형 : -는다기

연결형 : -는다고, -는다면서, -는다며, -는다면, -는다거든, -는다니까, -는다니, -는다거나, -는다든지, -는다든가, -는다느니, -는다는데, -는다던데, -는다지만, -는다더니

내포문에는 평서형 이외에도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이 올 수도 있다. ‘-는답니다’는 내포문이 평서형인 경우이고 내포문이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인 경우에는 ‘-느답니다, -으랍니다, -잡니다’가 된다.

그런데 내포문 자리에 연결어미 ‘-으려’가 오는 경우도 있다. ‘-으립니다’가 그 예이다. 이제까지 설명한 어미 결합형은 모두 간접 화법인데 내포문이 ‘-으려’인 경우는 간접 화법이 아니라는 차이가 있다.

(2) 오늘은 학교에 가지 않으려 합니다. - 오늘은 학교에 가지 않으려입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으려’가 포함된 어미 결합형의 실제 양상을 검토하고 이러한 현재의 상태를 만들어 낸 변화 과정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이를 통해 어미 ‘-올래’의 기원 등 관련된 문제도 검토하려고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2장에서는 ‘-으려’가 포함된 어미 결합형의 양상을 표준어에서 제시한다. 3장에서는 어미 ‘-으려’가 포함된 어미 결합형의 실제 형태를 보이고 그 변화 과정을 설명한다. 이를 통해 ‘-으려’가 포함된 어미 결합형의 체계를 재고한다. 4장은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함으로써 결론을 대신한다.

2. 어미 ‘-으려’가 포함된 語尾 結合形의 양상

먼저 ‘-으려’가 포함된 어미 결합형의 양상을 상위문이 종결형인 경우로 한정하여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비교를 위해 앞 장에서 제시한 평서형 내포문의 어미 결합형도 함께 제시하였다.

<표 1> ‘-으려, -는다’가 포함된 어미 결합형(종결형 상위문)

			-으려	평서형
종결형	평서형 ⁴⁾	하십시오체	-으립니다	-는답니다 ⁵⁾
		하오체	-으려오	-는다오
		하게체	-으려네	-는다네
		해라체	-으려나	-는단다
		해체		-는대
		해요체		-는대요
	의문형	하십시오체	-으렵니까	-는답니까
		하오체	-으려오	-는다오
		하게체	-으려는가, -으려나	-는다는가 ~ -는다나
		해라체	-으려느냐, -으려냐 -으려니	-는다느냐 ~ -는다냐 -는다니

		해체		-는대
		해요체		-는대요
	명령형			
	청유형			

<표 1>에서는 해당 예가 없는 빈 칸이 발견된다. 상위문의 서술어가 명령형과 청유형인 경우는 어미 결합형이 잘 확인되지 않는다.

- (3) a.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 한다 -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단다
b.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 하니? -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단니?
c.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 해라 - ×시간이 없어서 못 간대라
d.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 하자 - ?×시간이 없어서 못 간대자

명령형, 청유형에서 예가 나타나지 않는 사실은 ‘하-’의 의미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3)에서 제시한 평서형뿐 아니라 내포문이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인 경우에도 해당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다. 평서형과 의문형과 달리 명령형과 청유형의 ‘하-’는 {命令}이라는 의미 전달을 위해 생략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⁶⁾

그러나 평서형, 의문형에서 ‘해체, 해요체’가 공백인 사실은 그렇지 않다. 다른 내포문의 경우에는 해당 형태가 있다. ‘-는대(요), -내(요), -으래(요), -재(요)’는 각각 ‘-는다 해(요), -냐 해(요), -으라 해(요), -자 해(요)’의 축약된 형태이다. 명령형인 ‘-으래(요)’의 예만을 들어 본다.

- (4) 저보고 답임을 맡으래요 - 저보고 답임을 맡으라 해요

다른 형태들로 보아 ‘-으려 해(요)’의 축약된 형태(어미 결합형)는 ‘-레(요)’가 예상되지만 현대국어에서 이러한 형태는 존재하지 않는다.

상위문 서술어가 종결형이 아닌 나머지 경우를 이하에서 제시한다. 관형형인 경우는 ‘-으려는, -으려던’, 명사형의 ‘-으려기’가 있다. 명사형 ‘-으려기’의 예를 든다.

- (5) 앞으로 무조건 바꾸려기보단, 기존에 있었던 것들 장점부터 충분히 파악하세요 <장현주, 서희정, SBS 파라다이스목장 5회, 2011>

연결형은 꽤 많다. 2024년 11월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형태를 (6)에 제시한다.

- (6) -으려고*⁷⁾, -으려거든, -으려기에, -으려는데, -으려는지, -으려니와, -으려다(가), -으려 더니,

4) 설명의 편의를 위해 감탄형은 표에서 생략하였다. ‘-으려는군요, -으려는군, -으려는구나, -으려네’의 예가 있다.

5) ‘-는답니다’는 실제로는 ‘-는답니다/-ㄴ답니다/-답니다/-랍니다’같은 이형태를 가진다.

6) 명령형, 청유형은 모두 {命令}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화자가 포함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7) 종결어미로도 쓰이는 사실을 표시하기 위해 별표(*)를 사용하였다.

-으려도, -으려서는, -으려서야, -으려야
-으려면, -으려니, -으려니까

이 중 ‘-으려니, -으려니까’의 예를 보인다.⁸⁾

- (7) a. 하기 싫은 산수 공부까지 하려니 미칠 지경이다 <어린이 철학교육연구소, 노마의 발견, 해냄, 1987>
b. 두 손으로 살며시 더듬으려니까 한 뿔이나 뒹지할 큰 송어 한 마리가 ‘퍼드덕!’하고 튀어나가는 바람에 영구는 하마터면 뒤로 나자빠질 뻔했다 <이주홍, 피리 부는 소년, 삼성미디어, 1991>

이 중 ‘-으려고’는 종결어미로도 사용된다. 연결어미의 예를 (8)에, 종결어미의 예를 (9)에 제시한다.

(8) 점심 때 나눠 먹으려고 싸는 거지.

(9) 그 많은 것을 다 먹으려고?
운동화로 갈아 신으려고요.

3. 어미 ‘-으려’ 어미 결합형의 실제와 변화 과정

그런데 이러한 ‘-으려’가 포함된 어미 결합형들은 실제로는 다른 형태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으려고’는 공통어에서는 ‘-으려구, -으라구’로도 사용된다. 종결어미뿐 아니라 연결어미로 쓰인 경우에도 그렇다. 종결어미의 예를 (10)에, 연결어미의 예를 (11)에 제시한다.

- (10) a. 흥 회장하고 현민씨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이희우, 최성실, MBC 내 여자 23회, 2008>
b. 뭐 만나서 이 집에 대한 추억담을 쏟아 놓으려구? <황성연, 이경미, KBS 구미호외전 7회, 2004>
c. 너 고양이 집에 들어 놓으라구? <이흥구 외, MBC 김가이가 7회, 1993>

(11) 성 과장은 언제 갈라구 이렇게 뭉기적대? <이흥구 외, MBC 김가이가 13회, 1993>

이하에서는 ‘-으려’가 포함된 어미 결합형들이 공통어에서 실제로 어떤 형태로 사용되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8) ‘-으려니, -으려니까’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착오로 생각된다.

3.1 현대국어 공통어에서 ‘-으려’ 어미 결합형의 양상

방금 제시한 것처럼 2장에서 제시한 ‘-으려’가 포함된 어미 결합형들은 공통어에서는 형태가 달리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으려고’와 ‘-으려구’처럼 ‘려’ 앞에 ‘ㄹ’이 첨가된 사실을 제외하면 ‘-으려’가 포함된 어미 결합형은 공통어에서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뉜다.

하나는 ‘려’가 ‘라’에 대응되거나 ‘라’에 대응되는 형태가 우세형인 경우이다. 표준어형은 괄호 안에 제시한다. ‘-을랍니다(-으렵니다), -을란다(-으런다) <優>⁹⁾~을랜다 <劣>, -을랍니다(-으렵니까), -을라나(-으려나 自問) <優>~-을래나 <劣>, -을라구(요)(-으려고(요)), -을라그러(-으려고 그러-)’가 있다.

- (12) a. 전 일하러 갈랍니다 <이덕재, KBS 별난 여자 별난 남자 54회, 2005>
 b. 내가 옷 벗을 요량하고 끝까지 한번 해 볼란다! <김운경, KBS 황금사과 6회, 2005>
 c. 나 그냥 올라 갈랜다 <홍상수, 해변의 여인, 2006>
 d. 저희는 그만두는데 형님은 어찌실랍니다? <최완규, 이서윤, SBS 태양을 삼켜라 23회, 2009>
 e. 마구간 지붕에 비가 새는데... 비닐로 덮어두면 괜찮을라나? <장현주, 서희정, SBS 파라다이스목장 9회, 2011>
 f. 다시 올래나.... 다신 안 올 거 같은데 <이경희, MBC 고맙습니다 3회, 2007>

- (13) a. 어딴지도 모르고 이 넓은 서울에서 어떻게 찾을라고? <이영철 외, MBC 지붕뚫고 하이킥 46회, 2009>
 b. 어디 가요? / 씻을라구요 <김은숙, SBS 온에어 4회, 2008>

- (14) 그래, 선주는 지 아버지 돈 안 쓸라그래. <소현경, MBC 얼마나 좋길래 120회, 2006>

다른 하나는 ‘려’가 ‘래’에 대응되거나 ‘래’에 대응되는 형태가 우세형인 경우이다. ‘-을래야(-으려야), -을래두(-으려도), -을래다(-으려다) <優>~-을라다 <劣>, -을래면(-으려면) <優>~-을라면 <劣>, -을래니(-으려니) <優>~-을라니 <劣>, -을래니까(-으려니까)’ 등이 있다.

- (15) a. 재 잘못된 걸 손으로 꼽을래야 꼽을 수가 없네 <노희경, MBC 우리가 정말 사랑했을까 31부, 1999>
 b. 트집을 잡을래도 뭘 알아야 잡지 <박혜경, SBS 천국의 계단 10회, 2003>
 c. 남이 먹을래다 버린 떡 주워와놓군 입이 짜져? <이덕재, KBS 별난 남자 별난 여자 131회, 2006>
 d. 말할라다 말았네 <서숙향, MBC 파스타 5회, 2010>
 e. 기풍이 고집 꺾을래면 시간 좀 걸리겠어요 <임성한, MBC 보고 또 보고 131회, 1998>
 f. 아저씨네 따라 갈라면 멀었죠~ <문희정, SBS 그대 웃어요 32회, 2009>
 g. 현석이가 혼자 있을래니 심심한가 보다 <홍영희, 최호연, KBS 순수 15회, 1998>

9) 빈도의 측면에서 우세형은 <優>, 열세형은 <劣>로 표시해 둔다.

- h. 막상 떠날라니 은근히 섭섭하네... <김현희, SBS 강남엄마 따라잡기 11회, 2007>
- i. 주말에 나랑 요렇게 있을래니까, 맘이 좀 무겁죠? <임상수, 바람난 가족, 2003>

이러한 공통어의 양상은 서울방언의 그것을 이어 받은 것이다. 연결어미들은 서울방언 형태 역시 공통어와 거의 같다. 표준어형 ‘-으려고, -으려다, -으려니, -으려면’은 서울방언에서 ‘-을려구~-을라구~-을라구, -을래다, -을래니~-으려니, -을래믄~-을래면~-을래며는’으로 나타난다(유필재 2003: 311). (16)의 예들은 유필재(2003: 311)에서 가져 왔다.

- (16) a. 가난해서 시집 안 갈려구 그러까 바서
- b. 반장 시킬랴구 했다가
- c. 도둑놈 잡을랴구 쏜는 거구
- d. 어떤 때 밥 먹을래다 또 몰:르구 이빨일 안 끼믄 또 일어나서 찾구
- e. 나는 눈만 뜨믄 남으 바느질을 해가주구 생활을 헐래니 얼마나 ...
- f. 매부집에 와서 얻어 먹구 있으려니 그저 그럴 밖에 <천변풍경 17>
- g. 불려서 갈어서 썰래믄 힘들지
- h. 식구 많:으면 잔치를 헐래면
- i. 지게에다 많:이 담을래며는 그걸 올려 놓구서 그 위다

종결어미 ‘-으려오’는 ‘-을랴우~-을라우~-을래우’로 나타난다(유필재 2003: 314, 310-311). (17)의 예도 유필재(2003)에서 가져 왔다.

- (17) a. 떡방아 줌 오늘 켜: 줄랴우?
- b. 일:만 하다 죽을라우?
- c. 한 번 들어 볼래우?

서울방언 형태 중 ‘랴’가 포함된 ‘-을랴구, -을랴우’는 공통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곧 이어 살펴보지만 이 ‘랴’가 포함된 형태는 문헌 자료에서도 문증된다.

서울방언의 예들을 검토해 보면 ‘-을랴구?, -을랴우?’는 직접적으로는 ‘-을랴구?, -을랴우?’에서 온 형태임을 추측할 수 있다. 형태상의 유사성이 눈에 띈다. ‘래’가 있는 형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이하에서 어미 ‘-으려’의 역사적 변화를 검토한다.

3.2 ‘-으려’ 어미 결합형의 변화 과정

한글로 표기된 ‘-으려’의 가장 오래된 형태는 ‘-오/우려’로 확인된다. 대체로 ‘-오/우려 ㅎ-’로 나타난다. 중세국어에서는 이와 같은 환경에서도 ‘ㅎ-’와 관련된 축약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19 a)의 ‘아노려커시닐 LHL HLH¹⁰⁾’같은 축약형으로 나타나게 된다. ‘아노려 ㅎ거시닐’에서 ‘ㅎ-’의 여간 모음 ‘으’가 탈락된 형태이다. 이러한 언어 사실이 이어져 현대국어에서 ‘-으려’는 간접화법이 아닌데도 어미 결합형을 형성하게 된다.

10) 중세국어의 평성, 거성, 상성은 각각 L, H, R로 표기한다.

(18) 大臣을 請^ㅎ야 이바도려 LLHH ^ㅎ노닛가 <석보상절 6:16a>

(19) a. 님금이 보샤 아노려커시닐 LHL HLH 두 아기 아니 안기시니 <월인석보 20:55a>
b. 父母와 식부모 | 장^ㅎ 안조려커시든 LRL LLH 돛글 받드려 어드려 향^ㅎ실고 請^ㅎ며
<소학언해 2:5b>(1586)

‘^ㅎ-’가 후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빈도는 높지 않다.

(20) 그디 精舍 지수려 LHH 터흘 𐄂 始作^ㅎ야 되어늘 <석보상절 6:35a>

또한 예는 많지 않지만 ‘-오려’에는 繫辭 ‘-이-’가 결합되는 경우도 있었다.

(21) 有餘를 묻거시든 솔오디 업스이다 ^ㅎ니 장^ㅎ 𐄂 다시 나소레니라 LHH LH <내훈 1:43a>

(21)의 ‘나소레니라’는 ‘나소- LH’에 어미 ‘-오려’가 결합된 활용형 ‘나소려 LHH’에 직접 계사 ‘-이-’가 결합한 형태이다.

17세기가 되면 ‘-오/우-’의 소멸로 ‘-오려 (^ㅎ-)’로 형태가 바뀐다.

(22) 방 시 𐄂들 결단^ㅎ여 흠씩 주그려 ^ㅎ야 스스로 침 가온대 𐄂디기를 두서 번을 ^ㅎ고 <동국신속삼강행실도 열녀도 5:80b>(1617)

그런데 ‘-오려 (^ㅎ-)’로 형태가 바뀌어 나타나면서 같은 의미를 가진 ‘-오랴 (^ㅎ-)’도 확인되기 시작한다.

(23) a. 원손 세 가락을 𐄂너 𐄂 그 반^ㅎ시 주그랴 ^ㅎ논 정성을 나타내니 <동국신속삼강행실도 열녀도 5:17b>

b. 임진왜란애 도적이 장^ㅎ 그 아비를 해^ㅎ랴 ^ㅎ거닐 <동국신속삼강행실도 효자도 6:13b>

(22)와 (23 a)의 ‘주그려 ^ㅎ-, 주그랴 ^ㅎ-’는 의미 차이 없이 두 형태가 쓰인 예이다.

‘-오랴 (^ㅎ-)’는 그 후에도 계속 사용되어 18세기말에는 ‘-오려 (^ㅎ-)’와 ‘-오랴 (^ㅎ-)’ 중 어느 형태가 더 우세한 형태인지 따지기 어려운 정도가 된다. 《명의를록언해》(1777)의 예를 든다.

(24) a. 이곳 나의 우익을 전제^ㅎ려 ^ㅎ논 흥심이라 <명의를록언해 卷首下어제윤음:4a>(1777)

b. 이논 우익을 전제^ㅎ랴 ^ㅎ논 흥심이라 <명의를록언해 2:10a>

(25) a. 대개 그 그윽^ㅎ 일을 엿보면 그 틈을 𐄂며 그 환을 막으려 흠이니 <명의를록언해 2:34a>

b. 디텡^ㅎ시는 대^ㅅ책을 비^ㅅ치^ㅎ야 반^ㅅ드시 힘^ㅅ써 막으랴 ^ㅎ는지라 <명의록언해 2:32b>

20세기를 전후하여 ‘ㄹ’가 첨가된 ‘-을랴, -을려’ 형태가 확인된다.

- (26) a. 이 두 분이 아마 서로 상지^ㅎ히려고 글이 ^ㅎ는 것 ^ㅎ으나 <독립신문 1896년 7월 2일>
b. 무슨 맛에 술만 먹^ㅎ는단 말이나 술을 먹으랴^ㄹ거든 은^ㅅ군^ㅅ 집으로 가자 ^ㅎ며 <추월색 90>(1912)
c. 한^ㅅ약을 쓰실랴^ㄹ면 저 ^ㅇ리 동이 권^ㅅ주부 약국이 잇^ㅅ습니다 <비파성 146>(1912)

그런데 ‘ㄹ’이 첨가된 형태는 ‘-을랴’의 예가 많고 ‘-을려’의 예는 드물다. ‘-을려’의 어간은 대체로 ‘하-’에 한정된 듯하다.

- (27) 상^ㅅ권을 급^ㅅ히 ^ㅅ지려도 아니^ㅅ될 일^ㅅ이요 ^ㅎ록^ㅅ군과 군^ㅅ함을 급^ㅅ히 준비^ㅎ히려도 아니^ㅅ될 일^ㅅ이요 <독립신문 1899년 1월 23일>

‘ㄹ’의 첨가는 같은 환경의 용언 어간에서도 일어난 변화이다.

- (28) a. 만일 상^ㅅ류의 못^ㅅ물이 반^ㅅ드시 하^ㅅ슈로 통^ㅎ야 흘르^ㄹ고 능^ㅅ히 다른 길^ㅅ노 쫓^ㅅ치 못^ㅅ할 자^ㅅ여든 <이언언해 4:10b>(1875)
b. 진^ㅅ퇴^ㅅ주^ㅅ선에 삼^ㅅ가^ㅎ며 조^ㅅ심^ㅎ며 올르^ㄹ며 나^ㅅ리며 <여사수지 4b>(1889)

(28)에서 ‘흘르고, 올르며’는 이전 시기의 활용형 ‘흐르고, 오르며’에서 ‘ㄹ’가 첨가된 형태이다.

‘ㄹ’가 첨가되는 변화가 있는 후 다시 어미 형태가 바뀐다. 20세기를 전후하여 어미의 모음이 바뀌어 ‘-을랴’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 (29) a. 나라 일^ㅅ이 었^ㅅ지 될라^ㄹ는지 우리들^ㅅ도 다 ^ㅎ흔 동^ㅅ포로 충^ㅅ인^ㅎ는 목^ㅅ적이 일^ㅅ반이니 <독립신문 1898년 11월 5일>
b. 하^ㅅ느^ㅅ님^ㅅ을 ^ㅎ크 더^ㅅ듬어 엇을랴 ^ㅎ엿^ㅅ소 <신학월보 4:485>(1904)

- (30) 아, 요 전^ㅅ번^ㅅ에 편^ㅅ지^ㅎ허구, 이^ㅅ레나 여^ㅅ드^ㅅ레^ㅅ밖^ㅅ에 안 ^ㅅ됐^ㅅ는데, 뭇 ^ㅅ벌^ㅅ서 또 편^ㅅ질 헐라^ㄹ구요? <천변풍경 415>(1938)

뒤이어 20세기 초반이 되면 ‘-을래’ 형태도 확인되기 시작한다.

- (31) a. 의^ㅅ혹^ㅅ을 가질래^ㄹ야 가^ㅅ질 여^ㅅ지^ㅅ가 없^ㅅ을 것^ㅅ만 같^ㅅ았다. <천변풍경 145>
b. 한^ㅅ눈^ㅅ을 팔^ㅅ기^ㅅ는^ㅅ커^ㅅ녕 죽을래^ㄹ야 죽^ㅅ을 틈^ㅅ이 없^ㅅ는 터^ㅅ에 연^ㅅ애^ㅅ가 뭇^ㅅ구 결^ㅅ혼^ㅅ은 다 뭇^ㅅ야요 <동아일보 1935년 12월 6일 3면, 소설 常綠樹 (72)>

이상의 검토로 현대국어 공통어에서 ‘-으려’가 포함된 어미 결합형이 ‘-을랴, -을래’가 포함된 형태로 나타나는 사실은 역사적 변화의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을랴, -을래’ 모두

‘-을랴’에서 변화된 형태로 생각된다.

우선 ‘-을랴’가 포함된 형태는 직접적으로는 ‘-을랴’에서 온 것으로 추정된다. 반모음 탈락을 통해 음절 구조를 변화시킨 것이다. 서울방언을 반영한 《삼대》와 《천변풍경》에서는 ‘-으려’가 포함된 어미 결합형이 우세형인데 ‘-으랴’가 포함된 어미 결합형은 공통어의 ‘-을랴’에 대응되는 형태와 겹친다. (32)의 ‘-으랴구(-으랴고)’는 공통어의 ‘-을랴구’에 대응된다.

(32) 데려다가 말려 죽이랴구? <삼대 上:244>

몇 십명이 움혀 들어가도 자기만 어서 모면하고 빠져나오랴고… <삼대 上:311>

몸이 달아서 내 생활의 비밀을 알랴고 애를 쓰실 제는 언제요? <삼대 上:241>

공통어에서 ‘-을래’가 포함된 어미 결합형 역시 ‘-을랴 > -을래’의 변화 과정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¹¹⁾ 서울방언에서도 ‘야 > 애’ 변화가 확인된다. 유필재(2003: 188-189)에서 제시된 예를 가져와 보인다.

(33) 도야지 > 돼:지

고양이 > 꿩:이

논뽕야기 > (논)뽕기

이야기 > 얘:기

(34) 달갈 > 달걀

뽕 > 뽕

서양철 > 생:철

특히 이전 시기 ‘쇠야기 LLH, 쏘야기’로 나타나는 현대국어 ‘썰:기’가 《국한회어》(1895)에서 ‘쏘야기, 썰애기’로 나타나는 사실은 이 변화의 과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이다.

(35) 쏘야기 楔

썰애기 練械 <국한회어 186>

3.3 어미 ‘-을래’의 형성

이상의 검토로 어미 ‘-으려 (하-)’가 포함된 어미 결합형은 공통어에서는 ‘-을랴, -을래’가 포함된 형태로도 나타나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역사적 변화 과정을 고려하면 ‘-을랴, -을래’는 ‘-으랴’의 후대형인 ‘-을랴’로부터 변화된 형태로 추정된다.

이제 2장에서 제시한 ‘-으려’가 포함된 어미 결합형의 양상을 공통어와 서울방언 형태를 추가하여 다시 제시한다.

11) ‘-을래’의 변화형이 ‘-을래’인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서울방언에 ‘여 > 애’ 변화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라면 비어두에서는 ‘에, 애’의 구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을래’가 된 것으로 설명된다.

<표 2> ‘-으려’가 포함된 어미 결합형의 표준어와 공통어(종결형 상위문)

			표준어	공통어, 서울방언 ¹²⁾
종결형	평서형	하십시오체	-으립니다	-을립니다
		하오체	-으려오	<-을라우, -을래우, -을랴우>
		하게체	-으려네	
		해라체	-으런다	-을란다, -을랜다
		해체		
		해요체		
	의문형	하십시오체	-으렵니까	-을렵니까
		하오체	-으려오	<-을라우, -을래우, -을랴우>
		하게체	-으려는가, -으려나	-을라나, -을래나
		해라체	-으려느냐, -으려냐 -으려니	
		해체		
		해요체		
	명령형			
	청유형			

여전히 해체, 해요체는 빈 칸으로 남아 있다.¹³⁾ 그런데 공통어에서의 이 빈 칸은 실은 ‘-을래, -을래요’로 채워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으려’가 포함된 다른 어미 결합형으로 보면 해체의 어미 결합형은 ‘-으려 해’에서 온 것 이어야 한다. 표준어 ‘-으려’와 공통어 ‘-을라’는 하십시오체 평서형으로 각각 ‘-으립니다’와 ‘-을립니다’를 만들어 낸다. 둘의 차이는 ‘-으려’에 대당되는 형태의 차이뿐이다. 같은 사실을 해체 평서형에 적용시켜 보면 ‘-으레’와 ‘-을래’를 얻게 된다. 그런데 앞에서 이미 설명한 것처럼 표준어형 ‘-으레’는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을래’는 ‘-으려 해’의 공통어형인 ‘-을라 해’에서 온 것으로 추정된다.¹⁴⁾ 역사적으로는 ‘-으라’가 포함된 어미 결합형에 소급된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 내포문이 명령형인 ‘-으라 해’가 어미 결합형 ‘-으래’를 형성하는 사실과 비교하여 보인다.

(36) 잡으래 ← 잡으라 해

12) 서울방언형에서만 확인되는 형태는 홑화살괄호 안에 제시한다.

13) 평서형 하계체의 ‘-으려네’, 그리고 의문형 해라체도 빈 칸이다. ‘-으려네’는 현재 하계체가 거의 사용되지 않는 사실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의문형 해라체는 표준어 형태 역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14) ‘-을래(요)’가 ‘-으려’와 관련된 사실은 菅野裕臣 외(1991: 1027)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다.

잡을래 ← 잡을라 해 (표준어형 : 잡으려 해)

‘-을래’는 평서문에서는 1인칭, 의문문에서는 2인칭 주어만을 가지는 제약을 가진다. 이 제약은 ‘-을래’에 포함된 ‘-으려’의 의미인 {意圖}와 관련된 것이다. ‘-으려고’도 같은 제약을 가진다.

‘-을래’는 대체로 1950년대 자료부터 확인된다.

(37) a. 한영실과의 약혼 방해하지 않을래. 외려 결혼이 잘 되도록 협력해 드리지 <조선일보 1954년 7월 9일 2면, 소설 푸른날개 (98)>

b. 동근아 엄마가 다방을 팔았지만 우리 생활비를 대주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동근이는 엄마와 같이 서울에 있을래? <조선일보 1956년 6월 21일 2면, 소설 女人의 生態 (70)>

(38) 너 올래이? 너 싸워 볼래이? 너 굶을래이? 너 사지를 자를래이? 너 초를 실컷 마셔 볼래이? 너 악어를 먹을래이? 나는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다. <최재서 역, 햄릿, 연희춘추사, 1954, p.311(2021년 올재에서 재간행)>

‘-요’가 결합된 ‘-을래요’는 그 뒤에 확인된다.

(39) 여보 제발 날 받아 주어요. 이제 두 번 다시 그런 수렁에는 빠지지 않을래요. <조선일보 1971년 5월 25일 5면, 소설窓 (240)>

해체 어미들은 20세기 중반까지도 꾸준히 그 영역을 확대해 가는 과정에 있었고 ‘-을래’는 그 한 예가 될 것이다. ‘-으려’가 기반인 다른 상대경어법의 어미 결합형이 표기로 정착된 이후에야 해체에서의 어미 결합형이 형성되었고 이 과정에서 공통어의 형태가 표준어로 채택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실은 사전들에 제시된 ‘-을래’를 검토해도 확인할 수 있다. 한글학회 《큰사전》(1947)에는 ‘-을래’가 등재되어 있지 않다. 이희승, 《국어대사전》(1961, 1982 수정증보판)에도 그렇다. Martin, S. E., Lee Yang Ha, Chang SUNG-UN(1967)에는 공통어형인 ‘-을래다, -을래기’는 표제항에 올렸지만 ‘-을래’는 없다. 이는 20세기 중반까지 ‘-을래’가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데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이희승, 《국어대사전》(제3판)(1994)에는 ‘-을래’가 있다. ‘-을래’를 의문형은 ‘-으련’, 평서형은 ‘-으련다’의 “구어 및 소아어”로 설명하고 있다. 기원에 대한 설명은 잘못되었지만 ‘-을래’가 당시 연령대가 낮은 화자들로부터 특히 구어에서 발생한 사실을 사전 편집자가 설명한 것으로 생각된다.

4. 結論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한다. 어미 ‘-으려’는 후행하는 ‘하-’의 생략에 의해 다른 어미와 직접 결합되는 형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으려 한다’가 ‘-으련다’로 나타나는 것이 그 예이다. ‘-으련다’는 종결어미가 결합된 예이고 관형형 어미 ‘-는’이

결합된 ‘-으려는’, 명사형 어미 ‘-기’가 결합된 ‘-으러기’, 그리고 연결어미 ‘-다(가)’가 결합된 ‘-으려다(가)’ 등이 더 있다. 그런데 이 어미 결합형들은 공통어에서는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실제 공통어에서 ‘-을런다’는 ‘-을란다’로, ‘-으려다(가)’는 ‘-을래다가’로 쓰인다. 이전 시기에 ‘-으려’ 외에 같은 의미로 ‘-으랴’도 있었는데 ‘ㄹ’이 첨가되고 ‘랴’가 ‘라, 래’로 바뀌는 과정을 거친 것이 현재 공통어의 형태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보면 해체 어미 ‘-을래’는 공통어 형태 ‘-을라 해’에서 온 어미 결합형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사전>

- 이희승(1961), 국어대사전(初版), 민중서관.
 이희승(1982), 국어대사전(수정증보판), 민중서림.
 이희승(1994), 국어대사전(제3판), 民衆書林.
 한글학회(1947), 큰사전, 을유문화사.
 菅野裕臣 외(1991), コスモス朝和辭典(코스모스 한일사전)(제2판), 東京: 白水社.
 Martin, S. E., Lee Yang Ha, Chang SUNG-UN(1967), 韓美大辭典, 민중서림.

<논저>

- 高永根(1974), “現代國語의 終結語尾에 대한 構造的 研究”, 어학연구 10. [高永根(1989)에 ‘終結語尾의 構造的 特性’으로 재수록]
 高永根(1989), 國語形態論研究, 서울大學校 出版部.
 김옥화(2008), “융합형의 분석과 종결어미 목록- 전북 부안지역어를 대상으로”, 우리말글 42, pp.1-20.
 유필재(2003), 서울방언의 음운론, 월인.
 이지양(1994), “어휘화된 융합형에 대하여”, 성심어문논집 16, pp.79-113.
 이필영(1993), 국어의 인용구문 연구, 탑출판사.
 이현희(1994), “19세기 국어의 문법사적 고찰”, 한국문화 15(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pp.57-81.
 정인호(2016), “평북방언의 선어말어미(先語末語尾) 고찰”, 방언학 24, pp.267-292.
 팽이림(2024), “현대 한국어 어미 결합형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어미 ‘-으려’가 포함된 어미 결합형에 대하여”에 대한 토론문

이지영(서강대)

유피재 선생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 발표에서는 ‘-으려’가 포함된 어미 결합형의 구체적 양상과 이러한 현재의 상태를 만들어 낸 변화 과정을 검토하시고, 이를 토대로 어미 ‘-을래’의 기원에 관련된 문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읽으면서 복잡하게 얽혀 있던 여러 문제가 해소되기도 하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알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토론자로서의 책무가 있는지라 몇 가지를 여쭙고자 하는데, 혹 선생님의 발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논증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은 다음의 세 가지인 듯합니다. 첫째, 20세기를 전후하여 ‘-으려, -으랴’형에 ‘ㄹ’이 첨가된 ‘-을려, -을랴’형이 확인되며[‘준비출려도’(27), ‘쓰실라면’(26c)], ‘-을랴’의 모음이 변한 ‘-을래’형도 확인된다(8~9쪽). 둘째, 20세기 전반(구체적으로는 1930년대)에 ‘-을랴’에서 변한 ‘-을래’형이 확인되는데, 이는 서울 방언의 ‘야>애’(혹은 ‘여>에’) 변화와 궤를 같이 한다(8~9쪽). 셋째, ‘-을라 해’에서 발달한 ‘-을래’는 1950년대부터, ‘-을래요’는 그 후에 확인된다(11쪽).

앞의 두 문제에서 ‘-으려’와 관련된 변화형, 즉 ‘랴’형과 ‘ㄹ’ 첨가 및 모음 변화형은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조선어학회, 1936/1945)에서도 ‘-려고’(표준)와 ‘-랴고’(비표준), ‘-려야’(표준)와 ‘-ㄹ랴야’(비표준)를 제시할 만큼, (현재로서는 기술상의 문제로 인해 그 사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1930년대에 상당히 널리 퍼져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과도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두 번째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적어도 ‘-으려’ 포함 어미에서 ‘랴>래’ 변화는 (어절 경계를 가진) ‘-을라 하-’에서 기원한 융합형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즉 ‘-으려고’에서 변한 ‘-을라고’는 “*~을래고”로 나타나지 않는 듯합니다. 참고로 10쪽 <표2: 공통어, 서울방언>에서 ‘래’형을 제시하지 않으신 ‘-을랍니다, -을랍니까’는 다음의 예처럼 ‘래’형이 확인됩니다.

- (1) 소중히 다루다 은퇴 후 고국으로 돌아갈 때 몽땅 가지고 갈랍니다 <기사, 『동아일보』 1981. 1. 12.>
- (2) 좀 더 드실랍니까? <소설(유해준, 초혼가), 『경향신문』 1956. 4. 11.>

덧붙여 ‘-을랴’형과 ‘-을래’형이 공존하는 경우와 종결어미 ‘-을래’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10쪽의 <표2: 공통어, 서울방언>에 제시해 주신 형태 중 ‘-을란다’를 예로 생각해 보면, ‘-을라 한다>-을란다’의 과정을 거친 후, 말씀하신 ‘야>애’(혹은 ‘여>에’) 변화가 적용되면서 ‘-을랜다’도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을란다’가 ‘-을랜다’가 되려면 ‘야>애’ 변화를 상정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10~11쪽

예문 (36)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종결어미 ‘-을래’는 ‘-을라 하+아 → -을라 해 > -을래’의 과정으로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을래’의 모음 ‘ㅐ’는 ‘라 > 래’의 변화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와 어미 ‘-아’의 결합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세 번째 문제와 관련하여, 사례를 찾기 어렵기는 합니다만 ‘-을래요’는 1930년대에도 다음과 같이 확인되기는 합니다.

- (3) 그런 소린 말구 술이나 하잔(→한잔) 먹을래여! <소설(이기영, 신개지), 『동아일보』 1938. 4. 16.> (‘먹을래여’는 ‘먹을래요’의 ‘요’가 잘못 조판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외에 지엽적인 것이긴 합니다만, 토론의 책무를 마무리하면서 덧붙이고자 합니다.

‘-으려’ 포함형과 ‘-는다’ 포함형을 비교하는 2~3쪽 <표1>에서 명령형과 청유형이 빈칸인 것에 대해 “‘하-’는 {命令}이라는 의미 전달을 위해 생략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3쪽)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 어형에서 명령형(혹은 청유형)의 {명령}이라는 의미는 종결어미에 의해 드러난다고 보는 것이 더 일반적일 듯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간대라(3c), 간대자(3d)’가 어색하기는 합니다만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 듯합니다. 이와 달리, ‘-으려’ 포함형에서 명령형과 청유형이 빈칸인 것은 ‘-으려’의 {의도} 의미에서 비롯되는 듯합니다. ‘-을래’가 평서문에서는 1인칭, 의문문에서는 2인칭 주어만을 가진다는 제약이 ‘-으려’의 의미인 {의도}와 관련된다(11쪽) 지적하신 바와 관련이 있을 듯합니다.

10쪽 <표2: 공통어, 서울방언>에서 평서형 하게체와 의문형 해라체의 빈칸에 대해 각주 13에서 설명하신 바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들 중 일부 어형은 자료에서 확인되는 듯합니다.

- (4) 앉아서도 죽고 서도 죽으니 이왕이면 교주한테나 가 볼라네. <소설(이용선, 「동학」 166회), 『경향신문』 1967. 1. 25.> (서남 방언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5) 글썸 마시게. 난 이만 갈라네. <소설(박연희, 「홍길동」 572회), 『동아일보』 1974. 1. 26.>
 (6) 공연히 공부를 해라 래년에 또 떨어질라느냐 등으로 들복기나 하여서는 아모 효과도 업서지고 맙니다. <기사, 『조선일보』 1935. 3. 20.>
 (7) 복레: 미옥아 냉수라도 좀 마실라냐? <시나리오(정영환, 한해지대 하), 『동아일보』 1969. 1. 11.> (복레의 다른 대사에서 ‘아부지’라고 하는 것을 보면 방언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11쪽 예문 (38)의 ‘-을래이’는 ‘-을래’와 동일한 어형인지요? (공통어, 서울 방언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요?)

제1부

개인 발표(구결학회)

武寧王妃에게 獻呈된 땅

-武寧王陵 多利作 銀釧 銘文의 再解釋

주영민*

要 約

국립 공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武寧王陵 多利作 銀釧의 銘文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多利’를 인명이나 爵號로 해석해 왔다. 이 글은 기존 연구들과 달리 『일본서기』 계체 천황 조의 기사를 활용하여 ‘多利, 作, 分, 州’ 등의 어휘들이 모두 지명과 관련된다고 보고 이를 토대로 ‘多利’ 지역이 왕비에게 봉해졌다는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다.

多利作 銀釧은 착장자가 太夫人으로 지칭된 武寧王妃임이 분명하지만, 용 문양이 새겨져 있다는 점에서 지방 권력과 관련한 정치적 상징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용 문양이 권력 혹은 지배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 지금까지와 해석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말하자면, 銘文에 나오는 ‘多利’와 『일본서기』 계체 천황 6년의 ‘상다리(上哆唎), 하다리(下哆唎), 사타(娑陀), 무루(牟婁)’ 관련 기사와 동 23년의 하다리(下哆唎) 관련 기사를 연결지으면 多利를 지명으로 읽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아울러 순타 태자의 죽음, 무령왕릉 출토 어금니를 통해 확인된 왕비의 추정 연령, 武寧王妃의 지석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이 팔찌가 聖王의 모후가 太夫人의 지위를 얻은 것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다.

용문양 팔찌에 새겨진 ‘多利’ 지명이라는 가설이 성립하면, 서술어 ‘作’은 영토의 일부의 지배권을 부여했다는 뜻으로, ‘分’은 ‘나뉘진’의 뜻으로, ‘州’는 행정 구역의 뜻으로 쓰였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이 명문의 문장 구조에 6세기 정통 한문과는 다른 한국적 요소가 섞여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았다.

핵심어 : 武寧王陵 銀釧, 多利, 용 문양, 聖王의 태자 즉위 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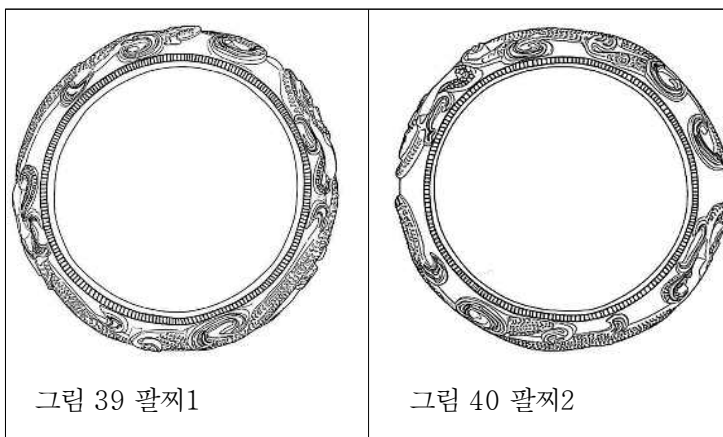


표1 무령왕릉 출토 은제 용문양 팔찌(이하 多利作 銀釧)

* 서울시립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1. 서론

武寧王陵 출토 多利作 銀釧 銘文에 대해 언어학적, 역사학적¹⁾, 역사문화학적 관점에서 다양한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²⁾.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 달리 용 문양의 상징적 의미³⁾와 『일본서기』 계체천황 6년, 23년 기사와 多利作 銀釧 銘文을 연결 지은 후 이를 토대로 多利를 지명으로 읽을 가능성⁴⁾을 검토해 보았다.

이렇게 ‘多利’를 지명이라고 보고 명문을 재해석하면 백제에서는 최고위층 여성이 지방 행정 구역의 책임질 수 있었을 가능성을 탐색할 단서가 마련되고, 용 문양이 새겨진 장신구가 중앙에서 지방 권력을 위임하는 정치적 상징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연구할 단서가 마련된다. 아울러 명문의 어휘들도 ‘作’은 지배권을 부여했다는 의미로, ‘分’은 지역을 분할 했다는 의미로, ‘州’는 행정 구역이라는 의미로 재해석할 수 있게 된다.

2. 용 문양과 銘文의 상관 관계

2.1. 왕비와 용 문양의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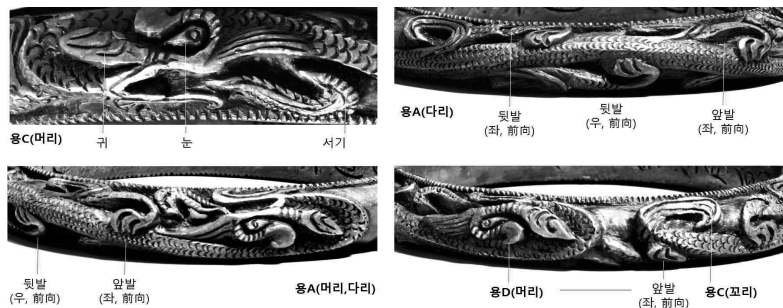


그림 41 팔찌에 새겨진 용 문양

1) 문화공보부에서 1973년에 발간한 무령왕릉 발굴조사보고서에서 多利를 인명으로 보기 시작한 듯하다. “王妃의 年齡으로 보아 502年 卽 王妃가 돌아가기 6年 前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겠다. 作家 多利는 日本의 法隆寺 三尊佛의 作家인 止利(도리)와도 통하는 이름으로 보이며 止利가 원래 鞍工이었다는 점을 勘案할 때, 止利는 이 多利가 속하던 百濟의 工匠 집안에서 派出한 後孫이 아닌가 생각된다.”

2) 기호철·배재훈(2014)에서 爵號로 해석하기 전까지 대부분 연구자들이 ‘多利’를 인명으로 보아온 것 같다. 정재영은 “경자년(520) 2월에 다리[백제의 장인 이름]가 만든 대부인[왕비]의 장신구[은팔찌]는 230主(朱, 銖, 약166.920g~168.100g)이다(鄭在永, 2003).” 조유전은 “경자년(520)에 다리가 대부인을 위해 230주를 들어서 만들었다.(조유전, 「무령왕릉의 발굴과 출토유물」 熊津都邑期の 百濟, 百濟文化史大系研究叢書4,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7).” ‘多利’를 인명으로 보면, 은팔찌는 대부인에게 바쳐진 장신구이기 때문에 ‘主’를 도량형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와 달리 ‘多利’를 爵號로 해석하면서, ‘主’를 소유의 주체로 해석하는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졌다. 기호철·배재훈(2014)은 “경자년 2월에 만들었다. 다리작 대부인이 영원토록 백제의 소유주이실 뿐입니다.”

3) 이한상(2020: p27-30)

4) 문화공보부에서 1973에 발간한 무령왕릉 발굴조사보고서에서 ‘多利’와 『일본서기』 계체 천황 6년의 기사에 나오는 ‘상다리(上哆唎), 하다리(上哆唎)’와의 연관성에 대한 다음의 언급이 나온다. “이 多利가 武寧王 12年(512年)에 伽耶에서 百濟로 넘어갔다는 4縣 중의 상다리 하다리(일본서기 계체기)라는 지명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무령왕릉 관련 권위자인 이한상 교수께 문의한 결과 역사학계에서는 多利를 지명으로 본 연구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문의에 답해 주신 이한상 교수께 지면을 빌어 감사 드립니다.

武寧王陵 多利作 銀釧 銘文은 17자밖에 안 되는 짧은 글이기 때문에 문구의 해석만으로는 만족스러운 해석을 얻기 어렵다. 팔찌에 새겨진 문양, 착장자와 배우자 및 소생들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감춰진 의미를 발견할 필요가 있다.

이 팔찌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사실은 왕비의 유물임에도 용 문양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용은 왕권을 상징하는 것⁵⁾으로 알려져 있지만 백제 문화권에서는 중앙 권력자가 아닌 지방 권력자 수준의 유물에서 용문양이 출토된 사례가 존재한다⁶⁾. 심지어 용 문양이 발견된 유물 중에는 착장자가 여성인 것으로 밝혀진 금동 신발의 사례도 있다⁷⁾. 이로 보아 지방 세력 중 여성의 경우에도 권력의 상징으로 용 문양을 쓰기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왕의 배우자인 왕비가 지방 권력의 상징물을 새긴 장식물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팔찌에 새겨진 용은 모두 발가락이 셋이라는 특징이 있다⁸⁾. 용의 발가락(발톱) 숫자로 권력자의 권위를 위계화한 체계에 의하면 황제의 용은 5개, 임금의 용은 4개, 제후의 용은 3개의 발가락을 새겨넣었다. 銀釧의 용들이 모두 발가락이 셋인 것을 감안하면 銘文이 지방 권력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엿보이기 시작한다.

2.2 팔찌를 부여한 시기와 용 문양

전절에서 다리작 명문의 ‘多利’를 지방 권력과 연관 지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어떤 어휘가 공간의 개념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해당 공간에서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와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多利’라는 공간에서 어떤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특정되어야 ‘多利’를 공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행히 多利作 銘文이 작성되었을 시기를 전후하여 『일본서기』에는 ‘多利’와 발음이 거의 같은 지명이 등장한다.

2.2.1 ‘多利作’과 계체천황 6년조의 기사의 관련성

多利作 銀釧 銘文이 새겨진 庚子年⁹⁾(서기 520년)보다 8년 전인 서기 512년 『일본서기』 繼體 6년 12월에 ‘多利’를 연상시키는 ‘상다리(上哆唎), 하다리(上哆唎)’가 실려 있는 기사¹⁰⁾가 나

5) 광개토왕 비의 1면 3행에도 ‘黃龍負昇天’가 나오는데, 이때의 ‘龍’은 최고의 통치자를 상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영욱, 2004: 71). 무령왕릉에서 왕의 부장품인 장식 대에도 용 문양이 들어 있다.(이한상, 2021: 1-49).

6) 2024년 11월 중에도 전남 함평 지양리에서 ‘용 무늬’를 그려 넣은 칼집 장식이 부장된 쌍실분 중 제2 호 돌방에서 발굴되었다.

(<https://blog.naver.com/rotqif3447/223695399192>)

7) 나주 정촌 고분 출토 금동신발은 대형 분구묘인 1호 석실 제3 목관에서 2014년 발굴됐다. (중략) 특히 금동신발은 발등 부분에 부착된 ‘용머리 장식’이 현존 삼국시대 금동신발 중 유일한 사례여서 주목을 받아 왔다. 최근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분석 결과, 신발의 주인이 40대 여성으로 추정된 바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2160389000005>)

8) 발가락은 3개로 발 뒤쪽에는 갈기모양의 장식을 더하였으며 꼬리 역시 갈기처럼 표현되었는데 용의 꼬리와 다른 용의 머리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것도 있고 거의 겹칠 듯 붙어 있는 경우도 있다.(문화재청 동산문화재과, 2008: 95~96).

9) 이 은전은 무령왕릉 왕비의 유해부에서 출토되었다. 무령왕비는 무령왕 사후 3년 뒤인 526년에 사망했으므로 명문에 새겨진 庚子年은 무령왕비가 사망하기 6년 전인 520년이다.

10) 冬十二月 百濟遣使貢調 別表請任那國 上哆唎, 下哆唎, 娑陀, 牟婁 四縣 哆唎國守穗積臣押山奏曰 此四縣近連 百濟遠隔日本 旦暮易通 鷄犬難別今賜百濟合爲同國固存之策無以過比然縱賜合國後世猶危況爲異場 幾年能守

12월, 백제가 사신을 보내, 조공을 바쳤다. 따로 상표문을 올려, 임나국의 상다리(上哆唎), 하다리(上哆唎), 사타(娑陀), 무루(牟婁) 등 네 현을 청했다. 다리(哆唎)의 지방관인 수적신압산(穗積臣押山)이 주상하기를 “이 네 현은 백제와 맞닿아 있고, 일본과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백제와 이들 땅은 아침저녁으로 서로 오가기가 쉽고, 가축

온다. 여기 나오는 ‘上哆唎, 上哆唎’에는 ‘オユレタリ, アレレタリ’처럼 발음이 부기되어 있다. 이 두 말의 공통 부분인 ‘タリ’가 ‘多利’의 중고음 추정음과 발음이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多’의 중고음의 경우 성모는 t이고 운모는 ‘a~a~â’로 추정되고 ‘唎’는 성모는 l이고 운모는 ‘iied, ji, i, jei, iii, ĩe’ 등으로 추정된다. 중고 한자음이 전래되는 과정에서 모음이 간략화되므로 ‘哆唎’가 ‘多利’와 유사한 독음으로 읽혔다고 볼 수 있다.

‘上哆唎, 上哆唎’와 명문의 ‘多利’가 발음이 유사하다고 해도 동일한 지명으로 쓰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미 인용한 『일본서기』 繼體 6년 12월과 약 17년 후인 繼體 23년(529년)의 기사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일본서기』 繼體 6년 12월의 기사에서 ‘상다리(上哆唎), 하다리(下哆唎), 사타(娑陀), 무루(牟婁)’ 4현의 백제 귀속 문제와 관련하여 ‘다리(哆唎)’의 國守인 ‘수적신압산(穗積臣押山)’이 등장한다. 國守라는 직함은 縣보다 상위 행정 구역인 ‘國’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수적신압산(穗積臣押山)’이 관할하는 ‘다리(哆唎)’는 ‘상다리(上哆唎), 하다리(上哆唎), 사타(娑陀), 무루(牟婁)’ 네 현 모두를 묶은 행정 구역으로 보인다.

그런데 계체 천황 6년(512년)에 다리(哆唎)의 國守였던 ‘수적신압산(穗積臣押山)’이 동 23년(529년)에는 하다리(下哆唎)의 國守¹¹⁾로 직함이 변경된다¹²⁾.

동일인이라고 추정되는 ‘수적신압산(穗積臣押山)’과 ‘수적압산신(穗積押山臣)’의 직함이 다리(哆唎)의 國守에서 하다리(下哆唎)의 國守로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계체 천황 6년조에 ‘이 네 현은……지금 백제에 하사하여 한 나라로 합친다면’이라는 구절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때, 천황 6년(512년)에 다리(哆唎)의 지배권은 이때 백제에게 이전되는 과정에서 ‘수적신압산(穗積臣押山)’에게 있던 지배권이 축소되어 하위 행정 구역인 하다리(下哆唎)의 國守로 직함이 바뀌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수적신압산(穗積臣押山)’이 차지하고 있던 ‘다리(哆唎)의 國守’ 자리를 누가 차지했을까?

多利作 銀鉤 銘文을 통해 이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다. 銘文에는 ‘多利’라는 지명과 512년과 529년 사이인 ‘庚子年(서기 520년)’이라는 시점이 명기되어 있다.

인물과 사건 그리고 시점을 연결 지으면, 512년 무렵에 ‘수적신압산(穗積臣押山)’은 ‘상다리(上哆唎), 하다리(上哆唎), 사타(娑陀), 무루(牟婁)’의 4현의 관할권을 지닌 다리(哆唎)의 國守 지위에 있었으나 이 지역이 ‘庚子年’(520년) 무렵에 무령왕비에게 귀속¹³⁾되었으므로 529년 ‘수적신압산

이 우는 소리도 어느 쪽의 것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이니, 지금 백제에 하사하여 한 나라로 합친다면, 굳게 보전하는 데 이보다 좋은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백제와 합병해도 후세의 안전을 보장하기가 쉽지 않는데, 하물며 백제와 떼어두면 몇 년도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했다.

동북아 역사넷(<http://contents.nahf.or.kr/id/NAHF.ns>)에서 제공하는 와세다 대학 전자 도서관 자료에서 원문과 번역을 옮겼다. 이 글에 나오는 『일본서기』 인용문은 모두 같은 방식으로 인용하였다.

11) 와세다대학 전자 도서관본 『일본서기』에서 원문을 기준으로 계체 천황 6년의 기사에는 ‘수적신압산(穗積臣押山)’이 나오고, 23년(529년)의 기사에는 ‘수적압산신(穗積押山臣)’이 나오지만, 두 기사의 국역에는 모두 ‘수적신압산(穗積臣押山)’으로 되어 있다.

12) 廿三年 春三月, 百濟王謂下唎國守穗積押山臣曰, 夫朝貢使者, 恆避嶋曲[謂海中嶋曲崎岸也. 俗云美佐祁.], 每苦風波. 因茲, 濕所齎, 全壞无色. 請, 以加羅多沙津, 爲臣朝貢津路. 是以, 押山臣爲請聞奏.

23년 봄 3월, 백제왕이 하다리의 국수(國守) 수적신압산에게, “조공하는 사자들이 항상 해안의 험한 절벽주 001[해안의 들쭉날쭉한 험한 절벽을 말한다. 세간에서 미사키(美佐祁)라고 한다.]을 피해 다니며, 바람과 파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물품들이 물에 젖어 모두 망가지고 못쓰게 된다. 청컨대 가라의 다사진(多沙津)을 신(臣)이 조공하는 통로로 삼게 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압산신(押山臣)이 청에 따라 (천황에게) 주상하였다.

(穗積臣押山)의 직함이 하다리(下哆唎)의 國守로 바뀌게 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 추정을 받아들이면 銀鉤의 ‘多利作’이 武寧王妃에게 多利의 관할권이 주어진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열린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多利作’에서 서술어 자리에 있는 ‘作’의 용법을 이 맥락에 맞춰 재고해 보게 된다. 한자 ‘作’에는 ‘(스스로) 지위에 오른다’ 혹은 ‘지위를 부여한다.’는 뜻이 있다.

書, 無逸: 作其卽位¹⁴⁾.

書, 舜典: 兪曰, 伯禹作司空¹⁵⁾。

한자의 뜻을 적용해서 ‘庚子年二月 多利作’을 해석하면 ‘경자년 2월 多利를 作한(多利를 관할하는 지위에 오른)’이 된다. 다만 ‘多利作’은 위에 제시한 문헌¹⁶⁾들과 달리 목적어에 해당하는 ‘多利’가 서술어 ‘作’ 앞에 위치하고 있다.

大夫夫人 뒤에 나오는 ‘分’의 경우에도 계체 천황 6년 조에서 ‘한 나라로 합’쳐진 네 현을 ‘나눠서’ 대부인의 지배권을 인정했다는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들어간 표현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시 말해 이 명문은 512년 일본에서 획득한 ‘상다리(上哆唎), 하다리(下哆唎), 사타(娑陀), 무루(牟婁)’ 4현을 庚子年(520년)에 분리해서 왕비에게 부여했다는 의미로 네 지역을 상징하는 네 마리 용을 새긴 銀鉤을 제작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銘文을 새겨 넣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해석에 기반한 판독의 재검토

전절에서 다리작 팔찌 명문이 지방의 일부를 왕비에게 부여한 것과 관련해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대개 금석문의 연구에 있어서 판독을 토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多利’가 지명이라는 해석을 토대로 명문의 글자들에 대해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3.1 판독에 이견이 있는 글자들

多利作 銀鉤 銘文을 구성하고 있는 몇몇 글자의 판독에 대해 이견이 존재해 왔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과 접근 방향을 달리¹⁷⁾하여 ‘多利’가 지명이라는 것을 전제로 판독 가능한 글자들을 재검토하였다.

‘多利’를 지명으로 판독하면 특히 ‘12, 15번째 글자에 대한 판독 방향이 명확해진다. 선행 연구에서 12번째 글자는 ‘於, 兮, 永, 分, 引’ 등으로 15번째 글자는 ‘卅, 世, 州’ 등으로 판독 가능

13) 일본서기는 일본 측 사료이므로 일본측에서는 사료 그대로 자발적 할양으로 보지만, 우리 사학계에서는 백제의 점거로 보는 견해도 있는 듯하다. 어느 견해를 따르든지 ‘상다리(上哆唎), 하다리(上哆唎), 사타(娑陀), 무루(牟婁)’의 4현의 지배권에 변동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인 듯하다.

14) 辭源(1984: 0194). 無逸 편의 맥락으로 보아 이때의 ‘作’은 재귀사로 보인다. ‘其在高宗時 舊勞于外 爰暨小人 作其卽位’

15) 書經, 舜典에서 ‘兪曰’ 바로 뒤에 쓰인 맥락으로 보아 이때의 ‘作’은 목적어로 지위인 ‘司空’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16) 위에 제시한 서경의 예문들에서 서술어 ‘作’ 뒤에 목적어인 ‘其卽位’와 ‘司空’이 위치하고 있다.

17) 선행 연구들은 모두 자형을 기준으로 판독 가능한 글자들의 범위를 정한 후 문맥을 고려해서 판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다면, 이 연구는 역사적 맥락을 먼저 선정한 후, 선행 연구들의 판독자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한 셈이다.

자들이 나와 있었으나, ‘多利’를 지명이라고 전제하면, 판독 글자의 범위를 좁힐 수 있게 된다.

순서	보고서	팔찌1	팔찌2	판독 글자
12번째	分			於, 兮, 永, 分, 引 ¹⁸⁾
15번째	卅			卅, 世, 州

표 32 판독을 검토할 글자들

3.1.1 12번째 글자의 확정

앞의 표¹⁹⁾에서 보듯이 팔찌1과 팔찌2에 새겨진 12번째 글자의 자형이 매우 달라서, ‘於, 兮, 永, 分, 引’ 등 다양한 판독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선행 연구들은 ‘多利’를 주로 인명으로 보고, 12번째 글자를 ‘分’ 혹은 ‘永’으로 판독했다. 예를 들어 권인한(2006)에서는 자형으로 보아 남북 조 시기의 「分」의 이체자에 더 가까운 듯하며, 그 의미는 남풍현(2006: 12)에 따라 몫으로 보고 자 한다는 견해를 밝혔고²⁰⁾, 기철호·배재훈 (2014)에서는 永의 이체자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런데 ‘多利’가 지명이라는 단서를 동원하면 12번째 글자는 ‘分’과 ‘永’중 하나로 판독 가능자가 좁혀진다.

만일 12번째 글자가 永이라면 명문은 ‘庚子年二月 多利作 大夫人 永 二百卅主耳’이 되고 해석은 ‘경자년 2월 다리에 책봉된 대부인이 영원히 200주의 주인이 됩니다.’로 해석된다. 이에 반해 12번째 글자가 分이라면 명문은 ‘庚子年二月 多利作 大夫人分 二百卅主耳’이 되고 ‘경자년 2월 다리에 책봉된 대부인은 나뉜 200주의 주인이 됩니다.’로 해석된다.

두 해석이 모두 자연스럽지만, 앞에서 인용된 계체 천황 6년 조에 나오는 ‘네 현이 백제에 한 나라로 합쳐졌다’는 언급으로 미루어 보아 4현의 지배권을 중앙 권력에서 ‘나누어서’ 대부인에게 부여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分’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3.1.3 15번째 글자의 판독 및 해석

기존 연구들을 15번째 글자를 주로 ‘卅, 世’로 판독하고 있지만, 자형으로는 ‘州’로 볼 수 있다고 언급한 연구도 있다²¹⁾.

먼저 유력설인 卅과 世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

18) 권인한(2006), p118 각주.

19) 표 안에 삽입된 사진들은 기철호·배재훈(2014)에서 발췌한 것이다.

20) 권인한(2006), p118.

21) 기철호·배재훈 (2014, p19) ‘世와 卅은 행서와 초서는 필획으로 구분되지 않을 뿐 아니라 卅은 ‘州’자와도 필획으로는 구분하기 어렵다.’

‘卅’설은 뒤따르는 主를 도량형으로 해석하게 하는데 이는 백제와 별다른 교류가 없었던 지역의 도량형을 백제에서 통가자까지 써가면서 사용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해석에 기반하고 있다²²⁾. ‘世’설은 ‘多利作 大夫人’을 ‘경칭+인명’으로 읽는다는 전제 아래 명문이 팔찌의 소유가 영원하다는 축원을 담은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사학계 일부에서 공감을 얻고 있는 학설이지만, 권력 관계를 상징하는 용 문양과 함께 새겨진 명문이 ‘단지 그 물건의 소유가 영원하리라.’는 내용으로 해석되는 점에서 설득력이 약하고, 13번째 글자를 첩자 기호로 판독해야 하는 심각한 약점이 있다²³⁾.

아울러 卅과 世는 필획 측면에서도 약점이 있다. 卅과 世는 횡선을 먼저 그은 후 종선 셋을 나중에 쓰고, 어떤 이체자도 가운데 횡선을 뺄침으로 처리하지 않으므로²⁴⁾, ‘卅, 世’는 문맥의 측면에서도 필획의 측면에서도 15번째 글자가 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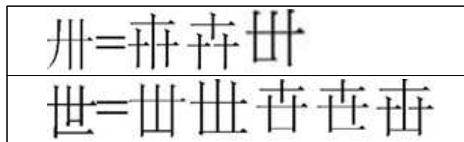


표 34 卅과 世의 이체자

이에 반해 ‘卅’는 이체자인 ‘𠂔’²⁵⁾의 경우 필획의 측면에서 卅과 世보다 두 가지 측면에서 강점을 갖는다.

첫째, 횡선이 마지막 필획이라는 점이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팔찌1과 팔찌2 모두 횡선의 음영이 종선을 지나가고 있다²⁶⁾.



표 35 종선 위로 지나가는 횡선(적색 동그라미)

22) 기철호·배재훈(2014), p21 각주19) 宋代나 元代에 主가 재물이나 債務의 量詞로 쓰인 기록은 있다. 이는 注와 통용한 것인데, 靺[串]나 돈다발의 뜻이기 때문에, 銖와 같은 0.65~0.57g 정도의 단위가 아니라 수 만금을 이르는 말이다.

23) 첩자 기호는 대개 빗겨 쓰고, 다른 글자보다 적게 쓴다. 팔찌1과 팔찌2 모두 횡으로 또렷하게 씌여져 있고, 글자의 크기 역시 다른 글자들과 유사하다. ‘二’로 판독해야 한다.



24) 아래 표의 글자들은 기철호·배재훈 (2014, p19)에서 제시한 卅과 世의 이체자들이다.

25) 說文解字에서 이 자형을 ‘古文 卅’라고 하고 있고, 東晉 시기에 찬술된 靈洞經에서 쓰인 서체라고 하니 시기적으로는 백제에서도 쓰였음직한 자형이다.

26) ‘卅’는 가장 오른쪽, 종획이, ‘世’는 하단의 횡획이 마지막에 운필되나 ‘𠂔’의 경우에 상단 횡선이 마지막에 운필된다.

두 번째 강점은 가운데 횡선에 삐침으로 보이는 필획 처리가 남아있다는 점이다. 팔찌1과 팔찌2 중앙 종선 하단의 청색 타원 속의 획은 횡선으로 보기에 너무 짧고, 빳겨진 것으로 보아 삐침을 표시하려고 한 듯하다.



표 36 삐침으로 추정되는 자획

하지만 15번째 글자가 자형상 ‘卍’로 보인다는 것만으로 ‘州’의 이체자로 확정 짓기는 어렵다. 문맥상의 이렇게 읽을 수 있는지 추가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多利’를 지명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15번째 글자를 州로 판독하면 이 맥락에 들어맞는다. 다만 州가 상당히 넓은 행정 구역²⁷⁾을 의미한다는 점은 다소 부담스럽다.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는 州를 통용자 ‘洲’로 읽고 사람이 거주하는 작은 섬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 『宣和奉使高麗圖經²⁸⁾』에 고무적인 기록이 남아있다.

‘바다 가운데 땅으로 촌락을 이룰 수 있는 것을 주(洲)라고 하는데 십주(十洲) 따위가 그것이다.’²⁹⁾

아울러 같은 책 ‘성읍(城邑), 군읍(郡邑)’에도 洲가 촌락을 의미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기록이 있다.

주현(州縣)의 설치는 그 명칭에 맞지 않고, 취락(聚落)이 번성한 곳일 뿐이다. 나라의 서북(西北)으로부터 거란(契丹), 대금(大金)의 접경에 이르기까지 간간히 보루(堡壘)와 참호가 있고, 그 동남쪽은 해변에 닿았는데 섬에도 설치한 것이 있다. (중략) 주도(洲島) 3천 7백을 설치하고 모두 수령(守令)·감관(監官)을 두어 백성을 다스린다³⁰⁾.

그런데, 인용문에서 ‘洲島 3천 7백’이라고 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려에 지방관이 파견

27) 辭源, 周代民戶 編制, 五黨爲州/ 地方行政單位, 宋分 境內爲 諸府州軍監 上屬各路 下轄諸縣, 《管子·度地》에 나오는 ‘里十爲州’를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200州는 마을 2000개라는 뜻이 되는데, ‘상다리(上哆唎), 하다리(上哆唎), 사타(娑陀), 무루(牟婁)’ 네 지역에 마을 2000개가 존재했다고 보기에 다소 무리가 따른다.

28) 이 글에서는 한국고전 DB 인터넷 판을 활용했다. 이하 『高麗圖經』

29) 『高麗圖經』 제34권, 해도1(海道)

如海中之地。可以合聚落者。則曰洲。十洲之類是也。

바다 가운데 땅으로 촌락을 이룰 수 있는 것을 주(洲)라고 하는데 십주(十洲) 따위가 그것이다.

30) 『高麗圖經』 제34권, 성읍(城邑), 군읍(郡邑).

州縣之建。實不副名。特聚落之繁處。自國之西北。與契丹, 大金接境。粗有壘漸。其東南濱海。亦有建於島嶼者。(중략) 爲洲島三千七百。皆設守令監官治民……

된 섬이 이렇게 많았다는 것으로 보아 洲가 아주 작은 행정 단위였음을 알 수 있다. 洲와 州는 서로 통용되는 글자이므로 ‘상다리(上哆唎), 하다리(上哆唎), 사타(娑陀), 무루(牟婁)’를 포괄하는 多利에 사람이 거주하는 이백여 개³¹⁾의 섬(州)이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太夫人分二百卅主耳’은 대부인이 多利 지역의 실질적인 지배자였음을 강조하는 의미가 된다.

4. 多利가 太夫人에게 주어진 까닭은?

4.1 銘文의 대부인과 관련한 史實들

4.1.1 왕비의 誌石과 어금니

소위 多利作 太夫人은 무령왕과 합장된 것으로 보아 무령왕비인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무령왕비의 誌石³²⁾에 ‘百濟國王太妃’라고 했으므로 무령왕의 뒤를 이은 성왕(聖王)의 모후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誌石에는 생물연대를 기재하는 대신 그녀의 죽음을 壽終이라고만 기록했다. 다행히 무령왕릉에서는 왕비의 것으로 추정되는 어금니³³⁾가 출토되었는데, 치아 분석을 통해 그녀가 30대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무령왕에게는 성왕 이외에도 순타태자라는 아들이 하나 더 있었고 그가 서기 513에 사망한 것으로 『일본서기(日本書紀)』에 기록되어 있다³⁴⁾. 526년에 30대에 사망한 대부인이 513년에 후손을 남기고³⁵⁾ 사망한 순타의 생모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아래 표는 대부인의 탄생부터 사망까지 시기의 일련의 사건을 연결지어 본 것이다.

대부인 탄생(추정)	순타 사망	‘多利作’ 제작	무령왕 사망/ 성왕 즉위	무령왕비 사망
490년~500년	513년	520년	523년	526년(30대)

聖王은 부왕인 무령왕의 사망과 동시에 왕위를 이었으므로 그에게 이미 왕위 계승권이 주어졌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성왕이 왕위 계승권자로서 태자의 지위에 오른 시점은 순타 태자의 사망 이후일 것이다. 아들이 태자의 지위를 얻으면 모후에게도 적절한 직함과 권위가 부여되기 마련이다. 다리작 은천이 제작되어 수여된 시점인 520년에 聖王이 태자의 지위에 오르고, 그 모후에게 대부인의 직함과 봉토가 주어진 것으로 봄직하다.

31) ‘二百州’에서 ‘200’이라는 숫자는 의례적 과장으로 보인다. 이와 비슷한 의례적인 과장을 석가탑 중수 문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안동 부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되는 ‘三百面都護使’가 无垢淨光塔重修記 29행에 나온다. “寶以舍利齋嘔啼齋食各三味 ■ | ■供/三百面都護使良中安” 해석은 “寶로舍利齋, 嘔啼齋의 食, 각각 三味와 ■을 三百面都護使에게 供하였다.” 안동대도호부를 ‘三百面’이라 한 것에 과장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2) 한국고대사료DB에서 조동원의 판독은 다음과 같다. 丙午年十二月百濟國王太妃壽終居喪在西地己酉年二月癸未朔十二日甲午改塋還大墓立 / 志如左 (https://db.history.go.kr/ancient/level.do?levelId=gskh_002_0020_0020_0050)

33) 장인성(2000: 162)에 의하면 왕비의 어금니가 출토되었고, 10~20대 시절에 건강한 발육을 한 30대 여성의 것으로 감정되었다고 한다.

34) 『일본서기(日本書紀)』 게이타이(繼體) 천황 7년(513) 8월조에 “백제 태자 순타가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35) 『속일본기(續日本紀)』 연력(延曆) 8년(789) 12월조에 “간무(桓武) 천황의 모후(母后)인 다카노노니가사(高野新笠)의 선조는 백제 무령왕의 아들 순타 태자에서 나왔다. 백제의 원조(元祖)인 도모왕(都慕王)은 하백(河伯)의 딸이 태양에 정성껏 빌어 낳았다. 황태후는 그 후손이다.”라는 기록이 있다.

4.2 역사에서 언어로

4.2.1 作의 처리

‘多利’를 지명으로 읽게 되면 뒤따르는 서술어 ‘作’은 ‘지위를 얻었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다. ‘作’이 ‘지역을 관할하는 지위에 오른’이라고 읽히는 용례인 ‘作其卽位’의 경우 주어가 생략된 채, 서술어인 作, 목적어인 其, 목적보어인 卽位가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더군다나 생략된 주어와 其가 동일인이므로 일종의 재귀 용법인 셈이다. 이 문형으로 왕이 왕비에게 지방 권력을 부여한 의미를 가미해서 한문 어순의 문장을 쓰면 ‘(王) 作 大夫人 分 多利’처럼 될 것이다.

한문의 어순이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나름대로 엄격한 규칙 속에서 어순 변동이 제한된다. 위의 문장을 강조하기 위해 도치³⁶⁾시켜도 ‘多利作 大夫人’이 도출되기는 어렵다. 현재로서는 ‘多利作’은 한국어처럼 ‘목적어+서술어’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국어의 어순이 가미된 것으로 판단된다.

4.2.2 分의 처리

전절에서 12번째 글자를 分으로 보고 명문을 ‘庚子年二月 多利作 大夫人 分 二百卅主耳’로 읽고, ‘경자년 2월 다리에 책봉된 대부인은 나뉜 200주³⁷⁾의 주인이 됩니다.’로 해석했다. 계체 천황 6년 조에 ‘네 현이 백제에 한 나라로 합쳐졌다는 언급을 토대로 4현의 지배권을 중앙 권력에서 ‘나눠서’ 대부인에게 부여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分’이 들어갔을 것으로 보았다. 문제는 ‘分’을 ‘나눠서’처럼 수식어구로 쓰이는 예문이 6세기 한문에서 흔치 않았다는 점이다. 정통 한문으로는 다소 어색한 문장 구조³⁸⁾이지만, 6세기 백제인이 구사한 한문이었기에 한국어가 간섭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5. 맺음말

다리작 은전은 착장자가 왕비임에도 불구하고 용 문양이 새겨져 있다. 용 문양이 새겨진 금동 신발이 지방의 여성 권력자의 상징물로 쓰인 사례와 더불어 銀釧에 나오는 庚子年 전후의 역사적 사실들을 함께 고려해서 銘文을 해석하면, 銀釧의 용 문양이 ‘지방권’의 부여를 상징하는 용도로 쓰였을 가능성이 다분해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武寧王陵 多利作 銀釧 銘文을 ‘庚子年二月多利作大夫人分二百卅主耳’으로 판독했고, ‘庚子年 二月 多利의 지배권이 부여된 大夫人은 나뉜 二百卅의 주인이다.’로 해석하였다.

이처럼 백제의 왕비에게 지방 권력이 부여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금까지 논의된 바 없는 듯하다. 삼국 중 백제가 먼저 멸망했기에 이와 관련한 직접 자료는 없지만 백제의 왕비가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간접 증거들은 남아있다.

36) 한문 문법으로는 ‘(王) 作 大夫人 分多利’에서 목적어인 大夫人이 ‘爲’ 같은 어휘를 수반해서 앞으로 나가는 것은 가능하다. ‘(爲)大夫人 王 作 分多利’ 간혹 爲가 생략되기도 하지만 이 경우 주어인 王까지 생략하는 것은 어색한 느낌을 준다.

37) ‘二百卅’가 ‘상다리(上哆唎), 하다리(上哆唎), 사타(娑陀), 무루(牟婁)’를 의미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논의할 것이다.

38) 漢籍全文資料庫에서 ‘分’을 검색하면 뒤따르는 명사를 목적어로 하는 타동적 용법이 주를 이룬다. ‘当其南北分者, 古长城也’ 姚鼐《登泰山记》처럼 목적어를 앞에 두고, 수식하는 형태로 쓰이는 문장은 명칭 시대에 나타난다. 제시한 문장은 淸대에 나온 것이다.

먼저 들 수 있는 자료는 ‘미륵사지 출토 금제 사리봉안기’에는 백제의 왕비가 사리 공양의 주 책임이 분명할 뿐 아니라, 사리 공양으로 인한 복덕을 받는 주체로 명기되어 있다³⁹⁾. 다음으로 들 수 있는 자료는 『일본서기』에 남아 있는 의자왕비의 전횡 관련 기사이다⁴⁰⁾. 논란의 여지⁴¹⁾가 있지만, 의자왕비가 ‘국정을 좌우하’는 등 상당한 실권을 행사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무왕이나 의자왕이 모두 무령왕보다 후대의 임금이지만 그 왕비들의 위세가 당대에 형성된 것은 아닐 것이고, 무령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일본 왕가에서 여자 천황이 존재했던 점까지 고려하면, 무령왕 대에 왕비에게 봉토가 수여되었다는 해석에 어느 정도 신빙성을 더해 준다.

아울러 武寧王陵 多利作 銀釧 銘文은 국어학적으로는 6세기 정통 한문과 다른 문장 구조⁴²⁾가 확인된다. 첫째, ‘多利作’에서 목적어 ‘多利’가 서술어 ‘作’ 앞에 놓여 있다. 둘째, ‘分二百卅主’에서 ‘分’이 ‘二百卅’를 수식하는 용법은 중국어에서는 한참 후대에 성립한 용법으로 보인다.

39) 우리 백제 왕후께서는 좌평(佐平) 사택적덕(沙宅積德)의 따님으로 지극히 오랜 세월에 선인(善因)을 심어 이번 생에 뛰어난 과보(果報)를 받아 만민(萬民)을 어루만져 기르시고 삼보(三寶)의 동량(棟梁)이 되셨기에 능히 정재(淨財)를 희사하여 가람(伽藍)을 세우시고, 기해년(己亥年: 639) 정월 29일에 사리를 받들어 맞이하셨다. (중략) 또 원하옵나니, 왕후의 신심(身心)은 수경(水鏡)과 같아서 법계(法界)를 비추어 항상 밝히시며, 금강(金剛) 같은 몸은 허공과 나란히 불멸(不滅)하시어 7세(七世)의 구원(久遠)까지도 함께 복리(福利)를 입게 하시고, 모든 중생과 함께 불도(佛道)를 이루게 하소서.

40) 동북아역사넷. 『일본서기』 제명 6년(660년 7월) 조에는 백제 멸망에 대해 ‘백제는 자멸하였다. 왕의 대부인이 요사스럽고 무도하여 국정을 좌우하고 현명하고 여진 신하를 주살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화를 초래하였다.’

41)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 백제 왕비들이 주목 받지 못했던 건, 남성 지배 사회에 대한 유교적 관념이 작용한 듯하다. ‘현명하고 여진 신하를 주살하’기도 했다는 『일본서기』의 기록과 달리 『삼국사기』에서는 의자왕이 주체로 명기되어 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의자왕 16년(656) 3월조에는 「王與宮人淫荒耽樂. 飲酒不止. 佐平成忠[或云淨忠]極諫. 王怒. 囚之獄中. 由是. 無敢言者. 成忠瘦死. 臨終.」이라고 적고 있다.

42) 중국어와 다르다는 것이 곧바로 한국어적이라는 뜻은 아니다. 6세기 백제인의 입장에서 한문을 중국어 어순으로 문장을 구사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어 어순으로 문장을 구사하겠다는 의도에서가 아니라 한국어의 간접의 결과로 중국어와 다른 어순이나, 문형이 도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參考文獻

1. 논문

- 기철호·배재훈(2014), 「무령왕릉 은팔찌 명문의 재검토」, 『한국고대사탐구』 17, 7-36.
김규동(2004), 「百濟의 度量衡 -유물을 중심으로-」, 『동원학술논문집』, 107-121.
김영옥(2003), 「백제 이두에 대하여」, 『구결연구』 11, 구결학회, 125-151.
김영옥(2004), 「漢字·漢文의 韓國的 受容」, 『구결연구』 13, 구결학회, 65-97.
노중국(2005), 「백제의 度量衡과 그 運用 -척도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40, 73-136.
권인한(2006), 「무령왕릉 출토 명문들에 대한 어학적 고찰」, 『구결연구』 17, 구결학회, 91-127.
이한상(2020), 「무령왕릉 팔찌에 대한 새로운 이해」, 『백제연구』 72, 23-53.
박중환(2007), 「백제 금석문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정재영(2003), 「백제의 문자 생활」, 『구결연구』 11, 구결학회.
홍성화(2016), 「日本書紀 소위 ‘任那 4縣 할양’ 기사에 대한 고찰」, 『사충』 87, 2016.

2. 단행본

- 김창호(2020), 신라금석문, 경인문화사.
김창호(2007), 고신라 금석문의 연구, 서경문화사.
남풍현(2000), 이두연구, 태학사.
노중국 외(2014), 금석문으로 백제를 읽다, 학연문화사.
서중학(1995), 이두의 역사적 연구, 영남대학교출판부.
유민화(2000), 『일본서기』 조선 고유 명사 표기의 연구, 해안.

3. 사서류

- 辭源(1984), 중국 상무인서관 수정본 제3쇄.
漢韓大字典(2009), 민중서림 편집국 편.
이두사전(2020), 단국대학교출판부.

4. 역사서 및 전자 매체

- 최박광 윤희(2021), 『일본서기/ 고사기』, 동서문화사.
동북아 역사넷. <http://contents.nahf.or.kr/>

“武寧王妃에게 獻呈된 塲 - 武寧王陵 多利作 銀釧 銘文의 再解釋”에 대한 토론문

하정수(동국대학교)

주영민 선생님의 발표는 국립공주박물관 소장 무령왕릉 출토 은팔찌의 명문을 “庚子年二月多利作 大夫人 分 二百卅主耳”로 판독하고, 이 명문의 ‘多利’를 인명이나 작호로 해석한 지금까지의 해석에 대하여 비판하고 이를 새롭게 해석하고자 한 논의입니다. 새로운 해석의 근거를 『일본서기』 계체 천황 조의 상다리(上哆唎), 하다리(下哆唎) 등의 기사를 참조하여 ‘多利, 作, 分, 州’ 등이 모두 지명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 은팔찌에 새겨진 용 문양은 지방 권력에 대한 정치적 상징을 보인다는 점, 무령왕릉 출토 어금니로 유추된 왕비의 추정 연령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새로운 해석은 ‘多利’ 지역이 왕비에게 봉해졌고, 그 내용이 은팔찌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짧은 명문뿐만 아니라 외부 장식인 용 문양의 의미까지 천착하여 당시 정치권력과 행정 구역의 관련성을 밝히려는 점은 유물과 명문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 필요성을 보여 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명문의 해석과 관련하여 지명설을 지지하는 근거, 글자 판독 및 해석에 대한 수용과 배척의 판단 기준, 한문 어순과 한국어 요소에 관한 사항, ‘主’의 판독과 해석에 관한 몇 가지 의견을 내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하고자 합니다.

1. 장용준(2004:113)의 논의에서는 용 문양은 음양오행설이 유행한 한대(漢代)에는 교룡문뿐만 아니라, 용호문, 용봉문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음양의 교합을 적극 표현하였고, 이러한 사상이 삼국시대에 영향을 미쳐 도교의 승천사상과 더불어 영혼을 인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용이 수행하였다고 보고, 삼국시대의 용문양은 단독으로 문양을 구성하기보다는 도교와 음양오행학을 지탱하는 문화의 일부로서 봉황과 결합하여 문양을 구성하였다고 논의하였습니다. 무령왕릉의 유물 중 베개의 봉황문 등은 이러한 사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용 문양을 지방 권력의 부여와 직접 연결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2. 명문의 ‘多利作’을 술목 구조의 변형으로 목적어가 ‘多利’이고 ‘作’을 서술어로 보아서 한문 어순과 다르지만 ‘作’을 ‘(스스로)지위에 오른다’, ‘지위를 부여한다’의 뜻으로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해석을 따르려면 어순의 문제와 ‘作’의 의미 문제까지 두 가지 가정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에 비해 ‘多利作’을 주술 구조로 파악하여 ‘多利’를 인명이나 지명으로 보고 ‘作’을 서술어로 ‘다리가 만들다’ 또는 ‘다리에서 제작하다’로 본다면 한문 구조나 한국어 구조에 부합하고 의미상으로도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나주 복암리 목간의 “大祀◎村 戶弥首上 [作]□[二][傭]丁一 牛一”(진하게 필자) 무령왕릉 출토 方格規矩神獸文銅鏡銘의 “尙方作註竟眞大好 上有仙人不知老 渴飲玉泉飢食棗 壽如金石兮” 등은 ‘作’의 의미가 당시 ‘~가 만들다’ 또는 ‘~에서 만들다’의 뜻으로 쓰인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作’의 의미를 권력 구조와 관련한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3. 고상혁(2023: 386)에서 “<목간①>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 ‘중(重)’과 관련하여 기존에 알려진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다리작명 은제 팔찌에 새겨진 ‘주(主)’가 ‘중(重)’의 이체자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연구자들의 의견이 제기되었다.”라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표자의 해석인 ‘州主’ 고을의 주인보다는 ‘卅重’가 수량과 무게 단위를 나타내는 도량형으로 파악될 수 있음을 당시 목간 자료는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 무령왕비의 지석과 무령왕릉 출토 어금니와 관련하여 무령왕비는 성왕의 모후이며 그 어금니가 발견된 것으로 파악되었고, 그 어금니를 통해 무령왕비의 사망 나이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금니에 대한 나이 추정은 10대, 30대, 40대 등 다양한 논의가 있고, 동성왕, 무령왕, 성왕, 순타태자 등에 관한 『일본서기』의 기록, ‘百濟國王 太妃 壽終’의 의미 등은 이 논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논의에서는 명문의 ‘大夫人’과 지석의 ‘百濟國王 太妃’의 동일성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발표는 은천(銀鉏)의 용 문양의 해석을 기반으로 하여 백제의 왕비가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백제 왕비에게 지방 권력이 부여되었다는 전제에서 명문을 해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접적 근거보다는 관련된 간접적 근거들로 해당 가설을 논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여러 방증 중 하나는 미륵사지 출토 금제 사리봉안기의 백제 왕비의 공양 주체가 된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특히 신라는 여왕이 3명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섭정 이외에 왕족이나 귀족 부인이 권력을 가진 예가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진지왕의 손자이자 나중에 왕이 된 김춘추의 딸인 고타소랑(古陔炤娘)은 남편인 김품석(金品釋)의 기사에 부수적으로 등장하는 점 등을 볼 때도 당시 여성은 독자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지 못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마지막으로 전혀 다른 관점이지만 팔찌에 새겨진 대부인은 무령왕비가 아니고 은팔찌 소유자인 왕족이나 귀족의 대부인으로서 무령왕비가 사망한 뒤 장례 절차에서 은팔찌를 왕비에게 헌정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고대사료DB 한국고대금석문
(https://db.history.go.kr/ancient/level.do?levelId=gskh_002)

姜鍾元(2022), 무령왕의 生涯를 통해 본 백제와 왜, 백제연구 76,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26.

고상혁(2023), 부여 동남리 49-2번지 유적 출토 목간의 의의, 목간과 문자 30, 한국목간학회, 377-394.

장용준(2004), 삼국시대 용문양의 수용과 발전, 한국고고학보 53. 한국고고학회, 89-119.

구결학회 및 국어사학회 공동 2024년도 겨울 전국학술대회

시간: 2025년1월24일 (금) 장소: 국립민속박물관 (서울, 종로)

崔世珍의 吏文諸書輯覽에 대한 한국어학적 고찰

徐燁 (南京大學, 成均館大學校)

목차

1. 머리말
2. 吏文諸書輯覽의 서지학적 고찰
 - 2.1 『吏文輯覽』과 『增定吏文輯覽』
 - 2.2 『吏文續集輯覽』과 『增定吏文續集輯覽』
 - 2.3 『于公奏議輯覽』과 『增定于公奏議輯覽』
 - 2.4 『駁稿輯覽』과 『增定駁稿輯覽』
 - 2.5 『奏議擇稿輯覽』과 『增定奏議擇稿輯覽』
 - 2.6 『比部招議輯覽』
3. 吏文諸書輯覽의 한국어학적 고찰
 - 3.1 표기법, 어원 및 형태적·통사적 특징에 따른 분류 및 분석
 - 3.1.1 한자로 표기된 어휘
 - 3.1.2 한글로 표기된 어휘
 - 3.1.3 한자와 한글의 並用으로 표기된 어휘
 - 3.1.4 구문
 - 3.2 소결
4. 나오며
참고 문헌

한국어 요약

이 논문은 조선시대 언어학자인 최세진(1468-1542)을 비롯한 학자들이 편찬한 吏文諸書輯覽(1539)에 대해 한국어학적 관점에서 고찰한 글이다. 吏文諸書輯覽은 『吏文輯覽』과 『增定吏文輯覽』, 『吏文續集輯覽』과 『增定吏文續集輯覽』, 『于公奏議輯覽』과 『增定于公奏議輯覽』, 『駁稿輯覽』과 『增定駁稿輯覽』, 『奏議擇稿輯覽』과 『增定奏議擇稿輯覽』, 그리고 『比部招議輯覽』 총 11종을 포함하는데, 이를 체계적으로 다룬 것이다. 吏文諸書輯覽에 대한 선행 연구로는 안병희(2007)가 제시한 단편적인 해제 논문 3편이 대표적이며, 아직까지 이를 학계에서 주도적으로 연구한 사례로 평가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吏文諸書輯覽 전체를 서지학적 관점에서 정리하고 교감한 연구와 원전비평, 그리고 이 자료를 한국어학적으로 전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미진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부족한 점을 메우기 위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 및 절차로 진행하였다. 먼저 제2절에서는 서지학적 기초 작업으로서 吏文諸書輯覽의 종류, 편찬 목적과 간행 경위, 여러 판본 간의 관계, 체제, 참고书目, 16세기 중세한국어 자료를 추출할 수 있는 항목을 다루었다. 제3절에서는 추출한 16세기 중세한국어 어휘와 구문을 중심으로 하여, 표기법, 어원 및 형태적·통사적 특징에 따라 분류하고, 한국어학적으로 분석하였다. 소결 부분에서는 이러한 어휘와 구문이 보여주는 표기, 음운, 형태적 및 통사적 특징을 요약하였다. 본 연구는 최종적으로 최세진의 마지막 저술인 吏文諸書輯覽을 한국어사적 관점에서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어려운 벼슬길의 환경 속에서도 최세진이 보여준 博學多識과 實事求是의 학문 정신을 더욱 확장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리라 전망했다.

키워드: 최세진, 吏文諸書輯覽, 吏文, 서지학, 16세기 중세한국어, 譯學

1. 머리말

崔世珍(1468-1542)은 明代 漢語와 吏文에 정통하는 제일인자로서 조선 시대 (1392-1897) 全盤에 있는 한어와 이문 교육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현재까지 확인된 그의 저술에는 『翻譯老乞大』, 『翻譯朴通事』와 『老朴集覽』 (1507-1517 사이 간행), 『四聲通解』 (1517), 『翻譯世子親迎儀註』와 『翻譯冊嬪儀註』 (1524), 『訓蒙字會』 (1527), 『翻譯女訓』 (1532), 『韻會玉篇』 (1536)과 『小學便蒙』 (1537), 『諺解孝經』과 『諺解小學』 (1539년 이전), 『吏文續集』과 吏文諸書輯覽 (1539)¹⁾, 『續添洪武正韻』 (16세기 말 추정) 등이 있다. 특히, 그의 마지막 저술로 알려진 吏文諸書輯覽은 『吏文輯覽』과 『增定吏文輯覽』, 『吏文續集輯覽』과 『增定吏文續集輯覽』, 『于公奏議輯覽』과 『增定于公奏議輯覽』, 『駁稿輯覽』과 『增定駁稿輯覽』, 『奏議擇稿輯覽』과 『增定奏議擇稿輯覽』, 그리고 『比部招議輯覽』 등 총 11종의 문헌을 포함한다. 최세진의 이문에 대한 이해와 교육에 관한 연구는 그의 학문 활동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그의 모든 저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²⁾ 이문에 대한 그의 지식과 교육적 기여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본고는 최세진이 總裁하여 편찬한 吏文諸書輯覽을 한국어학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종래의 연구는 주로 『吏文輯覽』과 『吏文續集輯覽』에 집중되어 왔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小倉進平(いぐら しんぺい, 1882-1944; 1916, 1940), 藤田亮策(ふじた りょうさく, 1892-1960, 1942/1963), 方鍾鉉(1946), 朴泰權(1973), 朴在淵·洪波 (2001), 梁伍鎮(2002, 2014, 2015) 등을 들 수 있다. 반면에 나머지 『于公奏議輯覽』 『增定于公奏議輯覽』, 『駁稿輯覽』 『增定駁稿輯覽』, 『奏議擇稿輯覽』 『增定奏議擇稿輯覽』, 『比部招議輯覽』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安秉禧(1933-2006; 1988, 1992, 1996, 2007 재수록)가 제시한 단편적인 해제 논문 3편이 대표적이다. 이 논문들은 학계에서 吏文諸書輯覽의 일부를 다룬 연구로 평가되나, 해당 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吏文諸書輯覽의 전체를 서지학적 관점에서 정리하고 교감한 연구, 원전비평, 그리고 이를 한국어학적 관점에서 본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³⁾

그러므로 본고는 이러한 부족한 점을 메우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 및 절차로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제2절에서는 서지학적 기초 작업으로서 吏文諸書輯覽의 종류, 편찬 목적과 간행 경위, 여러 판본 간의 관계, 체재, 참고 서목, 16세기 중세한국어 자료를 추출할 수 있는 항목 등을 다룰 것이다. 제3절에서는 추출한 16세기 중세한국어 어휘와 구문을 중심으로 하여, 표기법, 어원 및 형태적·통사적 특징에 따라 분류하고 한국어학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소결 부분에서는 이러한 어휘와 구문이 보여주는 표기, 음운, 형태적 및 통사적 특징을 요약할 것이다. 본 연구는 최종적으로 최세진의 마지막 저술인 吏文諸書輯覽을 한국어사적 관점에서 재조명하고자 한다. 또한, 어려운 벼슬길의 환경 속에서도 최세진이 보여준 博學多識과 實事求是의 학문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리라 생각된다.

2. 吏文諸書輯覽의 서지학적 고찰

우선, 魚叔權의 『稗官雜記』 4)卷二(16세기 중기/1971: 70)⁵⁾에 나오는

1) 본고에서 사용한 분장 부호는 2 종류가 있다. 한국어 원문 부분은 현대한국어의 문장 부호를 사용한다. 고전에 나타난 한문의 點校는 현대중국어의 문장 부호를 사용한다. 吏文諸書輯覽은 역사적으로 책의 겉표지에서 제목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안병희(2007)에서는 겹낫표(『』)를 덧붙였지만 본고에서는 모두 한자로만 표시한다.

2) 예를 들면 『訓蒙字會』의 주석에는 간혹 ‘吏語’라 하여 이문에서 사용되는 어휘도 나타난다. 『訓蒙字會』는 최세진의 이문 연구 및 교육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서 의미를 지닌다. 『老朴集覽』과 『四聲通解』도 마찬가지다.

3) 안병희(2007: 133)에서는 한글로 표기된 항목은 약 120개에 이른다고 하였다는 것에 의하면 안병희 교수님께서 吏文諸書輯覽에 나타난 한글 자료를 모두 정리했다는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안병희(2007)에서는 이러한 정리한 내용이 실려 있지 않았다.

4) 魚叔權의 생애와 『稗官雜記』의 성립에 대한 고찰은 임영걸(2024)에서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吏文諸書輯覽의 성립 시간은 안병희(2007: 114-115)에서 『稗官雜記』의 기록에 대해 논의한 바가 있다.

5) 『稗官雜記』卷二: “嘉靖庚子(引者註: 即嘉靖十九年, 朝鮮中宗三十五年, 1540年)夏, 慕齋金公(引者註: 即金安國)啓, 設纂集局, 撰吏文諸書輯覽. 以崔同知世珍、尹參議澁、尹僉知溪爲堂上, 以吏文學官掌其事. 《吏文》、《續吏文》則鄭君陳、柳大容、李景成及余昆季等五人雜就之. 《于公奏議》則柳大容主之, 《駁稿》、《奏議擇稿》則余主之. 未幾, 尹參議出, 按忠清; 尹僉知出, 倅延安. 崔同知獨專總

吏文諸書輯覽의 편찬 경위에 대한 기록은 이미 종래의 선행 연구에서 널리 인용되고 있었다. 이 기록을 통하여 우리는 5종류의 吏文諸書인 『吏文』, 『吏文續集』, 『少保于公奏議』, 『駁稿』와 『奏議擇稿』가 존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최세진이 이 5 종류의 吏文諸書에 주석을 다는 작업을 總裁하여, 『吏文輯覽』과 『吏文續集輯覽』(鄭君陳, 柳大容, 李景成, 魚叔均 등 다섯 명 공동 편찬), 『于公奏議輯覽』(柳大容 편), 『駁稿輯覽』과 『奏議擇稿輯覽』(魚叔權 편)을 편찬하였다는 것이 확인된다. 또한 안병희(2007)에 따르면 이 5 종류의 이문 집담은 16세기 중반에 증보하게 되었고, 각각 『增定吏文輯覽』, 『增定吏文續集輯覽』, 『增定于公奏議輯覽』, 『增定駁稿輯覽』, 『增定奏議擇稿輯覽』이라는 제목으로 간행되었다. 그리고 추가로 『比部招議』라는 이문 원전을 주석하여 『比部招議輯覽』(편찬자 미상)을 편찬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吏文諸書의 원전은 총 6 종, 吏文諸書輯覽은 총 11 종이 있다.

또한 總裁로서 편찬 작업을 담당하게 된 최세진은 吏文諸書輯覽을 지었을 때 ‘輯覽凡例’ 8항을 만들었다. 이 ‘輯覽凡例’ 8항은 17세기 초의 목판본 합본인 『吏文輯覽』과 『吏文續集輯覽』에서만 확인된다. 구체적인 내용을 현대한국어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輯覽凡例⁶⁾

- (1) 吏文諸書難曉處曾所考知者, 則解之. 所未知者或考承文院所載各年《質正錄》所載相合者解之. [법례1: 吏文諸書에서 어려운 곳은 이미 상고하여 알게 된 것은 풀이하고, 아직 모르는 곳은 승문원 소장의 각 해의 『質正錄』과 서로 맞으면 풀이한다.]
- (2) 舊抄《史文》初卷宣諭聖旨皆漢語, 於習吏文無關, 故不著輯覽, 欲習者宜考諺解漢語諸書. [법례2: 舊抄 『吏文』 원간에서 권 1은 宣諭, 聖旨라 중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문의 학습에 무관하므로 주석의 『輯覽』을 만들지 않는다. 중국어를 배울 사람이 있으면 중국어와 관련된 여러 책의 언해서를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 (3) 官制及地名, 雖不關緊於史文之習, 其與中朝文書相通之際, 或要於考閱, 故亦并考解. [법례3: 관제나 지명은 이문의 학습에 불필요하지만 살펴보거나 점검함에 있어 긴요한 것은 상고하여 풀이하였다.]
- (4) 奏、咨、申、呈、劄付、照會、關牒、榜帖等項文移體式, 皆考承文院所藏《求政錄》解之, 欲詳習者宜參考《求政錄》. [법례4: 奏, 咨, 申, 呈, 劄付, 照會, 關牒, 榜帖 등 관아 사이에 주고받던 공문서의 체제는 승문원 소장의 『求政錄』을 참고하며 풀이를 한다. 자세히 배울 사람에게는 『求政錄』을 참고하면 된다.]
- (5) 《駁稟》之書, 初非諸文移全文之例, 只取大理寺駁回文字為書, 故今亦未能詳識本義, 其所引律文, 則在《大明律》考而略為之解. [법례5: 『駁稿』란 이문 책은 애초에 문서의 전문을 신지 않고 大理寺의 박회 문서만 가지고 만들었으므로 지금 역시 모르는 것이 많고 또 인용된 법률 원문이 『大明律』에 실려 있으므로 상고하여 간략히 풀이하였다.]
- (6) 《史文》舊抄不多, 又有不合時格者, 故今加抄出弘治、嘉靖年間中朝及本國文字, 宜於時格可習者以為《續集》. [법례6: (『吏文贅錄』에서 가려 뽑아 만든 『吏文』 곧 『吏文輯覽』의 원전인) 舊抄 『吏文』은 분량이 적고 또한 시각에 맞지 않은 것도 있어서 弘治(1488-1505)와 嘉靖(1522-) 년간에 명과 조선의 이문 중에서 알맞고 배울 만한 것을 뽑아 (즉 新抄) 『吏文續集』을 편찬하였다. (이를 원전으로 편찬한 참고서는 『吏文續集輯覽』이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 (7) 各書難曉之語已解在一書, 則慮其帙繁不重解於他書. [법례7: 이문에 관한 각각의 책에 있는 어려운 어구가 이미 한 책에서 주석된 경우에는 책의 분량을 생각하여 다른 책에서는 다시 풀이를 달지 않는다.]

載. 明年辛丑(引者註: 即嘉靖二十年, 朝鮮中宗三十六年, 1541年)春, 書成, 命書局印出. 凡吏語及中朝大小官制之見於各書者, 註釋頗詳, 開卷了然, 殆所謂如客得歸者也. 但其間有一二牽強處, 又未詳者若干條, 其後屢往中朝, 頗有所質, 惜其撰集之不在於今日也.” (70)

6) ‘輯覽凡例’의 현대 한국어 번역은 박태권(1973), 안병희(2007), 구범진(2012), 양오진(2014)에 나타난 해석과 번역을 종합하여 수정하였다.

- (8) 《輯覽》中未及考識者缺之，俟更質于中朝補之。[법례8: (吏文諸書의) 『輯覽』에서 뜻을 확실히 고식하지 못한 표제어는 풀이를 하지 않았다, 그것들에 관하여서는 다시 中朝에 가서 質正할 때를 기다려 보충할 것이다.]

嘉靖十八年七月 日折衝將軍行義興衛副護軍臣崔世珣奉教撰集

우리는 ‘輯覽凡例’ 8항의 내용을 통해 吏文諸書輯覽의 종류, 편찬 경위, 체재를 짐작할 수 있다. ‘輯覽凡例’ 8항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법례1은 법률이나 행정 실무와 관련된 한문 문장으로 구성된 여러 종류의 吏文 원전, 즉 吏文諸書, 그리고 이 吏文諸書의 학습서인 吏文諸書輯覽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암시하였다. 법례2는 『吏文』 원전 권1의 결권에 대해 언급하였다. 법례3은 집람에서 명과 조선의 관제와 지명 지식을 주석하는 원인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는 당시 명의 문물 제도에 대한 조선의 최고 이해 수준을 반영하였다. 법례4는 공문서의 체제는 『求政錄』을 참고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법례5는 『駁稿』란 이문 책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암시하였다. 그리고 『駁稿』에 나타난 법률 내용은 『大明律』을 참조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駁稿』의 원전은 전하지 않는다. 법례6은 『吏文續集』과 『吏文續集輯覽』의 편찬 경위에 대해 설명하였다. 법례7은 여러 종류의 이문 집람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암시하였다. 한 어구 항목은 한 이문 집람에서만 주석하고 다른 집람에서는 다시 주석하지 않는다는 것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법례8은 이문에 나타난 난해 부분을 풀이하지 못하면 명에 가서 질정한 후에 보충하겠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吏文諸書輯覽의 편찬 체제는 중국어를 배웠을 때 쓴 『老乞大』와 『朴通事』의 참고서인 『老朴集覽』과 비슷하여 원전에 나타난 난해 내용을 뽑아서 한문과 한글을 이용하여 주석하였다. 표제어는 大字로 제시한 다음에, 雙行에 小字로 표제어를 주석하는 방식이다. 표제어에 나타난 한자의 음을 直音法, 反切法, 그리고 한글을 이용하여 표기하였다. 표제어의 석은 원칙적으로 한문으로 주석하였다. 아주 어려운 경우에는 『老朴集覽』의 체재처럼 한글로 설명하였다.

이상 ‘輯覽凡例’ 8항 외에 우리가 吏文諸書輯覽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편찬 체제에 있는 다른 공통점과 결함도 발견하였다. 다시 말하면 ‘輯覽凡例’ 8항 이외에 다른 법례, 그리고 吏文諸書輯覽의 체제가 보여주는 문제점을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여러 집람에서는 원전의 내용을 교감하였고 원전에 나타난 誤字와 脫字도 지적하였다. 吏文諸書輯覽에 보이는 ‘唐本’은 중국본을 키리키는 것이고 집람에서는 조선의 간본과 ‘唐本’을 對校한 후에 차이점을 지적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집람에서 ‘當有’, ‘當作’, ‘疑作’, ‘下缺’, ‘下落’, ‘*字之誤’ 등 표시어가 나오면 이문 원전을 교감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한 법례로 삼을 수 있다. 구체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다.

- (1) 父弟: 唐本無“弟”字。(増定于公奏議輯覽1:9b)
- (2) 免差人去奏知: 免, 唐本作“先”字。(増定于公奏議輯覽5:14a)
- (3) 周瑛: 瑛字下當有“呈”字。(増定于公奏議輯覽1:6a)
- (4) 劉亮銅: “銅”下當有“錢”字。(比部招議輯覽中卷: 3a, 3b)
- (5) 胖襖: 胖, 當作“胖”, 音“방”, 去聲。胖襖, 綿絮衣也。(増定吏文輯覽3:19a)
- (6) 收什: 什, 當作“拾”, 音同, 通用。(増定于公奏議輯覽1:5b)
- (7) 原五都司: “五”疑作“無”。(増定于公奏議輯覽6:17b)
- (8) 貴州長官司: “州”疑作“竹”。言長官司只有里長五名, 難爲方面之地。(増定于公奏議輯覽6:17b)
- (9) 砲臺大將: “砲臺”屬上句。“大將”下缺“有令”二字。(増定于公奏議輯覽5:15b)
- (10) 日下盡: “盡”字下落“絕”字。(増定于公奏議輯覽1:9b)
- (11) 李受男: “受”下落“本”字。李受, 本人名, 見此奏及第三下卷。(増定于公奏議輯覽4上:11b)
- (12) 裏隣: 裏, “里”字之誤。(増定吏文輯覽4:27b)
- (13) 科理: 科, 即“料”字之誤。(増定吏文輯覽4:31a)

둘째, 吏文諸書輯覽에서는 법례 7의 규정을 엄격히 지키지 않았고 중복된 표제어와 주석이 나타났다. 이는 吏文諸書輯覽 체제의 결함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표제어 ‘照顧’가 2 번 나타났다. ‘照顧’, ‘穠秬/秬葛’, ‘犁/犁頭’, ‘皮骨朵/骨朵’의 주석인 ‘斗頓’,

‘唐黍’, ‘보십’, ‘보라울’도 중복 해석되었다. 구체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다.

- (1) 將就：鄉言“斗頓”也。(增定吏文輯覽3:25b)
- (2) 照顧：鄉言“斗頓”也。(增定于公奏議輯覽8:19b)
- (3) 照顧：鄉言“斗頓”也。(增定駁稿議輯覽上：25b)
- (4) 穠(蜀)秣：本國所謂“唐黍”也。(增定駁稿議輯覽下：37b)
- (5) 秣葛：即本國所謂“唐黍”也。陶淵明種秣為酒，大明高皇帝欲禁酒，勿令種秣者，此也。亦稱葛葛。(比部招議輯覽中卷：3b)
- (6) 犁鐮：鐮，兩刃耒也，鄉言“뽕”。犁，“보십”。(增定于公奏議輯覽1:2 b)
- (7) 犁頭鎗：鎗形如犁頭，故云。犁頭，鄉言“보십”。(增定于公奏議輯覽4上:12a)
- (8) 皮骨朵：骨朵，國俗語“보라울”，以皮爲之。(增定于公奏議輯覽5:15b)
- (9) 骨朵：俗言“보라울”。(增定駁稿議輯覽下：35b)

셋째, 안병희 (2007: 130)에 따르면 집람에서 ‘本國’, ‘國俗’, ‘俗稱’, ‘俗言’, ‘俗語’, ‘俗云’, ‘俗謂’, ‘鄉稱’, ‘鄉言’, ‘鄉語’, ‘鄉名’, ‘鄉談’ 등이라 하여 한자 또는 한글로 표기된 내용은 보통 16세기의 중세한국어 자료로 판정할 수 있다. 특히 한글의 표기는 16세기의 한글 표기법 및 중세한국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이 중에 ‘俗稱’, ‘俗言’, ‘俗語’, ‘俗云’, ‘俗謂’ 등 제시어 뒤에 나타난 주석은 16세기 한국어가 아닐 경우도 있다. 실제로는 명대 한어 방언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다시 말하자면 ‘本國’이라는 표시어가 없을 때 ‘俗稱’, ‘俗言’, ‘俗語’, ‘俗云’, ‘俗謂’, 그리고 ‘方言’⁷⁾에 나타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戳：音“齧”，俗言“刺”也。(增定于公奏議輯覽1:9a)
- (2) 牆榨：榨音[자]，云◆⁸⁾壓油槽。俗語編木爲柵亦謂“榨”，蓋取其密竿不通之義也。此言或築牆或植榨，使人馬不通也。(增定于公奏議輯覽1:4a)
- (3) 乖角： “角”與“覺”通，今俗謂少煩惱多機智者曰“乖角”。(增定駁稿輯覽上：29a)
- (4) 站立：“站”字本作“𡵓”。俗謂“立不移”曰“𡵓”。(增定駁稿輯覽下：34b)
- (5) 莽張百戶：方言謂粗猛者爲“莽”。(增定吏文輯覽2:2b)
- (6) 價錢：價錢，即價也。方言“價直”通謂之“價錢”。(增定吏文輯覽2:10a)
- (7) 東西：方言，凡物件皆謂之東西。(增定吏文輯覽2:17a)
- (8) 可憐見：即垂憐之意，蓋方言如此。(增定吏文續集輯覽1b)

그리고 이상 여러 제시어들이 없어도 16세기 한국어 어휘로 판정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 집람에서 풀이는 한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러한 한문의 작성자는 16세기의 조선인들이고 독자도 16세기의 한국어 화자들이었다. 그러므로 집람에 나타난 한문은 16세기의 조선인의 조선식 한문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한문에서는 16세기 한국어 어휘도 추출할 수 있다. ‘羅將’, ‘公骨馬’와 ‘寸’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吏文諸書輯覽 체재의 결함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예문은 다음과 같다.

- (1) 軍牢：軍中“羅將”也。(增定駁稿輯覽下：37b)
- (2) 土黃：公骨馬色也。(增定奏議擇稿輯覽1下：46a)
- (3) 表弟：異姓“四寸弟”也。(增定于公奏議輯覽4上:12b)
- (4) 堂兄：同姓“四寸兄”也。(增定駁稿議輯覽上：26a)
- (5) 堂叔：同姓“三寸叔”也。(增定駁稿議輯覽上：30b)
- (6) 表兄：異姓“四寸兄”也。(增定駁稿議輯覽下：35a)
- (7) 堂姪：同姓“四寸”之子曰“堂姪”。(增定駁稿議輯覽下：37a)

7) ‘方言’이라는 어휘는 『增定吏文輯覽』에서 확인된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方言：天下言語，隨方不同，故謂之“方言”，此指本國而言。(增定吏文輯覽3:20a, 20b)]

8) 판독이 어려운 한자이다.

다음으로는 각 소절에서 6종류의 ‘吏文諸書’를 주석하는 11 종류의 吏文諸書輯覽을 중심으로, 각 집람의 편찬 및 간행 경위, 여러 판본 간의 관계, 인용된 참고 서목, 그리고 각 집람에서 16세기 중세한국어 자료를 추출할 수 있는 항목을 검토해보고자 한다⁹⁾.

2.1 『吏文輯覽』 과 『増定吏文輯覽』

『吏文輯覽』의 원전은 『吏文』이다. 우선, 吏文의 3가지 의미를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는 행정, 법령, 조선 왕조와 명, 청 시대의 중국이 주고받는 외교문서 등 실무와 관련된 문서에 나타나는 문체이다. 漢文吏牘體, 吏文體, 혹은 漢吏文이라고 한다. 외교문서를 관장하는 承文院에서 말하는 이문은 실무적인 외교문서와 그 문서에 쓰이는 독특한 문체를 가리킨다. 둘째는 그 문체로 된 한문을 가리키는 것이다. 예를 들면, 『吏學指南』, 『吏文謄錄』에 수록된 문장은 모두 吏文體로 작성된 한문들이다. 셋째는 명 成化(1465-1487) 연간에, 조선시대 초기에 『吏文謄錄』에서 93편의 교육용 이문 문장을 추출해서 권 1, 2, 3, 4로 만든 이문 자료집인 『吏文』이다. ¹⁰⁾ 권1은 宣諭와 聖旨를 수록하고, 권 2과 권3은 고려 恭愍王대부터 조선 成宗대까지의 외교문서 52편을 수록하고, 권 4는 조선 사신이 베껴 온 명의 榜文과 告示 41건을 수록하고 있다.

전해진 『吏文』은 여러 도서관에서 소장되어 있고 판본에 대한 서지학적 연구는 주로 안병희(1988/2007), 구범진(2012), 張全眞(2012) 등이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보존 상태가 가장 양호하고 널리 쓰이는 판본은 日本 宮内廳 書陵部の 藏本(舊圖書寮), 즉 淺見倫太郎(あさみ りんたろ, 1868-1943)의 舊藏本이고 권 2, 3, 4가 있다. 그리고 서울大學校 奎章閣의 想白文庫藏本(乙亥字本)은 권2와 권3, 2책이 있다. 서울大學校 奎章閣藏本(서울大學校 도서관 舊藏本)은 권2, 3, 4가 있다. 이 밖에 東洋文庫의 藏本 중에는 藤田亮策의 舊藏本은 권2만 있고 筆寫本은 권2, 3, 4가 있다. 권1은 명대 한어로 구성된 宣諭, 聖旨라 널리 보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권1의 명대 한어와 이문의 학습에 무관하므로 최세진은 『輯覽』을 만들지 않았다. 『吏文』의 판종은 다양하고 17세기 이후의 판본도 있고, 활자본과 목판본 사이에는 본문의 내용 및 字句의 차이가 보인다.

『吏文』 원전에 대한 주석과 연구는 前間恭作(まえま きょうさく, 1868-1941)부터 시작하였다. 그의 遺稿인 『訓讀吏文』은 1941년에 완성되었고 末松保和(1904-1992, すえまつ やすかず)에 의해 편찬하여 출판하였다. 『訓讀吏文』에서는 『吏文輯覽』과 『吏文續集輯覽』을 활자화하여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나중에는 17세기 초의 목판본을 이용하여 『吏文』의 원문과 『吏文輯覽』의 내용을 교주한 작업은 단행본 朴在淵·洪波 校註(2001), 구범진(2012)¹¹⁾가 있다.

『吏文輯覽』은 『吏文』에서 수록된 권2, 3, 4의 93 편 문장에 있는 난해 어휘와

9) 吏文諸書輯覽에 대한 형태서지학적 내용은 안병희(2007)에서 이미 자세히 다루어진 바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이와 중복되는 설명을 생략하고자 한다.

10) 한반도의 이문 학습은 고려 시대 말기부터 시작하였다. 이문이라는 용어가 조선왕조실록에 처음 나타난 것은 태종 4년(1404)이었다. 그리고 그 해 8월에 司憲府가 몇 가지 긴급한 정무를 상계한 조목 가운데 이문 학습의 필요성을 들고 있다. 이문 학습의 교재는 『世宗實錄』 12年條에 나타난 『漢吏學條』에 의하면 『書』, 『詩』, 『四書』, 『齊魯大學』, 『直解小學』, 『成齋孝經』, 『小微通鑑』, 『前後漢書』, 『吏學指南』, 『忠義直言』, 『童子習』, 『大元通制』, 『至正條格』, 『御製大誥』, 『朴通事』, 『老乞大』, 『事大文書』, 『謄錄』, 『製述』, 『奏本』, 『咨文』 등이 포함된다. 조선 세종 시기에는 『吏文謄錄』을 5년마다 한 차례씩 謄寫하고 10년마다 한 차례 인출하도록 하였다.

11) 『訓讀吏文』에서 이용한 『吏文』 원전은 목판본, 활자본, 그리고 필사본 등을 섞여 있었다. 朴在淵·洪波 校註(2001)에서는 『吏文』 원전에 대해 『訓讀吏文』을 대본으로 입력한 뒤 서울大學校 규장각의 소장본을 이용하여 대조 교감하였다고 언급하였지만 구체적인 판본 정보는 없었다. 『吏文輯覽』의 판본에 대해서는 서울大學校 奎章閣 소장의 ‘想白古398.9’, ‘가람古411.1’, ‘古5700-6’, ‘奎1577’ 4 종을 이용하였다는 것으로 추정한다. 구범진(2012)에서 이용한 『吏文』 원전의 선본은 서울大學校 奎章閣 소장의 ‘想白古貴 411.1-J773i’ 호이고 『吏文輯覽』은 서울大學校 奎章閣의 소장본인 ‘古5700-6’호이다.

문장을 주석한 참고서, 혹은 『吏文』의 학습서라고 할 수 있다. 『吏文輯覽·輯覽凡例』에 의하면 明世宗 嘉靖 18년, 朝鮮中宗 34년 (1539) 7월에 당시 72살인 최세진이 편찬하였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1539년의 원간본은 전하지 않는다. 『吏文輯覽』 권2, 3, 4와 나중에 주석된 『吏文續集輯覽』 1권의 합본 4권 1책인 『吏文輯覽』은 학계에 잘 알려져 있다. 이 합본인 『吏文輯覽』은 현재 17세기 초의 목판본이 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서울大學校 奎章閣 想白文庫에¹²⁾ 소장되어 있다. 이 목판본은 원간본인 을해자본의 覆刻本으로 판정되어 있다. 이 합본에 있는 『吏文輯覽』 권2, 권3, 권4는 총 31 장이다. 권2은 617개 항목, 권3은 294개 항목, 권4는 266개 항목에 대해 주석하였다. 『吏文續集輯覽』의 1권은 총 4장이고 118개 항목에 대해 주석하였다.

『增定吏文輯覽』은 즉 『吏文輯覽』의 증정본이다. 동국대학교 도서관 소장의 『增定吏文輯覽』, 『增定吏文續集輯覽』과 『比部招議輯覽』의 합부 1책은 전해진 갑인자본이다.¹³⁾ 이 합본에 있는 『增定吏文輯覽』은 총 33장이고 본권은 17세기 초의 목판본과 똑같다. 주석 내용에 대해 목판본인 『吏文輯覽』과 갑인자본의 『增定吏文輯覽』에서는 차이점도 확인된다. 『增定吏文輯覽』에서는 표제어 한자의 字樣을 변경하였거나, 주석 내용을 삭제하였거나 보충하였다는 경우가 보인다. 구체적인 예문은 다음과 같다.

- (1) 綈上盖：裝絮表衣也。(吏文輯覽2:9b)
綈上盖：裝絮表衣也。(增定吏文輯覽2:10a)
- (2) 照會：上司行下司之文，如五軍都督府行六部，各布政司行按察使之類。馳報上司，使之照管也。(吏文輯覽2:1a)
照會：上司行下司之文，如五軍都督府行六部，各布政司行按察使之類。(增定吏文輯覽2:1a)
- (3) 行在兵部：永樂皇帝都燕京，為行在所，故云。(吏文輯覽2:15b)
行在兵部：永樂初議遷都，設六部等衙門，各稱“行在某部”。十八年定都于北，除“行在”二字。其舊在南京者，加“南京”二字。洪熙初，仁宗欲回都南京，北京各衙門復稱“行在”。正統六年除“行在”之稱。(增定吏文輯覽2:16b)

『增定吏文輯覽』의 참고 서목은 『律』(즉 大明律), 『律學解頤』¹⁴⁾, 『質正錄』¹⁵⁾, 『膳錄全稿』, 『資治通鑑』, 『荀子』, 『大誥』, 『疏議』, 『交泰錄』을 총 9종이 포함된다. 그리고 한 어구 항목에 대해 중복 주석을 피하기 위하여 『增定吏文輯覽』의 내용과 『駁稿輯覽』, 『于公奏議輯覽』의 주석을 참고하였다. 『增定吏文輯覽』의 내용을 인용하면 ‘見上’, ‘解見上’, ‘釋見上’, ‘下**同’, ‘詳見下’ 등 말이 나타난다. 다른 집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詳見上及『駁稿』解’, ‘見『駁稿』解’, ‘詳見『于公奏議』一卷解’, ‘釋見『駁稿』上卷’ 등이라고 한다.

『增定吏文輯覽』에서 추출할 수 있는 16세기 중세한국어 항목에 대해 권2는 32개, 권3은 17개, 권4는 22개, 총 71개가 있다. 구체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다.¹⁶⁾

- (1) 呈：與“申”同。但各衙門無印，首領官及各有職役官吏、里老、軍民人等，則皆行無印呈，俗稱“無印呈”曰“白頭呈文”。(增定吏文輯覽2:1a)

12) 청구 기호: 想白古411.1-C456i. URL: <https://kyudb.snu.ac.kr/book/view.do>.

13) 청구 기호: DR 417.02 최53조.

14) 『律學解頤』는 명대의 律學 서적으로 조선 초기 律科의 講書, 즉 학습서로 지정되어 있다.

15) 『質正錄』은 한어 음운이나 기타 명물 제도 등에 관한 의문점을 중국에 문의하기 위하여 質正官이 기록한 것을 가리킨다.

16) 吏文諸書輯覽의 한문 부분을 활자화하고 교감하는 과정에는 浙江大學 文學院에 계시는 汪維輝 교수님, 趙川瑩 박사, 孫少卓 박사생과 吳昌政 박사생의 도움을 받았으니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2) 煩為：煩，猶本國簡牘常用“恐煩”之“煩”。咨文中，例用“請照”“煩請”“煩為”“咨請”等語。（增定吏文輯覽2:2b）
- (3) 所供：供，即供招，國俗所謂“拷音”也。（增定吏文輯覽2:2b）
- (4) 里長：猶本國“里正”。（增定吏文輯覽2:2b）
- (5) 梢水：梢，梢工；水，格軍也。（增定吏文輯覽2:3a）
- (6) 海菜：即本國鄉名“메육”。（增定吏文輯覽2:3a）
- (7) 將鍋做飯：鍋，音“過”。炊飯之器，猶本國“小釜”也。（增定吏文輯覽2:3b）
- (8) 衣帶八條：衣帶，鄉言“골흙”；八條，即八箇也。（增定吏文輯覽2:3b）
- (9) 行枷扭手：械在首曰枷，在手曰扭。行枷，鄉語云“行次枷”也。（增定吏文輯覽2:5a）
- (10) 責令：責，鄉言“당부하다”。（增定吏文輯覽2: 5a）
- (11) 守把東門官：猶本國“守門將”之類。（增定吏文輯覽2:5a）
- (12) 根前：鄉言“그 앞쪽”。（增定吏文輯覽2:5b）
- (13) 令史：各衛及布政司有之，如本國“錄事”之類。（增定吏文輯覽2:6a）
- (14) 四角笠子：即本國鄉吏“笠子”。（增定吏文輯覽2:6b）
- (15) 節次：連次也。猶鄉言“벼디길”。（增定吏文輯覽2:7b）
- (16) 所據：謂時所取據之事，如本國吏語中“向前”之意，亦曰“所有”。（增定吏文輯覽2:8a）
- (17) 行據都評議使司取問金甲兩狀申：行，“行下”也。都評議使司，高麗時官府名，今議政府也。狀申，都評議使司啓國王之文，今謂之“狀啓”。此言高麗國王行下都評議使司而據其取問金甲兩所犯之狀申也。（增定吏文輯覽2:8b, 9a）
- (18) 招伏：即國俗所謂“伏招”也。（增定吏文輯覽2:9a）
- (19) 入直辭：辭，高麗官名，宦官為之。如今之“入番承傳色”也。（增定吏文輯覽2:9a）
- (20) 黃花騙馬：國俗稱“高羅元羅馬”。（增定吏文輯覽2:9b）
- (21) 星主：新羅時，濟州高厚來朝，王喜，號厚曰“星主”，蓋其時，客星現，故云。其後高氏世稱“星主”。（增定吏文輯覽2:10b）
- (22) 一向：猶俗言“슬의여”。（增定吏文輯覽2:12a）
- (23) 舵金：凡船尾必有舵，所以正船之具，即本國“치”也。金，以鐵裝舵也。（增定吏文輯覽2:13b）
- (24) 抄造：抄，“조히 쓰다”。方言曰“抄紙”。（增定吏文輯覽2:14b）
- (25) 原塚土軍：塚，集也。集聚五丁，以一丁為一軍餘，四丁為貼戶也。“貼戶”則本國“奎足”也。（增定吏文輯覽2:15a）
- (26) 挨究：挨，俗言“쭈쭈”。究，窮尋也。（增定吏文輯覽2:15a）
- (27) 便將金聲那廝：那，去聲。那廝，俗言“더늬”。（增定吏文輯覽2:15b）
- (28) 支用：支，猶本國俗言“上下”也。（增定吏文輯覽2:16a）
- (29) 先儘：儘，音“盡”，鄉言“다완다”。（增定吏文輯覽2:16a）
- (30) 這廝：鄉言“이늬”。（增定吏文輯覽2:17a）
- (31) 教唆：猶國俗云“付囑”也。唆，音“梭”。（增定吏文輯覽2:17b）
- (32) 使長：即國俗所謂“노연”。（增定吏文輯覽2:17b）
- (33) 擅便：猶國俗云“主便”也。（增定吏文輯覽3:18a）
- (34) 偷拐栗色騾馬：拐，音“괘”，上聲，誑人取物也。栗色，鄉稱“仇郎馬”也。騾，牝

- 馬也。（增定吏文輯覽3:19b, 20a）
- (35) 白牌：即本國“先文”也。（增定吏文輯覽3:20b）
- (36) 銷繳：勾銷回繳也。鄉言“마몰오다”。（增定吏文輯覽3:21a）
- (37) 茶褐：即本國“甘察色”也。（增定吏文輯覽3:22a）
- (38) 黑綠：鄉言“희무로”。（增定吏文輯覽3:22a）
- (39) 綾襖子：綾，鄉言“고로”；襖子，即胖襖也。（增定吏文輯覽3:22a）
- (40) 銅碗：本國“孟子”也。（增定吏文輯覽3:22a）
- (41) 裕連：猶本國“걸망”之類。（增定吏文輯覽3:22a）
- (42) 青沙騙馬：驄마로馬。（增定吏文輯覽3:22a）
- (43) 打發：猶俗云“接待”也。（增定吏文輯覽3:22b）
- (44) 腹裏：猶俗云“內地”也。（增定吏文輯覽3:22b）
- (45) 一帶：“흔줄”。（增定吏文輯覽3:23b）
- (46) 上班：猶本國“當番”也。（增定吏文輯覽3:24b）
- (47) 倒有七八百杠：倒，反也，鄉言“도르혀”，言私物反有若干杠之多。（增定吏文輯覽3:25a）
- (48) 將就：鄉言“斗頓”也。（增定吏文輯覽3:25b）
- (49) 不徒尔：鄉言“우여니아니”。（增定吏文輯覽3:25b）
- (50) 神機營銃手：神機營，掌火炮之營；銃手，猶本國“火炮匠”。（增定吏文輯覽4:25b, 26a）
- (51) 各照：照，方言“집채”。（增定吏文輯覽4:26a）
- (52) 大使、水夫人：大使，驛官；水夫，猶本國之“津夫”也。（增定吏文輯覽4:26a）
- (53) 清理：猶俗云“推刷”也。（增定吏文輯覽4:26b）
- (54) 牌夫：猶本國之各驛“晝者”也。（增定吏文輯覽4:26b）
- (55) 自承包攬粮草：承，即承當也；包攬，如本國之“防納者”也。言强行占取而防納粮草也。（增定吏文輯覽4:26b）
- (56) 號令了：猶國俗言“回示”也。將罪人著圓枷懸於街頭，示衆號令也。（增定吏文輯覽4:26b, 27a）
- (57) 通關：如本國之“尺文”也。（增定吏文輯覽4:27a）
- (58) 常川：猶俗云“長常”也，取川流不息之義。（增定吏文輯覽4:28a）
- (59) 鈐束禁治：即約束禁戢也。“鈐”與“箝”通，俗呼“鐵鈐”，即“집게”。（增定吏文輯覽4:28a）
- (60) 教場：猶本國“射廳”也。（增定吏文輯覽4:28a）
- (61) 月錢：衛官私帶軍卒，每月納脚錢而退休。猶本國“丘史債”也。（增定吏文輯覽4:28b）
- (62) 寶石頭面：寶石，方言“날”；頭面，女冠也。（增定吏文輯覽4:29b）
- (63) 木料：料，鄉言謂“그슴”，如石料、顏料之類。（增定吏文輯覽4:30a）
- (64) 牙行：牙，“즈름”；行，音“杭”，猶本國“좌준”。（增定吏文輯覽4:30b）
- (65) 高低唱價：言任其高低，唱定物價，猶本國俗語“발내다”。（增定吏文輯覽4:30b, 31a）
- (66) 炒：糗也，即本國“미시”。（增定吏文輯覽4:31a）
- (67) 廚役：主炊爨者，又稱廚子。本國各“色堂”之類。（增定吏文輯覽4:31b）
- (68) 竊礦：偷取銀礦也。礦，與“鑛”通，鄉言“들굴”。（增定吏文輯覽4:31b）

- (69) 號三箇月：號，猶本國“回示”之稱。釋見上17)。(增定吏文輯覽4:31b)
- (70) 幫貼：以故衣貼鞋履曰“幫”，此謂“補助”也，即本國所謂“奎足”，補助戶首者也。(增定吏文輯覽4:31b)
- (71) 重甘結狀：謂甘受重罪之結狀也。凡上司移文於屬司，仍令具甘受重罪之結狀而呈來，如本國之“甘結”也。(增定吏文輯覽4:31b, 32a)

2.2 『吏文續集輯覽』과 『增定吏文續集輯覽』

‘輯覽凡例’ 제6번에 의하면 승문원에서 弘治(1488-1505)와 嘉靖(1522-) 연간에 명과 조선의 이문 중에서 알맞고 배울 만한 것을 뽑아 (즉 新抄) 『吏文續集』을 편찬하였다고 한다. 이 『吏文續集』의 원전은 전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를 원전으로 편찬한 학습 및 참고서인 『吏文續集輯覽』은 전해진다. 『吏文續集輯覽』은 17세기 초의 목판본 합본인 『吏文輯覽』에 남아 있다. 『增定吏文續集輯覽』은 『吏文續集輯覽』의 증정본이다. 동국대학교 도서관 소장의 『增定吏文輯覽』, 『增定吏文續集輯覽』과 『比部招議輯覽』의 갑인자 합본에서는 『增定吏文續集輯覽』을 수록하고 총 4장이고 118개의 어구 항목을 주석하였다. 『增定吏文續集輯覽』의 참고 서목은 『會典』, 『大明律』, 『問刑條例』, 『律』, 『疏議』, 『質正錄』을 총 6 종이 있다. 또한 『增定吏文續集輯覽』의 다른 주석, 『奏議擇稿輯覽』, 『吏文輯覽』, 『駁稿輯覽』, 『于公奏議輯覽』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增定吏文續集輯覽』에서 추출한 16세기 중세한국어 항목은 총 10개가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肘鐐：鐐，即連環，以鐵為之，猶本國“足鎖”之類也。(增定吏文續集輯覽1a)
- (2) 下套子處所：下套子，“울모노타”，盖謂達子田獵時，下套子之處所也。(增定吏文續集輯覽1a)
- (3) 值當：猶言“보라미라”。(增定吏文續集輯覽1a)
- (4) 判了首：判，“서흐다”。(增定吏文續集輯覽1b)
- (5) 簍：音“樓”，“둥주리”。(增定吏文續集輯覽2b)
- (6) 備開詞訟勘合起數：詞訟移報之時，必用勘合也；起數，猶鄉言“불수”。(增定吏文續集輯覽3a)
- (7) 裕穫：即本國所謂“加文羅”。(增定吏文續集輯覽3b)
- (8) 冷鋪：即如本國“軍鋪”。(增定吏文續集輯覽3b)
- (9) 麻搭：鄉言“모스래”，所以滅火者也。(增定吏文續集輯覽3b)
- (10) 哼囉：即國俗所謂“牛角吹螺”。(增定吏文續集輯覽4a)

2.3 『于公奏議輯覽』과 『增定于公奏議輯覽』

『少保于公奏議』의 10권은 명나라 少保인 于謙(1398-1457)의 저서이다. 조선 초기에 1479년 李賓序의 중국본을 조선에서 을해자로 간행하였다. 이 원전은 한국에서 전해진다. 권3, 4는 상, 하로 분책되어서 10권 12책이다. 1520년의 내사본은 성균관대학교 학술정보관, 일본의 蓬左文庫에 완질본으로 소장되어 있다. 또한 고려대학교 만송문고에는 16세기 중엽에 간행된 활자본의 零本이 소장되어 있다.

『少保于公奏議』의 학습서인 『于公奏議輯覽』도 전해진다. 안병희 (2007)에 따르면 日本 東京 尊經閣文庫 소장의 『于公奏議輯覽』 1책과 『駁稿輯覽』, 『奏議擇稿輯覽』은 합부 1책으로 된 유일한 을해자본 이문류 집람이다¹⁸⁾. 이 판본은

17) 즉 앞의 第44條의 ‘號令了’의 해석을 참고하라는 뜻이다. [號令了：猶國俗言“回示”也。將罪人著圓枷懸於街頭，示衆號令也。(增定吏文輯覽4:26b, 27a)]

18) 이 尊經閣文庫 소장본의 원본은 필자가 아직 못 봤다. 이와 관련된 서지학적인 정보는 안병희

동국대학교 도서관 소장의 을해자본 『老朴集覽』의 지질과 책장의 이음새와 비슷하고 16세기 중엽의 원간본으로 판정되어 있다. 이 을해자본에는 보충된 목활자가 많다. 합본에 있는 『于公奏議輯覽』은 총 20장이고 10권으로 분권되었다. 권3과 권4는 다시 상, 하로 나누어져 있다. 『增定于公奏議輯覽』은 『于公奏議輯覽』 증정본이다. 고려대학교 만송문고 소장의 『增定于公奏議輯覽』, 『增定駁稿輯覽』과 『增定奏議擇稿輯覽』 합부 1책은 16세기 후반, 임진왜란(1592) 이전의 갑인자본으로 판정되어 있다.¹⁹⁾ 이 갑인자 활자본에도 목활자 補字가 많다. 이 합본에 있는 『增定于公奏議輯覽』은 총 22장이고 분권은 을해자본의 그것과 같다. 『于公奏議輯覽』과 『增定于公奏議輯覽』의 차이점은 안병희(2007: 150-151)에서 논의한 바가 있다.

『增定于公奏議輯覽』의 참고 서목은 『質正錄』, 『皇明通紀』, 『吳子』를 총 3종이 있다. 그리고 『增定于公奏議輯覽』의 다른 주석과 다른 집람인 『吏文輯覽』, 『駁稿輯覽』, 『奏議擇稿輯覽』, 『吏文續集輯覽』, 『于公奏議輯覽』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增定于公奏議輯覽』에서 추출한 16세기 중세한국어 항목에 대해 권1은 12개, 권4 상은 4개, 권 5는 6개, 권6은 1개, 권 7은 2개, 권 8은 3개, 권9는 3개, 권 10은 3개, 총 34개가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一發: 鄉言 “이의서리”, 一說言一時俱發也。(增定于公奏議輯覽1:2a)
- (2) 下邊: 猶下人, 鄉言 “아래오래”。(增定于公奏議輯覽1:2a, 2b)
- (3) 犁鏵: 鏵, 兩刃耜也, 鄉言 “면”。犁, “보집”。(增定于公奏議輯覽1:2 b)
- (4) 那顏: 鄉談 “노연”。那, 上聲。(增定于公奏議輯覽1:3a)
- (5) 小甲: 有捻甲、小甲, 猶本國 “隊正” “旅首” 也。(增定于公奏議輯覽1:5a)
- (6) 鐵牌: 猶本國 “信符”, 以鐵爲之, 中國賜夷人爲驗者也。酋長所帶, 則以金爲之。(增定于公奏議輯覽1:5a)
- (7) 趕不上時罷: 趕, 逐也。時, 猶則也。趕不上, 猶不得及也。罷, 鄉言 “뚝어라”。(增定于公奏議輯覽1:6a)
- (8) 白纓紅纓: 國俗所謂 “白象毛” “紅象毛”, 頭具及軍裝之飾也。(增定于公奏議輯覽1:6b)
- (9) 抄追: 抄擊而追逐也。一說 “즈름길로 쫓다”。(增定于公奏議輯覽1:7a)
- (10) 空掘: 空, 音 “謁”, 手空爲穴也。鄉言 “소느로워 판다”。(增定于公奏議輯覽1:7a)
- (11) 既僉長解: 長, 上聲, 即押解逃軍及貢物之人, 猶本國方言 “부로”。僉與簽同, 撥出也。(增定于公奏議輯覽1:7a)
- (12) 支吾: “小柱” 爲支, “邪柱” 爲吾。 “막 주 르 다”。(增定于公奏議輯覽1:10a)
- (13) 痘瘡: 俗呼痘子, 鄉言 “힝역”。(增定于公奏議輯覽4上:11b)
- (14) 犁頭鎗: 鎗形如犁頭, 故云。犁頭, 鄉言 “보집”。(增定于公奏議輯覽4上:12a)
- (15) 表弟: 異姓 “四寸弟” 也。(增定于公奏議輯覽4上:12b)
- (16) 軍伴: 如本國軍中 “伺候” 之稱。(增定于公奏議輯覽4上:12b)
- (17) 刀潑: “刀” 音 “彫”。潑, 鄉談 “보피”, 輕佻無行者也。“刀” 詳見《吏文》三卷 “刀蹬” 註, 下 “刀民” 之 “刀” 同。(增定于公奏議輯覽5:14b)
- (18) 皮撥頭: 撥頭, 國俗謂 “高都里”。凡演習兵陣之法, 以皮爲之而射人, 則人不至傷。(增定于公奏議輯覽5:15b)
- (19) 皮骨朵: 骨朵, 國俗語 “보라울”, 以皮爲之。(增定于公奏議輯覽5:15b)
- (20) 垛子: 國俗即 “射侯” 也, 中朝或用束草, 或用板桑爲侯。(增定于公奏議輯覽5:15b)
- (21) 藥線: 點火之線也。線, 本國方言 “심”。(增定于公奏議輯覽5:16a)
- (22) 鐵木蒺藜: 以鐵及木作蒺藜, 如本國之 “말완쇠” 之類。(增定于公奏議輯覽5:16a)
- (23) 掛木: 城堡上所掛之木, 猶鄉言 “고드래”。(增定于公奏議輯覽6:16b)
- (24) 這尖嘴: 俗罵人曰 “이부리 꼬 른 혀 눈”。(增定于公奏議輯覽7:18b)
- (25) 下飯: 鄉言 “飯饌”。(增定于公奏議輯覽7:19a)

(2007)에 따랐다. 안병희 (2007: 117)에 의하면 안병희 교수님도 菅野裕臣(かんお ひろおみ, 1936-)의 조사 결과를 따랐다. 필자는 주후 직접 조사할 예정이다. 『于公奏議輯覽』과 『增定于公奏議輯覽』의 대조 교감도 앞으로의 과제로 삼는다.

19) 청구기호: 만송 貴 226B.

- (26) 那間：鄉言“더저긔”。(增定于公奏議輯覽8:19 b)
 (27) 照顧：鄉言“斗頓”也。(增定于公奏議輯覽8:19b)
 (28) 激惱：鄉言“뒤딜워노캐흔다”。(增定于公奏議輯覽8:19b)
 (29) 陪償：言追物而償還也。追，方言“몰이다”。償，方言“값다”。(增定于公奏議輯覽9:20a)
 (30) 役滿令史：身役箇滿之令史也，猶本國“去官書吏”。(增定于公奏議輯覽9:21a)
 (31) 帽珠：本國所用“갈긴”。(增定于公奏議輯覽9:21a)
 (32) 營盤：“바오달터”。(增定于公奏議輯覽10:21b)
 (33) 番牌：番人之牌頭也。朝廷賜番夷酋長以金牌，其餘以鐵牌，以爲信號，此所謂番牌。及上文土牌，猶本國“牌頭”之稱也。(增定于公奏議輯覽10:22a)
 (34) 腳費：鄉言“신발값”。(增定于公奏議輯覽10:22a)

2.4 『駁稿輯覽』과 『增定駁稿輯覽』

『駁稿輯覽』의 원전인 『駁稿』는 전하지 않는다. ‘輯覽凡例’ 제 5 번에 의하면 원전의 내용이 추측된다. 『駁稿』란 이문 책은 애초에 문서의 전문을 신지 않고 大理寺의 駁回 문서만, 즉 棄卻, 回送 문서를 모아 만들었다. 그리고 『駁稿』에 의해 『駁稿輯覽』을 편찬했을 때는 『大明律』에 실려 있는 율문을 참조하였다. 『駁稿輯覽』은 전해진다. 日本 東京 尊經閣文庫 소장의 『于公奏議輯覽』, 『駁稿輯覽』과 『奏議擇稿輯覽』을 해자 합본에는 『駁稿輯覽』이 모두 17장이고 상, 하 2권으로 구성되었다. 『增定駁稿輯覽』은 『駁稿輯覽』의 증정본이다. 고려대학교 만송문고 소장의 『增定于公奏議輯覽』, 『增定駁稿輯覽』과 『增定奏議擇稿輯覽』 갑인자인 합본에서 『增定駁稿輯覽』은 총 18장이고 분권은 을해자본의 그것과 같다. 『駁稿輯覽』과 『增定駁稿輯覽』의 차이점은 안병희(2007: 150-151)의 논의를 참조하면 된다.

『增定駁稿輯覽』의 참고 서목은 『元律』, 『律』, 『疏議』, 『大誥』, 『質正錄』, 『解頤』, 『禮記』, 『南村輟耕錄』, 『吏學指南』, 『會典』, 『洗冤錄』을 총 12 종이 있다. 또한 『增定駁稿輯覽』에 나타난 다른 주석과 다른 집람인 『吏文輯覽』, 『于公奏議輯覽』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增定駁稿輯覽』에서 추출한 16세기 중세한국어 항목에 대해 권 상은 26개, 권 하는 21개가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拽撒：如國俗“이삭直領”。(增定駁稿議輯覽上:24b)
- (2) 有錢科分：科即房科，猶本國之各衙門“色房”也。此謂有錢糧之房科也。(增定駁稿議輯覽上:24b)
- (3) 磕擦：“磕”音“甲”，觸也。擦，“비비다”。(增定駁稿議輯覽上:25a)
- (4) 靠擦：靠，倚也，“지혀서비비다”。(增定駁稿議輯覽上:25a)
- (5) 照顧：鄉言“斗頓”也。(增定駁稿議輯覽上：25b)
- (6) 堂兄：同姓“四寸兄”也。(增定駁稿議輯覽上：26a)
- (7) 知在：謂將犯人保管在外，而日日知其見在也，即今國俗“保放”也，亦曰“羈管”。(增定駁稿議輯覽上：26b)
- (8) 糧頭：如本國之“納稅子비”也。(增定駁稿議輯覽上：27a)
- (9) 耗糧：如本國之“還上備耗”也。(增定駁稿議輯覽上：27a)
- (10) 一會：猶言“흔모둔”。或謂“一頃之間”亦曰“一會”。(增定駁稿議輯覽上：27a)
- (11) 某耗糧豈得恰好錯寫：正糧一石，耗糧例該八升五合；正糧百石，則耗糧例該八石五斗六升。今若錯寫，則耗糧之數必有加減不齊，而今此耗糧既八石五斗六升，此非錯寫也，其有扶同情弊，明矣。恰好錯寫者，“耗糧之數 흔모둔 합브시맛게 錯寫 흔료”。(增定駁稿議輯覽上：27b)
- (12) 花爛票帖：凡文書，成貼之紙，周圍四面必印花紋也。爛，當作欄，謂周圍如欄也。票帖者，如國俗“牌字”“帖字”“시진”之類，漢俗皆謂之“票帖”。(增定駁稿議輯覽上：28a)
- (13) 攀指：方言“진다”，如獄訟推鞠之時，指出他人也。(增定駁稿議輯覽上：29a)
- (14) 攬納：威豪之人，將他人所納之貢稅，勒要自取而納於倉也，如國俗“防納”之人也。(增定駁稿議輯覽上：29b)
- (15) 漆碗：碗，即碗子。國俗謂“사발”。(增定駁稿議輯覽上：30a)
- (16) 圖賴：圖者，謀爲之意。賴，猶國俗之言“조르다”。如甲與乙相鬪(鬥)，甲殺

- 其嬰兒而將使乙有抵命之患。(增定駁稿議輯覽上：30a)
- (17) 堂叔：同姓“三寸叔”也。(增定駁稿議輯覽上：30b)
- (18) 擻出：擻，音“竄”，“쫓든다”。(增定駁稿議輯覽上：30b)
- (19) 好歹丟下：歹，惡也。言好歹之間去，棄而去也，猶國俗言“모로미”。(增定駁稿議輯覽上：32a)
- (20) 扯住衣帶：扯住猶言引住也。“골홈과긴과”，通謂之衣帶，此則指“袴”，“긴”。(增定駁稿議輯覽上：32a)
- (21) 皮底：“휘창”“신창”皆曰“底”。(增定駁稿議輯覽上：32b)
- (22) 左肋：音“勒”，“넙발지”。(增定駁稿議輯覽上：33a)
- (23) 按住：按執而住也。按，俗語“누르다”。(增定駁稿議輯覽上：33a)
- (24) 口袋(袋)：俗言“자르”。(增定駁稿議輯覽上：33a)
- (25) 過房：即本國所謂“收養”也。(增定駁稿議輯覽上：33b)
- (26) 扭開：扭，俗言“뒤틀다”。(增定駁稿議輯覽上：34a)
- (27) 繒魚：“繒”與“罾”通。“블그믐”，漢俗曰“打扮罾”。(增定駁稿議輯覽下：34b)
- (28) 一發：猶鄉言“이쁘셔리”。(增定駁稿議輯覽下：34b)
- (29) 楸採：俗言“블드다”。(增定駁稿議輯覽下：34b)
- (30) 竹篙：刺船竿也。本國所謂“사릿대”。(增定駁稿議輯覽下：35a)
- (31) 表兄：異姓“四寸兄”也。(增定駁稿議輯覽下：35a)
- (32) 斜睨：俗言“두들밋기브르쁘다”。(增定駁稿議輯覽下：35a)
- (33) 骨朵：俗言“보라울”。(增定駁稿議輯覽下：35b)
- (34) 穀(穀)子：俗言“조”。(增定駁稿議輯覽下：35b)
- (35) 買糖：糖，飴也，俗言“엿”。(增定駁稿議輯覽下：36a)
- (36) 拳靴腳：拳靴，俗所謂“胡靴”。腳，即“足”也。(增定駁稿議輯覽下：36a)
- (37) 淹放：淹，浸也。放，安放也。此猶俗言“즘가두다”。(增定駁稿議輯覽下：36b)
- (38) 堂姪：同姓“四寸”之子曰“堂姪”。(增定駁稿議輯覽下：37a)
- (39) 軍牢：軍中“羅將”也。(增定駁稿議輯覽下：37b)
- (40) 穉(蜀)秣：本國所謂“唐黍”也。(增定駁稿議輯覽下：37b)
- (41) 質當：質，音“致”。質當，俗言“블모”。下“當在飯店”同。(增定駁稿議輯覽下：38a)
- (42) 監房過梁上：監房，即獄房也。過梁，俗所謂“들보”。(增定駁稿議輯覽下：39a)
- (43) 推抵：即俗言“밀티다”。(增定駁稿議輯覽下：39a)
- (44) 金掠頭：掠頭，俗言“빈혀”。(增定駁稿議輯覽下：39a)
- (45) 草場屯地：草場，積置草束之處。屯地，可爲屯種之地。此謂草場所在之屯地也。一說官家牧馬空閑之處，亦謂之草場，如本國之“箭串”。(增定駁稿議輯覽下：39b)
- (46) 大腿：“썬다리”。(增定駁稿議輯覽下：39b)
- (47) 見行事例：各部將合行事件陸續奏准施行，因聚印其文名曰“見行事例”，如本國之“續錄”。(增定駁稿議輯覽下：39b, 40a)

2.5 『奏議擇稿輯覽』과 『增定奏議擇稿輯覽』

『奏議擇稿』는 전하지 않는다. 안병희 (2007:123)에서는 최세진이 편찬하여(SIC!)²⁰⁾ 中宗에게 올린 『大儒大奏議』(별명 『賢儒奏議』)와 관련이 있다고 추정했다. 반면에 『中宗實錄』의 기록에 의하면 2권으로 구성된 『大儒大奏議』의 고문과 4권으로 구성된 『奏議擇稿』의 이문은 차이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奏議擇稿』의 원전 조사는

20) 본고에서는 『中宗實錄』에 나타난 기록을 통해 『大儒大奏議』가 최세진 본인의 저술이 아니라, 그가 국왕에게 진상한 책이라고 판단하였다. 『中宗實錄』에 등장하는 『大儒大奏議』의 ‘新撰哀集’은 명나라邵寶(1460-1527)가 편찬한 《大儒奏議》六卷을 바탕으로 만든 축약본, 즉 哀集 2권을 지칭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는 기록은 다음과 같다. [《中宗實錄》卷九十：“(五月十七日)副護軍崔世珍以《大儒大奏議》(雙行小註：二卷)、《皇極經世書說》(雙行小註：十二卷)進獻曰：‘《大儒大奏議》雖皆古文，然新撰哀集，宜人君所當觀鑑。《皇極經世書說》亦我國所無，敢獻。請印行，使人人皆得見之。’傳曰：‘知道。’仍傳于政院曰：‘崔世珍前日亦以關於治道之書(雙行小註：如《諺解》《孝經》《小學》、《訓蒙字會》、《四聲通解》等書)累進，今又來獻。雖在閑官，用心至勤，如此者不易得也。事大咨文，亦必與議爲之(雙行小註：世珍爲承文院提調)，其功豈少哉？況爲堂上亦久，特加階。且賜酒。’”(69a)]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삼는다.

전해진 『奏議擇稿輯覽』은 日本 東京 尊經閣文庫 소장의 『于公奏議輯覽』, 『駁稿輯覽』과 『奏議擇稿輯覽』을 해자 합본에 있다. 이 『奏議擇稿輯覽』이 모두 16장이고 총 4 권인데 다시 상, 하로 나누어서 8권으로 되어 있다. 『增定奏議擇稿輯覽』은 『奏議擇稿輯覽』의 증정본이다. 고려대학교 만송문고 소장의 『增定于公奏議輯覽』, 『增定駁稿輯覽』과 『增定奏議擇稿輯覽』 갑인자인 합본에는 『增定奏議擇稿輯覽』은 총 17장이고 분권은 을해자본의 그것과 같다. 『奏議擇稿輯覽』과 『增定奏議擇稿輯覽』의 차이점은 안병희(2007: 150-151)의 논의를 참조하면 된다.

『增定奏議擇稿輯覽』의 참고 서목은 『會典』, 『質正錄』, 『地理書』, 『至正條格』, 『歲時記』를 총 5종이 있다. 또한 『增定奏議擇稿輯覽』의 다른 주석, 다른 집람인 『吏文輯覽』, 『吏文續集輯覽』, 『于公奏議輯覽』, 『駁稿輯覽』의 내용도 참고하였다. 『增定奏議擇稿輯覽』에서 추출한 16세기 중세한국어 항목은 총 16개가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壽官: 將耆老人除授散官職事, 謂之壽官。如本國之“老人職”也。(增定奏議擇稿輯覽1上: 32a)
- (2) 挑濬夫: 挑, 撥也, 俗言“도도다”。濬, 通川也。此謂修掘河道之夫役人也。(增定奏議擇稿輯覽1上: 33b)
- (3) 綵麻: 綵, 音“耿”, 鄉名“어저귀”, 取其皮以作繩索。(增定奏議擇稿輯覽1上: 33b)
- (4) 豌豆: 豆名, 俗謂“江南太”。(增定奏議擇稿輯覽1上: 35a) “太”字
- (5) 芝麻: 本國俗言“真荏子”。(增定奏議擇稿輯覽1上: 35a)
- (6) 白三梭布肚: “삼싱무명비오로기”。(增定奏議擇稿輯覽1下: 36a)
- (7) 土黃: 公骨馬色也。(增定奏議擇稿輯覽1下: 46a)
- (8) 加耗柴蓆等項: 耗, 即本國“備耗”也。蓆, 蘆蓆也。凡鋪墊倉底, 必用柴草, 上用蓆。此謂將耗蓆等物折納銀兩也。(增定奏議擇稿輯覽2上: 37a)
- (9) 歇家: 即本國方言“主人家”也。(增定奏議擇稿輯覽2下: 38b)
- (10) 准兌: 准, 准數之准。兌, 方言“막다”。全連等既買未支軍糧, 而今截攬各處夏麥以充所買軍糧之數, 故云准兌。(增定奏議擇稿輯覽2下: 39a)
- (11) 在官散拘指揮: 散拘, 猶本國之“保放罪人”也。此謂指揮之犯罪者, 以其罪輕, 故今在官而保放也。(增定奏議擇稿輯覽2下: 39a)
- (12) 皮水斗: 水斗, 鄉言“드레”。此加“皮”字, 未詳。(增定奏議擇稿輯覽4上: 45a)
- (13) 邸報²¹⁾: 猶本國“京主人”所報也。(增定奏議擇稿輯覽4下: 46a)
- (14) 袞龍曳撒: 於前後兩肩俱織金爲龍紋段(段)子, 以爲“이삭直領”者也。(增定奏議擇稿輯覽4下: 46b)
- (15) 禿袖襖: 無袖衣, 猶本國“호수”, 亦女服也。(增定奏議擇稿輯覽4下: 46b)
- (16) 金條絲顏羊絨: 金條絲, 即本國“金刺絲”也。顏, 采色。顏羊絨, 指羊絨之染色, 蓋或青、或黑、或紅也。(增定奏議擇稿輯覽4下: 46b)

2.6 『比部招議輯覽』

『比部招議輯覽』의 원전인 『比部招議』은 한국본이 전하지 않는다. 중국에서는 『比部招議』가 전해지고 15세기말에 간행되었다. 比部 곧 刑部에서의 陳述書를 수록한 책이다. 『比部招議』의 학습서인 『比部招議輯覽』은 동국대학교 도서관 소장의 『增定吏文輯覽』, 『增定吏文續集輯覽』과 『比部招議輯覽』의 갑인자 합본에 남아 있다. 이 『比部招議輯覽』은 총 6장이고 상, 중, 하 3권으로 되어 있다. 『比部招議輯覽』은 증정본이 없고 마지막으로 주석한 집람으로 추정된다. 안병희(2007: 121)에 따르면 『比部招議輯覽』의 편찬자가 최세진이 아니라 魚叔權 등 다른 이문 학관들이 『輯覽凡例』에 의하여 같은 체제로 편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比部招議輯覽』은 다른 집람에 인용된 일이 없는 반면 여러 집람의 내용을 인용했다.

『比部招議輯覽』의 참고 서목은 『求政錄』, 『四聲通解』, 『醫書』, 『疏議』,

21)邸報는 京邸에서 本郡에 보내는 報告·通知이다. 新官(守令)의 赴任을 本郡에 알리는 것도 京邸에서 邸報로 한다. 崔承熙(2024:248)를 참조.

『風土記』, 『洗冤錄』, 『左傳』, 『質正錄』, 『礪志圖』, 『會典』 등 10 종이 있다. 그리고 『比部招議輯覽』의 다른 주석, 다른 집람인 『吏文輯覽』, 『于公奏議輯覽』, 『駁稿輯覽』, 『奏議擇稿輯覽』의 내용도 참고하였다. 『比部招議輯覽』에서 추출한 16세기 중세한국어 항목은 총 21개가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食氣類塌: 按《通解》, “類”與“噤”通, 鄉言“목줄뒤”. 按《醫書》, 人身有咽有喉, 喉在前通氣, 咽在後咽物, 二竅各不相麗, 即食、氣二類也。《洗冤錄》所謂“食系”“氣系”者, 亦此也。塌, 即坍塌之塌, 蓋因縊死, 故二類俱塌也。(比部招議輯覽上卷: 1a)
- (2) 頂隔: 障子謂之隔, 在上故曰“頂隔”, 本國所謂“던하방”。(比部招議輯覽上卷: 1b)
- (3) 木拐子: “拐”與“掛”通, 掛子, 猶鄉言“고드래”。(比部招議輯覽上卷: 2a)
- (4) 藕絲比甲: 藕絲, “우월段子”也。(比部招議輯覽上卷: 2a)
- (5) 褶子: “주름”。此謂有褶子之衣也。(比部招議輯覽上卷: 2b)
- (6) 麵筋: 以小麥屑為之, 猶本國所謂“절”。(比部招議輯覽上卷: 2b)
- (7) 拳腳: 漢人謂“足”為“腳”, 此言用拳及腳而打踢也。一說《駁稿》有“拳靴腳”之文, 解云: 漢話謂“되회”為“拳靴”。(比部招議輯覽中卷: 2b)
- (8) 骨骰: 骰, 音“投”。“雙陸쇠스”, 以骨為之。(比部招議輯覽中卷: 2b)
- (9) 做活: 活, 鄉言所謂“성녕”。婦人手藝、男子工作之事皆是。(比部招議輯覽中卷: 3a)
- (10) 共籌二十四根: 籌, 俗言“사슬”。蓋軍人賈宣等十一名該關月糧, 其籌共二十四根也。(比部招議輯覽中卷: 3a)
- (11) 絨褐: 鄉言“무즈”, 用毛之最毳者織成。(比部招議輯覽中卷: 3b)
- (12) 秫藿: 即本國所謂“唐黍”也。陶淵明種秫為酒, 大明高皇帝欲禁酒, 勿令種秫者, 此也。亦稱藿藿。(比部招議輯覽中卷: 3b)
- (13) 穢桶: 用木打造, 如本國“溺器”, 而其大如汲水桶。(比部招議輯覽中卷: 3b)
- (14) 卻開: 猶鄉言“베우다”, 與《駁稿》“支開”同義。(比部招議輯覽中卷: 4a)
- (15) 大隔子: 廳房隔扇, 猶本國之所謂“障子”也。(比部招議輯覽中卷: 4a)
- (16) 銀褐馬: 銀褐, “부희여흔빛”。(比部招議輯覽中卷: 4b)
- (17) 水牛皮底: 水牛皮之宜於靴底者也。底, 鄉言“창”。(比部招議輯覽下卷: 4b)
- (18) 鐵稍: 賊人所持之器具也, 略如本國之“빅딜에”。(比部招議輯覽下卷: 5a)
- (19) 南山牆豎櫃: 山牆, 見上卷解。豎櫃, 本國所謂“장”。此言戶部大廳南邊山牆前豎櫃也。(比部招議輯覽下卷: 5b)
- (20) 廬襟: 本國所謂“廣大회”。(比部招議輯覽下卷: 6a)
- (21) 驚嚇: “저히다”。漢人常用之語也。(比部招議輯覽下卷: 6a)

이상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1과 같다.

表1. 吏文諸書와 吏文諸書輯覽

	吏文諸書	輯覽 (16세기중엽 이전, 乙亥字本)	增定本 (16세기후반, 甲寅字本)	추출한 표제어	編撰者
1	『吏文』 4卷	17세기 覆刻木板本	『增定吏文輯覽』 3卷, 33張	卷二, 617	32
				卷三, 294	17
				卷四, 266	22
2	『吏文續集』 亡佚	17세기 覆刻木板本	『增定吏文續集輯覽』 1卷, 4張	一卷, 118	10
3	『少保于公奏議』 10卷	『于公奏議輯覽』 10卷 , 20張	『增定于公奏議輯覽』 1 0卷, 22張	卷一, 150	12
				卷二, 102	0
				卷三上, 68	0
				卷三下, 56	0
				卷四上, 60	4
				卷四下, 19	0
				卷五, 94	6
				卷六, 39	1
				卷七, 40	2
				卷八, 43	3
				卷九, 51	3

			卷十		卷十, 28	3	
4	『駁稿』 亡佚	『駁稿輯覽』 2卷, 17張	上卷	『増定駁稿輯覽』 2卷, 18張	上卷, 247	26	魚叔權
			下卷		下卷, 178	21	
5	『奏議擇稿』 亡佚	『奏議擇稿輯覽』 4卷, 16張	卷一上	『増定奏議擇稿輯覽』 4卷, 17張	卷一上, 116	6	
			卷一下		卷一下, 47	1	
			卷二上		卷二上, 67	1	
			卷二下		卷二下, 27	3	
			卷三上		卷三上, 78	0	
			卷三下		卷三下, 52	0	
			卷四上		卷四上, 67	1	
			卷四下		卷四下, 46	4	
6	『比部招議』 亡佚	없음		『比部招議輯覽』 3卷, 6張	上卷, 55	6	不詳

3. 吏文諸書輯覽의 한국어학적 고찰

3.1 표기법, 어원 및 형태적·통사적 특징에 따른 분류 및 분석

본 절은 吏文諸書輯覽에서 추출한 어휘와 구문을 중심으로, 표기법, 음운, 형태적·통사적 특징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한국어학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吏文諸書輯覽에서 추출한 어휘는 총 166개로, 표기 방식에 따라 한자로 표기된 어휘, 한글로 표기된 어휘, 그리고 한자와 한글이 並用된 형태로 표기된 어휘로 나눌 수 있다. 한자로 표기된 어휘는 어원에 따라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구분된다. 고유어는 훈독 어휘 4개와 이두 어휘 6를 포함하며, 한자어는 원칙적으로 음독 어휘로 총 59개이다. 외래어는 주로 몽골어에서 차용된 어휘로 차자표기로 기록되어 있으며, 총 6개를 포함하고 있다. 한글로 표기된 어휘는 고유어 69개, 한자어 10개, 외래어 6개로 구성되어 총 85개가 확인되었으며, 한글 표기에는 방점이 나타나지 않았다. 한자와 한글이 병용된 형태로 표기된 어휘는 한자어 5개와 연진계 언어(>만주어)에서 차용된 외래어 1개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 吏文諸書輯覽에서는 16세기의 한국어 구문 20개를 추출하였다. 다음 각 소절에서는 吏文諸書輯覽에서 추출한 어휘와 구문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각 어휘의 현대어 해석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우선적으로 참조한다: 『吏讀辭典』(2020), 『고어대사전』(2016), 『우리말 큰사전』(1992), 『中朝大辭典』(2002), 『敎學古語辭典』(2004). 만약 해당 어휘가 고어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표준국어대사전』(1999), 梁伍鎭(2002, 2015)을 참고한다. 또한 이두 어휘와 이두 문서에 나타난 특수 어휘의 해석은 崔承熙(2024)와 『이두자료 읽기 사전』(2001)의 내용을 활용한다.

3.1.1 한자로 표기된 어휘

3.1.1.1 고유어

우선, 훈독 어휘는 다음과 같다.

- (1) 江南太²²⁾ (강남콩/명사 > MSSK 강남콩) (増定奏議擇稿輯覽1上 : 45a)
^釋: 강남콩. 강남콩. 콩과에 딸린 한해살이 덩굴 풀. (『고어대사전』 1 : 449, ‘강남콩’, ‘감남콩’)
- (2) 真荏子 (참새/명사 > MSSK 참개) (増定奏議擇稿輯覽1上 : 45a)
^釋: 참개. (『고어대사전』 18 : 657, ‘진임’, ‘진임즈’ 수록)
- (3) 唐黍²³⁾ (당기장/명사 > MSSK 당기장) (増定駁稿輯覽下 : 37b;

22) 안병희(2007: 131)에 따르면 훈독 어휘로 판정된다. 고어 사전에서는 ‘강남태’로 읽히는 문증이 없다. ‘太’자의 한국어 어원에 대해 권인한(2019)에서 논의한 바가 있다.

比部招議輯覽中卷：3b)

釋: 당기장. ‘옥수수’의 열매. (『표준국어대사전』：1436, ‘당서’ 수록; 『고어대사전』 3：571-573, ‘기장’과 관련된 어휘 수록)

- (4) 箭串 (전꽃이/명사 > 전고디 > MSSK 전꽃) (增定駁稿輯覽下：39b)

釋: 전꽃이(箭-). 화살꽃이. (『고어대사전』 17：518, ‘전고디’ 수록)

또한, 이두 어휘는 다음과 같다.

- (5) 拷音 (拷/동사+音/말음첨기 > 다담/명사 > 다짐 > MSSK²⁴⁾ 다담~다짐) (增定吏文輯覽2:2b)

釋: 관아에서 백성에게 확실한 대답을 받는 일, 죄상을 기록한 문서. (『吏讀辭典』：48)

- (6) 格重 (결군~격군/명사 > MSSK 격군) (增定吏文輯覽2:3a)

釋: 뱃사람, 사공의 일을 돕던 水夫. 배에서 잡일을 하는 사람. (『고어대사전』 1：831; 『教學古語辭典』：77; 『中朝大辭典』 2: 958)

- (7) 行次枷 (형차칼/명사 > MSSK 행차칼) (增定吏文輯覽2:5a)

釋: 어원은 한자어 ‘行枷(형가)’이다. (『教學古語辭典』：1472; 『中朝大辭典』 7: 502)

- (8) 向前 (向/동사+前/명사, 앞전 > 아전 > MSSK 아전) (增定吏文輯覽2:8a)

釋: 전, 전번, 앞. (『吏讀辭典』：727)

- (9) 上下 (차하²⁵⁾/명사 > MSSK 차하) (增定吏文輯覽2:16b)

釋: 대어 주다. 관아에서 돈이나 물품을 내어 주는 일. (『吏讀辭典』：244)

- (10) 還上備耗 (환자비모²⁶⁾/명사 > MSSK 환자 비모) (增定駁稿輯覽上：27a; 備耗, 增定奏議擇稿輯覽2上：47a)

釋: 還上: 환자, 환곡. (崔承熙 2024: 390) 備耗: 미상. (사전 미수록)

3.1.1.2 한자어

- (1) 甘結 (간제? /명사 > MSSK 감결) (增定吏文輯覽4:31b, 32a)

釋: 上級官廳에서 下級官廳으로 내리는 文書로서, 命令·指示의 內容이 主가 된다. (崔承熙 2024: 216)

- (2) 去官書吏(거관서리/명사 > MSSK 거관서리) (增定于公奏議輯覽9:21a)

釋: 관직을 그만둔 서리. 去官: 벼슬아치가 임기가 차서 다른 벼슬자리로 옮김. 또는 그 벼슬아치. 書吏: 조선 시대에, 중앙 관아에 속하여 문서의 기록과 관리를 맡아보던 하급의 구실아치. (『고어대사전』 1：521, ‘去官廢職’ 수록; 『표준국어대사전』：227, 3364, ‘去官’, ‘書吏’ 수록)

- (3) 京主人 (경주신/명사 > MSSK 경주인) (增定奏議擇稿輯覽4下：46a)

釋: 中央과 地方의 연락기관으로 서울에는 全國 각 郡縣의 邸舍 즉 京邸가

23) 안병희(2007: 131)에 따르면 훈독 어휘 “기장”으로 판정된다.

24) MSSK=Modern Standard Seoul Korean 현대 표준 서울한국어.

25) 안병희(2007: 132)에서는 ‘차하’로 풀이하였다.

26) 안병희(2007: 132)에서는 ‘환자’로 풀이하였다.

- 設置되어 있었고, 京邸를 맡아 經營하는 者가 京主人이다. (崔承熙 2024: 439)
- (4) 恐煩 (공번/동사 > MSSK 공번) (增定吏文輯覽2:2b)
 釋: 번거롭게 청하거나 부탁하다. 폐끼칠까 두렵다. (사전 미수록)
- (5) 丘史債 (구스치? /명사 > MSSK 구사채) (增定吏文輯覽4:28b)
 釋: 월전(月錢). (『中朝大辭典』 8: 284, ‘月錢’ 수록;) 구스(邱史): 고려와 조선 때 임금이 종친 및 공신에게 특별히 팔려 준 관노비. (『고어대사전』 2 : 803)
- (6) 軍鋪 (군포/명사 > MSSK 군포) (吏文續集輯覽3b)
 釋: 군보. 군대가 주둔하는 곳. 작은 성. 조선 시대에, 대궐 밖에서 순라군이 머물러 있던 곳. (『고어대사전』 2 : 917; 표준국어대사전』 :721)
- (7) 金刺絲 (금츠스? /명사 > MSSK 금자사?) (增定奏議擇稿輯覽4下 : 56b)
 釋: 미상. 금선의 일종? (사전 미수록)
- (8) 老人職 (노인직/명사 > MSSK 노인직) (增定奏議擇稿輯覽1上 : 42a)
 釋: 나이든 사람이 담당한 관직. (사전 미수록)
- (9) 溺器 (노기/명사 > MSSK 요기) (比部招議輯覽中卷 : 3b)
 釋: 요강과 비슷한 기물. (사전 미수록)
- (10) 內地 (니지?/명사 > MSSK 내지) (增定吏文輯覽3:22b)
 釋: 변두리가 아닌 중심 지역. (『표준국어대사전』 : 1165)
- (11) 當番 (당번/동사 > MSSK 당번) (增定吏文輯覽3:24b)
 釋: 당직. (『고어대사전』 5 : 538, ‘당번ㅎ-’ 수록)
- (12) 長常²⁷⁾ (당상/부사 > MSSK 장상) (增定吏文輯覽4:28a)
 釋: 장상. 늘. 항상. (『고어대사전』 5 : 700)
- (13) 斗頓²⁸⁾ (두돈 ~ 두둔/동사 > MSSK 두둔) (增定吏文輯覽3:25b; 增定于公奏議輯覽8:19b; 增定駁稿輯覽上 : 25b)
 釋: 두돈하다. 두둔하다. 편들어 감싸 주거나 역성을 들어준다. 덮어 감싸다. 비호(庇護)하다. (『고어대사전』 6 : 318, 320, ‘두돈ㅎ-’, ‘두둔ㅎ-’ 수록)
- (14) 隊正 (디정/명사 > MSSK 대정) (增定于公奏議輯覽1:5a)
 釋: 고려 시대에 둔, 이군 육위의 단위 부대인 대(隊)의 우두머리. 종구품으로, 영(領)마다 40인씩 배속하였다. (『표준국어대사전』 : 1491)
- (15) 羅將 (라장/명사 > MSSK 나장) (增定駁稿輯覽下 : 37b)
 釋: 조선 시대 의금부의 하례. 칠발천역의 하나로 죄인을 문초할 때, 매 때리는 구실을 맡음. (『吏讀辭典』 p.119)
- (16) 錄事 (록스/명사 > MSSK 녹사) (增定吏文輯覽2:6a)
 釋: 여러 관서의 문부(文簿)를 모아 기록하고 선악(善惡)을 규명하는 일을 관장함. (『고어대사전』 6 : 166; 『中朝大辭典』 4: 709)
- (17) 里正 (리정/명사 > MSSK 리정 ~ 이정) (增定吏文輯覽2:2b)
 釋: 이정. 지방 행정 조직의 최말단인 이(里)의 책임자. (『고어대사전』 7 : 244)
- (18) 笠子 (림즈 ~ 입즈/명사 > MSSK 입자) (增定吏文輯覽2:6b)
 釋: 갓, 삿갓. (『표준국어대사전』 : 5071)

27) 안병희(2007: 130)에서는 ‘長常’을 ‘당상’으로 해독하였다.

28) 안병희(2007:130)에 따르면 중세한국어에서는 ‘斗頓’의 문증이 없다.

- (19) 飯饌 (반찬/명사 > MSSK 반찬) (增定于公奏議輯覽7:19a)
 釋: 반찬. (『고어대사전』 9 : 156)
- (20) 防納者 (방납자/명사 > MSSK 방납자) (增定吏文輯覽4:26b) , 防納 (방납 > MSSK 방납) (增定駁稿輯覽上 : 29b)
 釋: 방납: 조선 시대에, 하급 관리나 상인들이 공물을 백성을 대신하여 나라에 바치고 백성에게서 높은 대가를 받아 내던 일. 뒤에 폐단이 많아 광해군 때부터 대동법을 실시하였다. (『표준국어대사전』 : 2525, ‘防納’ 수록) 방납자: 조선 시대에 백성을 대신하여 나라에 바치고 백성에게서 높은 대가를 받아 내던 하급 관리나 상인들.
- (21) 白頭呈文 (백두정문? /명사 > MSSK 백두정문). (增定吏文輯覽2:1a)
 釋: 도장이 없는 呈文. (『中朝大辭典』 1: 127, 문중 문헌은 『增定吏文輯覽』 이다.)
- (22) 白象毛 (백상모 > MSSK 백상모) (增定于公奏議輯覽1:6b)
 釋: 상모: 병거지의 꼭지에다 참대와 구슬로 장식하고 그 끝에 해오라기의 털이나 긴 백지 오리를 붙인 것. 털상모와 열두발 상모가 있다 . (『표준국어대사전』 : 3277, ‘象毛’ 수록) 白象毛: 백색 상모.
- (23) 保放 (보방/명사 > MSSK 보방) (增定駁稿輯覽上 : 26b) ; 保放罪人 (보방죄인 > MSSK 보방죄인) (增定奏議擇稿輯覽2下 : 49a)
 釋: 보방죄인 : 보석된 죄인. 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피고인을 구류에서 풀어 주는 죄인. 보방: 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피고인을 구류에서 풀어 주는 일. (보방, 『고어대사전』 9: 749)
- (24) 伏招 (복초~복초/동사 > MSSK 복초) (增定吏文輯覽2: 9a)
 釋: 승복(承服). (『中朝大辭典』 8: 484, ‘招伏’ 수록; 『고어대사전』 9 : 842, ‘服招(복초/복초)ᄒᆞᆫ-ᄒᆞᆫ’ 수록)
- (25) 奉足 (봉족/명사 > MSSK 봉족) (增定吏文輯覽2:15a; 增定吏文輯覽4:31b)
 釋: 조선 시대에, 평민이나 천민이 출역(出役)할 경우 역사(役事)에 나가지 아니한 여정(餘丁)을 한두 사람 보내어 집안일을 도와주던 사람. (『고어대사전』 9 : 921)
- (26) 付囑 (부촉/동사 > MSSK 부촉) (增定吏文輯覽2:17b)
 釋: 꼬드김. 부추기다. (『中朝大辭典』 2: 831, 『고어대사전』 10 : 116-117, ‘부촉/부촉(咐囑)’ 수록)
- (27) 伺候 (사후/명사 > MSSK 사후) (增定于公奏議輯覽4上:12b)
 釋: 웃어른의 분부를 기다리는 일. (『표준국어대사전』 : 3176)
- (28) 射侯 (사후/명사 > MSSK 사후) (增定于公奏議輯覽5:15b)
 釋: 활을 쏠 때에 과녁으로 쓰는 사방 열 자 가량의 베. (『표준국어대사전』 : 3176)
- (29) 射廳 (사팅/명사 > MSSK 사칭) (增定吏文輯覽4:28a)
 釋: 습진(習陣)하는 곳. 활쏘기를 훈련하는 곳. (『中朝大辭典』 2: 831, ‘教場’ 수록; 『고어대사전』 11 : 429)
- (30) 書者 (서자? /명사 > MSSK 서자) (增定吏文輯覽4:26b)
 釋: 각 역에 속한 구실아치. (『표준국어대사전』 : 3403)
- (31) 先文 (선문/명사 > MSSK 선문) (增定吏文輯覽3:20a)

- 〔釋〕: 중앙의 벼슬아치가 지방에 출장할 때, 그곳에 도착 날짜를 미리 알리던 공문.
(『표준국어대사전』 : 3403)
- (32) 星主 (성주/명사 > MSSK 성주) (増定吏文輯覽2:10b)
〔釋〕: 신라 때부터 조선 전기까지 탐라의 우두머리를 이르던 말. (『中朝大辭典』 7: 485, 『吏文輯覽』 과 『吏文』 에 있는 문중만 있다. 『표준국어대사전』 : 3463)
- (33) 小釜 (쇼부/명사 > MSSK 소부) (増定吏文輯覽2:3b)
〔釋〕: 작은 가마솥. (사전 미수록)
- (34) 續錄 (속록/명사 > MSSK 속록) (増定駁稿輯覽下 : 39b, 40a)
〔釋〕: 고문서의 일종. ‘見行事例’. (사전 미수록)
- (35) 守門將 (수문장?/명사 > MSSK 수문장) (増定吏文輯覽2:5a)
〔釋〕: 각 궁궐이나 성의 문을 지키던 무관의 벼슬. (『표준국어대사전』 : 3836)
- (36) 收養 (수양/동사 > MSSK 수양) (増定駁稿輯覽上 : 33b)
〔釋〕: 남의 자식을 데려다 제 자식처럼 기르다. 거두어 기르다. (『고어대사전』 12: 290; 『中朝大辭典』 6: 309)
- (37) 信符 (신부/명사 > MSSK 신부) (増定于公奏議輯覽1:5a)
〔釋〕: 가) 조선 시대에, 대궐을 드나드는 일정한 하례(下隷)에게 병조에서 내어주던 문표. 나) 도성 문을 갑자기 열어야 할 일이 있을 때에, 대궐에서 문을 열게 하는 표지로 내리던 패. (『표준국어대사전』 : 3830)
- (38) 色房 (색방/명사 > MSSK 색방) (増定駁稿輯覽上:24b)
〔釋〕: 조선 시대 각 관아의 하급 부문. (사전 미수록)
- (39) 色掌 (색장/명사 > MSSK 색장) (増定吏文輯覽4:31b)
〔釋〕: 색장. 일정한 일에 대한 분공(分工)이나 책임 또는 해당 분공의 책임을 맡은 사람. (『고어대사전』 13 : 335)
- (40) 旅首 (려수~ 여수? /명사 > MSSK 여수) (増定于公奏議輯覽1:5a)
〔釋〕: 가) 500명 정도의 군대를 이끄는 대장. 잡직에 포함된다. 나) 중국 주나라 때에, 병사 500명으로 구성된 여(旅)의 우두머리. (『표준국어대사전』 : 4315, ‘旅帥’ 수록)
- (41) 牛角吹螺 (우각취라/명사 > MSSK 우각 취라) (増定吏文續集輯覽4a)
〔釋〕: 쇠뿔로 만든 나팔. (『中朝大辭典』 5: 155, 『고어대사전』 15 : 809, ‘牛角’ 수록; 『中朝大辭典』 1: 956, 『고어대사전』 19 : 632, ‘吹螺(취라)’ 수록)
- (42) 孟子 (우존/명사 > MSSK 우자) (増定吏文輯覽3:22a)
〔釋〕: 대야. (『中朝大辭典』 8: 142)
- (43) 入番承傳色²⁹⁾ (입번승전색/명사 > MSSK 입번승전색) (増定吏文輯覽2: 9a)
〔釋〕: 고려시대의 宦官이 담당하는 관직명으로서 ‘入直辭’라고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입번승전색’이라고 한다. 관아에 들어가 차례로 임금의 뜻을 전하는 色吏이다. ‘色吏’는 감영이나 군아에서 곡물을 출납하고 간수하는 일을 맡아보던 구실아치. (『中朝大辭典』 5: 941, ‘入直辭’ 수록; 『고어대사전』 16 : 889 ‘入番’, 12:710 ‘承傳’, 13: 330 ‘色吏(식리)’ 수록)
- (44) 尺文 (자문/명사 > MSSK 자문) (増定吏文輯覽4:27a)
〔釋〕: 관아에서 조세 따위를 받아들이고 발급하는 영수증. (『吏讀辭典』 : 695)

29) ‘色’에 대하여 이기문(1991: 153-156)에서는 논의한 바가 있다. ‘色’자는 訓讀일 가능성도 있다._

- (45) 狀啓 (장계? /명사 > MSSK 장계) (增定吏文輯覽2:8b, 9a)
 釋: 觀察史·兵使·水使 등 王命을 받들고 外方에 있는 臣下가 그 地域의 중요한 일을 國王에게 報告하거나 請하는 文書이다. (崔承熙 2024: 164)
- (46) 障子 (장즈/명사, 족즈 > MSSK 장자) (比部招議輯覽中卷: 4a)
 釋: 장지. 방과 방 상이, 또는 방과 마루 사이에 칸을 막아 끼우는 문. 미닫이와 비슷하나 운두가 높고 문지방이 낮다. (『고어대사전』 17: 215; 『中朝大辭典』 8:482)
- (47) 接待 (접디/동사 > MSSK 접대) (增定吏文輯覽3:22b)
 釋: 접대하다. (『中朝大辭典』 3: 914, 『고어대사전』 17: 657)
- (48) 足鎖(족쇄~족좌~족좌/명사 > MSSK 족쇄) (增定吏文續集輯覽1a)
 釋: 족쇄 (『教學古語辭典』: 1247)
- (49) 主便 (주변/동사 > MSSK 주편) (增定吏文輯覽3:18a)
 釋: 주편하다. 자기에게 편하도록 스스로 주장하다. (『고어대사전』 18: 276, ‘주편이’, ‘주편ㅎ-’ 수록) 안병희(2007:130)
- (50) 主人家 (주인가/명사 > MSSK 주인가) (增定奏議擇稿輯覽2下: 48b)
 釋: 주인, 주인님. (『中朝大辭典』 8:428; 주인 『고어대사전』 18: 252)
- (51) 津夫 (진부/명사 > MSSK 진부) (增定吏文輯覽4:26a)
 釋: 고려·조선 시대에, 관아에 속한 나룻배의 사공. (『표준국어대사전』: 5814)
- (52) 寸³⁰⁾ (촌/명사 > MSSK 촌)(四寸弟, 增定于公奏議輯覽4上:12b; 四寸兄, 增定駁稿輯覽上: 26a; 三寸叔, 增定駁稿輯覽上: 30b; 四寸兄, 增定駁稿輯覽下: 35a; 四寸 (> MSSK) (增定駁稿輯覽下: 37a)
 釋: 친족 관계의 멀고 가까움을 나타내는 단위. (『표준국어대사전』: 6098)
- (53) 推刷 (츄쇄/명사 > MSSK 추쇄) (增定吏文輯覽4:26b)
 釋: 살살이 조사하여 죄다 찾아냄. (『吏讀辭典』: 698)
- (54) 牌頭 (피두/명사 > MSSK 패두) (增定于公奏議輯覽10:22a)
 釋: 가) 패의 우두머리. 나) 조선 시대에, 형조에 속하여 죄인의 볼기 치는 일을 맡아 하던 사령. 다) 조선 시대에, 장용위에 속한 군사 50명을 거느리던 사람. (『표준국어대사전』: 6533) 패두. 장용위에 속한 군사의 인솔자. 대개 40~50 명의 군사를 인솔하였다. (『고어대사전』 20: 863; 『中朝大辭典』 5:215)
- (55) 牌字³¹⁾ (피지~피즈³²⁾/명사 > MSSK 패자) (增定駁稿輯覽上: 28a)
 釋: 패자. 피즈(牌子): 조선 시대에,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권한을 위임하던 공식 문서. 특히, 양반이 노비에게 금전 거래를 대신하게 하던 위임장을 이름. (『고어대사전』 20: 868, ‘牌子’ 수록) 牌子(兒): 패자(아). (『中朝大辭典』 5: 215,

30) ‘寸’자는 ‘等’자의 속자이다. 구결자에도 나타난다. ‘寸’자가 친족 관계의 어휘에서 사용하는 것은 한국어에서의 고유한 용법이다. 최세진은 『老朴集覽』에서 언급한 바가 있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房親: 『音義』云: “吾母與若母同宗伯叔所生。”今按, 吾母之父與若母之父為同生, 吾母與若母為四寸, 吾與若也為六寸兄弟. 漢人無稱“寸”之呼. 又《質問》云: “同姓伯叔兄弟之子女.” (老朴集覽·老乞大集覽上: 1-2)] 또한, ‘等’자의 속자인 ‘寸’자는 中唐의 敦煌殘卷P.3532 『慧超往五天竺國傳』(723-727)에 빈번히 나타났다.

31) 牌旨와 牌子에 대해 崔承熙(2024: 388)에서는 설명한 바가 있다. 본고에서는 牌字, 牌旨와 牌子는 서로 이표기이고 근대한국어에서 차용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2) 안병희(2007: 132)에서는 ‘피지’로 풀이하였다.

‘牌子(兒)’ 수록)

(56) 帖字 (테즈³³⁾/명사 > MSSK 테자~체자) (增定駁稿輯覽上 : 28a)

〔釋〕: 입춘이나 단옷날에 대문 또는 기둥에 써 붙이는 한문 글귀. ‘帖’자를 새긴 관인. 관아에서 이례를 채용할 때에 쓰던 임명장. (『吏讀辭典』 : 695-696)

(57) 紅象毛 (홍상모/명사 > MSSK 홍상모) (增定于公奏議輯覽1:6b)

〔釋〕: 상모: 병거지의 꼭지에다 참대와 구슬로 장식하고 그 끝에 해오라기의 털이나 긴 백지 오리를 붙인 것. 털상모와 열두발 상모가 있다. (『표준국어대사전』 : 3277, ‘象毛’ 수록) 紅象毛: 빨간색 상모.

(58) 火炮匠 (화포장? > MSSK 화포장) (增定吏文輯覽4:25b, 26a)

〔釋〕: 총, 포, 화약 따위를 만드는 일을 맡아 하던 사람. (『표준국어대사전』 : 6994) 火炮: 대포 따위처럼 화약의 힘으로 탄환을 내쏘는 대형 무기. (『中朝大辭典』 3: 559, ‘火炮’ 수록)

(59) 回示 (회시/명사 > MSSK 회시) (增定吏文輯覽4:26b, 27a; 增定吏文輯覽4:31b)

〔釋〕: 예전에, 죄인을 끌고 다니며 못사람에게 보이던 일. (『표준국어대사전』 : 7049) 회시. 화답. (『고어대사전』 21 : 604.)

3.1.1.3 외래어

(1) 加文羅[襜褕] (가문라? 드그레?/명사 > MSSK ?) (增定吏文續集輯覽3b) 몽골어 degelei.

〔釋〕: 복식어. 답호(襜褕)³⁴. ‘겔망’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中朝大辭典』 2:2, ‘襜褕’ 수록)

(2) 甘察色[茶褐] (감찰 빛~감찰색/명사 > MSSK 감찰색) (增定吏文輯覽3:22a) 어원 재확인.

〔釋〕: 다갈색(茶褐色). 고동색(古銅色). 紺茶色?(한자어일 가능성이 있다.)(『고어대사전』 1: 378, ‘감찰’, ‘감차할’, ‘감차빛’, ‘감찰빛’, ‘감찰옷’ 수록)

(3) 高都里[撥頭] (고도리/명사 > MSSK 고도리) (增定于公奏議輯覽5:15b) ■

〔釋〕: 高刀里箭. 樸頭. 고도리살. 끝이 뭉툭해서 연습용으로 사용하거나 새 따위의 동물을 산 채로 잡을 때 쓰는 화살. (『고어대사전』 2 : 162; 『中朝大辭典』 2: 921, ‘高刀里’; 『우리말 큰사전』 4: 4865, ‘고도리’ 수록) 몽골어: qodoli.

(4) 高羅元羅馬[黃花驪馬]³⁵ (고라윌라말/명사 > MSSK 고라윌라말) (增定吏文輯覽2:9b)

〔釋〕: 고라: 고라말. 등에 검은 털이 난 누런 말. 황마(黃馬). (『고어대사전』 2: 175, ‘고라말’, ‘고라말’, 수록) 몽골어 qula morin. 원라: 윌라말. 얼룩말. 털빛이 얼룩얼룩한 말. (『고어대사전』 2: 135, ‘윌라’, ‘윌라말’ 수록) 몽골어 재확인.

(5) 公骨[土黃]馬³⁶ (공골말/명사 > MSSK 공골말) (增定奏議擇稿輯覽1下 : 46a)

33) 안병희(2007: 132)에서는 ‘테지’로 풀이하였다.

34) ‘襜褕’는 『老朴集覽』에서 ‘搭護’로 확인된다. 예문은 다음과 같다. [比甲：衣之無袖，對襟為襜褕者曰“比甲”，即本國舊時褸。婦女亦依此制為短襖著之，亦曰“比甲”，通稱搭護。] (老朴集覽・朴通事集覽上 : 8 - 2) [搭護：『事物紀原』云：隋內官多服半臂，餘皆長袖。唐高祖減其袖，謂之半臂，即今背子也。江淮間或曰綽子，庶人競服之。今俗呼為搭護，드그레。] (老朴集覽・朴通事集覽上 : 8-2, 9-1)]

35) 안병희(2007: 130)에서는 “고라”와 “윌라”로 해독하였다. 이기문(1991:172)에서는 ‘가라말(黑馬)’, ‘고라말(黃馬)’, ‘가리운말(黑鬚馬, 海驪馬)’, ‘가리운손이말(黑鬚青馬)’ 등에 대해 논의한 바가 있다.

- 釋: 공골마. 황마(黃馬). 털빛이 누런 말. (『고어대사전』 2: 416, ‘공골말’ 수록)
 몽골어: gonggor morin.
 (6) 仇郎[栗色]馬³⁷⁾ (구·령말 > 굴형말 > 구령말/명사 > MSSK 구령말)
 (增定吏文輯覽3:19b, 20a)
 釋: 구령말. 밤색 말. (『고어대사전』 2: 752, ‘구령말’ 수록)

3.1.2 한글로 표기된 어휘

3.1.2.1 고유어

- (1) 갑다[價] (갑다 ~ 값다/동사 > MSSK 값다) (增定于公奏議輯覽9:20a)
 釋: ‘값다’의 ‘값-’을 달리 적은 꼴. 8종성법에 의한 표기이다. (『우리말 큰사전』 4 : 4840) 음운현상의 해석이 없다.
 (2) 갇진[帽珠] (갇진 > 갓진 > 갓썬/명사 > MSSK갓썬) (增定于公奏議輯覽9:21a)
 釋: 갓썬. (『우리말 큰사전』 4 : 4838)
 (3) 고드래[掛子]³⁸⁾ (고드래?/명사 > MSSK 도다래?) (增定于公奏議輯覽6:16b; 比部招議輯覽上卷: 2a)
 釋: 고무래. 掛木.(사전 미수록)
 (4) 골흙[衣帶] (골흙/명사 > 고름 > 골흙 ~ 고흙 > MSSK고름) (增定吏文輯覽2:3b)
 釋: (옷)고름. (『우리말 큰사전』 4: 4872 ‘골흙’만 수록)
 (5) ㄱ슴[料]³⁹⁾ (ㄱ슴/명사 > ㄱ음 > ㄱ음 > 가음 > MSSK 감)
 (增定吏文輯覽4:30a)
 釋: 감. (『우리말 큰사전』 4: 4914)
 (6) 날[寶石] (날/명사 > MSSK 날) (增定吏文輯覽4:29b)
 釋: 상감(象嵌). (『우리말 큰사전』 4: 4928)
 (7) 녀발지[左肋] (녀/명사+발지/명사> 녀팔지/녀팔치/녕팔지 > 엽팔지 > MSSK 엽팔지) (增定駁稿輯覽上: 33a)
 釋: 갈비. 어깨뼈. (『우리말 큰사전』 4 : 5058, ‘녀발치’, ‘녀팔지’, ‘녀팔치’ 수록)
 (8) 누르다[按住] (누르다/동사 > 누루다/누르다 > MSSK 누르다)
 (增定駁稿輯覽上: 33a)
 釋: 누르다. (『우리말 큰사전』 4 : 4947)
 (9) 다완다[儘] (다/부사+완다/동사 > MSSK 다와티다?) (增定吏文輯覽2:16a)
 釋: 부딪다. 다그치다. (『우리말 큰사전』 4: 4971)
 (10) 도도다[挑] (도도다/동사 > MSSK 돋우다, 돋다) (增定奏議擇稿輯覽1上: 43b)
 釋: 돋우다. (『우리말 큰사전』 4 : 4991)
 (11) 도르혀[倒]⁴⁰⁾ (도르혀~도르혀/부사 > 도로혀 > 도로켜 > MSSK 도리어)
 (增定吏文輯覽3:25a)
 釋: 도리어. (『우리말 큰사전』 4: 4993)
 (12) 등주리[簍] (등주리/명사 > 등조리> MSSK 등주리) (增定吏文續集輯覽2b)
 釋: 등주리. (『우리말 큰사전』 4: 5014)

36) ‘공골말’에 대하여 이기문(1991: 170)에서는 논의한 바가 있다. 안병희(2007)에서는 몽골어에서의 외래어로 판정하였다. 집람의 원문에서는 ‘國俗’이라는 표시어가 나타나지 않았다.

37) ‘구·령말’에 대하여 이기문(1991: 127)에서는 논의한 바가 있다. 또한 안병희(2007: 130)에서는 ‘구령’으로 판정되었다.

38) 양오진 (2002: 218)에서는 “고무래”로 판정하였다.

39) ‘ㄱ슴’은 『老朴集覽』에서 ‘ㄱ스·미’로 확인된다. 예문은 다음과 같다.
 [木植: 赤曰“木料”, 남·고·로: 성·녕홀 ㄱ스·미니. 詳見《字解》“料”字下. (老朴集覽·朴通事集覽 下: 3-1)]

40) ‘도르혀’는 『老朴集覽』에서 ‘도르혀’로 확인된다. 예문은 다음과 같다.
 [倒: 上聲, 仆也——倒了, 구으러디다; 又換也——倒馬, ㄹ ㄱ다; 又膽也——倒關字, 글월번엿ㅎ다; 又去聲, 反辭, 도르혀, 通作到. (老朴集覽·單字解: 3-1)]

- (13) 드레[水斗] (드레/명사> MSSK 두레) (增定奏議擇稿輯覽4上: 55a)
 釋: 두레박. (『우리말 큰사전』 4: 5012)
- (14) 들꺨[礦] (들꺨/명사 > MSSK 들꺨) (增定吏文輯覽4:31b)
 釋: 광석. (『우리말 큰사전』 4: 5014)
- (15) 들보[過梁] (들보/명사? > MSSK 들보) (增定駁稿輯覽下: 39a)
 釋: 대들보?. 들보? (사전 미수록?)
- (16) 마뭇오다[勾銷回繳] (마모로다/동사 > MSSK 마무리다) (增定吏文輯覽3:21a)
 釋: 마무리다. (『우리말 큰사전』 4: 5043)
- (17) 막다[兌] (막다/동사> MSSK 막다) (增定奏議擇稿輯覽2下: 49a)
 釋: 따지다. 대조하다. (『우리말 큰사전』 4: 5045)
- (18) 막즈르다[支吾] (막/동사+즈르다/동사 > 막즈르다 > 막즈르다 > MSSK 막지르다)
) (增定于公奏議輯覽1:10a)
 釋: 잘라 막다. 막아꿔다. 앞질러 가로막다. (『우리말 큰사전』 4: 5046)
- (19) 말암쇠[鐵木蒺藜] (말암/ 명사+쇠/명사> MSSK 마름쇠)
 (增定于公奏議輯覽5:16a)
 釋: 마름쇠. (『우리말 큰사전』 4: 5048)
- (20) 메옥[海菜] (머옥~머옥/명사> 메옥~메옥> MSSK 미역) (增定吏文輯覽2:3a)
 釋: 미역. (『우리말 큰사전』 4: 5053 ‘머옥’, ‘머옥’ 수록)
- (21) 모로미[好歹] (모로미/부사 > 모로매 > MSSK 모로미), (增定駁稿輯覽上: 32a)
 釋: 모름지다. 반드시. (『우리말 큰사전』 4: 5058)
- (22) 목줄뒤[頰/嚙] (목/명사+줄뒤/명사~목줄디~목줄뒤 > 목줄스디 > 목줄씨~목줄씨
 MSSK 목줄띠) (比部招議輯覽上卷: 1a)
 釋: 목줄띠. (『우리말 큰사전』 4: 5060-5061)
- (23) 무즈[絨褐] (무즈 /명사> MSSK 모자) (比部招議輯覽中卷: 3b)
 釋: 모직. (『우리말 큰사전』 4: 5066)
- (24) 물이다[追] (물이다/동사 > MSSK 물리다) (增定于公奏議輯覽9:20a)
 釋: 물리다. (『우리말 큰사전』 4: 5068)
- (25) 미시[粃] (미사/명사> MSSK 미시) (增定吏文輯覽4:31a)
 釋: 미숫가루. (『우리말 큰사전』 4: 5077)
- (26) 밀티다[推抵] (밀/동사+티다/동사 > MSSK 밀치다) (增定駁稿輯覽下: 39a)
 釋: 밀치다. (『우리말 큰사전』 4: 5079)
- (27) 발내다[高低唱價]⁴¹⁾ (발/명사+내다/동사 > MSSK 발내다)
 (增定吏文輯覽4:30b, 31a)
 釋: 호가(呼價)하다. (『우리말 큰사전』 4: 5095)
- (28) 벅디검[節次]⁴²⁾ (벅디검/명사 벼검디검, 벼검디검, 벼검지검 > MSSK ?)
 (增定吏文輯覽2:7b)
 釋: 차례로. (『고어대사전』 9:433)
- (29) 벼[鏢] (벼/명사 > MSSK 벼) (增定于公奏議輯覽1:2 b)
 釋: 벼. (『우리말 큰사전』 4: 5107)
- (30) 베우다[卻開, 支開] (베우다/동사 > MSSK 베우다?) (比部招議輯覽中卷: 3b)
 釋: 베다.. (사전 미수록)
- (31) 보십[犁] (보십/명사 > MSSK 보습) (增定于公奏議輯覽1:2 b;
 增定于公奏議輯覽4上:12a)
 釋: 보습. (『우리말 큰사전』 4: 5109)

41) 안병희(2007: 136)에서 ‘발내다’를 ‘발’과 ‘내-’[出]의 복합어어로 추정하였으나, 전체의 뜻은 물가를 멋대로 매겨 부르는 것으로 짐작되나 ‘발’의 뜻은 분명하지 않다.

42) 안병희(2007: 137)에서는 ‘벅디검’이라는 어휘가 중세한국어로 딱 곳에 예가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벅디검’의 뜻은 ‘연이어’이고, 중세한국어의 ‘버거’, ‘버근’[次]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32) 볼모[質當] (볼모/명사 > MSSK 볼모) (增定駁稿輯覽下: 38a)
 釋: 전장(典當)잡히다. (『우리말 큰사전』 4 : 5111-12, ‘볼모드리다’ 수록)
- (33) 부로[長解]⁴³⁾(부로/명사 > MSSK ?) (增定于公奏議輯覽1:7a)
 釋: 사람이나 물건을 압송하는 사람. (사전 미수록)
- (34) 불그믐[繒魚] (불/명사+그믐/명사 > MSSK?) (增定駁稿輯覽下: 34b)
 釋: 그믐의 한 가지, 축고. (『우리말 큰사전』 4 : 5118)
- (35) 뷔트다[扭] (뷔틀다~뷔트다/동사 > MSSK 비틀다) (增定駁稿輯覽上: 34a)
 釋: 비틀다 (『우리말 큰사전』 4 : 5121)
- (36) 불수[起數]⁴⁴⁾ (불수/명가 > MSSK 발수~벌수?) (增定吏文續集輯覽3a)
 釋: 물건의 건수(件數) 및 횟수. (사전 미수록)
- (37) 비딜에[鐵稍] (비딜에/명사 > MSSK ?) (比部招議輯覽下卷: 5a)
 釋: 미상. (사전 미수록)
- (38) 비비다[擦] (비비다/동사~비비다~씨비다/동사 > MSSK 비비다)
 (增定駁稿輯覽上:25a)
 釋: 비비다. (『우리말 큰사전』 4 : 5129)
- (39) 빈혀[掠頭] (빈혀/명사 > MSSK 비녀) (增定駁稿輯覽下: 39a)
 釋: 비녀. (『우리말 큰사전』 4 : 5131)
- (40) 븐드다[楸採] (븐드다~ 븐/동사+들다/동사 > MSSK 븐들다)
 (增定駁稿輯覽下: 34b)
 釋: 븐들다. (『우리말 큰사전』 4 : 5124)
- (41) 사슬[籌] (사슬 > 사슬/명사 > MSSK 사슬) (比部招議輯覽中卷: 3a)
 釋: 서표. 제비. 표찰 따위로 쓰이는 대쪽. (『우리말 큰사전』 4 : 5156)
- (42) 사횃대[竹篙] (사횃/관?+대/명사 > 사횃대 > 사화스대~ 사활대 > 사엇대 > 사아새 > MSSK 상앗대) (增定駁稿輯覽下: 35/a)
 釋: 상앗대. (『우리말 큰사전』 4 : 5157-5158)
- (43) 삼싱무명비오로기[白三梭布肚]⁴⁵⁾ (삼싱무명 비오로기/명사? > MSSK삼생 무명 배오로기) (增定奏議擇稿輯覽1上: 46a)
 釋: 삼생 무명 배오로기. (사전 미수록)
- (44) 솟든다[攢] (솟/동사+든다/동사> MSSK솟단다), (增定駁稿輯覽上: 30b)
 釋: 솟아 단다. (『우리말 큰사전』 4 : 5184)
- (45) 서흐다[剗] (서흐다 ~ 사흘다?/동사 > MSSK 서흐다?) (增定吏文續集輯覽1b)
 釋: 꺾다. 썰다. (『우리말 큰사전』 4: 5158, 5169, ‘사흘다’, ‘서흐레’ 수록)
- (46) 성녕[活]⁴⁶⁾ (성녕/명사 > MSSK 성녕) (比部招議輯覽中卷: 3a)
 釋: 성녕.일. (『우리말 큰사전』 4 : 5177)
- (47) 시김[票帖]⁴⁷⁾ (시김/명사 > MSSK 시김) (增定駁稿輯覽上: 28a)
 釋: 배자(牌字) 같은 것. (『고어대사전』 12 : 777, 『駁稿輯覽』의 문증만 있다.)
- (48) 신발값[腳費]⁴⁸⁾ (신발값~신발값/명사 > MSSK 신발값)
 (增定于公奏議輯覽10:22a)
 釋: 신발값. 심부름하는 값으로 주는 돈. (『표준국어대사전』 : 3829)

43) 안병희(2007: 135)에 따르면 ‘부로’는 사람이나 물건을 압송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외래어일 가능성이 있다.

44) 안병희(2007: 135)에서는 ‘불수’가 ‘件數’를 뜻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45) 안병희(2007: 135)에 따르면 석새 무명의 배[復] 포대기를 가리킨다. ‘비’와 ‘보로기’의 복합어로서 ‘비오로기’로 되었다.

46) ‘성녕’은 『老朴集覽』에서 ‘성녕’과 상성조인 ‘:성녕’으로 확인된다. 예문은 다음과 같다. [生: 生的, 양주; 生活, 성녕; 又甚也; 又語助——怎生. (老朴集覽•單字解: 7-2) 【汪維輝按: 《朴通事諺解》所附《單字解》無。】], [生活: :성녕. (老朴集覽•累字解: 2-2)]. ‘성녕’은 한자어일 가능성도 있다.

47) 안병희(2007: 135)에 의하면 ‘시김’은 앞에서 제시된 ‘帖字’, ‘牌字’와 비슷한 성격으로서 임무 부여의 문서를 가리키는 것이다.

48) 안병희(2007: 136)에 의하면 ‘신발값’은 물품을 운반하는 일꾼의 비용을 가리킨다. 중세한국어에서는 ‘신발’이 복합어이다.

- (49) 솔의여[一向] (솔의여 > 솔기야~스리야~스리여~솔리야 /부사 > MSSK 사례여?)
(增定吏文輯覽2:12a)
[釋: 그저. 다만. 아직. (『우리말 큰사전』 4: 5213)]
- (50) 쉼다리[大腿] (쉼/관+다리/명사 > MSSK ?) (增定駁稿輯覽下: 39b)
[釋: 허벅지. (『우리말 큰사전』 4 : 5203)]
- (51) 아래오래[下邊, 下人]⁴⁹⁾ (아래/명사+오래/명사 > MSSK 아래 오래)
(增定于公奏議輯覽1:2a, 2b)
[釋: 낮은 가문의 출신자. 하인. (『우리말 큰사전』 4: 5236, 5279, ‘아래’, ‘오래’ 수록)]
- (52) 어저귀(𪎮) (어저귀/명사 > 어자귀 ~ 어즈귀 > MSSK 어저귀)
(增定奏議擇稿輯覽1上: 43b)
[釋: 어저귀. (『우리말 큰사전』 4 : 5262)]
- (53) 엿(糖) (엿/명사 > MSSK 엿) (增定駁稿議輯覽下: 36a)
[釋: 엿. (『우리말 큰사전』 4 : 3276)]
- (54) 우여니아니[不徒尔] (우여니아니/? > MSSK ?) (增定吏文輯覽3:25b)
[釋: 미상. 우연히 아니? (사전 미수록)]
- (55) 이미셔(리)⁵⁰⁾ ~ 이므셔리[一發] (이 · 미 · 셔~이미셔(리)~이므셔리~/부사 > MSSK 이미?) (增定于公奏議輯覽1:2a, 增定駁稿輯覽下: 34b)
[釋: 곧바로. (『教學古語辭典』 1161-61, ‘이 · 미’, ‘이미셔’, ‘이 · 미 · 셔’ 수록)]
- (56) 자르[口俗] (자르/명사 > 잘~잘 > 짧~짧 > MSSK 자루) (增定駁稿輯覽上: 33a)
[釋: 자루. (『우리말 큰사전』 4 : 5323)]
- (57) 조[穀子] (조~종/명사 > MSSK 조) (增定駁稿輯覽下: 35b)
[釋: (곡식)조. (『우리말 큰사전』 4 : 5335)]
- (58) 조르다[賴] (조르다/동사~조르다 > 조로다 ~ 줄오다 > MSSK조르다),
(增定駁稿輯覽上: 30a)
[釋: 조르다. 보채다. (『우리말 큰사전』 4 : 5335)]
- (59) 좌유[行] (좌유/명사 > MSSK?) (增定吏文輯覽4:30b)
[釋: 미상. (업소)行. (사전 미수록)]
- (60) 저희다[驚嚇] (저희다/동사 > 저히다 > MSSK 저히다) (比部招議輯覽下卷: 6a)
[釋: 위협하다. (『우리말 큰사전』 4 : 5327)]
- (61) 점[麵筋] (점/명사 > MSSK 점) (比部招議輯覽上卷: 2b)
[釋: 글루텐(gluten). (『우리말 큰사전』 4 : 5329, ‘저므시리조’, ‘저므시리초조’ 수록)]
- (62) 주름[褶子] (주름/명사 > 줄음~주름~줄음~조름 > MSSK 주름)
(比部招議輯覽上卷: 2b)
[釋: 주름. (『우리말 큰사전』 4 : 5342, ‘주름’, ‘주름’ 수록)]
- (63) 지다[攀指] (지다?/동사 > MSSK 지다?), (增定駁稿輯覽上: 29a)
[釋: (타인을) 지적하다. (『우리말 큰사전』 4 : 5351, ‘자다’의 다의어는 4개가 있다.)
- (64) 집채[照] (집채/명사 > MSSK ?) (增定吏文輯覽4:26a)
[釋: 미상. 照. (사전 미수록)]
- (65) 집계[鐵鈴] (집계/명사 > MSSK 집계) (增定吏文輯覽4:28a)

49) 안병희(2007: 135)에 따르면 ‘오래’는 ‘門’을 뜻하고 ‘아래오래’는 ‘出身’ ‘門閥’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50) 안병희(2007: 136)에서는 ‘이미셔’로 판독하였고 ‘-리’의 탈자로 보았고 원전에서 보이는 墨書 ‘-리’가 나중에 기입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안병희(2007: 137)에서는 ‘이미’와 ‘이므’의 혼동이 특이하다고 하였고 『老朴集覽·累字解』에 나타난 ‘一發’의 주석을 인용하였다. 실지로는 방점이 있는 『老朴集覽·累字解』 ‘이 · 미 · 셔’가 두 번 나타났다. ‘이미셔리’, ‘이므셔리’, ‘이 · 미 · 셔’는 서로 이형태이다. 예문은 다음과 같다. [一就: 이 · 미 · 셔, 又 肅 · 씩. (老朴集覽·累字解: 1-2)]

[一發: 肅 · 씩; 又 이 · 미 · 셔; 又 · 칩어. (老朴集覽·累字解: 1-2)]

釋: 집게. (『우리말 큰사전』 4: 5356)

- (66) 즈름[牙] (즈름/명사 > 줄음 > MSSK 주름) (增定吏文輯覽4:30b)

釋: 주름. (『우리말 큰사전』 4: 5347)

- (67) 찰찰[挨] (찰찰/부사 > MSSK 찬찬) (增定吏文輯覽2:15a)

釋: 찬찬히? (『우리말 큰사전』 4: 5376)

- (68) 치[舵] (치/명사 > 티 > MSSK 키) (增定吏文輯覽2:13b)

釋: 키. (『우리말 큰사전』 4: 5373)

- (69) 창[底]⁵¹⁾ (창/명사 > MSSK 창) (比部招議輯覽下卷: 4b), 휘창[底]
(휘창~휘청~휘창 > MSSK 휘창), 신창[底] (신창 > MSSK 신창)
(增定駁稿輯覽上: 32b),

釋: 바닥. 신바닥. 휘창: 靴底子 (『우리말 큰사전』 4 : 5413, ‘휘창’ 수록) ; 신창
(『우리말 큰사전』 4 : 5206); 창. (『우리말 큰사전』 4 : 5366)

3.1.2.2 한자어

- (1) 당부하다[責]⁵²⁾ (당부하다/동사 > MSSK 당부하다) (增定吏文輯覽2: 5a)

釋: 당부하다. (『우리말 큰사전』 4 : 4976)

- (2) 보라울[骨朵] (보라/명사+울/명사> MSSK 바라울?) (增定于公奏議輯覽5:15b;
增定駁稿輯覽下: 35b)

釋: 바라. 鉢羅~哼囉? (『우리말 큰사전』 4: 5091, ‘바라’ 수록)

- (3) 보피[潑] (보피/명사 > MSSK 보피) (增定于公奏議輯覽5:14b)

釋: 발피. 潑皮. (『우리말 큰사전』 4 : 5110, ‘보피라오’, ‘보피랍다’, ‘보피로오’,
‘보피롭다’, ‘보피하다’ 수록)

- (4) 사발[碗子] (사발/명사 > MSSK 사발), (增定駁稿輯覽上: 30a)

釋: 사발. 그릇. 沙鉢. (『우리말 큰사전』 4 : 5156)

- (5) 심[線] (심/명사 > MSSK 심) (增定于公奏議輯覽5:16a)

釋: 심(心).심지. (『우리말 큰사전』 4: 5208)

- (6) 장[堅櫃] (장/명사> MSSK 장) (比部招議輯覽下卷: 5b)

釋: 장(槓). 농장. (『우리말 큰사전』 4 : 5322)

- (7) 턱하방[頂隔] (턱하방/명사 > MSSK ?) (比部招議輯覽上卷: 1b)

釋: 천장판.頂隔. 障子. 天花板? (사전 미수록)

- (8) 호슈[無袖衣]⁵³⁾ (호슈/명사> MSSK ?) (增定奏議擇稿輯覽4下: 56b)

釋: 복식어.套袖? 鶴袖? (사전 미수록)

- (9) hing역[痘瘡](hing역/명사> MSSK 행역) (增定于公奏議輯覽4上:11b)

釋: 두창. 천연두. 마마. 行疫. (『고어대사전』 21 : 1112)

- (10) 희무로[黑綠] (희무로 > MSSK 흑목록?) (增定吏文輯覽3:22a)

釋: 黑墨綠. 검정과 초록의 간색(間色). 섯빛. (『우리말 큰사전』 4 : 5417)

3.1.2.3 외래어

- (1) 걸망[搭連] (걸망/명사> MSSK 걸망?) (增定吏文輯覽3:22a)

釋: 복식어, 미상. 외래어일 가능성이 있다. (사전 미수록)

- (2) 고로[綾] (고로/명사> MSSK 고로) (增定吏文輯覽3:22a)

51) 근대한어에서 차용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재확인 필요.

52) ‘당부하다’는 『老朴集覽』에서 ‘당·부·하·다’로 확인된다. 어원은 한자어 ‘當付’ 일 가능성이 크다.예문은 다음과 같다. [分付: 맞다·다; 又당·부·하·다. (老朴集覽·累字解: 2-1)]

53) 『老朴集覽』에서 ‘丟袖’에 대한 해석이 확인된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丟袖: 《音義》云: ·스·미조쳐: 내브·틴갓·웃. (老朴集覽·朴通事集覽下: 1-1)]

〔釋〕: 능(綾) (『우리말 큰사전』 4: 4866)

- (3) 노연[那顏]⁵⁴⁾ (노연/명사 ~ 녀연 > MSSK 노연) (增定吏文輯覽2:17b; 增定于公奏議輯覽1:3a)

〔釋〕: 웃어른. 상전(上典). (『우리말 큰사전』 4 : 4943) 몽골어: noyan.

- (4) 되회[拳靴] (되회/명사 > MSSK ?) (比部招議輯覽上卷 : 2b)

〔釋〕: 신발의 일종. (사전 미수록)

- (5) 모스래[麻搭]⁵⁵⁾ (모스래/명사 > MSSK ?) 吏文續集輯覽3b)

〔釋〕: 소화 기구. (사전 미수록)

- (6) 바오달터[營盤]⁵⁶⁾ (바오달/명사 +터/명사> MSSK 바오달터) (增定于公奏議輯覽10:21b)

〔釋〕: 진(陣), 下營, 軍營. (『우리말 큰사전』 4: 5092, ‘바오달’ 수록) 몽골어: bagudal.

3.1.3 한자와 한글의 並用으로 표기된 어휘

3.1.3.1 한자어(혼성어?)

- (1) 廣다회[匾襟]⁵⁷⁾ (광다회/명사 > MSSK ?) (比部招議輯覽下卷 : 6a)

〔釋〕: 미상. (사전 미수록) ‘다회’는 고유어?

- (2) 納稅주비[糧頭]⁵⁸⁾ (납세주비/명사 > MSSK ?) (增定駁稿輯覽上 : 27a)

〔釋〕: 미상. 납세의 統首. 矣. (사전 미수록)

- (3) 雙陸쇠수[骨骰] (쌍륙쇠수/명사 > MSSK 쌍륙쇠자) (比部招議輯覽上卷 : 2b)

〔釋〕: 雙陸鎖子. 쌍륙(雙六): 놀이의 하나. 여러 사람이 편을 갈라 차례로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사위대로 말을 써서 먼저 궁에 들여보내는 놀이이다. (『표준국어대사전』 : 3924, ‘雙六’ 수록) ‘鎖子’ (사전 미수록)

- (4) 우월段子[藕絲] (우월단자/명사 > MSSK 우월단자?) (比部招議輯覽上卷 : 2a)

〔釋〕: 비단의 한 종류. (사전 미수록)

- (5) 이삭直領[拽撒] (이삭/衣撒~曳撒~拽撒/명사+딕령/명사 > 이삭 딕령 > MSSK ?) (增定駁稿輯覽上:24b; 增定奏議擇稿輯覽4下 : 56b)

〔釋〕: 직령의 한 가지. 조선 시대에 무관이 입던 웃옷. 깃이 곧고 뺏뺏하며 소매가 넓다. (『우리말 큰사전』 4: 5306; 『표준국어대사전』 : 5793 ‘직령’) ‘이삭(衣撒~曳撒~拽撒)’의 어원은 미상.

3.1.3.2 외래어

- (1) 驄부로마[靑沙驪馬]⁵⁹⁾(총?청부로말 ~ 총부루말/명사> MSSK 총부로말) (增定吏文輯覽3:22a)

〔釋〕: ‘부로마’은 부루말, 紅紗馬를 가리킨다. (『우리말 큰사전』 4: 5114, ‘부루말’ 수록) 만주어: burulu (Norman 2013: 48; 滿韓辭典: 125⁶⁰⁾).

54) ‘노연’에 대하여 이기문(1991: 21)에서는 논의한 바가 있다.

55) ‘모스래’에 대하여 안병희(2007: 136)에서는 한 소화 기구의 이름을 가리키는 외래어로 판정하였다.

56) ‘바오·달’에 대하여 이기문(1991: 130)에서는 논의한 바가 있다.

57) 이기문(1991: 176)에서는 ‘몬다회’에 대하여 논의한 바가 있다. ‘몬다회’와 ‘廣다회’에 나타난 ‘다회’가 관련이 있는지 추후의 과제로 삼는다.

58) 안병희(2007: 135)에서는 ‘주비’는 이두의 ‘矣’인데 『이두편람』에서 “官物斂散之時, 統首謂之矣”(行用吏文)라 한 단어라고 하였다.

59) ‘부로마’에 대하여 이기문(1991: 174-175)에서는 논의한 바가 있다. 그러나 원문에 나타난 ‘江紗馬’은 ‘紅紗馬’의 잘못 표기로 보아야 한다. ‘驄부로마’의 “驄”자는 “鬃”자의 이표기일 가능성이 있다.

60) Norman (2013: 48)에서는 “a house having mixed red and white hair”라고 하였다. 李勳(2017: 125)에서는 ‘burulu’는 “부루말, 紅沙馬”이고, ‘burulu morin’은 “부루말, 紅沙馬, 붉은빛과 흰빛의 털이 섞여 난 말”이라고 하였다. 만주어 ‘burulu’는 몽골어의 차용어이다. 몽골어: bugurul > buural.

3.1.4 구문

- (1) 골홈과 긴과[衣帶] (골홈~골홈 ~고홈/명사+과/조사+긴/명사+과/조사 > MSSK 고름과 긴) (增定駁稿輯覽上: 32a)
 釋: 고름과 긴. (『우리말 큰사전』 4: 4872, 4907 ‘골홈’, ‘긴’ 수록)
- (2) 그 앞피[根前]⁶¹⁾ (그 앞피 > 그 앞의> MSSK 그 앞) (增定吏文輯覽2:5b)
 釋: 그 앞에. (『우리말 큰사전』 4: 4872 ‘앞’만 수록)
- (3) 누를빋기브르쁘다[斜睜] (누를 빋기 브르쁘다 > 누를 빋기 브릅쁘다~브릅쁘다 > 누를 빋기 브릅쁘다~부릅쁘다~부릅쁘다 > MSSK눈을 빋기 부릅쁘다) (增定駁稿輯覽下: 35a)
 釋: 눈을 가로로 부릅쁘다. (『우리말 큰사전』 4: 5132, 5122, ‘빋기다’, ‘브르쁘다’ 수록)
- (4) 뇌닐위노캐ㅎ다[激惱] (뇌닐위노캐ㅎ다 > MSSK 뇌닐위 놓게 하다) (增定于公奏議輯覽8:19b)
 釋: 뇌를 이르게 놓게 하다. 화나게 하다. (『우리말 큰사전』 4: 4954, 4946, ‘니르위다’, ‘놓다’)
- (5) 더눔[那廝] (더/대명사+눔/명사 > MSSK 저눔) (增定吏文輯覽2:15b)
 釋: 저눔. (더, 『우리말 큰사전』 4: 4987; 눔 『우리말 큰사전』 4: 4945)
- (6) 더저긔[那間] (더/대명사+적의/명사 > 더뻑? > 저때 > MSSK 저 때) (增定于公奏議輯覽8:19b)
 釋: 저 때. (『우리말 큰사전』 4: 4988, ‘더적의’, ‘겨제’, ‘더적’ 수록)
- (7) 두어라[罷] (두/동사+어라/어미> MSSK두어라) (增定于公奏議輯覽1:6a)
 釋: 두라. (두다, 『우리말 큰사전』 4: 5008)
- (8) 보라미라[值當] (보람/명사+이라/어미 > MSSK보람이라) (增定吏文續集輯覽1a)
 釋: 보람이 있다. 할만하다. 할 맛이 있다. (『우리말 큰사전』 4: 5108, ‘보람’ 수록)
- (9) 부희여훑빋[銀褐] (부희여한/관+빋/명> MSSK부연 빋) (比部招議輯覽中卷: 4b)
 釋: 부연 빋. (『우리말 큰사전』 4: 5117, ‘부희여ㅎ다’, ‘부희다’수록)
- (10) 耗糧之數 흠븍시 맞게 錯寫ᄒᆞ료[恰好錯寫者]⁶²⁾ (耗糧之數 흠봏이 맞게 錯寫ᄒᆞ료 > MSSK ?) (增定駁稿輯覽上: 27b)
 釋: 모량지수 적당히(하나만이?) 맞게 착서하료.
- (11) 소느로 위쁘다[挖掘]⁶³⁾ (소느로/명사+조사+ 위쁘다/동사 > MSSK 손으로 위팔다?) (增定于公奏議輯覽1:7a)
 釋: 손으로 팔다.
- (12) 올모노타[下套子] (올모/명사+노타/동사 > MSSK올모 놓다) (增定吏文續集輯覽1a)
 釋: 올모를 놓다. 올모: 올무. (『우리말 큰사전』 4: 5283, ‘올모’ 수록)
- (13) 이눔[這廝] (이/대명사+눔/명사 > MSSK 이눔) (增定吏文輯覽2:17a)
 釋: 이눔. (이, 『우리말 큰사전』 4: 5303; 눔 『우리말 큰사전』 4: 4945)
- (14) 이부리쏘룬ᄒᆞᆫ 눔[這尖嘴] (이/대+부리/명사+ 쏘룬ᄒᆞᆫ/관+눔/명사 ~ 이 부리 쏘룬ᄒᆞᆫ

61) ‘앞피’는 『老朴集覽』에서 두 번 나타났다. 예문은 다음과 같다. [底: 下也——底下, 아래; 又本也——底薄, 밑글월; 又語助——根底, 앞피; 又손디; 又與“的”字通用。 (老朴集覽•單字解: 1-2)] [根底: 앞·피, 比“根前”稍卑之稱。 (老朴集覽•果字解: 2-1)]

62) 안병희(2007: 137)에서는 ‘흠븍시’가 ‘적당히’를 뜻하는 것으로 추정될 뿐이라고 언급하였다.

63) 안병희(2007: 136)에 따르면 ‘위쁘다’는 동사 어간 ‘위-’[穿]와 동사 어간 ‘쁘-’[挖]의 복합어이고 동사 ‘위-’[穿]는 아주 드문 단어이다.

吏文諸書輯覽에 나타난 어휘 중에 ‘丘史債’, ‘溺器’, ‘伏招’, ‘射廳’, ‘星主’, ‘小釜’, ‘續錄’, ‘色房’, ‘旅首’, ‘入番承傳色’, ‘寸’, ‘高都里’, ‘高羅元羅馬’, ‘公骨馬’, ‘仇郎馬’, ‘베우다’, ‘볼모’, ‘부로’, ‘불수’, ‘서호다’, ‘시김’, ‘아래오래’, ‘점’ 등은 16세기의 회귀한 어휘로 볼 수 있다. 그리고 ‘格軍’, ‘加文羅’, ‘甘察色’, ‘고드래’, ‘들보’, ‘벽디검’, ‘삼싱무명비오로기’, ‘춘춘’, ‘창’, ‘보라울’, ‘턴하방’, ‘호슈’, ‘겔망’, ‘고로’, ‘되회’, ‘모스래’, ‘廣다회’, ‘納稅주비’, ‘우혈段子’의 ‘우혈’, ‘이삭直領’의 ‘이삭’, ‘驄부로馬’의 ‘驄’, ‘耗糧之數 흙부시 맞게 錯寫호료’의 ‘흙부시’, ‘흙모듬’의 ‘모듬’ 등의 어휘의 어원 연구, 그리고 미상 어휘인 ‘備耗’, ‘金刺絲’, ‘비딜에’, ‘우여니아니’, ‘좌쥬’, ‘집채’ 등은 앞으로의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넷째, 吏文諸書輯覽에서는 16세기 중세한국어의 통사적 특징이 확인된다. 공동격인 ‘A과 B과’는 ‘골홈과 긴과’에서 나타났다. 목적격 ‘을’은 ‘누늘빚기브르쁘다’에서, 도구격 ‘로’는 ‘소노로 위쁘다’와 ‘즈름길로 뽏다’에서 관찰되었다. 연결어미는 ‘뉘닐워노캐호다’와 ‘지혀서비비다’에서 보인다. 종결어미는 ‘똥어란’, ‘보라미란’, ‘耗糧之數 흙부시 맞게 錯寫호료’에서 확인된다.

4. 나오며

본고는 최세진의 마지막 저술인 吏文諸書輯覽을 서지학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교감하였으며, 이 자료에 나타난 16세기 한국어 어휘와 구문을 추출하여 한국어학적으로 분석하였다. 제2절에서는 서지학적 기초 작업으로서 吏文諸書輯覽의 종류, 편찬 목적과 간행 경위, 판본 간의 관계, 체제, 참고 서목 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16세기 중세한국어 자료를 추출하였다. 제3절에서는 吏文諸書輯覽에 나타난 16세기 중세한국어 어휘와 구문을 중심으로, 표기법, 음운, 형태 및 통사 등 한국어학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는 최세진의 해박한 이문 지식과 조선 시대 이문 학습에 기여한 공적을 한 층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吏文諸書輯覽의 연구와 관련하여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日本 東京에 있는 尊經閣文庫에 소장된 『于公奏議輯覽』, 『駁稿輯覽』, 『奏議擇稿輯覽』을 해자 합본을 직접 조사하고 대교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아울러 여러 吏文 원전과 吏文諸書輯覽 판본을 조사하고 교감하여, 다양한 판본에서 나타나는 내용상의 차이점을 규명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둘째, 최세진의 저술 전반을 종합적으로 이해한 뒤 吏文諸書輯覽을 재조명하는 것이다. 이는 최세진의 전반적인 학문상의 업적과 吏文諸書輯覽의 위치를 더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셋째는 이문 원전을 깊이 이해한 후 이를 바탕으로 吏文諸書輯覽을 재조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吏文諸書輯覽에서 발견되는 내용상의 문제점이나 결함을 분석하고 지적할 때는, 최세진의 해박한 언어 지식과 심중한 태도를 뛰어넘는 철저한 연구 자세가 요구된다. 실제로 구범진(2012)에서는 최세진의 주석에 대해 내용적인 비판을 가한 사례가 있다.

마지막으로 吏文諸書輯覽에 기록된 언어 자료의 실용적·학문적 가치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우선, 吏文諸書輯覽에는 기존 문헌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16세기 중세한국어와 명대 한어 어휘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사전 편찬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吏文諸書輯覽의 주석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의 이두 문서에 나타난 행정 및 법령 관련 용어를 보다 정확히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한국 고문서 연구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안병희(2007:131)는 최세진이 ‘仰’자를 해석한 내용을 통해 고문서 帖字에 나타난 ‘仰’자를 잘못 풀이한 사례를 지적한 바 있다.⁶⁴⁾ 셋째, 吏文諸書輯覽에는 16세기 한국어에서 차용된 근대한어 어휘, 이문에

64) 안병희(2007:131)에 나오는 원문과 『增定吏文輯覽』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帖字의 끝에 사용되는 套式의 ‘合下仰照驗施行’의 ‘仰’을 ‘우릴다’로 잘못 풀이하고 하는데, ‘仰去聲 猶望也 凡上司移文下司 例用仰字 如咨文中煩請 呈文中伏乞之體文也’(이문, 11a)란 주석에 따라 ‘바란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는 안병희(1987: 72주) 참조. 『吏文輯覽』(2:8b)에서는 ‘體文’으로 나타났고 『增定吏文輯覽』(2:9a)에서는 ‘體式’으로 나타났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仰再行研窮磨問呈報: 仰, 去聲, 猶“望”也, 凡上司移文下司例用“仰”字, 如咨文中“煩請”, 呈文中“伏乞”]

나타난 행정 및 법령 관련 어휘, 몽골어 및 여진계(>만주어) 어휘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조선인이 기록한 일차 자료로서, 16세기 한국어, 근대한어, 漢吏文 문어(혹은 公文書의 常套적 문어), 몽골어와 여진어 간의 언어 접촉 현상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더불어, 이러한 차용어들이 한국어에서 경험한 형태적·의미적 변화 과정과 그 변화의 원리를 규명하는 이론적 탐색은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제시할 수 있다.

참고문헌

자료

- 金指南·金慶門(1720/2006년 影印本), 『通文館志』, 서울: 서울大學校奎章閣韓國學研究院.
- 국립국어연구원 編(1999),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두산동아.
- 權仁瀚(2009ㄱ), 『中世韓國漢字音訓集成(改訂版)』, 서울: 제이앤씨.
- _____(2009ㄴ), 『中世 韓國漢字音의 分析的 研究 <資料篇>』, 서울: 박문사.
- 南廣祐 編(2004), 『教學古語辭典』, 서울: 고학사.
- 南豐鉉 외 編(2020), 『吏讀辭典』, 용인: 단국대학교출판부.
- 朴在淵 編(2002), 『中朝大詞辭典』, 아산: 鮮文大學校出版部.
- 朴在淵 編(2010), 『필사본 고어대사전』, 서울: 學古房.
- 朴在淵·李賢熙 編(2016), 『고어대사전』, 아산: 鮮文大學校出版部.
- 魚叔權(16世紀中期/1971년 影印本), 『稗官雜記』, 『韓國漢籍民俗叢書』(第八冊), 臺北: 東方文化書局.
- 李勳(2017), 『滿韓辭典』,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張世嫻 (2001), 『이두자료 읽기 사전』,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 朝鮮總督府中樞院 校訂 (1934), 『經國大典』, 京城: 朝鮮印刷株式會社.
- 崔世珍(1527/1971), 『訓蒙字會』, 용인: 檀國大學校東洋學研究所.
- 한글학회 編(1992), 『우리말 큰사전(1, 2, 3, 4)』, 서울: 어문각.
- [中]羅竹風 외 編(1989), 『漢語大詞典』, 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 [中]白維國 編(2019), 『近代漢語詞典』,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 [中]劉堅·江藍生 編(1998), 『元語言詞典』,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 [中]徐中舒 外 編(2010), 『漢語大字典』, 成都: 四川辭書出版社, 中文書局.
- [中]蔣紹愚 外 編(2023), 『古白話詞語彙釋』, 北京: 商務印書館.
- [中]宗福邦 外 編 (2003), 『故訓匯纂』, 北京: 商務印書館.
- [中]____ 外 編 (2019), 『古音匯纂』, 北京: 商務印書館.
- Amarsanaa, L. & al. (2006) *Oxford-Monsudar English-Mongolian Dictionary*, Ulaanbaatar:

之體式也。深究曰研，盡情曰窮，事應研窮而問者，謂之磨問。此謂都評議使司令委官等將金甲兩研窮磨問而呈報也。（增定吏文輯覽2:9a）]

Monsudar Publishing.

Lessing, Ferdinand D. & al. (1960) [1995] *Mongolian-English Dictionary*, Berkeley &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reprint:] Bloomington, Indiana: The Mongolia Society.

Norman, J. with the assistance of Keith Dede and David Prager Branner. (2013) *A Comprehensive Manchu-English Dictionar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논저

丘凡真(2012), 「吏文譯註(上, 中, 下)」, 서울: 세창출판사, 2012.

權仁瀚 (2019), 「합자와 국자」, 『문자와 고대 한국1—기록과 지배』, 한국목간학회 편, 249-285.

金星周(2018), 「『吏文便覽』의 吏讀와 吏文에 대하여」, 『구결연구』 39, 구결학회, 239-274.

朴在淵·洪波 校註(2001), 『吏文·吏文輯覽』, 牙山: 鮮文大學校 中韓翻譯文獻研究所.

朴泰權(1973), 「吏文과 吏文輯覽」, 『睡蓮語文論集』 1, 睡蓮語言學會, 77-105.

方鍾鉉(1946), 「이문 집람」, 『한글』 11(1), 한글학회, 27-30.

安秉禧(1986), 「이두 문헌 『이문』에 대하여」, 『배달말』 11, 배달말학회, 1-41.

_____(1988), 「崔世珍의 吏文諸書輯覽에 대하여」, 『周時經學報』 1, 서울: 塔出版社.
[_____(1992), 『국어사자료연구』, 서울: 문학과지성사. 재수록. _____(2007), 『崔世珍研究』, 109-139, 과주: 태학사. 재수록]

_____(1992), 「『増定于公奏議·駁稿·奏議擇稿輯覽』 解題」, 『季刊書誌學報』 8, 131-144. (_____(2007), 『崔世珍研究』, 141-160, 과주: 태학사. 재수록)

_____(1996), 「『増定吏文·増定吏文續集·比部招議輯覽』 解題」, 『季刊書誌學報』 17, 韓國書誌學會, 147-157. (_____(2007), 『崔世珍研究』, 161-176, 과주: 태학사. 재수록)

_____(2007), 『崔世珍研究』, 과주: 태학사.

梁伍鎮(2002), 「吏文과 吏文諸書輯覽의 言語」, 『中國言語研究』 14, 中國言語學會, 193-222.

_____(2011), 「『老朴集覽』과 標題語에 대하여」, 『中國言語研究』 37, 中國言語學會, 219-241.

_____(2012ㄱ), 「『老朴集覽』에 보이는 引用 書籍 고찰 (I)-<老乞大集覽>을 중심으로」, 『中國學報』 65, 韓國中國學會, 141-158.

_____(2012ㄴ), 「『老朴集覽』에 보이는 引用 書籍 고찰 (II)--<朴通事集覽>(上)을 중심으로」, 『국어사연구』 15, 國語史學會, 241-267.

_____(2013), 「『老朴集覽』에 보이는 인용 예문과 참고 문헌 고찰 (III)--<朴通事集覽>(中·下)을 중심으로」, 『국어사연구』 17, 國語史學會, 271-300.

_____(2014), 「吏文輯覽과 吏文의 언어」, 『中國學報』 70, 韓國中國學會, 3-21.

_____(2015), 「최세진의 輯覽類 사전에 대하여 - 『老朴輯覽』과 『吏文輯覽』을 중심으로」, 『한국사전학』 26, 한국사전학회, 150-176.

_____(2017), 「조선시대 韓·中 외교문서와 언어적 특징에 대하여」, 『中國言語研究』 73, 中國言語學會, 257-278.

李基文(1963), 『國語表記法の 歴史的研究』, 서울: 財團法人韓國研究院.

_____(1991), 『國語 詞彙史 研究』, 서울: 동아출판사.

李丙疇(1966), 『老朴集覽考』, 서울: 進修堂.

임영걸(2024), 「魚叔權의 생애와 『稗官雜記』 성립 시기에 대한 고찰」, 『韓國實學研究』 47, 韓國實學學會, 191-227.

張允熙(2024), 「최세진 연구」의 이해, 『이승녕 현대국어학의 선구자—회상, 학술 활동, 논저의 이해』, 이병근 외 73인, 파주: 태학사, 1085-1088.

鄭光(2005), 「漢吏文에 대하여」, 『한국어학』 29, 한국어학회, 107-136.

鄭光(2006), 「吏文과 漢吏文」, 『口訣研究』 16, 구결학회, 27-69.

鄭光·梁伍鎭(2011), 『老朴集覽譯註』, 파주: 태학사.

鄭承惠 (2003), 『조선후기 왜학서 연구』, 파주: 태학사.

崔承熙(2024), 『韓國古文書研究(增補版)』, 파주: 지식산업사.

[日]小倉進平(1912), 「朝鮮の語學者崔世珍」, 『說林』 6, 412-423.

_____(1940), 『増定朝鮮語學史』, 東京: 刀江書院.

[日]前問恭作(1941-1942) 저, 末松保和 編 (1962), 『訓讀吏文』(影印本), 東京: 極東書店.

____編 (1957), 『古鮮冊譜』 (一, 二, 三), 東京: 東洋文庫.

[日]藤田亮策(1942/1963), 「吏文と吏文輯覽」, 『朝鮮學論考』, 501-508, 東京: 笠井出版社.

[中]張全真(2007), 「朝鮮官吏漢語教科書《吏文》의 語言面貌」, 『浙江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報)』 32, 84-87.

_____(2012), 「朝鮮時代漢語教科書《吏文》諸版本蠡測」, 『中國語文學』 61, 549-561.

[中]趙永明(2017), 『《吏文》詞彙研究』, 北京: 科學出版社.

URL

규장각 원문검색서비스 <https://kyudb.snu.ac.kr/main.do>

디지털장서각 <https://jsg.aks.ac.kr>

한국고전종합 데이터 베이스: <https://db.itkc.or.kr>

한국사 데이터 베이스: <http://db.history.go.kr/>

한국학자료 포털 <https://kostma.aks.ac.kr>

일본국립국회도서관: <http://dl.ndl.go.jp>

中國基本古籍庫<http://dh.ersjk.com>

中華經典古籍庫<https://publish.ancientbooks.cn>

モンゴル諸語と満州文語の資料検索システム <http://hkuri.cneas.tohoku.ac.jp>

“崔世珍의 吏文諸書輯覽에 대한 한국어학적 고찰”에 대한 토론문

김성주(동국대)

이 글은 1부 “吏文諸書輯覽의 서지학적 고찰”, 2부 “吏文諸書輯覽의 한국어학적 고찰” 두 가지로 되어 있다. 방대한 연구 대상 문헌을 다루었고 또 여기서 국어학적 연구 대상들을 골라내어 논의한 발표자의 노고에 감탄할 따름이다. 그런데 제1부 서지에 대한 내용은 발표문에서 다른 문헌 자체가 방대하고 또 토론자가 실사하지 못한 문헌들이어서 서지에 대한 내용은 토론문에서 다루지 않는다(이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2부 “吏文諸書輯覽의 한국어학적 고찰” 중에서도 한글로 표기된 어휘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吏文諸書輯覽』에 사용된 어휘 중에는 15, 16세기에 처음 쓰인 어휘, 표현, 표기 등이 상당수 나타난다. 표기된 어형 중에는 당시의 일반적인 표기나 음운과 달리 독자적인 표기 방식을 보이는 경우도 꽤 있어 보인다. 표기 방식의 독자성을 보이는 문제를 쉽게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최세진의 언어관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도 있어 차후에 적극적으로 검증해 볼 문제이다. 이 발표문의 토론이 제대로 되려면 吏文, 한국 吏文, 吏讀, 중국한자음, 한국한자음 등 여러 분야에 조예가 있는 분들의 많은 조언이 필요하다.

1. 기본적으로 발표문의 연구 대상 문헌인 『吏文諸書輯覽』(1539)의 간행 시기와 언어 사실이 일치하는지 의심이 드는 부분이 많다. 한이문(漢吏文)에 대응되는 고유어 중에서는 17세기 이후에 등장하는 경우가 있다. 16세기 자료의 영성(零星)함을 보충할 수도 있으나 간행 시기나 어떤 다른 점을 의심해 볼 수도 있는 대목이어서 주목을 요한다.

(10) 責令：責，鄉言“당부ㅎ다”。(增定吏文輯覽 2: 5a)

==> 당부ㅎ다 (囑咐)<1657어록초,023b>, 당부 當付<17??왜유해,상,025b>, 신신당부 申申當付<1895국한회,198>

(24) 抄造：抄，“조히 쓰다”。方言曰“抄紙”。(增定吏文輯覽 2:14b)

==> 조히 쓰다[抄紙]<1748동문유해 상 43>, 抄紙 조히 쓰다<1768몽유보,027b>, 抄紙 조히 쓰다<1778방언유,해부방언,002a>('조히 쓰다'는 18세기 문헌에 등장함)

(27) 使將金聲那廝：那，去聲。那廝，俗言“더늬”。(增定吏文輯覽 2:15b)

(32) 使長：即國俗所謂“노연”。(增定吏文輯覽 2:17b)

==> 使長 노연<1690역어유,상,026b>, 노연(使長)<박통사언해 중간본 중 26>

(37) 茶褐：即本國“甘察色”也。(增定吏文輯覽 3:22a)

==> 비단 감찰 빗체 스민 문흔<1670노걸언,하,022b>, 酒沈茶褐 감차할 비단 <1690역어유,하,003b>, 감찰빗치 물결 바탕에 四花문흔<1795중노해,하,048a>

(38) 黑綠：鄉言“회무로”。(增定吏文輯覽 3:22a)

==> 黑墨綠 회무로 비단 <1690역어유,하,004a>

(42) 靑沙驕馬：驄부로馬。(增定吏文輯覽 3:22a)

==> 紅紗馬 부루물 <1690역어유,하,028a>, 紅紗馬 부루물<1748동문해,하,037a>

참고. 根前: 鄉言“그 얹피”. (增定吏文輯覽 2:5b)

==> 중철표기는 17세기에 쓰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얹피’와 같은 중철표기가 16세기에도 나타난다. 예. 얹피서 기슴 미더니<1517번역소학,09,091a>, 上의 얹피 이슴 곧티<1586소학언해,06,078b>

둘째, 오류로 보이는 것들의 일부이다.

(5) 倂音[所供] (倂/동사+ 音/말음첨기 > 다딤/명사 > 다짐) (增定吏文輯覽 2:2b)

==> 재구형이 ‘다짐’이 되어야 함. 15~6세기에 ‘*다디-’라는 어간형은 없음.

(7) 行次枷[行枷] (행차칼/명사 > 행차칼) (增定吏文輯覽 2:5a)

==> 이 문헌의 간행 시기를 고려하면 ‘칼’은 ‘갈’로 재구해야 함.

(8) 向前[所據] (向/동사+ 前/명사 > 앞전 > 아전 > 아전) (增定吏文輯覽 2:8a)

==> ‘*앞전’으로 재구하기 어렵다.

(1) 甘結[重甘結狀] (간제? /명사 > 감결) (增定吏文輯覽 4:31b, 32a)

==> [간제]는 현대 중국어로 읽은 것으로 ‘甘結’은 15~16세기 중국어로는 [kam-kie]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선시대에 吏文을 담당하는 관리가 중국어를 구사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실록에는 조선시대의 吏學 교육을 담당한 承文院에서 중국(요동 또는 북경)에 유학을 보내거나 원 어민을 통하여 吏文을 배우도록 하였다는 기록은 있다.

셋째, 어형에 대한 국어학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지는 예들이다.

(6) 海菜: 即本國鄉名“메육”. (增定吏文輯覽 2:3a)

==> 15, 16세기 ‘海菜’에 대한 어형은 ‘머육’인데, ‘메육’은 유일 어형이다. 16세기에 후행 음절의 모음 ‘i, j’ 앞에서 반모음 첨가가 일어나는 현상은 있다(가야미/개야미, 빻얌/빅얌, 벼여/베여; 그러기/긔러기, 저비/제비). 문헌상으로는 18세기에 ‘메육’이 한 차례 쓰이는데(이 메육과 乾魚와 肉脯는<1765박신해,2,025b>), 여기서의 ‘메육’은 ‘海菜’가 아닌 ‘鮎魚’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럴 경우 19세기까지의 문헌 역사에서 ‘메육’이 쓰인 경우는 <增定吏文輯覽>의 용례가 유일한데, ‘메육’이 ‘머육’에서 모음 ‘ㅣ’ 첨가의 적용을 받은 어형이라면 왜 다른 문헌에서도 ‘메육’이 쓰이지 않았는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15세기: 다스마 머육 밀 <1489구급간,02,080a>

16세기: 머육과 찰과 좁을<1514속삼강,효,024b>

17세기: 海菜 머육 <1613동의보,02,036a>, 海菜 머육<1690역어유,상,054b>

18세기: 海菜 머육<1748동문해,하,003b>, 머육 (海菜)<1799제중신,021a>, 이 메육과 乾魚와 肉脯는<1765박신해,2,025b> (鮎魚 메육이<1768몽유하,034a>)

19세기: 머육 (海菜) <1810몽유편,상,014b>

(8) 衣帶八條: 衣帶, 鄉言“골홈”; 八條, 即八箇也. (增定吏文輯覽 2:3b)

==> 1576년 <신증유합>에 ‘골홈 紐’가 쓰이는 것으로 보아서 ‘골홈>골홈’의 변화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시기에 ‘>ㅅ’ 뿐만 아니라 그 반대인 ‘ㅅ>’도 나타나므로 ‘골홈’과 ‘골홈’의 변화 과정을 관련 예를 들어 설명해야 한다. (24)의 “이부리썩툼 혼놈”의 ‘썩툼 혼다’도 동일선 상에서 다룰 수 있는 예이다.

(23) 舵金：凡船尾必有舵，所以正船之具，即本國“치”也。金，以鐵裝舵也。(增定吏文輯覽2:13b)
 ==> 현대국어에서 ‘舵, 舵’에 대한 훈은 ‘키’이다. 그런데 ‘增定吏文輯覽’에 ‘치’가 등장함으로써 이를 선대형으로 잡으면 근대 시기 어형과의 변화 관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16세기: 치 <增定吏文輯覽2:13b>

17세기: 舵 치<1690역어유,하,021a>

18세기: 舵 티 <1748동문해,하,018b><1768몽유하,014a>, 舵 티<1778방언유,해부방언,004a>

19세기: 舵 치<1880한불자,600><1895국한회,308>, 키 舵 舵<1895국한회,313>

16~17세기에 쓰이던 ‘치’가 18세기 ㄷ구개음화가 왕성하던 시기에 과잉교정을 겪어 ‘티’로 바뀌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19세기에 ‘치’로 나타나는 예에 대해서는 과잉교정형 ‘티’에 다시 구개음화가 적용된 것인지 아니면 이전 시기의 ‘치’가 그대로 사용된 것인지 재미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29) 先儘：儘，音“盡”，鄉言“다완다”。(增定吏文輯覽 2:16a)
 ==> ‘儘/盡’에 대한 15세기 어형은 ‘다으다/다ㅎ다’이다. 이는 ‘다완다’와는 그 의미가 다르다. 한이문에 쓰인 ‘儘/盡’의 의미에 ‘다그치다’의 의미가 있어 ‘다완다’로 풀이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漢吏文 용례를 들어서 증명할 필요가 있다.

(28) 激惱：鄉言“뉘닐워노캐ㅎ다”。(增定于公奏議輯覽 8:19b)
 ==> ‘-게 ㅎ다’가 이 문헌에서는 ‘-개 ㅎ다’로 쓰였는데 중세, 근대 국어 시기를 통틀어서 ‘-개 ㅎ다’로 쓰인 예가 없기 때문에 매우 이례적인 표기이다.

마지막으로 漢吏文과 대응되는 조선 한자어 및 고유어와의 관계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예들인데, ①漢吏文과 대응되는 조선 한자어(조선이문)의 차이가 조어적인 문제라면 해석이 필요해 보이는 예들의 일부입니다.

(7) 將鍋做飯：鍋，音“過”。炊飯之器，猶本國“小釜”也。(增定吏文輯覽 2:3b)

(9) 行枷柙手：械在首曰枷，在手曰柙。行枷，鄉語云“行次枷”也。(增定吏文輯覽 2:5a)

(18) 招伏：即國俗所謂“伏招”也。(增定吏文輯覽 2:9a)

(24) 抄造：抄，“조히 쓰다”。方言曰“抄紙”。(增定吏文輯覽 2:14b)

(40) 銅碗：本國“孟子”也。(增定吏文輯覽 3:22a) 참고. ‘盂’는 조선 한자어.

②(17)‘狀啓’, (21)‘星主’ 등과 같이 한이문에 대응되는 조선 한자어가 조선에서만 쓰이는 이유(일본에서 쓰이는 경우도 있음)가 조어적 문제가 아닌 특정 맥락(정치, 역사, 문화) 때문이라면 이것도 해석되어야 합니다.

③(4)里長：猶本國“里正”의 ‘里長’, (5)梢水：梢，梢工；水，格軍也의 ‘梢水’, (8)衣帶八條：衣帶，鄉言“골홈”；八條，即八箇也의 ‘衣帶’, (15)節次：連次也。猶鄉言“벽디검”의 ‘節次’ 등 한이문 표제어 중에는 중국 문헌에서도 그 쓰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보입니다. 조선 한자어와의 차이를 보이기 위해서는 한이문 표제어 자체가 사용된 예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키워드: 고구려어, 인명, 지명, 음운론적 비교연구

고구려어 연구는 그 자체가 논란이 많고 또 자료가 심하게 부족한 영향으로 해명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다. 고구려어는 여러 역사문헌들에 기록된 지명과 인명, 관직명 등에서 나타나는데 이러한 지명이나 인명, 관직명들도 중국어나 동일시대 주변국들의 언어들에서 차용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삼국사기 고구려기에 나타난 지명의 한자용례와 인명의 한자용례의 음운론적 비교연구를 진행하고 지명 용례와 인명 용례의 동일성과 차이성을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들어가기

1.1 연구배경

현재 찾아볼 수 있는 고구려어의 어휘는 주로 삼국사기, 일본서기, 삼국지 등 역사문헌들에 나타나 있다.

고구려국의 지명은 주로 삼국사기 지리지의 권35과 권37에 적혀있고 광개토왕비문이나 삼국사기의 본문중에도 일부 기록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신빙성이 가장 높다고 추정되는 권 37의 내용을 기본 자료로 삼는다. 권37의 지명 표기는 「淺城郡一云比列忽」의 예처럼 고구려 시대의 훈독표기와 음독표기가 같이 나타난다. (李(2004)). 李基文(2004)에 의하면 권37의 지명은 신뢰도가 더 높은 것으로 기초자료로 쓸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명 표기에 대해 河野六郎(1993)과 伊藤英人(2019d)의 연구에서는 고구려어가 아닌 고구려국 이전에 그 땅에 거주하던 선주민들의 언어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다른 고구려의 고유명 자료로 고구려의 인명을 들 수 있다. 고구려의 인명은 지명에서처럼 훈독표기와 음독표기가 같이 표시되어 있는 예들이 왕의 이름에서 나타난다. 대신들이나 다른 등장인물들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특히 초기의 주몽왕이나 유리왕의 경우에는 유사한 음의 이체자로 여러 문헌들에 나타난다. 예를 들면 「瑠璃明王立諱類利或云孺留」의 경우이다. 또 다른 일부 이름자들에서는 훈차표기의 예를 볼 수가 있다. 예를 들면, 「男武(或云)伊夷謨」와 같은 예들인데 伊夷謨가 男武의 고구려식 표음표기라고 볼 수 있겠다. 인명에는 특성상 중국식 이름이 보이는 예들이 있다. 「高福章」같은 예들인데, 이것들은 표음어휘 보다는 표의어휘라고 보는 것이 마땅할 것 같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란이 중심이 되고 있는 지명에서 보이는 고구려어의 음운론적 특징과 인명에서 보이는 음운론적 특징을 개개로 분석한 다음 비교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1.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삼국사기 권37에 나타난 지명을 데이터화하고 개개의 한자용례를 중고음의 음가로 해석한 다음 후두음 자질, 조음위치, 모음의 특징, 성조 등 요소들에 대한 음운론적 비교연구를 진행하고 로지스틱 회귀(R사용)를 통한 통계분석을 통해서 그 유의성을 조사한다.

2. 선행연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선행연구를 참고로 했다.

이기문(1991)에서는 고구려어, 백제어, 신라어에 대한 고찰을 진행했다. 고구려어에 대해서는 삼국사기 권37에 나타난 지명이 고구려어의 기본자료라고 지적하고, 고구려어의 지명의 한자 용례의 음독명과 석독명의 대응에서 일부 고구려어의 어휘를 재구했다. 또 음운특징, 어휘특징, 문법특징 등을 고찰했다. 결과적으로 고구려어는 알타이어의 요소를 갖고 있으나 또 통구스어, 신라어, 중기조선어와도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河野六郎(1993)에서는 중국사서인 三国志 魏志 烏丸鮮卑非東夷伝에 기록된 여러 민족들에 대해서 민족학적, 역사학적 관점과 더불어 언어의 형성을 가정하고 있다. 貊族은 夫餘, 高句麗, 沃沮, 濊族으로 구성되어있고 이 네 종족은 동일한 언어의 방언을 구사하고 있었다고 추정했다. 또 濊는 고구려국의 건국과 동일한 시기에 고구려 부속국이 되었을 것이고 그 集落에는 濊人들이 살고 있었고 지명에도 그들의 언어인 일본어와 비슷한 언어를 남겼다고 가정했다. 이 설이 정확하다면 濊는 倭와 동일한 계통을 이은 것이고 倭의 前史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고구려 지명 중의 일본어적인 요소는 濊族이 남긴 것으로 濊族과 倭族의 동계설을 추진했다.(福井玲2013:176)

伊藤英人(2019)에서는 삼국사기 권35에 표시된 지명 및 권 37에 소재된

압록강이북의 제 성에 관련해서 고구려 지명이 적어도 왜어(일본어)와 한어(韓語)의 두 가지 언어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그 언어 즉 대륙왜어가 濊語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馬淵和夫(1980)에서는 삼국사기 권37에 기록된 지명 표기에서 신라어의 특징을 갖는 것들을 배제한 다음 고구려어의 기본 어휘를 확정했다. 그 다음에 중국어의 상고음, 중고음의 재구음으로 지명의 한자용례를 해석하고 자음과 모음의 빈도를 계산했다. 빈도가 높은 것이면 고구려어에 있어서 변별적인 음소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했다.

이상 연구들에서는 고구려어의 지명에 주목하고 지명의 한자 용례의 성격과 표기의 성질을 해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양홍매(2023b)에서는 고구려 인명에 착안하고 인명 중의 고유어와 중국어식 표기를 구분했다. 하지만 그 기준이 애매하고 정확성이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 기초상에서 고유어식 표기와 중국어식 표기를 확실하게 구분한다.

이 밖에 고구려의 지명과 인명을 다룬 논문들로는 유창균(1991) 등 여러 편이 있지만 지명과 인명의 표기에 대한 비교언어학적 연구는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3. 기본 자료와 지명, 인명의 특징

3.1 지명과 인명의 자료

3.1.1 지명 자료

본 연구에서는 삼국사기 권37에 표기된 164개의 지명의 한자 용례를 데이터화하고 통계적인 분석을 했다. 이기문(1991)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권37에는 一云을 전후로 중국어식의 한자표기와 고구려식의 한자표기가 기록되어 있다. 권35의 표기가 신라 지명을 설명하기 위한 고구려의 표기라고 하면 권37은 신라 이외의 고구려 지명의 기본자료가 된다. 권37의 표기에 있어서 중국어식 훈독표기와 고구려식의 음독표기가 나란히 쓰여진 예들이 많지만 한가지표기만 제시된 것들도 적지 않다. 또 南川縣一云南買와 같은 예들에서는 南川에 비해 南買가 음독 표기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만 음독표기와 훈독표기를 정확하지 가를 수 없는 예들도 있다. 上忽一云車忽가 그런 예들인데 이럴 경우에는 고구려어에서 한자 용례의 사용방식이나 인명 용례 등을 고려하여 고구려말에 더 가까운 것으로 추정되는 것을 추출하는데 위의 경우에는 車忽보다 上忽를 고구려 어휘로 정한다. 또 훈독자와 음독자가 같이 나타나지 않고 한 가지 표기만 나타난 경우에는 그 표기를 기본어휘로 정한다. 지명의 기본어휘는 표1과 같다.

표1

	데이터화	元地名	音価 ¹⁾	現在地 ²⁾
1	末乙省	国原城 一云末乙省 一云託長城	[muat ʔyět ɕaŋ/sien]	忠北忠州
2	南買	南川縣 一云南買	[nam mai]	京畿利川郡利川面
3	滅烏	駒城 一名滅烏	[siet ʔo]	京畿龍仁郡駒城面
4	仍斤内	仍斤内	[niǎŋ kiǎn nuɿ]	忠北槐山郡槐山面
5	省知買	述川郡 一名省知買	[ɕia tiě mai]	京畿驪州郡興川面
6	骨乃斤	骨乃斤県	[kuət nai kiǎn]	京畿驪州郡驪州邑
7	去斯斬	楊根縣 一云去斯斬	[kʰiə siě tɕem]	京畿楊平郡楊平面
8	今勿内	今勿内郡 一云萬弩	[kiēm myǎt nuɿ]	忠北鎭川郡鎭川面
9	都益	道西縣 一云都益	[to ʔiɛk]	忠北槐山郡道安面
10	仍忽	仍忽	[niǎŋ huət]	忠北陰城郡陰城邑
11	皆次山	皆次山郡	[kɕei tɕʰi ɕɐn]	京畿安城郡二竹面竹山里
12	奴音竹	奴音竹県	[no ʔiēm tǒuk]	京畿利川郡長湖院邑
13	奈兮忽	奈兮忽	[nai ɕiei huət]	京畿安城郡安城邑
14	沙伏忽	沙伏忽	[sa biəu/bǒuk huət]	京畿安城郡陽城面
15	虵山	虵山縣	[jɿǎ ɕɐn]	忠南天原郡稷山面
16	買忽	買忽 一云水城	[mai huət]	京畿水原市
17	唐城	唐城郡	[daŋ ziɛŋ]	京畿華城郡南陽面
18	上忽	上忽 一云車忽	[ziǎŋ huət]	京畿平澤郡靑北面龍城里

19	松村活達	釜山縣 一云松村活達	[ziŋ duən duət]	京畿平澤郡振威面
20	冬斯朥	栗木郡 一云冬斯朥	[toŋ siě hyět]	京畿始興郡果川面
21	仍伐奴	仍伐奴縣	[niəŋ biət no]	ソウル市永登浦區東面始興里
22	齊次巴衣	齊次巴衣縣	[dzei tʃi pa ʔyǎi]	ソウル市永登浦區西面陽川
23	買召忽	買召忽縣 一云彌鄒忽	[mai ɕieu huət]	京畿仁川市
24	古斯也忽次	獐項口縣 一云古斯也忽次	[ku siě ja huət tʃi]	京畿始興郡秀岩面安山
25	主夫吐	主夫吐郡	[tɕyũ ɕyũ tʰu]	京畿仁川市富平洞
26	首尔忽	首尔忽	[ɕiəũ niě huət]	京畿金浦郡大串面
27	黔浦	黔浦縣	[giēm pʰo]	京畿金浦郡金浦面
28	仇斯波衣	童子忽縣 一云仇斯波衣	[giəũ siě pua ʔyǎi]	京畿金浦郡霞城面
29	別史波衣淮	平淮押縣 一云別史波衣淮 一作唯	[biət ʃi pua ʔyǎi ɦuəi]	京畿金浦郡月串面通津
30	平壤	北漢山郡 一云平壤	[biəŋ/bien ɲiəŋ]	ソウル市
31	骨衣內	骨衣內縣	[kuət ʔyǎi nuɿ]	京畿楊州郡榛接面
32	皆伯	王逢縣 一云皆伯	[kəi pak]	京畿高陽郡知道面幸州
33	馬忽	買省郡 一云馬忽	[mai ʃaŋ/siəŋ]	京畿議政府
34	難隱別	七重縣 難隱別	[nan ʔiəŋ biət/piət]	京畿坡州郡積城面
35	波害平史	波害平史縣 一云額	[pua ɦai biəŋ/bien ʃi]	京畿坡州郡坡平面
36	於乙買串	泉井口縣 一云於乙買串	[ʔiə ʔiēt mai kuan]	京畿坡州郡交河面
37	首泥忽	述尔忽縣 一云首泥忽	[ɕiəũ nei huət]	京畿坡州郡州內面坡州里
38	達乙省	達乙省縣	[dat ʔiēt ʃaŋ/siəŋ]	京畿高陽郡元堂面
39	馬忽	臂城郡 一云馬忽	[ma huət]	京畿抱川郡抱川面
40	內乙買	內乙買 一云內尔米	[nuɿ ʔiēt mai]	京畿楊州郡檜泉面
41	毛乙冬非	鐵園郡 一云毛乙冬非	[mau ʔiēt toŋ piəi]	江原鐵原郡鐵原邑
42	梁骨	梁骨縣	[liəŋ kuət]	京畿抱川郡永中面永平里
43	非勿	僧梁縣 一云非勿	[piəi myət]	京畿漣川郡中面
44	功木達	功木達縣 一云熊閃山	[kõuŋ muk dat]	京畿漣川郡漣添面
45	夫如	夫如郡	[ɕyũ ɲiə]	江原平康郡金化邑
46	於斯內	於斯內縣 一云斧壤	[ʔiə siě nuɿ]	江原平康郡平康邑
47	烏斯含達	烏斯含達縣	[ʔo siě ɦɒm dat]	黃海金川郡兔山面
48	阿珍押	阿珍押縣 一云窮嶽	[ʔa tiēn ʔap]	江原伊川郡安峽面
49	所邑豆	所邑豆縣	[ʃiə ʔiēm dəu]	京畿漣川郡朔寧面
50	伊珍買	伊珍買縣	[ʔi tiēn mai]	江原伊川郡伊川面
51	首知衣	牛岑郡 一云牛嶺 一云首知衣	[ɕiəũ tiě ʔiŋwə/ʔiəi]	黃海金川郡牛峯面
52	古斯也忽次	獐項口縣 一云古斯也忽次	[ko siě jia huət tʃi]	京畿長湍郡江上面臨江里
53	耶耶	長淺城縣 一云耶耶 一云夜牙	[jia jia]	京畿長湍郡郡內面長湍
54	泥沙波忽	麻田淺縣 一云泥沙波忽	[nei sa pua huət]	京畿漣川郡嵎山面麻田里
55	扶蘇岬	扶蘇岬	[byuə/ɕyũ su kap]	京畿開城市
56	若只頭恥	若只頭恥縣 一云朔頭	[ɲiak tɕiě dəu tʃi]	京畿長湍郡長道面

		一云衣頭		
57	屈於押	屈於押 一云紅西	[kʷət ʔiə ʔap]	黃海延白郡西北面江陰里
58	冬比忽	冬比忽	[ton bi huət]	京畿開城市
59	德勿	德勿県	[tək myət]	京畿坡州郡臨津面
60	烏阿忽	津臨城縣 一云烏阿忽	[ʔo ʔa huət]	京畿坡州郡臨津面
61	甲比古次	穴口郡 一云甲比古次	[kap bi ko tsʰi]	京畿江華郡江華面
62	冬音奈	冬音奈縣 一云休音	[ton ʔiēm nai]	京畿江華郡河站面
63	達乙新	高木根縣 一云達乙新	[duat ʔyēt sʰen]	京畿江華郡喬桐面
64	首知	首知縣 一云新知	[ɕiəu tiē]	京畿江華郡良道面
65	多知忽	大谷郡 一云多知忽	[ta tiē huət]	黃海平山郡平山面
66	買旦忽	水谷城縣 一云買旦忽	[mai tan huət]	黃海新溪郡多栗面
67	德頓忽	十谷城 一云德頓忽	[tək tuən huət]	黃海谷山郡谷山面
68	冬音忽	冬音忽 一云鼓鹽城	[ton ʔiēm huət]	黃海延白郡延安邑
69	刀臘	刀臘縣 一云雉嶽城	[tau lap]	黃海延白郡銀川面白川
70	弓次云忽	五谷郡 一云弓次云忽	[kiəuŋ tsʰi hyən huət]	黃海瑞興郡瑞興面
71	内米忽	内米忽郡 一云池城 一云長池	[nuɿ mei huət]	黃海海州市
72	乃忽	漢城郡 一云漢忽 一云息城 一云乃忽	[nɿ huət]	黃海載寧郡載寧面
73	租坡衣	鵠鵠城 一云租坡衣 一云鵠巖郡	[tso pʰua ʔiəw/ʔiəi]	黃海鳳山郡楚臥面
74	古所於	獐塞縣 一云古所於	[ko sʰə ʔiə]	黃海遂安郡遂安面
75	于本於忽	冬忽 一云于本於忽	[hyuŋ puən ʔiə huət]	黃海黃州郡黃州邑
76	息達	今達 一云薪達 一云息達	[siek duat]	平南中和郡祥原面
77	仇乙峴	仇乙峴 一云屈迂	[giəu ʔyēt hien]	黃海松禾郡豐海郡豐山
78	闕口	闕口	[kʰɿɿn kʰəu]	黃海信川郡文化面
79	栗口	栗口 一云栗川	[liēt kʰəu]	黃海殷栗郡殷栗面
80	長淵	長淵	[d͡ʑiɿn/t͡ɕiɿn ʔuən]	黃海長淵郡長淵邑
81	麻耕伊	麻耕伊	[ma kɐŋ i]	黃海松禾郡松禾面
82	楊岳	楊岳	[j͡iɿn ɳiɿk]	黃海安岳郡安岳邑
83	板麻串	板麻串	[pan ma kuan]	黃海信川郡龍門面
84	熊閑伊	熊閑伊	[hʉəuk hien i]	黃海松禾郡蓬萊面
85	甕迂	甕迂	[ʔiɿn tsʰien]	黃海甕津郡甕津邑
86	付珍伊	付珍伊	[piə tiēn i]	黃海甕津郡富民面康翎里
87	鵠島	鵠島	[hok tau]	京畿甕津郡白翎面
88	升山	升山	[ɕiəŋ ʃan]	黃海信川郡信川邑
89	加火押	加火押	[ka hua ʔap]	平南中和郡中和面
90	夫斯波衣	夫 斯 波 衣 県 一云他史峴	[pyuŋ siē pua ʔyǎi]	平南中和郡東頭面松峴
91	烏根乃	牛首州 首一作頭 一云首 次 若 一云烏根乃	[ʔo kən nɿ]	江原春川市
92	伐力川	伐力川	[biɿt lyēk tɕʰien]	江原洪川郡洪川邑
93	於斯買	橫川縣 一云於斯買	[ʔiə siē mai]	江原橫城郡橫城面
94	砥峴	砥峴縣	[tɕi/tɕiē hien]	江原楊平郡砥提面砥平里

95	乎原	乎原郡	[hɔ ŋɿwan]	江原原州市
96	奈吐	奈吐郡 一云大提	[na tʰo]	忠北堤川郡堤川邑
97	沙熱伊	沙熱伊縣	[sa ɲɛt ʔi]	忠北堤川郡清風面
98	赤山	赤山縣	[tɕʰiek ʃan]	忠北丹陽郡丹陽面
99	斤平	斤平郡 一云並平	[kɿǎn bi̯aŋ/bien]	京畿加平郡加平面
100	伏斯買	深川縣 一云伏斯買	[bĩəu/bõuk siẽ mai]	京畿加平郡下面
101	要隱忽次	楊口郡 一云要隱忽次	[ʔiəu ʔiǎn huət tsʰi]	江原楊口郡楊口面
102	烏斯回	猪足縣 一云烏斯回	[ʔo siẽ huɿ]	江原麟蹄郡麟蹄面
103	皆次丁	王岐縣 一云皆次丁	[kɕi tsʰi tɛŋ]	江原麟蹄郡瑞和面
104	密波兮	三峴縣 一云密波兮	[miẽt pua ɦei]	江原楊口郡方山面
105	也尸買	狝川郡 一云也尸買	[ja ɛi mai]	江原江華郡華川面
106	馬斤押	大楊管郡 一云馬斤押	[ma kɿǎn ʔap]	江原淮陽郡內金剛面
107	買谷	買谷縣	[mai kǔk]	慶北安東郡禮安邑
108	古斯馬	古斯馬縣	[ku siẽ ma]	慶北奉化郡奉化面
109	及伐山	及伐山郡	[gɿɛp biat ʃan]	慶北榮豐郡順興面
110	伊伐支	伊伐支縣 一云自伐支	[ʔi biat tɕiẽ]	慶北榮豐郡浮石面
111	薺川	薺狝川縣 一云薺川	[səu tɕʰien]	江原淮陽郡安豐面化川里
112	斤尸波兮	文峴縣 一云斤尸波兮	[kɿǎn ɛi pua ɦei]	江原楊口郡水入面文登里
113	也次忽	母城郡 一云也次忽	[ja tsʰi huət]	江原金化郡金城面
114	冬斯忽	冬斯忽	[ton siẽ huət]	江原金化郡昌道面岐城里
115	買伊	水入縣 一云買伊縣	[mai ʔi]	江原楊口郡水入面
116	加兮牙	客連郡 客一作各 一云加兮牙	[ka ɦei ŋa]	江原淮陽郡淮陽面
117	沙非斤乙	赤木縣 一云沙非斤乙	[sa pɿǎi kɿǎn ʔyɛt]	江原淮陽郡蘭谷面
118	管述	管述縣	[kuan ɖzyɛk]	江原淮陽郡淮陽面新安里
119	烏生波衣	猪 蘭 峴 縣 一 云 烏 生 波 衣 一云猪守	[ʔo ʃan pua ʔyǎi]	江原淮陽郡內金剛面麻田里
120	比列忽	淺城郡 一云比列忽	[bi liet huət]	咸南安邊郡鶴城面安邊
121	首乙吞	原谷縣 一云首乙吞	[ɕiəu ʔyɛt tʰən]	咸南安邊郡瑞谷面
122	昔達	菁達縣 一云昔達	[siɛk duat]	未詳
123	薩寒	薩寒縣	[sap ɦan]	江原通川郡歙谷面桑陰里
124	加支達	加支達縣	[ka tɕiẽ duat]	咸南安邊郡文山面
125	於支吞	於支吞 一云翼谷	[ʔiə tɕiẽ tʰən]	咸南安邊郡文山面梧山里方面
126	買尸達	買尸達	[mai ɛi duat]	咸南元山市南部
127	於乙買	泉井郡 一云於乙買	[ʔiə ʔyɛt mai]	咸南德源郡府內面德源
128	夫斯達	夫斯達縣	[pyuǒ siẽ duat]	咸南文川郡北城面野汰里
129	加知斤	東墟縣 一云加知斤	[ka tiẽ kɿǎn]	咸南安邊郡安道面浪城里方面
130	奈生	奈生郡	[nai ʃan]	江原寧越郡寧越邑
131	乙阿且	乙阿且縣	[ʔyɛt ʔa tsɿə//tsʰa]	忠北丹陽郡永春面
132	于烏	于烏縣 一云郁烏	[ɦyũ ʔo]	江原平昌郡平昌面
133	酒淵	酒淵縣	[tsɿəu ʔien]	江原寧越郡酒泉面

134	河西良	何瑟羅州 一云河西良	[hə sei lyɑŋ]	江原江陵市
135	乃買	乃買県	[nɔi mai]	江原旌善郡旌善面
136	東吐	東吐県	[tɔ̃uŋ tʰu]	江原旌善郡臨溪面
137	支山	支山県	[tɕiẽ ʃɐn]	江原溟州郡連谷面
138	穴山	穴山県	[huət ʃɐn]	江原溟州郡南面銅山里
139	加阿忽	遼城郡 一云加阿忽	[ka ʔa huət]	江原高城郡杆面
140	所忽達	僧山縣 一云所忽達	[ʃɔ̃ huət duat]	江原高城郡縣內面
141	伊文	翼峴縣 一云伊文縣	[ʔi myǎn]	江原襄陽郡襄陽面
142	達忽	達忽	[duat huət]	江原高城郡高山邑
143	烏斯押	猪遼穴縣 一云烏斯押	[ʔo siẽ ʔap]	江原高城郡長箭邑
144	平珍波衣	平 珍 峴 縣 一云平珍波衣	[bian/bien tiẽn pua ʔyǎi]	江原通川郡南面靈岩里
145	助乙浦	道臨縣 一云助乙浦	[dʒiə ʔyět pʰo]	江原通川郡臨南面
146	金惱	休壤郡 一云金惱	[kiẽm nau]	江原通川郡通川面
147	習比谷	習比谷縣 谷一作吞	[ziẽp bi kǔk]	江原通川郡歙谷面
148	吐上	吐上県	[tʰu ziaŋ]	江原通川郡碧養面碧山里
149	岐淵	岐淵県	[giẽ ʔuɐn]	江原通川郡歙谷面慈山里
150	古衣浦	鵠浦縣 一云古衣浦	[ku ʔyǎi pʰo]	江原通川郡歙谷面松陽里
151	奈生於	竹峴縣 一云奈生於	[nai ʃaŋ ʔiə]	江原三陟郡下長面
152	万兮	滿若縣 一云万兮	[mian ɬei]	江原三陟郡近德面交柯里
153	波利	波利県	[pua li]	江原三陟郡遠德面湖山里
154	于珍也	于珍也郡	[hyuǒ tiẽn jia]	慶北蔚珍郡蔚珍面
155	波且	波且縣 一云波豊	[pua tsia/tsʰa]	慶北蔚珍郡遠南面德新里
156	也尸忽	也尸忽郡	[jia ei huət]	慶北盈德郡盈德面
157	才攬	助攬郡 一云才攬	[dzɔi lam]	慶北青松郡眞安面
158	青已	青已縣	[tsʰɛŋ jiǎi/ziǎi]	慶北青松郡青松面
159	屈火	屈火県	[kyǎt hua]	慶北安東郡禮安邑郡臨河面
160	伊火芳	伊火芳縣	[ʔi hua pʰiaŋ]	慶北青松郡安德面
161	于尸君	于尸君	[hyuǒ ei kyǎn]	慶北盈德郡盈德寧海面
162	阿兮	阿兮縣	[ʔa ɬei]	慶北迎日郡淸河面
163	史直	悉直郡 一云史直	[siẽt dʒɛk]	江原三陟郡三陟邑
164	羽谷	羽谷県	[hyuǒ kǔk]	江原溟州郡玉溪面

삼국사기 권37에 기록된 지명 중에 일부는 판본의 관계로 판독이 어려운 것들이 있다. 이 경우에는 권35와 伊藤英人の 「高句麗地名解一覽(第3版)」를 참고로 한자를 정했다.

3.1.2 인명자료

고구려의 인명중에서 왕의諱는 一云으로 갈라서 서로 다른 음가를 가진 한자표기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高朱蒙(一云)鄒(一云)象解와 같은 예들이다. 지명의 예와 같이 고구려의 훈독명과 음독명의 대응으로 볼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는 않다. 또 일부

- 1) 音価は平山久雄(2022)의 중고음 해석을 참고로 재구했다.
- 2) 現在地는 伊藤英人の 高句麗地名解一覽(三訂版)에 의거함.

왕명에는 小名이나 少名이라 하여 어릴 적 이름이 기록된 것들도 나타난다. 다른 일부 인명에는 중국인(漢人)식의 이름자로 추정되는 것들이 나타난다. 고구려는 다민족 국가로 여러 민족으로 구성되었고 그 중에는 한인(漢人)도 있었다고 하지만, 또 한가지 가능성으로 한자를 도입한 고구려인들이 당시 문화적으로 더 발전한 중국식 이름을 지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인명의 한자 용례에서 있어서 혼독자와 음독자가 같이 기록된 경우에는 혼독자로 추정되는 고구려어를 추출하고 小名이나 少名이 나타난 경우에는 小名이나 少名이 고구려어일 가능성을 판단해서 기본자료에 추가했다. 또 인명 중에서 한인(漢人)식 의미적인 기능을 가진 인명이라고 추측되는 것들을 가능한 배제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인명 한자 용례에서 114개의 고구려식의 표음표기 용례들을 추출했다.

표2

	人名데이터 ³⁾	인명 이체자	音価
1	鄒牟	高朱蒙(一云)鄒(一云)象解	[ʃiəu miəu]
2	解夫婁		[kai/ ʧai pyuð/byuð lyuð/ləu]
3	阿蘭弗		[ʔa lan pɤt]
4	解慕漱		[kai/ʧai mu ʃiəu]
5	帶素		[tai su]
6	烏伊		[ʔu ʔi]
7	摩離		[muə liě]
8	陝父		[eɪem byuð]
9	克再思		[tsɿ siəi]
10	仲室武骨		[myu kuət]
11	少室黠居		[mæk kiə]
12	松讓		[ziwɔŋ njaŋ]
13	扶芬奴		[byuð/pyuð pʰiʊən nu]
14	扶尉馱		[byuð/pyuð ʔiʷə ʔiɛm]
15	儒留	儒留/類利(或云)孺留	[nyuð liəu]
16	禮	禮(氏)	[lei]
17	屋智		[ʔɔuk tiě]
18	句鄒		[kiə/ kəu/ gyuð/ kəu ʃiəu]
19	都祖		[tu tsu]
20	松	松(氏)	[ziwɔŋ]
21	禾	禾(姬)	[hwa]
22	都切		[tu tsʰet]
23	託利		[tʰak li]
24	斯卑		[siě piě]
25	薛支		[siet tɛiě]
26	位沙勿	沙勿(姓)位(氏)	[ʧyi ʃa myəʃ]
27	解明		[kai/ ʧai miaŋ]
28	延丕		[jiɛn pʰi]
29	祭須		[tsyei syuð]
30	無恤		[myuð syɛk]
31	麻廬		[ma lu]
32	怪由		[kuɛi jiəu]
33	乙達智		[ʔiɛt dəu tiě]
34	松屋句		[ziwɔŋ ʔɔuk kiə/kəu]
35	尚須		[ziaŋ syuð]
36	尉須		[ʔiəi syuð]
37	于刀		[fiyuð tau]
38	仇都		[giəu tu]

39	逸苟		[jyět kəu]
40	焚求		[byǎn giǎu]
41	鄒勃素		[ʃiǎu buət su]
42	解色朱		[kai/ ʧai ʃǎk tɛvu]
43	載升		[tsʌi/tsɔi ɕǐŋ]
44	解憂	解憂(一云)解愛婁	[kai/ ʧai ʔiǎu]
45	翊		[iǎk]
46	杜魯		[du du]
47	於漱	宮(小名於漱)	[ʔa ʃiǎu]
48	都頭		[tu dəu]
49	達賈		[dat/tʰat ka]
50	薛儒		[siet ɲyũǒ]
51	乙音		[ʔiēt ʔiēm]
52	遂成		[zyi zɛŋ]
53	尉仇台		[ʔiǎi giǎu tʰʌi]
54	穆度婁		[mǒu du lyũǒ/ləu]
55	彌儒		[miē ɲyũǒ]
56	菸支留		[ʔa tɛiē liǎu]
57	莫勤		[mak giǎn]
58	莫德		[mak tək]
59	明臨答夫		[mian liēm tap ɲyũǒ]
60	伯固	伯固(固作句)	[pak ku]
61	鄒安		[ʃiǎu ʔan]
62	優居		[ʔiǎu ʔan]
63	然人		[ɲien ɲiēn]
64	伊夷謨	男武(或云)伊夷謨	[ʔi ji mu]
65	拔奇		[bat giē]
66	加		[ka]
67	于	于(氏)	[ɲyũǒ]
68	于素		[ɲyũǒ su]
69	闕須		[kiēi syũǒ]
70	於畀留		[ʔa pi liǎu]
71	左可慮		[tsa kʰa lǎ]
72	晏留		[ʔan liǎu]
73	乙巴素		[ʔiēt pa su]
74	乙素		[ʔiēt su]
75	延優	延優(一名)位宮	[jiēn ʔiǎu]
76	癸岐		[piat giē]
77	憂位居	憂位居(少名郊篋)	[ʔiǎu ɲyi kiǎ]
78	明臨於漱		[mian liēm ʔa ʃiǎu]
79	密友		[miēt ɲiǎu]
80	劉屋句		[liǎu ʔök kiǎ/kəu/gyũǒ/kəu]
81	紐由		[niǎu jǎu]
82	然弗		[ɲien ɲyēt]
83	掾(氏)		[jiēn]
84	預物		[jiǎ myǎt]
85	奢句		[ɕia kiǎ/kəu/gyũǒ/kəu]
86	貫那	貫那(夫人)	[kuan na]
87	明臨笏觀		[mian liēm huət to]

88	若友	葉盧(一云若友)	[ɲiak hɿəu]
89	于漱		[hɿuǒ ʃɿəu]
90	陰友		[ʔiēm hɿəu]
91	尚婁		[ʒɿaŋ ɿyǒ/ləu]
92	達賈		[dat/tʰat ka]
93	逸友		[jiēt hɿəu]
94	素勃		[su buət]
95	欽矢婁	相夫(或云欽矢婁)	[ʃəp ei ɿyǒ/ləu]
96	咄固		[tuət ku]
97	倉助利		[tsʰaŋ dʒɿə li]
98	乙弗	乙弗(或云憂弗)	[ʔiēt pyēt]
99	再牟		[tsɿi mɿəu]
100	蕭友		[sieu hɿəu]
101	如孥		[ɲɿə nu]
102	陰牟		[ʔiēm mɿəu]
103	斯由	斯由(或云劉)	[siē jɿəu]
104	阿佛和度加		[ʔa bɿət hɿa du ka]
105	周	周(氏)	[tɕiəu]
106	丘夫		[kʰiəu pyuǒ]
107	於只支	伊連(或云於只支)	[ʔɿə tɕiē tɕiē]
108	餘奴		[ji nu]
109	升干		[eǿŋ kan]
110	芮悉弗		[ɲiei siēt pyēt]
111	乙支文德		[ʔiēt tɕiē myǿn tək]
112	泉蓋蘇文	泉蓋蘇文/盖金	[dzien kai su myǿn]
113	惱音信		[nau ʔiēm siēn]
114	溫達		[ʔuən dat]

본 연구에서는 이상에서 제시한 표1과 표2의 지명의 한자용례와 인명의 한자용례를 기본 자료로 삼고 비교연구를 진행한다.

3.2 지명과 인명의 특징

3.2.1 지명의 특징

고구려 지명의 훈독표기와 음독표기에 관해서는 많은 선행 연구들이 있다. 본 장에서는 권37에 나타난 고구려 지명의 선행연구 중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요약하고 저자의 의견을 첨가한다. 고구려의 지명 용례는 표기 특징상 여러 종류로 나누어서 고찰할 수 있다.

가) 水의 예

우선 「買」와 「水、川、井」의 대응은 아래와 같은 예들에서 나타난다.

「2川-買」, 「5川-買」, 「16買-水」, 「36井-買」, 「66水-買」, 「93川-買」, 「100川-買」, 「105川-買」, 「115水-買」, 「127井-買」

이상에서 물과 관련된 川, 水, 井 등 한자 표기가 전부 買 와 대응하고 있고 買 는 이러한 표기의 훈독자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이기문(1991)을 비롯한 많은 연구들에서 지적한 바 있다.

買 는 음가가 비슷한 한자와도 대응을 보인다.

「23買-彌」, 「33買-馬」, 「40買-米」

중고음 음가로 재해석하면, 「買」[maɪ], 「彌」[miē], 馬[ma], 米[mei]의 음가로

3) 原 人名데이터는 梁紅梅(2023a) 참조.

나타나고, 이 중에서 「買」[mai], 「彌」[miě], 米[mei] 는 자음 /m/와 모음에 /i/를 갖고 있는 비슷한 음가라고 볼 수 있겠다. 「買」[mai] 와 馬[ma]은 「33買省郡一云馬忽」의 예에서 나타난다. 伊藤英人の 「高句麗地名解釈一覽(第3版)」에 의하면 買省郡은 현재 경기도에 속하는 지명으로, 고구려 고유의 영토가 아닌 확장에 의한 점령지로 언어사용에 있어서도 단일한 언어가 사용되었다고 보기가 어렵다. 「買」[mai] 가 「水」를 의미하는 고구려어일 때, 馬[ma] 은 고대한국어에서 유래한 단어라고 볼 수 있겠다. 「水」는 고려시대에 간행한 『鷄林類事』에서 「水曰沒」라 하였고, 중세조선어에서는 /mol/에 대응한다. 「沒」의 중고음은 魂韻入声이고 魂韻入声의 예로 「勃」/pʌl/이 나타난기 때문에 「沒」의 중세 음가가 /mʌl/일 수 있다. 또 「水」가 원래 *ma.ri 와 같은 음가였다고 볼 때, 어말의 i 가 탈락되어 mʌl 이 되었거나, 모음 간의 r이 탈락되어 maʃ이 될 수 있는데, 중세 한국어의 mil은 처격형에서 악센트가 교체하지 않는 H-a클래스에 속하지만, H-a클래스는 이음절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Ito 2013). 「馬」은 『鷄林類事』에서 「馬曰末」로 적혀있고 중세한국어에서는 /mʌl/ 과 대응한다. 「33買省郡一云馬忽」은 음가의 대응만이 아니라 경기도 지역에서 사용했던 고대 한국어의 「水」과 「馬」이 /mʌl/에 대응하는 것이고 「馬忽」은 고대한국어의 /mʌl/의 고구려식 표기와 고구려어의 「忽」의 합성어로 볼 수 있다.
... 기타 생략

3.2.2 인명 특징

삼국사기에 나타난 고구려의 인명에는 고구려의 왕과 귀족, 귀족 여성, 일부 평민의 이름들이 나타난다.

본 장에서 인명 용례의 표기의 특징을 살펴보겠다. 고구려의 시조 주몽왕의 이름 용례에는 여러 사서에서 서로 다른 한자의 이체자가 나타난다. 그 중에는 동음이체자가 나타나기도 하고 전혀 다른 음가를 가진 표기도 나타나, 인명 용례의 전형적인 예로 볼 수 있다(梁紅梅 (2023b) 참조). (표2)

표2

表記	出典	編纂年代 / 碑が建てられた時期	卷 / 面・行・列
驃 ⁴⁾	『漢書』	76年~83年 ⁵⁾	卷99
鄒牟王	「広開土王碑文」	414年	第1面1列目
鄒 ⁶⁾	「牟頭婁墓誌」	長寿王代前半期ごろ	3行目
鄒牟王	「集安高句麗碑文」	広開土王碑より早い	1列目
朱蒙	『魏書』	559年	卷100
仲牟王(ちゅうむ)	『日本書紀』	養老4年の720年	卷27
都慕王	『続日本紀』	797年(延暦16)	卷40
都慕王, 鄒牟王, 須牟祁王	『新撰姓氏録』	815年(弘仁6年)	卷22、卷24、卷28、卷30
朱蒙, 鄒, 象解	『三国史記』	1145年	卷6、卷13、卷23
中牟王	『三国史記』羅紀		卷6
朱蒙	『三国遺事』	1281年~1289年	卷1

牟梁紅梅 (2023b)에 의하면 이 표기들 중에서 고구려어에 제일 가까운 것으로 추정되는 「鄒牟, 朱蒙, 仲牟, 都慕」의 음운대응을 고찰해보면 일본서기에 나타난 「鄒牟, 仲牟, 都慕」는 鄒牟가 고구려어의 영향, 仲牟가 신라어의 영향, 都慕가 백제어의 양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제1음절과 제2음절에 같은 주모음 -u를 가지고 있고, 제1음절과 제2음절은 모음조화를 이루고 있다. 고구려 주몽왕의 이름은 고구려어에서 [ŋju miəu] 혹은 [ŋju mu]의 음가를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
기타 생략...

4) 「驃」는 「広開土王碑文」의 「鄒」와 동음으로 朱蒙과 같은 인물이라고 판단했다.

5) 本田濟(1968) 참고.

6) 「鄒」は武田幸男(1989)가 판독한 문자이다.

4. 고구려의 지명과 인명의 한자용례의 음운론적 비교연구

고구려의 지명이 고구려어의 범주에 속하는 지 아닌지에 관련해서 아직까지 확실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 고구려어가 아닌 그 땅에 살던 원주민의 언어라는 주장을 河野六郎가 세웠고 伊藤英人は 지명이 나타내는 것이 대륙왜어라고 가설을 내세웠다. 중국어식의 표의 이름자들을 제외하고 고구려의 인명은 고구려어라고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지명의 한자 용례의 음가와 인명의 한자 용례의 음가의 음운론적 비교연구를 통해서 지명용례와 인명용례의 한자가 가진 음가의 언어학적 속성이 동일한 것이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지명과 인명의 성질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명의 한자 용례와 인명의 한자 용례를 중고음으로 재해석하고 그 음가들의 자음의 후두음 자질과 조음위치, 어두 자음, 주모음, 성조 등에 관련해서 통계 분석을 통한 비교연구를 했다.

4.1 자음의 후두음 자질의 차이

고구려어의 지명 용례와 인명용례의 후두음 자질을 유기음, 공명음, 유성음, 무성음으로 나누어서 비교분석을 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표4, 圖1)

표4

	有氣音(数/%)		共鳴音(数/%)		有聲音(数/%)		無聲音(数/%)	
地名用例	33	7%	99	20%	72	14%	295	59%
人名用例	10	3%	90	31%	46	16%	146	50%

圖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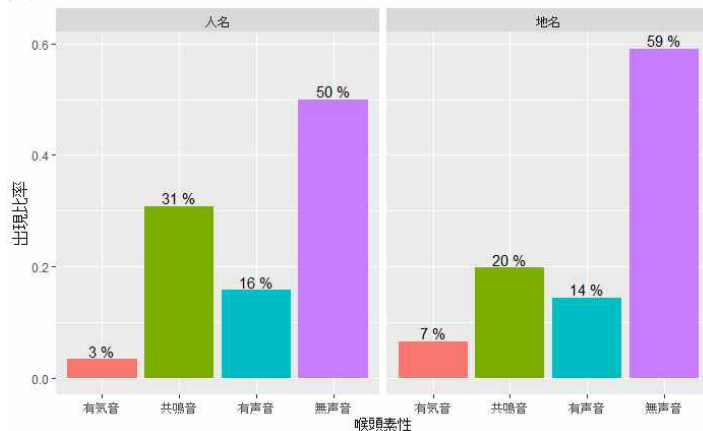


표4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유기음이 가장 적고 무성음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 유기음은 인명 용례에 「克, 芬, 切, 託, 丕, 台, 可, 倉, 丘」, 지명 용례에 「去, 次, 村, 吐, 浦, 恥, 屈, 坡, 闕, 口, 迂, 川, 赤, 且, 青, 芳」가 나타난다. 지명 용례에서는 「次」가 9번으로 출현 빈도가 가장 높고, 주로 제2음절과 어말에 많이 나타난다. 인명 용례는 유기음이 3%로 지명 용례의 7%에 비해서 적게 나타난다.

공명음의 「來母」/l/은 어두에 드물게 나타난다. 인명 용례에서는 「來母」를 가진 예들이 「婁, 蘭, 離, 留, 禮, 利, 盧, 魯, 慮, 臨, 劉, 連」가 있는데, 이들 중에 「利, 劉」는 단음절이고 어두 위치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지명 용례에서 「梁, 臘, 栗, 力, 列, 良, 利, 攬」의 예들이 있고, 이 중에서 「梁, 栗」만이 어두에 나타난다. 고구려어에 있어서 「來母」/l/은 어두 위치에 올 수 없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알타이제어들의 특성과 공통된 점이다. 공명음은 인명 용례에서 31%로 지명 용례의 20%보다 많이 나타난다.

유성음은 전체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인명 용례에서 16%, 지명 용례에서 14%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4.2 자음의 조음위치의 차이

고구려의 지명의 한자용례와 인명의 한자 용례를 조음 위치에 의해 구개음과 순음, 설정음으로 분류했을 때, 각 항목의 출현 회수와 비율은 다음과 같다. (표5 圖2)

표5

	口蓋音(數/%)	唇音(數/%)	舌頂音(數/%)
人名	94/32%	51/17%	147/50%
地名	207/41%	80/16%	212/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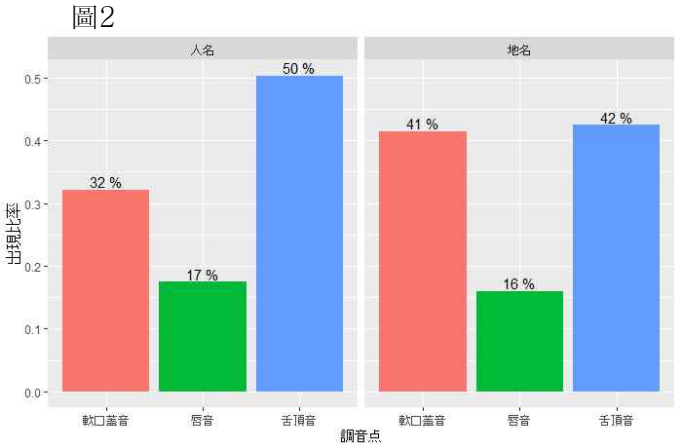


표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설정음이 가장 많고 순음이 가장 적게 나타난다. 인명 용례에서는 설정음이 50%, 지명용례에서는 42%로 나타나, 인명 용례에서 조금 높게 나타났고, 구개음은 인명 용례가 32%로 지명 용례의 41%보다 적다. 순음은 인명 용례가 17%, 지명 용례가 16%로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다.

4.3 성조의 차이
고구려어에 성조가 있는지는 아직 판명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각 한자 용례의 平上去入 의 분포상황을 분석했다. 삼국사기에 나타난 지명의 한자 용례와 인명의 한자 용례의 각 성조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6圖3)

표 6

	平	上	去	入
人名	140/ 48%	32 / 11%	65/ 22%	55/ 19%
地名	228 / 46%	92 / 18%	64 / 13%	115 /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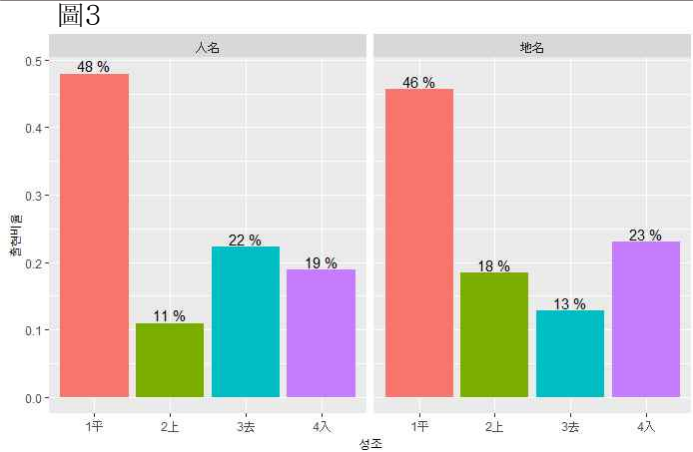


표6에서는 전체적으로 平聲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인명이 48%, 지명이 46%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上聲은 인명 용례가 11%, 지명용례가 18%로 지명에서 조금 더 높게 나타났고, 去聲은 인명 용례가 22%로 지명의 13%보다 높게 나타났다. 入聲은 인명 용례가 19%, 지명 용례가 23%로 지명이 조금 더 높다.

4.4 모음의 차이

고구려의 각 한자 용례의 모음을 중국어 중고음의 운모의 배열(『廣韻』의 배열)에 의해 분류를 하고, 모음의 출현 회수와 비율을 측정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⁷⁾ (표7)

표7

	人名	地名
歌韻 a	5/0.1%	7/ 0.1%
戈韻 ia	4/0.1%	15/0.3%
麻韻 a	9/ 3%	30/ 6%
模韻 o	33/11%	37/ 7%
魚韻 iə	13/ 4%	15/ 3%
虞韻 yuǒ	25/8%	12/2%
哈韻 ʌi	5 /1 %	5/1%
灰韻 uʌi	0	6/1%
泰韻 ai	2/0.6%	6/1%
皆韻 ei	1/0.3%	4/0.8%
佳韻 ai	5/1%	16/3%
祭韻 iei	4/1%	0
齊韻 ei	2/0.6%	11/2%
支韻 iě	15/5%	34/6%
脂韻 ii	12/4%	29/5%
之韻 iǎi	1/0.3%	7/1%
微韻 iǎi	3/1%	23/4%
豪韻 au	2/0.6%	4/0.8%
肴韻 au	0	0
宵韻 ieu	4/1%	3/0.6%
蕭韻 eu	2/0.6%	0
侯韻 əu	11/3%	5/1%
尤韻 iəu	29/9%	7/1%
幽韻 iəu	0	0
覃韻 ʌm	3/1%	3/0.6%
談韻 am	0	2/0.2%
銜韻 am	0	7/0.1%
鹽韻 iɛm	2/0.6%	1/0.2%
嚴韻 iam	0	0
凡韻 iam	0	0
侵韻 iɛm	10/3%	7/1%
寒韻 an	6/2%	18/3%
桓韻 uan	1/0.3%	3/0.6%
刪韻 an	2/0.6%	3/0.2%
山韻 uən	0	8/1%
仙韻 iɛn	7/2%	9/1%
元韻 ʌn	1/0.3%	7/1%
先韻 ɛn	2/0.6%	9/1%
痕韻 ən	0	1/0.2%
魂韻 uən	5/1%	37/7%
真韻 iɛn	15/5%	22/4%
欣韻 iəñ	1/0.3%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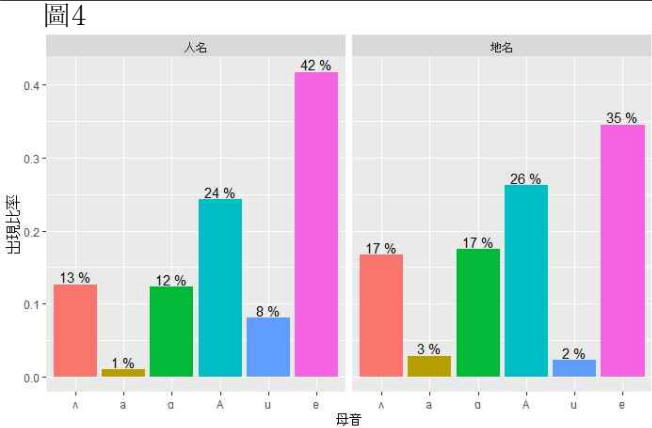
7) 중고음에 의한 재해석은 平山久雄(2022) 참조.

臻韻	iĕn	1/0.3%	0
諄韻	yĕn	1/0.3%	2/0.4%
文韻	yǎn	11/3%	7/1%
唐韻	aŋ	6/2%	1/0.2%
陽韻	iaŋ	6/2%	12/2%
江韻	auŋ	0	1/0.2%
登韻	əŋ	4/1%	2/0.4%
蒸韻	iəŋ	4/1%	6/1%
庚韻	aŋ	5/1%	11/2%
耕韻	ɐŋ	0/0	2/0.4%
清韻	iɛŋ	1/0.3%	7/1%
青韻	ɛŋ	0	2/0.4%
東韻	ǔŋ	6/2%	12/2%
冬韻	oŋ	0	7/1%
鍾韻	ioŋ	3/1%	4/0.8%

모음의 출현 횟수와 비율을 보면 우선, 인명 용례와 지명 용례에서 模韻/o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幽韻/iĕu/, 嚴韻/iam/, 凡韻/iam/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 인명 용례에는 灰韻/uai/, 銜韻/am/, 山韻/uən/, 痕韻/ən/, 江韻/auŋ/, 耕韻/ɐŋ/, 青韻/ɛŋ/, 冬韻/oŋ/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들은 거의 모두 어말 비음을 가진 모음들이다. 지명 용례에서는 祭韻/iei/, 蕭韻/ɛu/, 臻韻/iĕn/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것들은 모두 복합모음이다. 다음, 모음의 음운론적 해석 방법⁸⁾으로 주모음의 분포를 분석하면 표8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표8 圖4)

표8

	Λ	a	ɑ	A	u	e
인명	39/13%	3/1%	39/12%	75/24%	25/8%	129/42%
지명	88/17%	15/3%	92/17%	138/26%	12/2%	182/35%



중고음의 음운론적 해석은 平山久雄(2022)를 참고했고 모음을 /Λ/, /a/, /ɑ/, /e⁹⁾/, /u/의 여섯 개의 기본 모음으로 나누었다. 표7에서 보면 인명 용례와 지명 용례에서는 주모음 /e/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e/의 출현 비율도 높은 편이다. 인명 용례에서는 /a/가 1%로 가장 적게 나타났고, 이 모음은 지명 용례에서도 3%로 적게 나타났다. 지명 용례에서는 /u/가 2%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지명은 /Λ/, /a/, /ɑ/, /e/가 인명 용례에서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u/, /e/는 인명 용례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8) 平山久雄(2022) 참조.
9) /e/는 통계 분석의 편의상 /A/로 표시한다.

4.5 통계에 의한 분석

통계 소프트웨어 R(Version 1.6.0)의 glm() 함수를 사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했다. (링크 함수는 family="binomial"로 지정). 목적 변수는 인명/지명(참고 레벨은 인명)이고, 설명 변수는 후두음 자질, 조음 위치, 성조, 주모음이다. 설명 변수는 sum coding을 사용하여 코드화했다. 다음과 결과가 나타났다.

- 가) 유기음과 무성무기음은 지명 용례에 유의미하게 많이 나타났다.
- 나) 지명 용례에 있어서 상성이 유의미하게 많이 나타났다.
- 다) 지명용례에서 모음 /u/는 유의미하게 적게 나타났다.

4.6 동음한자의 출현 방식

본 장에서는 우선 동일한 한자가 인명 용례와 지명 용례에서 나타난 빈도수를 고찰했다. (표9)

표9

	韻	用例	小韻	人名数	地名数
1	見-平-麻	加	嘉小韻	2	5
2	影-平-歌	阿	阿小韻	2	5
3	影-平-脂	伊	伊小韻	2	9
4	影-入-真	乙	乙小韻	6	12
5	云-平-虞	于	于小韻	4	5
6	端-平-模	都	都小韻	1	4
7	端-平-豪	刀	刀小韻	1	1
8	端-入-登	德	德小韻	2	2
9	定-平-侯	頭	頭小韻	1	1
10	定-去-侯	豆	豆小韻	1	1
11	定-入-寒	達	達小韻	3	2
12	泥-上-豪	惱		1	1
13	来-去-脂	利	利小韻	3	1
14	心-平-模	蘇	蘇小韻	1	1
15	心-平-支	斯	斯小韻	2	15
16	邪-平-鍾	松	松小韻	3	1
17	崇-去-魚	助	助小韻	1	1
18	生-平-麻	沙	鯨小韻	1	4
19	日-平-魚	如	如小韻	1	1
20	日-上-麻 日-入-陽	若	若小韻	1	1
21	幫-平-麻	巴	巴小韻	1	1
22	幫-入-庚	伯	伯小韻	1	1
22	明-平-麻	麻	麻小韻	1	2
23	明-入-真	密	密小韻	1	1
24	微-平-文	文	文小韻	2	1
25	微-入-文	勿	物小韻	1	2

표9에서는 동일한 한자가 인명용례와 지명용례에 나타난 빈도수를 나타낸다. 동일한 한자가 인명과 지명에 쓰인 예는 25용례가 있었고, 이 중에서 「4乙」는 인명에 6회, 지명에 12회 나타났고, 「15斯」는 인명에 2회, 지명에 15회 나타나 인명과 지명의 빈도수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 그 밖에 「1加」, 「2阿」, 「3伊」, 「18沙」의 한자 용례들도 차이가 비교적 많이 난다고 볼 수 있겠다.

표10은 자음과 모음, 성조가 동일한 14개 항목의 이체자들과 그 출현 빈도수를 나타낸다. (표10)

표10

	韻	用例	小韻	人名数	地名数
1	群-平-支	岐	祇小韻	1	1

		奇	奇小韻	1	0
2	影-平-模/魚	烏	烏小韻	0	8
		於	於小韻	4	9
3	影-去-未	尉	尉小韻	3	0
		衣	衣小韻	0	10
4	群-平-尤	求	裘小韻	1	0
		仇	裘小韻	2	2
5	影-平-侵	音	音小韻	2	3
		陰	音小韻	2	0
6	曉-入-魂	忽	忽小韻	0	21
		笏	忽小韻	1	0
7	泥-平-模	奴	奴小韻	2	2
		拏	奴小韻	1	0
8	泥-平-覃	南	南小韻	0	1
		男	南小韻	1	0
9	章-平-支	支	支小韻	4	4
		只	支小韻	1	1
10	常-去-陽	上	上小韻	0	2
		尚	尚小韻	2	0
11	明-入-東	木	木小韻	0	1
		穆	目小韻	1	0
12	常-平-清	城	成小韻	0	1
		成	成小韻	1	0
13	幫-去-脂	比	痹小韻	0	4
		界	痹小韻	1	0
14	非-平-虞 奉-平-虞	夫	扶小韻	3	4
		扶	扶小韻	2	1

위의 14개 항목의 동음이체자들에서 인명 용례와 지명 용례에 상호분포를 보이는 것들이 있다. 「3尉/衣」는 인명에서 尉가 3번 쓰였지만, 지명에서는 동음자인 衣가 10번 나타났다. 또 「6笏/忽」에서 인명에 笏이 한 번 나타난데 비해 같은 음을 가진 忽은 지명에서 21번 나타난다. 忽은 城을 나타내는 고구려어로 삼국지 등에 기록되어 있고 인명 용례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예들은 「8南/男」, 「12上/尚」, 「11木/穆」, 「13比/界」에서도 나타나는 데, 이런 예들에서 고구려인들이 한자를 차용했을 때, 음차뿐만 아니라 의미도 고려하여 차용했다고 볼 수 있겠다. 단지 표9에서 인명 용례와 지명 용례에서 같은 한자를 사용한 흔적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

5. 결론

본 연구는 삼국사기 고구려기에서 권37에 기록된 지명의 한자용례와 고구려기 전반에 걸쳐 기록된 인명 중에서 고구려식 표음자들을 추출하여 기본자료를 구축한 다음, 중고음의 음가로 재해석을 했다. 또 지명 용례와 인명 용례의 언어학적 특징을 살펴보고 통계학적 방식으로 음운 자질 등의 비교연구를 진행하여 지명 용례와 인명용례의 동일성과 차이성을 분석했다.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 ① 지명의 한자 용례와 인명의 한자 용례에서 전반적으로 유기음이 가장 적고 무성음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 지명 용례에서 인명에서보다 유기음이 나타난 비율이 더 높다. 공명음의 「來母」/l/은 어두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인명 용례에 있어서 공명음은 지명 용례에서보다 비율이 더 높다. 유성음은 전체에 비하여 적은 편이지만 인명과 지명 용례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 ② 조음위치에 차이를 볼 때, 전체적으로 설정음이 가장 많고 순음이 가장 적게 나타나는데, 설정음은 인명 용례에서 조금 높게 나타났고, 구개음은 지명 용례에서 조금 높게 나타났다. 순음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③ 성조의 비교에서는 전체적으로 지명과 인명에서 平聲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명과 인명의 용례를 비교할 때,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上聲 의 비율은 지명용례가 조금 더 높았고, 거성은 인명 용례가 더 높게 나타났다. 입성은 지명 용례가 조금 더 높다.

- ④ 모음의 비교연구에서는 인명 용례들에서 어말 비음을 가진 모음들이 적게 나타났고 지명 용례에서는 복합모음이 적게 나타났다. 또 음운론적인 해석을 해 보았을 때, 지명은 /ʌ/, /a/, /ɑ/, /ɐ/가 인명 용례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u/, /e/는 인명 용례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 ⑤ 한자 차용을 살펴보면 동음이체자가 14개 항목이 나타났고 일부 인명 용례와 지명 용례에서 상호분포를 보인다. 고구려인들이 한자를 차용할 때, 음차뿐만 아니라 의미도 고려하여 차용했다고 볼 수 있겠다.
- ⑥ 통계 소프트웨어 R(Version 1.6.0)의 glm() 함수를 사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유기음과 무성무기음, 상성, 모음 /u/ 등에서 지명과 인명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보였다.
- ⑦ 이러한 결과는 고구려의 인명 자료를 고구려어의 기본 자료로 삼았을 때, 고구려의 지명 자료(권37)에는 순수한 고구려어의 요소가 아닌 다른 요소들도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그 지역의 원주민의 언어였는지, 혹은 다른 어떤 언어를 반영하고 있는지는 금후의 주변언어들과의 비교 연구에 기탁할려고 한다.

参考文献

- 李基文(1991) 『国語語彙史研究』 서울:東亜出版社.
 李基文(2004) 『国語史概説』 서울:태학사.
 俞昌均(1991) 『三国時代の 한자음』 서울:民音社.
 김영향 (2011) 『고구려의 언어유산』 서울:역락.
 金鍾權(1969) 『完訳三国史記』附原文 光進文化社.
 이승재(2016) 『漢字音으로 본 고구려어 음운체계』 서울:일조각.
 鮎貝房之進(1973) 『姓氏攷及族制攷・市廛攷』 東京:国書刊行会.
 伊藤英人(2019) 『高句麗地名』中の倭語と韓語 専修人文論集105 365-421.
 伊藤英人(2021) 「濊倭同系論」 古代文字資料館発行『KOTONOH』 224:1-70.
 伊藤智ゆき(2007) 『朝鮮漢字音研究』 東京:汲古書院.
 黒板勝美(1973) 『日本書紀』国史大系編集會 東京:吉川弘文館.
 河野六郎(1987) 「百濟語の二重言語性」 『中古先生喜寿記念朝鮮の古文化論讚』 81-94 東京:国書刊行会.
 河野六郎(1993) 『三国志に記された東アジアの言語および民族に関する基礎的研究』 平成2・3・4年度科学研究費補助金一般研究(B)研究成果報告書 東京:東洋文庫.
 坂本太郎・家永三郎・井上光貞・大野晉校(1974) 『日本書紀』上・下 日本古典文学大系67・68 東京:岩波書店.
 平山久雄(1967) 「中古漢語の音韻」 『中国文化叢書 言語』 1:112-166 東京:大修館書店.
 平山久雄(2022) 『中古音講義』 東京:汲古書院.
 福井玲(2013c) 『韓国語音韻史の探究』 東京:三省堂.
 水野俊平(2001) 「『日本書紀』의 고대 한국어 표기 연구」 全南大学校大学院博士論文.
 村山七郎(1963) 「高句麗語と朝鮮語との関係に関する考察」 『朝鮮學報』 26:189-198.
 郭錫良(2017) 『漢字古音手冊』增訂本 北京:商務印書館.
 王力(2012) 『漢語史稿』 北京:中華書局.
 王力(2017) 『漢語語音史』王力全集第二卷 北京:中華書局.
 鄭張尚芳(2003) 『上古音系』中国当代語言学叢書 上海:上海教育出版社.
 梁紅梅(2023a) 「高句麗人名の中の固有語」 『韓国朝鮮文化研究』 22(1):91-106 東京大学大学院人文社会系研究科・文学部朝鮮文化研究室.
 梁紅梅(2023b) 「朱蒙王の名前に関する考察」 『北方言語』 13:101-118 日本北方言語学会.

이 발표문은 고구려의 인명과 지명 표기에 사용된 한자 용례를 음운론적으로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발표문을 읽으면서 고구려어 연구가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에서는 발표문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3장에서 지명과 인명 자료를 제시하고 그것의 특징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 1-1. 우선 3.1절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명과 인명 자료—〈표 1〉, 〈표 2〉—는 기존 논저에서도 정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 논저를 참고하여 표가 작성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1-2. 다음으로, 3.2절에서 ‘지명의 특징’과 ‘인명의 특징’을 기술한 부분을 보면, ‘지명의 특징’에서는 ‘水’의 예 하나만을 기술하였고, ‘인명의 특징’에서는 ‘주몽’과 관련한 내용만 기술하면서 “……기타 생략”으로 마무리하고 있는데, 〈표 1〉, 〈표 2〉에 제시된 지명, 인명의 특징을 모두 기술할 계획인지 그렇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예 하나만으로 ‘지명의 특징’, ‘인명의 특징’을 기술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은가 합니다.
 - 1-3. ‘지명의 특징’을 기술한 3.2.1절의 ‘水’와 관련한 기술—13쪽~14쪽—은 정확히 어떤 의도로 기술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 1-4. ‘인명의 특징’을 기술한 3.2.2절은 “고구려 주몽왕의 이름은 고구려어에서 [ŋju mɨʃu] 혹은 [ŋju mu]의 음가를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마무리되고 있는데, 이것이 ‘인명의 특징’인가요?
2. 4장의 4.1절을 보면 ‘공명음’을 ‘후두 자질’ 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3. 4.5절 “통계에 의한 분석”은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기술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22쪽 〈표 10〉에서 ‘烏-於’, ‘尉-衣’ 등을 ‘이체자’로 보고 있는데, 국어학계에서는 이들 한자의 관계를 ‘이체자’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5. 참고문헌이 제대로 기술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伊藤英人の「高句麗地名解一覽(第3版)」”은 책으로 나온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상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한자음 운미 ‘i’ 첨가 현상의 성조 편향 고찰

張俊翼*

要 約

한국 한자음에서는 중국어와 관련 없이 운미 ‘i’가 첨가되는 현상이 발견된다. 이에 대해 河野六郎(1968), 伊藤智ゆき(2007), 申祐先(2017), 차익중(2018) 등 여러 학자들의 여러 학설이 제기되었지만 부분적으로만 설명할 수 있었을 뿐 이 현상에 대해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논의가 지금까지는 없었다.

본고에서는 한국 한자음에서 운미 ‘i’가 첨가되는 현상을 성조 유형별로 살펴보고, 遇攝 魚韻의 설치음을 제외하면 거의 모두 중국어 上去聲字에 편향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중고 上去聲의 한국 한자음 성조는 2點調(R)다. 그러나 중세 한국어 문헌을 검토하면 고유어에서 2點調(R) 어휘는 극히 드물다. 대부분이 0點調(L)와 1點調(H)의 복합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중고 上去聲의 한국어 2點調(R) 수용에는 문제가 많다.

중고 上去聲의 일부는 1點調(H)로 나타났고, 일부 上去聲字 한국 한자음 모음이 平聲字와 달라지는 현상도 일어났다. 특히, 운미 ‘i’가 첨가되는 현상이 있었는데, 중국어 變調인 上去聲을 한국 한자음에서 2點調(R)로 반영하기 위해 고유어에서처럼 聲調 복합을 활용한 것이었다.

*핵심어: 한국 한자음, 운미, 중고음, 제약, 성조

1. 序論

河野六郎(1968), 伊藤智ゆき(2007), 위국봉(2015) 등 기존의 많은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 한자음의 주요 역사 층위는 『慧琳音義』로 대표되는 후기 중고음 시기다. 즉, 한국 한자음은 주로 『慧琳音義』 음운 체계의 한자음이 한국어에 수용되어 전승된 것이다.

그런데 일부 한국 한자음 운모는 한국어 자체의 영향을 받아 중고음 운모를 그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河野六郎(1968: 184)는 한국 한자음에서 성모가 설치음일 때 합구 개음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端’[*tuan]의 한국 한자음은 ‘단’, ‘脫’[*tʰuat]의 한국 한자음은 ‘탈’이다. 이는 물론 한국어 자체적으로 ‘뎡’, ‘땡’ 따위의 음절 유형이 사용되지 않는 데서 나타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 남경대학교(南京大學) 문학원(文學院) 박사 졸업

<표 1> 한국 한자음¹⁾ 운미 i 첨가 현상

운모		성모	脣音	舌音	齒音	牙喉音
歌 *(u)a	開					개箇
	合			태妥	쇄鎖鎖	
麻	*a		패霸霸 매罵		새乍	
魚	*iɔ			대猪除條	제諸 세絮1	개筈 예豫預譽
模	*o			퇴路		
豪	*au			퇴牢		
尤	*i(ə)u				취就儗驟醜臭	
虞	*iɨ				취娶娶趣聚嫩	

이와 마찬가지로 일부 한국 한자음에서는 중국어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운미 ‘i’가 첨가되는 현상이 성모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나타났다. 물론 ‘태’(妥), ‘개’(箇), ‘세’(絮)는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각각 ‘타’, ‘거’, ‘서’(서)라는 규범음이 되었지만 다른 한국 한자음의 경우 오늘날까지도 운미 ‘i’가 첨가된 채 전승되었다.

이에 대해 河野六郎(1968: 207-208, 266)는 한국 한자음은 한국어 문장 안에서 주격 조사와 서술격 조사 ‘i’가 첨가되는 기회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개’(箇), ‘퇴’(牢路), ‘태’(妥), ‘쇄’(鎖瑣)는 한국어 문장 안에서 첨가된 ‘i’를 한자음의 일부로 받아들인 결과라고 했다.

그러나 주격 조사나 서술격 조사는 한국 한자음이 한국어 문장 내 명사로 쓰일 때에 한해 가능한 것이다. 예를 들어 ‘태’(妥)의 경우 주격 조사나 서술격 조사의 영향으로 ‘태’가 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河野六郎(1968)은 운미 ‘i’가 첨가된 모든 한국 한자음을 다루지도 않았기에 본고에서는 각 韻별로 하나 하나 기존 학자들의 주장을 다뤄보고자 한다.

먼저 果攝韻(*a)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河野六郎(1968: 207), 伊藤智ゆき(2007: 192)는 果攝韻의 ‘개’(箇), ‘쇄’(鎖瑣)에 중국어 방언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봤다. 단, 伊藤智ゆき(2007: 193) 스스로도 ‘妥’의 경우 중국어 방언에서 그런 경우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果攝韻[*(u)a]字의 중국어 방언에서 운미 ‘i’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것에는 상고음 영향도 있을 수 있다. 중고 果攝韻字는 대부분 상고 歌部字이기 때문이다.

물론 상고 歌部에 대해 학자들에 따라 재구음이 다를 수 있는데,²⁾ 鄭張尙芳(2003: 165)에 따르면, 원래 ‘*ai’이었다가 上古 晚期(漢代)에 ‘*ai’로 변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申祐先(2017: 82)은 果攝韻字에 나타나는 운미 ‘i’ 첨가 현상이 상고음을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그러나 果攝韻 이외에 상고음에 운미 ‘i’가 있는 경우는 없다. 예를 들어 麻韻(*a)의 ‘패’(霸霸), ‘새’(乍)는 鐸部(*ak)³⁾字며, ‘매’(罵)는 魚部(*a)字로 상고음에서도 운미 ‘i’가 없었다.

‘매’(罵)의 경우 申祐先(2017: 83)은 東漢 이후 魚部(*a)가 歌部(*ai)에 합류하는 것을 반영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 가설 자체도 문제가 있으며,⁴⁾ ‘패’(霸霸), ‘새’(乍)는 상고 魚部(*a)字도 아니다.

伊藤智ゆき(2007: 192)는 佳韻(*æ)⁵⁾이 蟹攝韻에서 운미 ‘i’ 유무가 혼란스러운 것과 마찬가지로 麻

1) 한국 한자음 자료는 伊藤智ゆき(2007), 權仁瀚(2009)를 참고했다. 중고음 재구음은 주로 潘悟雲(2000)을 따른다.

2) 王力(1985)은 ‘*ai’로 재구하고, 李方桂(1980)은 ‘*ar’로 재구했다.

3) 상고음 재구음은 비교적 단순한 王力(1985)을 따른다. 鄭張尙芳(2003)은 鐸部에서 중고음 당시 去聲字가 되는 暮部(*a:gs)를 또 나누었고, ‘패’(霸霸), ‘새’(乍)가 이에 속한다.

4) 중고음까지의 음성 변화를 고려하면 魚部(*a)가 歌部(*ai)에 합류하는 것이 아닌 歌部(*ai)가 魚部(*a)에 잠시 합류했다는 것이 자연스럽다. (*ai>*a)

이제 魚韻(*iɔ)의 예외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申祐先(2017: 99)은 蟹攝 3, 4等 운모 ‘ㄷ’에서 한국어 내부적으로 운미 ‘i’가 탈락해 魚韻 운모 ‘ㄷ’와 같아지는 현상이 있었고, 반대로 魚韻에서는 운모 ‘ㄷ’가 본디 蟹攝 3, 4等 운모 ‘ㄷ’에서 변한 것으로 오해하고 과도 교정에 의해 ‘ㄷ’로 고쳐지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했다.

음모 성모	蟹攝 3, 4等 iei, iei	魚 魚 i <i>o</i>
설음	ㄷ 低 抵 堤 底 抵 邸 抵 帝 啼 蹄 梯 梯 鶻 提 醍 題 提 蓆 莢 1 弟 娣 第 悌 悌 ㄷ 滯 晷 啼 噫 蒂 蝦 睇 體 洩 替 涕 迢 棣 棣 髻 締 逮 ㄹ 礪 例 藜 犁 盞 禮 體 鯉 麗 楨 荔	ㄷ 猪 除 除 ㄷ 瀝 豬 貯 著 1 櫓 擣 櫓 儲 芋 杼 筋 筍 ㄷ 攄 ㄹ 廬 間 驢 旅 胥 呂 侶 慮 濾 鑪
치음	ㄷ 際 際 祭 制 製 擦 臍 螭 齊 齋 濟 劑 ㄷ 切 2 砌 세 勢 世 貴 誓 洗 1 紕 ㄷ 妻 1 妻 2 淒 淒 서 筵 筵 噉 棲 犀 西 栖 婿 婿	ㄷ 諸 저 苴 蛆 疽 睢 鴟 沮 2 咀 沮 1 菹 菹 詛 渚 杵 저 處 嶺 架 2 서 茅 胥 1 絮 1 徐 嶼 序 漱 緒 紆 杼 1 書 舒 鴿 紆 1 暑 黍 鼠 蝻 庶 恕 野 曙 署 罽 語

申祐先(2017)과 차익중(2018)의 이 같은 견해는 기존 한국 한자음 연구에서와 다르게 한국 한자음의 운모 문제를 중국어의 반영 문제가 아닌 한국어 내부 문제로 해석하려 노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제 尤韻(*iəu)과 虞韻(*iɯ)의 ‘취’(就儻醜臭/取娶趣聚媼)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申祐先(2017: 101)은 상고 侯, 幽, 之部가 서로 합류하는 것을 반영했다고 했다. 그러나 상고 侯部(*ɔ), 幽部(*u)는

7) 伊藤智ゆき(2007: 235)는 예외가 ‘혀’(矸)뿐이라 했는데, ‘矸’의 한국 한자음으로 ‘혜’라는 음도 있었으며, 현대 한국어에서는 ‘혜’만 전승되었다.

중국어 역사적으로 운미 ‘i’가 있었던 적이 없었다.

그밖에 伊藤智ゆき(2007: 215)는 ‘취’의 ‘ㄷ’ 자체가 개음과 주모음의 복합체임을 표시한다고 했다. 즉, ‘ㄷ’로 ‘*y’를 반영한 것으로 본 것이나 후기 중세 한국어에서는 ‘ㄷ’의 단모음화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설득력이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模韻(*o)의 ‘뢰’ (賂), 豪韻(*au)의 ‘뢰’ (牢)에 대해서도 河野六郎(1968)의 주격 조사 혹은 서술격 조사의 화석화 가설 이외에는 이렇다 할 설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렇듯 한국 한자음에서 중국어와 관계없이 운미 ‘i’가 첨가되는 현상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루어졌음에도 부분적으로만 이해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런 운미 ‘i’ 첨가 현상을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찾아보고자 한다.

2. 한국 한자음 운미 ‘i’ 첨가 현상의 성조 편향

<표 3> 한국 한자음 운미 i 첨가 현상의 성조 편향

운모 \ 성조		平聲	上聲	去聲
歌 *(u)a	開			대대 개箇
	合		태앰 쇠瑣鎖	
麻 *a				패霸壩 매罵 새乍
魚 *iɔ	대猪除條 제諸	개箇		세絮 예豫預譽
模 *o				뢰賂
豪 *au	뢰牢			
尤 *i(ə)u		취醜		취就儼驟臭
虞 *iʊ	취媿	취取聚		취娶趣

위 표에서 보듯이 운미 ‘i’가 첨가된 한국 한자음은 거의 대부분 上去聲字다. 예외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데’(猪除條), ‘제’(諸)는 魚韻 설치음자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차익중(2018)이 언급한 대로 고유어에서도 초성이 설치음인 경우 ‘ㄷ’에서 순행동화되어 ‘ㄷ’이 나타나는 현상이 흔했고, 한국 한자음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주목할 점은 같은 魚韻字라도 설치음자를 빼면 모두 上去聲字라는 것이다. (箇豫預譽)

‘뢰’(牢)는 伊藤智ゆき(2007), 權仁瀚(2009)에 따르면, 15, 16세기 문헌에 ‘로’라는 기록도 존재했다. 따라서 ‘로’에서 ‘뢰’로의 변화도 15세기 이전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15, 16세기부터 시작된 것이다.

게다가 한국 한자음에는 성조와 관련 없이 ‘래>뢰’(賴賴1), ‘릭>뢰’(賚)의 변화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볼 때, ‘뢰’로의 편향은 성조, 운모와 관련 없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취’(媿)는 伊藤智ゆき(2007:215)도 언급한 것처럼 명백히 ‘취’(取)에서 類推된 것이다. ‘취’(媿)는 平聲字임에도 성조가 2點調(R)⁸⁾인 기록도 있는데, 上聲字인 ‘취’(取)에 유추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왜 이런 성조 편향이 나타났는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8) 중세 한국어 聲調 명칭 平聲, 上聲, 去聲이 중고음 聲調와 혼동된다. 따라서 한국어 平聲는 방점이 없기 때문에 0點調(L)로, 上聲는 방점이 두리기 때문에 2點調(R)로, 去聲는 방점이 하나기 때문에 1點調(H)로 각각 표기하고자 한다. 괄호 안의 L, R, H는 調價인 ‘Low’, ‘Rising’, ‘High’를 가리킨다.

<표 4> 한국 한자음 성조 통계

한국어 \ 성조	平聲	上聲	去聲	入聲
0點調(L)	92.46% 2219/2400	2.76% 31/1123	3.96% 53/1339	0.74% 8/1080
2點調(R)	1.83% 44/2400	76.45% 854/1123	75.13% 1006/1339	0.46% 5/1080
1點調(H)	0.58% 14/2400	14.16% 159/1123	14.64% 196/1339	93.43% 1009/1080
聲調未詳	5.13% 123/2400	7.03% 79/1123	6.27% 84/1339	5.37% 58/1080

위 표의 통계는 伊藤智ゆき(2007), 權仁瀚(2009)의 한국 한자음 자료를 근거로 했다. 한 한자음에 자료에 따라 여러 성조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이라도 다수가 나타나는 것을 대표 성조로 보았다.

위 표에서 보듯이 上去聲字의 한국 한자음 성조는 보통 2點調(R)다. 그러나 실제 수용 양상에서 중고 上去聲의 2點調(R) 수용은 平聲의 0點調(L) 수용 및 入聲의 1點調(H) 수용과 비교해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上去聲의 1點調(H) 수용도 15%에 육박하는데 적지 않은 수치다.

이는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는 것이 한국어 고유어에서 2點調(R) 어휘는 드물다. 비록 許雄(1955)은 중세 한국어의 0點調(L), 1點調(H), 2點調(R)가 모두 존재했던 성조로 인정했지만, 한국어 2點調(R)는 실재했다기보다는 0點調(L)와 1點調(H)의 복합에 불과했다는 논의가 이미 河野六郎(1945)부터 시작해 李基文(1960), 鄭然餐(1961)까지 이루어졌었다. 예를 들어 ‘부:테’(佛)의 ‘:테’는 0點調(L) ‘터’와 1點調(H) ‘·|’의 결합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중고 上去聲이 2點調(R)로 수용된 것이 75% 가까이 그대로 한국 한자음에 전승되어 왔다는 것이 더욱 의아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중세 한국어와 달리 고대 한국어에서는 2點調(R)가 성조로서의 지위가 더 확고했든지 아니면 중고 上去聲을 한국어에서 2點調(R)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본고에서는 전자보다는 후자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다. 중고음의 平上去入 四聲調의 調價가 정확하게 무엇이었는데 대해서는 오늘날에 와서는 알 수 없다. 현대 중국어의 여러 방언도 서로 다른 調價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고음 당시 調價를 추정하기는 더욱 힘든 것이다.

다만, 聲韻學에서는 平上去入을 다시 平仄으로도 나눈다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한다. 즉, 平調(平)는 平聲밖에 없고, 上去入聲은 모두 變調(仄)였던 것이다.

變調 중 入聲은 韻尾가 자음 韻尾며, 上去聲과는 달리 變化가 빨랐고,(促急) 이에 따라 1點調(H)로 따로 수용될 수 있었던 반면, 上去聲은 그렇지 않았다. 이들은 變化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聲調였다. 그런데 한국어의 變調는 2點調(R)밖에 없었고, 중고 上去聲이 어떤 變調이든⁹⁾ 한국어에서는 이들을 모두 2點調(R)로 수용하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¹⁰⁾

물론 河野六郎(1945), 李基文(1960), 鄭然餐(1961)의 논의에 따라 한국어의 2點調(R)가 단순히 0點調(L)와 1點調(H)의 복합에 불과했는지 모으나 적어도 한 음절 내에서 0點調(L)와 1點調(H)의

9) 上聲, 去聲이라는 명칭 및 현대 중국어 보통화의 사례를 보면, 上聲은 上昇調, 去聲은 下降調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10) 『東國正韻』 序文에서 申叔舟가 “語音則四聲甚明, 字音則上去無別”고 한 것도 이런 한국 한자음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攝韻字의 한국 한자음에서 존재하는 음절 유형들이다. 이들도 모두 운미 ‘i’가 없는 규범적인 한국 한자음보다 운미 ‘i’가 있는 형태가 上去聲字의 2點調(R)를 반영하기 쉬웠기 때문에 한국 한자음 蟹攝韻의 영향을 받아 운미 ‘i’가 첨가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특정 蟹攝韻에는 去聲 편향(夫泰祭廢)이 존재했다. 伊藤智ゆき(2007), 權仁瀚(2009) 자료를 보면, 운미 ‘i’가 불규칙적으로 첨가되는 ‘개’(箇), ‘태’(妥), ‘쇄’(鎖瑣), ‘매’(罵), ‘게’(箇)를 제외하고도 한국 한자음에서 ‘개’(概慨凱愷鎧巧蓋1慨介芥芥阶), ‘태’(太汰泰鈇鈇蔓), ‘쇄’(碎灑洒殺2纏維), ‘매’(浼邁賣), ‘게’(憩揭偈)는 모두 上去聲字다.

심지어 한국 한자음 ‘쇄’에는 원래 ‘새’나 ‘식’가 정칙인 것(灑洒殺2纏維)도 다수인데, 上去聲字면 開음을 불문하고 ‘쇄’로 편향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大)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廣韻』에서 ‘大’는 ‘徒蓋切’(*dai)도 있기 때문에 보통 한국 한자음 연구자들은 ‘대’(大)가 ‘徒蓋切’(*dai)을 반영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실제로 중국어에서 ‘大’는 특정 어휘(大夫)를 제외하고 ‘徒蓋切’(*dai)의 음은 잘 안 쓰이고 오히려 ‘唐佐切’(*da)의 음이 널리 쓰인다. 반면, 한국어 문장 내에서 ‘大’는 보편 의미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다’라는 한국 한자음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국 한자음 ‘대’(大)도 2點調(R)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운미 ‘i’가 첨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마침 중국어에 ‘徒蓋切’(*dai)의 음도 있었기 때문에 ‘대’가 더욱 보편적으로 활용되며 오늘날까지 전승되었다고 본다.

3. 한국 한자음 모음의 성조 편향

지금까지 한국 한자음에서 운미 ‘i’가 첨가되는 현상이 魚韻 설치음자를 제외하고 上去聲字에 편향된 것에 대해 논의해왔다. 그리고 한국 한자음에는 소수지만 모음의 성조 편향이 일어나는 경우도 존재한다.

<표 5> 한국 한자음 元韻(iuen/t) 순음 모음의 성조 편향

성조	平聲	上聲	去聲	入聲
幫 p	번藩	반返反2 판販販		발發髮
滂 pʰ	번反1 幡幡幡幡		빈/범飢	
並 b	번蕃樊煩幡幡幡幡蕃蕃蕃蕃蕃蕃	반飯		벌伐罰馘筏師

중고음 모음 ‘*e’의 음가는 고대 한국어에서 /ㅏ/와도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고, /ㅓ/와도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그런데 위 표에서 보듯이 平聲字의 경우에는 한국 한자음 모음이 /ㅓ/로 上去聲字의 경우에는 /ㅏ/로 나타나는 편향을 보여준다. 예외는 ‘번’(飢)뿐인데, 한국 한자음 성조도 0點調(L)라 예외며, 현대 한국 한자음도 ‘번’이 아닌 ‘반’이다.

河野六郎(1968: 230)는 ‘번’은 輕脣音化 이전을 반영한 것이고, ‘반/판’은 輕脣音化 이후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申祐先(2017: 182)은 반대로 ‘반/판’이 魏晉南北朝 시기 元韻이 仙韻과 구분되던 시기를 반영한 것이고, ‘번’은 唐代 이후 元仙韻이 합류한 것을 가리킨다고 했다.

그런데 표에서 보듯 ‘反’은 『廣韻』에서 平聲音과 上聲音이 모두 있는 多音字인데, 平聲字는 ‘번’이 되고, 上聲字는 ‘반’이 된다. 『廣韻』의 多音字를 각기 다른 역사 층위의 중국어에서 따로 수용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伊藤智ゆき(2007: 302)는 한국 한자음에 ‘:번’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본고는 이에 착안해 위의 현상 역시도 중고 上去聲의 2點調(R) 수용 문제로 본다. 上去聲의 2點調(R)를 수용하는 데에는 개구도가 보다 큰 모음 /ㅏ/가 개구도 작은 /ㅓ/보다 유리했던 것이다.

入聲字의 경우도 매우 독특한데, 全淸字(*p)는 ‘발’ (發髮)이고, 全濁字(*b)는 ‘벌’ (伐罰駭筏帥)로 모음이 다르다. 그런데 楊耐思(1981), 甯繼福(1985) 등을 참고해 『中原音韻』(1324)을 살펴 보면 全濁入聲은 陽平聲이 되고, 次濁入聲은 去聲이 되고, 淸音入聲은 上聲이 된다.¹²⁾

陽平聲이 上昇 變調가 된 것은 濁音淸化 이후로 추정되며, 한국 한자음도 일반적으로는 濁音淸化 이후의 陽平聲(上昇 變調)을 반영하는 일은 없다. 후기 중고음 단계에서는 일부 全濁入聲이 우선 陰陽의 구분 없이 平聲으로 합류하는 일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 全濁入聲字(*b) ‘벌’ (伐罰駭筏帥)의 모음이 平聲字 ‘번’과 같았던 것이다. 반면에 아직 變調에 속했던 全淸字(*p) ‘발’ (發髮)의 모음은 같은 變調인 上去聲字 ‘반/판’과 같았던 것이다.

물론 한국 한자음의 入聲字 모음이 같은 韻에서 성모 유형별로 변하는 예는 이것 외에는 없다. 이는 한국어 모음이 성조별로 ‘ㅏ/ㅓ’로 갈리는 경우도 이것 외에는 없었기 때문이다.

<표 6> 한국 한자음 凡韻(iuem/p) 순음의 상황

성조 성모	平聲	上聲	去聲	入聲
幫 p			범汎汎	법法
滂 pʰ				
並 b	범凡帆		범犯範范梵	핍乏

중고 凡韻의 모음은 元韻과 같은 ‘*ɐ’다. 그러나 凡韻 순음의 수용 양상은 元韻과 다르다. ‘핍’ (乏)을 제외한 모든 한국 한자음 모음이 ‘ㅏ’다.

이는 元韻 순음과 다르게 ‘범’이 2點調(R)를 반영하는데 문제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후기 중세 한국어 어휘 중에는 ‘:범’ (虎)이 존재한다. 만약 고대 한국어에서도 ‘:범’ (虎)이 존재했다면 凡韻 순음의 경우 한국 한자음 모음에 성조 편향이 발생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앞서 元韻 唇音의 예외 한국 한자음 ‘번’ (蠡)에 ‘범’이라는 음이 나타난 것도 같은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한국 한자음에 ‘:번’은 존재하지 않지만 ‘:범’은 존재했기 때문에 중고 上去聲의 2點調(R) 수용을 위해 ‘번’ 대신 ‘범’을 활용하기도 했던 것이다.

이밖에 중고음 모음 ‘ɐ’가 나타나는 韻에는 廢韻과 陽韻이 있는데, 廢韻(*iei)은 去聲만 존재하는 韻이라 애초에 성조 편향이 일어날 수 없다. 또한 陽韻 모음의 음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이견이 있고,¹³⁾ 한국 한자음에서도 모음을 /ㅏ/로 일관적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따로 다루지 않는다.

<표 7> 한국 한자음 痕韻(an/t) 喉牙音의 성조 편향

성조 성모	平聲	上聲	去聲	入聲
見 k	근根根			

12) 물론 현대 중국어 보통화에서 淸音入聲의 聲調는 불규칙하게 된다.

13) 陸志韋(1947), 李榮(1956), 邵榮芬(1982)은 ‘*ia(a)ŋ/k’로 재구했다.

溪 kh		근懇懇 근韻		
匣 h(y)	흔痕	흔狠	흔恨	흔齷齷
影 ?(Ø)	은恩			

한국 한자음 痕韻 喉牙音도 성조에 따라 한국 한자음 모음이 달라진다. 위 표에서 보듯이 平聲字의 모음은 ‘ㅡ’고, 上去聲字의 모음은 ‘ㆍ’다. 예외는 ‘근’(齷)뿐인데, 伊藤智ゆき(2007: 309)는 ‘근’(根)에서 유추되었다고 했다. ‘근’(根)이 상용한자인데 반해 ‘근’(齷)은 비상용한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일리 있는 추론이다.

일찍이 河野六郎(1968: 238)는 최세진의 『四聲通解』를 근거로 ‘ㅡ’가 근대음 이후의 새로운 轉寫 방법이고, ‘ㆍ’는 중고음 시기의 轉寫 방법이라고 했다. 申祐先(2017: 190)도 ‘ㆍ’는 魏晉南北朝 시기 상고 微文部가 대응되는 것을 반영한 것이고, ‘ㅡ’는 唐代 痕眞韻의 모음이 합류하는 것을 반영했다고 했다.

그러나 앞서 元韻의 ‘ㄱ/ㄷ’와 마찬가지로 痕韻의 ‘ㅡ/ㆍ’는 절묘하게 성조 편향을 이루고 있다. 이에 대해 일찍이 伊藤智ゆき(2007: 309)도 성조에 의한 어떤 차이를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본 고에서는 元韻 순음에서와 마찬가지로 上去聲의 2點調(R) 수용을 위해 /ㅡ/보다 개구도가 큰 /ㆍ/를 활용했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본다.

장준익(2022)에서 언급했듯이 중국어 역사적으로 모음 ‘ə’가 변하지 않았는데 한국어 모음이 중국어 역사 층위를 구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어 자체로 중고음 모음 ‘ə’와 완전히 일치하는 모음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ㅡ/로 때로는 /ㆍ/로 중고음 모음 ‘ə’를 반영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

특히 표에서 보듯이 痕韻(ən/t) 喉牙音의 경우에는 중고음 ㅍㅌ 차이를 더 잘 반영하기 위해서 平聲字와 上去聲字의 모음이 달라졌는데, 성조에 따라 역사층위가 다른 한국 한자음이 우연히 분포했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聲調 반영 문제로 인해 모음의 차이를 이용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홀’(齷齷)은 全濁 入聲字다. 앞서 언급했듯이 중국어 역사적으로 全濁 入聲의 성조는 점차 平聲로 변했다. 元韻의 全濁 入聲字(*b) ‘벌’(伐罰敝筏帥)의 모음이 平聲字의 ‘번’과 같았던 것처럼 ‘홀’(齷齷)의 모음도 平聲字의 ‘흔’과 같게 된 것이다.

그밖에 중고음 모음이 ‘ə’인 韻은 登韻, 覃韻, 哈韻, 侯韻이 있다. 登韻(əŋ/k)에 대응되는 한국 한자음은 불규칙적이다. 한국어 고유어 자체에 ‘ㄱ’, ‘ㅇ’, ‘ㄴ’과 같은 음절 유형이 흔하지 않았다. 거의 대부분 ‘ㄱ’으로 나타나고 ‘ㅇ’, ‘ㄴ’은 적었으며,¹⁴⁾ 痕韻(ən/t)처럼 성조 편향은 없었다.

侯韻(əu)은 ‘ㅌ’로 나타나기 때문에 제외하고, 覃韻과 哈韻의 韻母는 학자들마다 재구음이 달라¹⁵⁾ 본 고에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으려 한다.

4. 結論

한국 한자음에는 중고음 聲調의 유형에 따라 韻母가 달라지는 현상이 간혹 존재한다.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모음이 달라지기도 하고, 없었던 운미 ‘i’가 첨가되기도 한다. 이는 중고음 성조인 上去聲을 한국어 2點調(R)로 반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형이었던 것이다.

모음의 변동은 중고음 모음이 ‘e’나 ‘ə’처럼 고대 한국어에서 완전히 일치하는 모음이 없을 때에만 발생한다. 한국어 자체적으로도 2點調(R)를 반영하기 힘들다 보니 보다 개구도가 큰 모음으로 2點調(R)를

14) ‘흥’(亘恒), ‘국’(刻)뿐이다.

15) 邵榮芬(1982)은 ‘v’, 鄭張尚芳(2003)은 ‘ʌ’로 재구한다.

반영하려는 노력이 일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한국 한자음 2點調(R) 수용의 한계를 가장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운미 ‘i’ 첨가 현상이다. 河野六郎(1945), 李基文(1960), 鄭然餐(1961)의 논의처럼 한국어 2點調(R)가 0點調(L)와 1點調(H)의 복합으로 설명될 수 있다면, 한국 한자음의 2點調(R)는 상당 부분 중고음 上去聲을 반영하려는 노력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부:테’(佛)의 예에서 보듯이 한국어 고유어 문장에서도 음절말 ‘i’를 통해 2點調(R)가 나타날 수 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부 한국 한자음에서도 운미 ‘i’ 첨가 현상을 통해 2點調(R)를 보다 수월하게 반영할 수 있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 權仁瀚(2009), 『中世 韓國漢字音의 分析的 研究』, 박문사.
- 김성규(1999), 「중세국어 합성어의 성조」, 『성백인 교수 정년퇴임 기념논문집』, 79-102쪽.
- 김영만(1967), 「이조 전기의 한자음의 운율(성조)[Ⅱ]」, 『한글』140, 95-113쪽.
- 위국봉(2015), 『고대 한국어 음운 체계 연구 : 전승 한자음을 대상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 이기문(1960), 「“소학언해”에 대하여」, 『한글』127, 50-69쪽.
- 李基文(1998), 『國語史概說』, 塔出版社.
- 장준익(2022), 「한국 한자음의 음절 대응을 통해 본 고대 한국어 /·/의 음가」, 『口訣研究』49, 83-132쪽.
- 鄭然餐(1961), 『十五世紀國語의 Tone에 對한 研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차익중(2018), 「중세한국한자음 ‘ㄱ~ㄱ’, ‘ㅋ~ㅋ’ 형에 대하여 - 遇攝 魚韻의 ‘ㅣ’ 덧남 변칙음을 중심으로 - 」, 『國語學』86, 157-180쪽.
- 許雄(1955), 「傍點 研究」, 『東方學志』2, 38-194쪽.
- 潘悟雲(2000), 『漢語歷史音韻學』, 上海教育出版社.
- 邵榮芬(1982), 『切韻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楊耐思(1981), 『中原音韻音系』,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李榮(1956), 『切韻音系』, 科學出版社.
- 甯繼福(1985), 『中原音韻表稿』, 吉林文史出版社.
- 陸志韋(1947), 『古音說略』, 哈佛燕京學社.
- 李方桂(1980), 『上古音研究』, 商務印書館.
- 李榮(1956), 『切韻音系』, 科學出版社.
- 王力(1985), 『漢語語音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鄭張尚芳(2003), 『上古音系』, 上海教育出版社.
- 伊藤智ゆき(2007), 『朝鮮漢字音研究』, 汲古書院. (이진호 역, 『한국 한자음 연구: 본문편, 자료편』, 역락, 2011.)
- 河野六郎(1945), 『朝鮮方言學試攷』, 東都書籍.
- 河野六郎(1968), 『朝鮮漢字音の研究』, 天理時報社. (이진호 역(2010), 『한국 한자음의 연구』, 역락)

토론문: 장준익 선생님의 「한국 한자음 운미 ‘i’ 첨가 현상의 성조 편향 고찰」

이준환(전남대)

한국 한자음 성조의 실현이 모음의 대립 및 음절 편향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다룬 선생님의 글 잘 접해 보았습니다. 덕분에 토론자로서는 그간 생각하여 보지 못했던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고 적지 않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이에 동일 분야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글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어 조심스러운 마음이 많지만 용기를 내어 몇 가지 여쭙어 보고자 합니다.

1. 성조의 편향 현상을 다루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섭과 운목에 존재하는 한자의 개수와 더불어 해당 한자가 지니는 한자음이 어떤 성조상의 분포를 보이는지가 우선적으로 확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양상을 보면서 선생님께서 다루고 계시는 성조 편향 현상이 구조적인 데에서 기인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판단해 본 후에, 구체적인 논의를 하여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운미 ‘i’가 첨가된 것이 상성을 나타나게 되는 것은 예로 들고 계시는 [L부L터H] → [L부R테]와 동일한 기제로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가능성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i/로 끝나는 하향 다중 모음에서의 /-i/의 세기 및 높이가 검토가 되고, 이 과정에서 반모음이 아닌 모음 /i/로 끝나는 한자음이 보이는 성조의 문제도 함께 검토가 되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즉 /-i/는 거성적으로 실현되는 것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국어의 상성의 경우 복합으로 형성된 것도 있지만 기저에 상성을 지닌 것도 많이 분포합니다. 선생님께서는 국어 고유어에서 상성 어휘는 드물다고 하셨지만 음절 축약 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 중에서도 상성을 지니는 것들은 어렵지 않게 확인이 됩니다. 성조소로서는 평성과 거성만이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성조로 상성이 존재하는 것이 부정되는 것은 아닐 듯합니다.

4. ‘嫲’에 관해서는 “취’(嫲)는 伊藤智ゆき(2007:215)도 언급한 것처럼 명백히 ‘취’(取)에서 類推된 것이다. ‘취’(嫲)는 平聲字임에도 성조가 2點調(R)인 기록도 있는데, 上聲字인 ‘취’(取)에 유추되었기 때문이다.”와 같이 기술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지만 ‘嫲’가 ‘娶’와 이체자 관계에 있고, 이 ‘娶’가 『광운』에 七句切과 같이 거성으로 나타남도 고려 사항에 포함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여기에 성부에 해당하는 ‘取’도 “取妻如何? [아내를 얻는 데 어떻게 하오]”와 같이 『詩經』의 「南山」에서와 같이 ‘取=娶’를 보임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5. 방점과 관련하여 평성을 나타내는 데에는 방점이 없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훈민정음』 「예의」에서는 점을 하나 더하면 거성을 나타내고 점을 둘을 더하면 상성을 나타내고 점을 더하는 것이 없으면 평성을 나타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점의 개수가 1개, 2개, 0개로 구분되는 것으로 평성을 나타내는 無點은 형체가 없는 방점을 쓴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훈민정음』을 비롯하여 『석보상절』 등의 문헌을 보면 글자 앞에 방점을 표시할 공간은 일정하게 확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평성을 나타내는 경우에도 빈공간이 제시됨으로써 사실상 0점의 방점이 채워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문제 제기를 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이만 토론을 마칩니다.

제2부

기획 주제 발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국어사 자료 소개

이용현(전 경북대 인문학술원) · 고은숙(국립한글박물관)

1. 머리말

국립중앙박물관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으며, 산하에 13개 지역의 소속 박물관을 두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 박물관의 소장품은 총 1,555,224건 2,441,989점(2023.12.31. 기준)으로, 지정문화재는 470건(국보 125건, 보물 327건 등)이다. 이 발표문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 및 산하 13개 소속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국어사 자료를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어사 자료에는 한글 창제 전후의 차자표기 자료(구결, 향찰, 이두)를 비롯해 15세기 이후의 한글 자료 및 관련 한문 자료(운서(韻書), 개인 문집 등 한글 관련 연구서) 등이 있다. 선장본 형태의 문헌 자료가 다수이지만 두루말이 형태의 초조대장경, 낱장 고문서도 있으며, 지류 외에 돌이나 금속, 나무, 도자기 등의 재질로 된 것도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 박물관에 소장된 방대한 유물 가운데 국어사 자료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선별해 전체 목록을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이 발표문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 박물관 소장 국어사 자료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대략적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한글 창제 이전의 차자표기 자료

둘째, 송성문, 이견희 기증 자료

셋째, 지정문화재급 국어사 자료

<표 1> 국립중앙박물관 및 산하 13개 소속 박물관의 소장품 현황¹⁾²⁾

연번	기관명	소장품		지정 문화재 (건) ³⁾	비고
		건	점		
1	국립중앙박물관	214,374	437,684	326	1909.11. 대한제국 창경궁에 제실박물관 개관 1915.12. 조선총독부 박물관 개관 1945.12.03. 조선총독부 박물관 인수, 국립박물관 개관 1946.04. 개성부립박물관을 개성분관으로 흡수통합 1950.12. 국립민족박물관을 남선분관으로 흡수통합 1969.05. 덕수궁미술관을 흡수통합 1972.07.19.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직제 개편 1979.04.12. 민속박물관을 중앙박물관 산하로 흡수 1986.08.21. 구 중앙청을 개수, 중앙박물관 이전 개관 1992.10.30. 국립민속박물관 분리 직제 개편 1997.10.31.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건립 기공식

1) 국립중앙박물관(2023), 『2023 국립박물관 연보』 참조.

2) 국립중앙박물관과 산하 소속 박물관에서는 금속, 토제, 도자기, 석, 유리 보석, 초제, 나무, 골각 패갑, 지, 피모, 사직, 종자, 기타 재질로 유물의 유형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2	국립경주박물관	189,881	286,865	45	1926.06.20. 경주분관 개관 1945.10.07. 국립박물관 경주분관으로 개관 1975.08.20. 국립경주박물관 승격, 직제 개정
3	국립광주박물관	106,253	165,140	9	1978.12.06. 국립광주박물관 개관
4	국립전주박물관	80,960	95,928	5	1990.10.26. 국립전주박물관 개관
5	국립대구박물관	251,765	340,702	19	1994.12.07. 국립대구박물관 개관
6	국립부여박물관	74,914	97,699	6	1939.04.01. 부여분관 개관
7	국립공주박물관	117,645	311,571	17	1940.04. 공주분관 개관 2004.5.14. 국립공주박물관 이전 신축 개관
8	국립진주박물관	98,980	119,617	10	1984.11.02. 국립진주박물관 개관 1998.01.15. 임진왜란 전문역사박물관으로 재개관
9	국립청주박물관	87,769	118,213	4	1987.10.30. 국립청주박물관 개관
10	국립김해박물관	106,210	196,659	9	1998.07.29. 국립김해박물관 개관
11	국립제주박물관	40,599	53,984	0	2001.06.15. 국립제주박물관 개관
12	국립춘천박물관	125,723	146,388	10	2002.10.30. 국립춘천박물관 개관
13	국립나주박물관	30,923	39,623	0	2013.11.22. 국립나주박물관 개관
14	국립익산박물관	29,228	31,916	10	2020.01.10. 국립익산박물관 개관
합계		1,555,224	2,441,989	470	

2.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주요 국어사 자료 소개

2.1. 한글 창제 이전의 차자표기 자료

삼국시대 이후부터 한글 창제 이전까지의 차자표기 자료(향찰, 이두, 구결)는 국어학계에 거의 대부분 잘 알려져 있다. 두루말이나 선장본의 형태로 된 것도 있지만 돌이나 나무(금석문, 목간 등), 금속 재질의 그릇이나 장신구, 종, 칼 등에 명문이 새겨진 것도 있다.

따라서 이 발표문에서는 한글 창제 이전의 차자표기 자료 가운데 1)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2) 연구자들이 해당 유물의 고해상도 실물 이미지를 찾아볼 수 있도록 소장처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유물명과 유물번호를 제공하는 한편 3) 해당 유물과 관련해 국어학계에서는 잘 모르고 있던 관련 자료들(해당 유물의 일제강점기 유리건판 이미지, 다양한 탁본의 국내 소장처 등) 등을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다음과 같이 ‘갈항사 석탑비(葛項寺 石塔碑)’의 경우, 국립중앙박물관의 야외 전시장에 실물이 있으며, 관련 자료로 탁본과 유리건판이 수장고에 격납되어 있다.

(예시) 갈항사 석탑비 ←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명칭

- 3) 국립중앙박물관: 326건(국보 81, 보물 231, 국가민속문화재 4, 시도지정문화재 2, 국가등록문화재 8)
국립경주박물관: 45건(국보 13, 보물 32) | 국립광주박물관: 9건(국보 2, 보물 6, 시도지정문화재 1)
국립전주박물관: 5건(보물 5) | 국립대구박물관: 19건(국보 4, 보물 13, 국가민속문화재 2)
국립부여박물관: 6건(국보 2, 보물 4) | 국립공주박물관: 17건(국보 13, 보물 4)
국립진주박물관: 10건(보물 10) | 국립청주박물관: 4건(보물 4) | 국립김해박물관: 9건(보물 9)
국립춘천박물관: 10건(국보 1, 보물 8, 중요민속문화재 1) | 국립익산박물관: 10건(국보 9, 보물 1)

<실물> 김천 갈항사 터 동·서 삼층석탑(본관4185)

<탁본> 갈항사탑 탁본(덕수5844)

<유리건판> 경북김천 갈항사 삼층석탑(건판19106), 서울종로 갈항사 동서삼층석탑(건판3890), 서울용산 갈항사 동삼층석탑 명문(건판10699)

<표 2>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한글 창제 이전의 차자표기 자료(정리 중)

구분		자료명	유물명/유물번호/소장처 ⁴⁾	비고
향찰 등 어휘표기		삼국유사	국립중앙박물관(신수 19870)	1904년 일본 동경제국대학 신연 활자판
		삼국사기	국립중앙박물관(건희 7113)	시대 미상
			국립중앙박물관(구 5190)	조선
이두	고구려 이두	광개토대왕릉비	광개토대왕비 탁본(본관6490) ⁵⁾	실물은 중국 ⁶⁾ 에 있지만 중박에 탁본 및 건판 자료 다수 [참고]광개토대왕릉비문 탁본(소 장11830)(영남대박물관)
			광개토대왕비 탁본첩(구5298)	
			광개토대왕릉비 원석탁본(구10552)	
			중국길림 광개토대왕릉비 복면 탁 본 작업(건판 5115) 등)	
		중원고구려비	중원 고구려비 탁본(신수8003)	국보, 충주 고구려비 실물 소재지는 충청북도 중원군 가금리(可金面) 용전리(龍田里) 입석마을/ 충주고구려비전시관
			중원 고구려비 탁본(제주기1129) (국립제주박물관)	
			中原高句麗碑拓本(부여2995)(국립 부여박물관)	
		칠지도명(七支 刀銘)	백제 칠지도 모조품(신수2744)	실물 소재지는 일본 나라현(奈良 縣) 천리시(天理市) 석상신궁(石 上神宮)
		서봉총출토은합 우(瑞鳳塚出土 銀盒杆)	延壽銘銀盒(본관14357)	[참고] 『유리원판목록집』IV 71쪽
			경북경주 서봉총 은제제명합(건판 25107)	
	백제이두	무령왕릉 은팔 찌 (武寧王妃銀製 釧)	용무늬 은팔찌(왕비)(무령51)(국립 공주박물관)	국보. 명문과 무늬가 똑같이 새 겨진 1쌍 2점으로 구성. 17자의 명문 ‘庚子年二月多利作大夫人 分二百卅主耳’가 굵은 획으로 음 각. ‘多利(다리)라는 장인이 庚子 年(520)년에 大夫人(왕비)에게 은 230主耳(또는 銖)를 들여 만 들었다’
		부여 능산리사 지 목간(扶餘陵 山里寺址木簡)	국립부여박물관	국보, e뮤지엄에서 유물명과 유 물번호를 찾지 못함
	신라이두	울주 천전리 각 석 원명(蔚州 川前里 刻石) 울주 천전리 각 석 추명(蔚州 川前里 刻石)	울주 천전리서석 탁본(신수8004)	실물은 국보, 소재지는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산210-2
			울주 천전리각석 탁본(제주기 1133)(국립제주박물관)	
		단양신라적성비 (丹陽 新羅 赤 城碑)	단양신라적성비 탁본(청주20597, 20303)(국립청주박물관)	실물은 국보, 실물 소재지는 단 양군 단성면 하방리 산3-1 파편 조각 13건
			단양신라적성비탁본(제주기1130) (국립제주박물관)	
		단양신라적성비편(청주23128,		

구분	자료명	유물명/유물번호/소장처 ⁴⁾	비고
통일신라 이두		23129, 23130, 23131, 23132, 23133, 23134, 23135, 23164, 23165, 23166, 23167, 23168) (국립청주박물관)	
	명활산성 작성비(明活山城作城碑)	경주 4549(국립경주박물관)	
	대구 무술명오작비(大邱 戊戌銘 塙作碑)	大邱 戊戌銘 塙作碑搨本(경주 40911)(국립경주박물관)	보물, 실물은 경북대학교 박물관 소장
		남산신성비탁본(신수8000)	
	경주 남산신성비 I~IX (慶州南山新城碑第一碑) ⁸⁾	남산신성비(경주 1740)(국립경주박물관)	신라591년
		南山新城碑片(경주 174, 484, 492, 493, 1738, 1758)(국립경주박물관)	
	임신서기석 (壬申誓記石)	壬申誓記石(경주282)(국립경주박물관)	보물
		경북경주 석장사 임신서기석(건판 25343)	[참고]임신서기석 탁본(부산광역시립박물관-기증235, 국립세계문자박물관-구입216)
	함안 성산산성 목간(咸安城山山城出土木簡)	먹글을 쓴 나무 조각(김해 1263, 1264, 1265, 1266, 1267, 1268, 1269, 1270, 1271, 1272, 1273, 1274, 1275, 1276, 1277, 1278, 1279, 1280, 1281, 1282, 1283, 1284, 1285, 1286, 1287, 1288, 1289, 11144)(국립김해박물관)	e뮤지엄에 판독문 제시 (김해박물관 소장품 중 출토지가 함안군인 것만 포함(김해, 창녕인 것 제외))
	경주박물관 터 목간	木簡(경신48243)	국립경주박물관, 총 14건
		木簡(안압지1158, 1289, 1290, 1291, 1292, 1293, 1294, 1484)	
		木簡(경주 15714, 15597, 15596, 42560)	
		木簡片(경주96042)	
	감산사 미륵보살 조상기(甘山寺 彌勒菩薩造像記)	감산사 석조미륵보살입상(본관 1958)	실물은 국보
		감산사 석조미륵보살입상(건판 15792)	
		감산사 석조미륵보살입상 전시(건판25923)	
		감산사 석조미륵보살입상 전시 장면(건판25375)	
	감산사 아미타 불 조상기(甘山寺 阿彌陀佛造像記)	감산사 석조아미타불입상(본관 1959)	실물은 국보
		경북경주 감산사 석조아미타불입상(건판25379, 22549)	
	상원사 종명(上院寺 鍾銘)	강원평창 상원사 동종(건판12430, 12431 등)	실물은 국보, 소재지는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308-5 상원사
	갈항사 석탑비 ⁹⁾ (葛項寺 石塔)	김천 갈항사 터 동·서 삼층석탑(본관4185)	국보. 소재지는 국립중앙박물관 야외전시장

구분	자료명	유물명/유물번호/소장처 ⁴⁾	비고
	碑)	갈항사탑 탑본(덕수5844)	탑본. 탁본 시기 알 수 없음
		경북김천 갈항사 삼층석탑(건판 19106)	『유리원판목록집』Ⅲ 71쪽
		서울종로 갈항사 동서삼층석탑(건판 3890)	『유리원판목록집』Ⅰ, 170쪽
		서울용산 갈항사 동삼층석탑 명문(건판 10699)	『유리원판목록집』Ⅱ 47
	창녕 탑금당 치성문 기비	경남창녕 탑금당치성문 기비(건판 3114, 3836, 31538, 31539, 35924, 등)	실물은 보물, 소재지는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 294번지
	함통명금구(咸通銘 禁口)	「함통육세을유」이 새겨진 시공사 쇠북(본관 8616), 함통육년명금고(건판 24966)	실물은 보물, “함통육세을유(咸通陸歲乙酉)”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어 제작연대가 865년 ¹⁰⁾

광개토왕비(광개토왕릉비) : 고구려 탁본자료로, 구10052는 소위 청명본(임창순본)으로 원석탁본. 최근 구입품. 디지털복원되어 현재 상설전시실에 디지털 전시 및 실물 전시. 4면을 구비하고 있으나 제3면과 제4면 일부는 결락되어 있다. 디지털 전시에서는 결락본 일부를 일본 국립역사미속박물관본(구 水谷悌二郎본)으로 보완. 나머지 탁본은 모두 석회탁본. 구5298은 해방 후 구입, 본관6490은 일제강점기 입수품인데, 전자는 전첩본, 후자는 각면 1개의 탁본. 모두 4면.

원본인 원비는 420년 제작, 전체 4면 구성. 이두 존재 여부에는 논란이 있다. 구5298과 본관 6490 관련 이미지 자료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역사자료 총서10 금석문자료1(삼국시대)』(2010,국립중앙박물관)[이하 “금석문자료1”로 약칭]

증원고구려비(충주고구려비) : 고구려 탁본자료로 이 중 신수8003은 전면과 좌면 2면이 존재. 이미지자료는 금석문자료1 참조. 원 비는 충주고구려비 전시관. 4면설(후면-우면-전면-좌면)이 주류였다가 최근에는 전면의 제액(혹은 기년)이 판독됨으로써 3면비설(전면-우면-좌면)도 주장되고 있다. 변격한문체거나 우리말어순의 한문문장이 보인다. 비 제작연도는 다기다양한데, 대체로 5세기 후반과 5세기 전반설이 병립하다가, 근년에 전면 머리에서 “永樂七年歲在丁酉”를 판독한 설이 제기되어 397년(광개토왕 7년)설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서봉총출토은합우(延壽명 은합) : 고구려 자료. 본관14357. 실물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신라실에 상설전시중. 신라 서봉총에서 발견되었는데, 고구려가 제작해서 신라에 준 것으로 인식

4) 자료명과 유물명이 동일한 경우는 유물명 생략, 소장처를 별도로 적지 않은 것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5) <https://www.museum.go.kr/site/main/relic/recommend/view?relicRecommendId=254462>

6) 길림성(吉林省) 집안시(集安市) 태왕향(太王鄉) 구화리(九華里) 대비가(大碑街)

7) 중국길림 광개토대왕릉비 동면(건판 5088, 5089, 5105, 5108, 5109), 중국길림 광개토대왕릉비 서면(건판 5091, 5112), 중국길림 광개토대왕릉비 남면(건판 5094), 중국길림 광개토대왕릉비 북면(건판 5092, 5093, 5113), 중국길림 광개토대왕릉비 초석 동면(건판 5101), 중국길림 광개토대왕릉비 초석 동남면(건판 5090, 5098) 등

8) <https://www.museum.go.kr/site/main/relic/recommend/view?relicRecommendId=16923>

9) <https://www.museum.go.kr/site/main/relic/recommend/view?relicRecommendId=16863>

10)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쇠북

<https://www.museum.go.kr/site/main/relic/recommend/view?relicRecommendId=562441>

되고 있다. 처격 조사 中이 보인다. 제작년도는 391년, 451년, 511년설이 있다. 이미지자료는 “금석문자료1”.

부여능산리사지 목간 : 백제. 유물번호 미확인. 실물은 국립부여박물관 소장 및 일부 상설실 전시. 백제 능산리고분군 서편, 부여 동쪽 나성 동편 사이의 골짜기 같은 지형에 위치한 능산리사지(절터), 즉 부여능산리391일원에서 출토. 29점 및 삭편125편. 6세기 중후반. 공반유물로 문자자료로 567년 창왕명 석조사리감(국보)이 있다. 목간은 대부분 중문지 남쪽 배수로등에서 발견되었으며, 사찰 건립과 운영과정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목간에 기년은 보이지 않아 정확한 연대를 특정할 수는 없으나, 정황으로 보아, 538년설, 538년-567년설, 554년-567년설이 있다. 대체로 창왕명사리감의 567년이 하한의 절대기준이 된다. 物名, 인명 자료가 있으며, 단편적인 어휘나 해명되지 못한 내용들이 적지않다. 소위 속세결업가가 국어학계에서는 소개된 바 있다. 관련자료의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목간총람』(주류성, 2022)[이하 “총람”으로 약칭, 이미지 자료는 국립부여박물관 『백제목간-소장품조사자료집』(2008)참조.

무령왕릉 은팔찌 : 백제, 국보, 국립부여박물관 소장, 1쌍 2점. 명문 내용은 2점 모두 같다. 팔찌는 왕릉내 왕비 목관 내 왼쪽 팔 부근에서 출토되었다. 왕릉은 충남 공주시 금성동 왕릉원에 소재한다. 백제의 독특한 수량사 “主”가 보인다.

울주 천전리 각석 : 신라, 탁본. 원명과 추명 2종. 원명(을사명)은 527년, 추명(기미명)은 539년. 원각석은 울산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산207-8에 소재. 신수8004의 원명과 추명 탁본은 “금석문자료1”에 게재. 국립경주박물관 『신라문자자료2』(2019)[이하 “신라문자2”로 약칭]에는 원명, 추명과 함께 다른 명문 자료의 사진 게재. 우리말 어순의 변격한문.

단양신라적성비 : 신라, 탁본, 신수8002는 “금석문자료1”에 게재. 청주박물관 소장품은 『기록(특별전 도록)』(2004)에 게재. 원비는 충북 단양군 단성면 하방리 산3-1번지 적성산성 하단부에 소재. 국보. 상단부 파손. 파손된 상단부의 일부가 파편으로 남아 그 중 16점(편)이 국립청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그 이미지 자료는 “신라문자2”에 수록. 비석의 기년 부분이 일실되어, 내용의 정황을 근거로 그 제작년도는 545년, 550년, 551년이후설이 있다. 6세기 중엽 신라가 이 지역에 진출한 이후, 지역에 대한 포상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인명, 지명, 관등명 자료가 있고, 시간과 관련된 中, 변격한문으로도 볼 수 있는 문체가 있다.

경주남산신성비 : 신라. 탁본8000은 국립중앙박물관, 실물은 국립경주박물관에 소장, 상설실 전시중. 전체 제1비에서 제9비까지 있다. 탁본은 “금석문자료1”에, 실물 사진은 국립경주박물관 『신라문자자료1』(2017)[이하 “신라문자1”로 약칭]에 수록되어 있다. 비석들은 경주 남산의 남산신성 일원에서 각각 1934년에서 2000년에 사이에 산발적으로 발견되었다. 구체적인 발견지점은 “신라문자1”참조. 591년 신라가 신성을 축조하면서 세운 비석으로, 구간 마다 전국에서 동원된 촌 단위의 분담구역별로 공사단위가 3년내 하자가 생길 경우 보수할 것을 스스로 맹서케 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각 비석의 앞 부분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두로서 주목된다.

임신서기석 : 신라. 보물. 실물은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전시중. 전형적인 우리말식 한문으로 국어학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 경주 현곡면 금장리 언덕에서 발견. 552년. 신라 청년이 국가

에 대한 충성과 학습을 맹서한 내용. 이미지 자료는 “신라문자2”에 수록.

함안 성산산성 목간 : 신라.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이전 명칭,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가 1991년에서 2017년에 걸쳐 수차의 발굴을 통해 총 245점의 목간을 발굴했다. 이 중 초기 발굴분 일부 즉 28점이 국립김해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가 소장중이다. 목간 내용에 대해서는 “총람”에서 간략히 살펴볼 수 있으며, 상세 이미지 자료는 국립가야문화연구소『한국고대의 목간2』에서 볼 수 있다.(기관 누리집에서 pdf제공 중. 목간 중 1점에 壬子年이란 기년이 보여 591년으로 추정되는데, 이와 연동하여 이 목간이 발견되기 전에는 6세기 중엽설이 주류였는데, 기년 목간을 근거로 591년으로 보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유적은 함안 조남산 정성부에 조성된 신라의 산성으로, 목간은 산성 동문지 내부 하단에 조성된 부엌층에서 일괄 출토되었다. 원래 하찰로 신라 전국 각지에서 보내진 목간이 함안에 도달되어 폐기되면서 일괄 목재로서 재활용된 것이다. 대부분 <지역명+인명+곡물명+수량>의 내용으로 이뤄지는데, 4점은 문장으로 구성된 문서다. 시간 처소격 조사 中과 함께, 前白제 등 독특한 당대 문체가 들어 있다. 동일 지명을 달리 표현한 사례도 보인다.

경주박물관 터 목간(경주박물관 소장 목간) : 통일신라, 안압지1158 등은 경주 월지(구명 안압지) 출토품. 경주15714 등은 경주박물관 부지(미술관 부지)와 인용사지 출토품. 경신48243은 경주박물관 남측부지(영남권수장고 동쪽부지) 출토품. 이미지 자료는 경주문화재연구소『신라왕경목간』(2022)년 수록. pdf자료는 기관 누리집에서 제공중. 안압지(월지) 목간에 대한 상세 적외선 사진과 판독문은 국립경주박물관 『신라문물연구』창간호(2008) 수록. 위 관련 판독문은 “총람”참조. 월지(안압지)목간 61점은 경주시 원화로 102 월지와 동궁 유적의 월지(안압지)에서 발견. 8-10세기 통일신라의 것. 월지는 통일 후 674년 궁궐내 조성된 궁원지다. 첫갈의 첫 음차자로 보이는 “助史”등 당대 물명, “白之”등 문체가 보인다. 황남동376번지 목간 3점은 7-9세기의 것으로, 생활유적 출토품으로 당대 창고 용어와 수량사 등이 보인다. 전 인용사지 목간 1점은 8세기의 것으로 처소격조사“中”을 비롯 “亦在如”같은 이두가 보인다. 경주박물관 미술관 부지 목간 2점은 8-10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데, “中”“白”“爲”“內”같은 이두식 용어가 보인다. 영남권수장고 동쪽부지 목간 2점은 8-9세기의 것이고, 황룡사 남측도로 목간 1점은 6-9세기의 것인데, 확실한 판독이 이뤄지고 있지 못하다. 전 황복사지 목간 1점은 9-9세기 것으로, 사찰과 승려 이름이 적혀 있다.

감산사 미륵보살 조상기 및 감산사 아미타불 조상기 : 통일신라. 국보인 실물 그리고 탁본 모두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실물은 전시중. 석불상의 광배 배면(뒷면)에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미륵보살상에는 381자. 아미타불상에는 392자가 있다. 불상의 제작 연대는 719년, 조성자, 조성 배경의 내용을 담고 있다. 출토지인 감산사는 경주 외동읍 괘릉리6-2에 소재. 명문 이미지와 기초판독 자료는 국립중앙박물관『미술자료』 84(2013)에 수록되어 있다.

상원사 종명 : 통일신라, 일제강점기 유리건판자료.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실물은 강원 평창군 진부면 상원사 소장. 국보. 725년 주조된 가장 오래된 신라의 종이다. 명문은 범종 상부 음통 부분에 있다. “鍾成記之”란 이두가 있다.

갈항사 석탑비 : 통일신라,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야외전시장에 전시중. 탁본 및 유리건판 중앙박물관 소장. 명문은 785-798년 조성, 탑 자체는 758년 조성. 원성왕의 외삼촌인 영모사 언적 법사 등 4명이 발원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두다.

창녕 탑금당 치성문 기비(일명 인양사비) : 통일신라, 탁본 및 유리건판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실물은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294번지 소재. 810년 제작, 771년에 인양사 종을 만들 것을 비롯 810년 완공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적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두문. 비석 3면(후면-우면-좌면)에 각서되어 있다.

함통명금구: 통일신라, 실물, 유리건판 모두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실물은 전시중. 865년. 금구(쇠북)가장자리에 명문이 주조되어 있다. “成內”등 이두와 금고를 이르는 당대 단어 “禁口” 등이 들어 있다.

정도사 오층석탑 조성 형지기: 고려, 유물번호 미상,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고려실 전시중. 탑은 경북 칠곡 약목면 복성리에 소재, 형지기는 탑안에 있었으며 백지묵서로 되어 있다. 1031년의 11세기 대표적인 이두문으로 자료적 중요성이 높다.

2.2. 송성문, 이건희 기증 자료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자료 가운데 송성문, 이건희 기증품에는 전적류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에는 국어사 자료로서 가치가 높은 것들이 많다.

혜전 송성문 선생이 2003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한 자료 중에는 『고금운회거요(古今韻會舉要)』 권27~30(보물)처럼 훈민정음 창제와 관련된 중요 자료는 잘 알려져 있으나 고려 시대 때의 선장본 가운데 자토구결이 기입된 자료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고 있는 이들이 많다.

고 이건희 회장의 유족들이 2021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한 자료는 2022년 유물 등록을 완료하였고 2022년 이후 분야별 목록집으로 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국어학계에서 아직 제대로 연구된 적이 없다.

따라서 이들 기증품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발간한 도록 및 목록집, e뮤지엄 등을 참조해, 유물 촬영 이미지를 확인하고 국어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차자표기 자료와 한글 자료의 명칭, 소장품 번호 등을 정리해 놓는다면 국어학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¹¹⁾

2.2.1. 송성문 기증 자료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혜전(惠田) 송성문(宋成文) 기증 자료는 총 46건 101점(국보 4건 4점, 보물 22건 31점 포함)¹²⁾으로 서책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그가 체계적으로 수

11) 다만 국보나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고려 시대 이전의 두루말이 불경 중에 각필구결(점토구결) 자료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나 e뮤지엄에서 제공하는 유물 촬영 이미지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12) 송성문 기증 유물번호: 증3450~증3495(서책 42건 97점, 회화 2건 2점, 서예 1건 1점, 고문서 1건 1점)

집한 고려와 조선 초기의 고인쇄 자료들은 이 분야 최고 수준이다. 고려 현종대(11세기)의 초조대장경을 비롯하여 법화경·금강경·화엄경·능엄경 등 고려, 조선 초기의 목판본 불경 등은 우리나라 인쇄 문화의 정수를 보여준다.

혜전은 2003년 3월, 평생 수집해 온 고인쇄 문화재 등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하였는데, 당시 박물관 사상 최초로 국가지정문화재 26건이 한 번에 기증된 것이어서 언론에 비상한 주목을 받았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2003년 10월 7일부터 11월 2일까지 기획특별전 <빛나는 옛 책들-혜전 송성문 기증 국보>를 개최하여 그 실물을 공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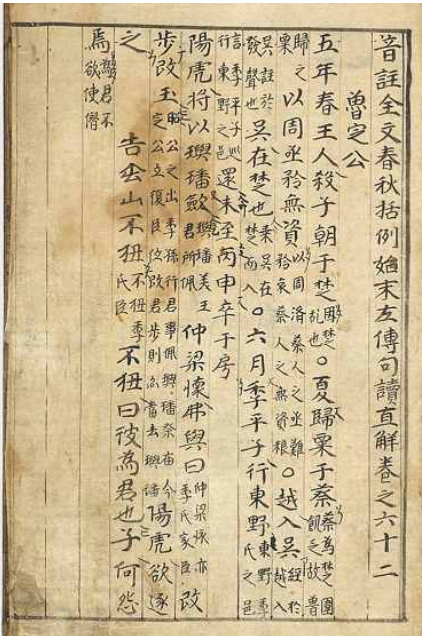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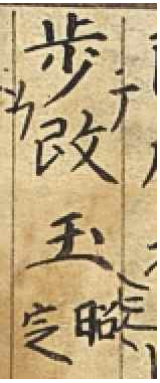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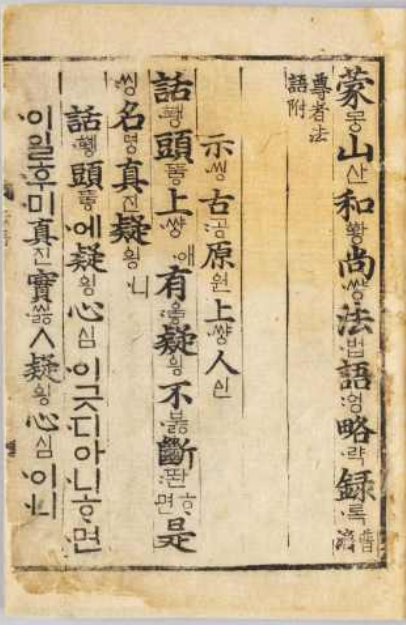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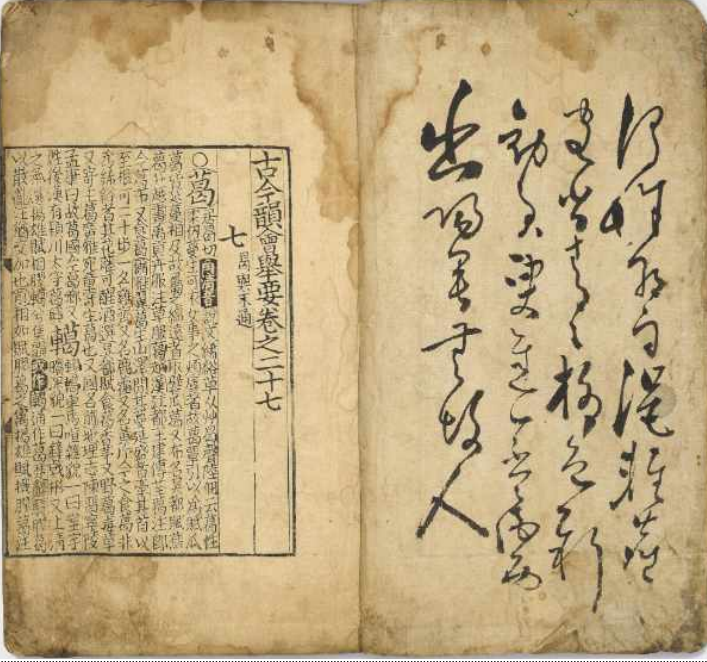
송성문 기증품 중에는 국어사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은 것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표로 정리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3> 송성문 기증 자료 목록(국어사 자료)

연번	유물명	유물번호	시기	유형	비고
1	대방광원각락소주경 권상	증3455	14세기	선장본	보물, 자토구결 기입, 송(宋)나라에서 찍었던 판본을 들여와 고려에서 번각(飜刻)한 목판으로 후대에 재간행
2	선문염송집 권21-25	증3477	1244년 (고종 31) 이후	선장본	자토구결 기입, 한문본 고려 승려 혜심(海心)이 편찬한 선문공안집(禪門公案集), 전체 30권 중 일부
3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 살만행수능엄경	증3454	1401년	선장본	보물, 자토구결 기입, 한문본 권1~10
4	금강반야바라밀경	증3457	1415년 (태종 15)	선장본	보물, 자토구결 기입, 한문본 성거가 글씨를 쓰고, 해혜(海惠)와 조구(祖珣)가 시주하여 간행
5	음주전문춘추팔레스말좌전구 독직해 권 제62~70	증3474	1431년 (세종 13)	선장본	보물, 자토구결 기입, 한문본 전라도 관찰사 서선(徐選:1367~1433)이 간행. 중국판을 다시 새겨 찍음
6	고금운회거요 권27~30	증3473	1434년 (세종 16)	선장본	보물, 운서, 한문본 경상도 관찰사 신인손(辛引孫:1384~1445)이 경주부와 밀양부에서 간행
7	몽산화상법어약록	증3483	조선	선장본	보물, 한글 자료, 1459~1461년경 새김, 1472년경 찍음.
8	수능엄경언해 권6	증3481	1462년 (세조 8)	선장본	한글 자료
9	원각경	증3482	1464년 (세조 10)	선장본	자토구결 기입, 한문본 간경도감 간행본이며 표지에 '보우(普雨)'라는 목서가 있음
10	오륜행실도	증3494	1859년	선장본	한글 자료

<도 2> 송성문 기증 국어사 자료 이미지

--	--	--

		
음주전문춘추괄례시말좌전구독직해 권 제62~70	몽산화상법어약록(증3483)	
		
고금운회거요 권27~30(증3473)		

2.2.2. 이견희 기증 자료

국립중앙박물관이 2021년 4월 고(故) 이견희 회장 유족에게 기증받은 자료는 총 9,797건 21,693점(국보 14건, 보물 46건 포함)으로,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도토기, 금속, 전적, 서화, 목가구, 서화, 석조문화재, 중국 도자 등으로 분야가 다양하고 수량이 방대하다.¹³⁾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이건희 기증품을 바탕으로, 기획특별전 <어느 수집가의 초대-고 이건희 회장 기증 1주년 기념전>(2022.4.28.~8.28.) 및 상설전 등을 통해 실물을 공개하였으며,¹⁴⁾ 분야별로 『고(故) 이건희 회장 기증품 목록집』을 간행하고 있다. 2022년 <고고>, <전적>, <금속공예>, <불교회화>, <분청사기> 등 9권 발간을 시작으로 2023년 <역사자료>, <석조> 등 4권을 발간하였으며, <서화편> 2권, <백자편> 2권 등 4년 동안 총 17권을 낼 예정이다.¹⁵⁾

이건희 기증품 중에는 국어사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은 차자표기 자료와 한글 자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다음은 이건희 기증품의 분야별 목록집 가운데, 자료의 해제와 이미지 일부가 제시되어 있는 4집 전적 귀중본에서 추린 목록이다. 이건희 기증 전적 전체 목록(2, 3집 전적) 중 관련 유물명과 유물번호를 e뮤지엄에서 찾아 대조한다면 양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¹⁶⁾

<표 4> 이건희 기증 자료 목록(중요 국어사 자료)

연번	유물명	유물번호	시기	유형	비고
1	불조삼경	건희00032 건희00033	고려 1361년 (공민왕 10) · 고려 1384년 (우왕 10)	선장본	보물, 자토구결 (4집, 24~25쪽)
2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 살만행수능엄경 권6~10	건희00035	고려 1372년 (공민왕 21)	선장본	보물, 자토구결, (4집, 28~29쪽)
3	선림보훈	건희00036	고려 1378년 (우왕 4)	선장본	보물, 자토구결 (4집, 30~31쪽)
4	지장보살본원경	건희00042	1447~1450년 (세종 29~32)	선장본	보물, 자토구결, (4집, 42~43쪽)
5	대방광원각락소주경 권상의2	건희00048	고려말~조선초	선장본	보물, 자토구결 (4집, 52~53쪽)
6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 살만행수능엄경 권4~7	건희00049	조선 전기	선장본	보물, 자토구결 (4집, 54~55쪽)
7	선원제전집도서	건희06305	1493년(성종 24)	선장본	자토구결 (4집, 92~93쪽)
8	금강반야바라밀경 오가해서설	건희06234	16세기	선장본	자토구결 (4집, 74~75쪽)
9	예기	건희06335	중국 명 1447년(명	선장본	자토구결, 주목

13) 2021년 4월 28일 고 이건희 회장 유족은 그의 수집품 중 문화유산 21,693점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근현대 미술품 1,488점을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했다. 또한 근현대 미술품 102점을 지역 미술관 다섯 곳, 즉 광주시립미술관(30점), 대구미술관(21점), 양구 박수근미술관(18점), 제주 이중섭미술관(12점), 전남도립미술관(21점)에 나누어 기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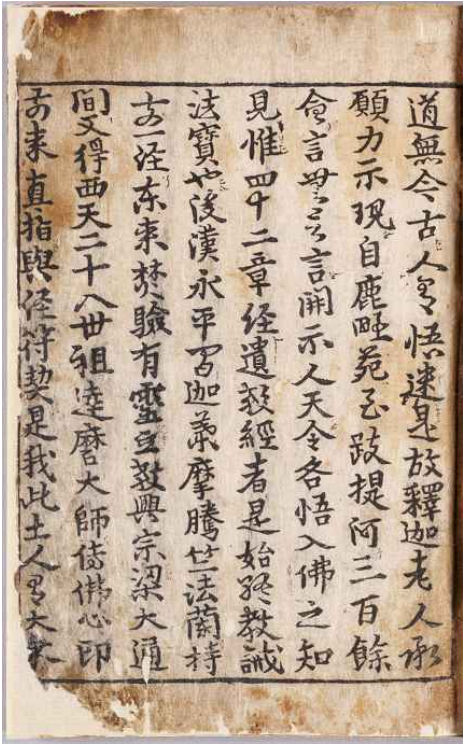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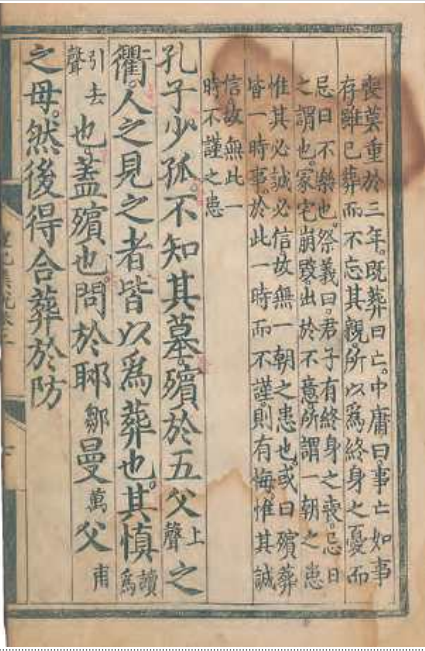
14) 용산의 국립중앙박물관뿐 아니라 지방의 소속 박물관에서도 전시하였으며,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기증 유물을 선보이고 있다. <어느 수집가의 초대-고 이건희 회장 기증 국립제주박물관 특별전> (2024.6.4.~8.18.), <고 이건희 회장 기증 대구·경북의 국보와 보물-2,000년 전의 대구 비산동과 1,500년 전의 고령 지산동>(2024.7.9.~2025.6.29.)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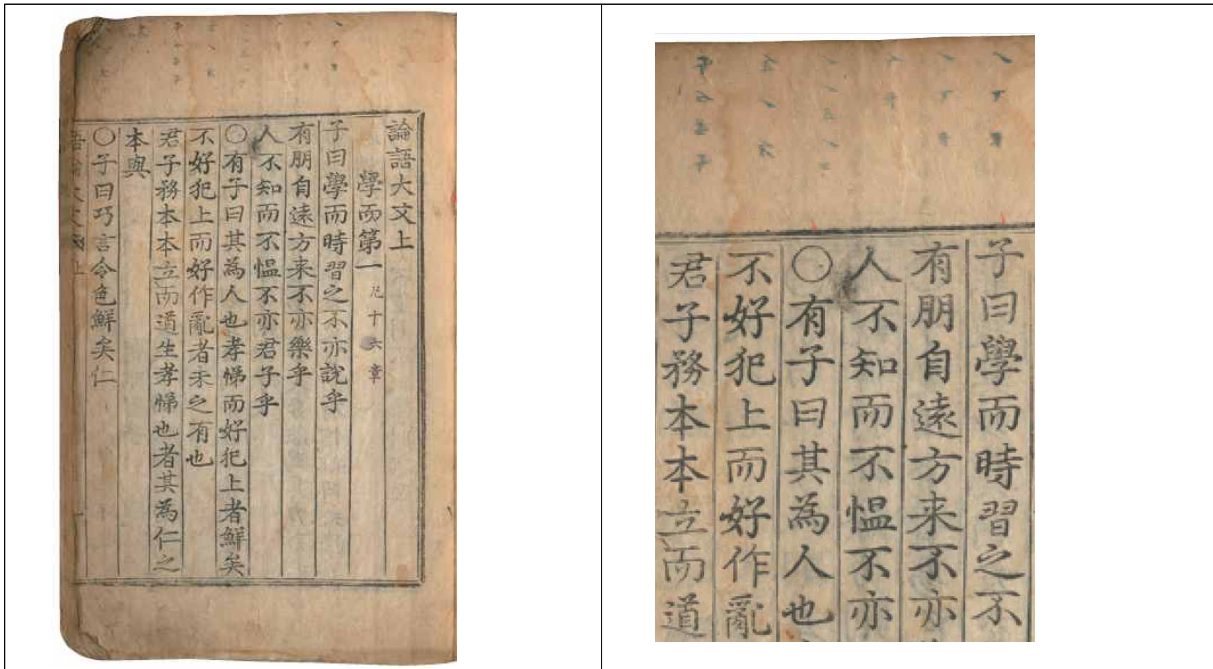
15) 이건희 회장 기증품의 분야별 목록집은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에서 PDF 파일을 내려받기할 수 있다.

16) 『고(故) 이건희 회장 기증품 목록집』의 전적 1(2집), 전적 2(3집)에는 고대부터 광복 이후의 발간물 4,776건 12,558책이 수록되어 있으며, 전적 귀중본(4집)에는 제2, 3집에 소개된 전적 중 귀중본 97건을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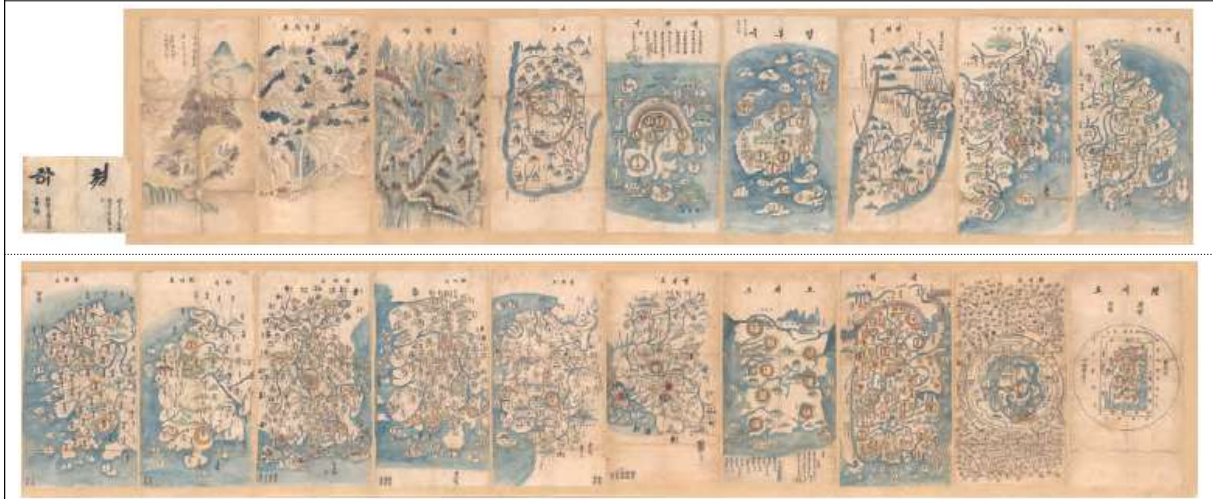
연번	유물명	유물번호	시기	유형	비고
			영종 정통 12) 추정		(4집, 130~131쪽)
10	대승기신론소	건희06249	1528년(중종 23)	선장본	자토구결 (4집, 76~77쪽)
11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건희06285	1576년(선조 9)	선장본	자토구결 (4집, 84~85쪽)
12	논어대문	건희10459	1659~1720년 (현종~숙종) 추정	선장본	자토구결, 난상 (4집, 112~113쪽)
13	월인석보 권21	건희00040	1562년(명종 17)	선장본	보물, 한글자료 (4집, 38~39쪽) 전라도 순창 무량 굴에서 복각한 1 권 2책의 중간본
14	목우자수심결 및 사범어언해	건희00043	1467년(세조 13)	선장본	보물, 한글자료 (4집, 44~45쪽)
15	월인석보 권11·12	건희00044	1459년(세조 5)	선장본	보물, 한글자료 (4집, 46~47쪽)
16	금강반야바라밀경 언해	건희10745	15세기	선장본	한글자료 (4집, 72~73쪽)
17	몽상화상법어약록 언해	건희06270	조선 전기	선장본	한글자료 (4집, 78~79쪽)
18	석보상절 권20·21	건희10743(권20) 건희10739(권21)	1447년(세종 29)	선장본	한글자료 (4집, 90~91쪽)
19	석보상절 권11	건희29	조선	선장본	초간본의 복각본復刻本). 권11의 초간본은 미발견
20	선종영가집언해	건희10738	1464년(세조 10) 추정	선장본	한글자료 (4집, 96~97쪽)
21	오대진언	건희10532	1485년(성종 16) 추정	선장본	한글자료 (4집, 100~101쪽)
22	월인석보 권17·18	건희10744	1459년(세조 5)	선장본	한글자료 (4집, 102~103쪽)
23	월인석보 권7	건희10691	15세기 이후	선장본	한글자료 (4집, 104~105쪽)
24	육조대사법보단경언해	건희10694	1496년(연산군 2)	선장본	한글자료 (4집, 106~107쪽)
25	분류두공부시언해 권12	건희10732	1481년(성종 12)	선장본	한글자료 (4집, 154~155쪽)
26	구급간이방언해	건희10536	16세기 추정	선장본	한글자료 (4집, 178~179쪽)
27	병학지남	건희07648	1787년(정조 11)	선장본	한글자료 (4집, 182~183쪽)
28	한글로 지명이 적힌 세계지도와 도별 지도첩	건희04183	조선 후기	절첩본	한글지도, 종이에 묵서, 채색, 19면 (10집, 98~107쪽)

<도 3> 이견희 기증 국어사 자료 이미지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권6~10 (건희00035)	불조삼경(건희00032)
	
예기(건희06335)	



논어대문(건희10459)



한글로 지명이 적힌 세계지도와 도별 지도첩(건희04183)

2.3. 지정문화재급 국어사 자료

국립중앙박물관 및 산하 소속 박물관에서는 한글 창제 이후의 연해 자료 및 한글 문학 작품을 비롯해 근대 이후의 한글 자료까지 매우 방대하고 다양한 국어사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그 안에는 지류 외에 도자기나 각종 공예품 등에 한글이 기록된 자료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한글 창제 이후의 차자표기 자료 중에는 의궤, 녹권, 고문서(소지, 호구단자, 분제기, 입안 등) 등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자료들을 다 찾아 살피기엔 조사 범위가 너무 넓어 이 발표문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지정문화재급 국어사 자료를, 한글 문헌을 중심

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다만 앞에서 이미 소개한 자료와 일부 중복되는 것도 있음을 밝혀 둔다.

<표 5> 국립박물관 소장 지정문화재급 국어사 자료

연번	구분	유물명	유물번호	시기	유형	비고
1	국립중앙 박물관	예념미타도량참법	신수14788	조선	선장본	보물, 자토구결 기입
2		북한산 신라 진흥왕 순수비 ¹⁷⁾	신수18242	신라	석조	국보, 이두
3		경선사명칭동북 (景禪寺銘金鼓)	건희27	고려	금속	보물 ¹⁸⁾
4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권상1의1, 2의1~3, 권하1의1~2, 2의2~3)	신수13699	1464년	선장본	보물, 한글자료 11권 중 9권 5책 '교정(校正)'의 도장이 찍힌 초인본(初印本)
5		몽산화상법어약록	증3483	1467년	선장본	보물
6		석보상절 권11	건희29	후대 복각본	선장본	보물, 『석보상절』 권 11은 초간본이 현전 하지 않음
7		월인석보 권11·12	건희00044	1459년	선장본	보물
8		월인석보 권20	구10390	1459년	선장본	보물
9		월인석보 권21	건희00040	1562년	선장본	보물, 중간본(순창 무 량굴판)
10		목우자수심결 및 사법어언해	건희00043	1467년	선장본	보물
11		목우자수심결언해	구10391		선장본	보물
12		묘법연화경(언해) 권3	증3466	1463년	선장본	보물, 2책. 권수와 권 말에 교정인 찍힘
13		윤봉길 의사 이력서 및 유서 ¹⁹⁾	신수6270	1932년 4월	날장문서	보물. 의사가 가지고 있던 유품 13건 68점 중 이력서와 유서. 한 인 애국단에 입단 시 쓴 것으로, 공책 종이 에 펜 글씨로 적음
14		이봉창 의사 선서문	신수6284-1	일제강점기	날장문서	등록문화유산. 이봉창 의사가 일왕을 처단하 고자 하는 결의를 기 록한 국한문 혼용 선 서문. 이봉창 의사의 대표적 항일투쟁 유물
15		한글 금속활자 ²⁰⁾	본관 3368 본관 3369	15세기 17~18세기	금속활자	대232자/소549자 30여자는 제작 시 기와 간행본을 확인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 장 오래된 금속활자, 나머지는 17~18세기

연번	구분	유물명	유물번호	시기	유형	비고
						갑인자체 활자로 간행한 연해본에 사용한 활자
16		한글 목활자	본관 3381 본관 3382	18~19세기	목활자	1만 3천여자. 18~19세기에 중앙관청이나 왕실에서 간행한 연해본에 사용한 목활자
17		능엄경언해	신수15120	1461년	선장본	을해자본
18		시경언해	구5653	17세기	선장본	무신자 병용 한글 금속활자본. 세자궁을 뜻하는 춘궁 도장 찍힌 책. 왕세자 교육용
19		어제유원춘도영동영서대소사민윤음	구4878	1783년	선장본	한글 목활자본
20		임신서기석(壬申誓記石)	경주282		석조	552년, 또는 612년으로 추정, 이두
21	국립경주박물관	경주 남산신성비 I~IX (慶州南山新城碑第一碑) ²¹⁾²²⁾	남산신성비 경주 1740	신라591년	석조	1934년 이후 총 10기 발견, 이두
22			남산신성비석(9비)경주8210		석조	
23	국립대구박물관	진주하씨 묘 출토유물	현풍곽씨 편지 (증 73, 54, 49, 90, 95, 99, 104, 122, 117, 127, 144, 149, 154, 163, 167, 171 등)	17세기 중반	날장문서 등 (한글 편지)	국가민속문화유산 249점 일괄 (편지 및 의복 등) *현풍곽씨 편지 168건
24	국립청주박물관	반찬등속	청주42543	1913년 12월 24일 필사	선장본	충청북도 유형문화유산, 한글 필사본. 청주(충북)지역 전통음식 조리서. 당시 식재료와 양반가 식생활 등 한글 사용 관련 언어생활을 볼 수 있음
25		숙명신한첩(淑明宸翰帖)	청주8902	조선	절첩본	보물. 효종과 인선왕후, 현종, 장렬왕후, 명성왕후가 숙명공주(1640~1699)에게 보낸 한글 편지첩. 모두 67점이며, 그중 1점은 흑백 사진으로만 존재

17) <https://www.museum.go.kr/site/main/relic/recommend/view?relicRecommendId=16885>

18) 명문이 이두일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 필요

19) <https://www.museum.go.kr/site/main/relic/recommend/view?relicRecommendId=1569301>
<https://www.museum.go.kr/site/main/relic/search/view?relicId=124082>

20) <https://www.museum.go.kr/site/main/relic/recommend/view?relicRecommendId=168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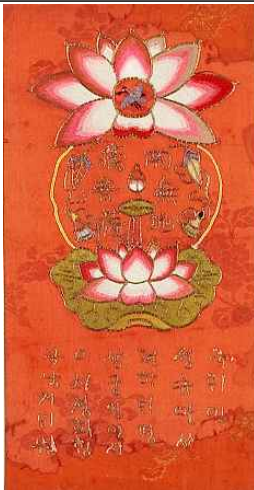
21) <https://www.museum.go.kr/site/main/relic/recommend/view?relicRecommendId=16923>

<도 4>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다양한 한글 자료 이미지

	 
한글 목서 다완(증7060)²³⁾, 17세기, 일본, ‘개야즈치 마라 밤사름 다도듯가 ~’	한글 「신사년」이 새겨진 주흑칠 원반(구4567) ‘신스큰전고간디똥쇼십오득’
	
백자 청화 복자무늬 접시(수정172), 조선 ‘무신슈강지고간디똥쇼이십득’	백자 바닥 조각(신수32092), 조선, 안성 출토, 굽 안바닥에 목서, '년그미'(왼쪽), '年今(년금)'(오른쪽)

https://gyeongju.museum.go.kr/kor/html/sub04/0406.html?mode=V&dvs_code=&mng_no=323&GotoPage=10

- 22) 남산신성비탁본(신수8000)(국립중앙박물관)
- 23) 일본 교토의 고미술품 수집가 후지이 다카아키(藤井孝明) 구장본. 그의 아내 후지이 야에(藤井八重)와 아들 후지이 게이(藤井慶)가 2008년에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 하기 지방은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잡혀 온 장인들이 정착하여 도자기를 생산하게 된 지역 중 하나로 이곳에서 만든 도자기를 ‘하기야키[萩焼]’라고 함. 이 찻사발은 한일 도자 교류의 일면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사발에 적힌 한글을 통해 도자기를 만든 조선 장인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음.
- 24) 석가 세존의 진신사리(眞身舍利)를 봉안한 봉인사(奉印寺) 부도(浮屠)의 탑신(塔身) 중앙 사리공(舍利孔)에서 많은 사리구들이 발견되었는데, 8종의 사리구들은 남색 비단으로 된 보자기에 싸서 묶여 있었음. 가로 67.5cm, 세로 61cm의 직사각형으로 제작되었고, 가장자리에는 '귀남성취', '김규홍...귀남

		
사리기 비단 보자기(신수9431) ²⁴⁾ *보물 남양주 봉인사 부도암지 사리탑 및 사리장엄구	자수 한글 명문 기원패(구4570), 조선	
		
글자가 있는 수키와 조각(신수 32130), 조선, 안성시 출토, '니 화일지춘대우'	한글이 있는 벽돌(본관 3806), 조선, 강화군 출토	한글 금속활자 소자(본관3369), 조선

축원…창성발원'과 같은 발원문이 한글로 기록. 이때 발견된 사리구들은 《대리석사리외합》, 《청동사리내합》, 《수정사리병》, 《은제사리내합》, 《사리탑비문》(舍利塔碑文) 등. 은제 사리합에는 1620년 광해군의 왕세자의 만수 무강을 비는 발원문과 연기가 새겨져 있고, 사리탑 비문에는 광해군 시절 처음 봉납되었다는 명문(銘文)이 있음. 그 후 1759년 영조 시대에 중수(重修)하면서 또 한 차례의 봉납이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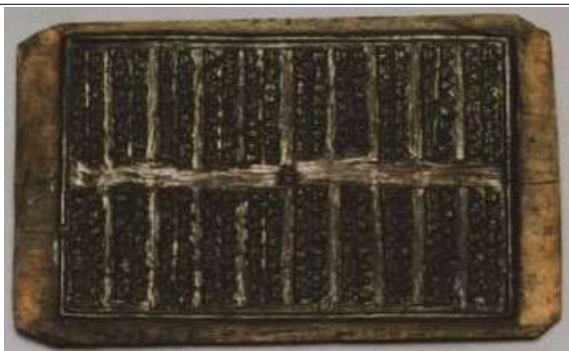
- 25) 조선 제19대 왕 숙종의 계비 인현왕후가 만든 교육 목적의 놀이판. 119개의 네모 칸에 악녀와 열녀 등 40여 명의 인물과 64개의 선행목·악덕목 등이 적혀 있으며 한자 표기와 함께 한글로 해설.



한글 목활자 소자(본관3382), 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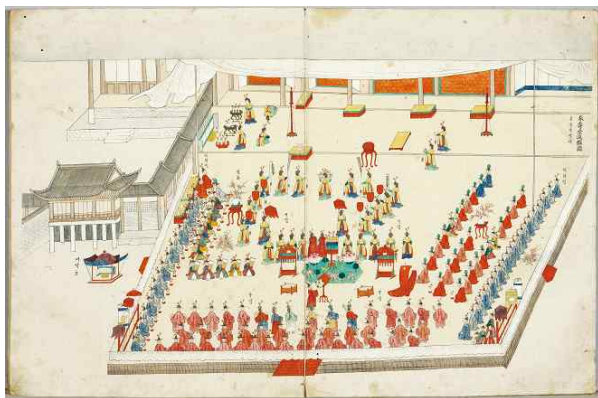
한글 목활자 대자(본관3381), 조선



한글 불교 가사 목판(구3385), 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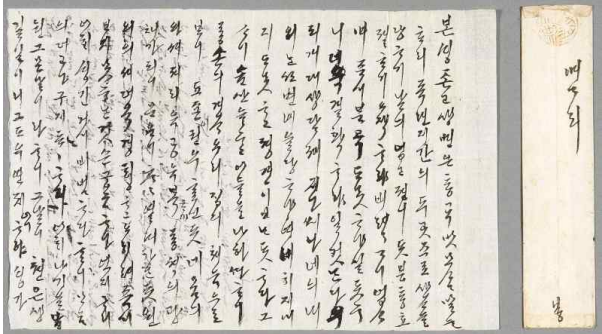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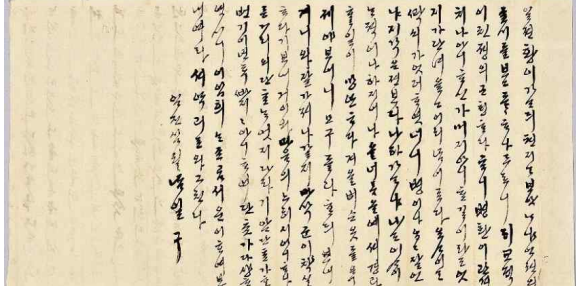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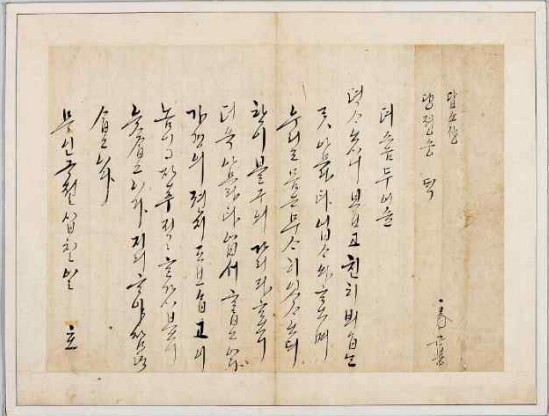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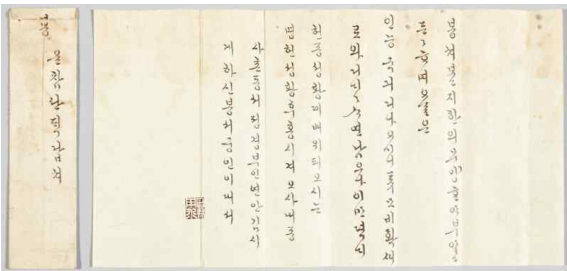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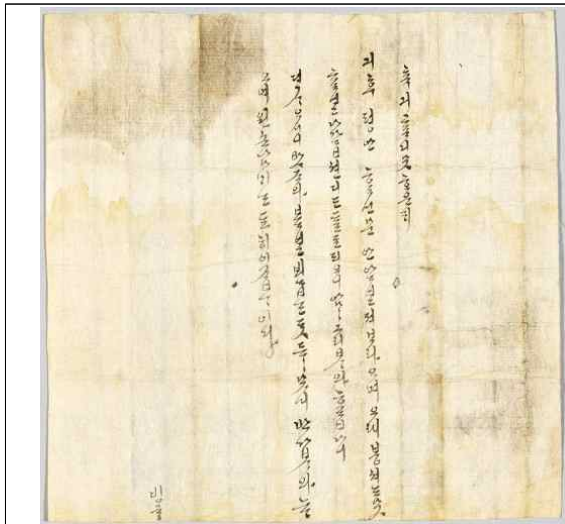
한양가 목판(고적28331), 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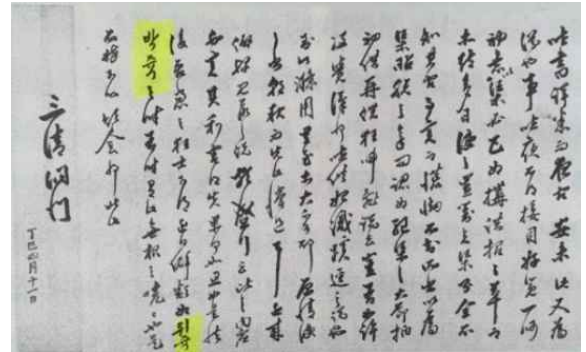
화성원행의궤도(華城園幸儀軌圖)(신수201), 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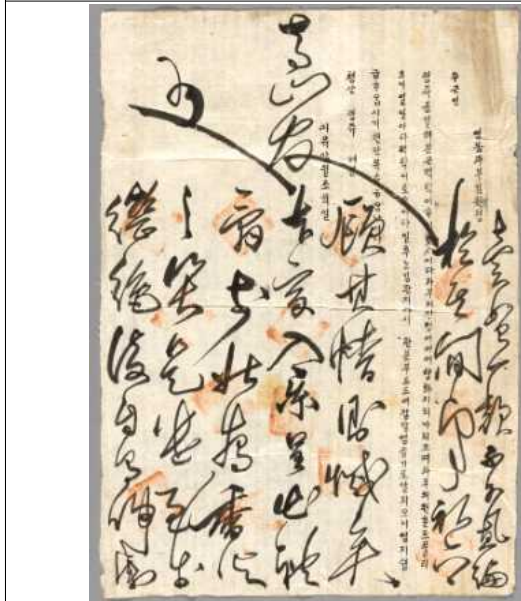
	
현풍곽씨 편지(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십시오)(국립대구박물관, 증2), 국가민속문화유산	김정희 필 한글간찰(1844년 3월 6일)(구5237)
	
해평윤씨 필 한글간찰(1793년 6월 13일)(구5435), 해평윤씨(海平尹氏, 1729~1796)가 며느리 기계유씨에게 쓴 편지	김도경 필 한글간찰(1832년 3월 20일)(구5459), 김도경이 며느리 죽산박씨(金魯敬, 1766~1840)에게 쓴 편지
	
효종대왕 한글 간찰(구3857), 조선, 효종이 청나라에 볼모로 있었을 때 장모에게 쓴 편지	효정왕후 필 한글 봉서(구9409), 조선, 효정왕후가 윤용구(尹用求, 1853~1939)의 아내 연안김씨에게 보낸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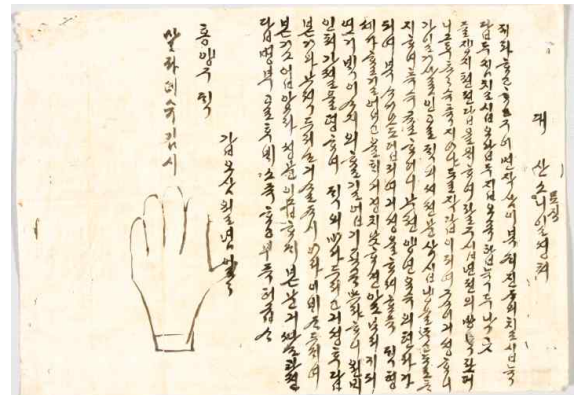
해경궁 흥씨 필 한글간찰(1752~1759년 추정)
(구5468), 해경궁 흥씨가 화순옹주에게 쓴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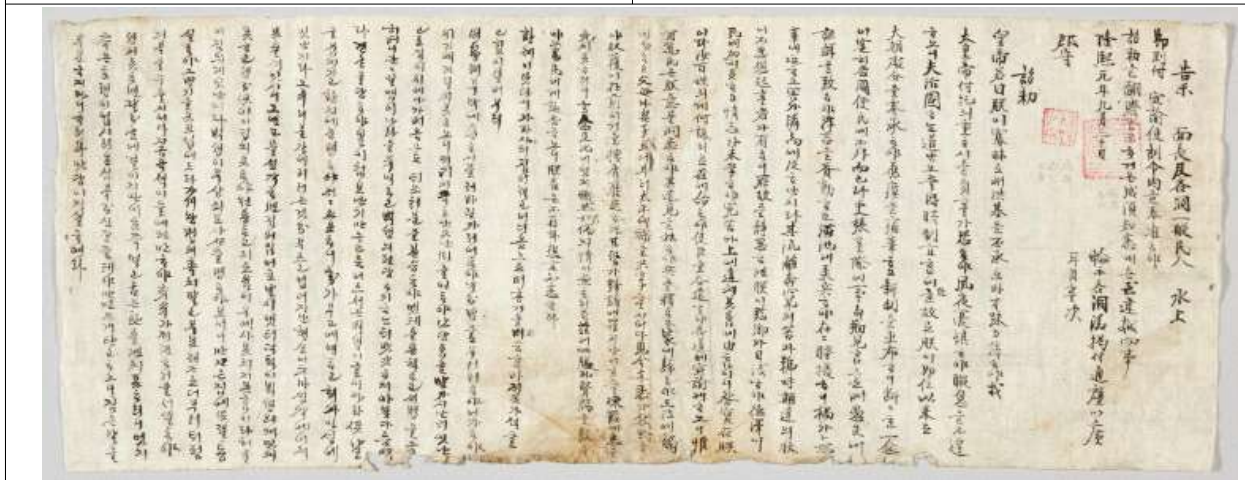
정조어찰첩(구10427), 보물, 1796~1800년,
정조가 심환지에게 1797년 4월 11일에 보낸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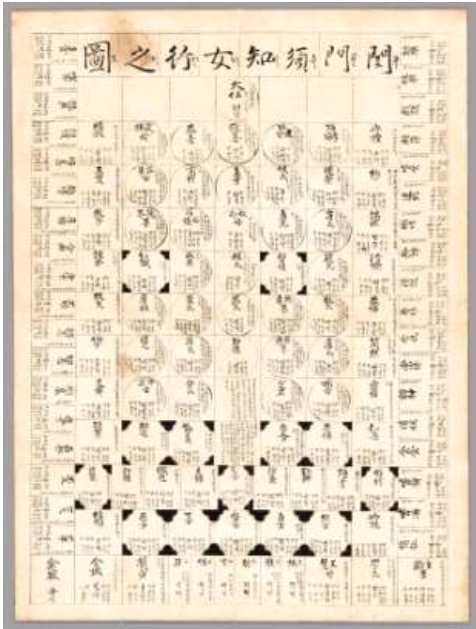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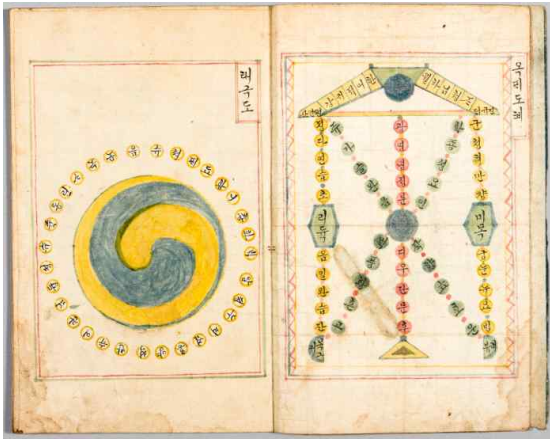
김원정 필 한글소지(구6937), 조선



한글 전답명문(구63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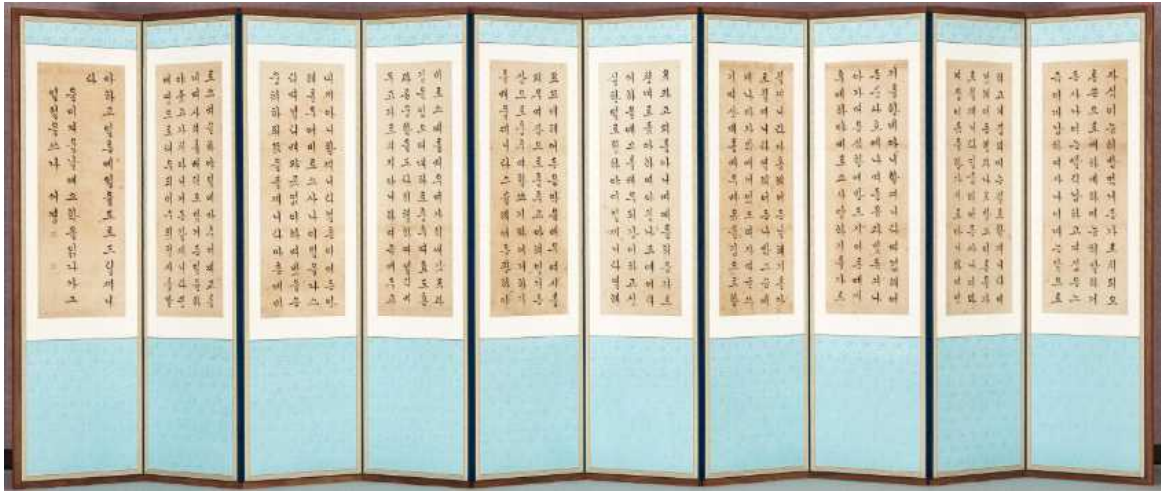


함창군수 한글 고시와 황제 조칙(구9597), 대한제국 시기



한글 직금도(織錦圖)(증7536)

규문수지여행지도(閨門須知女行之圖)²⁵⁾(구72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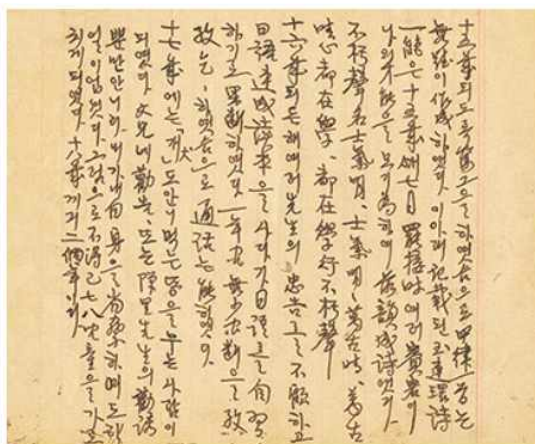
김충현 필 한글 소학 10폭 병풍(증9194) *일중 김충현(金忠顯, 1921~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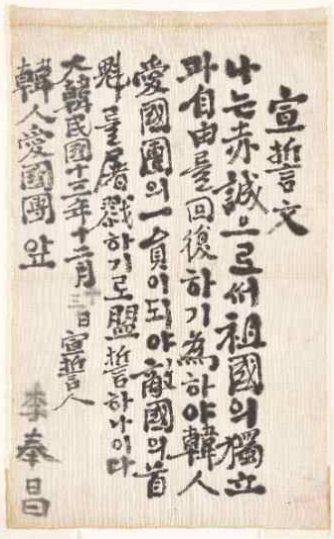
한글 포스터(구5075), 광복 이후



한글영비 탁본(구7079) *이윤탁 한글영비(보물)



윤봉길 의사 이력서 및 유서(신수6270), 보물

	
이봉창 의사 전서문(신수6284-1), 등록문화유산	

참고문헌

<단행본>

남풍현(2000), 『吏讀研究』, 태학사.
박성종(2016), 『조선 전기 이두 연구』, 역락.

<보고서>

국가유산청(2013), 『금석문조사총람집 1~3』,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2014), 『금석문 탁본 조사 보고서-경상북도 I』,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2015), 『금석문 탁본 조사 보고서-경상북도 II』,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2016), 『금석문 탁본 조사 보고서-경상북도 III』,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2017), 『금석문 탁본 조사 보고서-경상북도 IV, 대구광역시』,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2018), 『금석문 탁본 조사 보고서-강원도 I』,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2019), 『금석문 탁본 조사 보고서-강원도 II, 충청북도』,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2020), 『금석문 탁본 조사 보고서-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2021), 『금석문 탁본 조사 보고서-경상남도, 부산, 울산』,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2022), 『금석문 탁본 조사 보고서-경기도 I, 서울 I, 인천』,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2023), 『금석문 탁본 조사 보고서-경기도Ⅱ, 서울특별시Ⅱ』,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국가유산청.

국립한글박물관(2019), 『한글 창제 이전의 문자 생활 연구(1)』, 국립한글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2020), 『한글 창제 이전의 문자 생활 연구(2)』, 국립한글박물관.

<자료집>

국립중앙박물관(2022), 『고 이견희 회장 기증품 목록집: 제2집 전적1』.

국립중앙박물관(2022), 『고 이견희 회장 기증품 목록집: 제3집 전적2』.

국립중앙박물관(2022), 『고 이견희 회장 기증품 목록집: 제4집 전적 귀중본』.

국립중앙박물관(2022), 『고 이견희 회장 기증품 목록집: 제10집 역사자료』.

<전시 도록>

국립중앙박물관(2003), 『혜전 송성문 기증 국보 빛나는 옛 책들』.

국립중앙박물관(2011), 『문자, 그 이후-한국 고대문자전』.

국립중앙박물관(2016), 기획전 도록 『활자의 나라, 조선』,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국가유산청(2017), (신국보 보물전) 『선인들의 마음, 보물이 되다』.

국립중앙박물관·국가유산청(2020), (신국보 보물전 2017-2019) 『새 보물 납시었네』.

국립중앙박물관(2022), 『외규장각 의궤, 그 고귀함의 의미』.

국립중앙박물관(2023), 『2023 국립박물관 연보』.

<웹 사이트>

국립중앙박물관 <https://www.museum.go.kr/site/main/home>

e뮤지엄 <https://www.emuseum.go.kr/main>

국가유산

지식이음-연구DB-금석문

(<https://portal.nrich.go.kr/kor/ksmUsrList.do?menuIdx=5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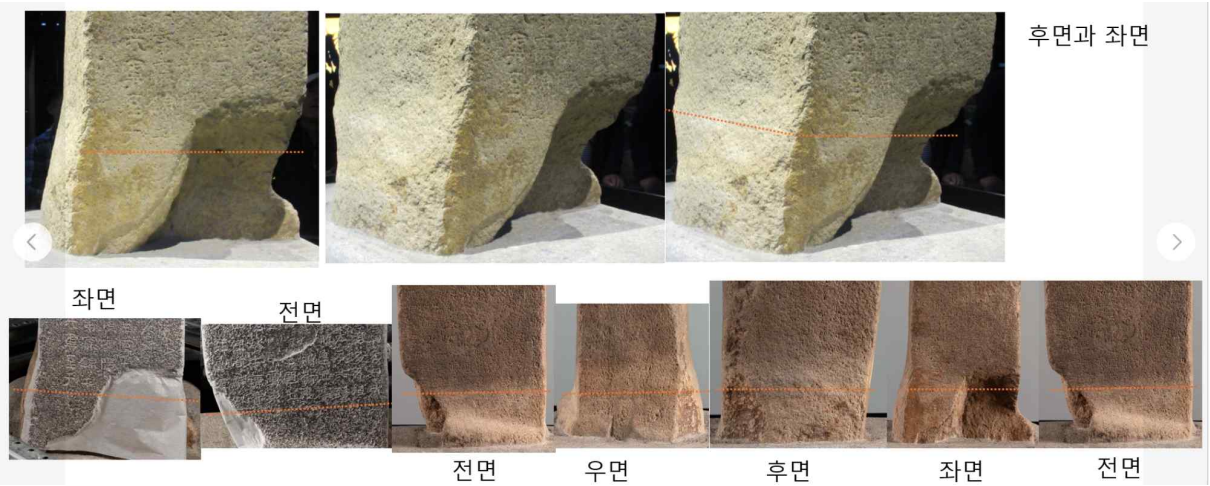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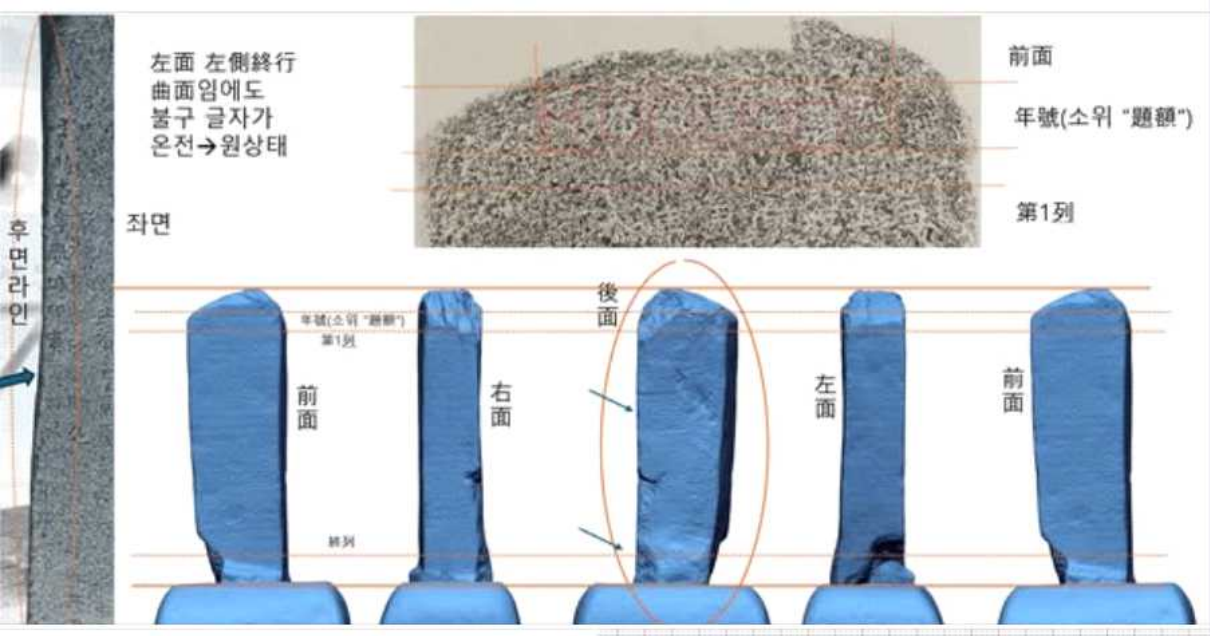
국가유산 지식이음-연구DB-고대목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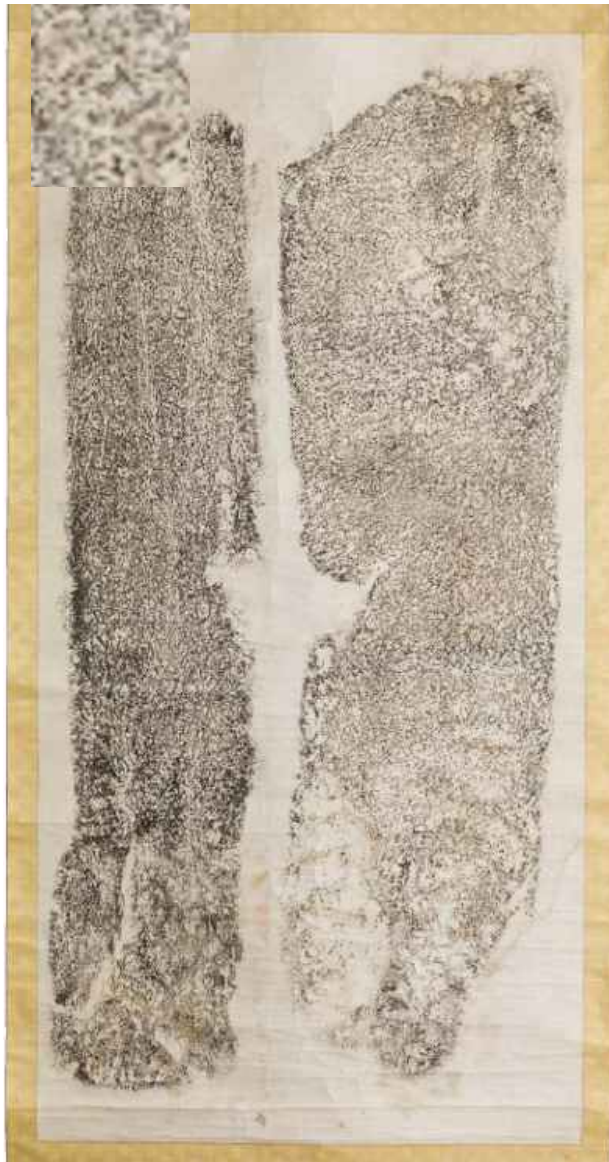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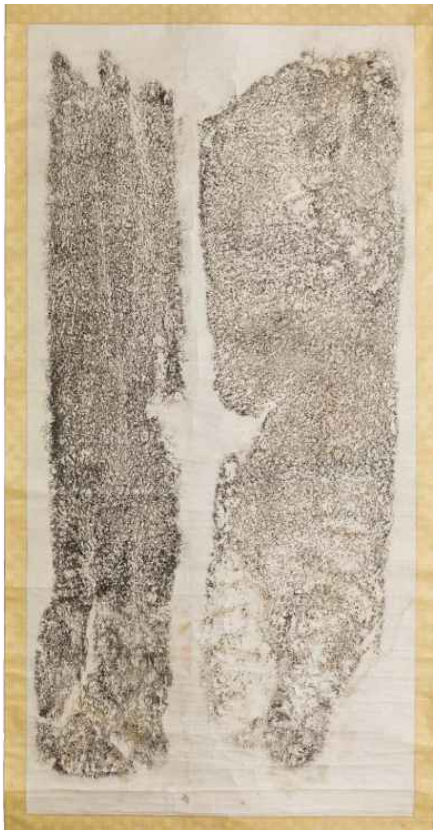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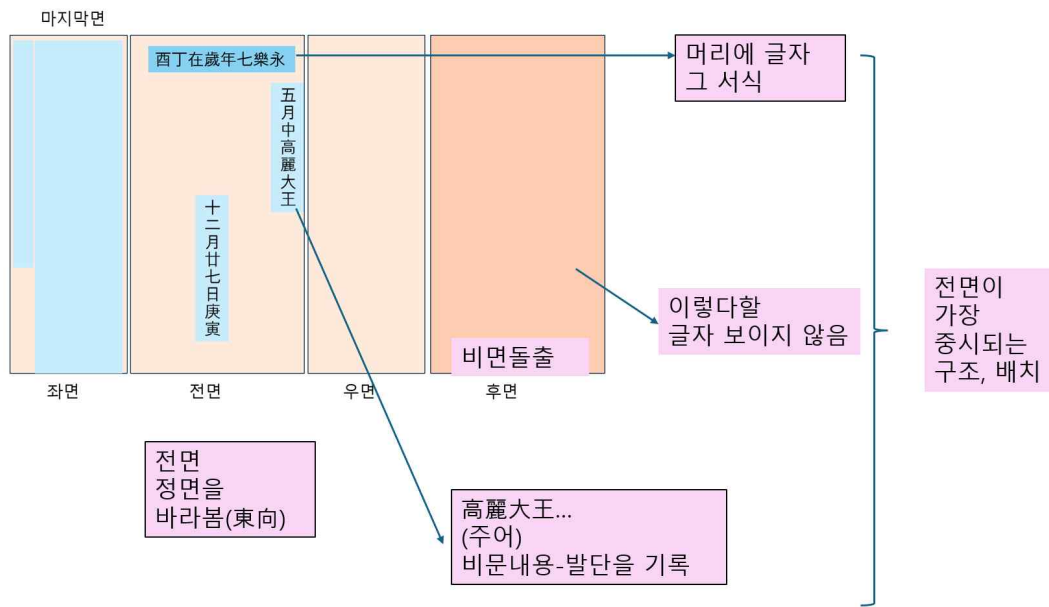
(<https://portal.nrich.go.kr/kor/mokganList.do?menuIdx=89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한국고대사료DB 한국고대금석문

<https://db.history.go.kr/ancient/level.do?itemId=gskh>

[별지] 충주고구려비(중원고구려비) 3면설 관련 자료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국어사 자료 소개

이상백(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1. 서론
2. 박물관 소장 이두 관련 자료
3. 박물관 소장 한글 관련 자료
 - 3.1 궁중 기록물
 - 3.2 궁중 유물
4. 박물관 소장 국어사 자료의 가치
5. 결론

1. 서론

국립고궁박물관은 1992년 덕수궁 석조전에 개관한 궁중유물전시관을 전신으로 하여 2005년 경복궁의 현재 위치에 개관한 조선 왕실 및 대한제국 황실 전문박물관이다. 소장품은 궁중유물전시관 시절 수집한 유물을 비롯하여 창덕궁, 종묘 등 궁·능에서 보관 및 관리하고 있던 유물 4만여 점을 이관받아 2023년 12월 기준, 약 8만 8천여 점을 소장하고 있다.¹⁾ 박물관의 소장품은 조선 왕실 및 대한제국 황실 전래 유물과 궁중유물전시관, 국립고궁박물관의 신수품으로 구성되며, 소장품 번호도 출처를 존중하여 창덕, 종묘, 능원, 궁중, 고궁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박물관 소장품은 대부분 왕실 의례품, 미술품, 기물류들이지만, 또 그중에 다양한 국어사 관련 자료도 확인된다. 그 대상은 종이 위에 작성된 기록물뿐만 아니라 궁·능 등지에서 실제 사용되었던 각종 기물에서 확인되는 단편적인 기록들도 포함된다.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소장한 한글 자료는 일반적인 한글 기록들과는 다른 성격의 자료로 궁중에서의 문화와 당시 환경에서 한글이 지니는 성격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그러나 현재까지 박물관의 국어사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다. 박물관의 누리집에서는 소장품 정보를 꾸준히 공개하고 있으며, 소장품 및 전시 도록, 학술서 등에서도 다양한 소장품을 세상에 선보이고 있으나 국어사 자료는 흩어져 있어 종합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논고에서는 국립고궁박물관에 현존하는 국어사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박물관에서 소장하는 국어사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정리할 수는 없다. 특히, 박물관 소장품 중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를 비롯한 국어사 관련 서적, 이두문이 확인되는 각종 고문서 등은 수량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현황도 정리되지 않아 살펴보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논고에서는 박물관 누리집에서 공개하는 소장품, 도록 등 각종 출판물에서 조사된 소장품을 위주로 특징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충분히 박물관의 국어사 관련 자료 현황을 파악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논문에서는 국어사 관련 자료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두(吏讀) 관련 자료, 궁중 기록물, 궁중 유물의 순으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정리한 내용을 기반으로 박물관에서 소장한 한글 자료의 특징과 가치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1) 국립고궁박물관 편, 『국립고궁박물관 연보』 제9호, 2023, 20쪽.

2. 박물관 소장 이두 관련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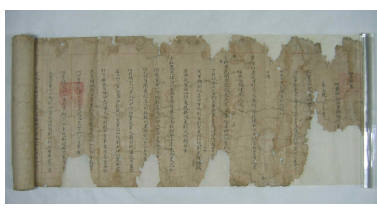
이두는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 우리말을 기록하던 표기법으로 조선시대의 각종 공·사문서에
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소장한 이두 자료는 조선왕실에서 발급한 각종 공문
서와 공문서를 집적한 의궤, 등록과 같은 기록물이 있다. 다만, 공문서는 조선 초기의 이두문
을 확인할 수 있는 사료적 가치가 높은 대표 문서만 살펴보도록 한다.

2.1. 정사공신 및 좌명공신녹권

조선시대 국가에 중대한 공을 세운 이들은 공신으로 책봉되었다. 공신은 태조 대 개국공신
(開國功臣)에서 영조 대 분무공신(奮武功臣)까지 총 28회 책봉되었다. 공신 중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공을 세운 이들은 훈봉공신(勳封功臣)으로 책봉되었는데, 공이 큰 주요 공신인
정훈공신(正勳功臣, 親功臣)과, 정훈공신이 공을 세우는 데 보좌하며 작은 공을 세운 원종공신
(原從功臣)으로 나뉜다. 현존하는 조선초기 공신녹권은 태조 대의 개국(開國), 정사공신(定社功
臣), 태종 대의 좌명공신(佐命功臣)까지 두루마리 형태인 권자본 형태로 발급되다가 세조대의
좌익공신(佐翼功臣)부터는 책자 형태인 선장본으로 바뀌어 조선 후기까지 기록물의 형태가 고
정된다. 현재 태종 대까지의 공신녹권은 모두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총 11점 중 3점
이 박물관에 전하고 있다. 세 점의 녹권은 조선 초기 왕명 문서로 고문서학적으로 가치가 높
으며, 동시에 조선 초기의 이두가 다수 확인되어 국어사적으로도 사료적 가치가 상당히 높다.

연번	명칭	발급시기	수량	소장품번호	비고
1	張哲 定社功臣錄券	1398년(태조 7)	1	고궁3966	소장품, 보물
2	馬天牧 佐命功臣錄券	1401년(태종 1)	1	-	기탁품, 보물
3	李衡 佐命原從功臣錄券	1411년(태종 11)	1	-	기탁품, 보물

먼저, 「장철 정사공신녹권(張哲 定社功臣錄券)」과 「마천목 좌명공신녹권(馬天牧 佐命功臣錄
券)」은 모두 왕자의 난과 관련이 있다. 전자는 1398년(태조 7) 8월 일어난 제1차 왕자의 난을
평정한 공을 세운 공신 29명 중 2등 공신인 장철에게 발급한 문서이며, 후자는 1401년(태종
1) 제2차 왕자의 난을 평정한 공을 세운 공신 47명 중 3등 공신인 마천목에게 발급한 문서다.
또한 「이형 좌명원종공신녹권(李衡 佐命原從功臣錄券)」은 1411년(태종 11) 11월 태종을 잠저
(潛邸) 때부터 보좌한 공로로 책봉한 원종공신 83명 중 3등 공신인 이형에게 발급한 문서다.

		
장철 정사공신녹권(고궁3966)	마천목 좌명공신녹권	이형 좌명원종공신녹권

녹권은 모두 종이 위에 작성된 필사본으로 한쪽 끝에 축을 단 두루마리인 권자장 형태다.
본문은 모두 붉은 인찰선을 그은 후 내용을 작성하였고 ‘이조지인(吏曹之印)’이 찍혀 있다. 녹
권은 내용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인 구성 체계는 같다. 녹권의 초반부는 발급자, 수급자의
직함과 성명, 본문에는 왕명을 받아 공신 책봉을 담당하 신하의 직함과 성명, 공신으로 책봉
하는 공로의 내용을 담은 왕지(王旨)와 등급별 공신들의 직함과 성명, 공신의 책봉 사유와 포
상 및 특전, 관련 관서별 업무 분담, 녹권의 시행 일자, 결말부는 녹권 발급 담당기관의 직함
과 성명, 서암이 있다.

세 녹권의 이두문은 장철의 녹권에는 경어법 사용이 바르고, 의미의 혼란을 가져올 만한 부

본엔 이두토를 달아 주고 있으며,²⁾ 마천목의 녹권에는 한문투가 많이 등장하고 있으며³⁾ 이형의 녹권에는 이전 녹권보다 이두문이 줄어드는 형태가 확인된다고⁴⁾ 평가된다. 녹권은 공문서이므로 일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이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서식에서는 공통된 이두문을 확인할 수 있다. 녹권에서는 공통적으로 초반부에 수급자를 ‘녹권에 붙이는 일’이라는 표현, 본문에서 도평의사사의 출납(出納), 또는 의정부의 관(關)에서 수록된 왕지(王旨)에 따른 대상자의 명단과 공로를 언급한 후 ‘왕명을 정리하고, 왕지의 내용을 살펴본다’는 표현,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교시를 정리하고, 이러한 하교로 녹권을 시행한다’는 문구 등에서는 일부 차이가 있으나 녹권이라는 공문서 작성에 따른 유사한 이두 표현이 확인되는 예이다.⁵⁾ 특히, 아래 표에서 정리된 것과 같이, ‘장철의 [03]과 마천목, 이형의 [04]’, ‘장철의 [22]과 마천목의 [28]’, ‘마천목의 [30]과 이형의 [47]’, ‘장철의 [77], [78]과 마천목의 [104], [105]’에는 각각 동일한 이두가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이 밖에도 녹권에서는 다수의 조선 초기 이두문이 확인된다.

[03]右員乙定社功臣錄券良中 奇是臥乎事叱段當使 [04]□□□議申言洪武參拾壹 年玖月十七日 [05]都評議使司出納內洪武參 拾壹年玖月□□□ [06]都承旨李文和次知口傳	[04]右員乙佐命功臣錄券良中 奇是臥乎事叱段當使 [05]同議申言建文三年正月二 十三日準議政府關建文三 年正月 [06]十五日左副承旨朴信次知 [07]口傳	[04]右員乙原從功臣錄券良中 奇是臥乎事段當 [05]書申言去十月二十八日到 付議政府舍人司關內永 [06]樂九年十月二十一日知申 事臣金汝知敬奉
[22]宗社功勞重大永世難忘是 去有等以褒崇之典有司宜 亟舉行 [23]爲良如教右如教味出納是 白置有良尔 [24]王旨內思審是白內乎矣右 事叱段	[28]以至今日爲齊爲等如並只 功勞重大永世難忘是去有 等以 [29]褒賞之典有司舉行為良如 教事是去有等以 [30]王旨內事意乙用良使內向 事關是白有良尔臣等參詳 逆臣朴	[44]壽仁用明守爲三等田地拾 伍結爲等如褒 [45]賞之典有司舉行為只爲行 移爲良如教右 [46]良如教事是去有等以 [47]王旨內事意乙用良使內向 事關是去有良尔
[77]匹各金品帶壹腰各表裏一 段式以賞 [78]賜爲良如教右如教事是去 有良尔錄券	[104]銀品帶各一腰表裏各一 段內廐馬各一匹式以賞 賜 [105]爲良如教右如教事是去 有良尔祿券施行	[58]房事臣金汝知永樂九年十 一月初二日奉 [59]教依允教事是良尔錄券施 行
장철 정사공신녹권	마천목 좌명공신녹권	이형 좌명원종공신녹권

2.2. 조선왕조의궤 및 등록

조선시대의 이두문을 볼 수 있는 자료 중에는 당대의 실용적인 문장으로 작성된 각종 공사문서(公私文書), 즉 고문서가 있다. 고문서에서는 기두어 및 결사어 등 투식어를 비롯하여 작성자가 사용하는 문장에서 이두문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문

2) 박성종, 『조선초기 고문서 이두문 역주』,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251쪽.

3) 박성종, 2006, 265쪽.

4) 박성종, 2006, 281쪽.

5) 녹권의 해석은 박성종, 2006, 251-289쪽 참조.

서는 방대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없는 형편이다. 본고에서는 이두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박물관의 대표 소장품 중 하나인 조선왕조의궤와 등록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의궤(儀軌)란 ‘의식(儀式)의 궤범(軌範)’이라는 뜻으로 국가에서 행하는 의식의 지침서라는 개념이다. 의궤는 국가에서 비정기적인 중대한 행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임시 조직인 도감(都監)을 설치하고, 행사 수행 후 관련한 일체 기록을 정리하여 행사의 전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조선왕조 중앙 행정 기록물이다. 의궤는 일반적으로 도감에서 행사가 종료된 후 의궤 편찬을 위해 조직을 축소하고 생산되었던 기록물을 수합하여 편찬하는 것이 관례였다. 의궤에는 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논의와 결정 사항, 행사 절차, 소요 물품, 투입 인원 및 비용, 주요 장면 등이 구성되어 있다.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의궤는 총 90건 173종이다.

명칭	시기1	시기2	건	점	소장품번호	비고
昌德宮修理都監儀軌 등	조선	1647년 등	11	11	고궁2014 등	국립문화재 연구원 이관
影幀模寫都監儀軌 등	대한제국	1900년 등	3	3	고궁2717 등	
皇壇從享儀軌 등	조선	1764년 등	35	82	고궁2770 등	일본 궁내청 환수
大禮儀軌 등	대한제국	1897년 등	41	77	고궁2756 등	
		총	90	173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의궤는 두 경로로 전래 되었다. 첫째, 국립문화재연구원 이관 의궤다. 1989년 문화재관리국에서는 당시 관리하고 있던 왕실 고문헌을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위탁 및 이관하였는데, 그중에서 미이관 고문헌이 있었고 이를 박물관으로 일괄 이관하였다. 이때 14건 14점의 의궤가 함께 이관되었다. 의궤 중에는 17세기 의궤인 1647년(인조 25)의 『창덕궁수리도감의궤(昌德宮修理都監儀軌)』, 1656년(효종 7)의 『창덕궁만수전수리도감의궤(昌德宮萬壽殿修理都監儀軌)』도 확인되며 1656년의 의궤는 유일본이다.

둘째, 궁내청 서릉부 환수 의궤다. 1922년 조선총독부는 궁내성(현, 궁내청)의 요청으로 기증 형식으로 왕실 및 황실 고문헌을 다수 반출하였는데, 2011년 12월 고문헌이 환수되면서 의궤 76건 157점도 포함되었다. 1922년 당시 궁내성에서 의궤 반출을 요청한 이유가 고종, 순종 실록 편찬 및 순종 국장 준비였기 때문에 고종대 이후 의궤가 68건 127점으로 대다수다. 의궤 중 유일본은 확인되지 않는다.

의궤에서는 도감 내부의 생산 문서 및 타 관청과 주고받은 문서가 수록되어 있다. 의궤에는 이 문서들을 대부분 ‘질(秩)’이라는 명칭을 붙여 계사질(啓辭秩), 이문질(移文秩), 내관질(來關秩), 감결질(甘結秩), 품목질(稟目秩)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계사질에는 신하들이 임금에게 올린 계사와 이에 대한 임금의 전교가 수록되어 있으며, 이문질과 내관질은 동급 관청 간에 주고 받은 문서로 도감에서 보낸 문서는 이문질, 도감이 받은 문서는 내관질에 수록되어 있다. 감결질에는 도감이 하급관청에 지시하는 문서로, 주로 인력, 물자 등 조달에 관련된 사항이, 품목질에는 도감 내부에서 보고된 각종 사안이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항목에서는 당시 문서에 사용된 이두문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의궤에는 행사에 필요한 물품 명칭이 수록되어 있는데, 당시 물품 표기와 관련한 이두를 확인할 수 있다. 행사에 소요되는 물품의 명칭은 주로 행사에 실제 소요된 물품의 목록인 실입질(實入秩)과 행사 후 소요되지 않은 반환 물품 목록인 환하질(還下秩)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물품을 조달하기 위해서 주고받은 공문서의 ‘후록(後錄)’에서도 확인된다. 이들 명칭에서는 행사에 소요된 잡물을 비롯하여 건축물 관련 기물명, 복식명, 음식명 등 다양한 명칭을 확인할 수 있어 조선시대 물품의 표기법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다.

한편, 이두문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물로는 등록(謄錄)도 있다. 등록은 일반적으로 관청에서 업무상 주고받은 문서를 베껴서 쓴 기록물, 또는 일상적으로 관청에서 처리한 일을 기록한 업무 일지 정도로 볼 수 있다. 또한, 등록에는 한 사안에 관하여 업무상 생산된 기록물을 베껴 놓은 기록물도 있다. 등록에도 각종 공문서가 수록되어 있어 실용적인 문장에서의 이두문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고궁박물관에는 등록의 수량은 많지 않으며 5건 5점이다.

명칭	시기	점	소장품번호	비고
湖西狀啓謄錄	1673년	1	고궁2609	신수 소장품
忠勳府鐵券誓辭謄錄	1766년	1	고궁2607	
寫字官廳謄錄	1877년	1	고궁3817	
奉常寺祭物謄錄	1878년	1	고궁3566	
影幀移奉謄錄	1778년	1	고궁2008	국립문화재연구원 이관

등록은 관청의 일상 업무 기록과 특정 사안에 대한 기록으로 나눌 수 있는데, 관청의 업무 기록은 충청감영, 충훈부, 사자관청, 봉상시의 업무와 관련한 기록이고, 특정 사안은 1778년 (정조 2)에 선원전(璿源殿) 제2실에 봉안된 영정(影幀)을 영희전(永禧殿) 제5실로 이봉(移奉)하는 과정을 담은 기록이다.

3. 박물관 소장 한글 관련 자료

3.1. 궁중 기록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한글 관련 궁중 기록물은, 종이 위에 작성된 기록물로 궁중에서의 행사 준비와 관련한 행정 기록물인 발기[件記], 왕실 구성원 간에 주고받은 편지가 있다. 이 기록물 중 상당수는 소장품 도록, 연구물 등을 통해서 그간 외부에 소개되었기에 기존 성과가 있는 기록물은 특징적인 부분들만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궁중 한글 발기

발기[件記:불기]는 주로 왕실 의례에 소용되는 물품, 인명 등을 나열하여 작성한 목록으로, 각 건(件)에 대한 기록[記]이라 하여 한자로는 ‘件記’라고 했고 ‘件’은 옛말로 ‘불’로 불려 ‘불기’라고 하였다. 즉, 발기는 주로 낱장으로 된 목록이라고 할 수 있다. 박물관에는 32점의 발기를 소장하고 있다. 이 중에서 한자 발기 4점,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것이 확실한 발기 4점을 제외한 한글 발기는 25점이다. 박물관 소장 발기는 박물관 신수품과 1989년 문화재관리국에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왕실 고문헌을 위탁, 이관했을 때 이관되지 못한 고문헌 중에 포함된 것이다. 시대별로 보면 영조 대 1점, 철종 대 1점, 고종 대 8점, 순종 대 1점으로 나눌 수 있으며 연대 미상이 14점이다.⁶⁾

연번	자료명	연대	수량	소장품번호
1	니슈스 화순옹주 길네시 소용 각양 유괴 목물 불기	1732	1	고궁1741
2	신희오월십칠일 봉안시	1851	1	고궁2522
3	갑조구월 위시 낭 본궁 의디소입	1864	1	고궁2216
4	보잠발기	1866	1	고궁2233
5	병신칠월이십칠일 니안다레 듀다레 검 단조	1896	1	고궁2215

6) 본고에서 소개하는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한글 발기에 대한 설명은 다음의 두 논문을 참고하였다. 박부자,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왕실발기의 현황(1) -고종대 이전 왕실발기를 중심으로-」, 『고궁문화』 15, 2022, 225-252쪽;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왕실발기의 현황(2) - 순종 대 이후와 연대 미상의 왕실발기를 중심으로 -」, 『고궁문화』 16, 2023, 175-207쪽.

6	무술스월초팔일 릉소 다례 단즈	1898	1	고궁2211
7	신묘스월십칠일 도상식 겸형 상다례 단즈	1891	1	고궁2220
8	신묘십이월초녹일 탄일 다례 단즈	1891	1	고궁2221
9	진면다례 처소 주읍논 덩초	1901-1905	1	고궁2223
10	다례단자	1897-1910	1	고궁2230
11	다례단자	미상	13	고궁2225-2229
12	의차발기	미상	1	고궁2232

먼저 영조 대의 발기는 1732년(영조 8)에 작성된 ‘니슈스 화순옹주 길네시 소용 각양 유그 목물 불그(고궁1741)’다. 이 발기는 내수사(內需司)에서 영조의 둘째 딸인 화순옹주(和順翁主, 1720~1758)의 혼례에 필요한 각종 유기(鑰器)와 목물을 조달하면서 작성한 기록물이다. 현전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발기이자 18세기 왕실 발기의 실재를 보여주는 유일한 자료다.⁷⁾ 발기는 목록을 주고받으면서 확인하는 실무용에서부터 의례를 위해 제작된 완성본에 이르기까지 여러 형태로 제작이 되고, 또 위계에 따라서 장정, 종이 두께, 색깔 등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 기록물은 물목을 받고 실무자가 업무상 확인하며 표시한 1차 자료로 보인다. 형태도 두루마리로 제작되었고, 물목 위에 받은 것에는 점을 찍고 그렇지 않은 것에는 점을 찍지 않았다. 그리고 2행 ‘쇼징반 오’ 아래 작성한 ‘디약징반 둘 차징반 둘 바드니’라는 기록에서는 작은 쟁반 5개가 와야 하는데 4개의 쟁반만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발기는 끝부분이 잘린 것으로 보인다.

철종 대 발기는 1점으로 ‘오월십칠일 봉안시(고궁2522)’다. 1851년(철종 2) 5월 17일 선원전 제6실에 헌종의 어진을 봉안하면서 필요한 물품을 작성한 발기다. 두툼한 분홍색 색지 위에 작성하였고 절첩 형태로 접은 후 별도의 표지는 갖추지 않았고, 표지 부분에 제목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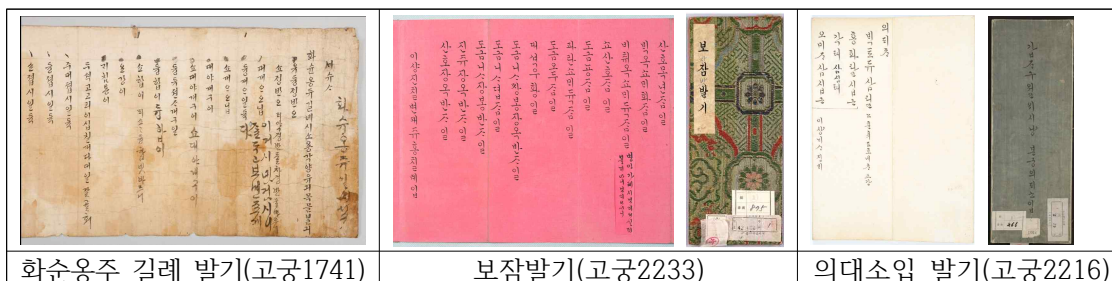
고종대 발기는 9점이다. 발기 중 가장 높은 위계를 가진 의례용 발기로 보이는 것은 ‘보잠 발기(고궁2233)’다. 이 기록물은 두툼한 분홍색 색지 위에 작성되었고 문양을 직조한 직물로 만든 표지까지 갖추진 절첩장 형태로, 고종과 명성황후의 혼례 때 머리 장식에 사용하는 비녀 목록이 수록되어 있다. 시기는 발기에 부착된 첨지의 기록 ‘병인 가례 시 보니오실 디 볼니 아니 보니오시니(병인년 가례 때 보내실 때 본래 보내지 않으신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여기서 병인년은 1866년(고종 3)이다. 이 기록물은 고급 표지까지 갖추진 최종 형태의 발기이기 때문에 종이 표면에 물목 점검 내역을 기록하지 않았으나, ‘비취옥쇼미독즘 일’ 아래에 첨지를 부착하여 비취옥소매죽잠 한 점이 오지 않았음을 표시하였다.

직조한 직물은 아니지만 푸른색의 직물로 별도의 표지를 갖춘 발기도 확인된다. 이는 1864년(고종 1)의 ‘갑자구월 위시 낭 본궁 의디소입(고궁2216)’이다. 이 발기는 표지의 기록과 마지막의 ‘이상 함흥 영흥 낭 본궁 의디 소입 니슈스 진비’ 기록을 통해서 1864년(고종 4) 갑자년 9월에 함흥(咸興)·영흥본궁(永興本宮)의 의대(衣櫛)에 소용되는 물품들을 내수사(內需司)에서 올리며 작성한 목록으로 보인다. 이 목록은 시작 부분에 ‘의대초’라고 기록하고 큰 글씨로는 비단과 수량을 기록하였는데, 그 아래 작은 글씨로 각 비단의 소용처를 보다 상세하게 작성해두었다. 또한, 일부 틀린 글자가 있어 별도로 종이에 내용을 작성, 부착하여 수정한 모습도 확인된다.

7) 박부자, 2022, 229쪽.

다례와 관련된 발기도 5점 확인된다. 이 중에서 4점은 조선시대, 1점은 대한제국시기에 작성된 것이다. 조선시대에 작성된 다례 관련 발기는 공통적으로 두툽한 흰색 종이에 작성되었고, 흰색 봉투를 갖추고 있다. 모두 같은 형태로 작성되었고, 각 표지에 다례 시기와 구체적인 다례 종류를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서 ‘병신칠월이십칠일 니안다례 듀다례 검 단즈’는 1896년(고종 33) 어진 이안과 관련한 다례,⁸⁾ ‘무술스월초팔일 룡소 다례 단즈’는 무술년인 1898년(고종 35) 명성황후의 능인 홍릉(洪陵)에 올리는 다례,⁹⁾ ‘신묘스월십칠일 묘상식 검형 상다례 단즈’ ‘신묘십이월초육일 탄일 다례 단즈’는 각각 신정왕후의 기일과 탄일에 다례를 올리기 위해¹⁰⁾ 물품을 조달하면서 작성한 목록임을 알 수 있다. 대한제국시기에 작성된 ‘진년다례 처소 주읍는 덩초(고궁2223)’는 진전의 다례에 필요한 물품에 관한 목록으로 조선시대에 제작된 발기와 달리 봉투가 없으며 작성 형식도 차이가 있다.

작성 시기를 알 수 없는 발기 13점(고궁2225~2229)은 모두 다례 관련 발기다. 동일하게 두툽한 흰색 종이에 절첩 형태로 접혀 있으며, 별도의 표지도 표제도 없다. 본문에도 모두 물품만 간략하게 작성되어 있어 사용처도 알 수가 없다. 그밖에 본문의 마지막에 작성된 ‘빙궁니부’라는 기록을 통해 대한제국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다례 관련 발기(고궁2230), 제작 시기는 알 수 없으나 노란색의 두툽한 종이 위에 최상위 신분이 사용할 수 있는 ‘다홍운문단’ 등 옷감이 기록된¹¹⁾ ‘의차발기(고궁2232)’도 있다.



(2) 한글 편지

박물관에는 명성황후와 관련한 한글 편지를 수집하여 소장품 도록을 발간하였고, 명성황후의 편지를 첩으로 만든 『명성성후어필(明成聖后御筆)』까지 수집하면서 명성황후와 관련한 한글 편지를 소장하고 있는 대표 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박물관에서는 이후 명성황후뿐만 아니라 왕실 가문에서 전래된 한글 편지도 추가로 수집하였다. 소장품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연번	자료명	작성시기	발신자	수신자	수량	소장품번호	비고
1	명성황후 한글편지	1882-1895	명성황후	민영소	77	고궁1741	소장품 도록
			궁녀	민영소	42	고궁2522	
2	명성성후어필	1864	명성황후	민응식	5	고궁1560	
		1866	명성황후	민병승	5		
3	순원왕후 한글편지첩	1844 등	순원왕후	김병주	11	고궁3740	복은 공주가 전래
4	명성황후 한글편지	19세기 말	명성황후	김석진	1	고궁3741	

8) 박부자, 2022, 242쪽.

9) 박부자, 2022, 243쪽.

10) 박부자, 2022, 239쪽.

11) 박부자, 2023, 174쪽.

5	효정왕후 한글편지	19세기 말	효정왕후	김석진	1	고궁3742	
6	경빈김씨 한글편지	19세기 말	경빈김씨	김석진	1	고궁3743	
7	경빈김씨 한글편지	1898	경빈김씨	김석진	1	고궁3744	
8	순원왕후 한글편지	1846 등	순원왕후	윤의선	4	고궁3547-3550	덕온 공주가 전래
9	신정왕후 한글편지	1874 등	신정왕후	윤용구 처	2	고궁3551 고궁3552	
10	효정왕후 한글편지	19세기 말	효정왕후	윤용구 처	1	고궁3553	
11	명성황후 한글편지	1844 등	명성황후	윤용구 처	3	고궁3554-3556	

본고에서는 명성황후 한글 편지는 기존의 소장품 도록, 연구 성과에서 내용을 밝히고 있으므로 간략하게만 설명하고, 왕실 가문 전래품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소장품 도록 제2책 『명성황후 한글편지와 조선 왕실의 시전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명성황후 한글 편지 119편이다. 이 한글 편지에 대해서는 일찍이 2003년 소장자가 공개하였고, 2007년에 당시 전하는 명성황후 한글 편지를 종합하여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¹²⁾ 박물관에서는 후손가와의 긴밀하게 논의하여 편지를 일괄 구입하였고, 소장품 도록으로 공개하였다. 박물관에서 수집한 명성황후 한글 편지는 민영소(閔泳韶, 1852-1917)에게 보낸 것으로 명성황후 친필 편지 77편과 궁녀 편지 42편으로 나눌 수 있다.

명성황후와 궁녀 한글 편지의 주제별 성격은 크게 일상적 안부, 국내외 정치 문제, 인사 문제와 관련한 명성황후와 고종의 관계, 상궁과 민씨 집안과의 관계, 왕실의 경제적 상황, 상궁의 역할 등으로 나눌 수 있다.¹³⁾ 한글편지 일괄 자료는 집안 전래품이라서 상당수는 편지 봉투가 그대로 남아있다. 특히, 명성황후가 작성한 한글편지는 주로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 청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얇은 당지(唐紙)에 그림과 계선이 있는 색지 편지지인 시전지(詩箋紙)에 작성되었고, 봉투도 일부는 같은 형태로 장식되어 있다. 봉투에는 명성황후가 편지를 보낼 때 썼던 도장으로 보이는 전서체(篆書體)로 된 ‘근봉(謹封)’ 도장이 두 개씩 찍혀 있다.¹⁴⁾

둘째, 『명성성후어필(明成聖后御筆)』은 명성황후가 민씨 일족인 민응식(閔應植), 민병승(閔丙承) 부자에게 1894년(고종 31) 7월부터 9월까지 보낸 편지 10통을 첩의 형태로 만든 것이다. 첩은 미색의 종이로 된 표지에, 장방형 하늘색 종이에 ‘明成聖后御筆’을 쓴 제침을 부착해 놓았다. 따라서, 첩의 제목은 표제(表題)를 따랐다. 첩에는 10통의 편지를 각각 부착한 형태로 제작되었다. 제작 당시에 작성한 한글, 한문으로 작성된 발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권말의 한문 발문 끝에는 이 글을 유조돈장(柔兆敦狀), 즉 병오년에 민병승이 썼음을 밝히고 옆에 민병승의 정방형 인장인 ‘臣丙承私印’을 찍어두었다.

발문에 따라 당시 첩의 제작 배경을 살펴보면 이 편지들은 1894년 흥선대원군의 재집권으로 민응식 집안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명성황후가 위로하기 위해 보낸 것으로, 당시 민씨 집안에 많은 편지가 있었으나 명성황후 시해로 사라지고 일부 남은 것들을 모아 첩으로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¹⁵⁾ 이 편지에서는 당시 급박한 정국의 변화에 따른 왕실 인물의 건강과 심리

12) 이기대, 「명성황후 관련 한글편지의 문헌 고찰과 내용 분석」, 『명성황후 한글편지와 조선 왕실의 시전지』, 국립고궁박물관, 2010, 141-142쪽.

13) 국립고궁박물관 편, 『명성황후 한글편지와 조선 왕실의 시전지』, 국립고궁박물관, 2010, 4쪽.

14) 이기대, 2010, 145쪽.

15) 이기대, 「[明成聖后御筆] 연구」, 『한국민족문화』 44, 2012, 64-65쪽.

문제, 일본의 경복궁 점령과 대원군의 재집권으로 민씨 일가의 출출, 청일전쟁에 대한 명성황후의 인식으로 편지의 내용을 나눌 수 있다.¹⁶⁾



셋째, 순조의 둘째 딸인 복온공주, 셋째 딸인 덕온공주 집안 전래 한글 편지다. 이 편지는 박물관에서 왕실 가문으로부터 수집한 것들이다. 복온공주 집안 전래 편지는 첩 1점에 수록된 11편의 편지와 낱장 편지 4편이며, 덕온공주 집안 전래 편지는 낱장 편지 10편이다. 공통적으로 복온공주 집안 전래 편지는 첩에 수록된 것을 포함하여 모두 봉투를 갖추고 있으며, 덕온공주 집안 전래 편지에는 공통적으로 덕온공주와 윤의선(尹宜善, 생년미상~1887)의 양자였던 윤용구(尹用求, 1853-1939)의 인장인 ‘臣尹用求’와, 수신자에 대한 윤용구의 딸 윤백영(尹伯榮, 1888-1986)의 설명이 기록되어 있다.¹⁷⁾ 먼저, 복온공주 집안 전래 편지는 다음과 같다.

연번	발신자	수신자	작성시기	소장품번호	내용
1	순원왕후	김병주	미상	고궁3740	궐내(闕內) 여러 왕실 인사는 잘 지낸다는 내용
2			미상	고궁3740	어떠한 중이 영옥(營獄)에 갇혔다는 내용, 평안도의 여러 고을에 흉년이 들었다는 내용
3			미상	고궁3740	상대방 부모의 이구(哀疚), 즉 상 중에 어떻게 지내냐는 위로 내용
4			1844	고궁3740	부사(副使)는 당상관(堂上官)이 할 것이라는 내용, 상감께서 봉서를 보았다는 내용 등
5			미상	고궁3740	도위 어른이 제수되어 기쁘다는 내용, 상대방의 몸조리에 대한 염려와 당부 등
6			미상	고궁3740	상대방의 오늘 생일을 챙기지 못해 미안하다는 내용, 상대방이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지 묻고, 건강하기 바란다는 내용 등
7			미상	고궁3740	체기(滯氣)에 대한 안부, 생일 아침 무엇을 먹었는지 몰라 섭섭하다는 내용, 낯것을 보낸다는 내용 등
8			미상	고궁3740	오늘 생일이라는 내용, 상대방이 오늘 오지 못하여 섭섭하다는 내용
9			미상	고궁3740	오늘 생일을 맞아 건강하기를 빌며, 며느리가 어제 왔는지 알고자 한다는 내용, 날씨가 좋지 않으니 잘 지내라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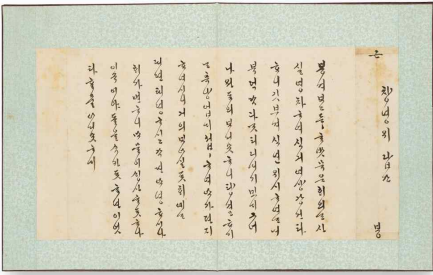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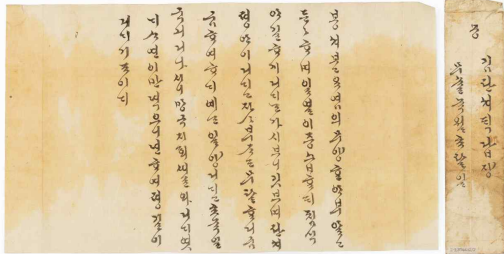
16) 이기대, 2012, 61-62쪽.

17) 이 편지의 해석에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의 박철민 연구원이 도움을 주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뜻을 전한다.

10			미상	고궁3740	상대방의 체증에 대한 염려, 상대방에 대해 그립다는 표현, 어서 나오라는 당부 내용
11			미상	고궁3740	체증이 있어 잘 먹지 못한다는 내용, 상대방이 체하여 삼보(三補)를 지킬 수 없다는 내용, 날마다 지치고 갑갑하다는 내용
12	명성황후	김석진	1878	고궁3741	오늘은 철인왕후 혼전(魂殿)의 반우(返虞)라는 내용
13	효정왕후		미상	고궁3742	서간을 보고 상대방이 잘 지내는 것 같아 기쁘며, 자신은 평안하니 축수한다는 내용
14	경빈김씨		미상	고궁3743	궐내에 자전(신정왕후)께서 잘 지내신다는 내용, 잘 지낸다는 소식에 다행스럽다는 내용
15	경빈김씨		1898	고궁3744	자사 부자가 무탈한지 궁금하다는 내용, 자신은 무탈하고, 초6일 헌종의 국기(國忌)를 지냈으니 망극한 마음이 새롭다는 내용

한글 편지는 11편의 편지가 수록된 1점의 첩과 4편의 낱장 편지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첩에는 서, 발문 등 기록 없이 순원왕후가 복온공주와 혼인한 부마 김병주(金炳疇, 1819~1853)에게 보낸 편지 11편만 수록되어 있다. 각 편지는 모두 봉투를 함께 갖추고 있는데, 봉투에 수신자인 ‘창녕위(昌寧尉)’, ‘도위(都尉)’가 각각 작성되어 있어서 모두 김병주에게 보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내용에는 사위의 안부를 묻는 것이 대부분이며, 왕실 인사, 국정 관련 사항 등도 담고 있다. 특히 편지 중에는 사위의 생일과 체증에 대한 안부를 묻는 내용이 연이어 등장하고 있어 비슷한 시기에 작성된 편지들을 모아서 첩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4번째 편지에서 확인되는 내용인 부사(副使)의 당상관 임명은 사신으로 가는 정사, 부사 관련 내용으로 보이는데, 김병주가 사은겸동지정사(謝恩兼冬至正使)가 되어 1844년(헌종 10), 중국에 사신으로 가기 때문에 작성 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낱장의 편지 4편은 모두 각각의 봉투에 수신자인 ‘김참판덕’이 작성되어 있으며, 가문에서 보관 과정에서 봉투에 연필로 ‘明成皇后閔氏’, ‘孝定皇后洪氏’, ‘順和宮金氏’라고 작성해 놓아 발신자를 추정할 수 있다. 첫째 편지는 발신자를 명성황후로 볼 때, 내용에서 혼전(魂殿)은 1878년(고종 15) 철인왕후(哲仁王后, 1837~1878)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작성시기를 추정할 수 있으며, 수신자인 김찬판은 1878년에 가문에서 김석진(金奭鎭, 1843~1910)이 예조판서로 임명되기 때문에,¹⁸⁾ 김병주의 손자인 김석주로 추정된다. 또한, 명빈김씨의 편지에는 봉투에 ‘무술늑월초팔일’이라는 기록이 있어 명빈김씨 생존 당시의 무술년인 1898년(광무 2)으로 작성 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내용은 주로 안부에 관한 것이며, 신정왕후의 혼전, 헌종의 국기일 등에 대한 내용도 확인된다. 다음으로 덕온공주 집안 편지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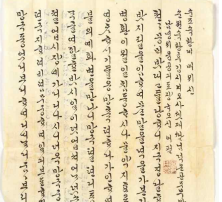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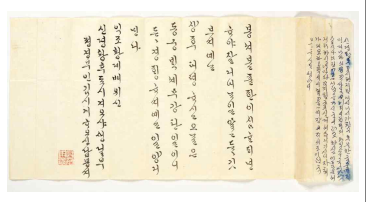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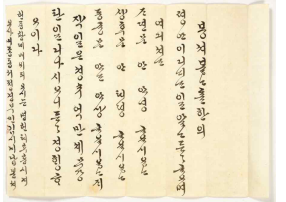
	
순원왕후 한글편지(고궁3740)	경빈김씨 한글편지(고궁3744)

18) 『고종실록』, 1878년(고종 15) 10월 26일 임인 3번째 기사.

연번	발신자	수신자	작성시기	소장품번호	내용
1	순원왕후	윤의선	1846	고궁3547	병오년 유릉 천봉 당시 생긴 문제 내용, 수진궁 도서로 인한 문제 내용 등
2			1844	고궁3548	새로 맞이한 중전이 원자를 낳아주기를 기대하는 내용, 덕온공주의 사망으로 상대방을 안타까워하며 위로하는 내용
3			미상	고궁3549	상대방의 입맛을 위하여 찬물 몇 개를 보낸다는 내용, 상대방이 보내준 문방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내용
4			1841	고궁3550	상대방 부친이 낫기를 바랬는데 불의에 화를 통한을 느낀다는 내용 등
5	신정왕후	윤용구 부인	1875-1890	고궁3551	주상, 동궁 등 왕실 인사의 안부를 전하고, 오늘 인릉(仁陵, 순조의 능호)의 국기를 지냈는데, 통원함이 새로워 답답하고 분함이 인다는 내용
6	신정왕후		1875-1890	고궁3552	동궁(후에 순종)의 탄일(1874년 2월 8일)을 맞이하여 축하하는 내용
7	효정왕후		미상	고궁3553	자전(신정왕후)께서 잘 지내신다는 내용, 편지를 쓰는 오늘이 국기일이라는 내용
8	명성황후		미상	고궁3554	어제가 고종의 탄일이라 축하하는 내용
9			미상	고궁3555	인릉(仁陵, 순조의 능호)의 기일을 맞이한 심정
10			미상	고궁3556	자전(신정왕후)의 탄일을 맞이하여 축하하고, 어제 사묘(祠廟) 서실(書室)이 됨에 따라 창황할 것을 위로하는 내용

편지는 모두 낱장으로 순원왕후가 덕온공주와 혼인한 부마인 윤의선에게 보낸 4편의 편지와 윤의선의 아들 윤용구의 부인에게 보낸 신정왕후, 효정왕후, 명성황후의 6편 편지다. 편지는 모두 윤용구의 인장과 발신자에 대해서 윤백영이 남긴 기록이 있다. 순원왕후가 윤의선에게 보낸 편지는 병오년, 덕온공주의 사망, 윤의선 부친의 사망 등 내용들을 통해서 당시 편지의 작성 시기를 파악할 수 있다. 윤용구 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구체적인 시기는 파악할 수 없으며, 신정왕후가 보낸 편지의 경우 동궁에 대한 내용이 있어 순종이 왕세자로 책봉된 시기와 신정왕후의 몰년을 근거로 시기를 추정할 수 있었다. 내용은 순원왕후가 윤의선에게 보낸 편지에는 집안의 안부와 윤의선에 대한 개인적 친분 표현, 국정 운영에 관한 내용도 일부 확인이 되지만, 윤용구의 처에게 보낸 편지들에는 가문의 안부와 국기일 등 보다 표면적인 내용이 확인된다.

주목해서 살펴볼 부분은 윤백영의 기록과 관련한 부분이다. 먼저, 윤용구의 부인에게 보낸 편지 중 효정왕후 편지(고궁3553), 명성황후 편지(고궁3555)의 경우 윤백영이 ‘궁인이대서’라고 기록하여 궁녀의 대필 편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명성황후 편지(고궁3554)의 경우 윤백영의 부기에는 ‘헌종황태배위되오시는 명헌태후흥시겨오사 내종동서정경부인김시계납봉셔’라고 수신자를 적었는데, 이는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편지의 내용에 동궁의 안부를 적고 있으나, 헌종은 세자가 없어 명헌왕후가 작성자가 될 수 없으며, 문장의 종결어가 상대경 어법인 ‘흐쇼셔’가 사용되고 있어 윤용구 부인에게 보낸 다른 편지들과 함께 볼 때 발신자는 명성황후일 가능성이 높다.

		
순원왕후 편지(고궁3550)	신정왕후 편지(고궁3552)	명성황후 편지(고궁3554)

3.2. 궁중 유물

국립고궁박물관의 소장품 형성에는 궁·능의 전래품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전래품의 경우 조선 및 대한제국 시기 궁·능 등지에서 사용하던 물품이기 때문에 당대 삶의 모습을 상세하게 보여준다. 이 소장품 중에서도 한글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종이 위에 한글을 적어 뜻을 전하는 기록물과는 달리 유물에 기록된 단편적인 내용들이지만 당시 궁중 유물에서 한글의 성격과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박물관에서는 2010년부터 소장품 도록을 꾸준히 발간하고 있고, 누리집에서는 소장품 정보를 공개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여 한글 관련 궁중 유물 현황을 정리하였다. 다만, 소장품 도록 없이 누리집에 일부 정보만 공개된 경우에는 전체 수량을 완전히 파악할 수가 없었다. 한글 관련 궁중 유물은 다음과 같다.

분류	명칭	수량		시기	소장품번호	비고
		건	점			
보자기	봉황문 인문보 등	41	41	조선 및 대한제국	창덕7966 등	소장품도록
복식	분홍색 모시 휘건	1	1		고궁3661	신수품
복식본	덕온공주 홍장삼 수본 등	37	107		창덕9903 등	소장품도록
문양판	면복용 용문 목판 등	122	134		창덕7727 등	소장품도록
궁중 현판	홀령문 현판 등	15	15		창덕20492 등	소장품도록
가구	월반 등	11	11		창덕25983 등	총 수량 미상
도자기	백자청화수복자무늬발 등	8	8		고궁3868 등	
종묘 제기	접시 등	6	6		종묘3318 등	

(1) 궁중 보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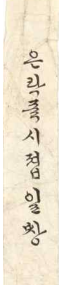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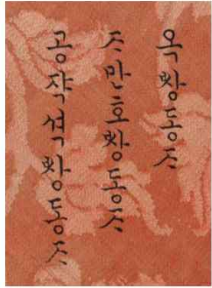
궁중 보자기는 창덕궁에서 전래된 보자기다. 보자기는 물건을 싸거나 덮고, 운반하거나 보관하기 위해서 제작된 궁중의 생활용품이다. 박물관에 소장된 보자기는 127점으로 창덕궁에서 전래되었으나, 경운궁(덕수궁)이나 경복궁에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보자기도 있다. 대부분 사용 흔적이 많이 남아있고 일부 보자기에는 목서가 적혀 있어 크기, 수량, 사용처, 보관처, 제작 시기, 썼던 내용물 등을 알 수 있다.¹⁹⁾ 목서는 한글, 한자로 나눌 수 있는데 한글 목서가 확인되는 보자기는 총 41점이다. 목서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제작 시기, 사용 및 보관 장소, 형태 정보가 결합된 형태가 가장 많으며, 내용물을 보여주는 형태도 있다.

제작 시기, 사용 및 보관 장소, 형태 정보가 결합된 목서 형태는 가장 널리 확인된다. 홀보(창덕8079)의 목서 ‘무신등춘조경년고간이뉴이득오’는 무신년, 자경전에서 사용하기 위해 곳곳에 보낸 25개 중 하나로 시기, 사용처, 보관처, 수량순으로, 누비보(창덕8007)의 목서 ‘명유대등소

19) 이흥주, 「궁중보자기의 쓰임과 제작」, 국립고궁박물관 편, 『궁중보자기』, 265쪽.

십칠큰던고간’은 정유년에 대중소 크기의 17개 중 하나로 큰전에서 사용하기 위해 공간에 보내는 것으로 시기, 크기, 수량, 사용처, 보관처의 순으로 작성되어 세부적으로 작성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자기의 형태 사향은 크기, 사용 직물 수량, 제작 수량 등 보다 다양하다. 보자기의 크기는 직물을 연결한 폭의 수로 이복, 사복, 오복 등 다양하며 물건을 일정 개수로 묶은 단위인 뉴(紐), 물건을 10건씩 세는 단위인 뉘[竹]과 함께 결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둘째, 보자기의 내용물에 관한 목서다. 물품을 포장하는 보자기인 경우 포장하는 대상이 기록되기도 한다. 이때 별도의 첨지를 준비하여 보자기에 묶기도 하고, 보자기 표면에 직접 쓰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서, 은시접보(창덕7988)에는 ‘은락죽시접일쌍’이라는 목서가 적힌 종이가 묶여 있어, 제상에 수저를 담아 놓는 은 그릇인, 시접(匙楪) 한 벌을 쌀 때 사용하던 보자기임을 알 수 있다. 모란만초문 노리개보(창덕7984)에는 ‘옥쌍동즈 즈만호쌍동즈 공작석상동즈’라는 목서가 적혀 있다. 따라서 옥, 자주색 마노, 녹색 공작석으로 만든 쌍동자가 달린 삼작노리개를 쌀 때 사용하던 보자기임을 알 수 있다.

			
홀보(창덕8083)	홀보(창덕8079)	은시접보(창덕7988)	노리개보(창덕7984)

(2) 복식 관련 유물

박물관에는 궁에서 전래되었거나 왕실 집안에서 수집된 복식 관련 유물이 다수 전한다. 복식 관련 유물 중에서도 단편적으로 한글이 기록된 경우가 있다. 복식 관련 유물은 복식,²⁰⁾ 궁중 복식에 모양을 직조하거나 수놓기 위해 그린 본, 복식에 사용될 문양을 새긴 문양판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궁중 복식이다. 복식에 한글 목서가 있는 유물은 복온공주 후손가에서 전래된 ‘분홍색 모시 휘건(고궁3661)’ 1점이 확인된다. 휘건은 궁중 잔치 때 음식을 먹기 전에 착용하여 의복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는데,²¹⁾ 치마의 허리 말기에 ‘무자십월의초라내자손은돌여쓰라’는 목서가 있어 무자년 10월에 제작하여, 집안에서 대대로 착용할 것을 당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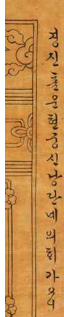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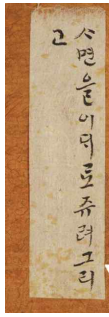
분홍색 모시 휘건(고궁3661)

20) 본고에서 검토하는 한글 관련 자료는 조선 및 대한제국 시기 생산 자료로 국립고궁박물관의 대표 소장품인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영친왕가 일가 복식’은 제외한다.

21) 국립고궁박물관 편, 『궁중음식, 공경과 나눔의 밥상』, 국립고궁박물관, 2024, 157쪽.

둘째, 왕실 복식에 장식되는 각종 모양의 밑그림인 복식본이다. 복식본을 싸는 포장지, 베개, 주머니 등 왕실 생활품의 본, 자수 병풍의 본도 포함되어 있다. 본은 복식의 제작에 사용되기 위한 밑그림이기 때문에 최종 완성본이 아니다. 복식본에는 그림 밖의 좌우 가장자리 또는 뒷면에 본이 제작된 시기, 본이 사용될 복식명, 위치, 착용 대상, 행사 목적, 제작 사항 등이 한글로 쓰여있다.

예를 들어서, 당의용 용흉배본(창덕18430)에는 ‘당고의흉비경술신조’로 당고의의 흉배로 경술년에 새로 제작했다는 복식 명칭, 위치, 제작 시기가 함께 기록되어 있고, 덕온공주 흉장삼수본(창덕9903)의 ‘[흉]장삼수초녀동궁’과 같이 착용자(저동궁, 덕온공주)가, 수 수본(창덕9901)의 ‘경진춘운현궁신랑관내의해가오니’와 같이 행사 명칭(운현궁 신랑 관례)이 적혀 있기도 하다. 한편, 수본은 제작을 위한 밑그림으로 제작과 관련한 지시 사항이 적히기도 하는데, 봉황흉배 수본(창덕18414)에는 ‘사면을이대로주려그리고(사면을 이대로 줄여서 그리고)’ 쌍학흉배 수본(창덕18445)에는 색을 구성하는 곳에 ‘흰, 초, 보, 남’과 같이 색깔을 한글로 적어두었다.

			
수본(창덕18430)	수본(창덕9903)	수본(창덕9901)	수본(창덕18414)

셋째, 복식에 사용될 문양을 새긴 문양판이다. 문양판은 용도에 따라서 수를 놓기 위한 수본용, 금박을 찍기 위한 금박용, 그림을 그리기 위한 채색용 문양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상당수는 길상어문(吉祥語文)의 한, 두 글자가 새겨진 문자판이다. 문양판은 문양을 찍을 수 있도록 양각으로 판을 새겼는데, 판의 좌·우측, 또는 뒷면에 음각, 또는 묵서로 문양판에 대한 정보를 한글로 썼다. 한글이 남아있는 문양판 중에서도 문자판이 97건 97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문양과 문자판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때, 먼저, 문양판의 한글 기록 유형은 시기, 사용 대상, 행사, 크기, 수량 등이 확인된다. 문양판은 목판의 제작시기와 문양판의 사용 대상이 복합된 형태의 기록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예를 들어서, 흉배용 용문 목판(창덕7720)은 ‘영미계동 흉비일쌍 스족’이라는 묵서가 있어 정미년에 제작하였고, 흉배 한 쌍, 4조룡이 새겨진 목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임오가례시 면사보판(면사보용 화문 목판/창덕7716)’, ‘기묘계동 대란금판대소삼개(대란용 ‘수천만세’자 도류화보문 목판/창덕7729)와 같이 행사, 문양판의 종류, 크기, 개수 등도 함께 덧붙기도 한다.

한편, 문자판은 대부분 앞, 또는 앞뒤를 새긴 한, 두 글자이기 때문에 크기가 작아 많은 내용을 적을 수가 없다. 문자판에서는 한자의 음을 적은 한글이 대부분이며, 제작 시기가 함께 기록되기도 한다. 또한, 드물기는 하지만 복 자문 목판(창덕6832)의 ‘복, 영유신조, 당의복’과 같이 한자음과 제작 시기, 사용 대상이 동시에 기록된 것도 있다.

			
창덕7720	창덕7716	창덕7729	창덕6832

(3) 궁중 현판

박물관에는 궁궐과 종묘, 능원묘(陵園墓), 사묘(祠廟), 수원 화성 등 조선시대 왕실 관련 건물에 걸었던 현판 775점을 소장하고 있다. 현판은 건물의 이름을 비롯하여 왕의 지시 사항과 생각, 시와 글, 좋은 글귀 등이 모두 한자로 새겨져 있다. 다만, 현판의 뒷면에는 현판의 제작 관련 사항이 기록되어 있기도 한데, 대부분은 한자이지만 간혹 한글로 기록된 경우도 확인된다. 현판의 뒷면에 한글 목서가 확인되는 경우는 15건 15점이다. 현판에서 확인되는 한글 기록은 모두 동일하게 현판을 걸어야 할 위치를 가리킨다. 현판은 궁궐의 주요 건물뿐만 아니라 작은 건물, 각종 문에 대부분 걸려있으므로 현판을 거는 실무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글 기록을 썼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서, 일영문(日永門) 현판(창덕20729)에는 뒷면에 ‘가회정 남문’이라는 목서가 있고, 서양문(舒養門) 현판(창덕20721) 뒷면에 ‘다경합 동북문’이라는 목서가 있어서 어디에 있는 문 인지를 보여준다. 또한, 1774년(영조 30) 영조가 세손과 함께 흥문관, 춘방, 승정원을 돌아보며 옛날을 생각하며 회포를 적은 현판(창덕20311)의 뒷면에는 ‘춘방 서남’으로 추정되는 한글 목서가 남아있어 현판을 춘방, 즉 세자시강원의 서남쪽에 걸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영문 현판(창덕20729)	옛날을 생각하며 회포를 적은 현판(창덕20311)

(4) 가구, 도자기, 종묘 제기

박물관 소장품 중 도자기, 가구, 종묘에서 사용된 제기의 경우에도 한글 목서, 명문이 확인되지만, 세 소장품의 경우 소장품 도록과 같이 종합 결과물이 없어서 전체 수량을 파악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박물관 누리집에서 공개 소장품, 또는 전시에 출품된 소장품 등을 통해 확인되는 유물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째, 궁중에서 사용되었던 가구다. 박물관에 전하는 가구 중 한글 기록은 창덕궁, 종묘 전래품과 신수품에서 일부 확인된다. 해당 가구는 모두 식기류로 반(盤)이다. 반은 세부적으로 소반과 목반을 가리킨다. 소반은 다리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모두 해당하며, 목반은 음식을 담아 나르는 큰 나무 그릇이다. 원반은 9점, 목반은 2점이 확인된다. 반의 한글 명문은 모두 바닥에 있다. 한글 명문은 대부분 음각으로 새겨져 있으며, 일부 흰색의 안료로 작성한 예도 있다. 명문은 제작 시기, 사용처, 보관처, 크기, 수량과 같은 형태로 작성되어 있으며, 여기에 제작 목적인 행사명이 추가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서, 주흑칠소원반(고궁1108)에는 ‘신스큰전고간디등소십오독’이 있어 신사년 대전에 사용하기 위해 곳곳에 보내는 대중소 150개 중 하나임을 알 수 있으며, 흑칠호족원반(궁중 466)은 ‘덕유등추덕동궁길네시이뉴일독사고간’이 있어 정유년 덕온공주 길례 때 만든 14개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주칠원반(창덕25983)에는 제작 시기는 확인되지 않고, ‘殿 웃던침실 二독’이 있어 대전 침실에 진상했던 20개의 소반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세 원반은 모두 바닥을 음각으로 새겨놓았는데, 목반(창덕26057)은 바닥에 흰색의 안료로 ‘갑진등춘즈경년고간 이뉴대등쇼삼십독’을 써놓았다. 이를 통해 목반은 갑진년에 제작하여 자경전에서 사용하기 위해 곳곳으로 보내진 대중소 크기의 300개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주흑칠소원반(고궁1108)	주칠원반(창덕25983)	목반(창덕26057)

둘째, 궁중에서 사용되었던 도자기다. 박물관에는 창덕궁, 종묘 등지에서 전래된 도자기를 다수 소장하고 있으나 대한제국기 이후 제작된 근대 도자기만 소장품 도록으로 출판되었다. 한글 명문이 있는 도자기를 일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주로 바닥에 제작 시기, 행사명, 사용처, 크기, 수량의 순으로 명문을 새겨두었다. 예를 들어서, 청화백자복자문접시(고궁 588)의 명문 ‘무신슈강지고간디등쇼이십독’에서는 무신년 창덕궁의 수강재(壽康齋)에서 사용하기 위해 고간에 보관한 대중소 접시 200개 중의 하나임을 알 수 있고, 백자청화수자문접시(종묘 159)의 명문 ‘덕동궁길례시숙설소이늑일독오’에서는 저동궁(苧洞宮), 즉 덕온공주의 길례 때 임시로 설치한 주방인 숙설소(熟設所)에서 사용한 접시 15개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백자청화정사년명보상화문대합(고궁3469)의 명문 ‘명스 웃던고간이뉴십이개구’에서는 정사년 대전에서 사용하기 위해 곳곳에 보관한 12개 대합 중 하나로 뚜껑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접시(고궁588)	접시(종묘159)	대합(고궁3469)

셋째, 종묘에서 사용되었던 제기에서도 한글 명문이 확인된다. 박물관에는 종묘에서 사용되었던 다수 다종의 제기를 소장하고 있다. 전체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일부 제기에서 한글 명문이 확인되었다. 제기는 금속이기 때문에 명문은 점을 찍듯이 새겼다. 명문은 접시 5점, 탕기 1점이다. 제작 시기, 사용처, 수량 등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탕기(종묘9917)에는 ‘경진완화군궁일독’이 있어 경진년 고종의 첫째 아들 완화군(完和君)의 사당에 이용하기 위해 제작한 탕기 10개 중 한 개임을 알 수 있으며, 접시(종묘3521)에는 ‘계미이뉴이독개구’이

있어 재미년에 만든 20개의 접시 중 한 개이며 뚜껑을 갖췄음을 알 수 있다.



5. 박물관 소장 국어사 자료의 사료적 가치

지금까지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소장된 국어사 자료를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박물관 소장 국어사 자료는 조선 초기 이두문을 확인할 수 있는 녹권에서부터 각종 고문서를 집적한 의궤와 등록, 물건의 목록인 발기, 왕실 여성의 한글 편지, 궁중에서 전래된 각종 유물의 기록까지 다양한 형태가 확인되었다. 이 중에서 수량이 방대한 고서, 고문서, 종합 조사 결과물이 출판되지 않은 도자기, 가구, 제기 등 각종 궁중 유물에서도 추가로 한글 자료가 확인될 것으로 추정된다.

박물관의 한글 자료는 조선 왕실 및 대한제국 황실 주제 박물관에 걸맞게 왕실 및 궁중과 관련한 기록들이다. 다만, 관련 주제의 기록물은 국립고궁박물관에 비해서, 역사적 배경에서 왕실, 궁중, 관청, 사고 등에서 전래된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절대적으로 많은 수량이 있으며, 개관 후 왕실 가문으로부터 한글 편지 등 다수의 한글 자료를 수집한 국립한글박물관에도 상당수가 있다. 따라서, 해당 주제의 기록물만 보았을 때 국립고궁박물관의 한글 자료는 타 기관에 비해 차별화되는 특징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박물관에는 궁·능 등지에서 전래된 유물이 있다. 주로 문장 단위가 아닌 단편적인 기록이지만, 유물에서 확인되는 기록은 당시 현장에서 한글의 생산 배경과 기능을 보여준다. 이러한 유물은 일부 기관에도 소장하고 있지만, 국립고궁박물관만큼 수량, 종류도 많지 않고 출처도 분명하지 못하다. 기록들은 주로 궁중에서 각종 기물의 생산과 관련 있고, 일종의 업무와 관련한 증거적 기능을 지닌다. 박물관의 유물에서 확인되는 한글 기록 중에서도 특징적인 하나의 주제는 왕실 혼례에 대한 기록이다. 지금까지 왕실 혼례 기록은 의궤, 등록, 발기 등 혼례 자체에 대한 기록물을 통해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박물관에 현존하는 한글 자료는 혼례의 실제 업무 현장에서 생산된 기록이다. 한글 기록은 혼례에 필요한 물품 조달과 관련한 주제로 집중된다.

왕실 혼례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도감과 같은 임시 관청이 조직되어 업무가 추진된다. 따라서, 혼례에 필요한 물품은 자체 예산이 아닌, 호조로부터 지원받아 생산하게 되며, 필요시 다른 관청에서 조달하게 된다. 도감에는 도청 아래 하위 조직이 있었는데, 물건 준비와 관련하여 1, 2, 3방 등 각 방과 별공작(別工作), 수리소(修理所) 등에서 해당 물품을 제작하기도 하고, 상의원(尙衣院), 사옹원(司饔院) 등 다른 관청에서 필요 물품을 조달하기도 하였다. 행사가 있을 때 도감에서는 비용 문제로 호조와 자주 갈등을 빚곤 하는데, 호조에서는 행사를 위한 물품 제작 내역과 비용도 꼼꼼하게 정리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도감의 업무 현장에서는 이러한 기록들이 각종 목록으로 생산되고, 유물에도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는 것이다.

박물관에 남아있는 당시 생산된 기록물은 물건의 목록인 발기이며, 제작된 유물은 복식 관련 유물, 도자기, 가구다. 이 기록에는 물건의 생산 시기와 행사명이 작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추적하면 유물이 어떠한 혼례와 관련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크게 혼례는 가례와 길례로 나뉘는데, 왕 또는 왕세자의 결혼에는 가례, 대군, 군, 공주, 왕주의 결혼에는 길례의 명칭을 사용한다. 박물관의 궁중 유물에도 행사는 가례와 길례로 나누어서 밝히고 있는데, 왕실 혼례 관련 궁중 기록 및 유물은 다음과 같다.

혼례	유물	유물명	수량	기록	번호
가례	발기	보잠발기	1	병인 가례 시 보니오실 디 불니 아니 보니오시니	고궁2233
	도 자 기	백자청화수복문 항아리	1	병인가례시큰던고간 디등쇼이십득	고궁54
		백자청화국화문 항아리	1	병인가례시큰던고간 디등쇼이십득	고궁597
		백자청화모란문 항아리	1	병인가례시큰던고간 디쇼이십득	고궁929
		백자청화수복자문화형 대접	1	병인가례시큰던고간이늬일득팔	고궁3772
		백자청화수복자문 푼주	1	병인가례시큰던고간이늬일득팔	고궁3998
	복식	면사보용 화문 목판	1	임오가례시 면스보판	창덕7716
		당의 수복자화보문 문양판	2	당의사매 병인가례시신조	창덕7738
		적의용 용흉배본	4	적의흉비/임오가례시적의흉비 적의견화/임오가례시적의견화	창덕18426
	가구	흑칠호족원반	1	병인가례시큰던고간이늬 일쌍	창덕25909
		목반	1	병인가례시디중소일백육십기옥화 당고간	창덕26074
길례	발기	화순옹주 길례시 발기	1	니슈스 화순옹주 길례시 소용 각 양 유긔 목물 불긔	고궁1741
	도자기	백자청화수자문접시	1	덕동궁길례시숙설쇼이늬일득오	종묘159
	복식	댕기	1	병유츄길례시덕동궁고간이늬스	고궁2666
		덕온공주 홍상삼 수본	1	[홍]장삼슈초덕동궁	창덕9903
		진주선 수본	1	을해신조길례시	창덕9894
		부마귀주머니 수본	1	병유길례시부마즈가학쥬치슈초	창덕18446
		향주머니 수본	1	병유길례시침장향낭슈초	창덕18451
	가구	흑칠호족원반	1	병유츄츄덕동궁길례시이늬일득사 고간	궁중4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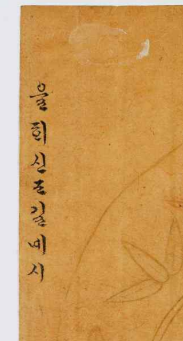
가례와 관련한 기록은 발기, 도자기, 복식 관련 유물, 가구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한글 기록에서 밝히고 있는 시기를 나누어서 보면 기록은 정유, 정미, 병인, 임오, 병오년 가례와 각각 관련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유년은 1837년(헌종 3)으로 헌종과 효현왕후 김씨(孝顯王后 金氏)의 가례로 추정된다. 관련 유물은 순화궁에서 사용된 대접과 대전에서 사용하기 위해 곳곳에 보관된 한 쌍인 흑칠호족원반, 당의(唐衣) 소매를 금박으로 장식하기 위해 새로 제작한 문양판이 있다. 정미년은 1847년(헌종 13)으로 헌종과 후궁 경빈 김씨(慶嬪 金氏)의 가례로 추정된다. 관련 유물은 도

자기인 순화궁(順和宮)에서 사용하기 위해 곳곳에 보관된 10개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주가 있다. 병인년은 1866년(고종 3)으로 고종과 명성황후의 가례로 추정된다. 관련 기록은 고급 직물로 표지를 갖춘 여성의 머리 장식에 이용된 비녀 목록인 ‘보잠발기’가 있으며, 당시 누락된 비녀에 대한 기록도 확인된다. 유물은 대전에서 사용하기 위해 곳곳에 보관된 대중소, 또는 대소 크기로 각각 20점씩 제작했던 향아리 3점이다. 임오년은 1882년(고종 19)으로 왕세자 순종(純宗)과 순명효황후 민씨(純明孝皇后 閔氏)의 가례로 추정된다. 관련 유물은 세자빈이 쓰는 면사보(面紗褙)를 장식하기 위한 문양판, 세자빈 적의(翟衣)의 흉배와 어깨에 사용되는 용본이 있다. 병오년은 1906년(광무 10), 순종과 순정효황후(純貞孝皇后)의 가례로 추정되며 관련 유물은 옥화당(玉華堂)에서 사용하기 위해 곳곳에 보관한 160개의 목반 중 하나이다.

		
대접(고궁3772)	향아리(고궁929)	수본(창덕18426)

한편 길례에 사용된 기록물 및 유물은 1732년(영조 8) 화순옹주(和順翁主), 1837년(헌종 3) 덕온공주(德溫公主), 그리고 미상의 혼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발기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1732년 영조의 둘째 딸 화순옹주와 월성위(月城尉) 김한신(金漢薰)과의 혼례에 필요한 물품을 기록한 것으로 물품 표시 내역이 확인되는 업무 현장의 기록이다. 그리고 나머지 유물은 대부분 1837년 덕온공주와 남녕위(南寧慰) 윤의선(尹宜善)의 혼례를 위해 제작된 유물로, ‘정유년 길례’라고 시기와 혼례명을 밝히고 있다. 유물로는 숙설소에서 사용하기 위해 만든 15개 접시 중 한 개, 저동궁에서 사용하기 위해 곳곳에 보관한 4개 중 하나인 원삼대, 부마인 윤의선의 주머니 제작을 위해 마련한 밑그림인 수본, 저동궁에서 사용하기 위해 곳곳에 보관한 14개 중 하나인 흑칠호족원반이 확인된다. 또한, 위의 목서가 잘려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홍장삼이 혼례복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덕온공주의 홍장삼을 만들기 위한 수본도 혼례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누구의 혼례였는지, 분명하지 않은 을해년 길례를 위해서 제작된 혼례용 진주부채인 진주선의 밑그림인 수본도 확인된다.

		
원삼대(고궁2666)	원반(궁중466)	수본(창덕9894)

이같이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혼례 관련 한글 기록은 혼례의 업무 현장, 그것도 예식 현장이 아닌 주로 준비 과정에서 생산된 것으로 미시사적 접근이 필요한 기록들이다. 이 기록들은 혼례에 대한 왕실 기록물인 의궤, 등록 등에서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기록이다. 예를 들어서, 『덕온공주가례등록(德溫公主嘉禮贈錄)』에는 덕온공주가 입을 홍장삼은 상의원에서 준비하는 대홍광적 장삼(大紅廣的 長衫) 1벌로만 기록되어 있고,²²⁾ 밑그림, 즉 수본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가 없다. 또한, 부마의 주머니를 위한 학 문양 수본이 남아있지만, 등록에는 부마의 주머니에 대한 기록 자체가 없다. 즉, 유물의 기록은 의궤, 등록과 같이 수정을 여러 번 거친 완성된 기록과는 다른 현장 기록인 셈이다.

일례로 혼례에 대한 주제로 집중하여 살펴보았지만, 궁중 유물에서 확인되는 한글은 전반적으로 정면에 드러나지 않고 뒷면, 귀퉁이에 간략히 적힌 제작 내역, 사용처, 보관처 등 정보다. 이 기록은 행사에서 제작 확인을 위한 기능으로 작성되었고, 예산 지출, 업무 절차와 관련한 행정의 결과물이다. 아마도 기록들은 이름을 알기 어려운 하위 관료가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박물관에 소장된 한글 자료인 최상위 계층의 왕실 여성이 주고받은 한글 편지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지니고, 의궤 등 행정 기록물과도 성격이 다르다. 요컨대, 국립고궁박물관에는 폭넓은 한글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한글이 있는 궁중 유물은 국어사 자료와 관련한 국립고궁박물관의 특징적인 자료라 할 수 있겠다.

5. 결론

논문에서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소장한 국어사 자료를 종합하여 현황을 정리하였다. 박물관에서는 조선 및 대한제국 황실 관련 궁궐 등지 전래품 및 신수품을 소장하고 있으며, 국어사 자료는 크게 이두 관련 자료와 한글 관련 자료로 나눌 수 있었다. 이두 관련 자료는 조선 전기 공신 수여 녹권, 조선 왕실 및 대한제국 황실 행정 기록물인 의궤, 등록으로, 한글 관련 자료는 궁중 기록물과 궁중 유물로 나눌 수 있었다. 여기서 궁중 기록물은 다시 물건의 목록인 발기, 왕실 여성의 한글 편지로 나눌 수 있으며, 궁중 유물은 보자기, 복식 관련 유물, 현판, 도자기, 제기, 가구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었다.

즉, 박물관에는 다양한 국어사 자료를 소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타 기관과 구별되는 특징적 자료는 궁중 유물에서 확인되는 한글 기록이다. 궁중 유물에 기록된 한글은 누가 작성하였는지도 알 수 없으며, 내용을 담은 문장 형태도 아닌 단편적 기록이다. 그리고 정면에 드러나지도 않는 뒷면, 귀퉁이 등에 작성되어 있다. 이 한글의 성격은 주로 제작된 유물의 시기, 사용처, 크기, 수량 등 정보를 제공하고, 제작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기능적인 면이 강하다. 즉, 당시 이 기록들은 궁중의 작업 현장 기록으로서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한글 기록은 전래 소장품이 다수를 이루는 국립고궁박물관이기에 많은 수량을 소장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현실적인 한계로 인하여 박물관에 소장한 국어사 자료를 모두 포괄하지는 못하였다. 그럼에도 다양한 성격의 박물관 소장 자료를 소개함으로써 국어사 자료의 성격과 특징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다. 향후 발간되는 소장품 도록, 누리집 정보 공개 자료 등을 통해 현황을 보완한다면 박물관 소장 국어사 자료를 한층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2) 『德溫公主嘉禮贈錄』 「各司所掌物目秩」: “尙衣院 … 公主衣服 大紅廣的單露衣— 大紅廣的 長衫— …”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국어사 자료 소개 - 한글 키워드를
중심으로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국어사 자료 소개
- ‘한글’ 키워드를 중심으로 -

2025. 1. 24.

국립민속박물관 최명림

목차

1. 들어가며

2.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한글’ 관련 소장품 분석

- 1)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서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검색
- 2)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활용 ‘한글’ 키워드 적용 소장품 선정
- 3) ‘한글’ 관련 유물의 용도/기능별 분류에 따른 소장품 분석 및 특징

3. 한계 및 시사점

1. 들어가며

표준유물관리시스템 시작

<표준유물관리시스템>

- 유물카드나 유물대장 형태 → 수기로 기록하여 관리
- 1990년대 후반부터 국립민속박물관은 표준유물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박물관 소장품을 등록 및 보급
- 표준유물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은 박물관 전산화를 위한 유물분류표준화 방안을 기반으로 개발
- 소장품의 이미지, 소장품 자료 등 소장품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시스템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으로의 전환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국가 문화유산의 온라인 관리 및 공개서비스에 관한 규정

[시행 2014. 5. 21.]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232호, 2014. 5. 21.,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31조(박물관·미술관 협력망) 및「문화재 보호법」제11조(문화재정보화의 촉진)에 따라 구축된 **국가 문화유산 데이터베이스의 통합·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 문화유산 정보의 대국민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으로의 전환

- 정부의 적극적인 정보 개방 정책의 하나인 정부 3.0 구현을 위해 국가문화유산정보 표준체계를 정립하고 전국 국공립박물관의 국가문화유산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표준관리시스템 구축(국립 39개관, 공립 332개관/2015)
-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사용하던 표준유물관리시스템을 모든 문화유산에 범용적으로 적용
- 국립민속박물관은 표준유물관리시스템에서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으로 전환

<시스템 개선 방안>

	기존 방식		국가문화유산 통합 관리
표준화	고고·역사·미술사 중심의 관리체계	⇒	자연사·민속 등 전체 포괄
관리	기관별 관리시스템		클라우드 기반 통합시스템 제공
서비스	기관별·공급자 중심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으로의 전환

- 박물관·미술관 소장자료 및 문화유산의 온라인 관리 및 공개서비스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5. 17.]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520호, 2024. 5. 17., 타법개정]

◇ 제정이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1조(박물관·미술관 협력망) 및 문화재보호법 제11조(문화재 정보화의 촉진)에 따라 구축된 국가 문화유산데이터베이스의 통합·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 문화유산 정보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국가 문화유산 온라인 관리 표준화위원회 구성·운영
- 나.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개발·보급
- 다. 국가 문화유산 표준 데이터베이스 구축
- 라. 온라인 공개서비스 절차·기준·범위 등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2024년 12월 31일기준)

국립민속박물관 누리집

<https://www.nfm.go.kr/user/data/home/101/DataRelicCategoryList.do>

→ 소장자료 → 소장품 → 소장품 검색(총 111,138건)

국립민속박물관 누리집

<https://www.nfm.go.kr/user/data/home/101/DataRelicCategoryList.do>

→ 소장자료 → 소장품 → 소장품 검색(총 111,138건)

국립민속박물관

관람안내·예약 전시 교육·행사 소장자료 학술·정보 소식 디지털 박물관

소장자료 소장품 검색

소장품 소개

국가지정문화유산

소장품 검색

소장품검색에 검색어 입력

국적/시대

대분류

- ☐ 한국 (97,557)
- ☐ 일본 (4,286)
- ☐ 아시아 (2,771)
- ☐ 중국 (2,440)
- ☐ 유럽 (2,228)
- ☐ 아메리카 (1,951)
- ☐ 아프리카 (640)

중분류

- ☐ 광복이후 (50,596)
- ☐ 조선 (21,983)
- ☐ 일제강점기 (12,395)
- ☐ 2000년 이후 (2,523)
- ☐ 대한제국 (1,809)
- ☐ 2000년 이후 (1,279)
- ☐ 근대 (1,553)

용도/기능

대분류

- ☐ 산업/생업 (17,670)
- ☐ 사회생활 (17,221)
- ☐ 중 (15,560)
- ☐ 먹 (14,874)
- ☐ 문화예술 (13,641)
- ☐ 식 (9,664)
- ☐ 미디어 (7,557)

중분류

- ☐ 생활용품/가전 (15,214)
- ☐ 장갑 (10,308)
- ☐ 의류 (9,508)
- ☐ 음식기 (7,660)
- ☐ 의제생활 (7,199)
- ☐ 사회제도 (5,789)
- ☐ 악기악보 (5,437)

전체 111,138건의 소장품이 있습니다.

10개씩 보기

<용어 설명>

1. 자료: 학문적, 예술적 가치가 있으며 연구나 조사의 바탕이 되는 재료
2. 유물: 선대의 인류가 후대에 남긴 물건
3. 소장품: 박물관이 수집하여 등록, 보존, 연구, 전시하는 자료 및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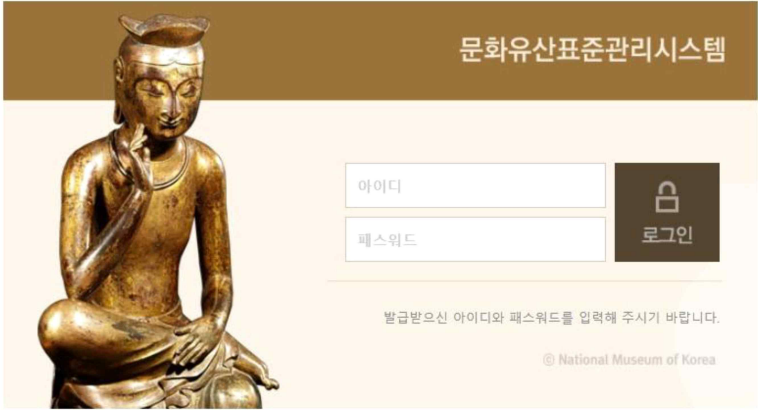
<국립민속박물관 누적 소장품 현황(1993~2022)>

(1993~1995)	2만 건 돌파
(1996~2006)	4만 건
(2007~2013)	6만 건
(2014~2017)	8만 건
(2018~2019)	10만 건
(2020~2022)	109,519건/170,036점

2.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한글' 관련 소장품 분석

- 1)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서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검색
- 2)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활용 '한글' 키워드 적용 소장품 선정
- 3) '한글' 관련 유물의 용도/기능별 분류에 따른 소장품 분석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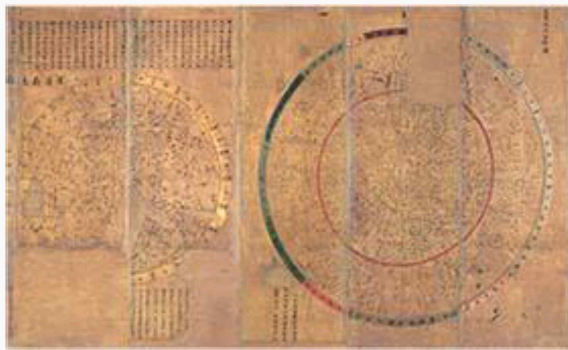
1.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서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검색



국립민속박물관 국가지정문화유산(총 9건)

국가지정문화유산		
정약용 필적 하피첩(霞帔帖)-3첩	보물 제 1683-2호	조선시대
신·구법천문도(新·舊法天文圖)-8폭	보물 제 1318호	조선시대
조씨삼형제초상(趙氏三兄弟肖像)-1점	보물 제 1478호	조선시대
경진년대통력(庚辰年大統曆)-1책	보물 제 1319호	조선시대
산청 전주최씨 고령댁상여(山淸全州崔氏高靈宅喪輿)-1점	국가민속문화유산	1856년
장영직 유품(張榮稷遺品)-41점	국가민속문화유산	1910년대
경산 정원용 의대(經山鄭元容衣帶) 유품-31점	국가민속문화유산	조선시대
변수 묘 출토 유물-72점	국가민속문화유산	조선시대
남양주 16세기 여성 묘 출토복식-10점	국가민속문화유산	조선시대

국립민속박물관 국가지정문화유산



신·구법천문도(新·舊法天文圖)



경진년대통력

조씨삼형제
초상



하피첩
(霞帔帖)

국립민속박물관 국가지정문화유산



산청 전주최씨 고령दै상여



남양주 16세기 여성묘 출토복식



변수 묘 출토 유물



경산 정원용 의대



장영직 유품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2024년 12월 31일기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민속박물관

관람안내·예약

전시

교육·행사

소장자료

예술·정보

소식

디지털 박물관

소장자료

▶ > 소장자료 > 소장품 > 소장품 검색

소장품 검색

소장품 검색

국적/시대

대분류	중분류
☐ 한국 (97,557) ☐ 일본 (4,286) ☐ 아시아 (2,771) ☐ 중국 (2,440) ☐ 유럽 (2,228) ☐ 아메리카 (1,051) ☐ 아프리카 (640) ☐ 기타 (1,051)	☐ 관복이후 (50,556) ☐ 조선 (21,983) ☐ 일제강점 (12,395) ☐ 2000년 이후 (2,523) ☐ 대한제국 (1,809) ☐ 2000년 이후 (1,579) ☐ 근대 (1,553) ☐ 현대 (1,553)

용도/기능

대분류	중분류
☐ 산업/생업 (17,760) ☐ 사회생활 (17,221) ☐ 주 (15,560) ☐ 의 (15,874) ☐ 문화예술 (13,641) ☐ 식 (9,464) ☐ 미디어 (7,557) ☐ 기타 (1,553)	☐ 생활용품/가전 (15,214) ☐ 산업 (10,308) ☐ 의류 (9,508) ☐ 음식기 (7,660) ☐ 의례생활 (7,199) ☐ 사회제도 (5,789) ☐ 아카이브 (5,437) ☐ 기타 (1,553)

전체 111,138건의 소장품이 있습니다.

10개씩

보기

2.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활용 '한글' 키워드 적용 소장품 선정

소장품검색

소장품검색

전문검색

검색 초기화

검색범위 지정	시작번호 종료번호 국립2 국립2 민속 민속 민속 교육 소장품번호 소장품번호 세부번호 세부번호
추천검색	추천검색 불러오기 선택없음
키워드 검색	한글 조회 키워드 옵션 설정
이미지 태그	이미지 태그를 입력해 주세요 조회
카드종류 선택	☒ 전체 ☐ 대표카드 조회 ☐ 세부카드 조회

☐ 민속

☐ 민속
 ☐ 이슬만유품
 ☐ 월드컵자료
 ☐ 성호기념관기타

☐ 국제/시대

☐ 한국
 ☐ 아프리카
 ☐ 중국
 ☐ 유럽
 ☐ 근속
 ☐ 조제
 ☐ 사직
 ☐ 완성재질

☐ 재질

☐ 목보
 ☐ 전승경예품
 ☐ 일본
 ☐ 한국도량형박물관
 ☐ 석난
 ☐ 만장
 ☐ 기타
 ☐ 연구과 구입
 ☐ 공직자선물
 ☐ 참고자료
 ☐ 남산
 ☐ 복제
 ☐ 교육
 ☐ 박정희유품
 ☐ 아스펙기증품
 ☐ 성호기념관유물
 ☐ 교육

☐ 출도지

☐ 서울특별시
 ☐ 대전광역시
 ☐ 전라남도
 ☐ 울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 강원도
 ☐ 전라북도
 ☐ 대구광역시
 ☐ 경기도
 ☐ 제주도
 ☐ 인천광역시
 ☐ 경상남도
 ☐ 충청남도
 ☐ 광주광역시
 ☐ 경상북도
 ☐ 충청북도

☐ 입수연유

☐ 방관품
 ☐ 기증품
 ☐ 구입품
 ☐ 수집품
 ☐ 양여품
 ☐ 민수품
 ☐ 기탁품
 ☐ 기타(미상)
 ☐ 미관품
 ☐ 보관품

+

모든 검색 옵션 펼쳐보기

선택한 조건

2.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활용 '한글' 키워드 적용 소장품 선정

용도기능별 분류에 따른 대분류

용도기능별 대분류
의
식
주
산업/생업
교통/통신
과학기술
사회생활
문화예술
군사
종교신앙
전통과학
과학기술
보건의료
기타자료

용도기능별 중분류

의생활
의류
장신구
관모
신발
보관/휴대
대/구
직물
관련도서
기타

문화예술
문헌
놀이/여가
무용/극
음악
서화
공예
조각
사진예술
행사
영상예술
스포츠
기타

종교신앙
민간신앙
유교
불교
기독교
천주교
천도교
기타

용도기능별 기준 분류

대	종	소	대	종	소	대	종	소
의생활	관모	관	의생활	음식기	음식	주생활	생활용품	조명구
		립			반상			조명구
		건			자갈판반			난방구
		모			음식기다리			안방구
		관식			취사			취침용구
	의복	입식			취사기타			취침구
		서양식			가공			신발입구
		의복			가공기타			침구용구
		관모기타			조리			침자기
		꽃문자			주식			시간장치
	대·구	벽면적		식생활관련도서	식생활관련도서기타		주생활기타	생활용품관련도서
		방상적			살가지			주생활보유기타
		종교적			금수			생활구입제
		의례적			간조·보관			신사생활기타
		서양적			식생활분류기타			취침용구
주생활	대·구	분	주생활	건축물	공원건축	산업·생업	농업	공원
		내외			공인건축			수확물
		역무적			사원건축			도장
		부분용			서원건축			저장
		의용기타			일반건축			우상
	선별	대		건축부재	마물제당		여업	농업기타
		구			향교건축			여도
		대·구기타			향지건축			영지
		화			교당			제단·숙의
		벽·리			건축물기타			수장시설
산업·생업	선별	서양화		건축부재	지붕재		임업	제조·가공
		선별기타			골조부재			제원
		선별장식			벽·내도면			아업기타
		의예장식			장식부재			산업조성
		장식기타			기초부재			임산물생산
	관·복합	관·복합			배관부재		축산	임업기타
		관·복합기타			건축부재기타			양파
		의생활관련도서			가구			양면
		의생활기타			침구			
		의생활분류기타						

용도기능별 기준 분류

대	종	소	대	종	소	대	종	소							
산업·생업	축산	양계	공업	공업	종이공업	교통·통신	선호	방송							
		축산기타			철공업			선호							
	양행	석공업			교통관련서										
		양행기타			소재			통신관련서							
		공업		조식	상업		공업기타	교통·통신기타	신호·음속서						
				담사			조선		항로표지관련서						
	제철			기			교통·통신기타		교통·통신분류기타						
	상업·보석			유기공업			항로표지		음치표지						
	광학			상업기타					천지표지						
	천공			농업관련서					항상표지						
	화학·발라	어업관련서	항해관련기계												
	지보·지급	임업관련서	동대용물												
	제철·분반	축산관련서	관측장비												
	수업	제입도구	양행분류관련서	선박·항공	관측장비										
		광기	공업관련서		항로표지기타										
		배수	수업관련서		항해장비										
		조명	공업관련서		관측장비										
		보안	상업관련서		통신장비										
	산업·생업	선박·선장	교통·통신	산업·생업분류기타	육상	수상	교통운송기타	선박·항공기타	기관장비						
		안전제조							경업	제어	선박·항공구기타				
		직물부품									대구	양행	시간측정		
		공산생활											수업·통신	수업·통신기타	기상관측
		양입기타													심리관측
	완입기타	제어	천문도												
	수업	서양구	경업	수업기타	양식	마구기타	수업·통신구기타	수업·통신구기타	역사						
제입구		수업·통신							수업·통신기타	수업·통신기타	천문기타				
죽공											통신	전기통신	통신기타	지도	
아공														의료	전보
양식															
도자공	통신	통신기타	물수												
초고공			통신	통신기타	방위										
유리공					통신	통신기타	지리기타								
관주공							통신	통신기타	전보						

용도기능별 기준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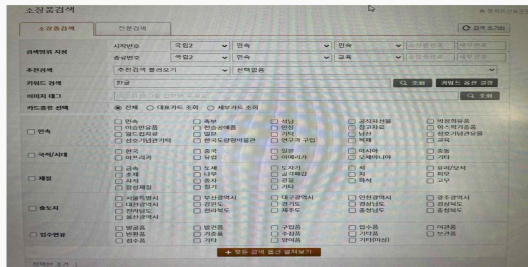
대	중	소	대	중	소	대	중	소	
과학기술	의료	진료	사회생활	의전	가치	문화예술	사회	역화	
		재활			의전기타			사회기타	
		보관			사회생활기타			인물조각	
	인쇄	의문기타	종교신앙	사회공동	독립운동		조각	동물조각	
		활자			의식			신상조각	
		인쇄도구			예배			조각기타	
	인양	근친대원쇄		불교	한영		문화예술기타	공연	공연기타
		인쇄기타			종양				공종무
		인양			수형				연속무
	관람	인양			교화			무용·극	인속극
인양도구		불고기타			무용·극기타				
인양기타		경관			놀이				
과학기술기타	관람	종교신앙	유교	식전제	문화예술기타	놀이	경연도서로		
	관람기타			향사제		놀이기타			
	전지체물			향공주제		문화예술분류기타			
과학기술분류기타	향교기타			도금					
의예생활	의예생활		인간신앙	가신신앙	공서				
					연예	왕신신앙	악곡		
					초배	무속신앙	타악기		
				생관	침복·주술	관학무기타			
				상장	만민신앙기타	총			
		제례		가족교	보				
		예서		가족교기타	문화예술기타	영화	인형		
	의예생활기타	종교신앙기타		화예무기타					
	사회생활	사회제도		문헌		문학	영화	신조지학	
						공작		문집류	주술
죽보·호적						서간록		잡주	
기념	음악			문헌기타		음악	악기	근해무기타	
			향장구	사적			장비기타		
			사회제도기타	음악기타			군복		
의전	의전	사회	공비	책식			군포		
			기념기타				회화	군화	
			의전				식별	장식	

용도기능별 기준 분류

대	중	소	대	중	소
군사	복식	복식기타	의료기기		치료용기구
		표지장			치료용진기장치
		안지표			재활용기구
	표식·복식	표식복식기타			과별특수기구
		표지표			중앙공급용기구
		표지표기타			재택의료기구
	가사	행대기			약제용(조제)기구
		가차기타			교육연구발표용
		행서			의료기기기타
	문서·서지	전·법도			약재
		교행용			약물
		전·인물			약(약재)기타
		행문서	전통의서		
		의장물	서양의학		
		중서·중앙서형	생활(민간)의서		
	군사기타	수첩	의학도서기타		
일지		환자기록			
문서·서지기타		의료인관련문서			
가사	문서·서지	문서·서지기타	의료문서	의료기관문서	
		문서·서지기타		의료장부문서	
		문서·서지기타		의료신교문서	
	자료	자료		의료문서기타	
		영양·음식		보건의료분류기타	
		도면			
보건의료	모형	자료기타	보건의료기타		
		모형			
		모형기타			
	문서·서지	문서·서지			
		문서·서지			
		문서·서지			

2.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활용 '한글' 키워드 적용 소장품 선정

1. 소장품 검색: 키워드 검색 → 키워드 옵션
→ 주요항목(명칭, 이명칭), 일반항목(용도/기능분류),
기본항목(특징) → '한글' 키워드 검색



2. '한글' 키워드 검색 결과

- 총 건수: 1,142건 / 총 수량: 1,497점

'한글' 키워드 검색에 따른 용도/기능별 분류

교통통신	68
군사	4
기타자료	4
문화예술	580
미디어	32
사회생활	169
보건의료	4
산업생업	18
식	13
의	58
전통과학	47
종교신앙	98
주	47
총 계	1,142건

2.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활용 '한글' 키워드 적용 소장품 선정

3. 시대별 구분에 따른 분류

-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속 시대 구분
→ 조선, 대한제국, 일제강점, 광복 이후, 2000년 이후
- 한글이 보편화 된 광복 이후와 2000년 이후는 제외
→ 조선, 대한제국, 일제강점 선택
- * 최초의 한글신문 '독립신문' 발간(1896.4.7.)
- 총 786건 선정

한글 키워드 소장품의 시대별 분류



시대별 구분에 따른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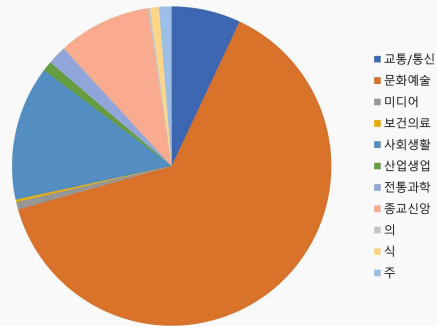
대한제국	71
일제강점	317
조선	398
총 계	786

3. '한글' 관련 유물의 용도/기능별 분류에 따른 소장품 분석

용도기능별 기준에 따른 대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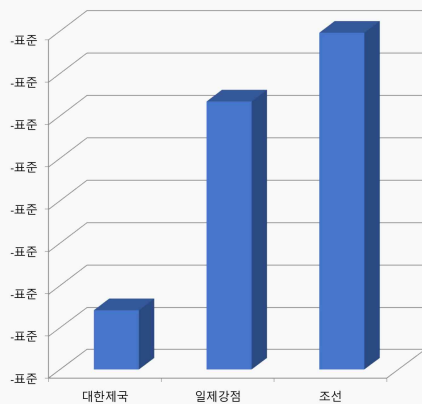
교통/통신	55
문화예술	500
미디어	6
보건의료	2
사회생활	107
산업생업	8
전통과학	15
종교신앙	74
의	2
식	7
주	10
총 계	786

용도기능별 기준에 따른 대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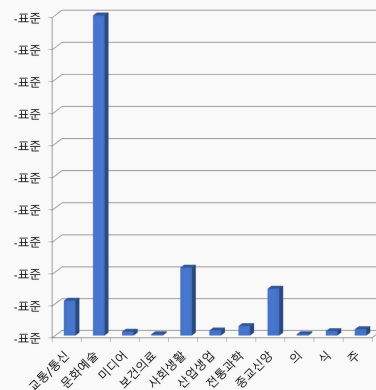


용도기능별 대분류에 따른 기준 분류

시대별 기준에 따른 분류



대분류 기준에 따른 분류



용도기능별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개수	비율
교통/통신	통신	우편	55	100%
문화예술	놀이여가	관련도서, 놀이	33	6.6%
	문헌	서간류, 시, 소설	461	92%
	서화, 음악	회화, 서적	6	1.2%
미디어	광고, 아카이브	광고전단지	6	
사회생활	교육	교과용 도서, 전통교육(소학 등)	64	60%
	사회제도	문서	26	24%
	의례생활	제례, 혼례	17	16%
종교신앙	기독교	경전	3	4%
	민간신앙	점복/주술	13	18%
	불교	교화, 수행, 의식	8	11%
	유교	경전	49	66%

용도기능별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개수	비율
보건의료	의학서	의학도서	2	
산업생업	생업	상업(상거래 문서)	8	
의	의류	옷본, 버전본	2	
식	관련 도서	조리서	5	
	음식기	항아리	1	
주	가구	가구, 문방구, 장신용구	10	
전통과학	의료	의서	7	
	인쇄	활자	1	
	지리	지도	2	
	천문	역서	2	
	판류	책판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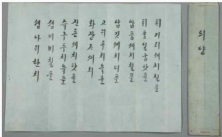
용도기능별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사진
교통/통신	통신	우편	 엽서  우표
			 금융조합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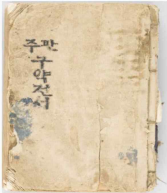
용도기능별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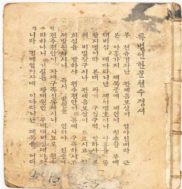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사진
문화예술	놀이여가	관련도서, 놀이 (승경도, 쌍륙판)	 
	문헌	서간류, 시, 소설 (한글편지, 시조규론, 김진옥전)	  
	서화, 음악	회화, 서적 (문자도, 가사류집)	 

용도기능별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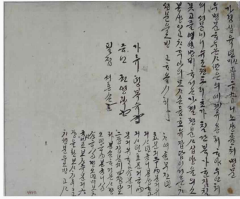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사진
사회생활	교육	교과용 도서, 전통교육 (초등공민, 소학언해)	 
	사회제도	문서	 서원목록-거창부 목록
	의례생활	제례, 혼례 (축문, 의양단자)	 

용도기능별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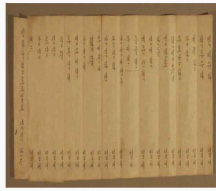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사진
종교신앙	기독교	경전 (구약전서)	
	민간신앙	점복/주술(백침통)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사진
종교신앙	불교	교화, 수행, 의식 (특별언 한문천수경서)	
	유교	경전 (중용언해)	

용도기능별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사진
보건의료	의학서	의학도서 (종행선방)	
산업생업	생업	상업 (가옥매매문서)	

용도기능별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사진
의	의류	옷본, 버선본 (저고리 옷본)	
주	가구	가구, 문방구, 장신용 구 (벼루)	
식	관련 도서	조리서 (발기)	
	음식기	항아리	

용도기능별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사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사진
전통과학	의료	의서 (두창경험방)		전통과학	지리	지도 (세계전도)	
	인쇄	활자 (활자자모집)			천문	역서 (성루합편)	
					판류	책판 (부적판)	

3. '한글' 관련 유물의 용도/기능별 분류에 따른 소장품 분석 및 특징

1. '한글' 키워드 검색 소장품의 분석 및 특징

- 조선시대로 한정: 398건
- 교통통신(8), 문화예술(239), 사회생활(64), 산업생업(5), 보건의료(2), 식생활(5), 의생활(2), 전통과학(9), 종교신앙(60), 주생활(5)
- 문화예술(239): 놀이/여가 중 놀이(8), 문헌 중 문학(229), 소설(27), 서간류(162)
놀이(승경도, 쌍륙), 문학(시, 소설), 서간류(한글편지, 간찰)
- 사회생활(64): 교육(34), 사회제도(18), 의례생활(12)
교육(소학, 천자문 등 교과용 도서), 사회제도(문서, 족보), 의례생활(제례 축문, 혼인서식)
- 종교신앙(60): 민간신앙(10), 불교(6), 유교(44)
민간신앙(점복, 주술), 불교(경전), 유교(사서오경 등 경전)
- * 문화예술, 사회생활, 종교신앙에 편중, 한글이라는 언어의 특성상 문헌 등 지류가 대부분

문화예술
문헌
놀이/여가
무용/극
음악
서화
공예
조각
사진예술
행사
영상예술
스포츠
기타

3. 한계와 시사점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검색의 한계와 시사점

1. 소장품 관리 중 특징 기재 요령

- 명칭 부여: 국어사전에 기록된 표준 한글 사용 원칙(한자 병기)
- 용도기능분류: 박물관 전산화를 위한 유물분류 표준화 방안 참조(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
- 수량 파악: 주수량/부수량, 건, 점, 쌍, 조, 괄, 연, 습, 틀, 첩, 종, 축 등 11개 단위
- 소장품 번호 부여 및 표기: 박물관에 입수되는 순으로 번호 부여,
소장품에 직접 표기 또는 재질과 보존 상태에 따른 간접 표기
- 크기 실측
- 소장품 특징 기재: 개념 정의, 특징 기술, 컨디션 체크, 보충 사항
- 사진 촬영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검색의 한계와 시사점

2. (한계)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의 검색어 지정 조건의 문제

- 한글이 있는 소장품 검색 시, 명칭, 이명칭, 색인어, 특징을 조건으로 검색 범위 지정 후 '한글' 키워드 검색
- 최대한 많은 소장품이 검색 조건에 해당될 수 있도록 특징에서 한글이라는 키워드 검색
- 특징에 한글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검색 불가
- 현재 명세서 작성 매뉴얼이 있고 명세서 작성 기준 등 정해져 있으나 명세서를 작성하는 기록자가 어떻게 기록하느냐에 따라 소장품 검색 결과가 달라짐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검색의 한계와 시사점

3. (결론 및 시사점)

- 국립민속박물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서 '한글' 키워드 조건을 검색한 결과
-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가운데 '한글' 키워드 관련 소장품 1,142건 검색
- '한글'이 보편화 된 광복 이후부터 시기를 제외하면 786건 소장품 검색
- 조선시대로 시대를 한정하면 398건 소장품 검색
- 국립민속박물관 분류 기준에 따라 분석하면 문화예술(60%), 사회생활(16%), 종교신앙(15%)
- 상대적으로 의, 식, 주, 산업생업, 전통과학 등 다른 대분류에 따른 소장품이 부족
- 문화예술, 사회생활, 종교신앙 소장품 중에도 대부분 종이류(문헌, 지류)에 한정
- 따라서 용도기능별 분류 분석 결과 다른 분류의 소장품 구입 필요

감사합니다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국어사 자료 소개

- 어류다반(語類茶飯)을 중심으로 -

박 현 옥(전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부장)

이 글에서 소개하는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국어사 자료는 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서울역사박물관 소장유물 목록>(약 10만여 점)에서 국어사(이두, 차자, 구결 등)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를 선별한 것이다. 서울역사박물관 소장자료에는 양이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언해서, 음운서, 법·제도서, 병서, 농서, 의서, 불서(佛書), 음악서, 교육서, 한글가사, 기타 등 다양한 분야의 국어사 관련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에서 국어사 연구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약 170점을 정리하여 <부록 1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국어사 자료>¹⁾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부록 1>에 수록된 자료 중 일부를 선별하여 사진과 함께 소개하고자 한다. 서울역사박물관에는 <부록 1>에 수록된 자료 외에도 여러 언해서류, 한글자료, 대한제국기에서 일제강점기에 간행된 국어사 자료들이 있으나 모두 수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밝힌다.

1. 음운서류

◎ 노걸대신석언해(老乞大新釋諺解)(시유형유산 제599호) / 서022099

- 『노걸대신석』은 1761년(영조 37년) 김창조, 변헌 등이 고본 노걸대를 수정하여 간행
- 『노걸대신석언해』는 『노걸대신석』을 한글로 번역하고 중국어 음을 단 것으로 1763년(영조 39) 교서관에서 간행.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노걸대신석언해』는 상태가 양호하며 현전하는 국내 유일본으로 알려져 있음. 서울시유형유산 제599호로 지정.



1) 이 목록 작성에는 국립한글박물관 고은숙 선생님과 서울역사박물관 송철호 선생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다.

◎ 중간노걸대언해(重刊老乞大諺解) / 서022098

- 『중간노걸대』를 한글로 번역, 1795년(정조 19) 이후 간행
- 원문 한자에 정음(正音)과 속음(俗音)을 한글로 달고 원문에 대한 한글 번역문 부기



◎ 정속언해(正俗諺解) / 서001115

- 1518년(중종 13) 김안국이 중국의 왕일암(王逸庵)이 지은 『정속편』을 풀이한 언해서.
- 원문에 차자(借字)로 구결(口訣)을 달고 번역 및 간행



◎ 역어유해보(譯語類解補) / 서014337

- 『역어유해』는 1690년(숙종 16) 사역원에서 신이행(愼以行), 김경준(金敬俊) 등이 펴낸 중국어 단어집
- 『역어유해』에 대한 보결(補闕)로 1775년(영조 51) 김홍철이 간행. 이체자, 방언, 어업 등 수록



◎ 이학지남(吏學指南) / 서022180

- 1301년(충렬왕 27) 원나라 서원서(徐元瑞)가 편찬한 관아 실무 관리들을 위한 법률 · 행정 용어 사전
- 조선에서는 1423년(세종 5)에 50부 간행.
- 『이학지남』에 수록된 다양한 법률 · 행정 용어와 이문(吏文)의 어휘가 영조 대 이의봉에 의해 『고금석림』에 '원명이학(元明吏學)'이란 편명으로 정리된 점으로 보아 어문학상으로도 중요.



◎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권3, 4(보물 제1463-2호) / 서002765

- 1447년 간행. 초간본 중 권3, 4 부분.
- 주해 속에 나오는 고유명사, 관직명의 한글 표기는 국어사 연구의 소중한 자료



◎ 월인석보(月印釋譜) / 서0027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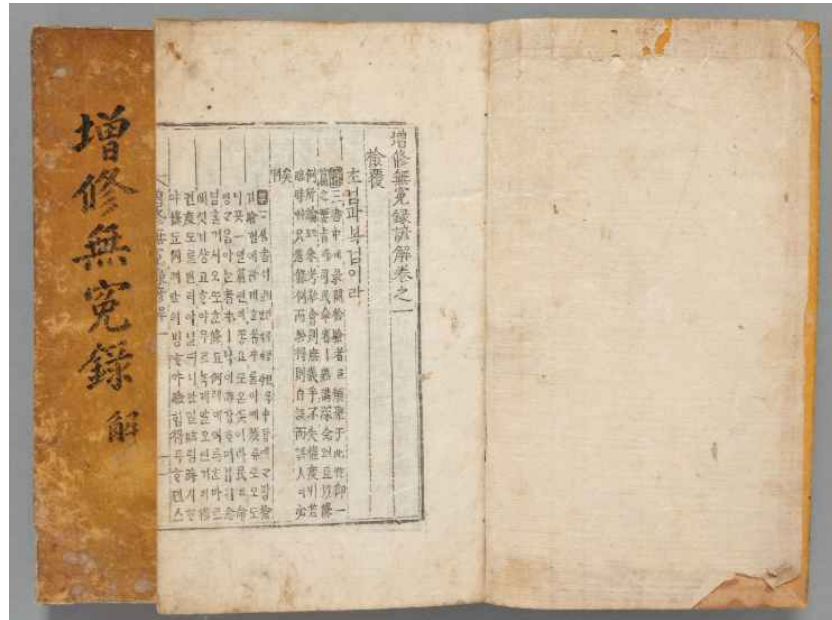
- 1459년(세조 5)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을 합하여 간행한 책. 『월인천강지곡』의 각 절은 본문이 되고 그에 해당하는 내용의 『석보상절』을 주석(註釋)하는 식으로 편찬



2. 법, 제도서류

◎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 / 서015899, 증수무원록언해(增修無冤錄諺解) / 서0020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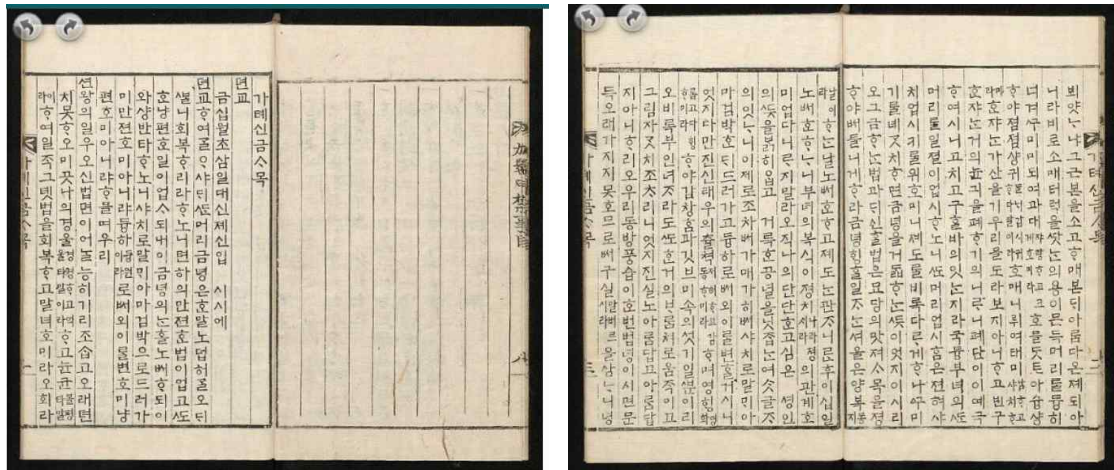
- 원나라 때 저술된 법의학서 『무원록(無冤錄)』을 증보한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
-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을 언해하여 1797년 정조 때 간행. 18세기 말 국어 연구에 중요한 자료



◎ 가계신금사목(加髡申禁事目) / 서015917

- 1788년(정조 12) 부녀자들의 가체를 금할 것을 규정한 사목.
- 전반부는 한문, 뒤에 한글 번역과 한글 전교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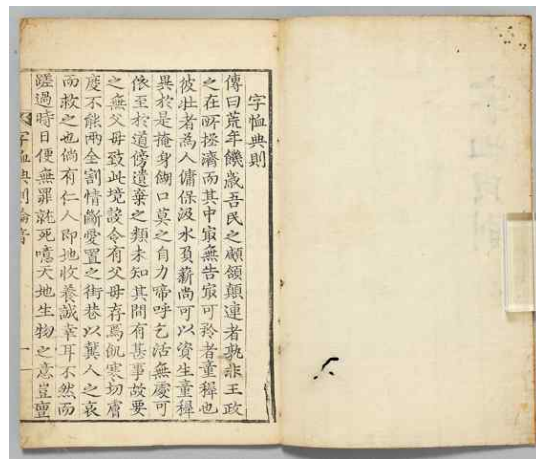




(디지털 장서각)

◎ 자휼전칙(字恤典則) / 서003443

- 1783년(정조 7) 흥년을 당하여 결식하거나 버려진 아이들의 구호방법을 규정한 법령. 윤음(綸音)과 함께 사목(事目)을 정하여 국한문으로 인쇄하여 전국에 반포



(국립중앙박물관 이미지)

◎ 동적전식례(東籍田式例) / 서002113

- 1793년 이후, 동적전(東籍田)의 관할 및 관리사항 등을 기록한 문서
- 전토, 농사와 관련된 이두 수록



◎ 성북동포백훈조계완문절목(城北洞曝白燠造契完文節目) / 서003732

- 조선 후기 도성 밖에 있던 성북동에 둔진(屯鎭)을 설치하고 그곳 주민의 생계를 위해 포역(曝役, 옷감을 찌서 햇볕에 말리는 업)과 훈업(燠業, 메주를 만들어 상납하는 업)을 시킨 사실을 적은 비변사의 문안(文案)과 훈련도감의 문적(文蹟)을 1805년(순조 5) 6월 재작성하여 발급한 완문(完文:관청이 발급한 승인문서) 및 절목(節目)



3. 병서류

◎ 신간증보삼략(新刊增補三略) / 서014187

신간증보삼략언해(新刊增補三略諺解) / 서015416

- 17-18세기, 명나라 유인(劉寅)이 지은 『삼략직해(三略直解)』를 언해한 책. 한글표기
- 상태가 좋지 않음.



(디지털 장서각 『신간증보삼략언해(新刊增補三略諺解)』 이미지)

4. 불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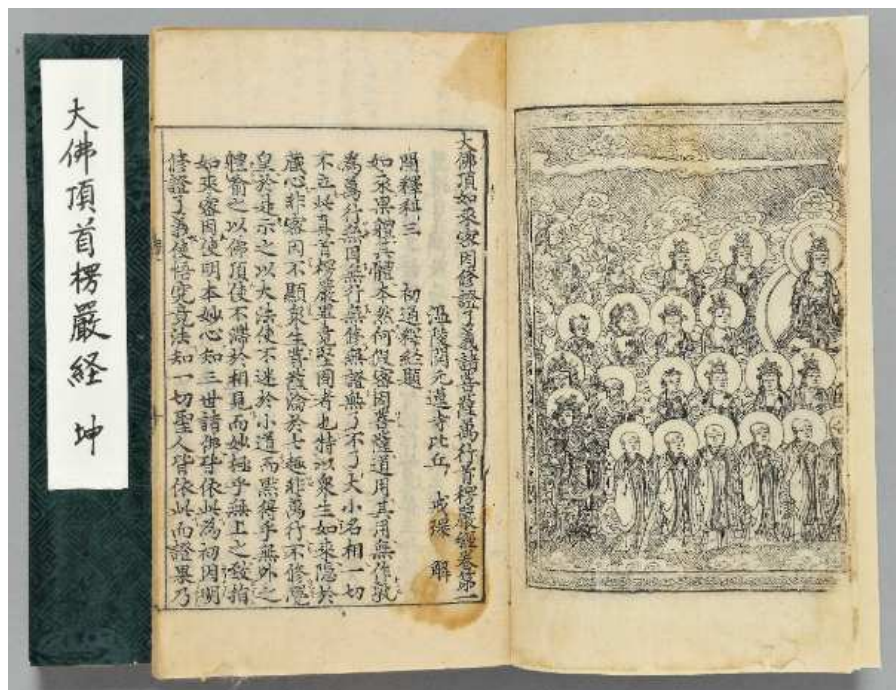
◎ 대혜보각선사서(大慧普覺禪師書) / 서028652

- 중국 남송의 고승인 보각선사 대혜종고가 설법한 내용들을 모아 발간한 불서
- 1387년(우왕 13) 처음 간행, 이를 토대로 후대에 간행한 것으로 추정, 구결 연구



◎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보물 제 1603호) / 서003386

- 15세기 전반 간행. 한문본, 석독구결 및 음독구결 기입



- ◎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언해(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諺解)
권4, 7, 8(보물 제793호) / 서007564
- 15세기 국어 연구에 귀중. 금속활자(을해자)본



- ◎ 지장보살본원경(地藏菩薩本願經) / 서003385
- 1453년. 조선 세종 때 왕실에서 주관하여 간행한 불교 경전. 이두, 구결, 차자어 수록



5. 음악서류

◎ 양금신보(梁琴新譜)(시유형문화유산 제594호0 / 서027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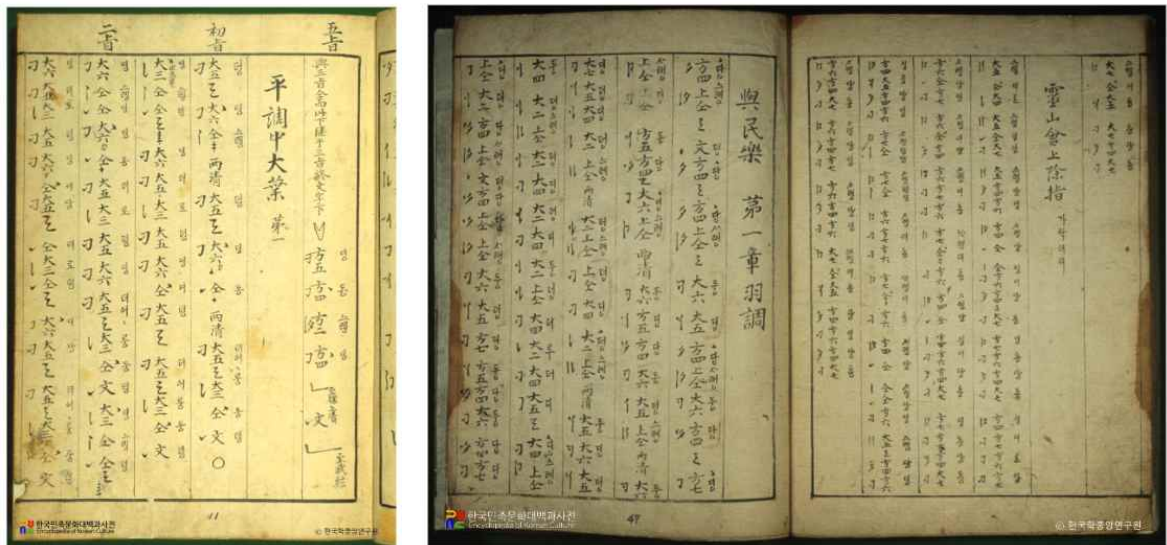
- 양덕수(梁德壽, 宣祖~光海, 음악이론가)가 당시 임실 현감으로 있었던 김두남(金斗南)의 도움으로 악보를 만들어 1610년 간행. 17세기 초에 사용된 음악 관련 한글 명칭 등 수록.



◎ 한금신보(韓琴新譜) / 서027135

- 1724년 응천 후인이 한림의 거문고 악보를 토대로 편찬한 거문고 악보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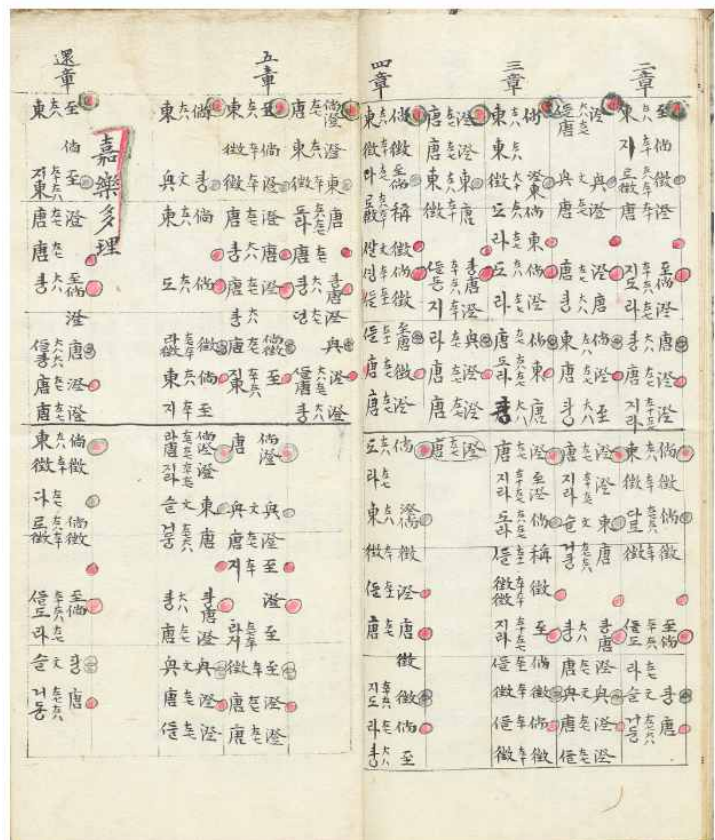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미지)

◎ 해산유음금보(海山遺音琴譜) / 서004571

- 19세기~20세기 초에 쓰여진 거문고 악보인 거문고 악보. 악보 한글 표기



※ 『양금신보(梁琴新譜)』(17세기), 『한금신보(韓琴新譜)』(18세기), 『해산유음금보(海山遺音琴譜)』(19세기) 등 3종의 악보를 비교연구한다면 악보의 한글 표기 변화 또는 음악사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6. 교육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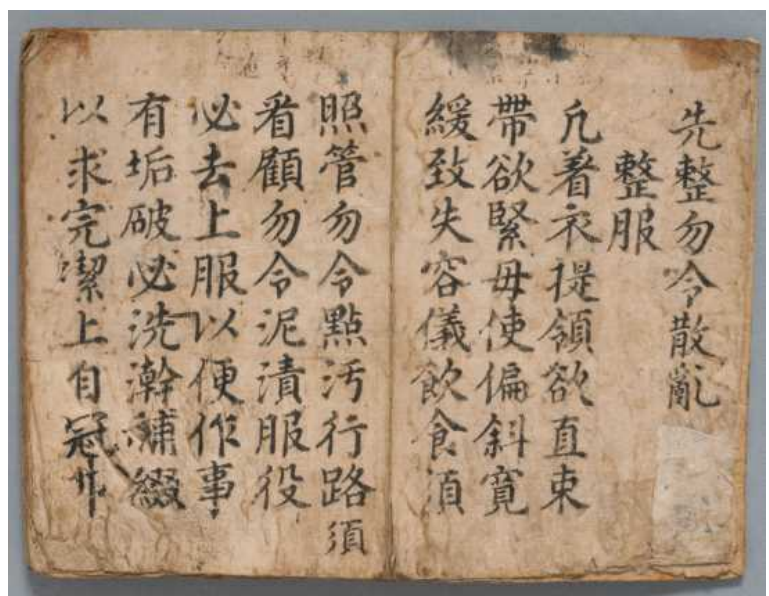
◎ 번역소학(翻譯小學) / 서028661

- 15-16세기. 조선전기 문신 김전과 최숙생이 송나라 유자징의 『소학』을 풀이한 언해서.
- 16세기 초 언어 사실을 보여주므로 당대 국어의 구체적인 현실을 볼 수 있음. ‘돈니며’와 같이 자음동화가 반영된 표기가 나타나고, ‘헛틀오-’, ‘아랫태우’, ‘헛겨집’, ‘호적’ 등과 같이 새로운 단어 많이 등장



◎ 양정편(養正篇)(서울시유형문화재 128호) / 서008355

- 1604년 정경세가 취학 전 아동의 수신 교육을 위하여 편찬한 교과서. 원문에 토를 달고, 언해된 내용이 동시에 수록. 양정편의 ‘자해(字解)’는 경상 방언 어휘를 확인하는 좋은 자료



7. 한글자료

◎ 열녀춘양수절가 / 서003742



◎ 한글치부 / 서002509

- 서생원 댁에서 받을 돈의 내역을 한글로 기록한 장부이다. 이찰방댁에 돈 25냥을 무는 일부러 기록하기 시작하여 정해년 선달에 쇠고기 값 1냥 등 받지 못한 돈의 내역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그리고 누룩 값, 한산 서방님 노잣돈, 논 구실 값 등으로 각 돈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 특징이다.



◎ 한양가 / 서0002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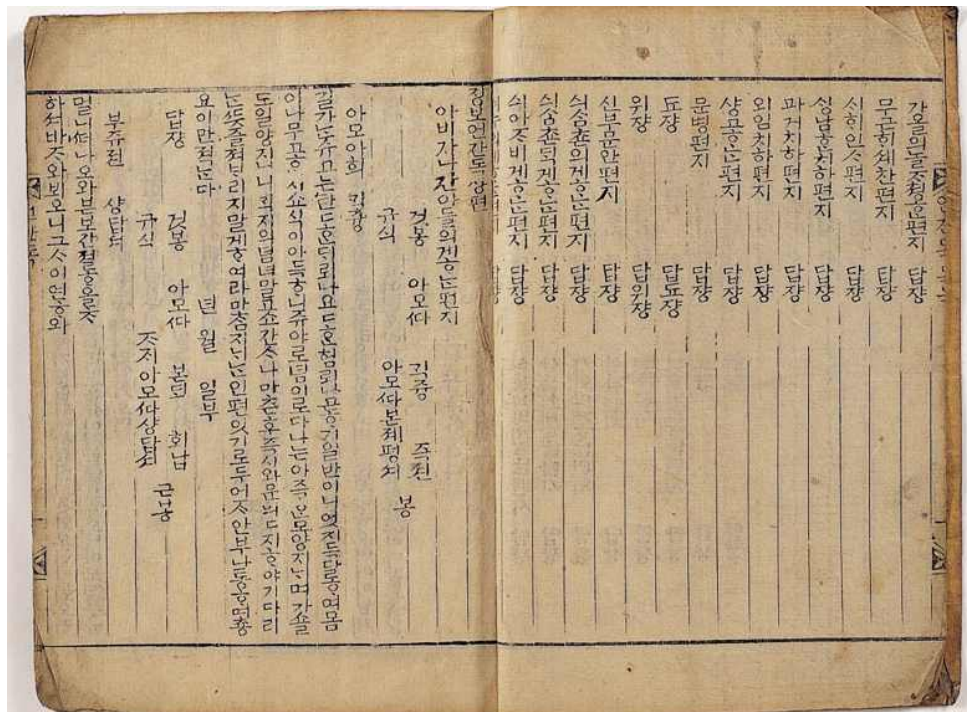
- 한글로 지은 풍물 가사.
- 조선 왕도인 한양의 연혁, 풍속, 문물, 제도 등을 노래.



※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한양가 자료 : 서000279, 서003080, 서003244, 서023604, 서023605, 서011102, 서004432

◎ 증보연간독 / 서007731

- 19~20세기 전반. 한글로 편지 쓰는 요령을 서술한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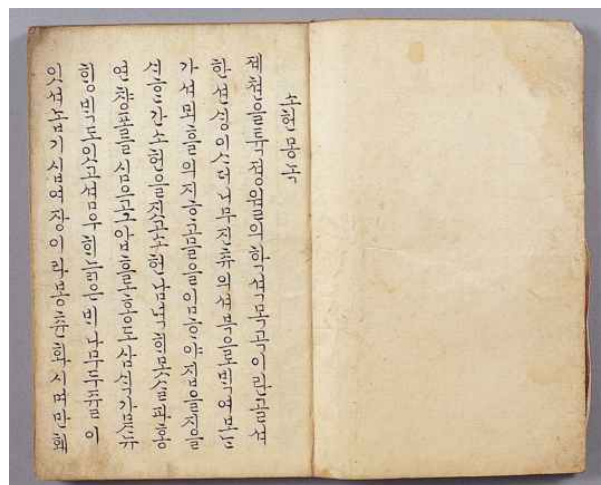
◎ 곽장양문록(郭張兩門錄) / 서028896

- 1773년 추정. 정조의 여동생 청연공주, 청선공주, 공녀 덕임(훗날 의빈 성씨) 등이 궁체로 필사.
- 작자 미상의 가문 소설. 중국의 곽씨와 장씨 두 가문이 어려움을 딛고 함께 번영을 누리는 이야기
- 각권 하단에 '의빈글씨', '궁○적', '경희' 등이 묵서된 꼬리표가 부착되었다.



◎ 소헌몽록(小軒夢錄) / 서007706

- 필사본. <소헌몽록>이라는 소설 1편, <궁녀사>, <농승가>, <답승가>, <양양가> 등 가사 4편 <취옹정가>, <적벽부>, <후적벽부> 등 한문 3편, 마지막으로 <소학> 중의 일부 수록. 궁중에서 비빈들이 읽기 위해 필사한 것으로 보임



8. 기타

◎ 최유련개국원종공신녹권(崔有漣開國原從功臣錄券) / 무기 -2013-1-001-0001

- 1395년. 보물 제1282호, 세로 31cm×가로 635cm, 208행, 이두 표기



◎ 주방문조과법(酒方文造果法) / 서015989

- 술 빚는 법과 과자 만드는 법
- 국립중앙도서관에 “주방문 造果法”한 것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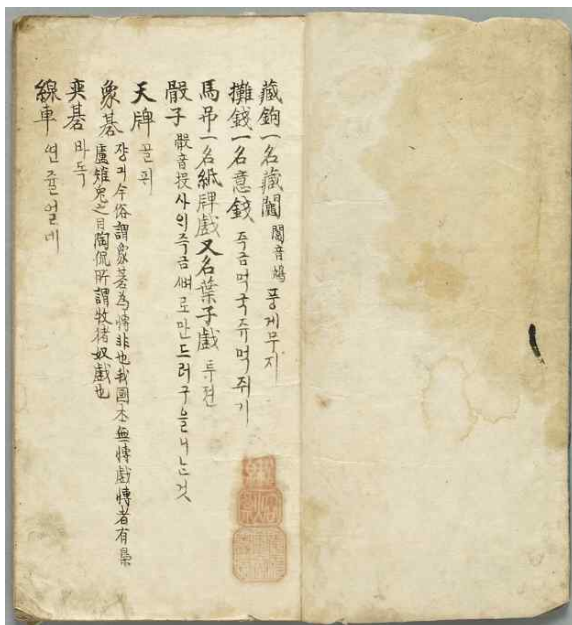
(국립중앙도서관 이미지)

9. 어류다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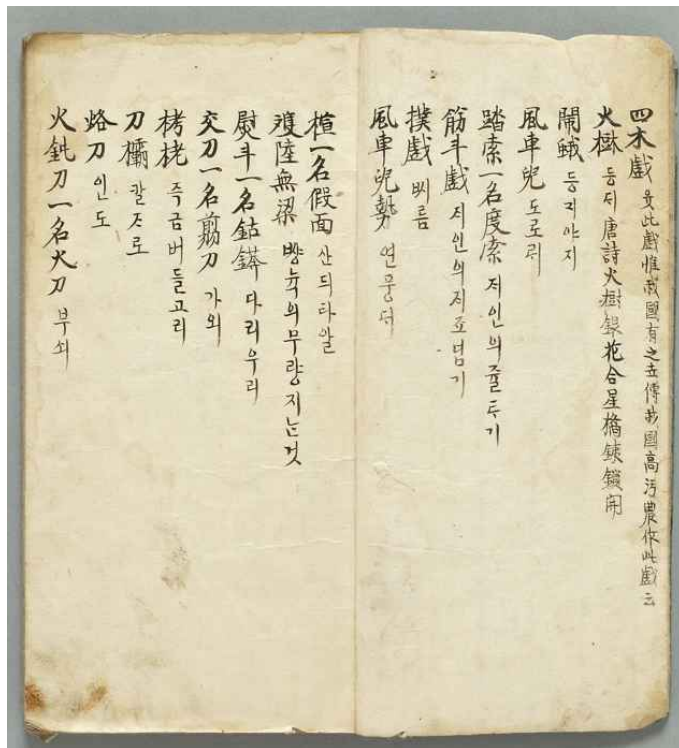
◎ 어류다반 초요(語類茶飯抄要) / 서042325



- 조선 말기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어휘집
- 약 500개의 어휘 수록
- 풍습, 놀이, 공구, 악기, 마구(馬具), 회화 용어, 질병, 음식, 채소, 과일, 화초, 동물, 곤충, 천문(별자리) 등 여러 분야 용어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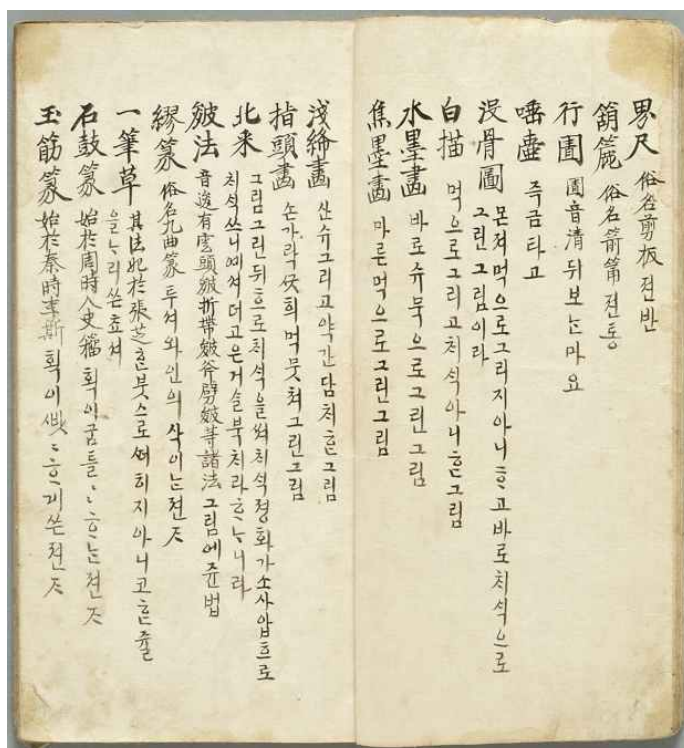
- 중국 한자 표제어 및 우리식 한자 표기 또는 한글 풀이
- 물명에 대하여 한문 또는 한글로 풀이
 - 장구(藏鉤)는 일명 장구(藏鬪)이다.
 - ※ 어떤 물건을 감추고 서로 찾아내는 아이들의 놀이.
 - 象碁 장기 今所謂象碁爲博非也. 我國本無博戲. 博者梟盧雉兔之目. 陶侃所謂牧猪奴戲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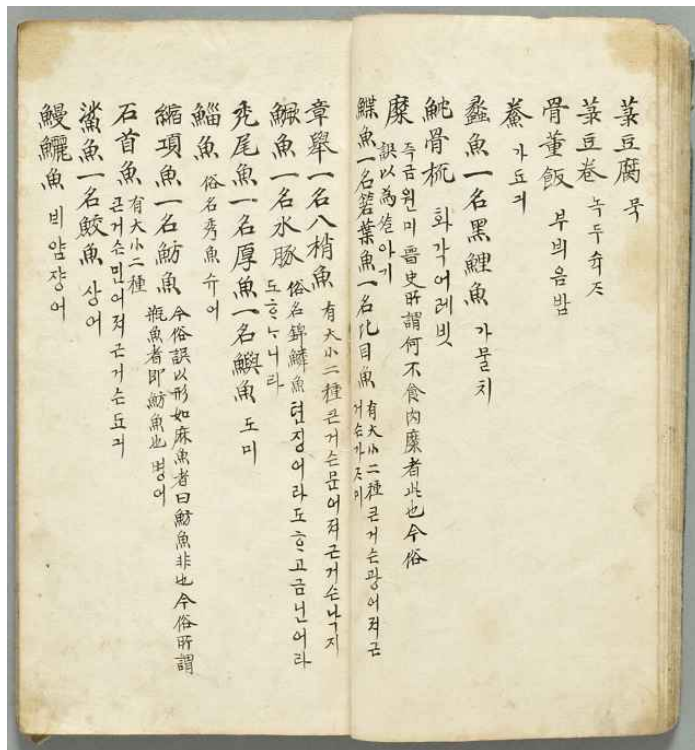
○ 四木戲 웃 此戲惟我國有之. 世傳我國高汚農作此戲云

※ 이학규(李學逵, 1770-1835)의 『낙하생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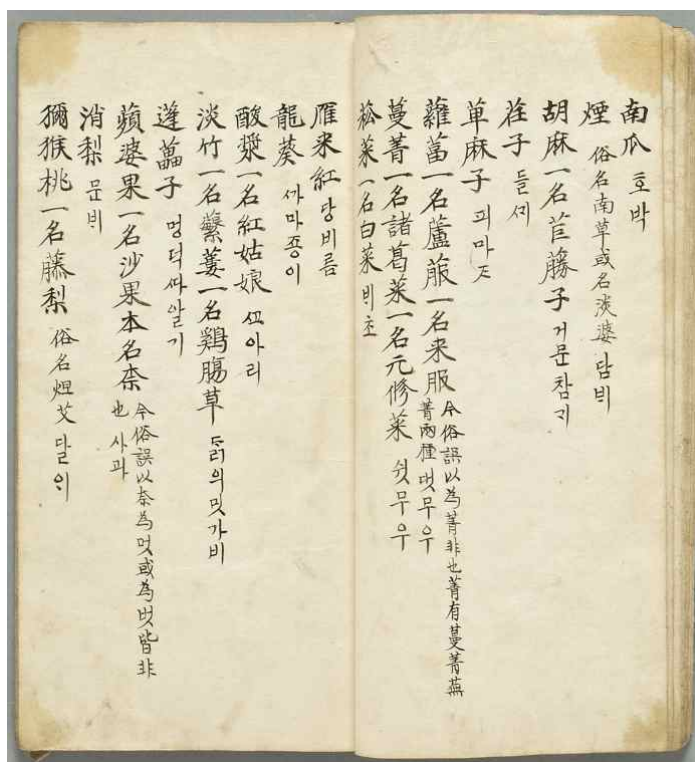
“사목희(四木戲). ‘세상에 전하기를 고농(高農)과 오농(汚農)이 나와서 새해에 승부를 겨루어 풍흉을 점쳤다. 지금 향읍에서 젊은이들이 해마다 설에 많이들 이 놀이를 한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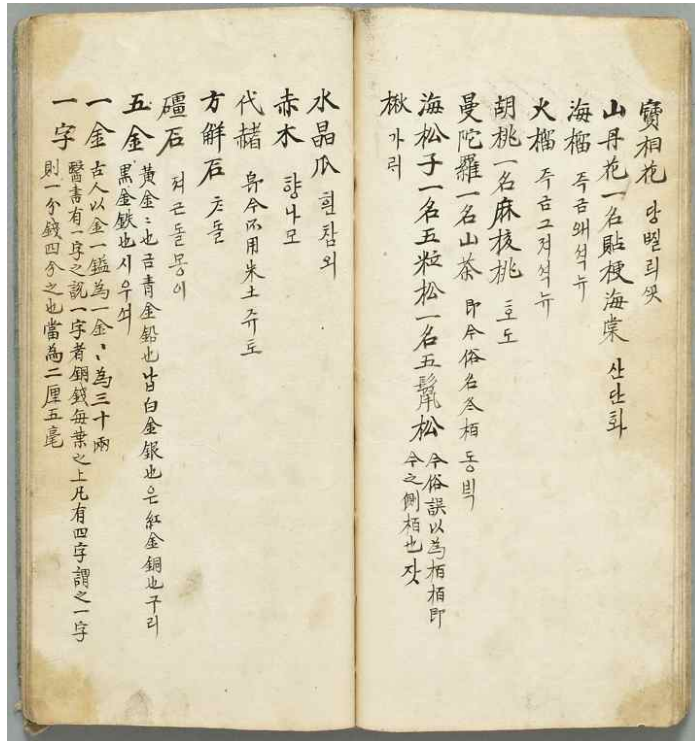
- 물골도(沒骨圖), 백묘(白描), 수묵화(水墨畵), 초묵화(焦墨畵), 지두화(指頭畵), 배채(北采), 준법(峻法) 등 회화 기법 관련 용어
- ‘배채(北采)’에 대한 설명. ‘북채’라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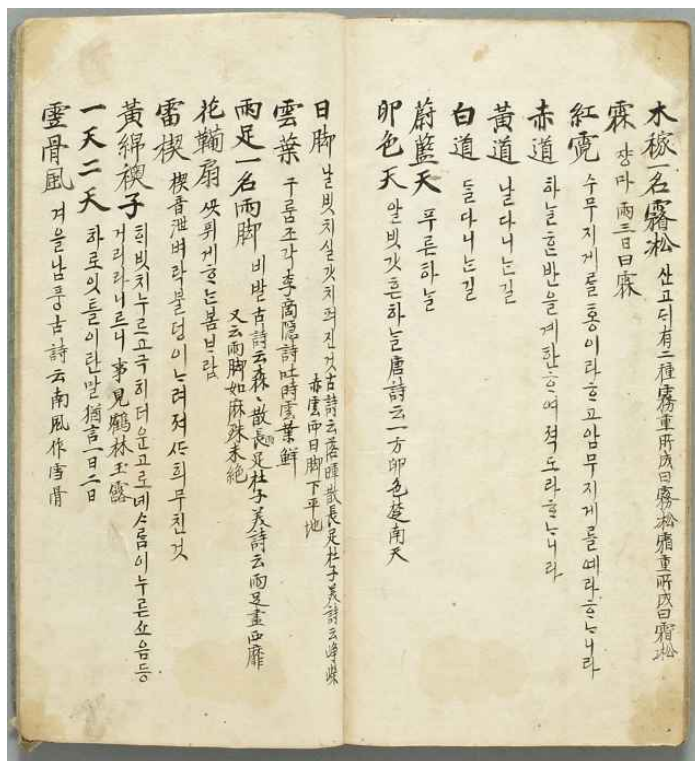
- 골동반(骨董飯) : 부비음밥
- 鰈魚一名箬葉魚一名比目魚
有大小種크거슨광어적근거슨가조미



- 호박, 담배(淡婆), 검은 참깨, 들깨, 파자마, 벗무우, 싯무우, 백채(白菜), 딸기, 사과 등



- 寶相花 당짚레꽃
- 曼陀羅 一名 山茶 卽今俗名冬栢
- 水晶瓜 흰참외
- 五金 ; 黃金(금), 靑金(鉛, 납) 白金(銀, 은), 紅金(銅, 구리), 黑金(鐵, 시우쇠)



- 赤道, 黃道, 白道
- 蔚藍天, 卯色天, 雲葉, 雷泄, 雲骨風(겨울 남풍) 등

부록 1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국어사자료 목록

No	유물명	유물번호	비고	비고
001	대학언해(大學諺解)	서000131	1810년	경서
002	대학언해(大學諺解)	서028822	18세기, 네 번째로 주조한 갑인자본인 무신자본, 내사기 '사헌부장령 권상하 대학일건 을해삼월십칠일 내사(司憲府 掌令 權尙夏 大學一件 乙亥三月十七日 內賜)'라는 기록을 통해 숙종이 사헌부장령으로 있던 권상하(1641-1721)에게 1695년에 준 책	경서
003	대학언해(大學諺解)	서28697	1820년. 정유자 번각본. 정유자 인쇄본으로 목판을 만들어 찍은 책	경서
004	맹자언해(孟子諺解)	서011042	1587년	경서
005	예기대문언독 (禮記大文諺讀)	서011013	숙종? 조선 세종이 성삼문, 신숙주 등에게 명하여 만든. 《예기》 본문에 한글로 토를 단 책.	경서
006	예기대문언독(禮記大文諺讀)	서28774	18세기, 무신자본	경서
007	가례언해(家禮諺解)	서014184	1632년. 조선시대에, 신식(申湜)이 《주자가례》를 한글로 풀이한 책. 17세기 국어 연구	예서
008	사례훈몽(四禮訓蒙)	서003982		예서
009	가례증해(家禮增解)	서006832	1824년. 조선 시대에, 이의조(李宜朝)가 《주자가례》를 증수(增修)·해설한 책	예서
010	예기대문언독(禮記大文諺讀)	서028774	18세기, 무신자본. 조선 세종이 성삼문, 신숙주 등에게 명하여 만든. 《예기》 본문에 한글로 토를 단 책.	예서
011	십구사략언해(十九史略諺解)	서014188	명(明)나라의 여진(余進)이 편찬한 『십구사략통고(十九史略通攷)』의 제1권을 조선조 때 원문에 한글로 독음을 달고 토를 붙인 뒤 매장마다 언해한 역문(譯文)을 붙인 책. 국어사 연구에 중요	사서
012	경국대전(經國大典)	서000689	이두 표기	법전
013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서008207	1475년. 이두 표기	법전
014	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	서008012	『대명률』의 주석서, 조선의 『대명률』해석 연구에 중요한 자료. 이두 연구	법전
015	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	서027224		법전
016	대전통편(大典通編)	서000690		법전
017	대전통편(大典通編)	서008112		법전
018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서001336	1908년. 제도 문물에 관한 유서(類書). 이두, 구결, 차자	법전
019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	서015899	1796년. 법의학서. 차자, 구결	법전
020	증수무원록언해(增修無冤錄諺解)	서002070	1797년.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을 언해하여 1792년에 간행된 법의학서. 18세기 말의 국어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	법전
021	가체신금사목(加髡申禁事目)	서015917	1788년. 전반부는 한문, 뒤에 한글 번역과 별도의 한글 전교 실음.	사목
022	자훈전칙(字恤典則)	서003443	1783년 / 한국 번역본 수록	제도
023	균역청사목(均役廳事目)	서019727	1752년. 균역청 업무지침이두 표기	사목
024	동적전식례(東籍田式例)	서002113	동적전(東籍田)의 관할 및 관리사항 등을 기록한 문서	사목
025	성북동포백훈조계안문절목 (城北洞曝白燬造契完文節目)	서003732	조선 후기 도성 밖에 있던 성북동에 둔진(屯鎭)을 설치하고 그곳 주민의 생계를 위해 포역(曝役·웃감을 써서 햇볕에 말리는 업)과 훈업(燠業·메주를 만들어 상납하는 업)을 시킨 사실을 적은 비변사의 문안(文案)과 훈련도감의 문적(文蹟)을 1805년(순조 5) 6월 재작성하여 발급한 완문(完文: 관청이 발급한 승인문서) 및 절목(節目)	사목
026	노걸대(老乞大)	서013243	15세기?	음운
027	노걸대(老乞大)	서028907	19세기 중국어 구어	음운
028	중간노걸대언해(重刊老乞大諺解)	서022098	18세기, 역관들의 외국어 학습 및 역과시험용으로 사역원에서 간행한 중국어 교습책	음운

029	노걸대신석언해	서22099	1763년 교서관 간행. 한글로번역, 중국어음. 시유형유산 한어(漢語)본 중국어 학습 교재인 「신석노걸대(新釋老乞大)」를 한글로 번역하고 중국어 음을 단 것으로 1763년(영조 39)에 교서관(校書館)에서 간행한 것이다. 언해본은 현재 남아 있는 자료가 희귀한데 「노걸대신석언해」는 현전하는 국내외 유일본으로 그 가치가 높다.	음운
030	몽학독본(蒙學讀本)	서005926		음운
031	화음계몽(華音啓蒙)	서011674	1883년 역관 역관 이응헌(李應憲)이 지은 중국어 회화서	음운
032	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	서007332	16세기 한글, 국어사 연구	음운
033	신증설문운부군옥 (新增說文韻府群玉)	서028687	15세기 / 元代의 학자 陰幼遇·陰幼達 등이 편찬하고 明代에 증수한 《韻府群玉》에 글자에 대한 해설인 <說文>을 추가하여 간행한	음운
034	삼운통고(三韻通考)	서007357	중국의 106운계 《예부운락》을 우리나라 사람이 쓰기 쉽도록 같은 운을 가진 평성·상성·거성의 한자를 모아 3계단으로 표시하고, 입성자만 따로 모아 해설	음운
035	삼운성휘(三韻聲彙)	서014248	1751. 홍계희가 지은 운서. 《삼운통고》를 참고하여 한자를 운(韻)에 따라 평(平)·상(上)·거(去)·입(入)의 사성(四聲)으로 나누었으며, 글자 아래에 중국식 표음과 우리나라식 표음을 달았다. 범례(凡例)에는 한글 자모(字母)의 초·중·종성을 그림으로 설명한 것이 있다	음운
036	고금운회거요 (古今韻會舉要)	서031805	1646년. 1297년 웅충(熊忠)이 원초(元初)의 황공소(黃公紹)가 지은 <고금운회(古今韻會)>를 간략화한 책. 송(宋) 이후 중국음운(中國音韻) 변화 반영	음운
037	고금운회거요(권6-8) (古今韻會舉要)	서003463		음운
038	국한문신옥편 (國漢文新玉篇)	서041944	1908년 「자전 석요」보다 9개월 정도 이전에 간행. 한글로 표기한 최초의 한국 자전	음운
039	문자류집(文字類輯)	서018702	17-18세기. 총 460여 항목에 일만여 개의 시어를 수록하	음운
040	문자유취(文字類聚)	서000147		음운
041	정속언해(正俗諺解)	서001115	김안국이 중국의 『정속편』을 풀이하여 1518년에 간행한 언해서. 원문에 차자(借字)로 구결(口訣)을 달고 번역 및 간행	음운
042	신편고금사문유취 (新編古今事文類聚)	서028854	16세기. 일부 훼손되어 결락되었지만, 성암고서박물관에 소장된 동일한 갑진자본과 비교해 보았을 때 후집의 권27-29	음운
043	신편고금사문유취 (新編古今事文類聚)	서008473	16세기.	음운
044	역어유해보(譯語類解補)	서014337	18-19세기. 이체자, 어휘(어업관련)	음운
045	패문운부(珮文韻府)	서031834	1711년 청나라 장옥서(張玉書) 등이 황제의 명에 따라 펴낸 어휘집	음운
046	아언각비(雅言覺非)	서008203	정약용이 1819년(순조 19년)에 지은 어원 연구서 방대한 양의 어휘에 대하여 각각 풀이를 달고 올바른 용법을 제시하고 있어 당대 국어 어휘 연구에 매우 중대한 자료이다. 또한 단어의 어원과 용법을 밝히면서 그와 관련된 풍습, 예법, 제도에 대해서도 해박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어, 비단 국어학뿐만이 아니라, 한문학·사학·민속학·국문학 등 여러 방면에 걸친 귀중한 자료이다.	음운
047	어류다반(語類茶飯)	서042325		음운
048	이담속찬(耳談續纂)	서042010	1908, 1820년(순조 20)에 정약용(丁若鏞)이 편찬한 속담집.	음운
049	증정이문집람(增訂吏文輯覽)	서014303	16세기. 최세진이 지은 중국어인 한이문 교재인 이문집람 증정	음운
050	이학지남(吏學指南)	서022180	1458년 승문원에서 정한 이문(吏文) 학습서. 행정, 법률 용어	음운
051	자전석요(字典釋要)	서004241	1906년 지석영(池錫永)이 찬정한 한자자전	음운
052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권3,4	서002765	보물, 1447년 초간본. (권 1, 2는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권 8, 9, 10은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권 1~2, 권 7~8은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 이상 모두 보물 지정)	음운
053	월인석보(月印釋譜)	서002765	조선 세조 5년(1459)에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을 합하여 간행한 책. 『월인천강지곡』의 각 절은 본문이 되고 그에 해당하는 내용의 『석보상	음운

			절』을 주석(註釋)하는 식으로 편찬	
054	자휘(字彙)	서013283	1615년 명나라 매응조가 편찬한 사전	운서
055	신간증보삼략(新刊增補三略)	서014187		병서
056	신간증보삼략언해 (新刊增補三略諺解)	서015416	17-18세기, 명나라 유인(劉寅)이 지은 『삼략직해(三略直解)』를 언해한 책. 한글표기	병서
057	병학통(兵學通)	서004424	1785. 조선 후기 군사 훈련서	병서
058	병학지남(兵學指南)	서001338	1787년. 정조의 명으로 장용영에서 간행했으며, 17세기 이후 군사훈련의 기본 지침서로 활용	병서
059	금양잡록(衿陽雜錄)	서042254	17세기. 어원, 차자표기	농서
060	금양잡록(衿陽雜錄)	서002665	부, 농사직설, 어원, 차자표기	농서
061	농가집성(農家集成)	서013295	17세기. 물명 한글표기	농서
062	산림경제(山林經濟)	서004062		농서
063	산림경제(山林經濟)	서002766	홍만선(洪萬選)이 지은 농서, 가정생활서	농서
064	산림경제전부절요	서007401		농서
065	산림요람(山林要覽)	서019788	조선후기	농서
066	구급신방언해	서017253	‘구급방언해’와 유사한 것으로 보임	의서
067	구황촬요(救荒撮要)	서003988	1686년, 차자어 다수 수록. 국문여휘 변모 추적, 국어 변천과정	의서
068	명의경험방(名醫經驗方)	서007732		의서
069	신편집성마의방 (新編集成馬醫方)	서007925	鄉名 表記	의서
070	촌가구급방(村家救急方)	서015147	조선말기. 1538년(중종 33) 김정국이 편찬한 의서. 이두, 구결 등 국어 연구 자료	의서
071	향약집성방(鄉藥集成方)	서017256	의서. 이두, 구결, 차자어 수록	의서
072	대혜보각선사서 (大慧普覺禪師書)	서028652	자토구결 기입, 조선, 이색의 발문이 있는 1387년의 판본을 토대로 후대에 간행한 것으로 추정. 권두에 용연(龍淵)의 서와 권말에 문창(文昌)의 발, 여말의 학자인 이색의 발문이 수록. 맨 끝에 ‘주상전하수만세시주 질(主上殿下壽萬歲施主秩’이 필사되어 있는데, 황순이(黃順伊) 양주(兩主)를 비롯한 여러 쌍의 부부 명단과 비구 등의 명단. ‘가정사십사년을축 유월일개천길상산은선암지(嘉靖四十四年乙丑六月日价川吉祥寺隱仙菴誌’의 기록을 통해 1565년에 개천 길상산 은선암에서 황순이 부부 등을 비롯한 여러 명이 왕실의 안녕을 위해 시주	불서
073	대방광불화엄경	서008096	10-11세기	불서
074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 행수능엄경(언해) 권4, 7, 8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 萬行首楞嚴經諺解)	서007564	보물 제793호. 15세기 국어 연구에 귀중	불서
075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 행수능엄경(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 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서003386	보물(제1603호), 한문본, 석독구결 및 음독구결 기입됨 / 하정수(2019),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보물 제1603호 “능엄경” 구결 연구』, 『우리말연구』, 우리말학회.	불서
076	불설아미타경언해 (佛說阿彌陀經언해)	서014271	영조년간(1725~1775년)	불서
077	지장보살본원경 (地藏菩薩本願經)	서003385	1453년. 조선 세종 때 왕실에서 주관하여 간행한 불교 경전. 이두, 구결, 차자어 수록	불서
078	진실주집(眞實珠集)	서028654	1472년 중국 송나라 예묘행(倪妙行)이 저술한 불서	불서
079	양금신보(梁琴新譜)	서027136	시유형문화유산. 양덕수(梁德壽, 宣祖~光海, 음악이론가)가 당시 임실 현 감으로 있었던 김두남(金斗南, 宣祖~光海)의 도움으로 악보를 만들어 1610년 처음 간행. 17세기 초에 사용된 음악 관련 한글 명칭 등 수록. 『금합자보(琴合字譜)』(간송미술관 소장)에 없는 <만대엽>과 <중대엽>의 악곡을 골고루 갖추어 17세기 전후의 가곡사 연구에 매우 중요	음악
080	한금신보(韓琴新譜)	서027135	1724년 응천 후인이 한림의 거문고 악보를 토대로 편찬한 거문고 악보	음악

			집	
081	해산유음금보(海山遺音琴譜)	서004571	악보 한글표기. 19세기~20세기초에 쓰여진 거문고 악보인 琴譜	음악
082	유서필지(儒胥必知)	서014025	조선말기. 이두, 구결, 차자어 다수 수록	학습
083	유년필독석의(幼年必讀釋義)	서041939	1907년 현재(玄采)가 『유년필독(幼年必讀)』을 풀이하여 간행한 교사용 교과서	학습
084	소학언해(小學諺解)	서000020	18~19세기. 자토구결 기입. '춘궁(春宮)' 인장이 찍임	학습
085	소학언해	서028618	17세기. 무신자 번각본	학습
086	유서필지(儒胥必知)	서016113	조선말기	학습
087	동몽선습(童蒙先習)	서000021	19세기	학습
088	동몽선습(童蒙先習)	서000022	19세기	학습
089	동몽선습언해(童蒙先習諺解)	서007908	조선 숙종 때 간행. 《동몽선습》을 배우기 쉽도록 한글로 풀이하여 간행한 책	학습
090	어제동몽선습(御製童蒙先習)	서014286	1818년. 본문에 소자로 조사, 어미 등의 구결 기입.	학습
091	번역소학(翻譯小學)	서028661	15~16세기. 조선전기 문신 김전과 최숙생이 송나라 유자징의 『소학』을 풀이한 언해서. 16세기 초의 언어 사실을 보여주므로 당대 국어의 구체적인 현실을 볼 수 있다. 즉, '돈니며'와 같이 자음동화가 반영된 표기가 나타나고, '현틀오-', '아랫태우', '훗겨집', '호적' 등과 같이 새로운 단어들이 많이 등장	학습
092	소학언해	서003358	현종-영조	학습
093	양정편(養正篇)	서008355	1604년 정경세가 취학 전 아동의 수신 교육을 위하여 편찬한 교과서. 원문에 토를 달고, 언해된 내용이 동시에 수록. 양정편의 '자해(字解)'는 경상 방언여휘를 확인하는 좋은 자료	학습
094	동몽수지(童蒙須知)	서003981		학습
095	천자문(千字文)	서008199	17세기. 석봉 한호의 글씨로 제작된 석봉천자문.	학습
096	천자문(千字文)	서007407	19세기. 해서 천자문에 각 글자의 뜻풀이를 자세하게 소개한 천자문	학습
097	천자문(千字文)	서018692	1929년. 해서 천자문에 다양한 서체를 함께 소개한 천자문	학습
098	오륜행실도(五倫行實圖)	서028643	19세기. 부자(父子), 군신(君臣), 부부(夫婦), 장유(長幼), 붕우(朋友) 등 오륜을 잘 이행한 사람들을 그림과 내용으로 설명한 책	학습
099	상설고문진보대전(詳說古文眞寶大全)	서028628	16세기. 한문본. 자토구결 기입. 중국 역대 시문선집. 갑인자 인쇄본으로 목판을 만들어 찍은 책	학습
100	분류두공부시언해(分類杜工部詩諺解)	서028694	17세기-18세기	학습
101	근사록(近思錄)	서028691	17세기. 한문본. 자토구결 기입. 갑인자 번각본. 송나라 유학자들의 저술. 갑인자 인쇄본으로 목판을 만들어 찍은 책	학습
102	성경직해	서001434		서학
103	성경직해 권1·2·3·5·6·7	서045354	1892~1897	서학
104	턴주성교공과 데1권, 데4권	서046925	1887년	서학
105	전등신화구해(剪燈新話句解)	서020698	전등신화. <전등신화(剪燈新話)>의 문장 중에서 인명(人名)·지명(地名)·연호(年號)·난자(難字) 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	기타
106	주방문조과법(酒方文造果法)	서015989	조선후기. 술 빚는 법과 과자 만드는 법	
107	조선요리제법	서기9390	1) 1937년, 방신영(方信榮), 『주부(主婦)의 동무 조선요리제법(朝鮮料理製法)』, 한성도서주식회사	
108	1945년, 해리엇 모리스(Harriett Morris), KOREAN RECIPES(조선요리법).	서기 8860	2)앨버트 W. 테일러의 후손 기증품	
109	최유륜개국원종공신녹권(崔有漣開國原從功臣錄券)	무기-2013-1-001-00	1395년. 보물 제1282호, 세로 31cm×가로 635cm, 208항 이두표기	

		01		
110	도량형고(度量衡考) 상 하	서036239	1733년?, ??	
111	1849년 한글 토지매매문기	서019367	1849년에 이명일(李明一)이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발급한 한글 명문. 마유도리에 있는 공(拱) 자 36번 논 3두락지와 그 위쪽의 밭 5두락지의 합계 8두락지 토지를 매도. 매매가격은 전문 5냥이며, 본문기 1장을 함께 양도. 증인 한만재[한만지]와 필집 이 모(某)가 참여하여 착명함	
112	주자증손여씨향약 (朱子增孫呂氏鄉約)	서013287	조선후기. 1518년(중종 13)에 김안국(金安國)이 중국 북송(北宋) 말의 남전여씨(藍田呂氏)의 향약을 주자가 증보·가감하여 만든 것을 번역한 책. 특히 원문에 한자로써 구결을 단 것이 다른 언해서와 다르다. 중세어 연구에 귀중한 자료	
113	주자증손여씨향약 (朱子增孫呂氏鄉約)	서028839	16세기. 기증본은 을해자로 간행. 권두에 내사인[宣賜之記]이 날인	
114	진연의궤(進宴儀軌)	서008005		
115	선보집략언해(璿譜輯略諺解)	서007915	한문으로 된 『璿譜輯略』의 언해본	
116	오대주각국전도	서008237	19세기 말, 대한제국 학부 편집국, 학교 교육용 세계지도. 1892년 영국인이 중국에서 만든 세계지도를 대한제국 학부에서 그대로 동판으로 만들어 인쇄한 것으로 19세기 말 세계식민지도의 성격. 최초의 한글 세계지도	지도
117	내훈(內訓)	서028682	17세기/한글로 된 최초의 여성 교육서로 원문인 한문에는 한글로 구결을 달고, 그것을 다시 한글로 번역	여성
118	규곤의측 / 여자필감	서000514	여훈서. 19세기 국어사	여성
119	규중슈의	서013440	한글가사	여성
120	곽장양문록(郭張兩門錄)	서028896	조선 후기 장편 가문소설, 작자 미상. 1773년 추정. 정조의 여동생 청연공주, 청선공주, 궁녀 덕임(훗날 의빈 성씨) 등이 궁체로 필사.	한글
121	소헌몽록(小軒夢錄)	서007706	필사본. <소헌몽록>이라는 소설 1편, <궁녀사>, <농승가>, <답승가>, <양양가> 등 가사 4편 <취옹정가>, <적벽부>, <후적벽부> 등 한문 3편, 마지막으로 <소학> 중의 일부 수록. 궁중에서 비빈들이 읽기 위해 필사한 것으로 보임	한글
122	언문물록	서018056	19-20세기	한글
123	유한당사씨언행록	서008244	규훈소설	한글
124	열녀춘양수절가	서003742	19세기, 한글가사	한글
125	여자자탄가	서011369	한글가사	한글
126	봉우소회가	서023192	한글가사	한글
127	복선화음록	서014046	조선후기 한글 장편가사	한글
128	동학가사	서027226		한글
129	한글가사-사시풍경기라	서018577		한글
130	남훈태평가	서036247	한글가사	한글
131	궁을가	서011103	동학관련 자료. 한문, 한글 혼용	한글
132	경복궁별곡.김씨행실록	서014372	1865년, 한글가사	한글
133	유한당사씨언행록	서013303		한글
134	한글본 임진록	서052766	고전소설, 방각본	한글
135	소대성전(蘇大成傳)	서28728	19세기경. 중국 명나라를 배경으로 소대성이란 인물의 활약상을 전개한 영웅소설	한글
136	서상기(西廂記)	서28911	19세기. 한문 필사본. 자토구결 기입. 당나라를 배경으로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전기(傳奇) 소설	한글
137	한글제문	서008881		한글
138	한글제문	서008882		한글
139	금릉위 박영효의 편지	공 개 구 입 2022-1-89-7	1895년 5월 20일. 5일 뒤 저녁 7시 반에 미국공사관에 방문하겠다고 알리는 박영효의 한글 편지	한글

140	1918년 영신사 한글 제문 (태조, 태종)	서056425	장충동 관성묘(關聖廟)에서 1918년 10월 20일 영신사(永信社)가 무고(武庫) 태조(太祖)와 태종(太宗)에게 치제할 때 작성한 축문. 주칠문서함(서 56420)에 보관된 채 수집	한글
141	다례단자	(생활사박물관 상설도록 수록)	1891년 추정. 이원임 기증. 다례(茶禮)는 조선 왕실에서 국왕의 상례 기간 중 조석(朝夕) 상식과 아울러 매일 오시(午時)에 점심을 대신해 다과와 간단한 제찬(祭饌)을 올리던 것. 이 단자는 신묘년 음력 12월 17일의 것으로, 고종이 신정왕후(익종비)의 혼전이었던 효모전(경복궁 문경전)에 올린 다례의 단자로 추정	한글
142	한글치부	서002509	서생원 댁에서 받을 돈의 내역을 한글로 기록한 장부. 이찰방댁에 돈 25냥을 무는 일부터 기록하기 시작하여 정해년 설달에 쇠고기 값 1냥 등 받지 못한 돈의 내역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기록	한글
143	한양가	서000279		한글
144	한양가	서003080		한글
145	한양가	서003244		한글
146	한양가	서023604		한글
147	한양가	서023605		한글
148	아동실가-한양가	서011102	한글가사	한글
149	한양오백년가	서004432		한글
150	정보안간독	서07731	19~20세기 전반. 한글로 편지 쓰는 요령을 서술한 책	
151	모친 한글 간찰(오정근)	서021455	모친이 대교(待敎) 관직에 있는 아들 오정근(吳正根, 1868~?)에게 한글로 쓴 편지.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오정근은 1891년(고종 28) 10월부터 1894년(고종 31) 3월까지 검교대교(檢校待敎)로 재직	
152	을해년 매향 한글 고목	서021437	을해년 9월 초8일에 순천의 매향이 서울 흥현의 사또에게 한글로 써서 올린 고목(告目)	
153	훈민정음운해(訓民正音韻解)	교430	1938년, 조선어학회. '훈민정음운해'는 1750년(영조 26) 신경준(申景濬) 저술. '훈민정음에 대한 최초의 한글 연구서로, 한글의 창제 원리를 그림과 함께 역학적으로 해설. 실물은 수사본 1권이 김원근 씨에게 소장되어 있었는데 소장자의 허락으로 전문을 『한글』지 상에 원문대로 연재. 이를 다시 합하여 단본으로 간행. 언어는 한문 세로쓰기	
154	수정증보 한글맞춤법 통일안 강의	교과서 007897	1949년, 이희승 지음. 박문출판사.	
155	한글공문사전	교과서 007896	1958년, 동원사	
156	초등소학	교13	1907, 국민교육회, 초등 국어 교과서.	
157	초등대한지 지 전	교16	1907, 초등 지리 교과서.	
158	최신 초등소학	교22	1908, 옥호서림.	
159	초등국어독본	교474	조선총독부, 1939.	
160	병인가례시명 백자청화수복문호	서002903	 문화유산자료. 1866년 고종과 명성황후 가례 때 사용. 굽 주변에 한글로 '병인가례시큰던고간대동쇼이십독'이라는 명문. 병인년 고종 가례 때에 대전 공간에서 쓰인 대.중.소 200개의 그릇 중 하나	
161	묵서명 백자편	서048854,	- 서48855, 서 48856, 서48858, 서48863, 서48864, 서48865, 서48868, 서48870 - 조선 시대. 종묘광장 출토. 당시 한양에 거주했던 사람들의 이름으로 보이는 '고비', '甘德', '감조' 등의 글씨가 쓰여 있는 백자편	
162	'큰던고간대동쇼이십독'이 새겨진 백자 접시		조선. 종묘광장에서 출토된 백자 접시. 대전에서 쓰기 위해 만든 대.중.소 70개의 접시 중 하나.	
163	'명미가례시순화궁고간대동쇼삼십	서001202	1847년. 헌종과 경빈 김씨의 혼례 때 경빈 김씨가 거처한 순화궁에서 쓰	

	둑'이 새겨진 백자 접시		기 위해 만든 대종소 30개의 접시 중 하나	
164	'덩유가례시큰던고간이뉴오'가 새겨진 백자 그릇		1837년. 헌종과 효현왕후의 혼례 때 대전에서 쓰기 위해 만든 20개의 그릇 중 5번째 그릇. 서상현 기증	
165	자모	2012 - 기 -118-6	1950년대. 박한수, 백경원 기증.	
166	납활자	2012 - 기 -118-3	1960년대. 박한수, 백경원 기증. 납활자 인쇄기술은 근대기의 대표적인 인쇄술로 한국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1883년에 일본에서 인쇄기구를 수입하여 박문국(博文局)을 설치하고 『한성순보(漢城旬報)』 창간한 이후	
167	대한제국기 전차표 (한미전기회사 차 타는 표)		전차표 1904년경. 1899년 5월 20일 콜브란(H. Collbran)과 보스트윅(H.R. Bostwick)가 세운 한성전기회사(漢城電氣會社)에서 처음 전차 운행을 개시하였는데 1904년 이후 회사의 자본난으로 미국의 자금을 빌려 쓰면서 회사명을 “한미전기회사”로 바꿈	
168	서유견문(西遊見聞)	서054076	1895년. 유길준의 서양 기행문이자 국정개혁서	
169	조선전보국 전보	서017103	1887년 9월 23일. 서울 사는 김치삼이 대구 신승지에게 보내는 전보. 이진법 체계의 모스 부호와 같은 원리로 보내지며 요금은 언어, 글자 수와 거리에 따라 차등	
170	우표	서046879	1884년 11월 18일 우정총국이 업무를 개시하면서 사용한 우표. 당시 통화화폐의 단위가 ‘문’이기 때문에 ‘문위우표(文位郵票)’로 불렸으며, 5문, 10문, 25문, 100문 등 5종이 있음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국어사 자료 소개”에 대한 토론

허인영(인하대)

역사 등 다른 전공자들로부터, 국어사 전공자들은 박물관에 가도 전시되어 있는 다양한 유물 가운데 전적 자료에만, 그 외의 자료라고 하더라도 글씨가 없으면 급격히 관심이 떨어진다.는 편견을 들곤 합니다. ‘한국의 박물관 속 국어사 자료’를 주제로 삼은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그러한 관성에 좋은 자극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아, 이런 자료도 있었구나!’ 하는 깨달음과 함께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도자기나 유리 건판으로 남아 있는 자료들은 분량의 측면에서는 지대한 기여를 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해당 자료들의 성립과 보존 과정에 대한 탐구를 통해 보다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지만, 토론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몇 가지 초보적인 질문과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차자표기 자료

- 충주고구려비(중원고구려비)의 3면설과 4면설에 대해: 1999년에 고구려연구회가 주도한 정밀 조사를 통해 뒷면에서 일부 글자가 판독됨으로써 4면비라는 사실이 확정되었다(고광의 2019: 37-38)고 알고 있었습니다. 발표문에서는 “최근에는 전면의 제액(혹은 기년)이 판독됨으로써 3면비설(전면-우면-좌면)도 주장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전면의 제액 판독과 3면비설의 관계에 대해 보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송성문 기증자료: 여말선초 시기의 음독구결이 기입된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보물 제759호)은 이른바 ‘송성문본 능엄경’으로 차자표기 연구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자료 가운데 <음주전문춘추팔레스말좌전구독직해>는 조선 초에 간행된 책에 기입된 구결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만 e뮤지엄에서 제공하는 사진을 참고하면 <도 2>에 제시한 사진은 인쇄된 면이 아니고 멸실된 부분을 후대에 필사로 보충한 것으로 보입니다. 뒷부분 사진에서 인쇄된 본문과 필사로 보충된 부분에 모두 구결이 있는 것을 보면 필사 및 구결 기입 시기가 상당히 후대일 것으로 추정되는데(본문의 훼손이 고의적인 것이라기보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 발표자 선생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 이건희 기증자료: <예기>(건희06335)는 조선 전기 유경 자료에 주목으로 구결이 달려 있습니다. 중국, 일본, 베트남에 비해 한국의 한문 독해 자료에는 주목이 잘 쓰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혹시 발표자께서는 해당 자료 외에 주목으로 구결이 달린 다른 자료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특히 한반도에서 주목 기입 자료가 적은 이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 한글 자료

- 이건희 기증자료: <한글로 지명이 적힌 세계지도와 도별 지도첩>(건희04183)은 조선 후기에 흔히 보이는 천하도와 팔도 지도, 일본 지도가 하나의 첩으로 결합되어 있고 지명이 한글로 표기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작성 시기가 궁금했는데, 표기의 측면에서는 글씨체도 그렇고 ‘하(下)’를 ‘ㅎ.’로 적거나 ‘라(羅)’를 ‘ㄴ.’로 적는 등 19세기 후반의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림의 측면에서도 말미의 금강산 그림은 19세기 후반에 유행하던 스타일이고, 바다를 온전히 파란색으로 칠한 것은 이전의 지도와 다른 서양 화법의 영향이 느껴진다고 합니다(한국학중앙연구원 윤민용 선생님의 코멘트).

- 지정문화재급 국어사 자료: <한글 묵서 다완>(증7060)은 2008년에 정광 교수가 최초로, 2009년에 백두현 교수가 다시 판독과 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백두현 2009; 정광 2020). 백두현(2009)에는 일본의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또 다른 한글 묵서 백자에 대해서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정광(2020)에는 사쓰마(오늘날의 가고시마)의 한국어 자료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되어 있는데, 일본에 끌려간 한국인들이 남긴 자료에 대해서도 더 찾아보면 국내외에서 더 많은 자료가 발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자료의 공개에 대해

도서관에서 고도서의 이미지 촬영과 온라인 공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박물관에서 전적류는 다른 유형의 유물과 비슷하게 취급되어 표지, 권수, 권미 정도의 사진만 공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어사뿐만 아니라 박물관 소장 전적의 텍스트의 내용이 중요한 여러 분야의 연구에 있어서 적지 않은 제약으로 작용합니다. 예컨대 최근 서울역사박물관에 소장된 <노걸대신석연해> 권2의 경우도 이미지를 몇 장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해당 자료를 직접 열람하더라도 이미지 촬영 및 공유가 매우 제한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 내지 개선하기 위해 박물관과 연구자 모두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 발표자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고광의(2019). “충주 고구려비 판독문 재검토”. <충주 고구려비 발견 40주년 기념 학술회의>. 동북아역사재단. 36-68.

백두현(2009). “도자기에 쓰인 한글 銘文 해독”. <미술자료> 제78호. 국립중앙박물관. 205-218.

정광(2020). <조선가>. 김영사.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국어사 자료 소개」(이상백)에 대한 토론문

김 봉 좌¹⁾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된 국어사 연구 대상의 기록물과 유물들을 총괄하여 다룬 논문으로서, 이두로 표기된 녹권 등의 고문서(의궤와 등록 포함)를 비롯하여 한글로 쓴 발기(件記), 편지, 보자기, 복식, 현판, 각종 기명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을 자세하게 소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구자들이 박물관 소장 유물을 탐색할 때 전시도록 등 각종 자료집과 공식 홈페이지 및 e뮤지엄의 웹사이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거시적인 안목에서 전반적인 특징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반해 이상백선생님은 오랫동안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근무하셨던 경험을 십분 발휘하여 국어사 연구에 대상이 될 만한 자료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소개해 주셨기 때문에 관련 연구자들에게 큰 힘이 될 듯합니다.

저는 조선시대 한글 기록물에 관심이 많은 연구자 중 한 사람으로서 몇 가지 의문점을 질문하는 것으로 토론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1. 이두 및 구결 관련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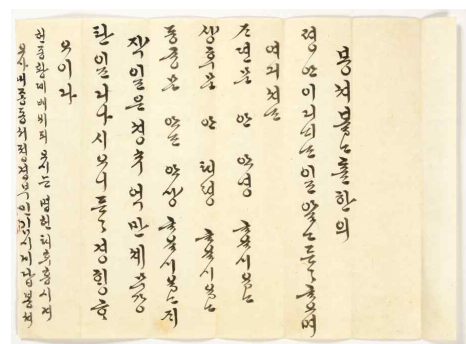
조선시대 한글뿐만 아니라 이두가 사용된 녹권과 이두문서를 수록한 의궤 및 등록을 소개해주셔서 이두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낱장 형태의 이두 문서가 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지의 여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불교 경전 등의 ‘구결 자료’ 또한 그 소장 여부가 궁금합니다.

2. 복온공주와 덕온공주의 한글 편지 전래 경위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한글 발기는 박부자선생님의 논문을 통해 소개되었지만, 한글 편지의 경우 명성황후의 편지 외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복온공주와 덕온공주가 전래 한글 편지에 대해 간략한 내용과 소장품번호까지 자세하게 소개해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복온공주와 덕온공주의 한글 편지가 박물관으로 들어오게 된 경위가 궁금합니다.

3. 윤백영의 기록에 대한 신뢰도

덕온공주에게 전해 온 한글 편지 가운데 ‘명성황후 편지(고궁3554)’에 수신자의 자손인 윤백영 여사가 쓴 편지 정보의 신뢰도를 문제 삼으셨습니다. 곧 ‘헌종황제 배위되오시는 명헌태후흥시겨오사 내종동서 정경부인김시계 답봉서’라고 쓴 것을 오류로 파악하시고, 발신자는 ‘명헌태후 흥씨’가 아니라 ‘명성황후’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편지의 내용에 동궁의 안부를 적고 있으나, 헌종은 세자가 없어 명헌



왕후가 작성자가 될 수 없으며, 문장의 종결어가 상대경어법이 ‘호쇼셔’가 사용되고 있어 윤용구 부인에게 보낸 다른 편지들과 함께 볼 때 발신자는 명성황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셨습니다.

1)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연구교수

니다. 그렇다면 윤백영여사의 글에 대한 신뢰도 문제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4. 한글이 새겨진 왕실 기물에 대한 학제간 연구의 필요성

한글이 새겨진 왕실 기물은 미술사 분야에서 ‘명문(銘文)’이 새겨진 기명 또는 자기로 일찍부터 주목받았습니다. 명문의 종류를 생산지에서 새긴 것, 소비지에서 새긴 것, 목서로 쓴 것으로 분류하거나, 기물의 종류·모양·문양 등을 세밀하게 구분하여 명문의 내용과 비교하는 등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미술사 분야와의 학제간 연구로 ‘한글이 새겨진 왕실 기물’에 대해 연구한다면 보다 다양한 역사적 사실들을 규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곽희원(2015), 「조선후기 왕실자기의 명문과 의미」,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곽희원(2016), 「조선후기 궁원제와 명문기명」, 『미술사학』 32, 한국미술사교육학회.

김귀한(2021), 「조선 15~16세기 내수사의 왕실 관련 명문자기 생산과 한계」, 『중앙고고연구』 35, 중앙문화재연구원.

김윤정(2014), 「조선 16세기 백자에 표기된 왕실 관련 한글 명문의 종류와 의미」, 『한국학연구』 51,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박정민(2012), 「조선 전기 한글 명문이 있는 자기의 특징과 의미」, 『미술사와 문화유산』 1, 명지대학교 문화유산연구소.

박정민(2014), 「조선 전기 명문백자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5. 왕실 기물에 새겨진 ‘이뉴’의 의미

왕실 기물에 새겨진 한글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한 사례로서 질문드립니다.

홀보의 ‘조경던 고간 이뉴’, 목반의 ‘조경던 고간 이뉴’, 대합의 ‘웃던 고간 이뉴’, 접시의 ‘계미 이뉴’로 표기된 것이 눈에 띕니다. 이에 대해 목반의 경우 “갑진년에 제작하여 자경전에서 사용하기 위해 곳간으로 보내진 대중소 크기의 300개 중 하나”로 해석하셨는데, ‘이뉴’를 옮겨서 보관한다는 뜻의 ‘移留’로 보신 걸까요? 그렇다면 장소 명칭이 없는 접시의 ‘이뉴’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홀보(창덕8079)	목반(창덕26057)	대합(고궁3469)	접시(종묘3521)

6. 자료의 접근 방법

국립고궁박물관 공식홈페이지와 e뮤지엄 웹사이트에서는 이 글에 소개된 ‘소장품번호’로 검색되지 않는 유물들이 많았습니다. 자료 접근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해주셨으면 합니다.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국어사 자료 소개 - ‘한글’ 키워드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김미미(국립한글박물관)

본 발표는 국립민속박물관이 소장한 ‘한글’ 관련 국어사 자료의 현황과 특징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민속박물관의 국어사(한글) 자료 수집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박물관은 연구자들이 일반적으로 접하는 영인본·입력본·사진·복제품 등 2차 자료의 원본이 집적되어 있는 공간으로, 학계와 박물관은 학술 연구의 정밀화 및 연구 결과의 대중화를 위해 상호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발표를 통해 학계에서는 쉽게 알 수 없는 박물관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문화유산관리시스템)의 구축 배경과 체제, 민속박물관에 소장된 국어사 자료의 등록 및 관리·분류 체계 현황 등을 알 수 있어 도움이 되었습니다. 발표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두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한글’ 키워드를 통한 검색 결과의 완전성

‘한글’이라는 단일 키워드와 ‘명칭/이명칭, 용도/기능, 특징’이라는 검색 옵션을 사용하여 민속박물관 소장 국어사(한글) 자료 현황을 파악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입니다.

① 동일 유형의 자료이지만 ‘한글’이 설명에 없는 경우, 검색 결과에서 누락
예) [사회생활-교육-교과용도서] 중 ‘초등공민’

○ (민속54459) 미군정시기 국민학교 1·2학년용 공민 교과서. 1946년 5월 5일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 발행. 저작 겸 발행자 군정청 문교부. 표지 2장. 내지 9장. 정가 1원 50전. ... 앞표지에는 ‘초등공민’, ‘군정청학무국’ 등이, 내지에는 태극기와 태극기 만드는 법 및 각 단원별로 **한글**, 단군임금, 우리 조선 등의 내용이 인쇄됨.

○ (민속40957) 초등학교 5·6학년 공민교과서. 1946년 군정청 학무국 발행, 표지 2장, 본문 48쪽. 내지 2장. 가격 4원 50전. 도덕, 사회, 역사 등의 내용이 수록됨.

② 설명에 포함된 ‘한글’의 맥락과 중요도 상이

예) [문화예술-서화-회화-민화] 중 ‘문자도’

○ (민속31435) 윤리문자를 도안하여 그린 그림. 지본수묵. 8폭. ... 각 폭의 하단부에는 그림의 소재가 되고 있는 이야기에 대한 설명이 **한글**과 한자로 적혀 있음.

③ 한글로 기록되지 않았지만 ‘국어사’ 또는 ‘한글’ 자료로 분류될 수 있는 자료의 누락(차자표기 자료, 언해 관련 한문 자료, 한글 관련 인물 자료 등)

2. 시대별 자료 수량 대비 ‘한글’ 자료의 비중

발표문에서 민속박물관 소장 ‘한글’ 자료를 ‘조선(398건), 일제강점(317건), 대한제국(71건)’ 과 같은 절대 수량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각 시대별로 전체 자료 수량 대비 ‘한글’ 자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를 함께 제시해 주시면(조선시대 소장품 N건 중 한글 자료 398건), 경향성 파악에 더욱 도움이 될 듯합니다.

3. 박물관 대민서비스 플랫폼 상, 소장자료 현황 파악의 한계

①실제 소장자료 > ②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
③e뮤지엄¹⁾(103,183건/2025.1.기준), ④박물관 누리집(111,138건/2025.1.기준)

- ①번: 박물관이 실제 수집하여 소장하고 있는 자료
②번: ①번 중 정식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시스템에 등록 및 관리되는 자료
③번: ②번과 시스템상으로 연계되어 있으나, 그중 일반 공개가 가능한 자료(저작권 미해결, 개인정보 포함, 특수자료 등 제외)
④번: ③번과 유사하나, 박물관마다 공개 범위 및 방식 상이

일반에서 박물관 소장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플랫폼은 대개 ③, ④에 해당합니다. 박물관에서 입수한 자료를 학계 및 일반에 빠르게 제공할 수 있도록 ①~③간의 간극을 좁히고자 노력하지만, 공개 전 처리를 위한 인력과 시간에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특정 자료가 박물관에 입수된 것을 알고 있지만, 등록 및 공개 이전에는 연구에 활용하기 어려워 난감한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서책, 고문서, 편지 등 지류 자료는 한 해 입수자료의 점 수가 매우 많고, 등록을 위한 내용 파악에 비교적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더욱 그러합니다.) 기관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비슷한 고민이 있을 줄로 생각되어, 이 문제에 관한 발표자의 의견을 여쭙습니다.

국어사 자료의 비중이 높은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다른 기관에 소장된 국어사 자료에 대한 궁금증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발표를 통해 민속박물관에 소장된 다양한 유형의 국어사 자료와 수집 경향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e뮤지엄’은 전국 국·공·사립, 대학 박물관 중 373개 기관이 소장한 자료의 통합검색 누리집(2025년 1월 17일 기준 373개 기관, 2,694,348건 공개 중).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국어사 자료 소개- 어류다반(語類茶飯)을 중심으로 -에 대한 토론

정 승 혜(수원여대)

이 글은 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서울역사박물관 소장유물 목록〉(약 10만여 점)에서 국어사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를 선별하여 소개한 글이다. 우선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귀한 자료를 소개해 주신 박현욱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1. 발표문 제목에 ‘어류다반(語類茶飯)을 중심으로’라는 부제가 붙어 있으므로 먼저 『어류다반』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한다.

<발표문 요약> ◎ 어류다반초요(語類茶飯抄要) / 서042325

- 조선 말기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어휘집
- 약 500개의 어휘 수록
- 풍습, 놀이, 공구, 악기, 마구(馬具), 회화 용어, 질병, 음식, 채소, 과일, 화초, 동물, 곤충, 천문(별자리) 등 여러 분야 용어 소개
- 중국 한자 표제어 밑 우리식 한자 표기 또는 한글 풀이
- 물명에 대하여 한문 또는 한글로 풀이

○ 장구(藏鉤)는 일명 장구(藏鬪)이다.

○ 象碁 장긁기 今所謂象碁爲博非也. 我國本無博戲. 博者梟盧雉兔之目. 陶侃所謂牧猪奴戲也.

○ 四木戲 윷 此戲惟我國有之. 世傳我國高汚農作此戲云

- 몰골도(沒骨圖), 백묘(白描), 수묵화(水墨畫), 초묵화(焦墨畫), 지두화(指頭畫), 배채(北采), 준법(峻法) 등 회화 기법 관련 용어

- 골동반(骨董飯) : 부비음밥

- 鰈魚 一名 簍葉魚 一名 比目魚

有大小種크거슨광어적근거슨가즈미

- 호박, 담배(淡婆), 검은 참깨, 들깨, 파자마, 벗무우, 섷무우, 백채(白菜), 딸기, 사과 등

- 寶相花 당질레꽃

- 曼陀羅 一名 山茶 卽今俗名冬栢

- 水晶瓜 흰참외

- 五金 ; 黃金(금), 靑金(鉛, 납) 白金(銀, 은), 紅金(銅, 구리), 黑金(鐵, 시우쇠)

기존 물명류 자료와 대조, 비교 연구 가능.

자료소개에 대한 첨언(添言)

- 기존 국어사의 서지 분류 방식에 따라 재분류해야 함.

◎ 노걸대신석언해(老乞大新釋諺解)(시유형유산 제599호) / 서022099

- 『노걸대신석』은 1761년(영조 37년) 김창조, 변헌 등이 고본 노걸대를 수정하여 간행
- 『노걸대신석언해』는 『노걸대신석』을 한글로 번역하고 중국어 음을 단 것으로 1763년(영조 39) 교서관에서 간행.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노걸대신석언해』는 상태가 양호하며 현전하는 국내 유일본으로 알려져 있음. 서울시유형유산 제599호로 지정.

: 『노걸대신석언해』: 미국 컬럼비아대학에 소장본 권1

: 서울역사박물관본은 권2 (박철민 2018 참고)

◎ 이학지남(吏學指南) / 서022180

- 1301년(충렬왕 27) 원나라 서원서(徐元瑞)가 편찬한 관아 실무 관리들을 위한 법률·행정 용어 사전
- 조선에서는 1423년(세종 5)에 50부 간행.
- 『이학지남』에 수록된 다양한 법률·행정 용어와 이문(吏文)의 어휘가 영조 대 이의봉에 의해 『고금석림』에 ‘원명이학(元明吏學)’이란 편명으로 정리된 점으로 보아 어문학상으로도 중요.

: 『이학지남』은 중국 元대에 간행된 漢吏文의 특수 어휘집이다.

: 국립중앙도서관(古6026-3) 및 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中 2180) 소장.

: 초간본이 아니라 목판본으로 보이며 규장각본의 跋文은 세조 4년(1458) 慶州府에서 당시의 부사 柳規와 참판 趙信孫의 명으로 李云俊이 쓴 것으로, 경주에서 목판으로 간행한 경위를 적어 놓았는데, 국립도서관본의 서문과 같은 필체(정승혜 2001 참고)

◎ 광장양문록(郭張兩門錄) / 서028896

- 1773년 추정. 정조의 여동생 청연공주, 청선공주, 궁녀 덕임(훗날 의빈 성씨) 등이 궁체로 필사.
- 작자 미상의 가문 소설. 중국의 광씨와 장씨 두 가문이 어려움을 딛고 함께 번영을 누리는 이야기
- 각권 하단에 ‘의빈글씨’, ‘궁○적’, ‘경희’ 등이 묵서된 꼬리표가 부착되었다.

◎ 소헌몽록(小軒夢錄) / 서007706

- 필사본. <소헌몽록>이라는 소설 1편, <궁녀사>, <농승가>, <답승가>, <양양가> 등 가사 4편 <취옹정가>, <적벽부>, <후적벽부> 등 한문 3편, 마지막으로 <소학> 중의 일부 수록. 궁중에서 비빈들이 읽기 위해 필사한 것으로 보임

- 연구 안 된 자료.

- 지은이 미상. 한글필사본. 책표지에는 ‘소헌몽록(小軒夢錄)’이라고 되어있으며 내용은 <소헌몽록>이라는 소설 1편, <궁녀사>, <농승가>, <답승가>, <양양가> 등 가사 4편 <취옹정기>, <적벽부>, <후적벽부> 등 한문 3편, 마지막으로 <소학> 중의 일부가 실려 있다. 단아한 글씨체로 보아 궁중에서 비빈들이 읽기 위하여 여러 작품을 옮겨 써서 엮은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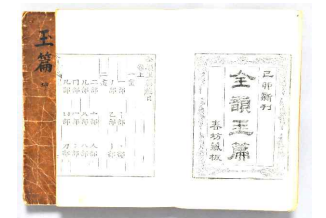
- <소헌몽록>은 한 선비가 ‘小軒’이라는 정자를 짓고 못을 파고 그 주위에 화초를 심었는데, 소헌에서 깜박 잠이 들어 곧 두 번의 꿈 이야기를 적은 것이다. 내용은 주인공이 꿈속에서 어떤 나라에 초대받았는데, 한 번은 그 나라 임금이 명들어 있었는데, 깨어나 보니 모란이 시들어 있어 이것을 옮겨 심었고, 또 한번은 그 나라 대신들이 서로 얹혀 싸우고 있었는데, 깨어나 보니 꽃들이 서로 엉켜있었으므로 깨어나 꽃들이 엉키지 않게 옮겨 심어 정원을 잘 가꾸었다는 이야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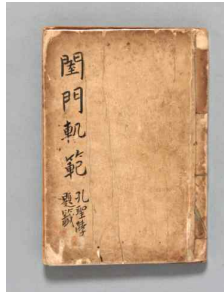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유물 검색 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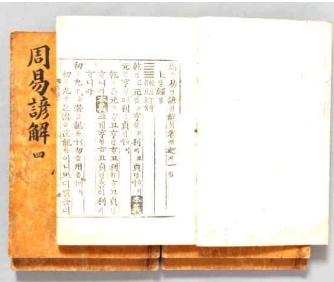
https://museum.seoul.go.kr/www/relic/RelicList.do?q_ctgCd=1001&ss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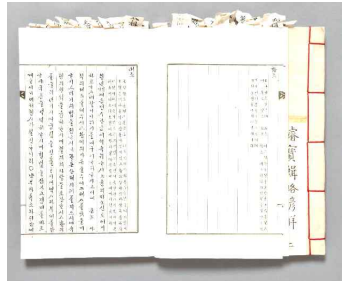
<서울 역사박물관 소장 유물목록(전 3,035쪽) 중 발표문 누락 자료>

연번	유물명	유물번호	구분	비고
1	어정규장전운	000140 007356 008503 008504 008508 008509 023973 023974		근대(19~20세기초)
2	전운옥편	000034 007364 008496 008500 018690 023975 023976		19세기
			007364	기묘신간
3	척사운음	000696		1839년 헌종이 천주교의 폐해를 막기 위해 백성들에게 내린 교서. 운음.
4	대승기신론소기회편	000940		1695 / 구결 유무 확인 필요



연번	유물명	유물번호	구분	비고
5	언해도상동몽초학	001314		조선말기 조선 중기 학자 박세무(朴世茂)가 서당 교재로 엮은 책인《동몽선습》을 한글로 풀이하고 그림을 덧붙인 책. 가로 : 18.9cm 세로 : 26.9cm
6	벽운신방	001352		조선후기 의관 안경창이 왕명으로 온역(瘟疫)의 치료에 관하여 1653년(효종 4)에 편찬한 의서.
7	월인석보	014254		근대(20세기)
8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001518		두루말이. 구결 확인 필요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001519		구결 확인 필요
9	규문궤범(閨門軌範)	001764		 1915. 최한기 편저. 저자는 왕성순(王性淳)[경암(敬菴)]으로 보이며 권두에 왕성순(王性淳)과 김근용(金謹鏞)의 서(序)가 있고, 말미에 진상우(秦尙友), 최치훈(崔致勳), 이기소(李箕紹), 공성학(孔聖學)의 발(跋)이 있다. 본문은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옆에 그에 대한 해제가 함께 쓰여 있다. 15.9cm * 22.8cm
10	선가귀감	002111		구결 확인
11	논어언해	007335 007715		1820년

연번	유물명	유물번호	구분	비고
				007715 
12	맹자언해	000026 007717		000026 
13	중용언해	000027 007718		000027 
14	시경언해	007344		1820년
15	주역언해	007352		1820년 
16	동의보감(東醫寶鑑)	007414		조선후기에 嶺南監營에서 간행한 목판본
17	어록해	007430 014265 024118		조선후기
18	주해어록총람	014186		조선말기~일제강점
19	신증동국여지승람	013179 015916 007922 007670		조선후기. 지명 연구

연번	유물명	유물번호	구분	비고
20	소학언해	007719		
21	경험방	024073		의서. 조선(미상)
22	명의경험방(名醫經驗方)	007732		의서. <참고> 장서각 PC7-4 木板本(坊刻本) 孝橋. 不分卷1冊:四周單邊, 半郭21 × 14.6cm, 10行 28字, 上二葉花紋魚尾:28.4 × 18.7cm
23	신찬벽온방	007913		조선시대 의학자 허준이 온역의 원인과 치료법 등을 기술하여 1613년에 간행한 의서. 『동의보감』보다 앞섬.
24	계몽편언해	007733		『啓蒙篇』원문에 한자음과 한글 구결을 달고 언해한 책. 1915
25	선보집략언해	007915		대한제국기  『선보집략(璿譜輯略)』을 언해해서 엮은 책. 태조 이성계의 고조부인 목조(穆祖) 이안사(李安社)에서부터 25대 철종까지의 세계를 정리하고 있는데 필사본으로 되어 있다. 각 왕별로 묘호(廟號)와 시호(諡號), 휘(諱), 자(字), 세자 책봉 및 즉위·승하시기, 재위 년수, 향년과 자녀 수, 능호를 기록하고 왕후의 시호, 본관, 부친, 출생 및 승하시기, 향년, 자녀 수, 능호를 적는다. 다음에는 비(妃)에서 난 왕자와 공주(公主)를, 그 다음에는 빈(嬪) 이하에서 얻은 왕자와 옹주(翁主)를 나열하고 왕자는 어머니와 혼인 관계를, 공주와 옹주는 어머니와 함께 부마를 기록한다. <참고> 장서각본은 효종까지.
26	십구사략언해	014188		1833년
27	번역명의집(翻譯名義集)	007918		세조 연간(추정)에 판각한 목판으로, 송나라의 법운이 불교경전에 나오는 범어를 종류별로 분류하여 정리한 사전. 불교용어사전. <참고> 계명대 도서관본 - 보물 지정
28	오대진언	007919		「사십이수진언」등 5종류의 진언을 범자로 적고 한자의 음역을 대조하여 1485년에 간행한 불교서. 진언집.

연번	유물명	유물번호	구분	비고
29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언해	007924		권4. 언해 포함
30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003462		구결 다수 포함 17.8cm * 29.6cm
31	신보휘어(新補彙語)	008474 008487		金搢 (1585~?)이 각종 어휘를 중국의 여러 서적에서 발췌하여 綱目別로 편찬한 類書. <참고> 장서각 K3-665
32	신편휘어	024026		조선(미상)
33	전운옥편	008496		『규장전운』의 부편으로 편찬된 자전. 옥편.
34	소학언해	008497		조선 후기
35	삼강행실도	008673		17-18세기
36	한글간찰	008880 025852		조선후기 20세기전반
37	천자문	001891 002769 008944 015197 021766 023972		조선후기
38	동몽선습	008945 018691 014288		014288(1891)
39	어제동몽선습	014286		1818년
40	구급방	011026		
41	계몽편언해	023970 023971		조선후기
42	주해천자문	014336 042327		19세기
43	일선언해천자문	014292		한국/일제강점기/1910~1920
44	조웅전	027217		
45	슈기직분가	014256		1929년
46	활인경세가	014257		1929년
47	창선가	014258		1929년
48	도덕가	014259		1929년
49	창도가	014260		1925년
50	창덕가	014261		1932년

국어사학회·구결학회·국립민속박물관 공동 2024년도 겨울 전국학술대회

연번	유물명	유물번호	구분	비고
51	창도가	014262		1932년
52	동학가사	027226		근대

<연구윤리 규정>

국어사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국어사학회 연구윤리 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국어사학회 회원이 준수하여야 할 연구에 관한 윤리 및 그에 대한 위반 시의 제재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논저자의 연구윤리

제3조(표절 금지) 논저자는 논문이나 저술에 사용된 연구 자료, 내용, 방법 등에서 자신이 직접 행하지 않은 것을 자신이 행한 것처럼 제시하여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연구 자료, 내용, 방법 등을 인용하거나 참조할 경우 반드시 그 출처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 업적의 인정과 기여도 표시)

1. 논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논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자신의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논저자가 여럿일 경우에는 순수하게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순위를 정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논저자 중에 상대적으로 지위가 높다는 이유로 제1저자로 하거나, 연구 및 저술에 실질적인 기여가 없음에도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려서는 안 된다.
3. 논저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연구에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중복 게재 및 이중 출판의 금지) 논저자는 이미 간행되었거나 게재 예정 또는 심사 중인 자신의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전재 또는 개정 및 번역하여 출판할 경우에는 이 사실을 편집자나 발행인에게 분명히 밝혀야만 한다.

제6조(인용 및 참고 표시의 의무)

1.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비공개 자료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자료 제공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2. 다른 사람의 글 또는 아이디어를 인용 또는 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를 달아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제3장 학회지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연구윤리

- 제7조(공정성의 의무) 학회지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투고자의 성별, 연령, 출신 지역 및 학교, 소속과 지위 등과 관련한 선입견이나 친분 관계와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심사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
- 제8조(심사위원 선임 조건) 투고자와 사적인 친분이 많거나 그와 반대로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은 선임 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편집위원회 관련당사자의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출판이사, 출판 간사 등 편집위원회 관련당사자가 학회지에 투고했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해당 논문에 대한 심사 의뢰 및 게재 여부 등을 의결할 때에는 관련당사자를 껄적시킨 가운데 행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 유지의 의무) 학회지 편집위원 및 편집간사와 심사위원은 논문 투고자의 인적사항, 투고 내용, 심사 결과 등 심사와 관련된 일체 사항을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 제11조(심사 부적합 통지의 의무) 선임된 심사위원이 자신이 심사자로서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성실 심사의 의무)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의 논지를 충분히 이해한 후 평가를 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의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대상 논문을 저평가하거나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 제13조(평가 근거의 명시 의무) 심사서에는 심사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자신의 판단을 밝히고,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14조(정중한 표현) 심사위원은 투고자의 인격과 독자성을 존중하여 심사서에 투고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피하고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 제15조(심사 논문 유출 금지) 심사위원은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심사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의하여서는 안 되며, 심사 논문이 학회지에 수록 출판되기 전까지 논문의 내용을 유출해서는 안 된다.

제4장 윤리규정의 시행 및 제재

- 제16조(윤리규정의 준수 의무) 학회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7조(윤리규정 위반 행위의 제보) 학회 회원 또는 학회지 투고자나 심사자가 윤리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이 사실을 인지한 제보자는 학회의 사무소 또는 임원

에게 직접 또는 전화나 서면, 전자우편으로 제보할 수 있다. 제보자의 자격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제보할 때에는 구체적인 증거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8조(제보의 접수) 학회의 사무소 또는 임원이 윤리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으면 지체없이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회장은 보고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윤리위원회의 소집으로써 제보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제19조(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윤리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제보 내용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한 윤리위원회를 둔다. 윤리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이 호선한다.

제20조(윤리위원회의 조사) 윤리위원회는 제보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윤리위원회가 소집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시 1회에 한하여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단, 사안이 이미 발행한 학회지 게재 논문의 표절 또는 중복 게재와 관련된 경우에는 윤리위원장이 편집위원회에 제보 사실을 지체없이 알려 논문에 대한 조사 및 사후조치를 위임한다.

제21조(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피조사자에게는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2조(판정 및 통보) 윤리위원회는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윤리규정 위반 여부를 윤리위원 2/3 이상의 동의로 판정한다. 판정이 이루어지면 윤리위원장은 지체없이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때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드러난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피조사자에 대한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회장은 판정 결과를 보고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판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피조사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회장과 윤리위원은 해당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24조(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보고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회원자격의 정지 또는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제5장 학회지 논문의 표절 및 중복게재에 대한 심사 및 조치

제25조(투고 논문의 제재)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이 표절 또는 중복 게재로 판단될 때에는 윤리위원회에 제보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편집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그 사실과 이유 등을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 때로부터 7일 내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26조(사후심사)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이 표절 및 중복 게재로 의심되어 윤리위원회에 제보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사후심사를 한다.

제27조(사후심사의 절차) 윤리위원회에서 논문의 사후심사를 의뢰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의뢰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사후심사를 진행한다. 사후심사는 다음의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1.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심사위원 3인을 선정하여 의뢰받은 논문에 대한 표절 및 중복 게재 여부를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서를 토대로 편집위원회에서 예비 결정을 내린다. 예비 결정은 심사를 의뢰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2. 편집위원장은 예비 결정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논문 필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논문 필자는 통보받은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 필자가 기한 내에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예비 결정 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3. 편집위원장은 소명서를 제출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의뢰받은 논문에 대한 표절 및 중복 게재 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리고,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장에게 알린다.

제28조(표절 및 중복게재에 대한 조치) 편집위원회에서 사후심사한 논문이 표절 또는 중복게재로 최종 판정된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학회 홈페이지 및 차호 학회지에 그 사실 관계 및 조치 사항들을 기록한다.
2. 학회지 전자판 및 논문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논문을 삭제한다.
3. 해당 논문 필자에 대하여 제명 조치를 하며, 이로 인해 제명된 자는 향후 5년간 학회에 재가입할 수 없고, 학회지에도 투고할 수 없다.

부칙

제1호 제1조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08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호 제1조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08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3호 제1조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14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타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윤리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口訣學會 研究倫理 規定

·2007년 11월 17일 제정

·2007년 12월 15일 개정

·2018년 7월 1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구결학회 연구윤리 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구결학회 회칙 및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른 연구윤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저자가 지켜야 할 연구윤리

제3조 (표절 금지)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제4조 (업적 인정)

1.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나 역자가 여러 명일 때 그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연구나 저술(번역)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제5조 (중복 게재 금지) 저자는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지 말아야 한다.

제6조 (인용 및 참고 표시)

1.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2.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註[각주(후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주장·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7조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제3장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

제8조 (책임 범위)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제9조 (논문에 대한 태도)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사 의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동일 기관 소속이거나 특수 관계이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 (비밀 유지)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4장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

제12조 (성실 심사)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13조 (공정 심사)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14조 (평가근거의 명시)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제15조 (비밀 유지)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5장 윤리규정 시행 지침

제16조 (윤리규정 서약) 구결학회의 신규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 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7조 (윤리규정 위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으

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학회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 문제를 학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8조 (윤리위원회 구성) 윤리위원회는 회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19조 (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단, 사안이 학회지 게재 논문의 표절 또는 중복 게재와 관련된 경우에는 ‘학회지 논문의 투고와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편집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고 사후 조치를 취한다.

제20조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제21조 (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2조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23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4조(규정의 개정)

1.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 3인 이상이 규정의 개정을 發議할 수 있다.
2. 재적 편집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하며, 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25조(보칙)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학회의 관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자) 이 규정은 2007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자) 이 규정은 200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자)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